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1 BIG QUESTIONS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Morality Pill · The Empathy Trap · Can Ethics Be Taught?
원서 PDF 29~36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약인가, 공감인가, 이성인가."

이 권은 사람이 왜, 어떻게 남을 돕고 옳은 일을 하는지 묻는 세 편을 묶었다. 「Are We Ready for a "Morality Pill"?」에서 저자는 다친 아이를 지나친 행인들과 낯선 이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나란히 놓고, 도덕적 행동의 차이가 뇌의 화학에 있다면 '도덕 알약'으로 행동을 바꾸는 일을 어떻게 볼지 묻는다. 「The Empathy Trap」은 공감이 오히려 우리를 불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폴 블룸의 주장을 소개하며 공감과 연민을 가르고 이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Can Ethics Be Taught?」는 이성이 정념의 노예라는 흄과 하이트의 견해를 검토한 뒤, 고기 먹기의 윤리를 토론한 대학생들의 고기 구매가 실제로 줄었다는 실험을 내놓는다. 세 편을 이어 읽으면 약 · 공감 · 이성 가운데 저자가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가 드러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감정은 옳은 일만큼 그른 일로도 이끌기에 윤리적 결정에서 이성이 결정적이다(33쪽 ¶5~¶7) / 뇌의 화학이 자연으로 정해지든 의학으로 정해지든 자유의 정도는 같다(30쪽 ¶6 ~ 31쪽 첫 줄) / 교실의 윤리적 추론이 학생들이 먹는 것을 바꿀 수 있다 – 두 번째 연구(35쪽 ¶6 ~ 36쪽 ¶1) / 공감에 반대하는 것은 연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33쪽 ¶3)
4~5	**밑줄 함축 의미**	far from the lens of a video camera / some people did the right thing / not far-fetched / the same objection / a darker side / cold, slimy, and unable to scream / One death is tragedy; a million is a statistic / numerical numbness / an inbuilt bias / the slave of the passions / the rider's job is to serve the elephant / post hoc rationalization / Perhaps. Yet … not entirely convinced
6	지칭 추론	they · their가 갇히지 않은 쥐와 실험자 사이를 오가는 29쪽 ¶7 ~ 30쪽 첫 줄 / it(30쪽 ¶4 = 약) · They too(30쪽 ¶5 = 범죄 가능성이 큰 사람들) / who(32쪽 ¶2 = 멕시코 · 중국 노동자) · He(32쪽 ¶3 = 트럼프) / she · he(33쪽 ¶3 = 타니아 싱어 · 리카르) / him(34쪽 ¶7 = 하이트) · They(35쪽 ¶3 = 대조군)
7~8	내용 일치·불일치	포산 2011 · 7분 · 런던 2004(29쪽 ¶1) / 밀그램 · 짐바르도 · 달리와 뱃슨(29쪽 ¶5) / 30마리 중 23마리(30쪽 첫 줄) / 편도체 · 옥시토신(30쪽 ¶3) / 리카르 · 타니아 싱어(33쪽 ¶3~¶4) / 1,143명 · 476명 · 약 6,000건 · 52→45%(35쪽 ¶3~¶5) / 51→42%(35쪽 ¶7 ~ 36쪽 첫 줄)
9~10	**어법**	as have others · knowing that · be prepared to V · if told · 전치사 + 관계대명사(about which · on whom) · 접속사 for · must lie in · It seems plausible that · Only then will we · that of · which is known to V · when swallowed · no matter how + 형용사 · either A or B · It is up to A to V · enable + O + to V · for whom should we · even worse off than … are · with + O + p.p. · than would have p.p. · be told to V · had been assessed as · To be against A is not to be against B · much less · lead + O + to V · one … the other · be to V · Among ~ are 도치 · reminiscent of · can't just A and B · nor are they · not entirely · than had ever been done · be made anonymous · did appear to · as far as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universal↔rare, voluntarily↔forcibly, reluctantly↔willingly, plausible↔implausible, stable↔volatile, far-fetched↔realistic, compatible↔incompatible, vivid↔dull, adverse↔beneficial, objective↔subjective, downplay↔emphasize, irrelevant↔relevant, supremacy↔inferiority, imprudent↔prudent, skeptical↔convinced, anecdotal↔systematic, darker↔brighter(32쪽 ¶3)
12	빈칸 추론	must lie in the rats themselves(30쪽 ¶1) / make no difference in how freely we act(30쪽 ¶7) / is in tension with(32쪽 ¶2) / large numbers numb the feelings(33쪽 ¶2) / ethical reasoning is powerless(35쪽 ¶1) / not dramatic, but … statistically significant(36쪽 ¶1)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문장 삽입	개인차와 뇌(30쪽 ¶1~¶3): 실험을 마지못해 인용하는 까닭 → 도울 준비의 연속선 → 상황 요인 · 도덕적 믿음 · 성향 차이 → Only then → 신장 기증자의 편도체 → 옥시토신
14	무관한 문장	공감이 엉뚱한 대상으로 향하는 대목(32쪽 ¶4~¶5: 새끼 물범 · 닭 · 로봇 · 물고기 · 백신)에 같은 권 다른 편의 사실(플라톤의 마차, 34쪽 ¶3)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포산 사건(29쪽 ¶1) → 영상과 런던 → 그러나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2~¶3) → 왜 어떤 이는 목숨을 거는가 · 밀그램과 짐바르도(¶4~¶5)
16	요약문 완성	공감이 불공정을 낳는 대기 명단 실험(33쪽 ¶1): 객관적이 되라 vs 아이의 느낌을 상상하라 → 4분의 3 vs 3분의 1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숫자 · 인물 · 뇌 부위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2011(포산) · 2004(런던) · 7분 · 30마리 중 23마리 · 1971(큐브릭의 영화) · 2016(『Against Empathy』) · 4분의 3 vs 3분의 1 · 99%(코끼리) · 2017(첫 실험) · 1,143명 · 476명 · 약 6,000건 · 52→45% · 51→42% · 2020 · 2021. 인물도 많다(밀그램 · 짐바르도 · 달리 · 뱃슨 · 버지스 · 큐브릭 · 오바마 · 블룸 · 클린턴 · 트럼프 · 스타인리 · 밸컴 · 리카르 · 타니아 싱어 · 플라톤 · 흄 · 하이트 · 슈비츠게벨 · 러스트 · 코클렛). 비슷한 숫자 쌍(52→45%와 51→42%, 2004와 2011, 1,143명과 476명)이 함정이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unpleasant ↔ pleasant, above ↔ below average, more ↔ less active, no change ↔ decline, without ↔ with the video). '~라고 해석한다'(interpret) · '그럴듯하다'(It seems plausible) · '~일 수도 있다'(It is possible) · '~할 수 있다'(may lead to)를 사실로 바꾼 선지, 블룸 · 흄 · 하이트의 견해를 저자(싱어)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Morality Pill · The Empathy Trap · Can Ethics Be Taught?」 (29~36쪽)

논증형 세 편. ① 사례(포산의 행인 · 영웅) → 물음(왜 사람마다 다른가) → 실험(밀그램 · 짐바르도 · 쥐) → 개인차와 뇌 → 도덕 알약 → 반론(자유의지) → 저자의 답. ② 오바마의 공감론 → 블룸의 반대 → 공감의 그늘(선택적 · 불공정 · 숫자 무감각) → 공감 vs 연민 → 이성. ③ 물음 → 플라톤 vs 흄 · 하이트 → 반증처럼 보이는 연구 → 저자의 의심 → 두 실험 → 결론. 핵심 축은 **타고난 성향 vs 자유의지, 공감 vs 연민 · 이성, 감정의 우위(흄 · 하이트) vs 이성의 힘(저자).**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9 ¶1	사례	2011년 포산 · 두 살 여자아이 · 7분 동안 열두 명 넘게 지나침 · 두 번째 트럭 · 병원에서 사망 / 영상 → 공분 · 2004년 런던에서도
29 ¶2~¶3	대조 사례	그러나 사람은 아주 다르게도 행동 / 'hero saves' · 해마다 수백 명이 낯선 이에게 신장 기증 · 극단적 친절도 그 반대처럼 거의 보편적
29 ¶4~¶5	물음 · 실험	왜 어떤 이는 목숨을 거는가 / 밀그램 · 짐바르도 · 달리와 뱃슨(신학생 · 착한 사마리아인) · 뇌 연구 → 도덕 행동의 동력에 다가섰는가
29 ¶6~30 첫 줄	쥐 실험	놓친 점 = 옳은 일을 한 사람도 있음 / 시카고 대학(윤리적 유보) · 초콜릿보다 동료 · 공감으로 해석 · 30마리 중 23마리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30 ¶1~¶2	개인차	원인은 쥐 자신에게 · 사람도 연속선 위에 있을 법 / 상황 요인 · 도덕적 믿음 + 타고난 성향의 차이도 알아야 함
30 ¶3	뇌와 화학	신장 기증자의 편도체 = 평균보다 크고 더 활발 · 옥시토신(가능성) · 생화학 조건을 바꾸는 약
30 ¶4~¶5	도덕 알약	허황하지 않음 · 감옥 대신 약물 이식 장치 · 스마트 알약 / 범죄 가능성 선별 · 거부하면 위치 추적 장치(물음 · 가능성)
30 ¶6	반론	버지스의 『A Clockwork Orange』 · 큐브릭의 1971년 영화 · 자유의지를 빼앗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많은 사람의 주장)
30 ¶7~31 첫 줄	저자의 답	자연이 정했든 의학이 정했든 자유의 정도는 같음 · 양립하거나 애초에 자유의지가 없었거나 / 곧 새로운 선택에 직면
32 ¶1	통념 · 반대	오바마 = 공감이 부족하다 · 널리 퍼진 견해 / 2016년 폴 블룸 『Against Empathy』 = 충격
32 ¶2~¶3	누구에게 공감하나	클린턴의 패배(분석가들) · 미국 노동자 vs 멕시코 · 중국 노동자 / 트럼프 · 케이트 스타인리 · 어두운 면
32 ¶4~¶5	선택적 공감	큰 눈의 새끼 물범 > 닭 · 로봇 · 물고기(밸컴) / 백신 거부 · 질병 피해가 더 큼
33 ¶1~¶2	불공정 · 무감각	대기 명단 실험 4분의 3 vs 3분의 1 / 한 명은 비극, 백만은 통계 · Decision Research · 숫자 무감각 · 더 큰 그림
33 ¶3~¶4	공감 vs 연민	리카르 · 타니아 싱어 · 연민 명상 중 공감 영역 활동 없음 · 공감 = 불쾌 · 지침 / 비명상가 훈련 · 더 친절한 행동 가능성
33 ¶5~¶7	이성	인지적 공감 · 심리학이 이성을 낮춤 · 무관한 요인 연구만 주목 = 내재된 편향 / 저자: 감정은 옳고 그름 모두로 · 이성이 결정적
34 ¶1~¶5	물음 · 고전	윤리 수업이 행동을 바꾸는가 · 이성의 역할 / 플라톤의 마차(이성의 우위) vs 흄(이성 = 정념의 노예 · 차분한 정념)
34 ¶6~35 ¶1	현대의 반론	하이트 = 코끼리와 기수 · 99% · 사후 합리화 · 교실 교육에 회의 / 슈비츠게벨 · 러스트 = 윤리학 교수도 더 낫지 않음
35 ¶2~¶5	의심 · 실험 1	일화적 증거 · 채식 · 기부 · 진로 / 2017 · 1,143명 · 식당 카드 476명 약 6,000건 · 52→45% · 기부 집단 변화 없음
35 ¶6~36 ¶1	실험 2 · 결론	2020 『Cognition』 · 영상은 절반만 · 2021 · 51→42% · 영상 없이도 변화 · 코로나19 / 극적이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도덕적 행동의 차이	상황 요인(밀그램 · 짐바르도 · 달리와 뱃슨)	상황 요인에 더해 사람마다 다른 비교적 안정된 성향(유전자에 뿌리를 둘 수도)
쥐 실험의 결과	쥐에게 공감이 있다(실험자들의 해석)	그렇다면 쥐마다 다르다는 것도 보여 줌(30마리 중 23마리)
도덕 알약	자유의지를 빼앗으므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A Clockwork Orange』 논쟁의 많은 사람)	뇌의 화학이 자연으로 정해졌든 의학으로 정해졌든 자유의 정도는 같다(저자)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공감의 평가	공감이 부족하니 더 키워야 한다(오바마 · 널리 퍼진 견해)	공감은 우리를 불공정하게도 만든다(블룸 · 저자도 같은 쪽)
누구에게 공감하나	미국 노동자 · 러스트 벨트 유권자(클린턴의 패배 분석)	저자가 짚는 문제 — 일자리가 없으면 더 어려워질 멕시코 · 중국 노동자에 대한 공감과 부딪침(긴장 관계)
공감을 끄는 대상	큰 눈의 새끼 물범 ·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로봇	훨씬 큰 고통을 겪는 닭 ·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가 많은 물고기(밸컴)
백신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믿어지는 소수의 아이에 대한 공감 → 접종 거부	저자가 짚는 문제 — 병으로 피해를 입는 아이가 부작용을 겪었을 아이보다 훨씬 많음
대기 명단 실험	아이의 느낌을 상상하라 → 4분의 3이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	최대한 객관적이 되라 → 3분의 1만 요청 — 저자가 짚는 문제: 공감은 불공정을 낳을 수 있음
공감 vs 연민	공감 = 남의 고통을 함께 느낌 · 리카르에게 불쾌하고 지치는 일	연민 = 따뜻하고 긍정적인 상태 · 강한 친사회적 동기(리카르) · 인지적 공감에 가까움
이성의 자리	이성은 정념의 노예(흄) · 기수는 코끼리를 섬긴다(하이트) · 심리학은 이성을 낮춤	윤리적 결정에서 이성이 결정적 역할(저자) · 플라톤도 이성의 우위를 말함
윤리 수업의 효과	윤리학 교수도 더 윤리적이지 않다(슈비츠게벨 · 러스트) → 추론은 무력한가	고기 구매 52→45% · 51→42% · 극적이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저자)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gata Sagan	「Are We Ready for a "Morality Pill"?」의 공저자(원서 표기 with Agata Sagan)
2011 · Foshan	중국 포산 · **두 살** 여자아이가 승합차(van)에 치임 · 운전자는 멈추지 않음 · **7분** 동안 **열두 명 넘게**(more than a dozen) 걷거나 자전거로 지나침 · **두 번째 트럭**이 또 침 · 한 여성이 길가로 옮김 · 병원에서 사망 · 방송 · 온라인 공개 → 공분
2004 · London	비슷한 일이 **런던**에서 · 카메라 렌즈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다른 일들이
hero saves	다가오는 기차 · 빠른 물살 · 사나운 불길을 무릅쓴 행인 / 해마다 세계에서 **수백 명**이 낯선 이에게 신장 하나를 기증
Milgram · Zimbardo	**1960년대와 70년대 초** ·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 대부분이 무고한 사람에게 스스로 큰 해를 끼칠 것임을 **시사**(suggested)
Darley · Batson	같은 시기 ·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강연하러 가던 **일부** 신학생도 늦었다는 말을 들으면 길가에 신음하며 누운 낯선 이를 지나침
시카고 대학 쥐 실험	저자들은 이 실험에 **심각한 윤리적 유보** · 우리를 함께 쓰는 두 마리 · 밖에서만 열리는 관 · 초콜릿을 다 먹을 수 있어도 대개 동료부터 · 쥐의 공감 = 실험자들의 **해석**
23 of 30	갇힌 동료를 풀어 준 쥐는 **30마리 중 23마리**뿐 → 쥐마다 다름 · 차이의 원인은 쥐 자신에게
amygdala	낯선 이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람 = 편도체가 평균보다 **크고**, 고통받는 이를 보면 보통 사람보다 **더 활발**
oxytocin	편도체가 옥시토신에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It is possible) · 옥시토신 = 낯선 이를 포함해 남을 돌보게 한다고 **알려짐**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morality pill	남을 도울 가능성을 높이는 약 · 허황하지 않음 / 감옥 대신 약물 방출 이식 장치 · 삼키면 데이터를 보내는 센서가 든 스마트(디지털) 알약 / 범죄 가능성 선별 · 거부하면 위치 추적 장치 — 모두 **물음 · 가능성**(could)
A Clockwork Orange	**50년 전** 앤서니 버지스의 미래 소설 · 사악한 갱 두목이 폭력을 쓸 수 없게 되는 처치를 받음 / 스탠리 큐브릭의 **1971년** 영화 → 자유의지 논쟁
Barack Obama	대통령 당선 직후 한 소녀에게 "오늘날 세상에는 공감이 부족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너희 세대의 몫"
Paul Bloom	**예일** 대학 심리학자 · **2016년** 『Against Empathy』 · 공감과 연민의 차이를 리카르에게서 배움 · 이성의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봄
Clinton · Trump	분석가들 = 클린턴이 백인 미국인, 특히 러스트 벨트 유권자에게 공감하지 못해 졌다고 **보았다** / 트럼프 =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살해된 **Kate Steinle** 사건으로 반이민 정책 지지를 부추김(저자의 서술)
Jonathan Balcombe	『What a Fish Knows』 · 물고기도 새나 포유류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가 많다고 주장
대기 명단 실험	말기 환자인 아이의 인터뷰 · 상상하라는 집단의 **4분의 3** vs 객관적이 되라는 집단의 **3분의 1**만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
Decision Research	**오리건**의 비영리 단체 · ArithmeticofCompassion.org · '숫자 무감각' 없이 대규모 문제를 전하는 능력을 키움
Ricard · Tania Singer	Matthieu Ricard = 불교 승려 · **때로**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림 / Tania Singer = 신경과학자(저자와 친척 아님) · 연민 명상 중 공감 영역 활동 없음 · 비명상가 훈련
Plato · Hume	플라톤 『Phaedrus』 = 두 말이 끄는 마차 · 조화는 이성의 우위 아래 / **18세기** 흄 = 이성은 "정념의 노예" · 동료 감정(공감) · 장기적 이익에 대한 관심도 정념(차분한 정념)
Jonathan Haidt	『The Happiness Hypothesis』 · 『The Righteous Mind』 · 사회적 직관주의 · 기수(의식적 추론)가 코끼리(나머지 **99%**, 주로 감정과 직관)를 섬김 · 교실의 직접 교육에 회의
Schwitzgebel · Rust	Eric Schwitzgebel(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 Joshua Rust(스테트슨 대학) · 윤리학 교수도 다른 철학 교수 · 철학 밖 교수보다 더 윤리적이지 않음
실험 1	**2017년** 슈비츠게벨의 제안 · Brad Cokelet(캔자스 대학) · **1,143명** 참여 · 채식 옹호 논문 + 소집단 토론(영상은 선택) vs 대조군(기부) · **476명**의 약 **6,000건**(익명) · **52% → 45%** · 몇 주 유지 · 2020 『Cognition』
실험 2	영상은 무작위로 고른 **절반**에게만 · 2021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 **51% → 42%** · 영상을 본 집단에서 더 뚜렷해 **보였지만** 영상 없이도 변화 · 코로나19로 지속 기간 조사 미완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Morality Pill · The Empathy Trap · Can Ethics Be Taught? (원서 PDF 29~36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1 사례와 물음 – 지나친 사람들, 목숨을 건 사람들 29쪽 ¶1 ~ 30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29쪽 ¶1 ~ 30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9쪽 ¶1 첫 문장	In 2011, in Foshan, China, a two-year-old girl was run over by a van	숫자 · 장소 – 서답형 1순위
★	29쪽 ¶1 셋째 문장	Over the next seven minutes, more than a dozen people walked or bicycled past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29쪽 ¶1 일곱째 문장	was captured on video and caused an uproar when it was shown	수동 · 능동 동사 병렬
▲	29쪽 ¶1 여덟째 문장	A similar event occurred in London in 2004, as have others	as + 대동사 + 주어 도치
◆	29쪽 ¶1 여덟째 문장	far from the lens of a video camera	밑줄 의미: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곳에서
◆	29쪽 ¶2	Yet people can, and often do, behave in very different ways.	전환 – 순서 배열의 고리
▲	29쪽 ¶3 둘째 문장	knowing that their act can save a life	분사구문(동시 상황)
●	29쪽 ¶3 셋째 문장	are, like their opposites, nearly universal	어휘 반전: universal ↔ rare
▲	29쪽 ¶4	Why are some people prepared to risk their lives … when others won't even stop	be prepared to V / stop to V
★	29쪽 ¶5 둘째 문장	experiments by Stanley Milgram and Philip Zimbardo suggested that most of us would	인물 · '시사' – 단정 선지 함정
▲	29쪽 ¶5 셋째 문장	would, if told that they were running late, walk past a stranger lying moaning	if + 과거분사 / 분사 후치
◆	29쪽 ¶6 첫 문장	some people did the right thing	밑줄 의미: 논의가 놓친 점 – 글의 방향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9쪽 ¶6 둘째 문장	An experiment (about which we have serious ethical reservations)	전치사 + 관계대명사
▲	29쪽 ¶7 첫 문장	a tube that could be opened only from the outside	조동사 수동 + only
◆	29쪽 ¶7 셋째 문장 ~ 30쪽 첫 줄	they mostly preferred to free their cage-mate ... they have also demonstrated	지칭: they = 쥐 / 실험자
★	30쪽 첫 줄	for only 23 of 30 rats freed their trapped companions	숫자 — 서답형 1순위

내용

2011년 중국 포산에서 두 살 난 여자아이가 승합차에 치였다.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 뒤 7분 동안 열두 명이 넘는 사람이 다친 아이 곁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두 번째 트럭이 아이를 또 치었다. 마침내 한 여성이 아이를 길가로 옮겼고 아이의 어머니가 왔지만, 아이는 병원에서 숨졌다. 이 장면은 모두 영상에 담겼고, 텔레비전 방송과 온라인에 공개되자 큰 공분을 일으켰다. 2004년 런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카메라 렌즈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났다. 그러나 사람은 아주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자주 그렇게 행동한다. 'hero saves'라는 말로 뉴스를 찾으면 다가오는 기차, 빠른 물살, 사나운 불길을 무릅쓰고 낯선 이를 구한 행인들의 이야기가 어김없이 나온다. 해마다 세계에서 수백 명이, 그 일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 신장 하나를 낯선 이에게 기증한다. 극단적인 친절과 책임감, 연민은 그 반대 행동과 마찬가지로 거의 어디에나 있다. 왜 어떤 사람은 낯선 이를 도우려고 목숨까지 거는데, 어떤 사람은 응급 전화를 걸려고 멈추지도 않는가.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런 물음을 탐구해 왔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 스탠리 밀그램과 필립 짐바르도의 유명한 실험은 특정한 상황에서라면 우리 대부분이 무고한 사람에게 스스로 큰 해를 끼칠 것임을 시사했다. 같은 시기에 존 달리와 C. 대니얼 뱃슨은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관해 강연하러 가던 신학생 가운데 일부조차 늦었다는 말을 들으면 길가에 누워 신음하는 낯선 이를 그냥 지나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최근 연구는 사람이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알려 주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의 도덕적 행동을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는가. 저자는 이 실험들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놓친 점이 있다고 말한다. 옳은 일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한 실험(저자들은 이 실험에 심각한 윤리적 유보를 품고 있다)이 그 까닭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듯하다. 연구자들은 우리를 함께 쓰는 쥐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밖에서만 열 수 있는 관에 가두었다. 갇히지 않은 쥐는 대개 문을 열려고 애썼고 결국 열어 냈다. 갇힌 쥐를 풀어 주기 전에 초콜릿을 모두 먹어 치울 수 있을 때에도, 쥐들은 대부분 동료를 풀어 주는 쪽을 택했다. 실험자들은 이 결과를 쥐에게 공감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다면 실험자들이 쥐마다 다르다는 것도 보여 준 셈이라고 지적한다. 갇힌 동료를 풀어 준 쥐는 30마리 가운데 23마리뿐이었기 때문이다.

어법

- **A similar event occurred in London in 2004, as have others, far from the lens of a video camera** : as + 대동사 + 주어 도치 = 다른 일들도 그래 왔듯이(as others have occurred). 앞 동사는 과거(occurred)지만 대동사는 have: 지금까지 일어나 온 일을 현재완료로 받는다. far from = ~에서 멀리 떨어진.
- **Each year, around the world, hundreds of people donate one of their kidneys to a stranger, knowing that their act can save a life** : hundreds of + 복수 명사 = 수백의(주어 people → donate). one of + 복수 명사(kidneys). knowing that ~ = 동시 상황의 분사구문(~을 알면서).
- **Acts of extreme kindness, responsibility, and compassion are, like their opposites, nearly universal** : 주어 Acts(복수) → are. 수식어 of ~가 길어도 동사는 머리 명사에 맞춘다. like their opposites = 삽입(그 반대 행동처럼). their = 극단적 친절 · 책임감 · 연민의 행동.

- **Why are some people prepared to risk their lives to help a stranger when others won't even stop to dial an emergency number?** : be prepared to V = 기꺼이 ~하려 하다. some ... others = 어떤 사람은 … 다른 사람은. to help = 목적의 to부정사. stop to V = ~하려고 멈추다(stop -ing = ~하기를 그만두다와 구별).
- **even some seminary students on their way to give a lecture ... would, if told that they were running late, walk past a stranger lying moaning beside the path** : if told = if they were told(접속사 뒤 주어 + be동사 생략). 조동사 would와 원형 walk 사이에 조건절 삽입. lying =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현재분사, moaning = lie에 이어지는 분사 보어(신음하며 누운).
- **An experiment (about which we have serious ethical reservation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seems to shed new light on why** : 전치사 + 관계대명사: have reservations about the experiment에서 about이 which 앞으로. seems to V = ~하는 듯하다(단정 아님). on why = 전치사 뒤 의문사(why some people did the right thing에서 뒷부분 생략).
- **Even when the free rats could eat up all of a quantity of chocolate before freeing the trapped rat, they mostly preferred to free their cage-mate** : even when = ~할 때조차. before + 동명사 freeing. prefer to V = ~하는 쪽을 택하다. the trapped rat = 과거분사 전치 수식(갇힌).
- **But if that is the case, they have also demonstrated that individual rats vary, for only 23 of 30 rats freed their trapped companions** : if that is the case = 그것이 사실이라면(앞 문장의 해석을 받음). they = 실험자들. 접속사 for = 왜냐하면(앞 판단의 근거; 문장 맨 앞에 쓰지 않는다). only 23 of 30 = 30마리 중 23마리뿐.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un over	(차가) 치다	hit	—
uproar	소동, 공분	outcry	calm
routinely	어김없이, 늘	regularly	rarely
bystander	행인, 구경꾼	onlooker	participant
brave (v.)	무릅쓰다	face	avoid
compassion	연민	sympathy	indifference
universal	보편적인, 어디에나 있는	widespread	rare
voluntarily	자발적으로	willingly	forcibly
innocent	무고한	blameless	guilty
parable	비유, 우화	allegory	—
moan (v.)	신음하다	groan	—
reservation	유보, 의구심	doubt	confidence
shed light on	~을 밝히다	illuminate	obscure
interpret	해석하다	construe	—

내용 일치 2011년 = 중국 포산 · 두 살 여자아이 · 승합차 운전자는 멈추지 않음 · 7분 · 열두 명 넘게 지나침 · 두 번째 트럭 · 한 여성이 길가로 · 병원에서 사망 · 영상 공개 → 공분 · 2004년 런던에서도 비슷한 일 · 해마다 수백 명이 낯선 이에게 신장 기증 · 밀그램 · 짐바르도 = 1960년대 ~ 70년대 초, 대부분이 해를 끼칠 것임을 '시사' · 달리와 뱃슨 = '일부' 신학생, 늦었다는 말을 들은 경우 · 쥐 실험 = 시카고 대학 · 저자들의 심각한 윤리적 유보 · 쥐의 공감 = 실험자들의 '해석' · 23/30. **지칭** 29쪽 ¶1 her(ran over her · pulled her) = 두 살 여자아이 / ¶3 their act =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들의 / their opposites = 극단적 친절 ·

책임감 · 연민의 / ¶5 they were running late = 신학생들 / ¶7 they mostly preferred = 갇히지 않은 쥐들 / their findings = 실험자들의 / 30쪽 첫 줄 they have also demonstrated = 실험자들.

> **한 줄 요약** 다친 아이를 지나친 행인들과 낯선 이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차이를 묻는 저자는, 동료를 먼저 풀어준 쥐 실험이 공감뿐 아니라 쥐마다 다르다는 것(30마리 중 23마리)도 보여 준다고 지적한다.

1-2 개인차와 도덕 알약, 자유의지라는 반론과 저자의 답 30쪽 ¶1 ~ 31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30쪽 ¶1 ~ 31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0쪽 ¶1 첫 문장	such experiments—and many that cause even more severe stress …—are still continuing	대시 삽입 · 복수 주어 + are
★	30쪽 ¶1 둘째 문장	the causes of the difference … must lie in the rats themselves	빈칸 후보 — 원인은 개체 안에
●	30쪽 ¶1 둘째 문장	We refer to this one reluctantly	어휘 반전: reluctantly ↔ willingly
▲	30쪽 ¶1 셋째 문장	It seems plausible that humans, like rats, are spread along a continuum	가주어 It + that절 · 추측
★	30쪽 ¶1 넷째 문장	relatively stable differences (perhaps rooted in our genes)	내용 일치 — perhaps(단정 금지)
▲	30쪽 ¶2 둘째 문장	Only then will we gain a proper understanding	Only + 부사 문두 → 도치
★	30쪽 ¶3 첫 문장	their amygdalas are above average size and … more active than that of the average person	내용 일치 · 서답형 · that of
▲	30쪽 ¶3 둘째 문장	oxytocin, which is known to motivate care for others, including strangers	계속적 which + be known to V
◆	30쪽 ¶4 첫 문장	Hence the idea of a "morality pill" … is not far-fetched	밑줄 의미 · 결론의 Hence
▲	30쪽 ¶4 넷째 문장	a sensor that transmits data when swallowed	when + 과거분사(주어 · be 생략)
◆	30쪽 ¶5 둘째 문장	They too could be offered a drug	지칭: They = 범죄 가능성이 큰 사람들
★	30쪽 ¶6 첫~둘째 문장	Anthony Burgess wrote A Clockwork Orange … Stanley Kubrick's 1971 movie	인물 · 연도
▲	30쪽 ¶6 둘째 문장	no matter how gruesome the violence that would thereby be prevented	no matter how + 형용사 + 주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0쪽 ¶6 셋째 문장	would encounter the same objection	밑줄 의미: 자유의지를 빼앗는다는 반론
★	30쪽 ¶7 첫 문장	will make no difference in how freely we act	요지 · 빈칸 1순위
▲	30쪽 ¶7 둘째 문장	either such differences are compatible with free will, or they are evidence that	either A or B · 동격 that

내용

저자는 이런 실험이, 그리고 동물에게 더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실험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래도 이 실험을 마지못해 언급하는 까닭은, 쥐들의 행동 차이를 낳은 원인이 쥐 자신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실험이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이다. 저자는 사람도 쥐처럼 남을 도울 준비가 된 정도의 연속선 위에 퍼져 있다는 생각이 그럴듯하다고 본다. 사이코패스 같은 비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대다수 사람들 사이의 비교적 안정된 차이(어쩌면 유전자에 뿌리를 둔 차이)에 대해서도 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 요인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도덕적 믿음도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마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성향이 그저 다르다면 이 차이에 대해서도 더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도덕적 행동이 왜 사람마다 그토록 다른지,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낯선 이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람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이들의 편도체는 평균보다 크고,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 보통 사람보다 더 활발했다. 편도체가 옥시토신에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옥시토신은 낯선 이를 포함한 남을 돌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화학적 조건과 기분 · 행동을 잇는 다른 연구도 많고, 행동을 바꾸려고 이런 생화학적 요인을 조절하는 약도 있다. 그러니 남을 도울 가능성을 높이는 '도덕 알약'이라는 생각은 허황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 약을 먹기로 할까? 범죄자에게 감옥 대신, 남을 해칠 가능성을 낮추는 약물 방출 이식 장치를 고를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약을 확실히 먹게 하려면, 삼키면 데이터를 보내는 센서가 든 이른바 스마트 알약(디지털 알약)과 함께 쓸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을 가려내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도 약을 권하고, 거부하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위치 추적 장치를 차게 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들킨다는 것을 알게 할 수도 있다. 50년 전 앤서니 버지스는 폭력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처치를 받는 사악한 갱 두목을 그린 미래 소설 『A Clockwork Orange』를 썼다. 스탠리 큐브릭이 1971년에 만든 영화는 논쟁을 불렀고, 많은 사람이 그로써 막을 수 있는 폭력이 아무리 끔찍해도 누군가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덕 알약을 개발하자는 제안도 틀림없이 같은 반론에 부딪힐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뇌의 화학이 실제로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면, 그 균형이 자연스럽게 정해졌든 의학적 개입으로 정해졌든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하는지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행동할지 예측하는 데 쓸 수 있는 생화학적 차이가 이미 있다면, 그런 차이는 자유의지와 양립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부 윤리적 행동에 관한 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애초에 자유의지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거다. 어느 쪽이든, 자유의지가 있든 없든 우리는 머지않아 행동을 더 낫게 바꾸는 방법을 두고 새로운 선택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어법

- **We refer to this one reluctantly, because it does show clearly that the causes of the difference in the behavior of the rats must lie in the rats themselves** : this one = this experiment(one = 앞의 명사 대신). does show = 강조의 do(분명히 보여 준다). must = ~임이 틀림없다(추론). themselves = 강조 재귀대명사(바로 쥐 자신).
- **It seems plausible that humans, like rats, are spread along a continuum of readiness to help others** : 가주어 It + seems + 형용사 + 진주어 that절(~라는 것이 그럴듯해 보인다 → 저자의 추측). like rats = 삽입. be spread along = ~을 따라 퍼져 있다. readiness to V = ~하려는 준비.

- **Only then will we gain a proper understanding of our moral behavior, including why it varies so much from person to person and whether there is anything we can do about it** : Only + 부사(then)가 문장 앞 → 조동사 + 주어 도치(will we gain). 변형 → Only then we will gain은 오답. including 뒤 간접의문문 두 개(why + S + V, whether + S + V)가 and로 병렬.
- **their amygdalas are above average size and, when they see someone in distress, more active than that of the average person** : are 뒤 보어 두 개(above average size / more active)가 and로 병렬, 그 사이에 when절 삽입. that of = the amygdala of: 비교 대상을 맞추려고 반복되는 명사 대신 쓰는 that(뒤가 the average person 한 사람이라 단수).
- **It is possible that the amygdala is responding to oxytocin, which is known to motivate care for others, including strangers** : It is possible that = ~일 수도 있다(가능성 — 사실 단정 아님). which = 계속적 용법(oxytocin 보충). be known to V = ~한다고 알려져 있다. including = ~을 포함하여(전치사).
- **To ensure that they take the drug, it could be combined with a so-called smart pill or digital pill containing a sensor that transmits data when swallowed** : To ensure = 목적의 to부정사. they = 범죄자들, it = the drug. containing ~ = 현재분사 후치.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sensor → transmits). when swallowed = when it is swallowed(주어 · be동사 생략).
- **many argued that we could never be justified in depriving someone of his free will, no matter how gruesome the violence that would thereby be prevented** : be justified in -ing = ~하는 것이 정당하다. deprive A of B = A에게서 B를 빼앗다. no matter how + 형용사 + 주어(be동사 생략) = 아무리 ~하더라도. thereby = 그로써.
- **If there are already biochemical differences between us that can be used to predict how ethically we will act, then either such differences are compatible with free will, or they are evidence that ... none of us have ever had free will anyway** : that = differences를 꾸미는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와 떨어져 있음). how ethically we will act = 간접의문문(how + 부사 + S + V). either A or B = A이거나 B이거나. evidence that = 동격 that절. none of us + 복수 동사 hav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luctantly	마지못해	unwillingly	willingly
plausible	그럴듯한	credible	implausible
continuum	연속체	spectrum	—
abnormal	비정상적인	atypical	normal
stable	안정된	steady	volatile
predisposition	성향, 경향	inclination	—
in distress	고통에 빠진	suffering	—
far-fetched	억지스러운, 허황한	unlikely	realistic
implant (n.)	이식 장치	device	—
screen (v.)	선별하다, 가려내다	vet	—
vicious	사악한	brutal	gentle
gruesome	끔찍한	horrific	pleasant
intervention	개입	treatment	—
compatible	양립할 수 있는	consistent	incompatible

내용 일치 쥐 실험을 언급하는 태도 = '마지못해'(reluctantly) · 원인은 쥐 자신에게 · 사람도 연속선 위에 있다 = '그럴듯하다'(저자의 추측) · 안정된 차이가 유전자에 뿌리를 둔다 = '어쩌면'(perhaps) · 상황 요인 = 의심할 여지없이 큰 차이 · 도덕적 믿음 = '그럴지도'(perhaps) · 신장 기증자의 편도체 = 평균보다 크고 더 활발 · 옥시토신에 반응 = '가능성'(It is possible) · 도덕 알약 · 이식 장치 · 위치 추적 = 저자가 던진 물음과 가능성(could) · 『A Clockwork Orange』 = 50년 전 버지스 · 영화 = 큐브릭 1971년 · 자유의지를 빼앗을 수 없다 = 많은 사람의 주장(저자의 주장이 아님). **밑줄 의미** not far-fetched = 남을 돕게 만드는 약이 허황한 공상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는 생각이라는 뜻 / the same objection = 『A Clockwork Orange』 논쟁에서 나온 '자유의지를 빼앗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론 / make no difference in how freely we act = 뇌의 화학이 자연으로 정해지든 약으로 정해지든 자유의 정도는 같다는 저자의 답 / 30쪽 ¶5 They too =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

> **한 줄 요약** 남을 돕는 성향이 사람마다 다르고 뇌의 화학과 이어져 있다면 '도덕 알약'은 허황하지 않으며, 자유의지를 빼앗는다는 반론에 저자는 뇌의 화학이 자연으로 정해지든 의학으로 정해지든 자유의 정도는 같다고 답한다.

1-3 통념에 맞선 반대 — 공감의 어두운 면 32쪽 ¶1 ~ ¶5

원문 위치 원서 32쪽 ¶1 ~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2쪽 ¶1 첫 문장	"We don't have enough empathy in our world today, and it is up to your generation to change that."	통념 — 오바마의 말
▲	32쪽 ¶1 첫 문장	it is up to your generation to change that	It is up to A to V
★	32쪽 ¶1 둘째 문장	the title of a 2016 book, Against Empathy, by Yale University psychologist Paul Bloom, came as a shock	숫자 · 인물 — 서답형 1순위
▲	32쪽 ¶1 셋째 문장	something that enables us to put ourselves in others' shoes	enable + O + to V / 관용구
▲	32쪽 ¶2 첫 문장	for whom should we have empathy?	전치사 + 의문사 문두
★	32쪽 ¶2 둘째 문장	analysts were suggesting that Hillary Clinton lost the election because she lacked empathy	분석가들의 견해 — 단정 금지
★	32쪽 ¶2 셋째 문장	empathy for American workers is in tension with empathy for workers in Mexico and China	빈칸 · 요지 후보
▲	32쪽 ¶2 셋째 문장	who would be even worse off without jobs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are	비교급 강조 even + 대동사 are
◆	32쪽 ¶3 둘째 문장	it also has a darker side	밑줄 의미 · 어휘 반전 darker ↔ brighter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2쪽 ¶3 셋째 문장	made use of the tragic murder of Kate Steinle by an undocumented immigrant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32쪽 ¶3 넷째 문장	any similarly vivid portrayals	어휘 반전: vivid ↔ dull
▲	32쪽 ¶4 첫 문장	chickens, on whom we inflict vastly more suffering	전치사 + 관계대명사 whom
▲	32쪽 ¶4 둘째 문장	robots that they know can feel nothing at all	관계대명사 + 삽입절(they know)
◆	32쪽 ¶4 셋째 문장	cold, slimy, and unable to scream	밑줄 의미: 공감을 부르지 못하는 겉모습
★	32쪽 ¶4 셋째 문장	as Jonathan Balcombe argues in What a Fish Knows	인물 · 책 — 밸컴의 주장
▲	32쪽 ¶5 둘째 문장	with many more affected, sometimes fatally, by the disease than would have suffered	with + O + p.p. · than + would have p.p.

내용

버락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한 소녀에게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 공감이 부족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너희 세대의 몫"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널리 퍼진 견해를 말한 것이고, 그래서 예일 대학 심리학자 폴 블룸이 2016년에 낸 책의 제목『Against Empathy』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남의 입장이 되어 그가 느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에 어떻게 반대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다른 물음을 던져 볼 수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 공감해야 하는가? 도널드 트럼프가 오바마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던 무렵, 분석가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백인 미국인, 특히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러스트 벨트 유권자에게 공감하지 못해 선거에서 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문제는 미국 노동자에 대한 공감이 멕시코와 중국 노동자에 대한 공감과 부딪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미국의 노동자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사람들이다. 공감은 우리가 공감하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만든다.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공감에는 더 어두운 면도 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가 케이트 스타인리를 살해한 비극을 이용해 반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를 부추겼다. 물론 그는 낯선 이의 목숨을 구한 서류 미비 이민자를 그만큼 생생하게 그려 보이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보도되었는데도 말이다. 새끼 물범처럼 크고 둥근 눈을 가진 동물은 닭보다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우리가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기는 쪽은 닭이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로봇조차 '해치기'를 꺼릴 수 있다. 반면 차갑고 미끈거리며 비명을 지르지 못하는 물고기는 동정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조너선 밸컴이『What a Fish Knows』에서 주장하듯 물고기도 새나 포유류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가 많은데도 그렇다. 마찬가지로 백신에 해를 입은, 또는 입었다고 믿어지는 소수의 아이들에 대한 공감이 위험한 병을 막는 아이들의 예방 접종에 대한 대중의 저항을 주로 이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부모가 아이에게 예방 접종을 시키지 않고, 수백 명의 아이가 병에 걸린다. 그 병으로 피해를 입는,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아이는 백신의 부작용을 겪었을 아이보다 훨씬 많다.

어법

- **We don't have enough empathy in our world today, and it is up to your generation to change that** : It is up to A to V = ~하는 것은 A의 몫(책임)이다. 가주어 it + 진주어 to change. that = 공감이 부족한 상태.
- **How can anyone be against something that enables us to put ourselves in others' shoes and feel what they feel?** : 수사의문문(아무도 반대할 수 없다는 뜻). enable + O + to V = O가 ~할 수 있게 하다 — to 뒤 put과 feel이 and로 병렬. put oneself in others' shoes = 남의 입장이 되어 보다. what they feel = 관계대명사 what절(목적어).

- **To answer that question, we might ask another: for whom should we have empathy?** : another = another question. 콜론 뒤 = 직접의문문: 전치사 + 의문사(for whom)가 문장 앞, 그 뒤 조동사 + 주어 도치(should we have). have empathy for = ~에게 공감하다.
- **The problem is that empathy for American workers is in tension with empathy for workers in Mexico and China, who would be even worse off without jobs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are** : The problem is that = 문제는 ~라는 것이다(보어 that절). be in tension with = ~와 긴장 관계에 있다. who = 계속적(멕시코 · 중국 노동자). even = 비교급 강조. without jobs = 가정의 조건 → would. than ... are = 앞 서술을 받는 대동사.
- **Trump, in his campaign speeches, made use of the tragic murder of Kate Steinle by an undocumented immigrant to stoke support for his anti-immigrant policies** : 주어 Trump와 동사 made use of 사이에 전치사구 삽입. make use of = ~을 이용하다. the murder of A by B = B가 A를 살해한 일(of = 대상, by = 행위자). to stoke = 목적의 to부정사.
- **Animals with big round eyes, like baby seals, arouse more empathy than chickens, on whom we inflict vastly more suffering** : 주어 Animals(복수) → arouse. on whom = 계속적 용법의 전치사 + 관계대명사(inflict suffering on chickens에서 on이 앞으로). 전치사 뒤의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vastly = 비교급 more 강조.
- **People can even be reluctant to "harm" robots that they know can feel nothing at all** : be reluctant to V = ~하기를 꺼리다. that = can feel의 주어인 주격 관계대명사, they know = 삽입절. 관계대명사가 이미 주어이므로 뒤에 주어를 다시 쓰지 않는다. nothing at all = 전혀 아무것도 ~ 않다.
- **hundreds of children become ill, with many more affected, sometimes fatally, by the disease than would have suffered adverse effects from the vaccine** : with + 명사(many more) + 과거분사(affected) = 부대상황(그리고 훨씬 많은 아이가 피해를 입은 채). sometimes fatally = 삽입. than would have suffered = 주어 없이 동사가 바로 오는 비교절(than이 주어 역할을 겸함). would have p.p. = (접종했다면) 겪었을 것이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mpathy	공감	fellow feeling	—
widespread	널리 퍼진	prevalent	rare
yearn for	그리워하다, 갈망하다	long for	—
counterpart	상대, 대응하는 사람	equivalent	—
undocumented	서류 미비의	unregistered	documented
stoke	부추기다	fuel	dampen
vivid	생생한	graphic	dull
portrayal	묘사	depiction	—
arouse	불러일으키다	evoke	suppress
inflict A on B	B에게 A를 가하다	impose	spare
slimy	미끈거리는	slippery	—
resistance	저항	opposition	acceptance
adverse	해로운, 불리한	harmful	beneficial
fatally	치명적으로	lethally	—

내용 일치 오바마 = 당선 직후 한 소녀에게 · 공감이 부족하다 = 널리 퍼진 견해 · 『Against Empathy』 = 2016년, 예일 대학 심리학자 폴 블룸 · 충격 · 클린턴의 패배 원인 = 분석가들의 견해(저자의 단정이 아님) · 러스트 벨트 유권자 = 제조업 강국

시절을 그리워함 · 멕시코 · 중국 노동자 = 일자리가 없으면 더 어려움 · 케이트 스타인리 =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살해됨 · 트럼프는 낯선 이를 구한 이민자 사례는 말하지 않음(보도는 됨) · 새끼 물범 > 닭(고통은 닭이 훨씬 큼) · 로봇 · 물고기 = 고통의 증거 많음(밸컴) · 백신 =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믿어지는' 소수의 아이 · 수백만 부모 · 수백 명 발병. **밑줄 의미** it also has a darker side = 공감이 공감하는 대상 밖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면 — 반이민 정서 · 동물 · 백신 사례로 이어짐 / cold, slimy, and unable to scream = 물고기가 고통을 느껴도 공감을 끌어낼 겉모습이 없다는 것 / 32쪽 ¶2 who would be even worse off = 멕시코 · 중국 노동자 / ¶3 He did not … offer = 트럼프 / ¶4 they know = 사람들.

> **한 줄 요약** 공감이 부족하다는 통념과 달리, 공감은 누구에게 공감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을 외면하게 만들고, 생생한 한 사례나 겉모습에 끌려 더 큰 고통과 피해를 놓치게 한다.

1-4 공감이 낳는 불공정, 연민과 이성이라는 저자의 답 33쪽 ¶1 ~ ¶7

원문 위치 원서 33쪽 ¶1 ~ ¶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3쪽 ¶1 첫 문장	Empathy can make us act unjustly.	요약문 · 주제문
▲	33쪽 ¶1 셋째 문장	Some were told to try to be as objective as possible, while others were told to imagine	be told to V · as ~ as possible
▲	33쪽 ¶1 넷째 문장	ahead of other children who had been assessed as having higher priority	과거완료 수동 · assess A as
★	33쪽 ¶1 다섯째 문장	Three-quarters of those told to imagine … compared to only one-third	숫자 — 내용 일치 · 요약문
◆	33쪽 ¶2 첫 문장	"One death is tragedy; a million is a statistic."	밑줄 의미: 숫자가 크면 무뎌진다
◆	33쪽 ¶2 셋째 문장	without giving rise to "numerical numbness"	밑줄 의미 1순위
▲	33쪽 ¶2 넷째 문장	it's hard to think of anything more important than helping everyone to see the larger picture	부정의 뜻 + 비교급 = 최상급 뜻
★	33쪽 ¶3 첫 문장	To be against empathy is not to be against compassion.	요지 · 빈칸 후보
★	33쪽 ¶3 둘째 문장	Matthieu Ricard, the Buddhist monk sometimes described as "the happiest man on earth"	인물 — 서답형 후보
▲	33쪽 ¶3 셋째 문장	she was surprised to see no activity in the areas of his brain normally active	감정 원인 to V · 형용사 후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3쪽 ¶3 넷째 문장	he found it unpleasant and draining	True/False 뒤집기 후보
▲	33쪽 ¶4 첫 문장	starting with someone close to the meditator and then moving outward to strangers	분사구문 병렬
◆	33쪽 ¶5 둘째 문장	has led it to downplay the role of reason in our lives	지칭: it = psychological science
▲	33쪽 ¶6 둘째 문장	is harder to publish, much less publicize	much less = 하물며 ~는
◆	33쪽 ¶6 셋째 문장	psychology has an inbuilt bias against the view	밑줄 의미: 이성을 낮추는 구조적 편향
★	33쪽 ¶7 둘째~셋째 문장	equally likely to motivate us to do what is wrong … our ability to reason has a crucial role	저자의 주장 · 통합 사고

내용

공감은 우리를 불공정하게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한 실험의 참가자들은 말기 환자인 아이의 인터뷰를 들었다. 일부는 되도록 객관적이 되라는 말을, 다른 이들은 그 아이가 느끼는 것을 상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 그다음 모두에게,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평가된 다른 아이들을 앞질러 이 아이를 치료 대기 명단의 앞쪽으로 옮기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아이의 느낌을 상상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의 4분의 3이 그렇게 해 달라고 했지만, 객관적이 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3분의 1만 그렇게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고, 백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 공감이 개인에게 지나치게 호의적이게 만든다면, 큰 숫자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을 무디게 한다. 오리건에 있는 비영리 단체 디시전 리서치(Decision Research)는 ArithmeticofCompassion.org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숫자 무감각'을 일으키지 않고 대규모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생생한 개인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공공 정책에 영향을 주는 시대에, 모든 사람이 더 큰 그림을 보도록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떠올리기 어렵다. 공감에 반대한다는 것이 연민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 블룸은 『Against Empathy』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에서, 때로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는 불교 승려 마티유 리카르에게서 공감과 연민의 차이를 배운 이야기를 한다. 신경과학자 타니아 싱어(저자와는 친척이 아니다)가 리카르의 뇌를 촬영하면서 '연민 명상'을 해 달라고 하자, 사람들이 남의 고통에 공감할 때 보통 활발해지는 뇌 영역에서 아무 활동도 보이지 않아 놀랐다. 리카르는 요청을 받으면 남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불쾌하고 진이 빠지는 일로 여겼고, 반면 연민 명상은 '강한 친사회적 동기와 이어진 따뜻하고 긍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타니아 싱어는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명상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서 시작해 낯선 사람으로 넓혀 가며 여러 사람을 친절하게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연민 명상을 훈련시켰다. 이런 훈련은 더 친절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민 명상은 때로 '인지적 공감'이라 불리는 것에 가깝다. 감정이 아니라 남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블룸의 책이 전하는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다. 심리학이라는 과학이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이성이 하는 역할을 낮춰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중하게 따졌다고 여겨지는 선택과 태도가 벽 색깔, 방 냄새, 손 소독제 디스펜서 같은 무관한 요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연구는 심리학 학술지에 실리고 대중 매체의 머리기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련된 증거에 바탕을 두고 결정한다는 연구는 학술지에 싣기가 더 어렵고, 널리 알리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심리학에는 우리가 분별 있게 결정한다는 견해에 맞서는 편향이 처음부터 들어 있다. 저자는 이성의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블룸의 견해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윤리의 이해와 맞는다고 말한다. 공감과 다른 감정은 흔히 우리를 옳은 일로 이끌지만, 그른 일로 이끌 가능성도 똑같이 크다.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추론 능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법

- **Some were told to try to be as objective as possible, while others were told to imagine what the child feels** : tell + O + to V의 수동 = be told to V. as ~ as possible = 되도록 ~하게. while = 대조(반면). what the child feels = 관계대명사 what절(imagine의 목적어).
- **All were then asked if they wanted to move the child up the waiting list for treatment, ahead of other children who had been assessed as having higher priority** : ask + O + if절의 수동 = be asked if(~인지 질문받다). had been assessed = 과거완료 수동(질문받기 전에 평가된 일). assess A as B = A를 B로 평가하다 → be assessed as + 동명사.
- **Three-quarters of those told to imagine what the child feels made this request, compared to only one-third of those told to try to be objective** : those (who were) told =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과거분사 후치). 분수 + of + 복수 명사 → 복수 취급. compared to = ~와 비교하면.
- **If empathy makes us too favorable to individuals, large numbers numb the feelings we ought to have** : make + O + 형용사 보어(favorable). numb = 동사(무디게 하다). the feelings (that) we ought to have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ought to = ~해야 한다(의무).
- **In an age in which vivid personal stories go viral and influence public policy, it's hard to think of anything more important than helping everyone to see the larger picture** :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 when). 가주어 it + 진주어 to think. 부정의 뜻(hard) + anything + 비교급 than = 무엇보다 중요하다(최상급 뜻). help + O + (to) V.
- **To be against empathy is not to be against compassion** : 주어 to부정사 + is not + 보어 to부정사 = A하는 것이 곧 B하는 것은 아니다. be against = ~에 반대하다. 공감과 연민을 구별하는 블룸의 논점.
- **When the neuroscientist Tania Singer ... asked Ricard to engage in "compassion meditation" while his brain was being scanned, she was surprised to see no activity in the areas of his brain normally active when people empathize with the pain of others** : ask + O + to V. was being scanned = 과거진행 수동(촬영되는 동안). be surprised to V = ~하고 놀라다(감정의 원인). normally active = 형용사구 후치(the areas which are normally active).
- **Research showing that people make decisions based on relevant evidence is harder to publish, much less publicize** : 주어 Research(단수, showing ~이 후치 수식) → is. be hard to V = ~하기 어렵다(주어가 publish의 의미상 목적어). much less = 하물며 ~는 더욱 아니다(부정의 뜻 뒤). based on = ~에 근거한.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justly	부당하게	unfairly	fairly
objective	객관적인	impartial	subjective
terminally ill	말기 환자인	dying	—
priority	우선순위	precedence	—
numb (v.)	무디게 하다	dull	sharpen
give rise to	일으키다	cause	prevent
go viral	널리 퍼지다	spread rapidly	—
draining	진이 빠지는	exhausting	refreshing
pro-social	친사회적인	altruistic	antisocial
downplay	낮춰 보다, 축소하다	minimize	emphasiz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rrelevant	무관한	unrelated	relevant
publicize	널리 알리다	advertise	conceal
inbuilt	내재된	inherent	acquired
crucial	결정적인	vital	trivial

내용 일치 실험 = 말기 환자인 아이의 인터뷰 · 객관적이 되라 vs 아이의 느낌을 상상하라 · 우선순위가 더 높게 평가된 아이들보다 앞으로 · 상상 집단 4분의 3 vs 객관 집단 3분의 1 · Decision Research = 오리건의 비영리 단체 · '숫자 무감각' 없이 정보를 전하는 능력 · 공감 반대 ≠ 연민 반대 · 리카르 = 불교 승려, '때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림 · 타니아 싱어 = 신경과학자, 저자와 친척 아님 · 연민 명상 중 공감 영역 활동 없음 · 리카르 = 공감은 불쾌하고 지침, 연민은 따뜻하고 긍정적 · 비명상가 훈련 = 가까운 사람 → 낯선 이 · 친절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may) · 무관한 요인 = 벽 색깔 · 방 냄새 · 손 소독제 디스펜서 · 블룸의 이성관 = 저자가 옳다고 보는 윤리의 이해와 맞음. **밑줄 의미** One death is tragedy; a million is a statistic = 한 사람의 죽음에는 마음이 움직이지만 수가 커지면 숫자로만 느껴진다는 것 / numerical numbness = 큰 숫자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이 무뎌지는 상태 / an inbuilt bias = 이성적 결정을 보여 주는 연구는 덜 실리고 덜 알려지는 심리학 연구 방식의 편향 / 33쪽 ¶3 she = 타니아 싱어, he found it = 리카르 / ¶5 it(has led it) = 심리학이라는 과학.

> **한 줄 요약** 공감은 한 사람에게 치우쳐 불공정을 낳고 큰 숫자 앞에서는 무뎌지므로, 블룸은 공감과 연민을 가르며 이성의 역할을 되살리고, 저자는 감정이 그른 일로도 똑같이 이끄는 만큼 윤리적 결정에서 이성이 결정적이라고 본다.

1-5 물음과 고전의 대립 – 이성의 우위인가, 정념의 노예인가 34쪽 ¶1 ~ 35쪽 ¶1

원문 위치 원서 34쪽 ¶1 ~ 35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4쪽 ¶1	Can taking a philosophy class … lead students to act more ethically?	중심 물음 – 제목 · 요지
▲	34쪽 ¶1	Can taking a philosophy class … lead students to act	동명사 주어 + lead + O + to V
★	34쪽 ¶2 셋째 문장	the role that reason plays in forming our ethical judgments and determining what we do	빈칸 후보 · 동명사 병렬
★	34쪽 ¶3 첫 문장	Plato, in the Phaedrus, uses the metaphor of a chariot pulled by two horses	인물 · 책 – 일치 후보
▲	34쪽 ¶3 첫 문장	one represents rational and moral impulses, the other irrational passions or desires	one … the other + 동사 생략
▲	34쪽 ¶3 셋째 문장	harmony is to be found under the supremacy of reason	be to V(가능)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4쪽 ¶4 첫 문장	In the eighteenth century, David Hume argued that this picture … is misleading	시대 · 인물 — 서답형
◆	34쪽 ¶4 셋째 문장	"the slave of the passions"	밑줄 의미 1순위
▲	34쪽 ¶5 둘째 문장	Among what he called passions are our fellow-feeling or sympathy for others	부사구 문두 → 동사 · 주어 도치
◆	34쪽 ¶5 셋째 문장	these "calm passions" and our more violent and often imprudent passions	밑줄 의미 · 어휘 반전 imprudent ↔ prudent
▲	34쪽 ¶6 둘째 문장	uses a metaphor reminiscent of Plato, but in support of a view closer to Hume	형용사구 후치 수식 · 대조
◆	34쪽 ¶6 둘째 문장	"the rider's job is to serve the elephant"	밑줄 의미: 이성은 감정 · 직관을 섬긴다
★	34쪽 ¶6 셋째 문장	the elephant is the other 99% of our mental processes, mostly our emotions and intuitions	숫자 — 내용 일치
◆	34쪽 ¶7 첫 문장	post hoc rationalization of our automatic, intuitive responses	밑줄 의미 · 지칭 him = 하이트
▲	34쪽 ¶7 셋째 문장 ~ 35쪽 첫 줄	We can't just put moral knowledge into our students' heads, and expect them to implement	can't just A and B
★	35쪽 ¶1 둘째 문장	behave no better than professors … nor are they more ethical than	no better than / nor + 도치

내용

철학 수업, 더 구체적으로는 실천 윤리학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이 더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될까? 실천 윤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이 물음의 답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 수업을 들을까 생각하는 학생에게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물음은 더 넓은 철학적 의미도 지닌다. 그 답이, 우리의 윤리적 판단을 형성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 정하는 데 이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오래되고 근본적인 물음을 밝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Phaedrus』에서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의 비유를 쓴다. 한 마리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충동을, 다른 한 마리는 비이성적인 정념이나 욕망을 나타낸다. 마부의 역할은 두 말이 한 팀으로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영혼이 정념과 이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화는 이성이 우위에 설 때 이루어진다는 것도 분명히 한다. 18세기에 데이비드 흄은 이성과 정념이 싸운다는 이 그림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성만으로는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유명한 말대로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흄은 '정념'을 오늘날보다 넓은 뜻으로 썼다. 그가 정념이라 부른 것에는 남에 대한 동료 감정이나 공감, 그리고 자신의 장기적 이익에 대한 관심도 들어 있다. 흄이 보기에, 다른 철학자들이 이성과 감정의 갈등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이런 '차분한 정념'과, 더 격렬하고 흔히 경솔한 정념 사이의 갈등이다. 흄의 이성관과 비슷한 견해가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 영향력이 크다. 『The Happiness Hypothesis』와 『The Righteous Mind』를 쓴 조너선 하이트는 플라톤을 떠올리게 하는 비유를, 그러나 흄에 더 가까운 견해를 지지하려고 쓰면서, 그가 윤리에 대한 사회적 직관주의 관점이라 부르는 것을 설명한다. 그는 『The Righteous Mind』 첫 쪽에 '마음은 코끼리 위의 기수처럼 나뉘어

있고, 기수의 일은 코끼리를 섬기는 것'이라고 쓴다. 하이트의 비유에서 기수는 우리가 통제하는 정신 과정, 주로 의식적 추론이고, 코끼리는 나머지 99%의 정신 과정, 주로 감정과 직관이다. 하이트는 연구를 통해 도덕적 추론을 대체로 자동적 · 직관적 반응을 사후에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윤리적 행동을 기르는 직접적인 방법, 특히 교실에서의 직접 교육에 회의적이 되었다고, 학생들 머리에 도덕 지식을 집어넣기만 하고 교실을 나선 뒤 그 지식을 실천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쓴다. 하이트는『The Righteous Mind』에서 철학자 에릭 슈비츠게벨(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과 조슈아 러스트(스테트슨 대학)의 연구를 근거로 든다. 두 사람에 따르면 여러 윤리적 문제에서 윤리학을 전공하는 철학 교수는 다른 분야의 철학 교수보다 더 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철학을 전혀 다루지 않는 교수보다 더 윤리적이지도 않다. 윤리학을 연구하는 교수조차 다른 분야의 동료보다 더 윤리적이지 않다면, 윤리적 추론은 사람들을 더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할 힘이 없다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 아닐까?

어법

- **Can taking a philosophy class—more specifically, a class in practical ethics—lead students to act more ethically?** : 동명사 주어(taking a philosophy class) + 조동사 의문문. lead + O + to V = O가 ~하게 이끌다. 대시 사이 = 앞 명사를 구체화하는 동격.
- **the answer could shed light on the ancient and fundamental question of the role that reason plays in forming our ethical judgments and determining what we do** : of = ~에 관한(이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물음).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plays의 목적어 = role). play a role in -ing = ~하는 데 역할을 하다 → in 뒤 동명사 forming과 determining 병렬. what we do = 관계대명사 what절.
- **one represents rational and moral impulses, the other irrational passions or desires** : 둘 가운데 one … the other ~ = 하나는 … 나머지 하나는 ~. 두 번째 절은 반복되는 동사 represents를 생략(the other represents irrational …).
- **he also makes it clear that harmony is to be found under the supremacy of reason** : make it clear that = 가목적어 it + 진목적어 that절. be to V = 예정 · 가능 · 당위를 나타내는 be to 용법(여기서는 '찾아질 수 있다'). under the supremacy of = ~의 우위 아래.
- **Among what he called passions are our fellow-feeling or sympathy for others, and our concern for our own long-term interests** : 범위의 부사구(Among ~)가 문장 앞 → 동사 + 주어 도치(are + 주어). 주어가 둘(fellow-feeling or sympathy / concern)이라 복수 동사 are. what he called passions = call + O + C에서 O가 what으로(그가 정념이라 부른 것).
- **Jonathan Haidt … uses a metaphor reminiscent of Plato, but in support of a view closer to Hume, to illustrate what he calls the social intuitionist perspective on ethics** : reminiscent of = ~을 떠올리게 하는(형용사구 후치 수식). in support of = ~을 지지하여. closer to = 형용사 비교급 후치. to illustrate = 목적의 to 부정사. what he calls ~ = 그가 ~라고 부르는 것.
- **We can't just put moral knowledge into our students' heads, and expect them to implement that knowledge after they leave the classroom** : can't just A and B = A만 하고 B를 기대할 수는 없다(just = 그저). put A into B = A를 B에 넣다. expect + O + to V. after + S + V: 시간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leave).
- **On a range of ethical issues, Schwitzgebel and Rust show, philosophy professors specializing in ethics behave no better than professors working in other areas of philosophy; nor are they more ethical than professors who don't work in philosophy at all** : Schwitzgebel and Rust show = 삽입절. specializing · working = 현재분사 후치. no better than = ~보다 전혀 낫지 않은. nor + be동사 + 주어 = ~도 또한 아니다(도치). not … at all = 전혀 ~ 않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actical ethics	실천 윤리학	applied ethics	—
significance	의미, 중요성	importance	insignificance
metaphor	비유, 은유	figure of speech	—
impulse	충동	urge	—
composite	합성물	blend	—
supremacy	우위, 지배	dominance	inferiority
misleading	오해를 부르는	deceptive	accurate
imprudent	경솔한	rash	prudent
contemporary	현대의	modern	ancient
reminiscent of	~을 떠올리게 하는	suggestive of	—
intuition	직관	instinct	reasoning
post hoc	사후의	after the fact	prior
rationalization	합리화	justification	—
skeptical	회의적인	doubtful	convinced

내용 일치 중심 물음 = 실천 윤리학 수업이 학생을 더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하는가 · 더 넓은 의미 = 이성이 판단과 행동에서 하는 역할 · 플라톤『Phaedrus』= 두 말이 끄는 마차 · 한 말 = 이성적 · 도덕적 충동, 다른 말 = 비이성적 정념 · 욕망 · 조화 = 이성의 우위 아래 · 흄 = 18세기, 이성과 정념의 싸움이라는 그림은 잘못 · 이성만으로는 의지에 영향 못 줌 · 정념 = 오늘날보다 넓은 뜻(동료 감정 · 공감 · 장기적 이익) · 하이트 = 플라톤을 떠올리게 하는 비유 + 흄에 가까운 견해 · 기수 = 의식적 추론, 코끼리 = 나머지 99%(주로 감정과 직관) · 슈비츠게벨(UC 리버사이드) · 러스트(스테트슨 대학) = 윤리학 교수도 더 윤리적이지 않음 · 마지막 물음 = 이 연구가 던지는 도전(저자의 결론이 아님). **밑줄 의미** the slave of the passions = 이성은 스스로 의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정념에 봉사할 뿐이라는 흄의 견해 / the rider's job is to serve the elephant = 의식적 추론은 감정과 직관을 이끌기보다 뒤따라 정당화한다는 것 / post hoc rationalization = 이미 직관이 내린 결론을 나중에 그럴듯하게 꾸미는 추론 / 34쪽 ¶4 he thought = 흄 / ¶7 him = 하이트 / 35쪽 첫 줄 them = 학생들.

> **한 줄 요약** 윤리 수업이 사람을 더 윤리적으로 만드는가라는 물음은 이성의 역할을 묻는 물음이며, 이성의 우위를 말한 플라톤과 달리 흄과 하이트는 이성을 정념과 직관에 봉사하는 것으로 보고, 윤리학 교수도 더 윤리적이지 않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는 듯 보인다.

1-6 저자의 의심과 두 실험 – 교실이 식단을 바꾸다 35쪽 ¶2 ~ 36쪽 ¶1

원문 위치 원서 35쪽 ¶2 ~ 36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5쪽 ¶2 첫~둘째 문장	Perhaps. Yet, despite the evidence, I was not entirely convinced.	밑줄 의미: 부분 부정 – 저자의 전환
●	35쪽 ¶2 셋째 문장	I had a lot of anecdotal evidence	어휘 반전: anecdotal ↔ systematic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5쪽 ¶2 넷째~다섯째 문장	Some became vegetarian or vegan. Others began donating … a few changed their career plans	내용 일치 — some · others · a few
▲	35쪽 ¶3 첫 문장	to test, more rigorously than had ever been done before, whether a class … could change what students eat	than + 과거완료 수동 · whether절
★	35쪽 ¶3 둘째 문장	Brad Cokelet, a philosophy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Kansas … 1,143 students	인물 · 숫자 — 서답형 후보
▲	35쪽 ¶3 셋째 문장	were required to read a philosophical article defending vegetarianism, followed by a small group discussion	be required to V · followed by
★	35쪽 ¶4 둘째 문장	nearly 6,000 food purchases from 476 students	숫자 바꿔치기 주의(1,143 vs 476)
★	35쪽 ¶5 첫 문장	a decline, from 52% to 45%, in meat purchases	숫자 — 서답형 1순위
★	35쪽 ¶5 둘째 문장	There was no change in the level of meat purchases in the charitable giving group	True/False 뒤집기 후보
▲	35쪽 ¶6 넷째 문장	the video—which would have appealed to students' emotions more than their reason	계속적 which + would have p.p.
★	35쪽 ¶7 ~ 36쪽 첫 줄	published in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in 2021 … from 51% to 42%	숫자 — 52→45%와 혼동 주의
▲	36쪽 첫 줄	The decline did appear to be more marked … but there was also a detectable change	강조 did + appear to V
★	36쪽 첫 줄	the outbreak of COVID-19 closed the campus before we could complete	내용 일치 — 지속 기간은 미확인
★	36쪽 ¶1 둘째~셋째 문장	not dramatic, but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 can change what students eat	저자의 결론 · 제목 · 요약

내용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수긍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실천 윤리학 수업이 적어도 몇몇 학생의 삶을 꽤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일화적 증거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떤 학생은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되었고, 어떤 학생은 저소득 국가의 극빈층을 돕는 기부를 시작했으며, 몇몇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더 많이 기여하려고 진로 계획을 바꾸었다. 2017년 슈비츠게벨은 고기 먹기의 윤리에 관한 수업이 학생들이 먹는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전 어느 때보다 엄밀하게 시험해 볼 기회를 저자에게 제안했다. 저자와 슈비츠게벨은 캔자스 대학 철학 교수

브래드 코클렛과 함께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의 학생 1,143명이 참여한 연구를 진행했다. 학생 절반은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철학 논문을 읽어야 했고, 이어서 소집단 토론을 했으며, 고기를 피하자고 주장하는 영상을 볼 수도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대조군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기부에 관한 비슷한 자료를 받고 토론했다. 연구진은 교내 식당 카드로 두 집단이 수업 전후에 산 음식을 알아보았고, 476명의 약 6,000건 구매 자료를 얻었다.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학생의 구매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결과는 고기 윤리 집단의 고기 구매가 52%에서 45%로 줄어든 것이었고, 줄어든 구매율은 수업 뒤 몇 주 동안 이어졌다. 기부 집단의 고기 구매 수준에는 변화가 없었다(이 학생들이 기부를 더 했는지는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이 연구는 2020년 심리학의 대표적인 동료 심사 학술지 『Cognition』에 실렸지만 또 다른 물음을 낳았다. 결과가 되풀이될까, 효과는 얼마나 갈까, 이성보다 감정에 더 호소했을 영상에 결과가 얼마나 기댔을까? 그래서 연구진은 비슷한 방식으로 연구를 한 번 더 했는데, 이번에는 무작위로 고른 절반의 학생에게만 영상을 보여 주었다. 2021년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에 실린 이 두 번째 연구에서도 고기 먹기의 윤리를 토론한 집단의 고기 먹기가 51%에서 42%로 뚜렷이 줄었고, 기부를 토론한 학생들에게는 변화가 없었다. 감소는 영상을 본 집단에서 더 두드러져 보였지만, 영상 없이 고기 윤리를 토론한 집단에서도 알아볼 만한 변화가 있었다. 아쉽게도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아보려던 부분을 마치기 전에 코로나19가 퍼져 캠퍼스가 문을 닫았다. 저자가 알아본 한, 이 두 연구는 대학 수준의 철학 수업이 학생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실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통제해 조사한 최초의 연구다. 고기 먹기의 감소는 극적이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교실에서의 윤리적 추론은 학생들이 먹는 것을 바꿀 수 있다.

어법

- **Yet, despite the evidence, I was not entirely convinced** : not entirely = 부분 부정(완전히 ~한 것은 아니다; '전혀 아니다'가 아님). despite + 명사(전치사). be convinced = 확신하다.
- **Schwitzgebel offered me an opportunity to test, more rigorously than had ever been done before, whether a class on the ethics of eating meat could change what students eat** : offer + IO + DO. to test = opportunity를 꾸미는 to부정사. 삽입된 비교 = than + 과거완료 수동(이전에 이루어진 어떤 시험보다 엄밀하게; 주어 없는 비교절). test의 목적어 = whether절, 그 안의 what students eat = 관계대명사 what절.
- **Half the students were required to read a philosophical article defending vegetarianism, followed by a small group discussion with the option of watching a video advocating avoiding meat** : Half (of) the students + 복수 동사 were. be required to V = ~해야 했다. defending · advocating = 현재분사 후치. followed by = 그 뒤에 ~이 이어졌다(분사구문). advocate + 동명사(avoiding).
- **The purchases were identified with students who had, or had not, read and discussed the ethics of eating meat, but the data we received were made anonymous so that we could not identify any named student's purchases** : had, or had not, read and discussed = had에 read와 discussed가 함께 걸림(or had not은 삽입). the data (that) we receive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data는 복수 취급 → were. make + O + 형용사(anonymous)의 수동 = be made anonymous. so that + S + could not = ~할 수 없도록.
- **To what extent did our results depend on having the students watch the video—which would have appealed to students' emotions more than their reason?** : To what extent = 어느 정도까지(의문사구 문두 + did 도치). depend on + 동명사(having). have + O + 원형(watch) = 사역. which = 계속적 용법(the video). would have p.p. = ~했을 것이다(과거에 대한 추측).
- **The decline did appear to be more marked in those groups that watched the video, but there was also a detectable change in those groups that discussed meat ethics without the video** : did appear = 강조의 do(확실히 ~해 보였다). appear to be = ~인 것 같다(단정 아님). marked = 두드러진(형용사).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groups).
- **These two studies are, as far as we have been able to discover, the first properly controlled investigations, in the real world and not in a laboratory setting, of the impact of university-level philosophy classes on student behavior** : as far as + S + V = ~하는 한(범위 한정 — '최초'를 단정하지 않음). investigations와 of the impact

사이에 삽입구(in the real world and not in a laboratory setting)가 끼어 있다. the impact of A on B = A가 B에 미치는 영향.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vinced	확신하는	persuaded	doubtful
anecdotal	일화적인	informal	systematic
rigorously	엄밀하게	strictly	loosely
defend	옹호하다	champion	attack
advocate (v.)	주장하다, 옹호하다	promote	oppose
control group	대조군	comparison group	experimental group
anonymous	익명의	unnamed	identified
maintain	유지하다	sustain	abandon
replicate	되풀이하다, 재현하다	reproduce	—
marked	두드러진	noticeable	slight
detectable	알아볼 수 있는	discernible	imperceptible
significant	유의한, 의미 있는	meaningful	negligible

내용 일치 저자의 태도 = '완전히' 수긍하지는 않음(부분 부정) · 일화적 증거 = 채식 · 비건 / 극빈층 기부 / 진로 변경(몇몇) · 2017년 = 슈비츠게벨의 제안 · 브래드 코클렛 = 캔자스 대학 · 참여 1,143명(UC 리버사이드) · 실험군 = 채식 옹호 논문 + 소집단 토론 + 영상 선택 · 대조군 = 기부에 관한 비슷한 자료와 토론 · 식당 카드 = 476명의 약 6,000건(익명) · 52% → 45% · 몇 주 유지 · 기부 집단 = 고기 구매 변화 없음(기부를 더 했는지는 모름) · 2020『Cognition』· 두 번째 연구 = 영상은 무작위 절반 · 2021『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51% → 42% · 영상 본 집단에서 더 두드러져 '보임' · 영상 없이도 변화 · 지속 기간 = 코로나19로 확인 못 함 · '최초' = 저자가 알아본 한(as far as). **밑줄 의미** Perhaps. Yet … not entirely convinced = 앞 연구의 힘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는 전환 / not dramatic,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는 절제된 결론 / 35쪽 ¶3 They received = 대조군 학생들 / ¶6 it gave rise to = 첫 연구 / 36쪽 첫 줄 we could complete = 저자와 공동 연구자들.

> **한 줄 요약** 윤리학 교수 연구에도 수긍하지 않은 저자는 두 차례의 통제된 현장 연구에서 고기 윤리를 토론한 학생들의 고기 구매가 52%→45%, 51%→42%로 줄어든 것을 근거로, 교실의 윤리적 추론이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1 EMPATHY]

범위	Morality Pill · The Empathy Trap · Can Ethics Be Taught? (원서 PDF 29~36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ompassion meditation resembles 'cognitive empathy', as it is sometimes called, since it involves thinking about others rather than sharing their feelings. Paul Bloom adds that psychology, by the way it does its research, has come to underrate reason: findings that trivial things like a wall's colour sway our choices make headlines, while findings that people weigh relevant evidence are harder to publish. I share Bloom's more hopeful view of reason. Emotions like empathy can push us toward right action, but just as easily toward wrong action. In ethical choices, careful reasoning plays a decisive part.

① Train yourself to feel others' pain more deeply.
② Psychologists must stop publishing surprising results.
③ Reasoning must play a crucial role in ethical decisions.
④ Emotions are a more reliable moral guide than reason.
⑤ Compassion depends mainly on shared feeling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first study, published in the leading journal Cognition in 2020, raised new questions. Would the findings hold up in a repeat study? How long would the change last? And how much of it came from the video, which probably appealed more to feelings than to reasoning? So a second, similar study was run, this time showing the video to only a randomly chosen half of the students. Published in 2021, it again found a clear fall, from 51% to 42%, in meat-eating among students who had discussed meat ethics, but none among those who had discussed charity. The fall seemed larger with the video, yet it appeared even without it.

① Videos, Not Arguments, Change Our Diets
② A Class Discussion That Changed What Students Ate
③ Why Meat Ethics Classes Failed to Last
④ Charity Talks Cut Meat-Eating Too
⑤ Lab Tests Prove That Reason Rules Emotion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alf a century ago, in his futuristic novel A Clockwork Orange, Anthony Burgess described a brutal gang leader who is treated so that he can no longer be violent. After Stanley Kubrick's 1971 film of the book, many insisted that robbing anyone of free will could never be justified, however terrible the violence prevented. A morality pill would surely face the same complaint. Yet if brain chemistry really shapes our moral behavior, it makes no difference to our freedom whether that chemistry was set by nature or by a doctor. Either such chemical differences between people fit with free will, or, for some moral acts at least, we never had free will anyway.

① Brain chemistry makes punishment useless.
② A morality pill should be banned to protect free will.
③ Changing brain chemistry with medicine need not make us less free.
④ Kubrick's film proved that drugs can cure violence.
⑤ People are born good or bad and cannot change.

4. 밑줄 친 the slave of the passion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Plato pictured the soul as a chariot drawn by two horses, one for our rational, moral impulses and one for unruly passions. For Plato, harmony comes only when reason is in command. David Hume, writing in the eighteenth century, rejected this picture of reason battling the passions. On its own, he held, reason cannot move the will; it is, in his famous phrase, the slave of the passions. His 'passions' included fellow-feeling and care about our future interests, so what others saw as reason fighting emotion was, for him, a struggle between these calm passions and wilder, reckless ones.

① Reason can tame the passions if trained well.
② Reason alone does not move us; it serves our feelings and desires.
③ Passions should be obeyed without thought.
④ Reason and passion are equal partners.
⑤ The calm passions are reason's enemies.

5. 밑줄 친 numerical numbnes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s an old saying suggests, a single death strikes us as a tragedy, while a million deaths read like a mere statistic. If empathy makes us lean too far toward single individuals, big numbers have the opposite effect: they dull the feelings we should have. Decision Research, a nonprofit in Oregon, set up the website ArithmeticofCompassion.org to help people convey facts about problems affecting huge populations without causing numerical numbness. Today, when moving stories about one person spread rapidly online and shape public policy, few tasks matter more than helping everyone see the bigger picture.

① a habit of exaggerating how many people are affected
② a loss of feeling when suffering is expressed in large figures
③ difficulty in doing basic arithmetic
④ a fear of reading statistics in the news
⑤ too much sympathy for a single victim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Most discussion of such experiments overlooked one thing: some people acted rightly. A study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about which the authors have strong ethical doubts, may help explain why. Researchers took two rats living in the same cage and shut one of them inside a tube whose door could be opened only from outside. The free rats usually worked at the door until ① they got it open. Even when ② they could first eat a whole pile of chocolate, ③ they mostly chose to release ④ their cage-mate. The researchers read these results as proof that rats feel empathy, but if so, ⑤ they also showed that rats differ, since only 23 of the 30 freed their trapped partners.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In 2017, Eric Schwitzgebel gave the author a chance to test, more strictly than ever before, whether teaching the ethics of meat-eating could change what students chose to eat. With Brad Cokelet of the University of Kansas, they ran a study with 1,143 students from the Riverside campu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Half read a philosophy article in favour of vegetarianism and then talked it over in small groups, where they could choose to watch a video urging people to avoid meat. The rest, a control group, read and discussed similar material on giving to the poor. The researchers analysed dining-card data on nearly 6,000 purchases made by 476 students. Meat purchases in the meat ethics group fell from 52% to 45% and stayed lower for a few weeks, while the charity group showed no change.

① 연구 대상은 캔자스 대학의 학생들이었다.
② 실험 집단의 모든 학생은 고기를 피하자는 영상을 보아야 했다.
③ 대조군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기부에 관한 자료를 읽고 토론했다.
④ 연구진은 1,143명 전원의 식당 카드 구매 기록을 분석했다.
⑤ 기부 집단의 고기 구매는 52%에서 45%로 줄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Opposing empathy does not mean opposing compassion. In his book, Paul Bloom tells how he came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rough Matthieu Ricard, a Buddhist monk who is sometimes called the happiest man on earth. The neuroscientist Tania Singer scanned Ricard's brain while he practised compassion meditation and was surprised that the regions usually active when people share another's pain stayed quiet. Ricard could feel others' pain when asked, but he found the experience unpleasant and exhausting; compassion meditation, in contrast, he called a warm, positive state tied to a strong desire to help others. Singer has also coached people who do not meditate to think kindly of a series of people, from someone close out to strangers, which may make them kinder.

① 블룸은 공감과 연민의 차이를 리카르를 통해 알게 되었다.
② 리카르는 때로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린다.
③ 연민 명상 중 리카르의 뇌에서는 공감할 때 활발한 영역이 조용했다.
④ 리카르는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을 즐겁고 활력을 주는 일로 여겼다.
⑤ 타니아 싱어는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연민 명상을 가르쳤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A view much like Hume's now carries great weight in psychology. Jonathan Haidt, ① whose books include The Righteous Mind, borrows an image that recalls Plato's chariot but ② uses it to defend a position nearer to Hume's. The mind, he says, is split like a rider sitting on an elephant, and the rider's task is ③ to serve the elephant. In this picture, the rider stands for the mental processes we control, chiefly conscious reasoning, while the elephant stands for the remaining 99%, ④ mostly emotions and intuitions. His research has led him to regard moral reasoning as largely a justification produced after the fact. So he doubts that teachers can simply place moral knowledge in students' heads and expect them ⑤ act on it outside the classroom.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o the notion of a 'morality pill', a drug that makes us likelier to help others, is not as wild as it sounds. Would people take such a pill (A) [to become / becoming] better people? Criminals might be offered, instead of a prison term, an implant that releases a drug (B) [what / that] makes them less likely to harm anyone. To make sure the drug is actually taken, it could be paired with a 'smart pill' carrying a sensor that sends out data once (C) [swallowing / swallowed]. In the same way, governments might start screening the population for those most likely to break the law, offering them the drug and, if they refused, requiring them to wear a tracking device.

	(A)	(B)	(C)
①	to become	what	swallowing
②	to become	that	swallowed
③	becoming	that	swallowed
④	to become	that	swallowing
⑤	becoming	what	swallowed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After his election, Barack Obama told a girl that the world lacked empathy and that her generation should fix this. Because he voiced a ① common view, Paul Bloom's 2016 book Against Empathy came as a shock. How could anyone oppose something that lets us feel what others feel? One way to answer is to ask another question: whom should we feel for? Some analysts suggested that Hillary Clinton lost because she ② lacked empathy for white voters in the Rust Belt. Yet empathy for American workers ③ conflicts with concern for Mexican and Chinese workers, who would suffer even more without jobs. Empathy makes us kinder to those we identify with, but it has a ④ brighter side too. Donald Trump used the case of Kate Steinle, killed by an undocumented immigrant, to ⑤ fuel backing for his policies against immigrant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In The Righteous Mind, Jonathan Haidt backs his position with research by two philosophers, Eric Schwitzgebel and Joshua Rust. Across a range of moral matters, they found, professors who specialize in ethics act no better than philosophers in other fields, and no better than professors outside philosophy altogether. If even ethics specialists behave no more morally than their colleagues, it seems to follow that moral reasoning is _____ to improve how people behave. The author admits this may be so, but he was not fully persuaded. He had plenty of informal evidence that his own ethics classes had deeply changed at least some students: some stopped eating meat, others began giving to the very poor, and a few even changed their careers.

① powerless
② essential
③ bound
④ enough
⑤ the surest way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Only then will we properly understand why moral behavior differs so widely between individuals and whether we can do anything about it.

Sadly, such tests on animals still go on. (①) The authors cite the rat study unwillingly, but it makes one thing clear: what made some rats help and others not must be found within the rats themselves. (②) It seems reasonable to think that humans, too, are spread along a scale of readiness to help. (③) Circumstances can certainly make a huge difference, and so perhaps can moral beliefs, but if people simply differ in their tendency to act morally, we must learn more about those differences as well. (④) Studies of people who have given a kidney to a stranger show that their amygdalas are larger than average and more active when they see someone suffering. (⑤) The amygdala might be reacting to oxytocin, known to encourage care for others, strangers included.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What draws our empathy is often not what deserves it. ① Creatures with large round eyes, such as baby seals, stir far more empathy than chickens, though we cause chickens vastly greater suffering. ② Some people even hesitate to 'hurt' robots that they know feel nothing. ③ Plato compared the soul to a chariot drawn by two horses, one rational and the other driven by passion. ④ Fish, by contrast, cold and slimy and unable to cry out, win little sympathy, although, according to Jonathan Balcombe's book What a Fish Knows, plenty of evidence shows that they feel pain as birds and mammals do. ⑤ In the same way, empathy for a small number of children who were harmed, or are thought to have been harmed, by vaccines fuels much public resistance to vaccination.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Foshan, China, in 2011, a van struck a two-year-old girl, and the driver kept going. For the next seven minutes, over a dozen passers-by went past her, and a second truck struck her before a woman finally moved her aside. She later died in hospital.

(A) Why, then, do some risk their lives for a stranger while others will not even stop to call for help? In the 1960s and the early 1970s, Milgram and Zimbardo suggested that, in certain situations, most of us would willingly do serious harm to innocent people.

(B) Still, people are capable of acting quite differently, and often do. A news search for 'hero saves' regularly turns up bystanders who faced oncoming trains, strong currents or fires to rescue strangers.

(C) Footage of the whole scene was broadcast on television and spread online, causing public outrage. Similar events took place in London in 2004 and elsewhere, where no camera was recording.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mpathy can also lead us into unfairness. In one experiment, participants heard a terminally ill child being interviewed. One group was asked to stay as objective as they could; another was asked to imagine how the child felt. Everyone was then asked whether they would like to move this child up the treatment queue, ahead of other children whose need had been judged greater. Among those who had imagined the child's feelings, three in four made the request; among those who had tried to stay objective, only one in three did.

→ Participants encouraged to (A) _____ with a sick child were far more likely to put that child ahead of others in greater need, showing that empathy can make our decisions (B) _____.

① identify ..... unfair
② identify ..... impartial
③ reason ..... unfair
④ reason ..... impartial
⑤ compete ..... generous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In 2011, a two-year-old girl in Foshan, China, was hit by a van while passers-by walked on. In a University of Chicago study, only 23 of 30 rats set their trapped cage-mates free. People who gave a kidney to strangers turned out to have amygdalas larger than average. In 2016, the Yale psychologist Paul Bloom published Against Empathy. The Buddhist monk Matthieu Ricard said that feeling others' pain was unpleasant and draining for him. Long before, David Hume had called reason the slave of the passions. Finally, in the first classroom study, meat purchases among students who discussed meat ethics fell from 52% to 45%.

<QUIZ>

(1) In what year was the girl in Foshan hit by a van?
Answer for (1): _____

(2) How many of the 30 rats freed their trapped cage-mates?
Answer for (2): _____

(3) Which part of the brain was larger than average in kidney donors?
Answer for (3): _____

(4) Who wrote Against Empathy?
Answer for (4): _____

(5) Is it true or false that Ricard found feeling others' pain pleasant?
Answer for (5): _____

(6) Who called reason the slave of the passions?
Answer for (6): _____

(7) In the first study, to what level did meat purchases fall?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2004	N. 30
B. Plato	O. Matthieu Ricard
C. 42%	P. 23
D. Tania Singer	Q. 476
E. True	R. amygdala
F. 1971	S. Stanley Milgram
G. False	T. 45%
H. David Hume	U. 2011
I. Paul Bloom	V. 2017
J. 51%	W. Jonathan Haidt
K. oxytocin	X. 52%
L. 1,143	Y. Philip Zimbardo
M. Jonathan Balcombe	Z. 2016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2004년 런던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다른 일들도 그래 왔다. (as + 대동사 + 주어 도치)

02 왜 어떤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는가? (be prepared to V / 목적의 to V)

03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Only + 부사 문두 → 도치)

04 옥시토신은 낯선 사람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V / including)

05 폭력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누군가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no matter how + 형용사 / deprive A of B)

06 그것을 바꾸는 것은 너희 세대의 몫이다. (It is up to A to V)

07 크고 둥근 눈을 가진 동물은 닭보다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는 그 닭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한다. (전치사 + 관계대명사 on whom)

08 공감에 반대하는 것이 연민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to부정사 주어 + to부정사 보어)

09 관련 증거에 근거해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연구는 출판하기가 더 어렵고, 널리 알리기는 더욱 어렵다. (be hard to V / much less)

10 그가 정념이라고 부른 것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있다. (부사구 문두 → 도치 / what he called)

11 우리는 학생들의 머리에 도덕 지식을 집어넣기만 하고 그들이 그 지식을 실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can't just A and B / expect + O + to V)

12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한, 이 두 연구는 처음으로 제대로 통제된 조사이다. (as far as + S + V(범위 한정))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포산 사건이 일어난 해 / 다친 아이의 나이	
아이 곁을 지나친 시간 / 지나친 사람 수	
비슷한 일이 일어난 곳과 해	
무고한 이를 해칠 수 있음을 시사한 실험의 두 연구자 / 시기	
착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한 두 연구자 / 대상	
쥐 실험을 한 대학 / 동료를 풀어 준 쥐의 수	
신장 기증자에게서 평균보다 크고 활발한 뇌 부위 / 그것이 반응할 수 있는 물질	
『A Clockwork Orange』의 작가 / 영화 감독과 해	
『Against Empathy』의 저자 · 소속 / 나온 해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살해된 사람 / 『What a Fish Knows』의 저자	
대기 명단 실험에서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한 비율(상상 집단 / 객관 집단)	
숫자 무감각을 다루는 오리건의 비영리 단체 / 웹사이트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하는 승려 / 그의 뇌를 촬영한 신경과학자	
두 말이 끄는 마차의 비유를 쓴 철학자 · 책	
이성을 '정념의 노예'라고 한 철학자 / 시기	

항목	답
코끼리와 기수의 비유를 쓴 사람 / 코끼리가 차지하는 정신 과정의 비율	
윤리학 교수의 행동을 연구한 두 철학자 / 소속	
첫 실험의 해 / 공동 연구자 / 참여 학생 수	
식당 카드 자료(학생 수 / 구매 건수) / 고기 구매 변화	
두 연구가 실린 학술지와 해 / 두 번째 연구의 고기 먹기 변화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The Empathy Trap」에서 저자는 공감과 다른 감정이 흔히 옳은 일을 하게 하지만 그른 일을 하게 할 가능성도 똑같이 크다고 쓰고(33쪽 ¶7), 아이의 느낌을 상상하라는 말을 들은 참가자의 4분의 3이 우선순위가 더 높은 아이들을 제치고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했다는 실험을 들었다(33쪽 ¶1). 「Can Ethics Be Taught?」에서 저자는 이성이 '정념의 노예'라는 흄의 견해와 하이트의 견해를 소개한 뒤(34쪽 ¶4 · ¶6), 고기 먹기의 윤리를 읽고 토론한 학생들의 고기 구매가 줄었다는 두 연구를 내놓았다(35쪽 ¶5 · 36쪽 첫 줄 · 36쪽 ¶1). 「Are We Ready for a "Morality Pill"?」에서는 상황 요인과 (어쩌면) 도덕적 믿음 말고도 사람마다 다른 성향과 뇌의 화학이 도덕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30쪽 ¶2~¶3).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 우리의 능력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 근거를 「The Empathy Trap」과 「Can Ethics Be Taught?」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윤리적 결정에서 결정적인 능력: In making ethical decisions, our ability to _____ has a crucial role to play.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2 ANIMALS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If Fish Could Scream · Who Is a Person? · Are Insects Conscious?
원서 PDF 52~54 · 57~59 · 64~65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도덕적 배려는 어디까지 넓혀야 하는가."

이 권은 세 편의 칼럼으로 도덕적 배려의 경계를 묻는다. 「If Fish Could Scream」에서 저자는 해마다 1조~2조 마리가 고통스럽게 죽는데도 물고기에게만 인도적 도살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짚고,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를 모은다. 「Who Is a Person?」은 철망 우리에 갇힌 침팬지 토미의 재판에서 출발해, person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인간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며 이제 법이 많은 동물을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re Insects Conscious?」는 텃밭에서 굶어 죽은 애벌레를 보며 곤충에게도 주관적 경험이 있을 수 있는지 따지고, 곤충 권리 운동보다 척추동물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먼저 마무리하자고 결론짓는다. 세 편은 고통을 느끼고 자기를 아는 능력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그 능력이 우리의 배려를 어디까지 넓히게 하는지라는 하나의 물음으로 이어진다. 이 노트는 저자의 결론에 동의하라고 하지 않는다. 저자가 무엇을 근거로 어디까지 주장하는지를 네 눈으로 먼저 정확히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법은 많은 동물을 법적 지위를 가진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58쪽 ¶6 ~ 59쪽 첫 줄) / 물고기는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53쪽 ¶3~¶4) / 상업 어업과 양식은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고통을 낳는다(54쪽 ¶1) / 곤충 권리 운동은 이르다 – 먼저 척추동물의 이익을 진지하게(65쪽 ¶8~¶9)
4~5	**밑줄 함축 의미**	seemingly at peace with the world / Not for fish. / the forgotten victims on our plate / it is not merely a thing / in the proper sense of that term / a mere object / for no good reason at all / in microcosm / there is nothing that it is like to be that car / carrying compassion to its logical conclusion
6	지칭 추론	he · him · his가 토미와 그 주인 사이를 오가는 58쪽 ¶3 / he(52쪽 ¶2 낚시꾼 vs 아버지) / it(57쪽 ¶3 ignore it = 그 문제 vs it is not merely a thing = 침팬지) / They(58쪽 첫 줄 = 대형 유인원) / It(65쪽 ¶2 = 중앙 신경절) · they(65쪽 ¶3 = 애벌레)
7~8	내용 일치·불일치	770억 · 10 · 125 · 1.5kg · 2019년 추정(53쪽 ¶1~¶2) / 브레이스웨이트 · 2009년 EU 패널(53쪽 ¶4) / 해피 · 산드라 · 우타라칸드 · 콜롬비아 하마(58쪽 ¶3~¶5) / 뉴런 수 · waggle dance · 식물 · 해파리 · 갑각류 · 거미(65쪽 ¶1~¶4)
9~10	**어법**	would(과거 습관) · with + O + p.p. · 지각동사 + O + 원형 · be to V · require that + 원형 · no ~ nor · 전치사 + 의문사 도치 · sufficiently ~ to V · those · 대동사 do · otherwise + would · not only A but also B · all but one · get + O + to V · have + O + p.p. · to V is to V · so + 조동사 + 주어 · deny + IO + DO · 형용사 + as + S + V · 가정법 과거 · 동명사 주어 + mean -ing · may have p.p. · since + 현재완료 · 분사 후치 leading · making · be swarming with · leave + O + alone · 수여동사 수동 · 삽입절 I wonder · let alone · 형용사 + enough to · 의문사절 주어 · so much ~ that · 전치사 + whose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tranquil ↔ turbulent · humane ↔ inhumane · constrict ↔ loosen · sustainable ↔ unsustainable · reassuring ↔ alarming · attuned ↔ indifferent · myth ↔ fact · detention ↔ release · profound ↔ superficial · arguable ↔ indisputable · unanimous ↔ divided · entitled ↔ ineligible · impersonal ↔ personal · widespread ↔ rare · subjective ↔ objective · probable ↔ improbable · compassion ↔ indifference
12	빈칸 추론	never limited to human beings(57쪽 ¶4) / to count as an entity in one's own right(57쪽 ¶3) / sufficiently similar to those of birds and mammals(53쪽 ¶3) / no regard for the well-being(64쪽 ¶2) / the midbrain rather than the cortex(65쪽 ¶1) / capacity for suffering(65쪽 ¶9)
13	문장 삽입	물고기 수를 세는 방법(52쪽 ¶5 ~ 53쪽 첫 줄): 자망 → 질식 · 몇 시간 갇힘 → 얼마나 많은 물고기인가 → 공식 통계는 종별 톤수만 → 평균 무게로 나누기 → 무드와 브룩의 1조~2조
14	무관한 문장	곤충의 뇌와 주관적 경험(64쪽 ¶4 ~ 65쪽 첫 줄)에 다른 편의 사실(2015년 아르헨티나 법원의 판결, 58쪽 ¶4) 끼워 넣기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5	순서 배열	아버지와의 산책(52쪽 ¶1~¶2): 낚시하는 사람들 → 미끼로 꿴 작은 물고기(Once) → 잔잔한 시냇가의 헐떡이는 물고기(Another time) → 아버지의 말
16	요약문 완성	곤충에게 주관적 경험이 있다면 의식은 훨씬 많다 + 그 경험이 즐거운지 비참한지는 구조로 알 수 없다(65쪽 ¶5~¶7)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인물 · 숫자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조~2조 · 770억 · 10 · 125 · 1.5kg · 1,000억 · 5,000억~1조 · 6,270억 · 1,670억(물고기) / 18 · 1(거울 실험) / 3에이커 · 1에이커 · 7명 중 2명(재판) / 100만 · 200억 · 370억 · 1,000경(곤충). 연도도 많다 – 2009(EU 패널) · 2013(토미) · 2015(NIH · 산드라) · 1977(해피) · 2018(우타라칸드) · 2019(fishcount 추정) · 2021(콜롬비아 하마) · 2022(고다 마사노리 실험 · 해피 심리). 2015년과 2022년은 두 번씩 나온다. 인물도 많다(무드 · 브룩 · 브레이스웨이트 · 고다 · 와이즈 · 페이히 · 구달 · 포시 · 데카르트 · 배런 · 클라인).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at least ↔ less than 1.5 kilos, not unanimous ↔ unanimous, midbrain ↔ cortex, have ↔ have no structures, admire ↔ smile at, not launch ↔ launch a campaign). '~일 수도 있다'(may · could · Perhaps · supposedly)를 사실로 바꾼 선지와, 소개된 견해(데카르트 · 페이히 · 반대자들의 희화화)를 저자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If Fish Could Scream · Who Is a Person? · Are Insects Conscious?」 (52~54 · 57~59 · 64~65쪽)

논증형 세 편(사례 → 쟁점 → 반론 검토 → 저자의 결론). 「If Fish Could Scream」은 어린 시절의 기억 → 물고기에게만 없는 도살 규정 → 1조~2조라는 규모 → '물고기는 고통을 못 느낀다'는 생각과 그 반증 → 결론, 「Who Is a Person?」은 토미 재판 → 법적 · 철학적 답 → '투표권까지 주자는 것이냐'는 희화화 반박 → 세계의 판결 → 결론, 「Are Insects Conscious?」는 굶어 죽은 애벌레 → 데카르트의 해법 → 곤충 뇌의 새 모델 → 의식의 범위 → 결론으로 간다. 핵심 축은 **물건 vs 인격체**,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확실한 존재 vs 아직 불확실한 존재**.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52 ¶1~¶2	사례	아버지와의 산책 · 미끼로 꿴 작은 물고기 · 시냇가에서 헐떡이는 물고기 / 아버지 = 물고기를 천천히 죽게 두며 오후를 즐기는 것을 이해 못 함
52 ¶3~¶4	쟁점	먹으려고 죽인다면 고통 없이 = 세계 대부분의 합의 / Not for fish · 트롤선 그물 → 질식 · 연승 50~100km · 몇 시간 의식
52 ¶5~53 첫 줄	규모	자망 → 질식 · 몇 시간 갇힘 / 공식 통계 = 톤수 → 평균 무게로 나눔 · 무드와 브룩 = 해마다 1조~2조 마리
53 ¶1~¶2	비교	새 · 포유류 770억(1인당 약 10) vs 물고기 125 / 간접 소비 · 연어 1kg = 야생 1.5kg 이상 · 6,270억이 죽어 1,670억이 팔림
53 ¶3	반론 검토	고통을 못 느낀다면 안심 → 신경계 유사 · 몇 시간 이어지는 행동 변화 · 짧은 기억은 근거 없는 믿음 · 전기 충격 회피 · 진통제
53 ¶4~¶5	증거	브레이스웨이트『Do Fish Feel Pain?』· 2009년 EU 패널 / 2022년 고다 · 청소놀래기 거울 실험(18마리 중 한 마리 빼고)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54 ¶1	결론 1	왜 잊힌 희생자인가 · 냉혈 · 비늘 · 고통을 소리로 못 냄 / 상업 어업과 양식 = 상상할 수 없는 고통 · 덜 잔인한 먹을거리
57 ¶1~¶2	사례	토미 · 철망 우리 독방 · 2013년 인신 보호 영장 / 플로리다 보호구역 · 기각 → 항소 허가 신청 · 법적 인격은 인간만?
57 ¶3	법적 답	와이즈 = 판례 · 법인 · 강 · 경전 · 모스크 / 항소 불허 · 페이히의 별도 의견 = 단순한 물건은 아니다
57 ¶4~58 첫 줄	철학적 답	person = 로마 기원 · 삼위일체 / E.T. · 나비족 / 구달 · 포시의 유인원 = 관계 · 슬픔 · 자기 인식 · 계획 · 윤리의 싹
58 ¶1~¶2	반론 검토	투표권 · 학교 · 명예훼손 소송이 아님 = 법적 지위만 / 유럽 실험실 · 2015년 NIH → 개인이 가둘 까닭이 없다
58 ¶3	후속 사건	토미 행방불명 · 죽음의 기록도 없음 / 2022년 해피(1977년부터 브롱크스 동물원) · 기각이지만 7명 중 2명 석방 찬성
58 ¶4~59 첫 줄	결론 2	산드라(2015) · 우타라칸드(2018) · 콜롬비아 하마(2021) / 법은 많은 동물을 법적 지위를 가진 인격체로 인정할 때
64 ¶1~¶2	사례	배추흰나비 · 루콜라 · 굶어 죽은 애벌레 / 진화 = 개체의 안녕을 돌보지 않음 · 유신론자에게 던지는 물음
64 ¶3	반론 검토	원죄 설명은 애벌레에 안 맞음 · 데카르트 = 동물은 고통을 못 느낀다 · 개 · 말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애벌레만이라도?
64 ¶4~65 ¶2	새 모델	독립 신경절 모델 → PNAS · 배런과 클라인 / 주관적 경험 · 자율주행차 / 중뇌 vs 피질 / 곤충의 중앙 신경절
65 ¶3~¶5	범위	꿀벌 100만 뉴런 · waggle dance / 애벌레도 고통을? / 식물 · 해파리 · 회충은 구조 없음, 갑각류 · 거미는 있음 / 1,000경 마리
65 ¶6~¶9	결론 3	즐거움일까 비참일까 = 구조로는 모름 / 자이나교 승려를 존경해야 · 곤충 권리 운동은 아직 · 먼저 척추동물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물고기 도살	다른 동물 — 즉시 의식을 잃게 하거나 즉사(규정)	물고기 — 규정 없음 · 질식 · 몇 시간 의식
물고기 수 세기	공식 통계 — 종별 톤수	한 마리씩이 개체 — 평균 무게로 나눔
물고기의 고통	고통을 못 느낀다(믿으면 안심이 되는 생각)	신경계 유사 · 행동 변화 · 학습 · 진통제 · 2009년 EU 패널
물고기의 기억	기억이 짧다(통념)	근거 없는 믿음 · 행동 변화가 몇 시간 이어짐
법적 인격	인간만의 것 아닌가(판사들의 물음)	법인 · 강 · 경전 · 모스크(와이즈의 판례)
침팬지의 지위	person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페이히)	단순한 물건은 결코 아니다(페이히) / 철학적으로 person(저자)
person의 뜻	person = human being	로마 기원 · 삼위일체 · E.T. · 나비족 · 대형 유인원
person 선언의 뜻	투표 · 취학 · 명예훼손 소송(반대자의 희화화)	가장 기본적인 권리 =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법원의 판단	뉴욕 법원 — 토미 · 해피 신청 기각 / 해피 사건은 판사 7명 가운데 2명이 석방에 찬성	아르헨티나(2015) · 인도(2018) — 인정 / 미국 법원도 콜롬비아 하마를 소송 당사자로(증거 조사 목적에 한해)
동물의 고통	데카르트 — 동물은 고통을 못 느낀다	당대에도 개 · 말에는 안 통함 / 포유류 · 조류 연구가 반박
곤충의 신경	독립 신경절이 몸의 마디를 따로 조종(옛 모델)	중뇌 같은 중앙 신경절 · 주관적 경험 가능(배런 · 클라인)
자이나교 승려	서양 — 웃어넘김	존경해야 한다 — 연민을 논리적 결론까지(저자) · 그러나 곤충 권리 운동은 아직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If Fish Could Scream	저자의 어린 시절 = 아버지와 강가 · 바닷가 산책 · 미끼로 꿴 작은 물고기 · 잔잔한 시냇가에서 헐떡이는 물고기
도살 규정	세계 대부분 = 고통 없이 · 즉시 의식을 잃게 / 즉사 / 종교 의식 도살은 교리가 허락하는 한 즉사에 가깝게 · 야생 물고기 = 규정 없음 · 양식 물고기 = **대부분의 지역에서** 없음
trawler / longline / gill net	트롤선 그물 → 갑판에서 질식 / 연승 = **50~100km** 줄 · 수백~수천 개 미끼 바늘 · 몇 시간 의식이 남아 있을 가능성 / 자망 = 흔히 아가미로 걸림 → 질식 또는 몇 시간 갇힘
fishcount.org.uk	**Alison Mood** · **Phil Brooke** · 톤수를 종별 평균 무게로 나눔 · 어림수로 해마다 **1조~2조** 마리
77 billion / 125	FAO = 해마다 먹으려고 죽이는 새 · 포유류 **770억** 마리(1인당 약 **10**) / 하한 1조 기준 물고기 = 1인당 **125** · 불법 어획 · 혼획(bycatch) · 미끼용 산 물고기는 빠짐
연어 양식	연어 1kg에 야생 물고기 **적어도 1.5kg** · 사료 물고기가 더 작아 개체 수 비율은 훨씬 나쁨
2019년 추정	양식 물고기 약 **1,000억** 마리 · 어분 · 어유용 **5,000억~1조** 마리 / 업계에 가장 유리한 추정 = **6,270억** 마리가 죽어 **1,670억** 마리가 팔림
물고기 고통의 증거	신경계가 새 · 포유류와 충분히 비슷 · 몇 시간 이어지는 행동 변화 · 기억이 짧다 = **근거 없는 믿음** · 전기 충격 회피 학습 · 진통제가 증상을 줄임
Victoria Braithwait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어업학 · 생물학 교수 · 아마 누구보다 오래 연구 · 『Do Fish Feel Pain?』 = 고통을 느끼고 생각보다 훨씬 영리
2009년 EU 과학 패널	증거의 대부분(preponderance)이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쪽을 가리킨다
Masanori Kohda	**2022**년 · **Osaka City University** · 청소놀래기(cleaner wrasse) 거울 실험 · 마취한 **18**마리 목에 색깔 반점 · **한 마리 빼고** 모두 자기 목을 긁음
Tommy	침팬지 · 뉴욕주 북부 철망 우리에서 여러 해 독방 · 지금은 행방 모름(주인은 동물원에 팔았다고 하나 기록 없음)
habeas corpus	**2013**년 Nonhuman Rights Project · 라틴어로 "you have the body" · 구금이 합법인지 법원이 따져 보게 하는 영장
플로리다 보호구역	토미를 옮기려던 곳 · 호수 안 **3에이커** 섬에서 다른 침팬지들과
Steve Wise / Eugene Fahey	와이즈 = 프로젝트 **창립자** · 판례(법인 · 강 · 경전 · 모스크) / 페이히 = 별도 의견 · person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단순한 물건은 아니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person의 기원	**로마** 기원 · 삼위일체(아버지 · 아들 · 성령) — 하나만 인간 / 「E.T.」의 외계인 · 「Avatar」의 나비족 / **Jane Goodall** · **Dian Fossey**의 대형 유인원
2015년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의학 연구에서 침팬지 사용 중단 발표 / 유럽 실험실 = 침팬지를 연구실에서 풀어 줌
Happy	코끼리 · **1977**년부터 **Bronx Zoo** · **1에이커** 우리에 홀로 / **2022**년 심리 · 영어권 최고 법원의 첫 비인간 인신 보호 사건 · 기각, **7명 중 2명** 석방 찬성
Sandra	오랑우탄 · **Buenos Aires Zoo** · **2015**년 아르헨티나 법원 = "대형 유인원은 법적 능력을 지닌 법적 인격체"
Uttarakhand	인도 북부의 주 · **2018**년 고등법원 = 조류 · 수생 동물을 포함한 동물계 전체가 법적 실체
Colombia / 하마	헌법재판소 =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 / **2021**년 야생 하마 불임 시술 사건 · 야생동물 전문가 **2명** · 미국 법원 = 증거 조사 목적에 한해 **Magdalena River**의 하마 공동체를 소송 당사자로
애벌레 / Descartes	배추흰나비 · 루콜라 · 굶어 죽은 애벌레 / 원죄를 모두 물려받았다 = '그렇다고들 한다' / 데카르트 = 동물은 고통을 못 느낀다 · 당대에도 개 · 말에는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음
Barron / Klein	**Macquarie University** · Andrew Barron = 인지과학자 · Colin Klein = 철학자 · PNAS 논문 = 독립 신경절 모델 거부 · 주관적 경험은 더 널리 · 더 오래
뉴런 수	꿀벌 약 **100만** / 사람 신피질 약 **200억** / 들쇠고래(pilot whale) 신피질 **370억** · waggle dance = 꽃 · 물 · 둥지 후보지의 방향과 거리
의식의 범위	구조 없음 = 식물 · 해파리 · 회충 / 있음 = 곤충 · 갑각류 · 거미 / Smithsonian Institution = 한순간에 살아 있는 곤충 약 **1,000경**(10 quintillion) / 자이나교 승려 = 존경해야(저자)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If Fish Could Scream · Who Is a Person? · Are Insects Conscious? (원서 PDF 52~54 · 57~59 · 64~65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2-1 사례와 쟁점 — 물고기에게만 없는 고통 없는 죽음 52쪽 ¶1 ~ 53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52쪽 ¶1 ~ 53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2쪽 ¶1 첫 문장	my father used to take me	도입 사례 — 저자의 어린 시절
▲	52쪽 ¶1 둘째 문장	We would pass people fishing … with struggling fish hooked	would(과거 습관) / with + O + p.p.
▲	52쪽 ¶1 셋째 문장	I saw a man take … and impale it	지각동사 + O + 원형 병렬
◆	52쪽 ¶2 첫 문장	seemingly at peace with the world	밑줄 의미: 죽어 가는 물고기와 대비
◆	52쪽 ¶2 둘째 문장	he could not understand how	지칭: he = 아버지(앞의 he = 낚시꾼)
▲	52쪽 ¶3 첫 문장	if animals are to be killed for food	be to V / 세계 대부분의 합의
▲	52쪽 ¶3 둘째 문장	require that animals be rendered	요구 동사 + that + 원형
◆	52쪽 ¶4 첫 문장	Not for fish.	밑줄 의미 1순위
★	52쪽 ¶4 둘째 문장	nor … for farmed fish	일치 — '대부분의 지역에서'
★	52쪽 ¶4 넷째 문장	50–100 kilometers long	숫자 — 일치 후보
★	52쪽 ¶4 다섯째 문장	likely to remain fully conscious	내용 일치 — '가능성이 크다'
▲	52쪽 ¶5 첫~둘째 문장	in which fish become snared … with their gills constricted	전치사 + 관계사 / with 구문
▲	52쪽 ¶6 첫 문장	On how many fish do humans	전치사 + 의문사 앞으로 → 도치
★	52쪽 ¶6 둘째 문장	each fish is an individual	빈칸 후보 · 동격 that
★	52쪽 ¶6 셋째 문장	divide the reported tonnage by	삽입 1순위 — done this의 내용
★	53쪽 첫 줄	between one and two trillion	숫자 — 서답형 1순위

내용

저자가 어릴 때 아버지는 자주 저자를 데리고 강가나 바닷가를 걸었다. 그 길에서 두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들을 지나치곤 했는데, 줄 끝에 걸려 버둥대는 물고기를 감아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한번은 한 남자가 양동이에서 작은 물고기를 꺼내 아직 꿈틀거리는 채로 빈 바늘에 꿰어 미끼로 쓰는 것을 보았다. 또 한번은 잔잔한 시냇가에서 한 남자가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는 듯한 모습으로 앉아 낚싯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는 이미 잡힌 물고기들이 힘없이 퍼덕이며 공기

속에서 헐떡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물고기를 물에서 꺼내 천천히 죽게 두며 오후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저자에게 말했다. 세계 대부분에서는 동물을 먹으려고 죽인다면 고통 없이 죽여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져 있다. 도살 규정은 대개 죽이기 전에 동물을 즉시 의식을 잃게 하거나, 즉사하게 하거나, 종교 의식에 따른 도살이라면 교리가 허락하는 한 즉사에 가깝게 하도록 요구한다. 물고기는 예외다. 바다에서 잡혀 죽는 야생 물고기에게는 인도적 도살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양식 물고기에게도 없다. 트롤선의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갑판에 쏟아진 채 질식하도록 내버려진다. 연승어업에서는 트롤선이 50~100킬로미터에 이르는 줄에 수백, 많게는 수천 개의 미끼 바늘을 달아 내보낸다. 미끼를 문 물고기는 줄을 끌어올릴 때까지 입에 바늘이 꿰인 채 여러 시간 끌려다니면서도 의식이 온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상업 어업은 자망, 곧 물고기가 흔히 아가미로 걸려드는 고운 그물벽에도 많이 기댄다. 아가미가 조여 숨을 쉬지 못하는 물고기는 그물에서 질식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물을 걷을 때까지 여러 시간 갇혀 있을 수 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물고기에게 이런 끔찍한 죽음을 안기는가. 공식 통계는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개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잡힌 여러 종의 톤수만 보고하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잔인하게 죽은 지각 있는 존재의 수를 얻으려면 종마다 평균 무게를 알아내 보고된 톤수를 그 값으로 나누어야 한다. 앨리슨 무드와 필 브룩이 웹사이트 fishcount.org.uk를 위해 이 계산을 했고, 어림수로 해마다 1조에서 2조 마리의 물고기가 죽는다고 추정한다.

어법

- **We would pass people fishing, perhaps reeling in their lines with struggling fish hooked at the end of them** : would = 과거에 되풀이된 습관(~하곤 했다). people fishing = 현재분사 후치, perhaps reeling in ~도 people을 설명하는 분사구. with + O(struggling fish) + 과거분사(hooked) = O가 ~된 채로. them = their lines.
- **Once I saw a man take a small fish out of a bucket and impale it, still wriggling, on an empty hook to use as bait** : 지각동사 saw + O + 원형부정사(take와 impale이 and로 병렬). still wriggling = it(작은 물고기)의 상태를 덧붙이는 분사구. to use as bait = 목적의 to부정사.
- **My father told me that he could not understand how anyone could enjoy an afternoon spent taking fish out of the water and letting them die slowly** : how + S + V = understand의 목적어인 간접의문문. an afternoon spent -ing = 과거분사 후치(spend + 시간 + -ing에서 온 구조). let + O + 원형(die).
- **In most of the world, it is accepted that if animals are to be killed for food, they should be killed without suffering**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if절의 be to V = 의도 · 예정(~하려면, ~하게 되어 있다면). be killed = 수동.
- **Regulations for slaughter generally require that animals be rendered instantly unconscious before they are killed, or death should be brought about instantaneously** : require(요구) + that + S + (should) 동사원형. 원문은 첫째 절에 원형 be, 둘째 절에 should be를 썼다(같은 구조). render + O + 형용사의 수동 = be rendered unconscious(의식을 잃게 되다).
- **There is no humane slaughter requirement for wild fish caught and killed at sea, nor, in most places, for farmed fish** : no + 명사로 부정한 뒤 nor + 전치사구로 부정을 이어 감(~에게도 없다). caught and killed = 과거분사 병렬 후치 수식. in most places = 삽입.
- **gill nets—walls of fine netting in which fish become snared, often by the gills. They may suffocate in the net, because, with their gills constricted, they cannot breathe** : 대시 뒤 = gill nets의 풀이(동격).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 where). become + 과거분사 = ~되다. with + O + p.p. = 부대상황(아가미가 조인 채).
- **On how many fish do humans inflict these awful deaths?** : inflict A on B(B에게 A를 가하다)의 on + how many fish가 의문사구로 문장 맨 앞에 나오고 do + 주어가 도치된 직접의문문(도치하지 않은 On how many fish humans inflict ~?는 오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el in	감아올리다	wind in	let out
impale	꿰다, 찌르다	pierce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wriggle	꿈틀거리다	squirm	—
tranquil	잔잔한, 고요한	calm	turbulent
helplessly	힘없이, 속수무책으로	powerlessly	—
gasp	헐떡이다	pant	—
slaughter (n.)	도살	butchering	—
render	(어떤 상태로) 만들다	make	—
humane	인도적인	compassionate	inhumane
suffocate	질식하다	smother	—
snare	(덫으로) 걸리게 하다	trap	release
constrict	조이다	tighten	loosen
inflict A on B	B에게 A를 가하다	impose	spare
sentient	지각 있는	conscious	insentient

내용 일치 아버지와의 산책 = 강가나 바닷가 · 미끼 = 양동이의 작은 물고기를 꿈틀거리는 채로 빈 바늘에 · 시냇가 = 낚시꾼은 평화로워 '보임', 잡힌 물고기는 공기 속에서 헐떡임 · 아버지 = 그런 오후를 즐기는 것을 이해 못 함 · 고통 없는 도살 = 세계 대부분의 합의 · 야생 물고기 = 규정 없음, 양식 물고기 = '대부분의 지역에서' 없음 · 트롤선 그물 → 갑판에서 질식 · 연승 = 50~100km, 수백~수천 개 바늘, 의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자망 = 흔히 아가미로 걸림 → 질식 또는 몇 시간 갇힘 · 공식 통계 = 종별 톤수 · 평균 무게로 나눔 · 무드와 브룩 = 어림수로 해마다 1조~2조 마리. **지칭** 52쪽 ¶1 them(the end of them) = their lines / it(impale it) = 작은 물고기 / ¶2 his line · he had already caught = 낚시꾼 / he could not understand = 저자의 아버지 / them(letting them die) = 물고기 / ¶5 They(may suffocate) = 자망에 걸린 물고기 / ¶6 these awful deaths = 질식 · 몇 시간 끌려다님 · 갇힘 / done this = 톤수를 평균 무게로 나누는 계산.

> **한 줄 요약** 어린 시절 낚시꾼 곁에서 죽어 가던 물고기를 떠올린 저자는, 다른 동물과 달리 물고기에게는 고통 없는 도살 규정이 없으며 그렇게 죽는 물고기가 해마다 1조~2조 마리에 이른다고 쓴다.

2-2 반론과 저자의 답 – 물고기는 고통을 느낀다 53쪽 ¶1 ~ 54쪽 ¶1

원문 위치 원서 53쪽 ¶1 ~ 54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3쪽 ¶1 첫 문장	77 billion birds and mammals	숫자 — 일치 · 서답형 후보
★	53쪽 ¶1 둘째 문장	the comparable figure … is 125	숫자 — 1인당 수치
★	53쪽 ¶1 셋째 문장	does not include … 'bycatch'	내용 일치 — 빠진 것
★	53쪽 ¶2 둘째 문장	at least 1.5 kilos of wild fish	불일치 1순위(at least)
▲	53쪽 ¶2 셋째 문장	the fish used for feed	비교급 강조 / 과거분사 후치
★	53쪽 ¶2 다섯째 문장	627 billion … so that 167 billion	숫자 / so that 목적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3쪽 ¶3 첫 문장	though of course it is not	though 뒤 보어 생략
◆	53쪽 ¶3 둘째 문장	It would then be reassuring	밑줄 의미: 반론 소개
▲	53쪽 ¶3 셋째 문장	sufficiently similar to those of	sufficiently ~ to V / those / 대동사 do
★	53쪽 ¶3 다섯째 문장	It is a myth that fish …	True/False 반전 1순위
▲	53쪽 ¶3 일곱째 문장	that they would otherwise show	otherwise + would
★	53쪽 ¶4 둘째 문장	not only are capable …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 · 요지
★	53쪽 ¶4 셋째 문장	In 2009, a scientific panel	숫자 — 서답형 후보
★	53쪽 ¶5 둘째 문장	led by Masanori Kohda	인물 · 연도 — 일치 후보
●	53쪽 ¶5 둘째 문장	is attuned to looking for	어휘 반전: attuned ↔ indifferent
◆	54쪽 ¶1 첫 문장	the forgotten victims on our plate	밑줄 의미 — 잊힌 희생자

내용

이 숫자의 크기를 가늠해 보자.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해마다 사람이 먹으려고 죽이는 새와 포유류가 770억 마리라고 추정하는데, 지구에 사는 사람 한 명당 약 10마리꼴이다. 무드와 브룩의 낮은 추정치인 1조 마리를 쓰면 물고기의 같은 수치는 125마리다. 여기에는 불법으로 잡힌 수십억 마리, 우연히 잡혔다가 버려지는 원치 않는 물고기인 '혼획', 연승어업에서 미끼로 바늘에 꿴 산 물고기는 들어 있지 않다. 이 물고기 가운데 다수는 간접적으로 소비된다. 갈려서 공장식으로 기르는 닭이나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보통의 연어 양식장은 연어 1킬로그램을 생산할 때마다 적어도 1.5킬로그램의 야생 물고기를 써 버린다. 사료로 쓰는 물고기가 대개 식용으로 팔리는 물고기보다 작기 때문에, 지각 있는 개체의 생명으로 따지면 비율은 훨씬 나쁘다. fishcount.org.uk의 추정으로는 2019년에 양식 물고기 약 1,000억 마리가 길러져 죽었고, 대부분 양식 물고기와 갑각류의 먹이가 되는 어분과 어유를 만들려고 잡힌 물고기는 5,000억~1조 마리다. 양식업에 가장 유리한 추정치를 쓰고 최종 생산물인 물고기의 죽음까지 넣으면, 1,670억 마리를 팔려고 6,270억 마리가 죽었다. 이 모든 어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해 보자(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물고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 이렇게 큰 규모의 죽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으면 안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고기의 신경계는 새나 포유류의 신경계와 충분히 비슷해서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른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만한 일을 겪으면 물고기는 고통을 짐작하게 하는 행동을 보이고, 그 변화는 몇 시간 이어지기도 한다(물고기의 기억이 짧다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물고기는 전기 충격 같은 불쾌한 경험을 피하는 법을 배우고, 진통제는 물고기가 그러지 않았다면 보였을 고통의 증상을 줄인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어업학 · 생물학 교수 빅토리아 브레이스웨이트는 아마 다른 어느 과학자보다 이 문제를 오래 연구했을 것이다. 그의 책 『Do Fish Feel Pain?』은 물고기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믿는 것보다 훨씬 영리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09년 유럽연합에 의견을 낸 과학 패널은 증거의 대부분이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는 쪽을 가리킨다고 결론지었다. 물고기는 자신을 별개의 존재로 인식할 수도 있다. 2022년 오사카 시립대학교의 고다 마사노리가 이끈 연구팀은, 다른 동물의 피부에서 기생충을 떼어 먹어서 물고기 몸의 색깔 반점을 찾는 데 민감한 청소놀래기가 거울 속 자신을 알아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거울은 자기 인식의 고전적 시험이다. 연구자들은 마취한 청소놀래기 18마리의 목에 색깔 반점을 주입하고, 마취에서 깨어난 물고기에게 거울을 보여 주었다. 반점이 있는 자기 모습을 본 뒤 한 마리를 빼고 모두 거울 속 모습의 목이 아니라 자기 목을 긁었다. 왜 물고기는 우리 접시 위의 잊힌 희생자일까. 냉혈 동물이고 비늘로 덮여 있어서일까, 고통을 소리 내어 표현하지 못해서일까. 까닭이 무엇이든, 상업 어업과 양식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통을 낳는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우리에게는 덜 잔인하고 더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가 많다.

어법

- **77 billion birds and mammals are killed each year for human consumption—the equivalent of about ten animals for each human being on the planet** : 대시 뒤 명사구 = 앞의 숫자를 바꿔 말한 동격. the equivalent of = ~에 해당하는 것. 주어 77 billion birds and mammals(복수) → are killed.
- **A typical salmon farm churns through at least 1.5 kilos of wild fish for every kilo of salmon that it produces** : at least = 적어도(최소). for every = ~마다.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선행사 salmon), it = salmon farm.
- **627 billion fish were killed so that 167 billion fish could be sold** : so that + S + could = ~하기 위해(목적). fish는 단수 · 복수의 꼴이 같다(여기서는 복수 → were).
- **Let's assume that all this fishing is sustainable, though of course it is not. It would then be reassuring to believe that killing on such a vast scale does not matter** : though 뒤 it is not (sustainable) = 보어 생략. would = 가정의 결과(그렇다면 ~일 것이다). 가주어 It + 진주어 to believe. such a + 형용사 + 명사 어순.
- **the nervous systems of fish are sufficiently similar to those of birds and mammals to indicate that they do** : sufficiently + 형용사 + to V =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 enough to V). those = the nervous systems(복수를 받는 지시대명사). they = fish, do = 대동사(feel pain).
- **And painkillers reduce the symptoms of pain that they would otherwise show** :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symptoms). otherwise = 진통제가 없다면 → would + 원형(가정의 결과). they = fish.
- **Her book Do Fish Feel Pain? shows that fish not only are capable of feeling pain, but also are a lot smarter than most people believe** : not only A but also B = 동사구 are capable of ~와 are smarter ~의 병렬. 주어 Her book(단수) → shows. a lot = 비교급 강조. be capable of -ing.
- **all but one of them scraped their own throats, rather than seeking to scrape the throats of their reflection** : all but one = 하나를 빼고 모두(but = ~을 빼고). rather than + -ing = ~하지 않고, ~하는 대신. their own = 강조(자기 자신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erspective	(제대로 된) 비교의 틀, 관점	context	—
consumption	소비	use	production
discard	버리다	throw away	keep
favorable	유리한	advantageous	unfavorable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renewable	unsustainable
reassuring	안심시키는	comforting	alarming
sufficiently	충분히	adequately	insufficiently
suggestive of	~을 시사하는	indicative of	—
myth	근거 없는 믿음	misconception	fact
preponderance	우세, 대부분	majority	minority
distinct	별개의, 뚜렷한	separate	indistinct
attuned to	~에 민감한, 맞춰진	sensitive to	indifferent to
anesthetized	마취된	sedated	conscious
accumulate	쌓이다	build up	dwindle

내용 일치 770억 = 새와 포유류(FAO, 1인당 약 10) · 125 = 물고기(하한 1조 기준, 1인당) · 빠진 것 = 불법 어획 · 혼획 · 미끼로 꿴 산 물고기 · 연어 1kg = 야생 물고기 '적어도' 1.5kg · 사료 물고기가 더 작다 → 개체 수 비율은 더 나쁨 · 2019년 = 양식 약 1,000억 · 어분 · 어유용 5,000억~1조 · 6,270억이 죽어 1,670억이 팔림(업계에 가장 유리한 추정) · 지속 가능하다는 가정 = 사실이 아님 · 기억이 짧다 = 근거 없는 믿음 · 브레이스웨이트 =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 2009년 = EU 과학 패널 · 2022년 = 고다 마사노리(오사카 시립대) · 18마리 중 한 마리 빼고 자기 목을 긁음 · 냉혈 · 비늘 · 소리를 못 냄 = 저자가 던진 물음일 뿐 답이 아님. **밑줄 의미** It would then be reassuring to believe = 반론(물고기는 고통을 못 느낀다)을 먼저 소개하는 가정 — 저자의 주장이 아님 / It is a myth that fish have short memories = 행동 변화가 몇 시간 이어진다는 앞 문장의 뒷받침 / the forgotten victims on our plate = 먹을거리를 따질 때 물고기의 고통은 고려되지 않는다 / 53쪽 ¶3 they do = 물고기가 고통을 느낀다 / those of birds and mammals = 새와 포유류의 신경계.

> **한 줄 요약** 물고기는 새와 포유류보다 훨씬 많이 죽임을 당하며 신경계 · 행동 · 실험 증거로 보아 고통을 느끼고 자기 인식의 가능성까지 보이므로, 상업 어업과 양식은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고통을 낳는다.

2-3 사례와 저자의 답 — 토미 재판과 person의 뜻 57쪽 ¶1 ~ 58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57쪽 ¶1 ~ 58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7쪽 ¶1 첫 문장	in solitary confinement	사례 — 내용 일치
★	57쪽 ¶1 둘째 문장	In 2013, … habeas corpus	숫자 · 용어 — 서답형 후보
▲	57쪽 ¶2 첫 문장	to get a court to consider whether	get + O + to V / whether절
▲	57쪽 ¶2 둘째 문장	to have him transferred …, where	have + O + p.p. / 계속적 where
★	57쪽 ¶2 둘째 문장	on a three-acre island in a lake	숫자 — 해피는 1에이커
★	57쪽 ¶2 넷째 문장	just for human beings?	쟁점 — 판사들의 물음
★	57쪽 ¶3 둘째 문장	to be a person is to count as	빈칸 후보 / to V is to V
▲	57쪽 ¶3 셋째 문장	and so, too, can a river	so + 조동사 + 주어 도치
▲	57쪽 ¶3 넷째 문장	denied Tommy's advocates leave	deny + IO + DO
◆	57쪽 ¶3 인용 셋째	we will not be able to ignore it	지칭: it = 자유권 문제
◆	57쪽 ¶3 마지막 문장	it is not merely a thing	밑줄 의미 1순위 · it = 침팬지
▲	57쪽 ¶4 첫 문장	difficult as it may be	형용사 + as + S + V(양보)
★	57쪽 ¶4 둘째 문장	never limited to human beings	빈칸 1순위
▲	57쪽 ¶4 넷째 문장	If 'person' meant … would be	가정법 과거
★	57쪽 ¶5 첫 문장	E.T. … the Na'vi in Avatar	예시 — 인간 아닌 person
◆	58쪽 첫 줄	the rudiments of ethics	밑줄 의미 · they = 대형 유인원

내용

침팬지 토미는 뉴욕주 북부의 철망 우리에서 여러 해를 홀로 갇혀 지냈다. 2013년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Nonhuman Rights Project)는 토미의 감금을 주 항소 법원에 가져가려고 인신 보호 영장(habeas corpus, 라틴어로 '너는 몸을 가지고 있다')이라는 오래된 법적 절차를 끌어왔다. 이 영장은 보통 누군가의 구금이 합법인지 법원이 따져 보게 할 때 쓴다. 토미를 대신한 신청서는 토미를 플로리다의 보호구역으로 옮겨, 호수 안 3에이커 섬에서 다른 침팬지들과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처음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고, 프로젝트는 뉴욕 항소 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에 항소 허가를 신청했다. 그곳에서 판사 다섯 명은 프로젝트의 창립자 스티브 와이즈의 변론을 듣고 나서 번한 질문을 던졌다. 법적 인격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와이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판례를 들었다. 민법에서 인격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체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법인이 법적 인격체가 될 수 있고, 강과 경전과 모스크도 그렇다. 법원은 토미의 변호인들에게 항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유진 페이히 판사는 이 결정에 분명히 의문을 품었다. 그는 별도 의견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이 인신 보호 영장으로 보호받는 자유의 기본권을 가지느냐는 문제는 심오하고 영향이 크며,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관계에 닿아 있어서 결국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리고 침팬지가 '인격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저자는 더 나아간다. 법원이 법을 침팬지가 인격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침팬지가 그 말의 본래 뜻에서 실제로 인격체라고 말할 강한 철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person'이라는 말은 로마에서 나왔고 인간에게만 쓰인 적이 없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느님이 아버지 · 아들 · 성령의 '세 위격(three persons)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논하며 이 말을 썼다. 'person'이 '인간'을 뜻한다면 이 교리는 기독교 신앙과 대놓고 어긋난다. 기독교도는 그 세 '위격' 가운데 하나만 인간이었던 적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상 과학 영화를 볼 때도 우리는 「E.T.」의 외계인이나 「아바타」의 나비족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어도 인격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다. 마찬가지로 제인 구달이나 다이앤 포시 같은 과학자의 글을 읽으면 그들이 그리는 대형 유인원이 인격체임을 알 수 있다. 유인원은 무리 안에서 가깝고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잃은 이를 슬퍼하며, 생각할 줄 아는 자기 인식 존재다. 앞을 내다보고 기대하는 능력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며, 호의를 갚지 않는 다른 유인원에게 대응하는 방식에서는 윤리의 싹까지 보인다.

어법

- **The writ is typically used to get a court to consider whether someone's detention is lawful** : be used to V = ~하는 데 쓰이다(be used to -ing '~에 익숙하다'와 구별). get + O + to V = O가 ~하게 하다. whether절 = consider의 목적어(~인지).
- **The Nonhuman Rights Project application on behalf of Tommy sought to have him transferred to a sanctuary in Florida, where he could live with other chimps** : have + O + p.p. = O가 ~되게 하다(him이 옮겨지는 쪽 → transferred). 콤마 +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 and there). 주어 application(단수) → sought.
- **In civil law, to be a person is to count as an entity in one's own right** : to부정사 주어 + be + to부정사 보어 = ~라는 것은 ~라는 것이다. in one's own right =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 **A corporation can be a legal person, and so, too, can a river, a holy book, and a mosque** : so + 조동사 + 주어 = ~도 그렇다(도치). 원문은 so 뒤에 too를 덧붙여 강조했다. can 뒤에 be a legal person이 생략.
- **Although the Court denied Tommy's advocates leave to appeal, Judge Eugene Fahey clearly had doubts about this decision** : deny + IO(Tommy's advocates) + DO(leave to appeal) = ~에게 …을 허락하지 않다. leave = 허가(명사).
- **While it may be arguable that a chimpanzee is not a 'person,' there is no doubt that it is not merely a thing** : while = ~이긴 하지만(양보). 가주어 it + that절. there is no doubt that = ~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not merely = 단지 ~이 아닌.
- **In fact, difficult as it may be for a court to interpret the law as holding that a chimpanzee is a person, there is a strong philosophical case for saying** : 형용사 + as + S + V = 비록 ~하지만(= though it may be difficult). 가주어 it + 의미상 주어 for a court + 진주어 to interpret. interpret A as -ing = A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다.

- **If 'person' meant 'human being,' that doctrine would be plainly contrary to Christian belief, for Christians hold that only one of those 'persons' was ever a human being** : 가정법 과거(If + 과거, would + 원형) = 현재 사실의 반대. for = 이유를 덧붙이는 접속사(왜냐하면). only one of + 복수 명사 → 단수 동사 wa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olitary confinement	독방 감금	isolation	—
invoke	(법 등을) 끌어오다	cite	—
detention	구금	custody	release
sanctuary	보호구역	refuge	—
appellate	항소의	appeal (court)	—
precedent	판례, 선례	prior ruling	—
entity	실체, 존재	being	—
advocate (n.)	변호인, 옹호자	supporter	opponent
profound	심오한	deep	superficial
arguable	주장할 수 있는	debatable	indisputable
contrary to	~와 어긋나는	opposed to	consistent with
grieve	슬퍼하다	mourn	rejoice
foresight	앞을 내다봄	forethought	hindsight
rudiment	기초, 싹	beginning	—

내용 일치 토미 = 침팬지 · 뉴욕주 북부 철망 우리에서 여러 해 독방 · 2013년 =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가 인신 보호 영장 · habeas corpus = 라틴어 '너는 몸을 가지고 있다' · 요청 = 플로리다 보호구역의 호수 안 3에이커 섬 · 첫 법원 기각 → 항소 허가 신청 · 판사 다섯 명의 물음 = 법적 인격은 인간만? · 와이즈 = 창립자 · 판례(법인 · 강 · 경전 · 모스크) · 결과 = 항소 불허 · 페이히 = 별도 의견, person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단순한 물건은 아니다 · 강한 철학적 근거 = 저자의 주장 · person = 로마 기원 · 삼위일체 · E.T. · 나비족 · 구달 · 포시의 대형 유인원. **지칭** 57쪽 ¶1 his imprisonment = 토미의 / ¶2 asked him = 스티브 와이즈 / ¶3 that it is not = 법적 인격이 인간만의 것은 아니다 / He filed = 유진 페이히 판사 / ignore it = 동물의 자유권 문제 / it is not merely a thing = 침팬지 / ¶4 It was used = person이라는 낱말 / 58쪽 첫 줄 they describe = 구달과 포시 / They · Their = 대형 유인원.

> **한 줄 요약** 토미 재판에서 법원은 침팬지의 법적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자는 person이 처음부터 인간에게만 쓰인 말이 아니었고 대형 유인원이 관계 · 슬픔 · 자기 인식 · 계획 능력을 지녔으므로 침팬지는 본래 뜻에서 인격체라고 본다.

2-4 반론 검토와 결론 — 법적 지위를 넓혀 가는 법원들 58쪽 ¶1 ~ 59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58쪽 ¶1 ~ 59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8쪽 ¶1 첫 문장	Contrary to the caricatures	반론 소개(저자 주장 아님)
▲	58쪽 ¶1 첫 문장	would not mean giving	동명사 주어 / mean + -ing
★	58쪽 ¶1 둘째 문장	considered a mere object	빈칸 · 요지 후보
★	58쪽 ¶2 첫 문장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숫자 — 일치 후보
◆	58쪽 ¶2 둘째 문장	for no good reason at all	밑줄 의미: 수사의문문
★	58쪽 ¶3 첫~둘째 문장	His owner says he sold him	지칭 1순위 — he가 바뀜
▲	58쪽 ¶3 셋째 문장	He may have died, but as	may have p.p. / 이유의 as
★	58쪽 ¶3 다섯째 문장	since 1977 has been in	숫자 · 서답형 / since + 현재완료
★	58쪽 ¶3 여섯째 문장	the first time that	내용 일치 후보
●	58쪽 ¶3 일곱째 문장	not a unanimous verdict	어휘 반전: unanimous ↔ divided
★	58쪽 ¶3 여덟째 문장	Two of the seven judges	숫자 · True/False
★	58쪽 ¶4 둘째 문장	kept in the Buenos Aires Zoo	서답형 1순위 · 과거분사 후치
★	58쪽 ¶4 셋째 문장	the High Court of Uttarakhand	숫자 · 지명
▲	58쪽 ¶5 둘째 문장	asked a US court to take evidence	ask + O + to V
▲	58쪽 ¶5 넷째 문장	though only for the purposes of	though + 전치사구 삽입
★	58쪽 ¶6 ~ 59쪽 첫 줄	persons entitled to legal standing	주장 1순위

내용

일부 소송 반대자들의 희화화와 달리, 침팬지를 인격체로 선언한다는 것이 침팬지에게 투표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권리를 준다는 뜻은 아니다. 단순한 물건으로 여겨지는 대신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를 준다는 뜻일 뿐이다. 유럽의 실험실들은 침팬지의 특별한 본성을 인정해 침팬지를 연구실에서 풀어 주었고, 2015년에는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도 의학 연구에서 침팬지 사용을 끝낸다고 발표했다. 나라의 으뜸가는 의학 연구 기관이 침팬지를 연구 대상으로 쓰지 않기로 했다면, 왜 개인이 아무런 정당한 까닭 없이 침팬지를 가두도록 내버려 두는가. 안타깝게도 토미는 이제 찾을 수 없다. 주인은 토미를 동물원에 팔았다고 하지만 그 동물원에는 토미의 기록이 없다. 토미는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인간이 아니었으므로 죽음의 기록도 없다. 그래도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는 인간 아닌 동물의 권리를 위한 싸움을 이어 갔다. 2022년 뉴욕 항소 법원은 1977년부터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의 1에이커 우리에서 홀로 사는 코끼리 해피를 대신한 프로젝트의 주장을 들었다. 영어권 사법 관할의 최고 법원이 인간 아닌 존재를 대신한 인신 보호 사건을 심리한 것은 처음이었다. 법원은 이번에도 신청을 기각해 해피는 여전히 브롱크스 동물원에 있지만, 놀랍게도 만장일치 판결은 아니었다. 판사 일곱 명 가운데 두 명이 해피를 풀어 주자는 쪽에 표를 던졌다. 다른 곳에서는 인간 아닌 존재의 권리가 더 넓게 인정되어 왔다. 2015년 아르헨티나의 한 법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에 갇힌 오랑우탄 산드라를 대신한 인신 보호 소송의 결과로 '대형 유인원은 법적 능력을 지닌 법적 인격체'라고 선언했다. 2018년 인도 북부의 주 우타라칸드의 고등법원은 조류와 수생 동물을 포함한 동물계 전체를,

살아 있는 사람에 상응하는 권리 · 의무 · 책임을 지닌 별개의 인격을 가진 법적 실체로 선언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동물이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한다. 2021년 이 때문에 미국 법원도 얼마간 관여하게 되었다. 콜롬비아 당국이 야생 하마의 불임 시술 방법에 관한 사건에서 야생동물 전문가 두 명의 증거를 받아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미국 법원은 그렇게 요청한 나라가 누가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정한다고 받아들이게 하는 법을 적용했고, 그래서 이 사건의 증거 조사 목적에 한해 '막달레나강에 사는 하마 공동체'를 소송 당사자로 받아들였다. 법원을 통해서든, 입법이나 헌법 개정이나 국제 조약을 통해서든, 이제 법은 많은 동물이 법적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는 인격체임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

어법

- **declaring a chimpanzee a person would not mean giving them the right to vote, attend school, or sue for defamation** : 동명사구 주어(declaring ~) → 단수 취급. declare + O + C(a person). mean + -ing = ~을 뜻하다(mean to V '~할 작정이다'와 구별). to vote · (to) attend · (to) sue 병렬. them = 침팬지들(a chimpanzee를 침팬지 일반으로 받은 복수).
- **It simply means giving them the most basic, fundamental right of having legal standing, rather than being considered a mere object** : right of + 동명사 = ~할 권리(of = 동격). rather than + being p.p. = ~로 여겨지는 대신(수동 동명사).
- **If the nation's leading medical research agency has decided that it will not use chimpanzees as research subjects, why are we allowing individuals to lock them up for no good reason at all?** : if + 현재완료 = 이미 결정했다면. allow + O + to V. 대명사 목적어는 구동사 사이에(lock them up). 수사의문문 = 그럴 까닭이 없다.
- **He may have died, but as he was not a human being, there is no record of his death** : may have p.p. = ~했을지도 모른다(과거에 대한 추측 — 단정이 아님). as = 이유 접속사.
- **Happy, an elephant who since 1977 has been in the Bronx Zoo, in New York, where she lives alone in a one-acre enclosure** : since + 과거 시점 → 현재완료 has been(지금까지 계속). 콤마 +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 one-acre = 숫자 + 명사 복합 형용사(명사는 단수). 변형 → one-acres는 오답.
-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the highest court of an English-speaking jurisdiction heard a habeas corpus case on behalf of someone other than a human being** : the first time that + 절 = ~한 첫 번째 일. on behalf of = ~을 대신하여. other than = ~이 아닌, ~ 이외의.
- **In 2021, that led to some involvement from a US court when authorities from Colombia asked a US court to take evidence from two wildlife experts** : that = 앞 문장 내용(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함). lead to + 명사 = ~으로 이어지다. ask + O + to V.
- **the US court applied legislation leading it to accept that the country making such a request decides who is recognized as able to bring a case** : leading = 현재분사 후치(legislation that led it to accept), lead + O + to V. making = 현재분사 후치. 주어 the country(단수) → decides. who = 간접의문문의 주어, be recognized as able to V.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aricature	희화화, 풍자	parody	—
lawsuit	소송	suit	—
defamation	명예훼손	libel	—
legal standing	법적 지위	legal status	—
recognition	인정	acknowledgment	denial
enclosure	우리, 울타리 친 곳	pen	—
jurisdiction	사법 관할(권)	authority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animous	만장일치의	undivided	divided
capacity	능력	ability	incapacity
liability	(법적) 책임	responsibility	immunity
sterilization	불임 시술	neutering	—
litigant	소송 당사자	party	—
amendment	개정	revision	—
entitled to	~할 자격이 있는	eligible for	ineligible for

내용 일치 침팬지를 person으로 선언 = 투표 · 학교 · 명예훼손 소송 권리가 아님(일부 반대자의 희화화) → 법적 지위라는 가장 기본적 권리 · 유럽 실험실 = 침팬지를 풀어 줌 · 2015년 = NIH 의학 연구 사용 중단 · 토미 = 행방 모름, 주인은 동물원에 팔았다고 하나 기록 없음, 죽었을 '수도' 있음 · 2022년 = 해피(코끼리, 1977년부터 브롱크스 동물원, 1에이커) · 영어권 최고 법원의 첫 비인간 인신 보호 사건 · 기각, 만장일치 아님(7명 중 2명 석방 찬성) · 2015년 = 산드라(오랑우탄,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 · 2018년 =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인도 북부의 주)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 2021년 = 하마 불임 시술 · 전문가 두 명 · 증거 조사 목적에 '한해' 소송 당사자. **밑줄 의미** for no good reason at all = 국립보건원도 쓰지 않는 침팬지를 개인이 가둘 정당한 까닭은 전혀 없다(수사의문문) / it was not a unanimous verdict = 졌지만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remarkably) / persons entitled to legal standing = 투표권 같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물건이 아닌 존재로 법정에 설 자격 / 58쪽 ¶1 them = 침팬지 / ¶2 it(announced that it was) = NIH / ¶5 that led to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일.

> **한 줄 요약** 침팬지를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은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주는 일일 뿐이며, 뉴욕 법원은 거부했지만 아르헨티나 · 인도 · 콜롬비아에서 인정이 넓어지고 있으니 이제 법은 많은 동물을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

2-5 사례와 반론 — 굶어 죽은 애벌레와 곤충의 뇌 64쪽 ¶1 ~ 65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64쪽 ¶1 ~ 65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4쪽 ¶1 첫 문장	a cabbage white butterfly	사례 — 내용 일치
▲	64쪽 ¶1 둘째 문장	swarming with … well disguised	be swarming with / 과거분사 후치
▲	64쪽 ¶1 셋째 문장	left the caterpillars alone	leave + O + 형용사
▲	64쪽 ¶1 다섯째 문장	With nothing left to eat	with + O + p.p. / 삽입 형용사구
◆	64쪽 ¶2 첫 문장	been shown in microcosm	밑줄 의미 · 수여동사 수동
★	64쪽 ¶2 첫 문장	no regard for the well-being	빈칸 · 요지 후보
▲	64쪽 ¶2 둘째 문장	How, I sometimes wonder, can	직접의문문 + 삽입절
★	64쪽 ¶3 첫 문장	we have all supposedly inherited	전언 — 단정 선지 함정
★	64쪽 ¶3 셋째 문장	to deny that animals are capable	소개된 견해 · 어법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4쪽 ¶3 넷째 문장	few people could accept	어휘 반전: few ↔ many
★	64쪽 ¶3 다섯째 문장	count against it	it = 데카르트의 견해
▲	64쪽 ¶4 셋째 문장	If this were the case, it would	가정법 과거
★	64쪽 ¶5 둘째 문장	Andrew Barron ... Colin Klein	인물 — 서답형 후보
▲	64쪽 ¶5 둘째 문장	more widespread ... than	비교 + 대시 삽입
★	64쪽 ¶6 첫~둘째 문장	something that it is like to be	핵심 정의 — 요약
◆	65쪽 첫 줄	nothing that it is like	밑줄 의미 1순위

내용

지난여름 배추흰나비 한 마리가 저자가 기르던 루콜라에 알을 낳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포기는 초록 잎에 감쪽같이 숨은 초록 애벌레로 우글거렸다. 저자에게는 조금 떨어진 곳에 샐러드에 쓸 잎을 넉넉히 줄 다른 루콜라가 있었고 살충제를 쓰고 싶지도 않아서, 애벌레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곧 잎이란 잎은 모두 줄기만 남기고 먹혔다.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자, 아직 다음 생애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애벌레들은 모두 굶어 죽었다. 저자는 오래전부터 머리로는 받아들여 온 것을 작은 규모로 눈앞에서 본 셈이었다. 진화는 자신이 만들어 낸 개별 생명체의 안녕을 전혀 돌보지 않는 비인격적 자연 과정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때때로 궁금해한다. 세계를 만든 존재가 모든 것을 알아 이 모든 일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선하고 숭배받을 만하다고 믿는다면, 유신론자들은 눈앞의 세계를 그 믿음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기독교도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물려받았다고들 하는 아담의 원죄의 결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애벌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데카르트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 그러나 개나 말에 대해서는 데카르트의 시대에도 그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오늘날에는 포유류와 조류의 해부 구조 · 생리 · 행동에 대한 과학 연구가 그 견해를 반박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애벌레만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를 바랄 수는 없을까. 과학자들은 예전에 곤충에게는 중앙의 뇌가 없다고 설명했다. 독립된 신경절들이 곤충 몸의 서로 다른 마디를 조종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곤충이 어떻게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학술지 PNAS(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실린 최근 논문은 이 모델을 거부한다. 매쿼리 대학교의 인지과학자 앤드루 배런과 철학자 콜린 클라인은 주관적 경험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동물계에 더 널리 퍼져 있고 진화의 관점에서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관적 경험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의식이다. 어떤 존재가 주관적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무엇'이 있고, 이 '무엇'에는 즐겁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이 들어갈 수 있다. 이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부딪칠 수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충돌을 피하는 행동을 하는 감지기를 갖추었지만, 그 차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법

- **Before long, the plant was swarming with green caterpillars, well disguised against the green leaves** : be swarming with = ~로 우글거리다. 콤마 뒤 well disguised ~ = caterpillars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which were well disguised).
- **I had other arugula plants, some distance away, that would give me plenty of leaves for our salads, and I didn't want to use an insecticide, so I just left the caterpillars alone**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plants; 사이에 some distance away가 끼임). would = 과거에서 본 예상. leave + O + alone = 내버려 두다(형용사 보어).
- **With nothing left to eat, the caterpillars, not ready to begin the next stage of their life cycle, all starved to death** : with + O(nothing) + p.p.(left) = 부대상황(~이 남지 않아). to eat = nothing을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not ready ~ = 주어를 설명하는 삽입 형용사구. starve to death = 굶어 죽다.

- **I had just been shown in microcosm something I had long accepted intellectually** : show + IO + DO의 수동: 간접목적어 I가 주어가 되고 직접목적어 something은 동사 뒤에 남는다(과거완료 수동). something (that) I had accepte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Evolution is an impersonal natural process that has no regard for the well-being of the individual creatures it has produced**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process → 단수 has). creatures (that) it has produced = 목적격 생략, it = evolution. have no regard for = ~을 전혀 돌보지 않다.
- **How, I sometimes wonder, can theists reconcile the world they observe with the belief that the world has been created by a being who is omniscient** : 직접의문문(How can theists ~?) 사이에 I sometimes wonder가 삽입된 구조라 의문문 어순(can theists)을 유지한다. reconcile A with B = A를 B와 조화시키다. the belief that = 동격 that절.
- **Descartes' solution to that problem was to deny that animals are capable of feeling pain** : 주어 solution(단수) → was. to deny = 보어 역할의 to부정사. that절 = deny의 목적어로 정동사(are)가 필요하다. 변형 → that animals being capable은 오답.
- **If this were the case, it would be difficult to imagine how insects could be conscious** : 가정법 과거(If + were, would + 원형) = '이 모델이 맞다면'이라는 가정(원문은 다음 단락에서 이 모델을 거부한다). 가주어 it + 진주어 to imagine. how절 = 간접의문문.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warm with	~로 우글거리다	teem with	—
disguised	위장된	camouflaged	exposed
insecticide	살충제	pesticide	—
starve	굶주리다, 굶어 죽다	go hungry	—
microcosm	축소판	miniature	macrocosm
impersonal	비인격적인, 무심한	detached	personal
regard (n.)	배려, 관심	concern	disregard
reconcile A with B	A를 B와 조화시키다	harmonize	—
omniscient	모든 것을 아는	all-knowing	—
anatomy	해부 구조	structure	—
count against	~에 불리한 근거가 되다	undermine	support
widespread	널리 퍼진	prevalent	rare
subjective	주관적인	personal	objective
collide	충돌하다	crash	—

내용 일치 알을 낳은 것 = 배추흰나비 · 루콜라 · 다른 루콜라가 있었고 살충제를 쓰기 싫어 내버려 둠 · 잎을 다 먹은 애벌레 = 다음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굶어 죽음 · 진화 = 개체의 안녕을 돌보지 않는 비인격적 과정 · 유신론자에게 던진 물음 = 전지하고 선한 창조자와 이 세계 · 원죄를 모두 물려받았다 = '그렇다고들 한다'(supposedly) · 데카르트 = 동물은 고통을 못 느낀다 · 개 · 말 = 그의 시대에도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음' · 오늘날 = 포유류 · 조류 연구가 반박 · 옛 모델 = 독립 신경절 · PNAS 논문이 거부 · 배런(인지과학자) · 클라인(철학자) = 매쿼리 대학교 · 주관적 경험 = 가장 기본적인 의식 · 자율주행차 = 감지 · 회피는 하지만 '그 차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은 없음. **밑줄 의미** in microcosm = 진화가 개체의 안녕을 돌보지 않는다는 큰 사실을 텃밭의 작은 사건으로 봄 / few people could accept Descartes' view = 개 · 말이 고통을 못 느낀다는 말은

당대에도 믿기 어려웠다 / there is nothing that it is like to be that car = 감지하고 반응해도 안에서 겪는 경험은 없다 → 주관적 경험과 단순한 반응의 구별 / 64쪽 ¶3 that problem = 원죄로는 애벌레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 / count against it = 데카르트의 견해 / ¶4 this(If this were the case) = 독립 신경절 모델.

> **한 줄 요약** 텃밭의 애벌레가 굶어 죽는 것을 본 저자는 동물이 고통을 못 느낀다는 데카르트식 해법이 포유류와 조류에는 통하지 않음을 짚고, 곤충에게도 주관적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배런과 클라인의 주장을 소개한다.

2-6 과학적 근거와 저자의 결론 – 의식의 범위와 자이나교 승려 65쪽 ¶1 ~ ¶9

원문 위치 원서 65쪽 ¶1 ~ ¶9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5쪽 ¶1 첫 문장	a functioning cortex	계속적 which + 단수 동사
★	65쪽 ¶1 둘째 문장	the midbrain rather than	빈칸 · 일치 반전 후보
▲	65쪽 ¶2 첫 문장	that, like …, is involved in	관계절 + 삽입 / 동명사 병렬
◆	65쪽 ¶2 둘째 문장	It may also provide a capacity	지칭: It = 중앙 신경절 / 추측 may
★	65쪽 ¶3 둘째 문장	about a million neurons	숫자 — 서답형 1순위
▲	65쪽 ¶3 둘째 문장	which isn't many … let alone	계속적 which / let alone
★	65쪽 ¶3 셋째 문장	the famous 'waggle dance'	내용 일치 1순위
◆	65쪽 ¶3 다섯째 문장	conscious enough to suffer	지칭 they = 애벌레 / enough to
★	65쪽 ¶4 첫~둘째 문장	plants have no structures …	일치 반전 — 있음 / 없음
★	65쪽 ¶5	some ten quintillion … insects	숫자 · 요약 후보
▲	65쪽 ¶6 첫 문장	How we are to think … depends	의문사절 주어 + 단수 동사
▲	65쪽 ¶6 둘째 문장	so much pleasure … that	so much ~ that / be worth -ing
●	65쪽 ¶7 첫 문장	at least equally probable	어휘 반전: probable ↔ improbable
◆	65쪽 ¶8 둘째 문장	its logical conclusion	밑줄 의미 1순위
★	65쪽 ¶9 첫 문장	That does not mean	요지 · 반전 함정
★	65쪽 ¶9 셋째 문장	about whose capacity	통합 사고 · 전치사 + whose

내용

사람에게서 주관적 경험은, 제대로 작동하는 대뇌 피질이 있어야 하는 자기 인식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의식과 구별된다. 주관적 경험에는 피질이 아니라 중뇌가 관여하며, 피질이 크게 손상된 뒤에도 이어질 수 있다. 곤충에게는 포유류의 중뇌처럼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목표를 고르고 행동을 이끄는 데 관여하는 중앙 신경절이 있다. 이 신경절이 주관적 경험의 능력도 줄 수 있다. 꿀벌의 뉴런은 약 100만 개로, 우리의 약 200억 개 신피질 뉴런에 견주면 많지 않고, 최근 들쇠고래의 신피질에서 발견된 370억 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래도 꽃 · 물 · 둥지 후보지의 방향과 거리를 알려 주는 유명한 '흔들기 춤(waggle dance)'을 추고 알아들을 만큼은 된다. 애벌레에게는 (우리가 아는 한) 그런 능력이 없지만, 굶어 죽어 가며 고통을 느낄 만큼의 의식은 있을지 모른다. 배런과 클라인에 따르면 식물과 해파리 · 회충 같은 단순한

동물에게는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없고, 갑각류와 거미는 곤충처럼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곤충에게 주관적 경험이 있다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의식이 있다.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추정으로는 어느 한순간에 살아 있는 곤충이 약 1,000경(10,000,000,000,000,000,000) 마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는 곤충의 주관적 경험이 어떠할 수 있다고 믿느냐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구조를 비교하는 것은 별로 알려 주는 것이 없다. 어쩌면 애벌레들은 저자의 루콜라를 실컷 먹으며 큰 즐거움을 얻어서,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살 만한 삶을 살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반대일 가능성도 적어도 그만큼은 된다. 그토록 많이 번식하는 종에서는 많은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굶주릴 것이다. 서양에서는 개미를 밟지 않으려고 길에서 개미를 쓸어 내는 자이나교 승려를 보고 웃음 짓곤 하지만, 저자는 연민을 논리적 결론까지 밀고 나간 그 승려들을 오히려 존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곤충 권리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아직 곤충의 주관적 경험에 대해 그럴 만큼 알지 못하고, 어쨌든 세상은 그런 운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먼저 고통을 느끼는 능력에 대한 의심이 훨씬 적은 척추동물의 이익에까지 진지한 고려를 넓히는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어법

- **In humans, subjective experience is distinguishable from higher levels of consciousness, such as self-awareness, which requires a functioning cortex** : be distinguishable from = ~와 구별된다. 계속적 which = self-awareness(단수 → requires). functioning = 현재분사(작동하는).
- **Subjective experience involves the midbrain rather than the cortex and can continue even after massive damage to the cortex** : A rather than B = B가 아니라 A. 주어 하나에 involves와 can continue가 병렬. damage to = ~에 대한 손상(전치사 to).
- **Insects have a central ganglion that, like a mammalian midbrain, is involved in processing sensory information, selecting targets, and directing action** : 주격 관계대명사 that과 동사 is 사이에 like ~가 삽입. be involved in + 동명사 셋(processing · selecting · directing) 병렬.
- **Honeybees have about a million neurons, which isn't many compared to our roughly 20 billion neocortical neurons, let alone the 37 billion recently found in the neocortex of a pilot whale** : 계속적 which = 앞의 수(약 100만 개) → 단수 isn't. compared to = ~에 비해. let alone = ~은 말할 것도 없고(부정 문맥 뒤). found = 과거분사 후치.
- **But they may still be conscious enough to suffer as they starve** : 형용사 + enough to V = ~할 만큼 충분히(enough는 형용사 뒤). as = ~하면서(동시). may = 추측 — 단정이 아님.
- **How we are to think about that depends on what we believe their subjective experiences could be like** : 의문사절(How we are to think ~) 주어 → 단수 depends. be to V = 당위(~해야 하는가). what ~ could be like = '어떠할 수 있는가'의 간접의문, we believe = 삽입.
- **Perhaps the caterpillars gained so much pleasure from feasting on my arugula that their lives were worth living, despite their miserable deaths** : so much + 명사 + that = 너무 많은 ~을 얻어서 …하다. be worth -ing = ~할 가치가 있다. despite + 명사(전치사). Perhaps = 추측.
- **We need first to complete the extension of serious consideration to the interests of vertebrate animals, about whose capacity for suffering there is much less doubt** : 전치사 + whose + 명사(= there is much less doubt about their capacity for suffering). extension of A to B = A를 B에까지 넓힘. much = 비교급(less) 강조.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istinguishable	구별할 수 있는	separable	indistinguishable
massive	대규모의, 심한	severe	slight
ganglion	신경절	nerve center	—
diverse	다양한	varied	uniform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wareness	의식, 알아차림	consciousness	unawareness
feast on	실컷 먹다	gorge on	—
miserable	비참한	wretched	happy
probable	있을 법한	likely	improbable
prolifically	(새끼를) 많이	abundantly	sparingly
tread on	밟다	step on	—
compassion	연민	sympathy	indifference
vertebrate	척추동물(의)	—	invertebrate

내용 일치 자기 인식 = 피질 필요 · 주관적 경험 = 중뇌, 피질이 크게 손상돼도 이어질 수 있음 · 곤충의 중앙 신경절 = 포유류 중뇌처럼 감각 처리 · 목표 선택 · 행동 지시 · 꿀벌 약 100만 / 사람 신피질 약 200억 / 들쇠고래 370억 · waggle dance = 꽃 · 물 · 둥지 후보지의 방향과 거리 · 애벌레도 고통을 느낄 '수도' · 식물 · 해파리 · 회충 = 구조 없음 / 갑각류 · 거미 = 있음 · 1,000경 = '어느 한순간'의 수(스미스소니언 협회) · 즐거움 vs 비참 = 적어도 똑같이 가능 · 승려 = 존경해야(저자) · 곤충 권리 운동 = 아직 아님. **지칭** 65쪽 ¶2 It may also provide = 중앙 신경절 / ¶3 it is still enough = 꿀벌의 약 100만 개 뉴런 / they may still be conscious = 애벌레 / ¶6 think about that = 훨씬 많은 의식이 있다는 것 / ¶8 treading on them = 개미 / ¶9 That does not mean = 승려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 / to do that = 곤충 권리 운동을 시작하는 일.

> **한 줄 요약** 곤충에게도 주관적 경험이 있을 수 있어 세상의 의식은 생각보다 많을지 모르지만, 저자는 곤충 권리 운동보다 척추동물의 이익을 먼저 진지하게 고려하자고 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2 PERSONS]

범위	If Fish Could Scream · Who Is a Person? · Are Insects Conscious? (원서 PDF 52~65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ome opponents mock these lawsuits as if they would let chimpanzees vote, go to school or sue for libel. Declaring a chimpanzee a person means nothing of the kind; it means only granting the most elementary right of all, to stand before the law as someone rather than as a mere object. European labs have already released their chimpanzees, and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aid in 2015 that it would stop using them in medical research. Why, then, let private individuals cage them for no good reason? Through courts, new laws, constitutional changes or treaties, the law should now accept that many animals are persons with legal standing.

① Chimpanzees should have the right to vote.
② Research on chimpanzees should be expanded.
③ Only courts can decide who is a person.
④ The law should recognize many animals as persons.
⑤ Animals are safest when treated as property.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uppose today's fishing could go on forever, which it cannot. It would then be comforting to think the killing is harmless because fish feel nothing. Yet fish have nervous systems close enough to those found in birds and mammals to suggest that they do feel pain. After an experience that would hurt other animals, they act in ways that point to pain. (The idea that fish forget quickly is a myth.) They learn to avoid electric shocks, and painkillers ease their signs of distress. Victoria Braithwaite showed that fish feel pain and are far cleverer than most people assume, and a scientific panel advising the European Union agreed in 2009.

① Why Today's Fishing Can Last Forever
② Fish Memory: Shorter Than We Think
③ Painkillers Do Fish More Harm Than Good
④ Birds and Mammals Feel More Pain Than Fish
⑤ What the Evidence Says About Fish and Pain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People in the West often find it amusing that Jain monks brush ants off their path so as not to step on them. The author thinks we should admire the monks instead, for they have followed compassion to where it logically leads. Yet that does not mean it is time for a movement for insect rights. We still know too little about what insects experience to justify such a campaign, and the world is nowhere near ready to take it seriously. First we must finish giving serious weight to the interests of vertebrates, animals whose ability to suffer is much less in doubt.

① Compassion for insects is admirable, but vertebrates come first.
② A campaign for insect rights should begin now.
③ Jain monks take compassion too far.
④ Insects suffer more than vertebrates do.
⑤ Science already knows what insects experience.

4. 밑줄 친 Not for fish.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In most countries, people agree that if animals are slaughtered for food, they should die without suffering. Slaughter rules usually demand that an animal be made unconscious at once before it is killed, or that death come instantly. Not for fish. No rule calls for humane killing of wild fish caught at sea, and in most places none covers farmed fish either. Fish hauled up in trawlers' nets are tipped onto the deck and left to suffocate. In longline fishing, lines 50–100 kilometres long carry hundreds, sometimes thousands, of baited hooks, and a hooked fish may stay fully conscious for hours as it is dragged along.

① Most people do not kill fish for food.
② Fish are left out of the rule of killing without suffering.
③ Fish feel no pain when they are killed.
④ Religious law forbids the slaughter of fish.
⑤ Farmed fish are protected by stricter rules.

5. 밑줄 친 it is not merely a thing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t New York's Court of Appeals, five judges heard Steve Wise, who founded the Nonhuman Rights Project, and then put a natural question to him: isn't legal personhood only for humans? Wise answered with earlier rulings showing that it is not reserved for humans. In civil law, being a person means counting as an entity in your own right, which is why corporations, rivers, holy books and mosques can all be legal persons. The court still refused Tommy's lawyers permission to appeal, yet Judge Eugene Fahey plainly doubted the ruling. In a separate opinion he called the question of an animal's right to liberty deep and far-reaching, one we will finally be unable to ignore. A chimpanzee may arguably not be a 'person', he wrote, but it is not merely a thing.

① A chimpanzee has exactly the same rights as a human.
② A chimpanzee is best kept in a zoo.
③ A chimpanzee deserves more than to be treated as property.
④ The court had no authority to hear the case.
⑤ A chimpanzee is less valuable than a river.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Sadly, Tommy can no longer be traced. ① His former owner insists that ② he sold the chimpanzee to a zoo, yet the zoo has no paperwork mentioning ③ him. ④ He might have died, but because ⑤ he was not human, nobody recorded his death. Even so, the Nonhuman Rights Project kept fighting for animals' rights. In 2022, New York's Court of Appeals heard its case for Happy, an elephant kept by herself in a one-acre enclosure at the Bronx Zoo since 1977. Never before had the highest court anywhere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heard such a case for a nonhuman. Again the court said no, though two of its seven judges sided with freeing her.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In humans, the simplest kind of consciousness, subjective experience, can be told apart from higher kinds like self-awareness, which depends on a working cortex. Subjective experience relies instead on the midbrain and may survive even severe damage to the cortex. Insects possess a central ganglion which, much like a mammal's midbrain, handles sensory input, picks targets and guides action, and it may give them subjective experience as well. Honeybees, for instance, have roughly a million neurons, a small number beside the 20 billion or so in our neocortex. Yet that is enough for them to perform and decode the famous 'waggle dance', which shows other bees how far away and in which direction flowers, water or possible nest sites lie. Plants, jellyfish and roundworms lack any such structures, but spiders and crustaceans have them.

① 자기 인식은 대뇌 피질 없이도 가능하다.
② 주관적 경험은 피질이 크게 손상되면 반드시 사라진다.
③ 꿀벌의 춤은 꽃 · 물 · 둥지 후보지의 방향과 거리를 알린다.
④ 꿀벌의 뉴런 수는 사람의 신피질 뉴런 수보다 많다.
⑤ 해파리와 거미에게는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없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To grasp the scale of this, compare it with land animals. According to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ome 77 billion mammals and birds are slaughtered every year to feed people, about ten for each person on Earth. Taking the lower figure of one trillion fish, the equivalent number for fish is 125, and even that omits billions caught illegally, unwanted 'bycatch' that is accidentally netted and then discarded, and the live fish fixed to longline hooks as bait. Many fish are eaten only indirectly, ground into feed for factory-farmed chickens or fish. On a typical salmon farm, at least 1.5 kg of wild fish go into each kilo of salmon, and since feed fish tend to be smaller than the fish people buy, the ratio in individual lives is far worse.

① 해마다 먹으려고 죽이는 새 · 포유류는 약 770억 마리다.
② 하한 추정치로는 물고기가 한 명당 125마리꼴이다.
③ 불법 어획과 버려지는 혼획은 이 수치에서 빠져 있다.
④ 사료용 물고기는 대개 식용 물고기보다 작다.
⑤ 연어 1kg에 드는 야생 물고기는 1.5kg이 안 된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Last summer, eggs laid by a cabbage white butterfly hatched on the author's arugula, and soon the plant was crawling with green caterpillars, ① well hidden against the leaves. As he had other arugula plants for his salads and wished to avoid insecticide, he simply left the caterpillars ② alone. Before long every leaf ③ had been eaten down to the stalk, and the caterpillars, not yet ready for the next stage of life, all starved. This showed him, on a small scale, a truth he had long accepted: evolution is an impersonal process with no concern for the welfare of the creatures ④ it produces. Adam's original sin cannot explain it, for caterpillars do not descend from Adam. Descartes' way out was to deny that animals ⑤ being capable of feeling pain.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ourts elsewhere have gone further. In 2015, after a habeas corpus action for Sandra, an orangutan (A) [keeping / kept] at the Buenos Aires Zoo, an Argentine court ruled great apes to be legal persons. Three years later, the High Court of Uttarakhand, in northern India, declared the whole animal kingdom, birds and water creatures included, to be legal entities. In 2021, authorities from Colombia, (B) [which /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grants animals standing, asked a US court to hear testimony from two experts on wildlife in a dispute over how to sterilize wild hippos. The US court applied a law under which the requesting country decides who may bring a case, so it accepted, solely for taking that evidence, that the hippos of the Magdalena River (C) [was / were] litigants.

	(A)	(B)	(C)
①	kept	which	were
②	keeping	where	was
③	kept	where	were
④	keeping	which	were
⑤	kept	where	was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Fish may even see themselves as ① distinct individuals. In 2022, researchers led by Osaka City University's Masanori Kohda tested the cleaner wrasse, a fish that feeds on parasites found on other creatures' skin and is therefore ② indifferent to coloured spots on fish. The researchers placed coloured marks in the throats of 18 cleaner fish while they were ③ unconscious under anaesthetic. When the fish woke up, they were placed before a mirror, the standard test of whether an animal recognizes itself. On seeing the mark in the mirror, all but one ④ scraped their own throats, not the reflection's, which showed that they ⑤ identified the image as themselve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However hard a court may find it to read the law as making a chimpanzee a person, there are strong philosophical grounds for calling it one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Person' is a word of Roman origin, and early Christian theologians used it in their debates over the Trinity, the teaching of God as three persons in one—father, son and holy spirit. Christians believe, however, that only one of these three ever lived as a human. So if 'person' simply meant _____, the teaching would flatly contradict Christian belief. In our own time, too, film audiences easily accept that E.T. or the Na'vi of Avatar are persons although they are not Homo sapiens, and readers of Jane Goodall can see the same in the great apes she describes.

① 'human being'
② 'holy spirit'
③ 'Roman citizen'
④ 'divine being'
⑤ 'living creature'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o find the number of sentient creatures killed, one must estimate the average weight of each species and divide the total tonnage reported by that figure.

Commercial fishing also relies on gill nets, which are walls of fine mesh that often catch fish by the gills. (①) With their gills squeezed shut, the fish may choke to death; if not, they can stay trapped for hours until the nets come in. (②) So how many fish do we put through such terrible deaths? (③) This is hard to say, since official statistics overlook that every fish is a separate creature and record only the tonnage of each species caught. (④) Alison Mood and Phil Brooke carried out exactly this calculation and put the yearly toll at one to two trillion fish.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Scientists once claimed that insects have no central brain; separate ganglia, they said, controlled the different segments of an insect's body. ① If that were true, it would be hard to see how insects could be conscious at all. ② A recent scientific article, however, rejects this picture. ③ In 2015, an Argentine court ruled that great apes count as legal persons. ④ Its authors, Andrew Barron and Colin Klein of Macquarie University, argue that subjective experience may be spread more widely across animals, and may be older in evolution, than we suppose. ⑤ Such experience is consciousness in its most basic form: there is something it is like to be a being that has it, whereas a driverless car, though it senses obstacles and steers around them, is not like anything from the inside.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en the author was a boy, his father often took him for walks beside a river or along the sea, and on the way they would pass people fishing, some of them reeling in their lines with fish struggling on the hooks.

(A) On another walk, beside a calm stream, they saw a man sitting quietly and watching his line, looking entirely content. Right next to him, the fish he had already caught lay flapping helplessly, still gasping in the open air.

(B) On one of these outings, the boy watched a man pull a small fish from a bucket and push it, still wriggling, onto a bare hook so that it could serve as bait.

(C) Later, the father told his son he could not see how a person could enjoy an afternoon of pulling fish like those from the water and then leaving them to die slowly.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Smithsonian Institution estimates that about ten quintillion insects are alive at any given moment. If they have subjective experiences, the world holds far more consciousness than we may have imagined. How we ought to view this depends on what we think those experiences might be like, and here comparing nervous structures tells us little. Perhaps the caterpillars that devoured the author's arugula enjoyed their feast so much that life was worth living for them, despite their wretched end. But the reverse is at least as likely: in species that breed in such huge numbers, many young begin to starve the moment they hatch.

→ If insects are conscious, the world contains far (A) _____ consciousness than we thought, but whether their lives are good or bad for them remains (B) _____.

① less ..... uncertain
② more ..... obvious
③ less ..... settled
④ more ..... uncertain
⑤ more ..... irrelevant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Every year, humans kill an estimated one to two trillion fish, and in 2009 a scientific panel advising the European Union decided that, on balance, the evidence shows fish feel pain. Steve Wise, founder of the Nonhuman Rights Project, argued that legal personhood is not reserved for humans. In 2022 New York's highest court turned down a case for Happy, an elephant at the Bronx Zoo, although two of its seven judges wanted to free her. An Argentine court called great apes legal persons after a case for Sandra, an orangutan held at the Buenos Aires Zoo. Honeybees have only about a million neurons, against roughly 20 billion in the human neocortex, and the author says we should admire Jain monks, who brush ants aside so as not to tread on them.

<QUIZ>

(1) What is the lower estimate of the number of fish killed each year?

Answer for (1): _____

(2) In what year did a scientific panel advising the European Union conclude that fish feel pain?

Answer for (2): _____

(3) Who founded the Nonhuman Rights Project?

Answer for (3): _____

(4) Is it true or false that the 2022 decision on Happy was unanimous?

Answer for (4): _____

(5) In which zoo was the orangutan Sandra kept?

Answer for (5): _____

(6) About how many neurons does a honeybee have?

Answer for (6): _____

(7) Which monks does the author say we should admire?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a million	N. True
B. 20 billion	O. Victoria Braithwaite
C. Buenos Aires Zoo	P. 77 billion
D. 2013	Q. 2015
E. one trillion	R. Christian
F. Bronx Zoo	S. Masanori Kohda
G. Eugene Fahey	T. 2009
H. Steve Wise	U. 125
I. False	V. Florida
J. 37 billion	W. 1977
K. 2022	X. ten quintillion
L. Jain	Y. Andrew Barron
M. two trillion	Z. 2018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한번은 한 남자가 양동이에서 작은 물고기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 (지각동사 saw + O + 원형)

02 도살 규정은 죽이기 전에 동물을 즉시 의식을 잃게 하라고 요구한다. (require that + S + 동사원형)

03 물고기의 신경계는 새의 것과 충분히 비슷해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 준다. (sufficiently ~ to V / those)

04 물고기는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믿는 것보다 훨씬 영리하다. (not only A but also B)

05 민법에서 인격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체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to V is to V)

06 'person'이 '인간'을 뜻한다면 그 교리는 기독교 신앙과 어긋날 것이다. (가정법 과거)

07 침팬지를 인격체로 선언하는 것이 투표권을 준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동명사 주어 / mean + -ing)

08 토미는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없다. (may have p.p.)

09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자 애벌레들은 모두 굶어 죽었다. (with + O + p.p. / 형용사적 to부정사)

10 그것이 사실이라면, 곤충이 어떻게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정법 과거 / 가주어 it)

11 애벌레들은 굶어 죽어 가며 고통을 느낄 만큼은 의식이 있을지도 모른다. (형용사 + enough to V)

12 그 많은 곤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는 그들의 주관적 경험이 어떠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느냐에 달려 있다. (의문사절 주어 + 단수 동사 / be to V)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fishcount.org.uk의 두 사람 / 연간 죽는 물고기	
FAO — 새 · 포유류 수 / 1인당 / 물고기 1인당	
연어 1kg 생산에 드는 야생 물고기	
2019년 양식 물고기 / 어분 · 어유용 물고기	
가장 유리한 추정 — 죽은 / 팔린 물고기	
『Do Fish Feel Pain?』의 저자 / 소속	
물고기의 고통을 인정한 과학 패널 — 해 / 곳	
거울 실험 — 연구팀장 / 물고기 / 결과	
토미 사건 — 해 / 법적 절차 / 보내려던 곳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 창립자 / 별도 의견을 낸 판사	
NIH가 의학 연구에서 침팬지 사용 중단을 발표한 해	
해피 — 동물 / 1977년부터 있는 곳 / 우리 넓이	
해피 사건(2022년) 판사 수 / 석방 찬성	
산드라 — 동물 / 동물원 / 판결 해	
동물계 전체를 법적 실체로 선언한 법원 / 해	

항목	답
하마 사건 — 해 / 증거를 낸 사람 / 강	
곤충의 뇌를 다시 본 두 학자 / 소속	
꿀벌 · 사람 신피질 · 들쇠고래 신피질의 뉴런 수	
한순간에 살아 있는 곤충 수 / 추정 기관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If Fish Could Scream」에서 저자는 물고기의 신경계가 새 · 포유류의 신경계와 충분히 비슷해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고, 2009년 EU 과학 패널의 결론을 들었다(53쪽 ¶3~¶4). 「Are Insects Conscious?」에서는 주관적 경험에 즐겁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이 들어갈 수 있고, 애벌레도 굶어 죽으며 고통을 느낄 만큼 의식이 있을지 모른다고 썼다(64쪽 ¶6, 65쪽 ¶3). 한편 「Who Is a Person?」에서 저자는 이제 법이 많은 동물을 법적 지위를 가진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58쪽 ¶6 ~ 59쪽 첫 줄), 곤충에 대해서는 권리 운동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65쪽 ¶9).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곤충 권리 운동보다 척추동물의 이익을 먼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 까닭이 된 능력을 빈칸에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 근거를 「If Fish Could Scream」과 「Are Insects Conscious?」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그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먼저 따질 능력: We need first to complete the extension of serious consideration to the interests of vertebrate animals, about whose capacity for _____ there is much less doubt.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3 LIFE AND DEATH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The Tiniest Babies · No Diseases for Old Men · When Doctors Kill
원서 PDF 74~75 · 81~85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의료는 생명을 어디까지, 누구의 뜻으로 결정하는가."

이 권은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의료가 내리는 결정을 다룬 세 편을 묶었다. 「Treating (or Not) the Tiniest Babies」에서 저자는 '기적의 아기' 보도에 섞인 과장을 짚은 뒤, 임신 22주에 태어난 아기를 모두 소생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두 의사의 근거를 소개하고 부모가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쪽에 선다. 「No Diseases for Old Men」은 중증 치매 노인의 폐렴을 으레 항생제로 치료하는 관행과, 법원 명령으로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한 골럽척 사건을 들어 환자의 이익과 가족의 뜻, 공공 재정의 한계를 따진다. 「When Doctors Kill」은 카트리나 뒤 한 병원의 일을 통해, 안락사 반대론의 '미끄러운 비탈길'이 아니라 이중 효과 원리에서 실제 위험이 나왔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 편을 이어 읽으면 환자의 이익, 당사자의 뜻과 동의, 한정된 의료 자원이라는 물음이 되풀이된다. 민감한 주제인 만큼 이 노트는 어느 한쪽을 권하지 않는다. 저자의 논증과 다른 사람의 견해를 가려 읽고,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부모가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 저자는 투표의 다수 편(75쪽 ¶1~¶2) / 환자의 이익이 먼저, 뜻을 알 수 없으면 가족의 뜻과 공동체의 비용도 고려(81쪽 ¶3~¶4) / 이중 효과 원리가 동의 없는 생명 단축에 익숙하게 해 의도적 살해의 길을 닦은 듯하다(85쪽 ¶5~¶7) / 공공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82쪽 ¶6 ~ 83쪽 ¶1)
4~5	**밑줄 함축 의미**	a certain amount of hype / possibly futile interventions / better resourced than most / the old man's friend / because they can / unable to play its traditional friendly role / This is grotesque / the public purse / slippery slope / a "no-brainer" / had little time for such subtleties / so fine as to be imperceivable / paved the way for intentional killing / would do well to examine
6	지칭 추론	her · she와 he가 버지스와 쿡 사이를 오가는 84쪽 ¶6 / She · them(84쪽 ¶7 = 포우 · 7층 환자들) / she(75쪽 첫 줄 = 포글리아) / They(82쪽 ¶2 = 골럽척의 자녀) · he(82쪽 ¶3 = 쿠마르) / it(81쪽 ¶5 = 항생제 사용) · They(85쪽 ¶7 = 가톨릭 사상가들)
7~8	내용 일치·불일치	2007 · 21주 6일 · 280g · 23주 · 약 4개월 · 마이애미 · 1,800g(74쪽 ¶1) / 1,870명 · 28% · 71%(75쪽 ¶1) / 214명 · 3분의 2 · 85세 · 0~24점(81쪽 ¶2) / 84세 · 위니펙 · 정통파 유대교(82쪽 ¶2) / 2005년 8월 · 200명 넘게 · 사흘 · 건강한 환자 먼저 · 오후 5시(84쪽 ¶3~¶5)
9~10	**어법**	claiming(분사구문) · Born ~(분사구문) · had been known to V · having p.p. · on which · should have been p.p. · It is not uncommon for A to V · with + O + -ing · be given / (be) invited · all of whom · to which ·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 By the time + 과거완료 · should + S 도치 · used to be p.p. · otherwise + would have p.p. · is being p.p. · rather than because · neither A nor B · would have p.p.(이상적 가정) · whose life it is · compel + O + to V · what절 · to V 주어 + is · thus + -ing · What + S + should not have done was · Of all + 최상급 · once · Adding to ~ were 도치 · 가정법 과거 · 삽입절 + 계속적 who · appear to have p.p. · ask not to V · from which · Only + 주어 · so ~ as to V · inure A to B · would do well to V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uncommon ↔ common · precisely ↔ approximately · mild ↔ severe · routinely ↔ selectively · futile ↔ effective · invasive ↔ non-invasive · swift ↔ slow · irreversibly ↔ reversibly · exacerbate ↔ alleviate · misguided ↔ sound · disproportionate ↔ proportionate · rigid ↔ flexible · override ↔ uphold · influential ↔ insignificant · genuine ↔ imaginary(84쪽 ¶2) · imminent ↔ distant · permissible ↔ forbidden · intentional ↔ accidental
12	빈칸 추론	better resourced than most(75쪽 첫 줄) /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patient(81쪽 ¶1) / disproportionate to the benefit it produces(82쪽 ¶1) / should not override that(82쪽 ¶5) / a genuine danger from a different source(84쪽 ¶2) / place any emphasis on … consent(85쪽 ¶3)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문장 삽입	이중 효과 원리(85쪽 ¶2~¶4): 1957년 의사들의 물음 → 교황의 답 → 1980년 선언의 재확인 → 원리의 정의 → 동의를 강조하지 않음 → 겉으로 같은 두 의사 → 의도에 따라 좋은 의료 또는 살인
14	무관한 문장	에버렛의 사례(84쪽 ¶8 ~ 85쪽 ¶1: 61세 · 마비 · 장폐색 · 남겨지지 않게 · 380파운드 · 어지럼증)에 다른 편의 사실(84세 골립척의 뇌 손상, 82쪽 ¶2)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어밀리아 이후의 쟁점(74쪽 ¶3~¶5): 지금은 10대 · 그러나 논의할 문제 → 2022년 NEJM의 토론 → 넬린이 든 아이오와 병원 → 또 다른 연구(스웨덴)
16	요약문 완성	공공 의료는 가족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주어야 하나(82쪽 ¶6 ~ 83쪽 ¶1): 공공 재정의 한계 · 헛된 치료 · 원하면 자비로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숫자 · 도시 · 연도 · 원리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2007 · 21주 6일 · 280g · 23주 · 약 4개월 · 1,800g · 약 2주 · 네 번째 · 2022 · 70% · 55% · 52% · 2.5년 · 2,000명 넘게 · 29% · 11% · 1,870명 · 28% · 71% · 45%(1편) / 2008 · 18개월 · 214명 · 3분의 2 · 85세 · 0~24점 · 4분의 3 · 2,390억 달러(2021) · 8,000억 달러 가까이(2050) · 510억 달러(2020) · 84세 · 3개월 + 3개월(2편) / 2005년 8월 · 200명 넘게 · 사흘 · 오후 5시 · 79세 · 8층 · 7층 · 61세 · 380파운드(173kg) · 1957 · 1980 · 72시간(3편). 비슷한 숫자 쌍(84세 골립척과 평균 85세, 70%와 71%, 28%와 29%, 52%와 55%, 1957과 1980)이 함정이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not uncommon ↔ uncommon, selective ↔ routine, isn't clear ↔ prolongs life, contrary to ↔ in line with, better health ↔ worse health, little danger ↔ great danger, does not justify ↔ justifies). '~라고 주장했다'(claiming) · '전해진다'(reported) · '~일 것'(likely, she said) · '~로 보인다'(appears · seems) · '짐작할 수 있다'(One may suspect) · '저자의 경험으로는'(In my experience) · '핑크에 따르면'(According to Fink)을 사실로 바꾼 선지, 넬린 · 포글리아 · 쿡 · 교황의 견해를 저자(싱어)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The Tiniest Babies · No Diseases for Old Men · When Doctors Kill」 (74~75 · 81~85쪽)

논증형 세 편. ① 사례(기적의 아기) → 과장 검토 → 쟁점(22주 아기를 모두 소생?) → 찬성 근거(넬린) → 반대 근거(포글리아) → 독자 투표 → 저자의 답. ② 폐렴 = 노인의 친구 → 2008년 연구 → 저자의 판단(환자의 이익 · 가족의 뜻 · 비용) → 내성균 → 종교의 차이 → 골립척 사건 → 저자의 결론(공공 재정의 한계). ③ 반론(미끄러운 비탈길) → 증거 없음 → 카트리나 뒤 병원 → 버지스 · 포우 · 에버렛 → 이중 효과 원리 → 쿡의 말 → 저자의 결론. 핵심 축은 **일괄 소생 vs 부모와 함께 정하는 선별적 소생, 할 수 있으니 치료 vs 환자의 이익 · 공공 재정, 미끄러운 비탈길 vs 동의 없는 생명 단축.**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74 ¶1	사례	2007년 신문 = '기적의 아기' 어밀리아 테일러 · 가장 이른 생존 조산아(신문의 주장) · 21주 6일 · 280g · 23주 미만 생존 사례 알려진 적 없음 · 마이애미 병원 NICU 약 4개월 · 1,800g · 퇴원
74 ¶2	과장 검토	어느 정도 과장 · 체외 수정 → 수정일이 정확 · 보통은 마지막 월경 첫날부터 → 약 2주 더함 → 23주째 출생 · 드물지 않음 · 그래도 아주 이르고 작은 아기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74 ¶3~¶4	쟁점	지금은 10대 · 잘 지낸다고 전해짐 / 더 작은 아기를 살리려 현대 의학의 모든 자원 → 논의할 문제 · 2022년 NEJM = 22주 아기를 모두 으레 소생?
74 ¶5	찬성 근거	넬린 = 모두 소생 · 아이오와 병원(22~23주 모두 소생) 70% 생존 · 55% 장애 없음 또는 가벼움 / 스웨덴 = 22주 생존 52% · 2.5년 뒤 생존아 절반 장애 없음
74 ¶6~75 첫 줄	반대 근거	포글리아 = 출산 전 상담 · 부모가 소생 또는 편안함만 주는 돌봄 선택 / 2,000명 넘는 메타 분석 · 생존 29% · 큰 합병증 없이 11% · 넬린 쪽 병원은 자원이 더 좋았을 것
75 ¶1~¶2	투표 · 저자의 답	1,870명 · 일괄 28% · 선별 71%(과학적 조사 아님) / 저자 = 다수 편 · 부모가 결정에 참여 · 45%는 가볍지 않은 장애 · 부모가 원하면 병원은 소생 준비 · 정부 예산이면 정책 문제
81 ¶1	사례 · 물음	페렴 = '노인의 친구' · 2008년 보스턴 인근 요양원 중증 치매 환자 연구 = 항생제로 맞섬 / 할 수 있으니까 치료하는가, 환자에게 이로워서인가
81 ¶2	연구	다가타 · 미첼 ·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 18개월 · 214명 중 3분의 2 항생제 · 평균 85세 · 0~24점 검사에서 4분의 3이 0점
81 ¶3~¶4	저자의 판단	수명 연장 여부 불분명 · 누가 원하겠는가 / 환자의 이익이 먼저 · 사전 지시서가 이상적 · 없으면 가족의 뜻 · 공동체의 비용도 고려 · 2,390억 → 8,000억 달러 가까이 · 대외 원조 510억 달러
81 ¶5~82 첫 줄	다른 비용	항생제 내성균 문제 악화 · 병원으로 옮겨지면 퍼져 회복할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도
82 ¶1	종교 1	생명의 신성함이라는 그릇된 믿음(짐작) · 가톨릭 = 이익에 비해 지나치거나 과도한 부담인 돌봄은 의무 아님 · 많은 신학자가 항생제 보류를 받아들일 것(저자의 경험)
82 ¶2~¶3	사례 2	더 경직된 종교 · 골럽척(84세 · 위니펙) · 뇌 손상 · 폐렴 · 생명 유지 중단 제안 / 자녀 = 정통파 유대교 신앙 · 임시 법원 명령 · 호흡관 · 영양관 · 3개월 + 3개월 · 쿠마르의 거부
82 ¶4~¶5	결말 · 원칙	두 의사도 거부(수감 위험) · 다른 의사가 맡은 뒤 곧 사망(공식 사인 자연사) / 가족의 바람은 크게 존중하되 의사의 책임을 넘어서면 안 됨
82 ¶6~83 ¶1	저자의 결론	공공 의료가 가족의 뜻을 어디까지? · 공공 재정에는 한계 / 헛된 치료의 장기 돌봄 의무 없음 · 자비로는 가능 · 법원 명령은 잘못 · 캐나다 납세자의 의무 아님
84 ¶1~¶2	반론 · 전환	자발적 안락사 반대론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미끄러운 비탈길' / 네덜란드 · 벨기에 · 룩셈부르크 · 스위스 · 오리건 = 증거 없음 · 카트리나 뒤 병원 = 다른 곳에서 오는 진짜 위험
84 ¶3~¶5	사례 3	2005년 8월 ·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 · 200명 넘는 환자 · 사흘 뒤 전기 · 물 · 화장실 / 더위 · 치안 붕괴 공포 · 헬기 대피 = 건강하고 걸을 수 있는 환자 먼저 · 오후 5시까지
84 ¶6~85 ¶1	생명을 줄인 결정	8층 버지스(79세 · 말기 암) · 쿡 = 모르핀 증량 지시 / 핑크에 따르면 포우 = 7층 환자들에게 모르핀 + 다른 약 · 에버렛(61세 · 173kg) = 임박한 죽음의 위험은 적었던 듯
85 ¶2~¶4	이중 효과 원리	1957년 비오 12세 = 수명 단축을 예견해도 진통제 허용 · 1980년 「안락사 선언」 재확인 / 좋은 효과만 의도하면 허용 · 동의를 강조하지 않음 · 같은 행위 = 좋은 의료 또는 살인
85 ¶5~¶7	저자의 결론	쿡 = 미묘한 구분 무시 · 경계가 보이지 않음 / 72시간 · 압박 · 원리는 정당화 못 함 · 그러나 의도적 살해의 길을 닦은 듯 · 가톨릭 사상가들은 자기 교리의 결과를 살펴야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어밀리아의 기록	신문의 주장: 기록상 가장 이르게 태어나 살아남은 아기(21주 6일)	체외 수정이라 수정일부터 셌을 뿐 · 보통 방식이면 23주째 출생 · 그런 생존은 드물지 않음(저자)
22주 아기의 소생	모두 으레 소생(넬린 · 독자 28%)	부모 상담 뒤 선택 · 선별적 소생(포글리아 · 독자 71% · 저자)
생존율 근거	아이오와 70% · 장애 없거나 가벼움 55% · 스웨덴 52%(넬린)	메타 분석 29% · 큰 합병증 없이 11%(포글리아의 근거) / 저자 = 넬린이 든 아이오와 연구로도 45%는 가볍지 않은 장애
조산아의 결정권	의사가 부모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함(저자가 잘못이라고 본 것)	아이를 돌볼 사람은 부모 → 부모가 결정에 참여 · 부모가 원하면 병원은 소생 준비(저자)
치매 환자의 폐렴	할 수 있으니까 항생제로 치료(2008년 연구가 보여 준 관행)	환자의 이익이 먼저 · 더 긴 삶이 이 환자들에게 이익이었는지 의심(저자)
환자의 뜻	환자의 뜻을 알 수 없는데도 할 수 있으니 계속 치료(2008년 연구가 보여 준 관행)	사전 지시서가 이상적 · 없고 뜻도 알 수 없으며 이익도 의심스러우면 가족의 뜻과 공동체의 비용도 고려(저자)
생명의 신성함	모든 인간 생명은 신성하니 이롭지 않아도 늘린다(저자가 짐작하는 그릇된 믿음)	가톨릭 = 이익에 비해 지나치거나 과도한 부담인 돌봄은 의무 아님(저자: 더 합리적)
골럽척 사건	자녀 = 생명 유지 중단은 정통파 유대교 신앙에 어긋남 · 법원 = 유지 명령	쿠마르 =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음 · 다른 두 의사도 수감 위험을 무릅쓰고 거부
가족과 의사	환자가 결정할 수 없으면 가족의 바람을 크게 존중(보통의 경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의사의 책임을 가족의 바람이 넘어설 수 없음(저자)
공공 재정	법원 = 병원 비용으로 계속 돌보라	헛된 치료의 장기 돌봄 의무 없음 · 원하면 자비로 · 납세자의 의무 아님(저자)
안락사의 위험	미끄러운 비탈길 = 허용하면 원하는 사람에게만 한정할 수 없음(가장 영향력 있는 반론)	여러 나라와 오리건에서 증거 없음 ·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서(저자)
이중 효과 원리	좋은 효과를 의도하면 생명 단축을 예견해도 허용(교황 · 바티칸)	동의를 강조하지 않음 · 동의 없는 생명 단축에 익숙하게 해 의도적 살해의 길을 닦은 듯(저자)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millia Taylor	**2007년** 신문이 '기적의 아기'로 떠받듦 · 기록상 가장 이른 생존 조산아라고 **주장**(claiming) · **10월** 출생 · 임신 **21주 6일** · **280g**(10온스) · 이전에는 **23주** 미만 생존 사례 알려진 적 없음 → 의사들은 기대하지 않음
Miami · 1800 g	마이애미 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넉 달 가까이** · **1,800g**(4파운드)까지 자라 퇴원 판정
in vitro fertilization	체외 수정 → 수정일을 정확히 앎 · 보통은 마지막 월경 첫날부터 → **약 2주** 더함 → **23주째** 출생 · **한 자료에 따르면** 네 번째로 작은 생존아 · 지금은 10대, 잘 지낸다고 **전해짐**
NEJM 2022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 **2022년** 'Case Vignette'와 토론 글 · 22주에 태어난 아기를 모두 으레 소생시켜야 하는가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Leif Nelin	모두 소생 찬성 · 아이오와 병원(22~23주 모두 소생) **70%** 생존 · **55%** 신경 발달 장애 없음 또는 가벼움 / 스웨덴 연구 22주 생존 **52%** · **2.5년** 뒤 생존아 **절반** 장애 없음
Elizabeth Foglia	출산 전 상담 · 부모가 소생 또는 '편안함만 주는 돌봄' 선택 / 메타 분석 **2,000명 넘게**(모두 적극 치료) · 생존 **29%** · 큰 합병증 없이 **11%** · 넬린 쪽 수치 = 자원이 좋은 병원 덕일 **것**
독자 투표 · 45%	**1,870명** · 일괄 소생 **28%** · 선별적 소생 **71%** · 과학적 조사 **아님** / 저자 = 아이오와 연구로도 생존아의 **45%**는 '가벼운' 정도가 아닌 장애
the old man's friend	폐렴의 옛 별명 · 이미 질이 낮고 그대로 두면 계속 나빠졌을 삶을 빠르고 비교적 고통 없이 끝내 줌
D'Agata · Mitchell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 **2008년** 보스턴 인근 요양원 · **18개월** · **214명** 중 **3분의 2** 항생제 · 평균 **85세** · 0~24점 검사에서 **4분의 3**이 **0점**
Medicare · Medicaid	알츠하이머병 환자 비용 **2021년 2,390억 달러**(추정) → **2050년 8,000억 달러 가까이**(예상) / 비교: **2020년** 미국 대외 원조 예산 **510억 달러**
항생제 내성균	다가타와 미첼이 짚은 다른 비용 · 병원에 옮겨진 치매 환자에게서 퍼져 회복할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도**(may)
Roman Catholic Church	이익에 비해 지나치거나 과도한 부담인 돌봄은 의무 아님 · 저자의 **경험으로는** 많은 신학자가 중증 치매 노인의 폐렴에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결정을 받아들일 것
Samuel Golubchuk	**84세** · 캐나다 **위니펙** · 뇌 손상 · 폐렴으로 입원 · 의사들 = 생명 유지 중단 제안 / 자녀 = **정통파 유대교** 신앙에 어긋남 → **임시** 법원 명령 · 호흡관 · 영양관
3 + 3 months	**3개월** 뒤 명령 재심 → 연장 · 다시 **3개월** · Anand Kumar = 정당화할 수 없다 / 다른 의사 **두 명**도 거부(수감 위험) · 다른 의사가 맡은 뒤 곧 사망 · 공식 사인 **자연사**
slippery slope	자발적 안락사 반대론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논증 / 네덜란드 · 벨기에 · 룩셈부르크 · 스위스 · 미국 **오리건** = 오랜 합법화에도 증거 없음(저자)
Hurricane Katrina	**2005년 8월** · Memorial Medical Center · **200명 넘는** 환자 · **사흘** 뒤 전기 · 물 · 화장실 끊김 / 건강하고 걸을 수 있는 환자 먼저 헬기 대피 · 주 경찰 = **오후 5시**까지 모두 나가라
Jannie Burgess	**79세** · 말기 암 · **8층** · 대피하려면 계단 **여섯 층** · Ewing Cook = 모르핀 증량 지시 · 뒤에 Sheri Fink(『New York Times』 기사 · 책)에게 '고민할 것도 없는 일'
Anna Pou	핑크에 **따르면 7층** 환자 몇 명이 너무 위중해 살 수 없다고 말하고, 모르핀과 호흡을 늦추는 다른 약을 주사
Emmett Everett	**61세** · 몇 해 전 사고로 마비 · 장폐색 수술로 입원 · **380파운드(173kg)** · 어지럼증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음 · 임박한 죽음의 위험은 적었던 **것으로 보임**(appears)
Pius XII · 1957 · 1980	**1957년** 의사들의 물음 = 수명 단축을 예견해도 마약성 진통제로 고통과 의식을 누를 수 있는가 → 허용 / **1980년** 「안락사 선언」이 재확인
double effect	좋은 효과를 의도하고 나쁜 효과는 원치 않은 결과일 뿐이면 허용될 수 있음 · 교황 · 선언 모두 **동의**를 강조하지 않음 · 의료진 = **72시간** 거의 못 잠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The Tiniest Babies · No Diseases for Old Men · When Doctors Kill (원서 PDF 74~75 · 81~85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3-1 사례와 찬성 측 근거 – 기적의 아기, 22주 아기를 모두 살려야 하는가 74쪽 ¶1 ~ ¶5

원문 위치 원서 74쪽 ¶1 ~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4쪽 ¶1 첫 문장	In 2007, newspapers hailed the "miracle baby" Amillia Taylor, claiming that	연도 · 인물 · 신문의 '주장'
▲	74쪽 ¶1 첫 문장	claiming that she was then the most prematurely born surviving baby ever recorded	분사구문 · 최상급 + ever p.p.
▲	74쪽 ¶1 둘째 문장	Born in October with a gestational age of just 21 weeks and six days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	74쪽 ¶1 둘째 문장	21 weeks and six days, she weighed only 280 grams, or 10 ounces	숫자 — 서답형 1순위
▲	74쪽 ¶1 셋째 문장	no baby born at less than 23 weeks had been known to survive	과거완료 수동 + to V
★	74쪽 ¶1 넷째 문장	nearly four months in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in a Miami hospital … 1800 grams	숫자 · 장소 — 내용 일치
◆	74쪽 ¶2 첫 문장	There was a certain amount of hype in all this.	밑줄 의미: 기록이 부풀려졌다
▲	74쪽 ¶2 둘째 문장	the day on which conception took place could be known precisely	전치사 + 관계대명사
▲	74쪽 ¶2 넷째 문장	Amillia should therefore have been regarded as being born in the 23rd week	should have been p.p.
●	74쪽 ¶2 다섯째 문장	It is not uncommon for such babies to survive.	어휘 반전: uncommon ↔ common
★	74쪽 ¶2 여섯째 문장	(according to one source, the fourth-smallest baby to survive)	출처 한정 — 단정 선지 함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4쪽 ¶3 첫 문장	Amillia is now a teenager and reported to be doing fine.	'전해진다' — True/False 후보
◆	74쪽 ¶3 셋째 문장	raises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전환 — 순서 배열의 고리
★	74쪽 ¶4	In 2022,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published a "Case Vignette"	연도 · 학술지
★	74쪽 ¶5 첫 문장	70% survived, and 55% had no, or only mild, neurodevelopmental impairment	숫자 — 내용 일치 · 순서
▲	74쪽 ¶5 둘째 문장	with half the survivors having no impairment when checked 2.5 years later	with + O + -ing · when + p.p.

내용

2007년 신문들은 '기적의 아기' 어밀리아 테일러를 떠받들며, 그녀가 당시까지 기록된 아기 가운데 가장 이르게 태어나 살아남은 아기라고 주장했다. 어밀리아는 10월에 임신 주수 겨우 21주 6일로 태어났고, 출생 체중은 280g(10온스)에 불과했다. 그 이전에는 23주 미만에 태어나 살아남은 아기가 알려진 적이 없었으므로 의사들은 어밀리아가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이애미의 한 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넉 달 가까이 지내며 1,800g(4파운드)까지 자라자, 의사들은 아기가 집에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자는 이 일에 어느 정도 과장이 있었다고 본다. 어밀리아는 체외 수정으로 생겼기 때문에 수정이 이루어진 날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보통은 그럴 수 없어서 임신 주수를 어머니의 마지막 월경 첫날부터 센다. 아기는 대개 월경 주기의 중간쯤에 생기므로 이 방식은 수정일에 약 2주를 더하게 되고, 따라서 어밀리아는 임신 23주째에 태어난 것으로 보았어야 했다. 그런 아기가 살아남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어밀리아가 아주 이르게, 아주 작게 태어난 아기였던 것은 분명하다(한 자료에 따르면 살아남은 아기 가운데 네 번째로 작았다). 어밀리아는 지금 10대가 되었고 잘 지낸다고 전해진다. 모든 일이 이토록 놀랍게 잘 풀린 것을 그녀와 부모를 위해 기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더 작은 아기를 살리려고 현대 의학의 모든 자원을 쓰는 일은 논의해야 할 문제를 낳는다. 2022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은 임신 22주에 태어난 아기를 모두 으레 소생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토론하는 글들과 함께 'Case Vignette'(사례 소개)를 실었다. 22주에 태어난 아기를 모두 소생시키자고 주장한 레이프 넬린 박사는, 22~23주에 태어난 아기를 모두 소생시킨 아이오와의 한 병원에서 70%가 살아남았고 55%는 신경 발달 장애가 없거나 가벼운 정도였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스웨덴의 한 연구는 22주에 태어난 아기의 생존율이 52%였고, 2.5년 뒤 검사했을 때 생존아의 절반은 장애가 없었다고 밝혔다.

어법

- **In 2007, newspapers hailed the "miracle baby" Amillia Taylor, claiming that she was then the most prematurely born surviving baby ever recorded** : claiming = 분사구문(그러면서 ~라고 주장했다; 의미상 주어 newspapers). the most + 부사(prematurely) + 과거분사(born) + 분사(surviving) + 명사. ever recorded = 최상급 뒤에 붙는 과거분사(기록된 것 가운데). claiming이 전하는 것은 신문의 주장이다.
- **Born in October with a gestational age of just 21 weeks and six days, she weighed only 280 grams, or 10 ounces, at birth** : 과거분사 Born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She was born ... and). 의미상 주어 = 주절의 she. or = 즉, 바꿔 말하면(단위를 달리해 다시 말함).
- **Previously no baby born at less than 23 weeks had been known to survive, so doctors did not expect Amillia to live** : no + 명사 주어 = 어떤 ~도 …않다. born ~ = 과거분사 후치. had been known to V = 과거완료 수동(그 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expect + O + to V.

- **But after nearly four months in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in a Miami hospital, and having grown to a weight of 1800 grams, or 4 pounds, doctors judged her ready to go home** : after + 명사구와 having grown(완료 분사구문: 주절보다 앞선 일)이 and로 병렬. having grown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doctors가 아니라 Amillia — 문맥으로 읽어야 하는 구조. judge + O + 형용사 보어(ready to V).
- **Amillia was conceived by in vitro fertilization, so the day on which conception took place could be known precisely** : o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conception took place on the day). could be known = 조동사 수동. so = 그래서(결과).
- **Since babies are usually conceived around the middle of the menstrual cycle, this adds about two weeks to the date of conception, and Amillia should therefore have been regarded as being born in the 23rd week of pregnancy** : Since = 이유의 접속사. add A to B = B에 A를 더하다. should have been p.p. = ~로 여겨졌어야 했다(실제로는 그러지 않음). regard A as B의 수동 → be regarded as + 동명사(being born).
- **It is not uncommon for such babies to survive** : 가주어 It + for + 의미상 주어(such babies) + 진주어 to V. not uncommon = 이중 부정(드물지 않다 = 꽤 있는 일이다). such babies = 임신 23주째에 태어난 아기.
- **A Swedish study found a survival rate of 52% in infants born at 22 weeks gestation, with half the survivors having no impairment when checked 2.5 years later** : with + 목적어(half the survivors) + 현재분사(having) = 부대상황(그리고 생존아의 절반은 ~였다). when checked = when they were checked(접속사 뒤 주어 + be 동사 생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hail (v.)	환호하며 맞이하다, 떠받들다	acclaim	criticize
prematurely	예정보다 일찍	early	—
neonatal	신생아의	newborn	—
hype	과장, 과대 선전	exaggeration	understatement
conceive	임신하다(수동: 잉태되다)	—	—
precisely	정확히	exactly	approximately
uncommon	드문	unusual	common
remarkably	놀랄 만큼	strikingly	—
resources	자원, 수단	means	—
routinely	으레, 일상적으로	regularly	selectively
resuscitate	소생시키다	revive	—
impairment	손상, 장애	disability	—
mild	가벼운	slight	severe

내용 일치 2007년 = 신문이 '기적의 아기'로 떠받든 해 · 가장 이른 생존 조산아 = 신문의 '주장'(claiming) · 10월 출생 · 21주 6일 · 280g(10온스) · 23주 미만 생존 사례 알려진 적 없음 → 의사들은 기대하지 않음 · 마이애미 병원 NICU 넉 달 가까이 · 1,800g(4파운드) · 과장 = 체외 수정이라 수정일이 정확 · 보통은 마지막 월경 첫날부터 → 약 2주 더함 → 23주째 · 그런 아기의 생존은 드물지 않음 · 네 번째로 작은 아기 = '한 자료에 따르면' · 지금 10대 = 잘 지낸다고 '전해짐' · 2022 NEJM · 넬린 = 모두 소생 찬성 · 아이오와 = 22~23주 모두 소생 · 70% 생존 · 55% 장애 없음 또는 가벼움 · 스웨덴 = 22주 생존 52% · 2.5년 뒤 생존아 절반 장애 없음. **밑줄 의미** a certain amount of hype = 수정일부터 센 계산 방식 때문에 기록이 실제보다 대단해 보였다는 것 / raises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 더 작은 아기를 살리려 모든 자원을 쓰는 일이 22주 아기 소생

논쟁으로 이어지는 전환 / 74쪽 ¶1 her(judged her) = 어밀리아 / ¶2 this(this adds) = 마지막 월경 첫날부터 세는 방식 / such babies = 23주째에 태어난 아기.

> **한 줄 요약** '기적의 아기' 보도에는 수정일부터 센 계산에서 온 과장이 있었고, 더 작은 아기를 살리려는 의학은 22주에 태어난 아기를 모두 소생시켜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낳았으며, 넬린은 높은 생존율을 근거로 찬성했다.

3-2 반대 측 근거와 독자 투표, 부모가 함께 정해야 한다는 저자의 답 74쪽 ¶6 ~ 75쪽 ¶2

원문 위치 원서 74쪽 ¶6 ~ 75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4쪽 ¶6 첫 문장	In contrast, Dr. Elizabeth Foglia argued that	대조 — 반대 측 견해의 시작
▲	74쪽 ¶6 첫 문장	parents should, if circumstances permit, be given counseling … and invited to decide	조동사 수동 병렬
●	74쪽 ¶6 ~ 75쪽 첫 줄	only "comfort care" rather than invasive and possibly futile interventions	어휘 반전: futile ↔ effective
▲	75쪽 첫 줄(¶6 둘째 문장)	more than 2,000 infants born at 22 weeks gestation, all of whom received active treatment	수량 + of whom
★	75쪽 첫 줄(¶6 셋째 문장)	a survival rate of only 29%, and only 11% survived without major in-hospital complications	숫자 — 52% · 70%와 혼동 주의
▲	75쪽 첫 줄(¶6 넷째 문장)	the studies to which Dr. Nelin referred … due to these hospitals being better resourced	to which ·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	75쪽 첫 줄(¶6 넷째 문장)	being better resourced than most	밑줄 의미 · 지칭 she = 포글리아
★	75쪽 첫 줄(¶6 끝 문장)	spend months …, undergo hundreds of painful procedures, and are at high risk	내용 일치 · 동사 병렬
★	75쪽 ¶1 둘째 문장	1,870 readers had voted, with 28% in favor … and 71% recommending selective resuscitation	숫자 — 서답형 1순위
◆	75쪽 ¶1 셋째 문장	(This is not, of course, a scientific survey of physician opinion.)	저자의 단서 — 단정 선지 함정
★	75쪽 ¶2 첫~둘째 문장	I am with the majority of those polled. The parents should be involved in the decision.	저자의 주장 — 주장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5쪽 ¶2 셋째 문장	45% of the surviving infants have an impairment that is not merely "mild"	숫자 — 55%와 짝
▲	75쪽 ¶2 넷째 문장	It is wrong for doctors to impose that burden on parents without seeking their views	가주어 · impose A on B
▲	75쪽 ¶2 다섯째 문장	should that be the outcome	if 생략 → should + 주어 도치
◆	75쪽 ¶2 다섯째 문장	difficult policy issues will arise about how best to spend the available healthcare budget	남는 문제 — 2편과 이어지는 고리

내용

이와 달리 엘리자베스 포글리아 박사는, 상황이 허락한다면 아주 이른 출산을 앞두고 부모가 상담을 받고, 아기를 소생시키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몸에 부담을 주고 어쩌면 헛될 수도 있는 처치 대신 편안함만 주는 돌봄(comfort care)을 받게 할지를 직접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22주에 태어나 모두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2,000명이 넘는 아기의 자료를 모은 메타 분석을 들었다. 이 분석에서 생존율은 29%에 그쳤고, 입원 중 큰 합병증 없이 살아남은 아기는 11%뿐이었다. 그녀는 넬린 박사가 인용한 연구들의 생존율이 더 높은 것은 그 병원들이 대부분의 병원보다 자원을 더 잘 갖추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체로 아주 일찍 태어나 살아남은 신생아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몇 달을 보내고, 수백 번의 고통스러운 시술을 받으며, 그 뒤 신경 발달 장애를 겪을 위험이 높다고 했다. 학술지는 독자들에게 22주에 태어난 아기를 으레 소생시키는 데 찬성하는지 물었다. 투표가 끝났을 때 1,870명이 참여했고, 28%는 22주에 태어난 모든 아기를 으레 소생시키자는 쪽, 71%는 선별적 소생을 권하는 쪽이었다(물론 이것은 의사들의 의견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 저자는 이 물음에서 투표한 사람 가운데 다수의 편에 선다. 부모가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살아남더라도 심한 장애를 안게 된다면 그 아이를 돌봐야 할 사람은 바로 부모다. 넬린 박사가 인용한 아이오와 연구조차 생존아의 45%가 '가벼운' 정도에 그치지 않는 장애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의사가 부모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다. 반면 부모가 상황을 이해하고, 혹시 그런 결과가 되더라도 심한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족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병원은 아이를 소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그때에도 치료비가 정부 재정에서 나온다면, 주어진 의료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두고 어려운 정책 문제가 생길 것이다.

어법

- **parents should, if circumstances permit, be given counseling before an extremely premature birth, and invited to decide whether they wish their baby to be resuscitated** : should + be given(give + IO + DO의 수동: 간접목적어 parents가 주어, counseling이 남음)과 (should be) invited가 and로 병렬. if circumstances permit = 삽입된 조건절. invite + O + to V의 수동. wish + O + to be p.p.
- **She referred to a meta-analysis of data from more than 2,000 infants born at 22 weeks gestation, all of whom received active treatment** : refer to = ~을 언급하다, 인용하다. all of whom = 수량 + of + 관계대명사(계속적; = and all of them). 쉼표 뒤에 접속사 없이 them을 쓰면 두 절을 이을 수 없다.
- **The higher survival rates in the studies to which Dr. Nelin referred were, she said, likely to be due to these hospitals being better resourced than most** : 주어 rates(복수) → were. to which = refer to의 to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she said = 삽입절. be likely to V = ~일 것 같다(단정 아님). due to + 동명사(being), these hospitals =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than most = than most hospitals.

- **Extremely preterm newborns who survive spend month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undergo hundreds of painful procedures, and are at high risk for subsequent neurodevelopmental impairment** : 주어 newborns + 관계절(who survive) 뒤 동사 셋 spend · undergo · are가 병렬(주어가 복수라 모두 복수형). be at high risk for = ~의 위험이 높다.
- **By the time the poll closed, 1,870 readers had voted, with 28% in favor of routine resuscitation ..., and 71% recommending selective resuscitation** : By the time + 과거 → 주절은 그때까지 끝난 일 = 과거완료(had voted). with + O + 전치사구(in favor of) / with + O + 현재분사(recommending) — 두 부대상황이 and로 이어진다.
- **If the child survives, but with a severe disability—and even the Iowa study that Dr. Nelin quotes indicates that 45% ... —the parents are the ones who will have to care for that child** : 조건절 뒤 대시 사이 = 삽입(근거 보충). even = ~조차. the ones who = 바로 ~하는 사람들(부모를 강조). will have to V = ~해야 할 것이다.
- **It is wrong for doctors to impose that burden on parents without seeking their views** : 가주어 It + for + 의미상 주어(doctors) + 진주어 to V. impose A on B = B에게 A를 지우다. without + 동명사(seeking). their = 부모의.
- **if the parents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are ready to welcome a severely disabled child into their family, should that be the outcome, then the hospital should be prepared to resuscitate the child** : should that be the outcome = if that should be the outcome(if 생략 → should + 주어 도치, '혹시 ~라면'). that = 심한 장애가 있는 아이가 되는 결과. be prepared to V =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unseling	상담	guidance	—
invasive	몸에 부담을 주는, 침습적인	intrusive	non-invasive
futile	헛된, 소용없는	useless	effective
intervention	처치, 개입	treatment	—
meta-analysis	메타 분석	—	—
complication	합병증	—	—
resourced	자원을 갖춘	equipped	under-resourced
preterm	조산의	premature	full-term
procedure	시술, 처치	operation	—
subsequent	그 뒤의	later	prior
selective	선별적인	discriminating	routine
impose A on B	B에게 A를 지우다	force	spare
burden	부담	load	relief
budget	예산	funds	—

내용 일치 포글리아 = 상황이 허락하면 출산 전 상담 · 부모가 소생 또는 편안함만 주는 돌봄 선택 · 메타 분석 = 2,000명 넘는 22주 아기, 모두 적극 치료 · 생존 29% · 큰 합병증 없이 11% · 넬린 쪽 수치가 높은 까닭 = 자원이 좋은 병원 '일 것'(she said) · 수백 번의 고통스러운 시술 · 투표 = 1,870명 · 일괄 28% · 선별 71% · 과학적 조사 아님 · 저자 = 다수 편, 부모가 결정에 참여 · 45% = 아이오와 연구에서 가벼운 정도가 아닌 장애 · 부모의 의견 없이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 · 부모가 원하면 병원은 소생을 준비 · 정부 재정이면 예산 문제(저자가 남긴 물음). **지칭** 74쪽 ¶6 they wish · their baby = 부모 / 75쪽 첫 줄 She referred · she said = 포글리아 / all of whom = 2,000명 넘는 아기 / these hospitals = 넬린이 인용한 연구의 병원들 / ¶1 they favor = 독자들 / ¶2 their views = 부모의 / should that be the outcome의 that = 심한 장애가 있는 아이가 되는 결과.

한 줄 요약 포글리아는 낮은 생존율과 고통스러운 시술을 들어 부모가 상담 뒤 선택하게 하자고 했고, 저자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부모이므로 부모가 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부모가 원하면 병원은 소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3-3 사례와 저자의 판단 — '노인의 친구' 폐렴과 맞서는 항생제 81쪽 ¶1 ~ 82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81쪽 ¶1 ~ 82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1쪽 ¶1 첫 문장	Pneumonia used to be called "the old man's friend"	밑줄 의미 1순위 · used to
▲	81쪽 ¶1 첫 문장	a life that was already of poor quality and would otherwise have continued to decline	of + 추상명사 · otherwise
★	81쪽 ¶1 둘째 문장	in 2008, a study of severely demented patients in US nursing homes around Boston	연도 · 장소
▲	81쪽 ¶1 둘째 문장	the "friend" is often being fought with antibiotics	현재진행 수동
★	81쪽 ¶1 셋째 문장	because they can, rather than because doing so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patient	중심 물음 · 빈칸 후보
★	81쪽 ¶2 첫 문장	Erika D'Agata and Susan Mitchell … over 18 months, two-thirds of 214	인물 · 숫자
★	81쪽 ¶2 둘째~셋째 문장	The mean age … was 85 … from 0 to 24 … three-quarters of these patients scored 0	숫자 — 서답형 1순위
▲	81쪽 ¶2 셋째 문장	where scores can range from 0 to 24, with the lower scores indicating	관계부사 where · with + O + -ing
★	81쪽 ¶3	It isn't clear that using antibiotics in these circumstances prolongs life	True/False 뒤집기 후보
▲	81쪽 ¶3	even if it did … can neither speak nor recognize their children	대동사 did · neither A nor B
●	81쪽 ¶3	their mental capacities have irreversibly deteriorated	어휘 반전: irreversibly ↔ reversibly
★	81쪽 ¶4 첫 문장	The interests of patients should come first	저자의 주장 · 요지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1쪽 ¶4 둘째 문장	Ideally, they would all have signed advanced directives	would have p.p.(이상적 가정)
★	81쪽 ¶4 셋째 문장	it is reasonable to take account of other factors, including the views of the family, and the cost	요지 — 조건 세 개
★	81쪽 ¶4 넷째 문장	$239 billion in 2021, and are expected to increase to nearly $800 billion by 2050	숫자 바꿔치기 주의
◆	81쪽 ¶5 ~ 82쪽 첫 줄	a different kind of cost for the community: it exacerbates	지칭 it = 항생제 사용

내용

폐렴은 예전에 '노인의 친구'라고 불렸다. 이미 삶의 질이 낮고 그대로 두면 계속 나빠졌을 삶을 빠르고 비교적 고통 없이 끝내 주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 미국 요양원의 중증 치매 환자를 다룬 연구는 이 '친구'가 항생제와 싸우는 상대가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의사들은 치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가장 이로워서가 아니라 그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으레 병을 치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에리카 다가타와 수전 미첼이 수행해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한 이 연구에 따르면, 18개월 동안 요양원의 중증 치매 환자 214명 가운데 3분의 2가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85세였다. 점수가 0점에서 24점까지이고 낮을수록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 표준 검사에서 이 환자들의 4분의 3이 0점을 받았다. 말로 소통하는 능력은 전혀 없거나 아주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항생제를 쓰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늘린다 해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남이 먹여 주어야 하고, 더는 걸을 수 없으며, 정신 능력이 되돌릴 수 없게 나빠져 말도 못 하고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수명이 늘어나기를 바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저자는 환자의 이익이 먼저여야 하며, 더 긴 삶이 이 환자들에게 이익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이상적이라면 이들은 모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지 밝혀 둔 사전 지시서에 서명해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지시서가 없고,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낼 방법도 없으며,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인지 매우 의심스러울 때에는, 가족의 견해와 공동체가 치르는 비용을 비롯한 다른 요인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드는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비용은 2021년 2,390억 달러로 추정되었고 2050년에는 8,000억 달러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하자면 2020년 미국의 대외 원조 예산은 510억 달러였다. 그런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 안에서만 보더라도, 중증 치매를 앓는 요양원 노인 환자의 생명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돈을 써야 할 곳들이 있다. 다가타와 미첼은 이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항생제를 쓰는 데에는 공동체가 치르는 다른 종류의 비용도 따른다고 지적한다.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점점 커지는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치매 환자가 급성 질환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지면 이 내성균이 퍼질 수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잘 회복해 정상적인 삶을 여러 해 더 누렸을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

어법

- **Pneumonia used to be called "the old man's friend" because it often brought a swift and relatively painless end to a life that was already of poor quality and would otherwise have continued to decline** : used to be p.p. = 예전에는 ~라고 불렸다(지금은 아님). bring an end to = ~을 끝내다. that절의 동사 was와 would have continued가 and로 병렬. of poor quality = of + 추상명사(질이 낮은). otherwise = 폐렴이 아니었다면 → would have p.p.
- **a study … showed that the "friend" is often being fought with antibiotics** : is being p.p. = 현재진행 수동(지금 싸움의 상대가 되고 있다). 주절은 과거(showed)지만 that절은 현재 — 지금도 이어지는 일이라 시제를 맞추지 않았다.
- **Are doctors routinely treating illnesses because they can, rather than because doing so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patient?** : they can = they can treat illnesses(반복 생략). A rather than B = B가 아니라 A —

because절 두 개를 대조. doing so = 동명사 주어(그렇게 하는 것 = 치료하는 것) → is. in the best interests of = ~에게 가장 이로운.

- **The study, carried out by Erika D'Agata and Susan Mitchell and published in the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showed that over 18 months, two-thirds of 214 severely demented patients in nursing homes were treated with antibiotics** : 주어 The study와 동사 showed 사이에 과거분사구 두 개(carried out / published)가 삽입. over 18 months = 18개월에 걸쳐. 분수 + of + 복수 명사 → 복수 동사 were.
- **On a standard test for severe impairment, where scores can range from 0 to 24, with the lower scores indicating more severe impairment, three-quarters of these patients scored 0** : where = 관계부사 계속적 용법(그 검사에서는; 선행사 test). range from A to B. with + O + 현재분사(indicating) = 부대상황. the lower scores = 더 낮은 점수.
- **even if it did, how many people want their lives to be prolonged if they are incontinent, ... and their mental capacities have irreversibly deteriorated so that they can neither speak nor recognize their children?** : did = 대동사(prolonged life). want + O + to be p.p. 수사의문문(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 so that = 그래서(결과). neither A nor B = A도 B도 ~ 않다.
- **Ideally, they would all have signed advanced directives indicating whether they wanted to keep liv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 would have p.p. = (이상적이라면) ~했을 것이다 —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함의. indicating = 현재분사 후치. whether = ~인지. keep -ing = 계속 ~하다.
- **When there are no such directives, however, and no way of finding out what the patient wants, and it is very doubtful that continued treatment is in the interests of a patient, it is reasonable to take account of other factors** : When 하나에 조건 세 개가 and로 병렬(no such directives / no way of -ing / it is doubtful that). what the patient wants = 간접의문문. 가주어 it + 진주어 to take. take account of = ~을 고려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neumonia	폐렴	—	—
swift	신속한	rapid	slow
decline (v.)	나빠지다, 쇠퇴하다	worsen	recover
demented	치매에 걸린	—	—
mean (adj.)	평균의	average	—
verbally	말로	orally	nonverbally
prolong	연장하다	extend	shorten
irreversibly	되돌릴 수 없게	permanently	reversibly
deteriorate	악화되다	degenerate	improve
directive	지시(서)	instruction	—
doubtful	의심스러운	uncertain	certain
exacerbate	악화시키다	aggravate	alleviate
acute	급성의	sudden	chronic
fatal	치명적인	deadly	harmless

내용 일치 '노인의 친구' = 예전 별명(used to) · 2008년 연구 = 보스턴(매사추세츠) 인근 미국 요양원의 중증 치매 환자 · 다가타와 미첼 ·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 18개월 · 214명 중 3분의 2 항생제 · 평균 85세 · 0~24점 검사에서 4분의

3이 0점 · 말로 소통 = 전혀 없음 ~ 아주 적음 · 항생제가 수명을 늘리는지 = '분명하지 않음' · 환자의 이익이 먼저 · 더 긴 삶이 이익이었는지 = 저자가 의심 · 사전 지시서 = 이상적인 경우 · 다른 요인 = 가족의 견해 · 공동체의 비용 · 2021년 2,390억 달러(추정) · 2050년 8,000억 달러 가까이(예상) · 2020년 대외 원조 510억 달러 · 내성균 = 회복할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도'(may). **밑줄 의미** the old man's friend = 이미 나빠지는 삶을 빠르고 비교적 고통 없이 끝내 주던 폐렴 / because they can = 환자에게 이로워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치료한다는 것 / 81쪽 ¶3 it did = 항생제 사용이 수명을 늘린다면 / ¶4 they would all have signed = 이 환자들 / ¶5 it exacerbates = 그렇게 많은 항생제 사용.

> **한 줄 요약** 중증 치매 노인의 폐렴을 으레 항생제로 치료하는 관행에 대해 저자는 환자의 이익이 먼저이며, 환자의 뜻을 알 수 없고 치료의 이익도 의심스러우면 가족의 뜻과 공동체의 비용(예산 · 내성균)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3-4 더 경직된 종교와 골럽척 사건, 공공 재정의 한계라는 저자의 결론 82쪽 ¶1 ~ 83쪽 ¶1

원문 위치 원서 82쪽 ¶1 ~ 83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2쪽 ¶1 첫 문장	One may suspect that a misguided belief in the sanctity of all human life plays some role	저자의 짐작 — 단정 금지
▲	82쪽 ¶1 첫 문장	beyond the point where it benefits the person whose life it is	관계부사 where · whose
●	82쪽 ¶1 둘째 문장	some religions are more reasonable than others	어휘 반전: reasonable ↔ rigid(¶2)
★	82쪽 ¶1 셋째 문장	no obligation to provide care that is disproportionate to the benefit it produces or unduly burdensome	빈칸 1순위
★	82쪽 ¶1 넷째 문장	In my experience, many Catholic theologians would accept a decision to withhold antibiotics	저자의 경험 — 내용 일치
◆	82쪽 ¶2 둘째 문장	Pneumonia has been unable to play its traditional friendly role	밑줄 의미 — '노인의 친구'와 연결
★	82쪽 ¶2 둘째 문장	Samuel Golubchuk, an 84-year-old man from Winnipeg, Canada	인물 · 숫자 · 도시 — 서답형
▲	82쪽 ¶2 셋째 문장	a brain injury that left him with limited physical and mental capacities	leave + O + with
★	82쪽 ¶2 여섯째 문장	They obtained an interim court order compelling the doctors to maintain life support.	내용 일치 · compel + O + to V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2쪽 ¶3 셋째~넷째 문장	After three months … extended it until the case could be heard in full. Another three months passed.	시간 순서 — 순서 배열
◆	82쪽 ¶3 다섯째 문장	he could not ethically justify what the court was forcing him to do	지칭 he = 쿠마르 · what절
◆	82쪽 ¶3 쿠마르의 말	This is grotesque. … an abomination. I can't do it.	밑줄 의미 — 의사의 양심
▲	82쪽 ¶4 둘째 문장	Golubchuk died, officially from natural causes, thus rendering further legal action moot	결과 분사구문 · render + O + C
★	82쪽 ¶5 둘째 문장	the family's wishes should not override that	저자의 주장 · 빈칸
★	82쪽 ¶6 ~ 83쪽 첫 줄	There has to be a limit to what a family can demand from the public purse	요지 · 요약문
★	83쪽 ¶1 둘째 문장	they should have been told that they were free to arrange for such care, at their own expense	저자의 결론 · should have p.p.

내용

모든 인간 생명이 신성하다는 그릇된 믿음이, 생명이 그 주인에게 이로운 지점을 넘어서까지 생명을 늘리기로 하는 결정에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에서 어떤 종교는 다른 종교보다 더 합리적이다. 예컨대 로마 가톨릭교회는 돌봄이 낳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거나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돌봄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저자의 경험으로는 많은 가톨릭 신학자가 폐렴에 걸린 중증 치매 노인 환자에게 항생제를 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다른 종교는 더 경직되어 있다. 캐나다 위니펙의 84세 노인 새뮤얼 골럽척에게 폐렴은 예부터의 친구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골럽척은 뇌 손상을 입어 몸과 정신의 능력이 제한된 상태였다. 그가 폐렴에 걸려 입원하자 의사들은 생명 유지 장치를 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자녀들은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통파 유대교 신앙에 어긋난다고 말했고, 의사들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임시 법원 명령을 받아 냈다. 그래서 의사들은 골럽척의 목에 숨쉬기를 돕는 관을, 위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을 넣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나 임시 명령이 다시 심사에 올랐지만, 법원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때까지 명령을 연장했다. 다시 석 달이 지났다. 그러자 골럽척을 돌보던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인 아난드 쿠마르 박사는 법원이 자신에게 강요하는 일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막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려면 감염을 막기 위해 병상에서 감염된 살을 계속 수술로 잘라 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끔찍한 일이고, 이로움에 대한 합리적인 희망도 없이 그에게 이런 가해를 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어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의사 두 명도 수감될 위험을 무릅쓰고 골럽척의 생명을 계속 늘리라는 법원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했다. 다른 의사가 치료를 맡았고 얼마 뒤 골럽척은 숨졌다. 공식 사인은 자연사였고, 이로써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의미가 없어졌다. 저자는 환자가 치료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 가족의 바람을 크게 존중해야 하지만, 의사에게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윤리적 책임이 있으며 가족의 바람이 그 책임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골럽척 사건이 던지는 핵심 물음은, 가족의 바람이 의사가 보기에 환자에게 최선인 것과 부딪칠 때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 체계가 그 바람을 채워 주려고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이다. 회복할 가망이 없는 환자의 장기 돌봄에 돈을 더 쓰면 회복 가망이 더 큰 다른 환자에게 쓸 돈이 줄어들므로, 가족이 공공 재정에 요구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으로 헛된 치료를 가족이 요구할 때 비싼 장기 돌봄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골럽척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계속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있기를 바랐다면, 그리고 그를 살려 두는 것이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자비로 그런 돌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알렸어야 했다. 법원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은 병원의 비용으로, 의료진의 더 나은 판단에 반하여 골럽척을 계속 돌보라고 병원에 명령한 것이다. 캐나다 납세자들이 동료 시민의 종교적 신념을 뒷받침하려고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다.

어법

- **One may suspect that a misguided belief in the sanctity of all human life plays some role in decisions to prolong human life beyond the point where it benefits the person whose life it is** : One may suspect = 일반 주어 one + may(짐작의 여지 — 단정 아님). play a role in = ~에 작용하다. where = point를 꾸미는 관계부사. the person whose life it is = 그 생명의 주인인 사람(whose + 명사 + it is; it = human life).
- **The Roman Catholic Church, for instance, holds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provide care that is disproportionate to the benefit it produces or unduly burdensome to the patient** : hold that = ~라는 입장이다.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care) → 보어 둘(disproportionate to / unduly burdensome to)이 or로 병렬. the benefit (that) it produces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it = care.
- **His children, however, said that discontinuing life support would be contrary to their Orthodox Jewish beliefs. They obtained an interim court order compelling the doctors to maintain life support.** : 동명사 주어(discontinuing life support) — 단수 취급(would라 형태로는 드러나지 않음). contrary to = ~에 어긋나는. compelling = 명령(order)을 꾸미는 현재분사 후치(명령이 의사를 강제한다 → 능동). compel + O + to V.
- **Dr. Anand Kumar, one of the hospital's doctors caring for Golubchuk, then announced that he could not ethically justify what the court was forcing him to do** : one of ~ = 주어의 동격. caring = 현재분사 후치.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force + O + to V에서 do의 목적어가 what으로 빠짐) — that으로 바꾸면 틀린다.
- **To inflict this kind of assault on him without a reasonable hope of benefit is an abomination** : to부정사 주어 → 단수 동사 is. inflict A on B = B에게 A를 가하다. without a reasonable hope of benefit = 이로움에 대한 합리적인 희망도 없이.
- **Another physician took over, and soon after, Golubchuk died, officially from natural causes, thus rendering further legal action moot** : thus + 현재분사 = 결과 분사구문(그 결과 ~하게 되었다). render + O + 형용사(moot) = O를 ~하게 만들다. officially = 삽입(공식적으로는).
- **There has to be a limit to what a family can demand from the public purse, because to spend more money on long-term care for a patient with no prospect of recovery means that there is less money for other patients with better prospects** : there has to be = ~이 있어야 한다. a limit to what ~ = ~하는 것의 한계(전치사 + what절). to부정사 주어(to spend ...) → 단수 동사 means.
- **What the court should not have done was to order the hospital to continue to care for Golubchuk, at its own expense, and against the better judgment of its health-care professionals** : 관계대명사 What절이 주어(법원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 → was + 보어 to V. should not have p.p. = ~하지 말았어야 했다(과거에 대한 비판). order + O + to V. its = 병원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isguided	그릇된	mistaken	sound
sanctity	신성함	sacredness	—
obligation	의무	duty	option
disproportionate	균형이 맞지 않는, 지나친	excessive	proportionat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duly	지나치게	excessively	reasonably
withhold	주지 않다, 보류하다	hold back	provide
rigid	경직된	inflexible	flexible
interim	임시의	temporary	permanent
compel	강제하다	force	—
grotesque	끔찍한, 기괴한	monstrous	—
abomination	혐오스러운 일	outrage	—
moot	(다툼이) 의미 없게 된	pointless	—
override	넘어서다, 우선하다	overrule	uphold
expense	비용	cost	—

내용 일치 생명의 신성함 = '그릇된 믿음'이라고 짐작(One may suspect) · 어떤 종교는 더 합리적 · 가톨릭 = 이익에 비해 지나치거나 과도한 부담인 돌봄은 의무 아님 · 신학자들의 수용 = 저자의 '경험으로는' · 골럽척 = 84세 · 위니펙 · 뇌 손상 · 폐렴 입원 · 의사들 = 생명 유지 중단 제안 · 자녀 = 정통파 유대교 신앙 · 임시 법원 명령 · 호흡관 · 영양관 · 3개월 뒤 연장 · 다시 3개월 · 쿠마르 = 정당화할 수 없음 · 다른 의사 두 명도 거부(수감 위험) · 다른 의사가 맡은 뒤 곧 사망 · 공식 사인 = 자연사 · 가족의 바람 = 크게 존중하되 의사의 책임을 넘어서면 안 됨 · 공공 재정 = 한계 · 자비로는 가능(고통이 없음을 보일 수 있었다면) · 법원 명령 = 잘못 · 캐나다 납세자의 의무 아님(저자의 결론). **지칭** 82쪽 ¶1 it benefits = 인간의 생명 · it produces = 돌봄 / ¶2 his doctors · his children = 골럽척의 / They obtained = 자녀들 / ¶3 he could not · forcing him = 쿠마르 · his infected flesh = 골럽척의 / ¶4 they risked jail = 다른 두 의사 / ¶5 override that =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사의 책임 / 83쪽 ¶1 they could have shown = 자녀들 · its own expense = 병원의.

한 줄 요약 골럽척 사건에서 저자는 가족의 바람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의사의 책임을 넘어설 수 없고, 공공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사가 헛되다고 판단한 장기 치료를 원하는 가족은 자비로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3-5 반론의 출발점과 사례 — 미끄러운 비탈길, 카트리나 뒤의 병원 84쪽 ¶1 ~ ¶7

원문 위치 원서 84쪽 ¶1 ~ ¶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4쪽 ¶1	Of all the arguments against voluntary euthanasia, the most influential is the "slippery slope"	반론의 이름 — 제목 후보
◆	84쪽 ¶1	we will not be able to limit the killing to those who want to die	밑줄 의미: 비탈길 논증의 내용
★	84쪽 ¶2 첫 문장	There is no evidence for this claim … the Netherlands, Belgium, Luxembourg, Switzerland, and … Oregon	저자의 판단 · 나라 — 내용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4쪽 ¶2 둘째 문장	point to a genuine danger from a different source	어휘 반전: genuine ↔ imaginary
▲	84쪽 ¶2 둘째 문장	revelations about what took place in a New Orleans hospital … point to	복수 주어 + point · what절
★	84쪽 ¶3 첫 문장	When New Orleans was flooded in August 2005 … more than 200 patients	연도 · 숫자
▲	84쪽 ¶3 첫 문장	Memorial Medical Center, a community hospital that was holding more than 200 patients	동격 + 관계절
★	84쪽 ¶3 둘째 문장	Three days after the hurricane hit, the hospital had no electricity, the water supply had failed	숫자 · 시제(과거완료)
▲	84쪽 ¶4 둘째 문장	Adding to the anxiety were fears that law and order had broken down	분사구 문두 → 도치 · 동격 that
★	84쪽 ¶5 둘째 문장	Priority was given to those who were in better health and could walk	True/False 뒤집기 후보
★	84쪽 ¶5 셋째 문장	everybody had to be out of the hospital by 5 p.m.	숫자 · 시각
★	84쪽 ¶6 첫 문장	Jannie Burgess, a 79-year-old woman with advanced cancer, was on a morphine drip	인물 · 숫자 · 8층
▲	84쪽 ¶6 셋째 문장	if she were left unattended, she might come out of her sedation	가정법 과거
◆	84쪽 ¶6 넷째 문장	"giving her enough until she goes."	지칭: her · she = 버지스
▲	84쪽 ¶6 다섯째 문장	It was, he later told Sheri Fink, who wrote a story …, a "no-brainer."	삽입절 · 계속적 who
★	84쪽 ¶7	According to Fink, Anna Pou … several patients on the seventh floor	출처 한정(According to) · 7층

내용

자발적 안락사에 반대하는 모든 논증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다.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것을 일단 허용하면, 죽음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 일을 한정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이다. 저자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미국 오리건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이나 자발적 안락사가 여러 해 동안 합법이었는데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뒤 뉴올리언스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드러난 사실들은 다른 곳에서 오는 진짜 위험을 가리킨다. 2005년 8월 뉴올리언스가 물에 잠기자 차오른 물이, 200명이 넘는

환자를 수용하고 있던 지역 병원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를 고립시켰다. 허리케인이 덮친 지 사흘 뒤 병원에는 전기가 없었고, 물 공급이 끊겼으며, 화장실 물도 내릴 수 없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환자 몇 명이 숨졌다. 숨 막히는 더위 속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더럽혀진 침대에 누운 남은 환자들을 돌보느라 쩔쩔맸다. 도시의 법과 질서가 무너졌고 병원 자체가 무장 강도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불안을 더했다. 환자를 대피시키려고 헬리콥터를 불렀는데, 더 건강하고 걸을 수 있는 환자가 우선이었다. 주 경찰이 도착해 사회 불안 때문에 오후 5시까지 모두 병원을 떠나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알렸다. 8층에는 말기 암을 앓는 79세 여성 재니 버지스가 모르핀 점적 주사를 맞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를 대피시키려면 계단 여섯 층을 들어서 내려가야 했고, 다른 곳에 필요한 간호사들의 손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돌보는 사람 없이 남겨 두면 진정 상태에서 깨어나 고통을 겪을지도 몰랐다. 현장에 있던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인 유잉 쿡은 간호사에게 모르핀을 늘려 '그녀가 갈 때까지 충분히' 주라고 지시했다. 그는 나중에 『New York Times』에 기사를 쓰고 이어서 이 일에 관한 책을 낸 셰리 핑크에게, 그것은 '고민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핑크에 따르면 또 다른 의사 애나 포우는 간호 직원들에게 7층의 환자 몇 명도 너무 위중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고, 그 환자들에게 모르핀과, 숨을 거둘 때까지 호흡을 늦추는 다른 약을 주사했다.

어법

- **Of all the arguments against voluntary euthanasia, the most influential is the "slippery slope"** : Of all + 복수 명사 = ~ 가운데. the most influential (argument) = 최상급 뒤 명사 생략. 콜론 뒤 = 그 논증의 내용.
- **once we allow doctors to kill patients, we will not be able to limit the killing to those who want to die** : once = 일단 ~하면(접속사; 조건 · 시간 부사절이라 현재 allow). allow + O + to V. limit A to B = A를 B에 한정하다. those who = ~하는 사람들.
- **But revelations about what took place in a New Orleans hospital after Hurricane Katrina point to a genuine danger from a different source** : 주어 revelations(복수)와 동사 point 사이가 멀다 — 수식어를 걷어 내고 일치시킨다. about + 관계대명사 what절. point to = ~을 가리키다.
- **the rising water cut off Memorial Medical Center, a community hospital that was holding more than 200 patients** : cut off = 과거형(cut-cut-cut). Memorial Medical Center = a community hospital(동격) + 주격 관계대명사 that절. was holding = 과거진행(수용하고 있던).
- **Three days after the hurricane hit, the hospital had no electricity, the water supply had failed, and toilets could no longer be flushed** : 기간 + after + S + V(~한 지 사흘 뒤). 과거(had) · 과거완료(had failed: 그 시점 이전에 끊김) · 조동사 수동(could no longer be flushed)의 세 절이 병렬.
- **Adding to the anxiety were fears that law and order had broken down in the city, and that the hospital itself might be a target for armed bandits** : 분사구(Adding to the anxiety)가 문장 앞 → 동사 were + 주어 fears 도치(주어가 복수라 were). fears를 받는 동격 that절 두 개가 and로 병렬.
- **But if she were left unattended, she might come out of her sedation, and be in pain** : 가정법 과거: if + S + were p.p., S + might + 원형(지금 · 그 상황에 대한 가정). unattended = 형용사 보어(돌보는 사람 없이). might 뒤 come과 be가 병렬.
- **It was, he later told Sheri Fink, who wrote a story for the New York Times, and subsequently published a book about these events, a "no-brainer."** : It was … a "no-brainer" 사이에 he later told Sheri Fink와 계속적 who 절이 삽입. who 뒤 동사 wrote · published가 병렬. It = 모르핀을 늘린 결정.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uthanasia	안락사	mercy killing	—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powerful	insignificant
revelation	드러난 사실, 폭로	disclosure	concealment
genuine	진짜의	real	imaginar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lood (v.)	물에 잠기게 하다	inundate	drain
ventilator	인공호흡기	respirator	—
stifling	숨 막히는	suffocating	refreshing
hard-pressed	몹시 쩔쩔매는	strained	—
soiled	더럽혀진	dirty	clean
evacuate	대피시키다	move out	—
civil unrest	사회 불안, 소요	disorder	calm
sedation	진정(상태)	—	—
unattended	돌보는 사람 없는	unsupervised	—
instruct	지시하다	direct	—

내용 일치 미끄러운 비탈길 = 자발적 안락사 반대론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논증 · 증거 없음 = 저자의 판단(네덜란드 · 벨기에 · 룩셈부르크 · 스위스 · 미국 오리건) · 다른 곳에서 오는 '진짜' 위험 · 2005년 8월 ·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지역 병원) · 200명 넘는 환자 · 사흘 뒤 전기 · 물 · 화장실 · 인공호흡기 환자 일부 사망 · 치안 붕괴 · 무장 강도에 대한 '두려움' · 건강하고 걸을 수 있는 환자 먼저 · 주 경찰 = 오후 5시까지 · 버지스 = 79세 · 말기 암 · 8층 · 모르핀 점적 · 계단 여섯 층 · 쿡 = 모르핀 증량 지시 · 핑크 = 『New York Times』 기사 뒤 책 · 포우의 주사 = '핑크에 따르면' · 7층. **지칭** 84쪽 ¶1 those who want to die = 죽기를 원하는 환자 / ¶2 this claim = 미끄러운 비탈길 주장 / ¶6 her · she = 버지스 · he later told = 쿡 · It was = 모르핀을 늘린 결정 · who wrote = 핑크 / ¶7 She injected = 포우 · them = 7층의 환자들.

> **한 줄 요약** 저자는 안락사 반대론의 '미끄러운 비탈길'에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카트리나 뒤 고립된 병원에서 의사들이 버지스와 7층 환자들(핑크에 따르면)에게 생명을 줄이는 약을 준 일에서 다른 곳에서 오는 진짜 위험을 찾는다.

3-6 이중 효과 원리와 쿡의 말, 자기 교리를 돌아보라는 저자의 결론 84쪽 ¶8 ~ 85쪽 ¶7

원문 위치 원서 84쪽 ¶8 ~ 85쪽 ¶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4쪽 ¶8 첫 문장	At least one of the patients … appears to have otherwise been in little danger of imminent death	단정 금지(appears) · 내용 일치
▲	84쪽 ¶8 첫 문장	appears to have otherwise been	완료부정사 to have p.p.
★	84쪽 ¶8 둘째 문장	Emmett Everett was a 61-year-old man who had been paralyzed in an accident	인물 · 숫자
◆	85쪽 첫 줄(¶8 셋째 문장)	he asked not to be left behind	지칭 he = 에버렛 · 부정 to V
★	85쪽 ¶1 첫 문장	he weighed 380 pounds (173 kilograms)	숫자 — 서답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85쪽 ¶1 둘째 문장	the injection he was being given would help with the dizziness from which he suffered	진행 수동 · from which
★	85쪽 ¶2	In 1957, a group of doctors asked Pope Pius XII … issued in 1980	연도 두 개 — 혼동 주의
★	85쪽 ¶3 둘째 문장	if the good effect is the one that is intended and the bad effect is merely an unwanted consequence	원리의 정의 · 빈칸
★	85쪽 ¶3 셋째 문장	neither … place any emphasis on … the voluntary and informed consent of patients	통합 사고 1순위
▲	85쪽 ¶4 둘째 문장	one doctor, who intends to relieve …, whereas the other, who intends to shorten …, commits murder	one … the other · whereas
◆	85쪽 ¶5 첫 문장	Dr. Cook had little time for such subtleties.	밑줄 의미 — 미묘한 구분 무시
▲	85쪽 ¶5 둘째 문장	Only "a very naïve doctor" would think that giving a person a lot of morphine was not	Only + 주어 · 동명사 주어
●	85쪽 ¶5 셋째 문장	"so fine as to be imperceivable."	어휘 반전: imperceivable ↔ obvious
★	85쪽 ¶6 둘째 문장	Exhausted after 72 hours with little sleep	숫자 · 분사구문
★	85쪽 ¶6 셋째 문장	does not justify what the doctors did; but … it seems to have paved the way for intentional killing	저자의 결론 · 요지
◆	85쪽 ¶7 둘째 문장	They would do well to examine the consequences of their own doctrines.	밑줄 의미 · They = 가톨릭 사상가들

내용

이 치명적인 약물 조합을 주사받은 환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그 주사가 아니었다면 곧 죽을 위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1세의 에밋 에버렛은 몇 해 전 사고로 마비가 된 사람으로, 장폐색을 풀기 위한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해 있었다. 같은 병동의 다른 환자들이 대피하자 그는 남겨 두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의 몸무게는 380파운드(173kg)였고, 그를 계단으로 들어 내린 뒤 다시 헬리콥터가 내려앉는 곳까지 올리기는 몹시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지금 맞는 주사가 그가 겪던 어지럼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1957년 한 무리의 의사들이 교황 비오 12세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쓰면 수명이 줄어들 것을 예견하더라도' 고통과 의식을 누르기 위해 그것을 써도 되는지 물었다. 교황은 된다고 답했다. 바티칸은 1980년에 낸 「안락사 선언」(Declaration on Euthanasia)에서 이 견해를 다시 확인했다. 바티칸의 입장은 이른바 '이중 효과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라는 두 가지 효과를 낳는 행위는, 의도한 것이 좋은 효과이고 나쁜 효과는 좋은 효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긴 원치 않은 결과일 뿐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 저자는 교황의 말도 「안락사 선언」도, 가능한 경우 환자의 생명을 줄이기 전에 환자의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는 일의 중요성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고 짚는다. 이중 효과 원리에 따르면 두 의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같은 상태의 환자에게, 그 양이 환자의 생명을 줄이리라는 것을 알면서 같은 양의

모르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고통을 덜려고 의도한 의사는 좋은 의료 관행에 맞게 행동한 것이고, 환자의 생명을 줄이려고 의도한 의사는 살인을 저지른 것이 된다. 쿡 박사는 이런 미묘한 구분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핑크에게, 모르핀을 많이 주는 것이 '사람을 너무 일찍 무덤으로 보내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순진한 의사'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라고 거리낌 없이 덧붙였다. 쿡이 보기에 윤리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 사이의 경계는 '너무 미세해서 알아챌 수 없을 정도'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큰 압박 속에 있었다. 72시간 동안 거의 자지 못해 지쳤고 환자를 돌보느라 힘겨웠던 그들은 어려운 윤리적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처지가 아니었다. 저자는 이중 효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의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원리가 동의를 얻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줄이는 관행에 의료진을 익숙하게 만듦으로써 의도적 살해로 가는 길을 닦은 것으로 보인다고 본다. 로마 가톨릭 사상가들은 자발적 안락사와 의사 조력 사망의 합법화에 반대하며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가장 목소리 높여 내세워 온 이들에 속한다. 저자는 그들이 자기 교리가 낳은 결과를 살펴보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법

- **At least one of the patients injected with this lethal combination of drugs appears to have otherwise been in little danger of imminent death** : 주어 one(단수) → appears. injected = 과거분사 후치. appear to have p.p. = 완료부정사(주절의 '보인다'보다 앞선 때의 일). little = 거의 없는(부정의 뜻). otherwise = 그 주사가 아니었다면.
- **When others from his ward were evacuated, he asked not to be left behind** : ask to V의 부정 = ask not to V(not은 to 바로 앞). to be left behind = 수동 부정사(남겨지다). others = 다른 환자들.
- **it would have been extremely difficult to carry him down the stairs and then up again to where the helicopters were landing** : 가주어 it + 진주어 to carry. would have been = (실제로 하려 했다면) ~였을 것이다. to where = 전치사 + 관계부사 where절(~하는 곳까지; where가 장소 명사 역할).
- **He was told the injection he was being given would help with the dizziness from which he suffered** : be told (that) = ~라는 말을 들었다. the injection (that) he was being given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과거진행 수동(give의 수동). from which = suffer from의 from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 **An action that has two effects, one good and the other bad, may be permissible if the good effect is the one that is intended and the bad effect is merely an unwanted consequence of achieving the good effect** : 주어 An action + 관계절 + 동격(one good and the other bad) → 동사 may be. 둘 가운데 one ... the other ~. the one = the effect. of + 동명사(achieving).
- **Only "a very naïve doctor" would think that giving a person a lot of morphine was not "prematurely sending them to their grave,"** : Only + 명사 주어 = ~만이 …할 것이다(= 아주 순진한 의사가 아니면 누구나 안다). 동명사 주어(giving ...) → was. give + IO + DO. them = a person을 받는 성 중립 대명사.
- **In Cook's opinion, the line between something ethical and something illegal is "so fine as to be imperceivable."** : between A and B. something + 형용사(후치 수식). so + 형용사 + as to V = 너무 ~해서 …할 정도다. In Cook's opinion = 쿡의 의견(저자의 주장이 아님).
- **by inuring them to the practice of shortening patients' lives without obtaining consent, it seems to have paved the way for intentional killing** : by + 동명사 = ~함으로써. inure A to B = A를 B에 익숙하게(무디게) 하다. seem to have p.p. = 과거의 일에 대한 지금의 판단(단정 아님). pave the way for = ~으로 가는 길을 닦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thal	치명적인	deadly	harmless
imminent	임박한	impending	distant
paralyzed	마비된	immobilized	—
permissible	허용되는	allowable	forbidde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narcotic	마약성 진통제	opiate	—
foresee	예견하다	predict	—
reaffirm	다시 확인하다	restate	retract
doctrine	원리, 교리	principle	—
subtlety	미묘한 구분	nuance	—
naïve	순진한	credulous	worldly
imperceivable	알아챌 수 없는	imperceptible	obvious
inure	익숙하게 하다, 무디게 하다	harden	sensitize
intentional	의도적인	deliberate	accidental
vocal	목소리를 높이는	outspoken	silent

내용 일치 에버렛 = 임박한 죽음의 위험이 적었던 것으로 '보임'(appears) · 61세 · 몇 해 전 사고로 마비 · 장폐색 수술로 입원 · 남겨지지 않게 부탁 · 380파운드(173kg) · 어지럼증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음 · 1957년 = 의사들의 물음 · 비오 12세 = 허용 · 1980년 「안락사 선언」 = 재확인 · 이중 효과 = 좋은 효과를 의도 · 나쁜 효과는 원치 않은 결과 · 동의를 강조하지 않음(저자가 짚은 점) · 같은 행위 = 의도에 따라 좋은 의료 또는 살인(원리의 설명) · 경계가 보이지 않는다 = 쿡의 의견 · 72시간 · 압박 · 원리는 정당화하지 않음 · 의도적 살해의 길 = '닦은 것으로 보임'(seems) · 가톨릭 사상가들 = 비탈길 논증을 가장 목소리 높여 내세운 이들 가운데. **밑줄 의미** had little time for such subtleties = 의도에 따라 같은 행위를 다르게 보는 미묘한 구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 so fine as to be imperceivable = 윤리와 불법의 경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쿡의 생각 / paved the way for intentional killing = 동의 없는 생명 단축에 익숙해지면서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는 쪽으로 가기 쉬워졌다는 저자의 판단 / They would do well to examine … = 비탈길 논증으로 안락사에 반대하는 가톨릭 사상가들이 정작 자기 교리(이중 효과 원리)가 낳은 결과를 살펴야 한다는 저자의 권고 / 85쪽 첫 줄 he asked = 에버렛.

> **한 줄 요약** 좋은 효과만 의도하면 생명 단축을 예견해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이중 효과 원리는 동의를 강조하지 않으며, 저자는 이 원리가 의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동의 없는 생명 단축에 익숙하게 해 의도적 살해의 길을 닦은 듯하다고 보고 가톨릭 사상가들에게 자기 교리의 결과를 살피라고 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3 MEDICINE]

범위	The Tiniest Babies · No Diseases for Old Men · When Doctors Kill (원서 PDF 74~85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en the journal polled its readers, 1,870 voted: 28% wanted every infant born at 22 weeks resuscitated routinely, while 71% preferred to decide case by case. I side with the majority. Parents must share in the decision, since if the baby survives severely disabled, they are the ones who will care for the child. Doctors should not lay that burden on them without asking what they think. Yet if informed parents are ready to welcome such a child, the hospital should stand ready to resuscitate.

① Every 22-week baby should be resuscitated.
② Parents should help decide whether tiny babies are revived.
③ Reader polls show what doctors really think.
④ Babies likely to be disabled should not be revived.
⑤ Only governments should decide such case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Dr. Cook had no patience with fine distinctions about intention. He told Fink bluntly, 'We kill 'em,' and to him the line between ethical and illegal acts was almost too thin to see. At Memorial Medical Center, after 72 hours with hardly any sleep, staff were poorly placed to make hard moral choices. Rightly understood,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cannot justify what was done. But by making it feel normal to shorten lives without consent, it seems to have opened the way to deliberate killing. Catholic thinkers, who often warn of a slippery slope, should look at where their own doctrines lead.

① Pressure Excuses Every Medical Decision
② Catholic Teaching Prevents Unwanted Deaths
③ Double Effect: A Doctrine That May Have Paved a Dangerous Path
④ Fine Lines Make Euthanasia Laws Impossible
⑤ How Doctors Cope with Sleepless Nights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t is unclear whether antibiotics lengthen such patients' lives, but even if they did, how many of us would want a longer life once we could no longer walk, eat unaided, speak, or recognize our own children? Patients' interests must come first, and it is doubtful that more years served these patients. Ideally, each would have left written instructions about such a state. But when there are none, when we cannot learn what the patient wants, and when further treatment seems unlikely to help, it is sensible to weigh other things too, such as the family's views and what the treatment costs the community.

① All nursing home patients should get antibiotics.
② Families should make every medical decision for the elderly.
③ Written instructions raise medical costs.
④ Doctors must keep patients alive as long as possible.
⑤ If a patient's wishes are unknown and treatment helps little, family views and costs may count.

4. 밑줄 친 the old man's frien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In the past, pneumonia was known as the old man's friend, since it frequently ended, quickly and with relatively little pain, a life whose quality was already poor and which would have kept getting worse. A 2008 study, however, revealed that in nursing homes near Boston this 'friend' is now regularly fought off with antibiotics. Researchers followed 214 patients with severe dementia for 18 months; two in three received antibiotics. Their average age was 85, and on a standard 0-to-24 test of severe impairment, three in four scored zero.

① a disease that mostly affects elderly men
② an illness that often ended a declining life quickly and fairly painlessly
③ a treatment doctors trust for the elderly
④ a companion who cares for nursing home patients
⑤ a common illness that antibiotics easily cure

5. 밑줄 친 a certain amount of hyp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millia Taylor's story, however, contained a certain amount of hype. Because she had been conceived through in vitro fertilization, her doctors knew the exact day of conception. That is rarely possible, so pregnancies are normally dated from when the mother's last period began. As conception usually happens around the middle of the cycle, the normal method adds roughly two weeks, which means that, counted in the usual way, Amillia was born during week 23 of the pregnancy. Babies born at that stage survive fairly often. Even so, she was undeniably very early and very small; one source ranks her as the fourth-smallest baby ever to survive.

① Her birth was reported as earlier than it would be by the usual way of counting.
② Her parents exaggerated how small she was.
③ Doctors hid the risks of in vitro fertilization.
④ Newspapers ignored her survival.
⑤ Her weight at birth was recorded incorrectly.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On the eighth floor lay Jannie Burgess, aged 79, who had advanced cancer, was receiving morphine through a drip, and was close to death. Moving ① her out would have meant carrying her down six flights and taking nurses away from other urgent work. Yet if ② she were left with no one to watch over her, she might wake from her sedation and suffer pain. Ewing Cook, a doctor on hand, told a nurse to raise the morphine and to give ③ her enough 'until ④ she goes.' Later ⑤ he described the decision to Sheri Fink, who covered these events in the New York Times before writing a book about them, as a 'no-brainer.'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Newspapers in 2007 celebrated Amillia Taylor as a 'miracle baby', saying that no baby on record had ever been born so early and lived. She was born in October, when her mother's pregnancy had lasted only 21 weeks and six days, and she weighed a mere 280 grams, about 10 ounces. Until then, no baby born before the 23rd week of pregnancy was known to have lived, so her doctors did not think she would make it. She then spent almost four months being cared for in a Miami hospital's intensive care unit for newborns. By the time her doctors finally decided that she was ready to go home, she had grown to 1,800 grams, roughly 4 pounds.

① 어밀리아는 태어날 때 1,800g이었다.
② 이전에도 23주 미만 생존아가 여럿 알려져 있었다.
③ 어밀리아는 넉 달 가까이 마이애미의 병원에 있었다.
④ 의사들은 처음부터 어밀리아가 살 것이라고 기대했다.
⑤ 어밀리아는 퇴원 판정을 받을 때 몸무게가 10온스였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In August 2005, floodwaters in New Orleans surrounded Memorial Medical Center, a local community hospital with over 200 patients inside. Three days after the storm struck, the power was gone, there was no running water, and the toilets would not flush. Several patients who relied on ventilators died. In suffocating heat, doctors and nurses struggled to look after the survivors, who lay on dirty beds. Staff also feared that order in the city had collapsed and that armed robbers might attack the hospital. Helicopters came to take patients away, and those who were healthier and able to walk went first. Then state police arrived and ordered everyone out by 5 p.m., citing civil unrest.

① 홍수는 2005년 8월에 일어났다.
② 병원에는 200명이 넘는 환자가 있었다.
③ 허리케인이 덮친 지 사흘 뒤 병원에는 전기도 물도 없었다.
④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환자 몇 명이 숨졌다.
⑤ 헬기 대피는 가장 위중해 걷지 못하는 환자부터 이루어졌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Dr. Elizabeth Foglia took the opposite view. She argued that, where possible, parents should receive counseling before an extremely early birth and ① be asked whether they want their baby resuscitated or given only 'comfort care' instead of invasive treatment that may prove futile. She cited a meta-analysis covering more than 2,000 babies born at 22 weeks, all of ② them were treated actively. Only 29% of them survived, and just 11% left the hospital without major complications. The higher figures in the studies Dr. Nelin cited, she suggested, probably reflected those hospitals ③ being better equipped than most. In general, she added, extremely early babies who live ④ remain in intensive care for months, endure hundreds of painful procedures, and ⑤ face a high risk of later developmental problems.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ome religions are less flexible. Samuel Golubchuk, a man of 84 living in Winnipeg, Canada, had suffered a brain injury that (A) [left / leaving] him with reduced physical and mental abilities. When he was hospitalized with pneumonia, his doctors suggested removing life support, but his children said this would go against their Orthodox Jewish faith. They won a temporary court order (B) [forcing / forced] the doctors to keep him on it. So the doctors put a breathing tube down his throat and a feeding tube into his stomach. He neither spoke nor left his bed. After three months the order was reviewed and extended, and three more months went by. Dr. Anand Kumar then declared that he could not ethically defend (C) [that / what] the court was making him do.

	(A)	(B)	(C)
①	left	forced	what
②	leaving	forcing	what
③	left	forcing	that
④	left	forcing	what
⑤	leaving	forced	tha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Among all the objections to voluntary euthanasia, the slippery slope argument has been the most ① influential. It warns that once doctors are permitted to kill patients, we will be ② unable to confine the killing to people who actually want to die. In other words, permission meant for those who ask to die could not be kept from those who do not. Yet this warning is not ③ supported by any evidence, even though voluntary euthanasia or physician-assisted suicide has been legal for many years in Switzerland, Belgium, the Netherlands, Luxembourg, and Oregon in the US. What came to light about events at a hospital in New Orleans in the wake of Hurricane Katrina, however, points to a danger that is entirely ④ imaginary and that comes from a ⑤ different source.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Antibiotics given to these patients, Erika D'Agata and Susan Mitchell note, also cost the community in another way: they worsen the spread of resistant bacteria, which can prove deadly to other hospital patients who would otherwise have recovered. One might suspect that a mistaken faith in the sacredness of every human life helps keep lives going past the point where they do the patient any good. Some faiths, though, take a more sensible line. Catholic teaching, for one, does not require doctors to give treatment that is _____ or too heavy a burden for the patient. Indeed, the author has found that many Catholic theologians would not object if elderly people with severe dementia who catch pneumonia were given no antibiotics.

① cheaper than other treatments
② paid for by the government
③ certain to cure the illness
④ out of proportion to the good it does
⑤ approved by the patient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he Pope replied that such use was permissible.

In 1957, doctors asked Pope Pius XII if narcotics might be used to dull pain and consciousness even when expected to shorten life. (①) In 1980 the Vatican confirmed this view again in its Declaration on Euthanasia. (②) The position rests on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which allows an act with a good and a bad effect if only the good one is intended. (③) Notably, neither statement stresses getting patients' voluntary, informed consent, where possible, before their lives are shortened. (④) So two doctors may give identical patients the same morphine dose, both knowing it will hasten death. (⑤) Yet the one who means to ease pain is practising good medicine, while the one who means to end the life commits murder.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At least one patient who received this deadly mix of drugs seems not to have been close to dying otherwise. ① Emmett Everett, aged 61, had been left paralyzed by an accident some years before. ② He had come to the hospital for an operation to clear a blockage in his bowel. ③ Samuel Golubchuk of Winnipeg, aged 84, had suffered a brain injury that limited both his body and his mind. ④ When the other patients on his ward were taken out, Everett asked not to be abandoned. ⑤ However, his weight was 380 pounds, or 173 kilograms, so carrying him downstairs and then back up to the helicopter landing area would have been extremely hard. He was told that the injection he was given would ease his dizziness.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millia, now a teenager, is reportedly doing well, and we should be glad. Still, using all of modern medicine's resources to save ever tinier babies raises questions that need discussing.

(A) Another study, from Sweden, found that 52% of infants born at 22 weeks survived and that half the survivors had no impairment two and a half years later.

(B) One of them was the focus of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s 2022 'Case Vignette', which came with articles debating whether every baby born at 22 weeks should be routinely resuscitated.

(C) In that debate, Dr. Leif Nelin, who favored resuscitating them all, cited an Iowa hospital where every baby born at 22–23 weeks was resuscitated: 70% lived, and 55% had no neurodevelopmental impairment or only a mild one.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Golubchuk case raises a key policy question: how far must a tax-funded health system go to meet a family's wishes when they clash with what doctors think is best for the patient? What a family can claim from public funds must be limited, because money spent on years of care for a patient who cannot recover is money unavailable to patients with better chances. When doctors judge a treatment pointless, nothing requires the system to supply expensive long-term care for it. If Golubchuk's children could have shown that he was not suffering, they should have been told they were free to pay for such care themselves.

→ A publicly funded health system is not obliged to (A) _____ a family's demand for treatment that doctors judge (B) _____, because such spending takes money away from patients with better prospects.

① meet ..... futile
② meet ..... effective
③ refuse ..... futile
④ refuse ..... effective
⑤ delay ..... necessary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Amillia Taylor weighed just 280 grams when she was born, and she had reached 1,800 grams by the time she went home. When the journal closed its poll of 1,870 readers, 28% supported routine resuscitation, while 71% favored selective resuscitation. In the 2008 nursing home study, the patients' average age was 85. Samuel Golubchuk, a man of 84 from Winnipeg, was kept on life support because his children objected to having it withdrawn. In August 2005, floodwater in New Orleans cut off Memorial Medical Center. Catholic thinkers often invoke the slippery slope argument, but the Vatican's view on painkillers that may shorten life applies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QUIZ>

(1) How many grams did Amillia Taylor weigh at birth?

Answer for (1): _____

(2) What percentage of the readers favored selective resuscitation?

Answer for (2): _____

(3) What was the average age of the patients in the 2008 study?

Answer for (3): _____

(4) Which city was Samuel Golubchuk from?

Answer for (4): _____

(5) Is it true or false that Golubchuk's children wanted his life support withdrawn?

Answer for (5): _____

(6) In what year was New Orleans flooded?

Answer for (6): _____

(7) Which doctrine does the Vatican's view on painkillers apply?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85	N. 2005
B. Boston	O. sanctity of life
C. 28%	P. True
D. slippery slope	Q. 214
E. 71%	R. Miami
F. 1957	S. 52%
G. double effect	T. New Orleans
H. 280	U. 1,870
I. False	V. 1980
J. 84	W. 21
K. 1,800	X. 2007
L. Winnipeg	Y. 61
M. 2008	Z. 79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신문들은 그녀가 당시 기록된 가장 이른 조산 생존아라고 주장하며 그 '기적의 아기'를 떠받들었다. (분사구문 / 최상급 + ever p.p.)

02 그런 아기들이 살아남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가주어 It + for + 의미상 주어 + to V)

03 부모는 아기가 소생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도록 요청받아야 한다. (조동사 수동 / wish + O + to be p.p.)

04 의사가 부모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다. (가주어 It + for + to V / impose A on B)

05 폐렴은 예전에 '노인의 친구'라고 불렸다. (used to be p.p.)

06 그들은 말을 할 수도, 자녀를 알아볼 수도 없다. (neither A nor B)

07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어긋날 것이다. (동명사 주어 / contrary to)

08 법원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은 병원에 그를 계속 돌보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What절 주어 / should not have p.p.)

09 불안을 더한 것은 도시의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두려움이었다. (분사구 문두 → 동사 · 주어 도치 / 동격 that)

10 그녀를 돌보는 사람 없이 남겨 두면, 그녀는 진정 상태에서 깨어나 고통을 느낄지도 모른다. (가정법 과거)

11 윤리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 사이의 경계는 너무 미세해서 알아챌 수 없을 정도다. (so + 형용사 + as to V)

12 그들은 자기 교리가 낳은 결과를 살펴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would do well to V)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어밀리아가 '기적의 아기'로 불린 해 / 출생 때 임신 주수	
출생 체중 / 퇴원 판정 때 체중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던 기간 · 도시	
보통 방식으로 셌을 때의 출생 시점 / 한 자료가 매긴 순위	
22주 아기 소생 논쟁을 실은 학술지 · 해	
아이오와 병원의 생존율 / 장애 없음 또는 가벼움	
스웨덴 연구의 생존율 / 장애 없는 생존아 · 확인 시점	
포글리아가 든 메타 분석의 규모 / 생존율 / 큰 합병증 없는 생존	
독자 투표 참여자 / 일괄 소생 / 선별적 소생	
폐렴 연구가 나온 해 · 지역 / 연구자 두 사람	
연구 기간 · 환자 수 / 항생제 치료 비율 / 평균 나이	
알츠하이머병 환자 비용(2021 / 2050) / 2020년 대외 원조	
법원 명령으로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한 노인 · 나이 · 도시 / 자녀의 신앙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밝힌 의사 / 함께 거부한 의사 수 / 공식 사인	
안락사 · 조력 자살을 오래 허용해 온 곳(원서 순서)	

항목	답
홍수가 난 때 / 병원 / 환자 수 / 대피 마감	
8층 환자 · 나이 / 모르핀 증량을 지시한 의사 / 이 일을 기사와 책으로 쓴 사람	
7층 환자들에게 주사한 의사(핑크에 따르면) / 61세 환자 · 몸무게	
진통제 사용을 허용한 교황 · 해 / 같은 견해를 재확인한 문서 · 해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When Doctors Kill」에서 저자는 교황의 말도 「안락사 선언」도 생명을 줄이기 전에 가능하면 환자에게서 얻어야 할 것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고 짚고(85쪽 ¶3), 이중 효과 원리가 그것 없이 환자의 생명을 줄이는 관행에 의료진을 익숙하게 만들어 의도적 살해의 길을 닦은 듯하다고 보았다(85쪽 ¶6). 「No Diseases for Old Men」에서는 환자의 이익이 먼저이며, 이상적이라면 환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지 밝힌 사전 지시서에 서명해 두었을 것이라고 썼고(81쪽 ¶4), 「Treating (or Not) the Tiniest Babies」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아기를 대신해 부모가 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의사가 부모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75쪽 ¶2).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생명을 줄이는 결정 전에 가능하면 환자에게서 얻어야 한다고 본 것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 근거를 「When Doctors Kill」과 다른 한 편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생명을 줄이기 전에 얻어야 할 것: Neither the Pope's remarks nor the Declaration on Euthanasia place any emphasis on obtaining the voluntary and informed _____ of patients, where possible, before shortening their live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4 PUBLIC HEALTH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Public Health versus Private Freedom · Kidneys for Sale? · The Lockdowns
원서 PDF 91~93 · 99~100 · 103~105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이 권은 모두의 건강을 지키려는 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부딪치는 세 장면을 묶었다. 「Public Health versus Private Freedom」에서 저자는 담뱃갑의 그림 경고를 두고 엇갈린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판결에서 출발해, 광고가 무의식을 움직이는 시대에 그런 법은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개인과 거대 기업 사이를 공정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주장한다. 「Kidneys for Sale?」는 장기 매매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다는 반론을 소개한 뒤, 1988년부터 규제된 신장 구매 제도를 운영해 온 이란을 들어 그 예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자고 말한다. 「Were the Lockdowns Justified?」(마이클 플랜트와 공저)에서 저자들은 봉쇄가 구한 생명과 극빈 · 교육 손실 같은 비용을 비교하려면 웰빙이라는 공통 단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세 편을 이어 읽으면 저자가 자유와 안전을 어떤 저울로 다는지가 드러나고, 그 논증을 평가하는 일은 네 몫이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그림 경고 법은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개인과 거대 기업 사이를 공정하게 만드는 법으로 옹호해야 한다(92쪽 ¶6 ~ 93쪽 첫 줄) / 강력한 반론이 없는 한 이란의 예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100쪽 ¶4) / 봉쇄의 효과는 웰빙이라는 궁극의 통화로 계산해야 한다(104쪽 ¶6 ~ 105쪽 ¶1) / 생명 수가 아니라 생명 연수 · 삶의 질(103쪽 ¶5~¶6)
4~5	**밑줄 함축 의미**	so be it / verges on naiveté / level the playing field / the rational beings inside us / unhappy sellers in, say, the housing market as well / dismantling them / obscene / for the real world, not an ideal one / not simply lives / wave it away / Health isn't all that matters / the ultimate currency
6	지칭 추론	he · his · him이 탕위성과 처형된 살인범 사이를 오가는 99쪽 ¶1~¶2 / it(91쪽 ¶2 = 정부 · 그 법) / That(92쪽 ¶2 = 인도 · 중국 같은 큰 시장) / he(99쪽 ¶5 = 마닐라의 판매자 · 100쪽 첫 줄 = 크라빈스키) / they(103쪽 ¶2 = 봉쇄) · them(104쪽 ¶3 = 구한 생명과 잃은 GDP)
7~8	내용 일치·불일치	2012 · 두 법원 · 올리브 갈색(91쪽 ¶1~¶2) / 225년 · 443,000명(91쪽 ¶3) / 15% · 20% · 14개국 · 41% · 2020 · 1억 · 10억(92쪽 ¶2~¶3) / 2009 · 1일 · 100,000 · 21,167 · 12명 · 10%(99쪽 ¶1~¶4) / 2002 · 350명 · 4분의 3 · 4,000분의 1 · 1988 · 4,600달러 · 2006(99~100쪽) / 40억 · 야쿠셰바 · 7억 3,600만 · 9,700만 · 192 · 16억 · 2,400만 · 25,000파운드 · 20%(103~105쪽)
9~10	**어법**	that + 동사원형(requirement that · requires that · Requiring that) · not only A but also B · 분사 보어 문두 도치(Underlying ... is) · either A or B · as are 도치 · come close to -ing · Whether to V 주어 · permit + O + to be p.p. · with + O + -ing · broader than necessary · limit A to B · could have p.p. vs would have p.p. · find oneself p.p. · reject · defend A as B · make no pretense of -ing · 완료 동명사(having arranged · having sold) · 계속적 which(앞 절) · though + 형용사 · so that + could · should have been p.p. · prevent A from -ing · enough + 명사 + so that · Not + 동명사 주어 · mean -ing · that of · think of A as B · since + 현재완료 · in the absence of · sufficiently ~ to V · in an effort to V · to name only three · nothing but · 형용사 + as + S + V · ought not + 원형 · 과거완료진행(Until 2020) · 의문사절 주어 + 단수 동사 · be projected to have p.p. · without which · require + -ing · fewer + 복수 명사 · What절 주어 + is + 원형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strike down ↔ uphold · contrasting ↔ similar · explicit ↔ implicit · unique ↔ ordinary · unconscious ↔ conscious · deliberative ↔ impulsive · coercive ↔ voluntary · illegal ↔ legal(99쪽 ¶4) · dubious ↔ sound · altruistic ↔ selfish · strict ↔ lax · compelling ↔ weak · substantial ↔ negligible · contentious ↔ uncontroversial · rigorous ↔ loose · narrow ↔ broad · dire ↔ mild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2	빈칸 추론	may not permit it to be sold only in packs(92쪽 ¶1) / comes close to killing the same number of people(91쪽 ¶5 ~ 92쪽 첫 줄) / level the playing field(93쪽 첫 줄) / without giving rise to ethical problems(100쪽 ¶3) / sufficiently compelling to justify the current prohibition(100쪽 ¶4) / years of life lost or saved, not simply lives(103쪽 ¶5) / a single unit of value(104쪽 ¶3)
13	문장 삽입	크라빈스키의 계산(99쪽 ¶6 ~ 100쪽 첫 줄): 셰퍼-휴스의 응수 → No doubt we should, but we don't → 이상적인 세계 → 1 in 4,000 → Not donating … 4,000 times · 'obscene' → But most of us
14	무관한 문장	봉쇄의 혜택과 비용을 다룬 대목(103쪽 ¶1~¶3: 40억 명 · 혜택 · 비용 · 야쿠셰바)에 다른 편의 사실(미국 법원이 225년 된 글을 해석해 균형을 정한다, 91쪽 ¶3)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엇갈린 두 판결(91쪽 ¶1~¶2): 2012년 두 법원 → 미국 = 표현의 자유 · 사실 경고는 되고 그림은 안 됨 → In Australia, 보상 없는 수용인가 → 최고법원 = 아니다
16	요약문 완성	생명 수만 센 야쿠셰바 연구의 한계(103쪽 ¶4~¶6): 생명 연수(90세 vs 20 · 30 · 40세) + 삶의 질(실업 → 삶의 만족)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숫자 · 인물 · 나라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2012(두 판결) · 225년 · 443,000명 · 15% · 20% · 14개국 · 41% · 2020(WTO 상소 기각) · 1억 · 10억 / 2009(로젠바움) · 2년 반 · 1일 · 100,000 · 2018 · 21,167 · 12명 · 10% · 2002 · 350명 · 4분의 3 · 4,000분의 1 · 1988 · 2017 · 4,600달러 · 2006 / 40억 · 913,762~2,046,322 · 84,000~514,800 · 398,962~1,962,322 · 7억 3,600만 · 9,700만 · 192 · 16억 · 2,400만 · 25,000파운드(30,000달러) · 20%. 인물도 많다(밀 · 로젠바움 · 탕위성 · 셰퍼-휴스 · 크라빈스키 · 야쿠셰바 · 포어 · 플랜트). 2020은 네 번 나오고(WTO 상소 기각 · 봉쇄 · 야쿠셰바 연구 · 극빈 증가), 20%도 두 번 나온다(미국인 흡연율 · 실업이 줄이는 삶의 만족).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struck down ↔ upheld, images ↔ factually accurate warnings, twentieth ↔ twenty-first century, illegal ↔ legal, one day ↔ two and a half years, lives ↔ years of life, projected ↔ confirmed). '~했을 수도'(could have · could result in) · '~라고 할 수 있다'(arguably) · '분명해 보인다'(it seems clear) · '예상되었다'(were projected) · '~라고 주장하며'(alleging)를 사실로 바꾼 선지, 밀 · 셰퍼-휴스 · 크라빈스키 · 이란 신장 전문의 연구의 견해를 저자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Public Health versus Private Freedom · Kidneys for Sale? · The Lockdowns」 (91~93 · 99~100 · 103~105쪽)

논증형 세 편. ① 사례(2012년 엇갈린 두 판결) → 쟁점(공중 보건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은 누가 정하나) → 담배는 다르다 → WTO 제소 → 반론의 틀(밀의 원칙) → 저자의 답(기회균등 입법). ② 사례(로젠바움 · 탕위성) → 쟁점(장기 판매가 범죄여야 하나) → 반론(착취) → 이상 vs 현실 → 이란 → 저자의 결론. ③ 물음(봉쇄는 정당했나) → 혜택(야쿠셰바) → 더 나은 평가(생명 연수 · 삶의 질 · 극빈층) → 비용 → 공통 단위 → 저자들의 답(웰빙). 핵심 축은 **개인의 자유 vs 공중 보건**, **금지 vs 규제된 시장**, **생명의 수 vs 웰빙**.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91 ¶1	사례	2012년 엇갈린 판결 / 미국의 한 항소법원 = 식품의약국의 그림 경고 요건 무효 · 오스트레일리아 최고법원 = 경고 + 큰 그림 + 민무늬 담뱃갑(작은 일반 글씨 · 로고 없음 · 칙칙한 올리브 갈색) 법 지지
91 ¶2	두 근거	미국 = 표현의 자유 · 사실 경고는 되지만 그림은 안 됨(의견이 갈린 판결의 다수) / 오스트레일리아 = 보상 없는 수용인가 → 아니다 · 아직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겁먹고 물러설 것(저자의 짐작, one would think)
91 ¶3	쟁점	공중 보건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은 누가 정하나 / 미국 = 법원이 225년 된 글을 해석 · 443,000명이 죽어도 so be it / 오스트레일리아 = 선출된 정부의 권리 존중
91 ¶4~92 ¶1	담배는 다르다	위험한 제품 금지에는 합의 / 담배 = 교통사고 · 말라리아 · 에이즈를 합친 것보다 많이 죽임 · 중독성 · 치료비는 모두가 / 전면 금지는 또 다른 문제 · 판매 금지는 되는데 그림 담뱃갑은 안 된다는 주장은 이상함
92 ¶2~¶3	WTO	인도 · 중국 같은 큰 시장 · 15% · 20% vs 14개국 남성 41% / 담배 생산국 제소 → 패널 기각 → 2020 상소 기각 · 세계보건기구 '큰 승리' · 20세기 1억 · 21세기 최대 10억
92 ¶4~¶5	반론 · 반박	밀의 원칙 = 강제력은 남에 대한 해를 막는 데만 · 경고는 되고 판매 금지는 안 됨 / 저자 = 개인이 자기 이익의 최선의 판단자라는 가정은 순진함에 가까움 · 광고가 무의식적 욕구에 호소
92 ¶6~93 첫 줄	저자의 결론	그림 = 무의식에 대한 호소를 상쇄 · 숙고하는 결정 · 금연 결심 / 자유 제한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장 · 우리 안의 이성적 존재를 위한 기회균등 입법
99 ¶1~¶2	사례	2009 로젠바움(신장 3개 판매 알선 · 징역 2년 반 · 2년 넘게 복역) / 1년 전 싱가포르 탕위성(1일 구금) · 처형된 살인범의 신장 = 합법이지만 더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음
99 ¶3~¶4	쟁점	장기 판매가 범죄여야 하나 / 미국 해마다 100,000명 희망 · 2018년 21,167명 성공 · 하루 12명 사망 · 세계 수백만 / 거의 모든 곳에서 불법인데도 세계보건기구 추정 약 10%는 암시장
99 ¶5~¶6	반론	가난한 사람을 착취 · 2002 인도인 350명 · 6년 뒤 4분의 3이 빚 · 후회 / 『Taboo』 마닐라의 택시 · 주택 시장에도 불행한 판매자 / 셰퍼-휴스 → 저자: 그래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
99 ¶7~100 첫 줄	이상 vs 현실	이상적 세계 = 극빈층 없음 · 이타적 기증자 충분 / 크라빈스키 = 4,000분의 1 · 4,000배 'obscene' / 그러나 대부분은 두 신장 · 필요와 빈곤은 계속
100 ¶1~¶3	물음 · 이란	현실 세계를 위한 정책 · 판매자가 충분히 아는가 · 수요 · 결과 / 1988년부터 정부 재정의 규제 제도 · 환자 자선 단체 · 2017년 4,600달러 · 판매자만 이익 / 2006 연구 · 2006 BBC
100 ¶4	저자의 결론	생명을 구한다면(분명해 보임) 강력한 반론이 없는 한 이란의 예를 진지하게 고려 · 지금의 금지를 정당화할 만큼 반론이 설득력 있는지 분명하지 않음
103 ¶1~¶3	물음 · 혜택	2020 약 40억 명(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 봉쇄는 정당했나 / 혜택 vs 비용(고립 · 실업 · 파산) / 야쿠셰바 = 913,762~2,046,322명 · 부수 손실 84,000~514,800 · 순 398,962~1,962,322
103 ¶4~¶7	더 나은 평가	생명 수만 셈 → 생명 연수(90세 vs 20 · 30 · 40세) · 삶의 질(실업 → 삶의 만족) / 극빈 국가 정부 = 봉쇄를 피할 강한 이유 · 부국의 불황이 다른 나라 사람의 생존을 위협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04 ¶1~¶3	비용과 단위	2019 극빈 7억 3,600만(10% 미만) · 2020 9,700만 추가(세계은행) / 192개국 · 16억 명 · 2,400만 명 · 조혼 · 아동 노동 / 정확한 추정 불가 · 공통 단위가 필요
104 ¶4~105 ¶1	저자들의 답	질 보정 수명 1년 = 25,000파운드 · 엄밀한 시도 없음 / 그것도 좁음 → 웰빙(행복 · 삶의 만족 보고) · 실업 = 삶의 만족 20% 감소 / 판단은 아직 · 경험 연구자가 웰빙으로 계산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담뱃갑 그림 경고	표현의 자유 – 사실에 맞는 경고는 되지만 그림까지는 안 됨(미국 법원의 다수)	경고 · 큰 그림 · 민무늬 담뱃갑 법을 지지한 오스트레일리아 최고법원 – 저자도 이런 법을 옹호
균형을 정하는 주체	법원이 225년 된 글을 해석해 정함(미국) – 443,000명이 죽어도 so be it	저자가 짚는 대비 – 균형을 정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권리를 존중(오스트레일리아 법원)
금지와 경고	전면 금지는 또 다른 문제다 – 조직범죄에 새 수입원이 생긴다(저자도 따로 둠)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면 그림 담뱃갑으로만 팔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이상하다(저자)
밀의 원칙	국가의 강제력은 남에 대한 해를 막는 데만 · 경고는 받아들이되 판매 금지는 거부했을 것 – 밀에 대한 저자의 추론	개인이 자기 이익의 최선의 판단자라는 가정은 오늘날 순진함에 가깝다 · 광고가 무의식을 움직인다(저자)
그림 경고 법의 성격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거부하는 쪽	개인과 거대 기업 사이의 공정한 경쟁 · 우리 안의 이성적 존재를 위한 기회균등 입법(저자)
장기 거래와 착취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다(가장 흔한 반론) – 2002 인도 연구 · 4분의 3이 빚 · 후회	저자가 짚는 문제 – 택시를 사고 웃던 마닐라의 판매자를 막았어야 했나 · 주택 시장에도 불행한 판매자는 있다
빈곤층을 돕는 길	해체하는 것보다 나은 도움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셰퍼-휴스)	틀림없이 그래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 ·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수억 명이 극빈(저자)
이상 vs 현실	이상적 세계 – 극빈층 없음 · 이타적 기증자 충분(크라빈스키처럼 기증하는 사람이 많은 세계)	현실 세계를 위한 정책 – 대부분은 두 신장을 그대로 갖고 있고 필요와 빈곤은 계속(저자)
신장 시장 정책	지금의 금지 – 장기를 사고파는 일은 거의 모든 곳에서 불법이다	이란식 규제 시장을 진지하게 고려 · 가능하면 개선 · 반론이 금지를 정당화할 만큼 설득력 있는지 분명하지 않음(저자)
봉쇄 평가의 기준	구하거나 잃은 생명의 수만 셈(야쿠셰바 연구) – 논쟁적 윤리 문제를 피하려고	생명 연수 · 삶의 질 · 극빈층과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까지(저자들)
공통 단위	질 보정 수명 – 건강만 따지므로 너무 좁음	웰빙(행복 · 삶의 만족 보고) = 궁극의 통화 · 계산은 경험 연구자의 몫(저자들)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Michael Plant	「Were the Lockdowns Justified?」의 공저자(원서 표기 with Michael Plant)
2012 · 두 판결	미국의 한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 식품의약국의 그림 경고 요건 **무효**(struck down) / 오스트레일리아 최고법원(High Court) = 경고 · 큰 그림 · 민무늬 담뱃갑(작은 일반 글씨 · 로고 없음 · 칙칙한 **올리브 갈색**) 법 **지지**(upheld)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두 판결의 근거	미국 = 표현의 자유 · 사실에 맞는 경고는 되지만 그림은 안 됨(의견이 갈린 판결의 **다수**) / 오스트레일리아 = **보상 없는 수용**(상표의 지적 재산)인가 → 아니다 · 담뱃갑이 겁을 줄 것은 저자의 짐작(one would think)
225 · 443,000	미국 법원 = **225년** 된 글을 해석 · 판결 당시 추정 해마다 미국인 **443,000명** 사망 / 오스트레일리아는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음
15% · 20% · 41%	오스트레일리아인 약 **15%** · 미국인 약 **20%** 흡연 / 『The Lancet』 조사 **14개** 저 · 중소득 국가 남성 평균 **41%** · 담배를 시작하는 여성 증가
WTO · 세계보건기구	담배 생산국의 제소(필요 이상으로 넓고 상표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주장**) → 분쟁 패널 기각 → **2020년** 상소 기구(the Appellate) 기각 · 세계보건기구 = "큰 승리" / 흡연 사망 추정: 20세기 약 **1억** 명 · 21세기 최대 **10억** 명(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John Stuart Mill	국가의 강제력을 남에 대한 해를 막는 행위에 한정 · 경고와 병든 폐 사진은 받아들였을 **수도**(could have) · 판매 금지는 거부했을 것(would have) — 저자의 추론
Levy-Izhak Rosenbaum	**2009** · 브루클린 사업가 · 신장 **3개** 판매 알선 유죄 인정 · 징역 **2년 반** · 2년 넘게 복역
Tang Wee Sung	그 **1년 전** 싱가포르 · 소매업 거물 · 불법 구매에 동의 → **1일** 구금 · 뒤에 처형된 살인범의 신장(합법이지만 더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음**, arguably)
100,000 · 21,167 · 10%	미국 해마다 장기 이식 희망 **100,000명** · **2018년** 성공 **21,167명** · 하루 **12명** 대기 중 사망 · 세계 수백만 / 거의 모든 곳에서 불법 · 이식 신장의 약 **10%**가 암시장(세계보건기구 추정)
2002 · 350	신장을 불법으로 판 인도인 **350명** 연구 · 대부분 빚을 갚으려고 팖 · **6년** 뒤 **4분의 3**이 여전히 빚을 지고 후회
Taboo	신체 부위 판매를 다룬 TV 프로그램 · **마닐라** 빈민가 주민이 가족 수입을 위한 오토바이 삼륜 택시를 사려고 판매 · 불행한 판매자도 보여 줌
Nancy Scheper-Hughes	**Organ Watch** 설립자 · "어쩌면(Perhaps) 가난한 사람들을 해체하는 것보다 나은 도움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Zell Kravinsky	낯선 이에게 신장을 준 미국인 · 기증으로 죽을 위험 **4,000분의 1** · 기증하지 않음 = 자기 생명을 낯선 이의 **4,000배**로 매김 · 'obscene'(그의 표현)
Iran	**1988년**부터 정부 재정 · 규제된 신장 구매 제도 · 환자 자선 단체가 주선 · **2017년** 미화 **4,600달러** 상당 · 판매자만 이익 / **2006** 이란 신장 전문의 연구 = 대기 명단 해소 · 윤리 문제 없음(연구의 결론) / **2006** BBC = 나이 기준 탈락 · 심리학자 방문
40억	**2020년** 한때 약 **40억** 명(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정부가 명령한 봉쇄 아래
Olga Yakusheva	**미시간 대학** 경제학자 · 2020년 미국 · 구한 생명 913,762~2,046,322명 · 간접 부수 손실 84,000~514,800명(could) · 순 398,962~1,962,322명 · 생명 수**만** 셈
극빈 · 세계은행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 · **2019년 7억 3,600만** 명(세계 인구 10% 미만)으로 최저 / 세계은행 추정: 2020년 팬데믹으로 **9,700만** 명 추가
Henrietta Fore	유엔아동기금 사무총장 · **192**개국 휴교 · **16억** 명 대면 학습 못 함 / 저자들의 서술: 최소 **2,400만** 명 영구 이탈 '예상' · 많은 소녀에게 조혼 '가능성' · 저소득국 아동 노동 증가
질 보정 수명 · 20%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 약 **25,000파운드**(30,000달러)로 1년 / 웰빙 = 행복 · 삶의 만족 자기 보고(World Happiness Report 학자들이 개척) / 실업 = 삶의 만족 **20%** 감소(추정)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Public Health versus Private Freedom · Kidneys for Sale? · The Lockdowns (원서 PDF 91~93 · 99~100 · 103~105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4-1 사례와 쟁점 – 엇갈린 두 판결, 담배는 다르다 91쪽 ¶1 ~ 92쪽 ¶1

원문 위치 원서 91쪽 ¶1 ~ 92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1쪽 ¶1	In 2012, in contrasting decisions, a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struck down	연도 · 기관 – 서답형 1순위
▲	91쪽 ¶1	a … requirement that cigarettes be sold in packs with graphic health warnings	요구의 명사 + that + 동사원형
▲	91쪽 ¶1	requires not only health warnings … but also that the remainder of the packs themselves be plain	not only A but also B · 동사원형 be
★	91쪽 ¶1	no logos, and no color other than a drab olive-brown	내용 일치 – 민무늬 담뱃갑의 조건
★	91쪽 ¶2 둘째 문장	the majority, in a split decision, said that it could not go as far as requiring images	경고는 되고 그림은 안 됨 – 일치 후보
◆	91쪽 ¶2 넷째 문장	The High Court ruled that it did not	지칭: it = 그 법 · did = 대동사
▲	91쪽 ¶2 넷째 문장	would, one would think, be enough to scare away anyone who is not already addicted	삽입절 · enough to V
▲	91쪽 ¶3 첫 문장	Underlying these differences … is the larger issue	분사 보어 문두 → 도치
★	91쪽 ¶3 둘째~셋째 문장	interpreting a 225-year-old text … 443,000 Americans every year	숫자 – 서답형 후보
◆	91쪽 ¶3 셋째 문장	so be it	밑줄 의미: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
●	91쪽 ¶3 넷째 문장	is not given explicit constitutional protection	어휘 반전: explicit ↔ implicit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1쪽 ¶4 둘째 문장	are either banned or permitted only in limited quantities, as are children's toys	either A or B · as + 대동사 + 주어
★	91쪽 ¶5 ~ 92쪽 첫 줄	cigarettes are unique, because no other product, legal or illegal, comes close to killing	요지 · 빈칸 후보
★	92쪽 ¶1 첫 문장	doing so would no doubt create a new revenue source for organized crime	전면 금지는 또 다른 문제
★	92쪽 ¶1 둘째 문장	may, in principle, prohibit the sale of a product, but may not permit it to be sold only in packs	빈칸 1순위 — 저자의 논리

내용

2012년 두 나라의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한 항소법원은 담배를 끔찍한 그림이 담긴 건강 경고와 함께 팔게 한 미국 식품의약국의 요건을 무효로 했고, 오스트레일리아 최고법원은 건강 경고와 흡연이 몸에 입히는 손상을 보여 주는 큰 그림은 물론 담뱃갑의 나머지 부분도 아무 무늬 없이 만들게 한 법을 지지했다. 상표명은 작은 일반 글씨로만 쓰고, 로고를 넣지 않으며, 칙칙한 올리브 갈색 말고는 어떤 색도 쓰지 못하게 한 법이다. 미국의 판결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 보호에 근거했다. 법원은 정부가 사실에 맞는 건강 경고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인정했지만, 의견이 갈린 판결에서 다수는 그림을 요구하는 데까지 갈 수는 없다고 보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쟁점은 그 법이 보상 없는 수용, 곧 담배 회사가 상표에 대해 가진 지적 재산을 보상 없이 빼앗는 일에 해당하는지였다. 최고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고, 저자는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의 담뱃갑이면 아직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이 차이 밑에는 더 큰 쟁점이 있다. 공중 보건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알맞은 균형을 누가 정하는가. 미국에서는 법원이 정하는데, 사실상 225년 된 글을 해석해서 정한다. 그 때문에 정부가 담배로 인한 사망자(판결 당시 해마다 미국인 443,000명으로 추정)를 줄일 수단을 잃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법원이 자유와 공중 보건 사이의 균형을 정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권리를 존중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정부가 적어도 일부 위험한 제품의 판매는 금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폭넓은 합의가 있다. 수많은 식품 첨가물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양만 허용되고, 삼키면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을 칠한 아이들 장난감도 그렇다. 많은 나라가 안전 덮개 없는 전기톱처럼 안전하지 않은 도구의 판매를 금지한다. 여러 위험한 제품을 금지할 근거가 있지만 담배는 특이하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다른 어떤 제품도 담배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와 말라리아, 에이즈를 합친 것보다 많다. 담배는 중독성도 매우 강하다. 게다가 의료비를 모두가 내는 곳이라면(빈곤층과 노인을 위한 공공 의료 제도가 있는 미국도 포함해) 담배가 일으킨 병을 치료하는 비용을 모두가 진다. 담배를 아예 금지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조직범죄에 새 수입원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국가가 원칙적으로 어떤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는 있으면서, 그 제품이 사람의 건강에 입히는 손상을 끔찍한 그림으로 보여 주는 담뱃갑에 담아서만 팔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한다.

어법

- a ... requirement that cigarettes be sold in packs with graphic health warnings : 요구 · 주장의 명사(requirement) 뒤 동격 that절에는 동사원형(be)을 쓴다(should be의 should 생략). 주어가 복수 cigarettes라 are로 착각하기 쉬운 자리. be sold = 수동.
- a law that requires not only health warnings and large images of the physical damage that smoking causes, but also that the remainder of the packs themselves be plain :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는 명사구(health

warnings and large images), B는 that절 — 둘 다 requires의 목적어. require that + 동사원형 be. the damage (that) smoking causes = 목적격 관계대명사. themselves = 강조(담뱃갑 그 자체).

- **Australian cigarette packaging today would, one would think, be enough to scare away anyone who is not already addicted to the product** : one would think = 삽입절(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 저자의 짐작). would와 원형 be 사이에 삽입. be enough to V = ~하기에 충분하다. scare away = 겁을 주어 쫓아 버리다.
- **Underlying these differences in cigarette packs in the two countries, however, is the larger issue** : 분사 보어(Underlying ~)가 문장 앞으로 나가 동사(is) + 주어(the larger issue) 순서로 도치. 원래 어순 = The larger issue is underlying these differences. 동사는 뒤의 주어 issue(단수)에 맞춘다.
- **If that deprives the government of techniques that might reduce the death toll from cigarettes—estimated, at the time of the decision, at 443,000 Americans every year—so be it** : deprive A of B = A에게서 B를 빼앗다. 대시 사이 estimated at = 과거분사구가 the death toll을 보충(~로 추정되는). so be it = 동사원형을 쓰는 관용 표현(그렇다면 할 수 없다).
- **Countless food additives are either banned or permitted only in limited quantities, as are children's toys painted with substances that could be harmful if ingested** : either A or B = 과거분사 두 개(banned · permitted)의 병렬. as + 대동사 + 주어 도치 = 아이들 장난감도 그렇듯이(as children's toys are). painted = 과거분사 후치. if ingested = if they are ingested.
- **cigarettes are unique, because no other product, legal or illegal, comes close to killing the same number of people** : no other + 단수 명사(product) → comes. legal or illegal = 삽입(합법이든 불법이든). come close to + 동명사 = ~하는 데 근접하다(to는 전치사 — to kill로 바꾸면 오답).
- **It seems odd, however, to hold that the state may, in principle, prohibit the sale of a product, but may not permit it to be sold only in packs that carry graphic images of the damage it causes to human health** : 가주어 It + 진주어 to hold(~라고 주장하는 것). may prohibit / may not permit가 but으로 병렬. permit + O + to V의 to V가 수동(to be sold). the damage (that) it causes to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cause damage to에서 온 구조.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trasting	대조적인, 엇갈린	opposing	similar
strike down	무효로 하다	overturn	uphold
graphic	생생한, 끔찍한	vivid	—
drab	칙칙한	dull	bright
split decision	의견이 갈린 판결	divided ruling	unanimous decision
uncompensated	보상 없는	unpaid	compensated
expropriation	(재산의) 수용	seizure	—
addicted	중독된	hooked	—
explicit	명시적인	express	implicit
ingest	삼키다, 섭취하다	swallow	—
unique	특이한, 유일한	exceptional	ordinary
altogether	완전히, 아예	entirely	partly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in theory	in practice

내용 일치 2012년 = 엇갈린 두 판결 · 미국의 '한' 항소법원 = 식품의약국의 그림 경고 요건 무효 · 오스트레일리아 최고법원 = 경고 + 큰 그림 + 민무늬 담뱃갑(작은 일반 글씨 · 로고 없음 · 올리브 갈색) 지지 · 미국 = 표현의 자유 · 사실에 맞는 경고는 가능, 그림은 불가 = '다수'(의견이 갈린 판결) · 오스트레일리아의 쟁점 = 보상 없는 수용 → 아니다 · 담뱃갑이 겁을 줄 것 = 저자의 짐작(one would think) · 미국 = 법원이 225년 된 글을 해석 · 443,000명 = 판결 당시의 추정 · 오스트레일리아 =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음 · 담배 = 교통사고 · 말라리아 · 에이즈를 합친 것보다 많이 죽임 · 전면 금지 = 또 다른 문제(조직범죄의 새 수입원). **밑줄 의미** so be it = 사망자를 줄일 수단을 잃더라도 225년 된 글의 해석이 우선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미국 쪽 결과를 저자가 정리한 말 / cigarettes are unique = 사망자 수 · 중독성 · 모두가 지는 치료비가 겹쳐 다른 위험한 제품과 다르다 / It seems odd = 더 큰 조치(판매 금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 더 작은 조치(그림 담뱃갑)를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저자의 논리 / 지칭: 91쪽 ¶2 it could not go = 정부 · it did not = 그 법.

> **한 줄 요약** 2012년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서 출발한 저자는 공중 보건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누가 정하느냐는 쟁점을 짚고,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국가가 그림 담뱃갑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한다.

4-2 반론과 저자의 답 – WTO 제소, 밀의 원칙, 기회균등 입법 92쪽 ¶2 ~ 93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92쪽 ¶2 ~ 93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2쪽 ¶2 첫 문장	After losing in Australian courts, the tobacco industry feared that the law could be copied	전치사 After + 동명사 · 조동사 수동
◆	92쪽 ¶2 둘째 문장	That is, after all, where such legislation is most needed.	지칭: That = 인도 · 중국 같은 큰 시장
★	92쪽 ¶2 셋째 문장	Only about 15 percent of Australians and 20 percent of Americans smoke, but … 41 percent of men	숫자 – 서답형 1순위
▲	92쪽 ¶2 셋째 문장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women taking up the habit	with + O + -ing
★	92쪽 ¶2 넷째 문장	alleging that the legislation was broader than necessary	담배 생산국의 주장 – 단정 금지
★	92쪽 ¶3 둘째 문장	in 2020, the Appellate dismissed the appeals	연도 – 내용 일치
★	92쪽 ¶3 넷째 문장	about 100 million people died … up to one billion people in the twenty-first century	숫자 바꿔치기 주의(20세기 vs 21세기)
▲	92쪽 ¶4 첫 문장	limiting the state's coercive power to acts that prevent harm to others	limit A to B
▲	92쪽 ¶4 둘째 문장	Mill could have accepted … but he would have rejected a ban	could have p.p. vs would have p.p.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2쪽 ¶5 첫 문장	an idea that today verges on naiveté	밑줄 의미: 오늘날 순진한 가정
●	92쪽 ¶5 셋째 문장	by appealing to our unconscious desires	어휘 반전: unconscious ↔ conscious
▲	92쪽 ¶5 넷째 문장	we find ourselves drawn to a product without quite knowing why	find + 재귀대명사 + p.p.
▲	92쪽 ¶6	thereby facilitating more deliberative decision-making and making it easier for people to stick to	분사구문 병렬 · 가목적어 it
◆	93쪽 첫 줄 첫 문장	to level the playing field between individuals and giant corporations	밑줄 의미 · 요지
★	93쪽 첫 줄 둘째 문장	equal-opportunity legislation for the rational beings inside us	저자의 결론 · 주장 · 제목

내용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에서 진 담배 업계는 그 법이 인도나 중국처럼 훨씬 큰 시장에서 그대로 따라 만들어질까 걱정했다. 저자는 어쨌든 그런 법이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인은 약 15%, 미국인은 약 20%만 담배를 피우지만, 『The Lancet』에 실린 조사가 다룬 14개 저 · 중소득 국가에서는 남성의 평균 41%가 담배를 피웠고, 담배를 시작하는 여성도 늘고 있었다. 그런 시장으로 민무늬 포장 법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담배 생산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그 법이 공중 보건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도보다 넓고, 담뱃갑에 찍는 담배 회사의 상표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WTO 분쟁 패널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에 맞선 이 제소를 기각했다. 제소한 나라 가운데 두 나라가 상소했지만, 2020년 상소 기구가 상소를 기각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결정을 "공중 보건과 담배 규제의 큰 승리"라고 반겼다. 세계보건기구는 20세기에 약 1억 명이 흡연으로 죽었고,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1세기에는 흡연으로 최대 10억 명이 죽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고 어디까지 나설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흔히 존 스튜어트 밀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국가의 강제력을 남에게 해가 가는 것을 막는 행위에 한정하자는 원칙이다. 저자는 밀이라면, 그것이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선택을 이해하도록 돕는 한 담뱃갑의 건강 경고, 나아가 병든 폐의 끔찍한 사진까지도 받아들였을 수 있지만, 담배 제품의 판매 금지는 거부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밀의 개인의 자유 옹호는 개인이 자기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하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가정에 기대고 있고, 저자는 이 생각이 오늘날 순진함에 가깝다고 말한다. 현대 광고 기법의 발달이 밀의 시대와 우리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다. 기업들은 지위와 매력, 사회적 인정을 바라는 우리의 무의식적 욕구에 호소해 건강에 나쁜 제품을 파는 법을 익혔다. 그 결과 우리는 왜인지도 잘 모른 채 어떤 제품에 끌려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을 최대한 중독성 있게 만들도록 그 성질을 조작하는 법도 익혔다. 흡연이 일으키는 손상을 보여 주는 끔찍한 그림은 무의식에 대한 이런 호소의 힘을 상쇄할 수 있고, 그로써 더 숙고하는 결정을 돕고 사람들이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지키기 쉽게 만든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런 법을 자유를 제한한다며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론과 성찰 능력에 호소하는 척조차 하지 않는 거대 기업과 개인 사이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옹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담배를 건강 경고와 끔찍한 그림이 담긴 민무늬 담뱃갑에 담아서만 팔게 하는 것은 우리 안의 이성적 존재를 위한 기회균등 입법이라는 것이다.

어법

- **That is, after all, where such legislation is most needed** : That = 앞 문장의 인도 · 중국 같은 큰 시장. where절 = 선행사 없이 보어로 쓰인 관계부사절(~한 곳). after all = 삽입(어쨌든, 결국). most needed = 수동 + 최상의 정도.

- **an average of 41 percent of men smoked,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women taking up the habit** : an average of = 평균. 41 percent of + 복수 명사 → 동사는 복수 취급. with + O + -ing = 동시 상황(여성들이 ~하면서). an increasing number of + 복수 명사 = 점점 많은 ~(the number of와 구별).
- **alleging that the legislation was broader than necessary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at it unjustifiably interfered with tobacco company trademarks on packaging** : alleging = 분사구문(~라고 주장하며 — 사실 단정 아님). alleging의 목적어 that절 두 개가 and로 병렬(두 번째 that을 되풀이해 병렬을 분명히 함). broader than necessary = broader than it was necessary(생략 비교). interfere with = ~을 침해하다.
- **Mill could have accepted requirements for health warnings on cigarette packs, and even graphic photos of diseased lungs, if that helps people to understand the choice that they are making; but he would have rejected a ban on the sale of tobacco products** : could have p.p. = ~했을 수도 있다(가능성), would have p.p. = ~했을 것이다(더 확실한 추측) — 둘 다 밀이 실제로 한 말이 아니라 저자의 추론. help + O + to V. the choice that they are making =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 **Mill's defense of individual liberty, however, assumes that individuals are the best judges and guardians of their own interests—an idea that today verges on naiveté** : 주어 Mill's defense(단수) → assumes. 대시 뒤 an idea = 앞 that절 내용과 동격인 명사구. that today verges on = 주격 관계대명사 that + 부사 today + 동사. verge on = ~에 가깝다.
- **As a result, we find ourselves drawn to a product without quite knowing why** : find + 재귀대명사 + p.p. = 어느새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다(drawn = 끌려 있는). without + 동명사. quite = '완전히'의 뜻으로 부정과 함께 쓰여 '잘 알지도 못한 채'.
- **Graphic images ... can counterbalance the power of these appeals to the unconscious, thereby facilitating more deliberative decision-making and making it easier for people to stick to a resolution to quit smoking** : thereby + 분사구문 = 그로써 ~하다(결과). facilitating과 making이 and로 병렬. make + it(가목적어) + easier + for 의미상 주어 + to V(진목적어). stick to + 명사 = ~을 지키다. a resolution to quit = 결심의 내용을 밝히는 to부정사.
- **Instead of rejecting such laws as restricting freedom, therefore, we should defend them as ways to level the playing field between individuals and giant corporations that make no pretense of appealing to our capacities for reasoning and reflection** : reject A as B · defend A as B = A를 B라고 보아 거부하다 · 옹호하다(as 뒤 동명사 restricting, 명사 ways). instead of + 동명사.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giant corporations → 복수 make). make no pretense of -ing = ~하는 척도 하지 않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gislation	법률, 입법	law	—
allege	(증거 없이) 주장하다	claim	—
unjustifiably	부당하게	unfairly	justifiably
dismiss	기각하다	reject	accept
hail	환영하다, 칭송하다	acclaim	condemn
coercive	강압적인	forcible	voluntary
guardian	지키는 사람, 보호자	protector	—
verge on	~에 가깝다	border on	—
naiveté	순진함	innocence	sophistication
manipulate	조작하다	alter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unterbalance	상쇄하다	offset	—
deliberative	숙고하는	reflective	impulsive
resolution	결심	determination	—
level the playing field	공정하게 겨루게 하다	even the odds	—

내용 일치 담배 업계의 걱정 = 인도 · 중국 같은 더 큰 시장이 따라 할까 · 그곳이 가장 필요한 곳(저자) · 흡연율 = 오스트레일리아인 약 15% · 미국인 약 20% / 『The Lancet』 14개 저 · 중소득 국가 남성 평균 41% · 여성 증가 · WTO 제소 = 담배 생산국의 '주장'(alleging) · 분쟁 패널 기각 → 두 나라 상소 → 2020년 기각 · 세계보건기구 = '큰 승리' · 20세기 약 1억 명 / 지금 추세면 21세기 최대 10억 명(추정) · 밀 = 경고 · 사진은 받아들였을 수도(could have) · 판매 금지는 거부했을 것(would have) — 밀의 실제 발언이 아니라 저자의 추론 · 광고 = 지위 · 매력 · 사회적 인정을 바라는 무의식적 욕구 · 담배 제조사 = 최대한 중독되게 조작. **밑줄 의미** verges on naiveté = 광고가 무의식을 움직이는 오늘날, 개인이 자기 이익을 가장 잘 안다는 밀의 가정은 순진하다 / level the playing field = 이성에 호소하는 척조차 하지 않는 거대 기업과 개인이 공정하게 겨루게 한다 / equal-opportunity legislation for the rational beings inside us = 그림 경고가 우리 안의 이성에도 광고만큼의 기회를 준다는 저자의 결론 / 지칭: 92쪽 ¶2 That = 인도 · 중국 같은 큰 시장 · 92쪽 ¶4 he = 밀 · 92쪽 ¶6 these appeals = 무의식에 호소하는 광고.

> **한 줄 요약** WTO 제소가 기각된 과정을 소개한 저자는 밀의 원칙이 개인을 자기 이익의 최선의 판단자로 보는 순진한 가정에 기댄다고 반박하고, 그림 경고와 민무늬 담뱃갑을 거대 기업과 개인 사이를 공정하게 만드는 법으로 옹호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4-3 사례와 반론 — 처벌받은 장기 거래, 모자란 신장, 착취라는 반론 99쪽 ¶1 ~ ¶6

원문 위치 원서 99쪽 ¶1 ~ ¶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9쪽 ¶1 첫 문장	In 2009 Levy-Izhak Rosenbaum, a Brooklyn businessman, pleaded guilty	연도 · 인물 — 서답형 후보
▲	99쪽 ¶1 첫 문장	pleaded guilty to charges of having arranged the sale of three kidneys	완료 동명사 having p.p.
★	99쪽 ¶1 둘째 문장	sentenced to two and a half years in prison, and served more than two years	숫자 — 내용 일치
★	99쪽 ¶2 첫 문장	Tang Wee Sung was sentenced to one day in jail for agreeing to buy a kidney illegally	인물 바꿔치기 주의
◆	99쪽 ¶2 둘째 문장	He subsequently received a kidney from the body of an executed murderer	지칭: He = 탕위성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9쪽 ¶2 둘째 문장	—which, though legal, is arguably more ethically dubious	계속적 which · though + 형용사
●	99쪽 ¶2 둘째 문장	arguably more ethically dubious	어휘 반전: dubious ↔ sound · arguably
★	99쪽 ¶3 둘째-셋째 문장	100,000 people seek … only 21,167 were successful. Every day, 12 Americans die	숫자 — 서답형 1순위
●	99쪽 ¶4	buying and selling human organs is illegal almost everywhere	어휘 반전: illegal ↔ legal(11번 후보)
★	99쪽 ¶4	about 10 percent of all kidneys transplanted are bought on the black market	세계보건기구의 추정 — 숫자
★	99쪽 ¶5 둘째-셋째 문장	a 2002 study of 350 Indians … three-quarters of them were still in debt	숫자 — 내용 일치
▲	99쪽 ¶5 셋째 문장	regretted having sold their kidney	regret + 완료 동명사
▲	99쪽 ¶5 넷째 문장	sold his kidney so that he could buy a motorized tricycle taxi	so that + S + could
▲	99쪽 ¶5 여섯째 문장	Should he have been prevented from making that choice?	should have been p.p. · prevent A from -ing
◆	99쪽 ¶5 일곱째 문장	there are unhappy sellers in, say, the housing market as well	밑줄 의미: 후회는 어느 시장에나
◆	99쪽 ¶6 둘째 문장	No doubt we should, but we don't	밑줄 의미 · 대동사 should · don't

내용

2009년 브루클린의 사업가 레비-이츠하크 로젠바움은 신장 세 개의 판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징역 2년 반을 선고받았고, 2년 넘게 복역한 뒤 풀려났다. 그 1년 전 싱가포르에서는 소매업계의 거물 탕위성이 신장을 불법으로 사는 데 동의한 일로 하루 구금형을 받았다. 그는 그 뒤 처형된 살인범의 시신에서 나온 신장을 받았다. 저자는 이 일이 합법이기는 해도 신장을 사는 것보다 윤리적으로 더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집행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장기 판매는 범죄여야 하는가. 미국에서만 해마다 100,000명이 장기 이식을 원하지만, 2018년에 이식에 성공한 사람은 21,167명뿐이었다. 날마다 미국인 12명이 이식을 기다리다 신부전으로 죽는다. 세계적으로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 사람의 장기를 사고파는 일은 거의 모든 곳에서 불법이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에서 이식되는 신장의 약 10%가 암시장에서 사들인 것으로 추정한다. 장기 거래에 대한 가장 흔한 반론은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신장을 불법으로 판 인도인 350명에 관한 2002년의 연구에서 뒷받침을 얻었다. 대부분은 빚을 갚고 싶어서 팔았다고 연구자들에게 말했지만, 6년이 지나서도 4분의 3은 여전히 빚이 있었고 신장을 판 것을 후회했다. 그와 달리 신체 부위 판매를 다룬 텔레비전 프로그램 『Taboo』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 삼륜 택시를 사려고 신장을 판 마닐라의 빈민가 주민을 보여 주었다. 수술 뒤 그는 반짝이는 새 택시를 몰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왔다. 저자는 그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느냐고 묻는다. 그 프로그램은 불행한 판매자들도 보여 주었지만, 저자는 이를테면 주택 시장에도 불행한 판매자는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 판매를 합법화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Organ Watch의 설립자 낸시 셰퍼-휴스는 "어쩌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해체하는 것보다 나은 도움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날카롭게

응수한다. 저자는 틀림없이 그래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한심할 만큼 부족하고, 그 때문에 수억 명이 극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어법

- **Levy-Izhak Rosenbaum, a Brooklyn businessman, pleaded guilty to charges of having arranged the sale of three kidneys** : 동격 삽입(a Brooklyn businessman). plead guilty to = ~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다. of + 완료 동명사 having arranged = 혐의의 행위(알선)가 유죄 인정보다 앞선 일임을 나타낸다.
- **He subsequently received a kidney from the body of an executed murderer—which, though legal, is arguably more ethically dubious than buying a kidney, since it creates an incentive for convicting and executing those accused of capital crimes** : which = 앞 절 전체(처형된 살인범의 신장을 받은 일)를 받는 계속적 용법 → 단수 is. though legal = though it is legal(접속사 뒤 주어 · be동사 생략). arguably = ~라고 할 수 있다(단정 아님). those accused of = ~로 기소된 사람들(과거분사 후치).
- **Every day, 12 Americans die from kidney failure while waiting for a transplant** : die from = (원인으로) 죽다. while waiting = while they are waiting(주어 · be동사 생략). Every day = 부사구(everyday는 형용사 '일상의').
- **Although buying and selling human organs is illegal almost everywher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stimates that worldwide about 10 percent of all kidneys transplanted are bought on the black market** : buying and selling = 사고파는 하나의 행위 → 단수 is. kidneys transplanted = 과거분사 후치(이식되는 신장). 10 percent of + 복수 명사(kidneys) → are. Although = 양보(불법인데도).
- **Most told the researchers that they were motivated by a desire to pay off their debts, but six years later, three-quarters of them were still in debt, and regretted having sold their kidney** : tell + IO + that절. a desire to V = 욕구의 내용을 밝히는 to부정사. three-quarters of them → 복수 were. regret + 완료 동명사 = (과거에) ~한 것을 후회하다(regret to V = ~하게 되어 유감이다와 구별).
- **it showed a slum dweller in Manila who sold his kidney so that he could buy a motorized tricycle taxi to provide income for his family** : who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slum dweller). so that + S + could = ~할 수 있도록(목적). to provide = 택시를 사려는 목적을 덧붙이는 to부정사.
- **Should he have been prevented from making that choice?** : should have p.p.의 수동 = should have been p.p. (~되었어야 했나 — 과거 일에 대한 물음). prevent A from -ing의 수동 = A be prevented from -ing. 수사적 물음으로 반론을 되묻는다.
- **Perhaps we should look for better ways of helping the destitute than dismantling them** : the + 형용사 = ~한 사람들(the destitute = 극빈층). better ways of A than B = 동명사 helping과 dismantling을 비교. 이어지는 No doubt we should, but we don't = should · don't 뒤 look for better ways 생략(대동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lead guilty	유죄를 인정하다	confess	plead not guilty
magnate	거물	tycoon	—
subsequently	그 뒤에	later	previously
dubious	의심스러운	questionable	sound
incentive	유인, 동기	motive	deterrent
kidney failure	신부전	renal failure	—
exploit	착취하다	take advantage of	—
in debt	빚을 진	owing	debt-fre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weller	거주자	resident	—
beam (v.)	활짝 웃다	grin	frown
pointedly	날카롭게, 꼬집어	sharply	vaguely
destitute	극빈한(사람들)	impoverished	wealthy
dismantle	해체하다	take apart	assemble
woefully	한심할 만큼, 턱없이	pitifully	—

내용 일치 2009 = 로젠바움(브루클린 사업가) · 신장 3개 판매 알선 유죄 인정 · 징역 2년 반 · 2년 넘게 복역 · '그 1년 전' 싱가포르 = 탕위성(소매업 거물) · 불법 구매에 '동의'해 1일 구금 · 처형된 살인범의 신장 = 합법이지만 더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음'(arguably — 저자의 판단) · 미국 해마다 100,000명 희망 · 2018년 21,167명 성공 · 하루 12명 대기 중 사망 · 세계 사망 수백만 · 신장의 약 10%가 암시장 = 세계보건기구의 추정 · 2002 인도인 350명 · 대부분 빚 때문 · 6년 뒤 4분의 3이 여전히 빚 · 후회 · 『Taboo』 = 마닐라 · 삼륜 택시 · 불행한 판매자도 보여 줌 · 셰퍼-휴스 = Organ Watch 설립자. **밑줄 의미** unhappy sellers in, say, the housing market as well = 후회하는 판매자는 주택처럼 합법적인 시장에도 있으니, 그것만으로 금지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저자의 지적 / No doubt we should, but we don't = 더 나은 도움을 찾아야 한다는 말은 옳지만 현실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저자의 응수 / 지칭: 99쪽 ¶1 He = 로젠바움 · ¶2 He subsequently = 탕위성 · ¶5 That view = 착취한다는 견해 · them = 인도인 350명 · he = 마닐라의 판매자 · ¶6 them = 극빈층.

> **한 줄 요약** 장기 매매 처벌 사례와 모자란 신장의 숫자로 장기 판매가 범죄여야 하느냐고 묻는 저자는, 장기 거래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다는 가장 흔한 반론과 그 근거를 소개한 뒤 마닐라의 판매자와 주택 시장의 예로 되묻는다.

4-4 이상과 현실, 이란의 사례와 저자의 결론 99쪽 ¶7 ~ 100쪽 ¶4

원문 위치 원서 99쪽 ¶7 ~ 100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99쪽 ¶7 첫 문장	In an ideal world, there would be … enough altruistic donors so that no one would die	가정의 would · enough + 명사 + so that
★	99쪽 ¶7 둘째 문장 ~ 100쪽 첫 줄	Zell Kravinsky, an American who has given a kidney to a stranger	인물 — 내용 일치
★	100쪽 첫 줄	the risk of dying as a result of the donation is only 1 in 4,000	숫자 — 서답형 후보
▲	100쪽 첫 줄	Not donating a kidney, he says, thus means valuing your own life at 4,000 times that of a stranger	동명사 주어 부정 · mean -ing · that of
◆	100쪽 첫 줄	a ratio he describes as "obscene."	밑줄 의미 · 크라빈스키의 표현
▲	100쪽 첫 줄 마지막 문장	the need for more kidneys persists, along with the poverty of those we do not help	along with · those (whom) w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0쪽 ¶1 첫 문장	We must make policies for the real world, not an ideal one.	밑줄 의미 · 전환 — 삽입 · 순서의 고리
▲	100쪽 ¶1 둘째 문장	be regulated to ensure that sellers were fully informed about what they were doing	목적의 to부정사 · be informed about
▲	100쪽 ¶2 첫 문장	a country that we do not usually think of as a leader in either market deregulation or social experimentation	think of A as B · either A or B
★	100쪽 ¶2 둘째 문장	Since 1988, Iran has had a government-funded, regulated system	연도 — 서답형 1순위
★	100쪽 ¶2 셋째 문장	for a set price—in 2017, equivalent to US$4600—and no one except the seller profits	숫자 · 내용 일치
★	100쪽 ¶3 첫 문장	According to a study published in 2006 by Iranian kidney specialists	연구의 결론 — 단정 금지
▲	100쪽 ¶3 둘째 문장	showed many potential donors turned away because they did not meet strict age criteria	show + O + p.p.
●	100쪽 ¶3 둘째 문장	strict age criteria	어휘 반전: strict ↔ lax
★	100쪽 ¶4 첫 문장	If Iran's regulated system saves lives—and it seems clear that it does—	저자의 결론 · 요지 1순위
▲	100쪽 ¶4 둘째 문장	It is not obvious that the arguments … are sufficiently compelling to justify the current prohibition	가주어 It · sufficiently ~ to V

내용

이상적인 세계라면 극빈층이 없을 것이고, 이타적인 기증자가 넉넉해서 신장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낯선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한 미국인 젤 크라빈스키는 신장을 기증하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반면, 기증의 결과로 죽을 위험은 4,0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신장을 기증하지 않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낯선 사람의 생명보다 4,000배 귀하게 매기는 일이라고 말하며, 그 비율을 '역겹다(obscene)'고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신장 두 개를 다 갖고 있고, 더 많은 신장에 대한 필요는 우리가 돕지 않는 사람들의 가난과 함께 계속된다. 저자는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합법적인 신장 시장을 규제해서, 판매자가 자기 건강에 대한 위험을 포함해 자기가 하는 일을 충분히 알도록 보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신장 수요가 채워질까? 판매자에게도 받아들일 만한 결과가 될까? 답을 찾으려고 저자는 시장 규제 완화로도 사회 실험으로도 보통 앞선 나라라고 여기지 않는 나라, 이란으로 눈을 돌린다. 이란에는 1988년부터 정부가 재정을 대는 규제된 신장 구매 제도가 있다. 환자들의 자선 단체가 정해진 가격(2017년 기준 미화 4,600달러 상당)으로 거래를 주선하고, 판매자 말고는 아무도 이익을 얻지 않는다. 2006년 이란의 신장 전문의들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나라의 신장 대기 명단을 없앴다. 2006년 BBC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엄격한 나이 기준에 맞지 않아 돌려보내진 많은

지원자와, 심리학자를 찾아가야 했던 지원자들을 보여 주었다. 저자는 이란의 규제된 제도가 생명을 구한다면(분명히 그래 보인다), 그에 맞서는 강력한 반론이 없는 한 이란의 예를 따르고 가능하면 더 낫게 고치는 일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규제된 신장 시장에 대한 지금의 금지를 정당화할 만큼 그 반론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법

- **In an ideal world, there would be no destitute people, and there would be enough altruistic donors so that no one would die while waiting to receive a kidney** : In an ideal world가 조건 역할을 해서 would(가정 — 현실과 다름). enough + 명사(donors). so that = 그 결과 ~하도록. while waiting = while they were waiting(주어 · be 동사 생략).
- **Zell Kravinsky, an American who has given a kidney to a stranger, points out that donating a kidney can save a life, while the risk of dying as a result of the donation is only 1 in 4,000** : 동격 삽입 속 현재완료 has given(경험). points out의 목적어 that절 안에서 동명사 주어 donating. while = 대조(~인 반면). 1 in 4,000 = 4,000분의 1.
- **Not donating a kidney, he says, thus means valuing your own life at 4,000 times that of a stranger—a ratio he describes as "obscene."** : 동명사 주어의 부정 = Not + -ing → 단수 means. mean + 동명사 = ~을 뜻하다(mean to V = ~할 작정이다와 구별). that of = the life of(반복 피하기). a ratio (that) he describes as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describe A as B.
- **But most of us still have two kidneys, and the need for more kidneys persists, along with the poverty of those we do not help** : the need(단수) → persists. along with = ~와 함께(주어의 수에 영향 없음). those (whom) we do not help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Could a legal market in kidneys be regulated to ensure that sellers were fully informed about what they were doing, including the risks to their health?** : 조동사 + 주어 + be p.p. = 조동사 수동의 의문문. to ensure = 목적의 to부정사. 시제 일치로 that절의 were. what they were doing = 관계대명사 what절(about의 목적어). including = 전치사(~을 포함하여).
- **we can turn to a country that we do not usually think of as a leader in either market deregulation or social experimentation: Iran** : think of A as B에서 A(a country)가 관계대명사 that으로 앞에 나가 think of 뒤 목적어 자리가 빈다. either A or B = 명사 두 개. 콜론 뒤 Iran = 앞의 a country가 어느 나라인지 밝힌다.
- **Since 1988, Iran has had a government-funded, regulated system for purchasing kidneys** : since + 과거 시점 → 현재완료(계속). government-funded = 명사 + 과거분사의 복합 형용사(정부가 재정을 대는). for + 동명사 purchasing.
- **If Iran's regulated system saves lives—and it seems clear that it does—then in the absence of powerful arguments against it, we should give serious consideration to following Iran's example, and improving upon it if we can** : 대시 사이 it does = saves lives를 받는 대동사(단정이 아니라 seems clear). in the absence of = ~이 없는 한. give consideration to + 동명사(to는 전치사) — following과 improving이 병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ltruistic	이타적인	selfless	selfish
obscene	역겨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outrageous	—
persist	계속되다	continue	cease
regulate	규제하다	control	deregulate
deregulation	규제 완화	liberalization	regulatio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unded	재정 지원을 받는	financed	—
transaction	거래	deal	—
equivalent to	~에 상당하는	equal to	—
eliminate	없애다	remove	create
criteria	기준(복수)	standards	—
in the absence of	~이 없는 한	without	in the presence of
compelling	설득력 있는	convincing	weak
prohibition	금지	ban	permission

내용 일치 이상적 세계 = 극빈층 없음 · 이타적 기증자 충분 · 아무도 대기 중 죽지 않음(would — 가정) · 크라빈스키 = 낯선 이에게 신장을 '준' 미국인 · 죽을 위험 4,000분의 1 · 기증하지 않음 = 자기 생명을 4,000배로 매김 · 'obscene' = 크라빈스키의 표현 · 대부분은 여전히 두 신장 · 현실 세계를 위한 정책(저자) · 이란 = 시장 규제 완화나 사회 실험의 선두로 '보통 여기지 않는' 나라 · 1988년부터 정부 재정의 규제 제도 · 환자 자선 단체 주선 · 2017년 4,600달러 상당 · 판매자만 이익 · 2006 이란 신장 전문의 연구 = 대기 명단 해소 · 윤리 문제 없음(연구의 결론) · 2006 BBC = 엄격한 나이 기준 탈락 · 심리학자 방문 · 생명을 구한다 = '분명해 보인다'(it seems clear). **밑줄 의미** for the real world, not an ideal one = 극빈층도 없고 기증자도 넉넉한 세상을 전제로 하지 말고 지금의 빈곤과 부족을 전제로 정책을 짜야 한다는 전환 / obscene = 기증하지 않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남의 목숨보다 4,000배 귀하게 여기는 일이라는 크라빈스키의 강한 비난(저자의 말이 아님) / 지칭: 100쪽 첫 줄 he says = 크라빈스키 · 100쪽 ¶2 it(profits from it) = 거래 · ¶3 they = 돌려보내진 지원자들 · ¶4 it(against it) = 이란의 규제된 제도.

> **한 줄 요약**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저자는, 1988년부터 규제된 신장 구매 제도로 대기 명단을 없앴다는 이란을 들어 강력한 반론이 없는 한 그 예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4-5 물음과 혜택, 더 나은 평가가 따질 것 103쪽 ¶1 ~ ¶7

원문 위치 원서 103쪽 ¶1 ~ ¶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3쪽 ¶1 첫 문장	nearly four billion people, almost half the world's population	숫자 — 서답형 후보
▲	103쪽 ¶1 첫 문장	were living under government-mandated lockdowns in an effort to stop	복합 형용사 · in an effort to V
◆	103쪽 ¶2 둘째 문장	But they also have serious costs	지칭: they = 봉쇄
▲	103쪽 ¶2 둘째 문장	to name only three of many	독립 부정사(몇 가지만 들면)
★	103쪽 ¶2 셋째 문장	How should we make the trade-offs between these costs and benefits?	쟁점 — 글 전체의 물음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3쪽 ¶3 둘째 문장	Olga Yakusheva, a University of Michigan economist	인물 · 소속
★	103쪽 ¶3 셋째 문장	saved between 913,762 and 2,046,322 lives … 84,000 to 514,800 … 398,962 to 1,962,322 net lives	숫자 바꿔치기 주의
▲	103쪽 ¶3 셋째 문장	implying that 398,962 to 1,962,322 net lives were saved	결과 · 함축의 분사구문
●	103쪽 ¶3 넷째 문장	a very substantial number of lives were saved	어휘 반전: substantial ↔ negligible
▲	103쪽 ¶4 첫 문장	by taking into account nothing but the number of lives saved or lost	take into account + 긴 목적어 · nothing but
●	103쪽 ¶4 첫 문장	seek to avoid contentious ethical issues	어휘 반전: contentious ↔ uncontroversial
★	103쪽 ¶5 둘째 문장	We should be counting years of life lost or saved, not simply lives.	빈칸 · 요약 1순위
▲	103쪽 ¶6 셋째 문장	Difficult as quality of life is to measure and quantify	형용사 + as + S + V(양보)
◆	103쪽 ¶6 셋째 문장	cannot just wave it away	밑줄 의미: 계산에서 빼 버릴 수 없다
▲	103쪽 ¶7 둘째 문장	ought not disregard the fact that a recession … jeopardizes the very survival	ought not + 원형 · 동격 that · the very

내용

2020년 한때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인 약 40억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고 정부가 명령한 봉쇄 아래 살았다. 봉쇄는 정당했는가. 봉쇄에는 건강상의 혜택이 있다. 코로나19와 다른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 실업, 대규모 파산처럼(많은 비용 가운데 셋만 들어도) 심각한 비용도 따른다. 이 비용과 혜택을 어떻게 맞바꿔 따져야 하는가. 먼저 혜택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 미시간 대학의 경제학자 올가 야쿠셰바가 이끈 연구진은 2020년 미국에서 팬데믹을 완화하려는 정책들이 순(純)으로 구한(또는 잃게 한) 생명의 수를 추정하려 했다. 연구진은 봉쇄와 다른 공중 보건 조치가 913,762명에서 2,046,322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84,000명에서 514,800명의 '간접적 부수 손실'을 낳았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순으로 구한 생명은 398,962명에서 1,962,322명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범위가 넓지만 가장 낮게 잡아도 아주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뜻이다. 야쿠셰바와 공저자들은 구하거나 잃은 생명의 수 말고는 아무것도 계산에 넣지 않음으로써 논쟁적인 윤리 문제를 피하려 했다. 저자들은 그 때문에 봉쇄의 비용과 혜택을 더 제대로 평가하려면 마주해야 할 핵심 문제 몇 가지를 피하게 된다고 말한다. 첫째, 제대로 된 평가라면 90세에 죽는 것과 20 · 30 · 40세에 죽는 것의 차이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생명의 수가 아니라 잃거나 구한 생명의 햇수를 세어야 한다. 둘째, 봉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봉쇄는 대규모 실업을 낳고, 실업은 삶의 만족을 크게 떨어뜨린다. 삶의 질은 측정하고 수량화하기 어렵지만, 봉쇄의 비용과 혜택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그것을 무시하고 넘길 수 없다. 평소에도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봉쇄가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극빈 속에서, 또는 극빈의 언저리에서 사는 나라의 정부는 봉쇄를 피할 특히 강한 이유가 있다. 부유한 나라의 정부도 선진 경제의 불황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법

- **At one point in 2020 nearly four billion people, almost half the world's population, were living under government-mandated lockdowns in an effort to stop the spread of the COVID-19 coronavirus** : 동격 삽입(almost half the world's population). 과거진행 were living. government-mandated = 명사 + 과거분사의 복합 형용사(정부가 명령한). in an effort to V = ~하려고.
- **Lockdowns have health benefits: fewer will die of COVID-19, as well as other transmissible diseases** : 콜론 뒤 = 혜택의 내용. fewer = fewer people(형용사가 명사처럼 쓰임). die of = ~으로 죽다. A as well as B = B뿐 아니라 A도(여기서는 die of에 두 병이 걸림).
- **But they also have serious costs: social isolation, unemployment, and widespread bankruptcies, to name only three of many** : they = 봉쇄. to name only three (of many) = 독립 부정사(많은 것 가운데 셋만 들자면) — 문장 성분과 관계없이 말하는 이의 태도를 덧붙인다.
- **The team found that the lockdowns and other public-health measures saved between 913,762 and 2,046,322 lives, but also could result in an "indirect collateral loss" of 84,000 to 514,800 lives, implying that 398,962 to 1,962,322 net lives were saved** : between A and B. result in = (결과로) ~을 낳다(result from = ~에서 비롯되다와 구별). could = 가능성(단정 아님). implying = 결과 · 함축의 분사구문(그렇다면 ~라는 뜻이 된다).
- **Yakusheva and her coauthors seek to avoid contentious ethical issues by taking into account nothing but the number of lives saved or lost** : seek to V = ~하려 하다. by + 동명사 = 수단. take A into account에서 목적어가 길어 into account 뒤로 이동. nothing but = only(~ 말고는 아무것도). lives saved or lost = 과거분사 후치.
- **First, an adequate assessment would not disregard the difference between dying at age 90 and at 20, 30, or 40** : would = 가정(제대로 된 평가라면 ~하지 않을 것이다).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 B 자리 at 20, 30, or 40 앞에 dying이 생략되어 있다.
- **Difficult as quality of life is to measure and quantify, a proper accounting of the costs and benefits of lockdown cannot just wave it away** : 형용사 + as + S + V = 비록 ~하지만(양보). 원래 어순 = Though quality of life is difficult to measure and quantify. it = quality of life. wave away = 손을 내저어 물리치다(무시하다).
- **governments of rich countries also ought not disregard the fact that a recession in the advanced economies jeopardizes the very survival of people in other countries** : ought not + 원형 = ~해서는 안 된다(원서는 ought not to의 to를 뺐다). the fact that = 동격 that절(완전한 문장). 주어 a recession(단수) → jeopardizes. the very = 바로 그(강조 — 생존 자체).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andate (v.)	명령하다, 의무화하다	order	—
transmissible	전염되는	contagious	noncommunicable
isolation	고립	seclusion	connection
bankruptcy	파산	insolvency	—
trade-off	맞바꿈, 득실의 저울질	compromise	—
mitigate	완화하다	ease	aggravate
collateral	부수적인	secondary	—
net	순(純)	—	gross
substantial	상당한	considerable	negligible
contentious	논란이 많은	controversial	uncontroversial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isregard	무시하다	ignore	heed
quantify	수량화하다	measure	—
jeopardize	위태롭게 하다	endanger	protect

내용 일치 2020년 '한때' 약 40억 명(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봉쇄 아래 · 혜택 = 코로나19와 다른 전염병 사망 감소 · 비용 = 사회적 고립 · 실업 · 대규모 파산('많은 것 가운데 셋만') · 야쿠셰바 = 미시간 대학 경제학자 · 2020년 미국 · 구한 생명 913,762~2,046,322명 · 간접 부수 손실 84,000~514,800명(could — 가능성) · 순 398,962~1,962,322명 · 범위는 넓지만 가장 낮게 잡아도 상당수 · 야쿠셰바 연구 = 생명 수'만' 셈(논쟁적 윤리 문제를 피하려고) · 저자들 = 생명 연수 · 삶의 질 · 극빈층 · 부국의 불황이 다른 나라 사람의 생존을 위협. **밑줄 의미** years of life lost or saved, not simply lives = 90세의 죽음과 20 · 30 · 40세의 죽음을 똑같이 세지 말고 잃거나 구한 삶의 햇수를 세어야 한다 / cannot just wave it away = 삶의 질은 재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산에서 빼 버릴 수 없다 / 지칭: 103쪽 ¶2 they = 봉쇄 · ¶3 it still indicates = 그 넓은 추정 범위 · ¶4 That avoids = 생명 수만 세는 방식 · ¶6 that sharply reduces = 대규모 실업.

> **한 줄 요약** 2020년 약 40억 명이 봉쇄 아래 있었던 일을 두고 저자들은 봉쇄가 상당수의 생명을 구했다는 추정을 소개한 뒤, 제대로 된 평가라면 생명 수만이 아니라 생명 연수와 삶의 질, 극빈층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져야 한다고 말한다.

4-6 비용과 공통 단위 — 웰빙이라는 저자들의 답 104쪽 ¶1 ~ 105쪽 ¶1

원문 위치 원서 104쪽 ¶1 ~ 105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4쪽 ¶1 첫 문장	Until 2020, extreme poverty had been dropping steadily for the past 20 years	과거완료진행 · Until 2020
★	104쪽 ¶1 첫 문장	hitting a low of 736 million, or less than 10% of the world's population, in 2019	숫자 — 서답형 후보
★	104쪽 ¶1 둘째 문장	an additional 97 million people were thrust into extreme poverty	세계은행의 추정 — 숫자
▲	104쪽 ¶1 셋째 문장	How much of that was caused by lockdowns, rather than by the virus itself, is difficult to say	의문사절 주어 + 단수 동사
★	104쪽 ¶2 둘째 문장	192 countries had closed schools, leaving 1.6 billion children without in-person learning	숫자 — 서답형 1순위
▲	104쪽 ¶2 넷째 문장	At least 24 million children were projected to have left school permanently	완료 부정사 · 예상(단정 금지)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04쪽 ¶3 둘째 문장	the relevant data, without which we cannot say whether the lockdowns were, or were not, justified	전치사 + 관계대명사
★	104쪽 ¶3 다섯째 문장	converting different outcomes into a single unit of value	빈칸 후보 — 공통 단위
★	104쪽 ¶4 둘째 문장	for about £25,000 ($30,000) it can pay for one more "quality-adjusted life year."	숫자 · 용어
●	104쪽 ¶5 둘째 문장	We have not, however, seen any sufficiently rigorous attempts	어휘 반전: rigorous ↔ loose
◆	104쪽 ¶6 둘째 문장	Health isn't all that matters.	밑줄 의미 · 전환
▲	104쪽 ¶6 셋째 문장	What we really need to do is compare the impact different policies have	What절 주어 + is + 원형
★	104쪽 ¶7 첫 문장	an approach pioneered by academics in the World Happiness Report	출처 — 내용 일치
★	104쪽 ¶8 셋째 문장	has been estimated to reduce individuals' life satisfaction by 20%	숫자 — 서답형 후보
▲	105쪽 첫 줄	A broader analysis would include other impacts … and tell us when a lockdown should be lifted	would 병렬 · 간접의문문
◆	105쪽 ¶1 셋째 문장	not in terms of wealth or health, but in the ultimate currency, well-being	밑줄 의미 · 저자들의 결론

내용

2020년까지 극빈은 20년 동안 꾸준히 줄어, 2019년에는 7억 3,600만 명, 곧 세계 인구의 10%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 팬데믹의 결과로 9,700만 명이 더 극빈으로 내몰렸다. 그 가운데 얼마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닌 봉쇄 때문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저자들은 봉쇄의 몫이 틀림없이 클 것이라고 본다. 몇 달, 심지어 몇 년의 교육을 잃은 비용은 어떤가. 유엔아동기금 사무총장 헨리에타 포어에 따르면 팬데믹이 절정일 때 192개국이 학교를 닫아 16억 명의 아이가 대면 학습을 받지 못했다. 많은 아이에게 원격 학습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2,400만 명의 아이가 학교를 영영 떠났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많은 소녀에게 그것은 직업을 가질 전망 대신 이른 결혼을 뜻할 가능성이 크다. 휴교는 봉쇄가 낳은 경제적 어려움과 겹쳐 저소득 국가에서 아동 노동을 크게 늘렸다. 저자들은 이런 비용과 혜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어쩌면 경제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관련 자료를 모을 수 있겠지만, 그 자료 없이는 봉쇄가 정당했는지 아닌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자료가 있더라도 '구한 생명'과 '잃은 GDP'를 바로 비교할 수는 없다. 둘을 어떤 공통 단위로 바꿔야 한다. 혜택이 비용보다 컸는지 판단하려면 서로 다른 결과를 하나의 가치 단위로 바꿔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봉쇄가 충분히 오래가면 경제가 작아져 의사와 간호사, 약을 덜 감당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는 것이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는 약 25,000파운드(30,000달러)면 '질 보정 수명' 1년을 더 마련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사실상 그 돈으로 환자에게 건강한 삶 1년을 더 사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봉쇄가 경제에 끼친 비용을 추정하면, 바이러스를

억제해 지금 얻을 건강한 삶의 햇수와 작아진 경제 때문에 나중에 잃을 햇수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를 충분히 엄밀하게 시도한 사례를 아직 보지 못했다. 어쨌든 질 보정 수명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좁다. 건강이 중요한 것의 전부는 아니다.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여러 정책이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그러려면 사람들이 스스로 보고한 행복과 삶의 만족으로 웰빙을 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World Happiness Report의 학자들이 개척한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코로나19나 다른 체계적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할 때, 달리는 비교하기 어려운 고려 사항들을 원칙에 따라 저울질할 수 있다. 실업이 나쁘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실업과 건강한 삶의 햇수를 어떻게 맞바꿀지는 분명하지 않다. 웰빙으로 직접 생각하면 이 비교가 가능하다. 실업은 웰빙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개인의 삶의 만족을 20% 줄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정보로 봉쇄의 인간적 비용을 생명을 연장해 얻은 웰빙과 비교할 수 있다. 더 넓은 분석이라면 사회적 고립과 불안 같은 다른 영향도 넣고, 봉쇄를 언제 풀어야 하는지도 알려 줄 것이다. 그래도 저자들은 몇 달에 걸친 정부의 봉쇄가 옳은 정책이었는지 아직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도덕 철학자로서 자신들만으로는 이 물음에 답할 수 없고, 경험 연구자들이 그 효과를 부나 건강이 아니라 궁극의 통화인 웰빙으로 계산하는 과제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법

- **Until 2020, extreme poverty had been dropping steadily for the past 20 years, hitting a low of 736 million, or less than 10% of the world's population, in 2019** : 과거완료진행 = 2020년이라는 과거 기준 시점까지 계속된 일(has been dropping은 오답). hitting = 분사구문(그러다 ~에 이르렀다). or = 즉(바꿔 말하면).
- **How much of that was caused by lockdowns, rather than by the virus itself, is difficult to say** : 간접의문문(How much of that was caused ...)이 주어 → 단수 동사 is. rather than = ~이 아니라(전치사구 by ~ 둘을 대조). be difficult to say = 말하기 어렵다.
- **192 countries had closed schools, leaving 1.6 billion children without in-person learning** : leaving = 결과의 분사구문(그 결과 ~한 채로 두었다). leave + O + 전치사구. in-person = 대면의(복합 형용사).
- **At least 24 million children were projected to have left school permanently** : be projected to V = ~할 것으로 예상되다. 완료 부정사 to have left = 예상한 시점에서 볼 때 이미 학교를 떠났을 것 — 예측이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 **Perhaps teams of economists and social scientists could gather the relevant data, without which we cannot say whether the lockdowns were, or were not, justified** : without which = 계속적 용법의 전치사 + 관계대명사(그 자료가 없으면). which는 the relevant data. whether A or not의 변형 — were, or were not, justified(정당했는지 아닌지).
- **Judging whether the benefits outweighed the costs would require converting different outcomes into a single unit of value** : 동명사 주어(Judging ~) → 단수 취급. require + 동명사 = ~을 필요로 하다(목적어 없이 require to V는 오답). convert A into B = A를 B로 바꾸다.
- **a lockdown, if it goes on long enough, will bring about a smaller economy that can afford fewer doctors, nurses, and medicines** : 주어와 동사 사이에 조건절 삽입. bring about = 초래하다.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smaller economy). fewer + 셀 수 있는 복수 명사(less는 셀 수 없는 명사).
- **What we really need to do is compare the impact different policies have on our overall well-being** : What절 주어 + is + 원형부정사 보어(to compare의 to 생략 가능 — 주어가 do로 끝날 때). the impact (that) different policies have on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have an impact on에서 온 구조.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teadily	꾸준히	consistently	erratically
thrust (v.)	밀어 넣다	push	—
permanently	영구히	for good	temporarily
prospect	전망, 가능성	outlook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utweigh	~보다 크다	exceed	—
convert	바꾸다, 환산하다	transform	—
contain	억제하다	control	spread
rigorous	엄밀한	thorough	loose
narrow	좁은	limited	broad
pioneer (v.)	개척하다	initiate	—
principled	원칙에 입각한	consistent	arbitrary
dire	심각한, 끔찍한	severe	mild
empirical	경험적인	observational	theoretical
currency	통화, 척도	medium	—

내용 일치 극빈 = 2020년까지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 · 2019년 7억 3,600만 명(세계 인구 10% 미만)으로 최저 · 세계은행 추정 2020년 팬데믹으로 9,700만 명 추가 · 그중 봉쇄 탓은 말하기 어렵지만 '틀림없이' 클 것(저자들의 판단) · 헨리에타 포어 = 유엔아동기금 사무총장 · 192개국 휴교 · 16억 명 대면 학습 못 함 · 최소 2,400만 명 영구 이탈 '예상' · 많은 소녀에게 조혼 '가능성' · 저소득국 아동 노동 크게 증가 · 정확한 추정 불가 · 생명과 GDP는 공통 단위가 필요 ·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 약 25,000파운드(30,000달러)로 질 보정 수명 1년 · 충분히 엄밀한 시도는 아직 못 봄 · 웰빙 = 행복 · 삶의 만족 자기 보고(World Happiness Report 학자들이 개척) · 실업 = 삶의 만족 20% 감소(추정) · 결론 = 아직 판단 불가. **밑줄 의미** Health isn't all that matters = 질 보정 수명처럼 건강만 세는 계산도 너무 좁다는 전환 / the ultimate currency, well-being = 부나 건강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웰빙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바꿔 계산해야 한다는 저자들의 결론 / 지칭: 104쪽 ¶1 that(How much of that) = 극빈에 더 내몰린 9,700만 명 · ¶2 that is likely to mean = 학교를 영영 떠나는 일 · ¶3 them = 구한 생명과 잃은 GDP · ¶4 that sum = 25,000파운드.

> **한 줄 요약** 극빈 · 교육 손실 같은 봉쇄의 비용을 구한 생명과 비교하려면 공통 단위가 필요하다고 본 저자들은 건강만 세는 질 보정 수명보다 행복 · 삶의 만족 보고로 잰 웰빙이 낫다고 보면서도, 봉쇄가 옳았는지는 경험 연구자들이 웰빙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4 HEALTH]

범위	Public Health versus Private Freedom · Kidneys for Sale? · The Lockdowns (원서 PDF 91~105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hocking pictures of what smoking does to the body can work against advertising that speaks to our unconscious wishes. By weakening that pull, they help smokers think more carefully before they light up, and they make it easier for those who have decided to give up cigarettes to keep their promise. So laws that require such pictures should not be attacked as limits on liberty. Giant firms make no attempt to address our ability to reason and reflect; rules like these simply even out the contest between those firms and ordinary people. Plain packs carrying warnings and graphic images give the reasoning part of each of us a fair chance.

① Smokers should be free to decide for themselves without any state interference.
② Cigarettes should be banned outright to protect public health.
③ Tobacco firms deserve compensation for losing their brand designs.
④ Laws requiring graphic warnings on plain packs should be defended, not condemned as limits on freedom.
⑤ Advertising for all unhealthy products should be prohibited.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ounting only quality-adjusted life years, however, leaves too much out, because health is not the only thing that matters. What we need is a way to compare how different policies affect our overall well-being. The authors suggest measuring it through people's own reports of how happy they are and how satisfied they feel with life, a method developed by scholars behind the World Happiness Report. Everyone agrees that losing a job is bad, but how should it be weighed against years of healthy life? Since unemployment is estimated to lower life satisfaction by 20%, both can be put on the same scale. Even so, the authors admit that, as moral philosophers, they cannot settle on their own whether long lockdowns were right; empirical researchers must work out the effects in the ultimate currency of well-being.

① Lockdowns Were Clearly the Right Policy
② Well-Being as the Common Measure for Lockdowns
③ Why Health Is All That Matters
④ Unemployment: A Cost Too Small to Count
⑤ Philosophers Settle the Lockdown Debate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Policies must be made for the world as it is, not for an ideal one. Could kidney sales be made legal and regulated so that sellers fully understood what they were doing, health risks included? Would it meet the demand, and would sellers end up with a fair result? Surprisingly, Iran offers an answer. Since 1988 it has run a regulated, government-funded scheme for buying kidneys, in which a patients' charity arranges each sale at a fixed price (about US$4600 in 2017) and only the seller makes money. Iranian kidney specialists reported in 2006 that the scheme had ended the country's kidney waiting list without causing ethical problems. If such a system saves lives, and it apparently does, then unless strong arguments are found against it,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following Iran's lead and improving on it where possible.

① Organ sales should remain banned because they exploit the poor.
② Iran's kidney market shows that deregulation always works.
③ Altruistic donation alone can end kidney shortages.
④ Kidney sellers should be paid more than Iran's fixed price.
⑤ A regulated kidney market like Iran's deserves serious consideration.

4. 밑줄 친 verges on naiveté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Debates about how far a government may go in protecting its citizens' health often begin with John Stuart Mill, who held that the state may use force only to stop people from harming others. Mill might have accepted health warnings, even pictures of diseased lungs, if they help people understand what they are choosing, but he would have opposed a ban on tobacco sales. Yet his defense of liberty takes for granted that each of us is the best judge and guardian of our own interests, an assumption that today verges on naiveté. Modern advertising has changed things since Mill's time. Companies now sell unhealthy goods by playing on hidden longings for status, good looks and social approval, so we are drawn to products without quite knowing why, while cigarette makers adjust their product to make it as addictive as possible.

① is a sensible assumption for today's consumers
② shows that Mill would have banned tobacco
③ is almost too simple-minded to hold now that firms shape our desires
④ proves that advertising has no real effect on smokers
⑤ is confirmed by the success of health warnings

5. 밑줄 친 there are unhappy sellers in, say, the housing market as well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objection raised most often against trading organs is that it takes advantage of the poor. A 2002 study of 350 people in India who had sold a kidney illegally seemed to bear this out: most said they had sold to clear their debts, yet six years later three in four were still in debt and wished they had not sold. By contrast, the TV program Taboo, reporting on the sale of body parts, showed a man from a Manila slum who had sold a kidney to buy a motorized tricycle taxi so that he could support his family; after the operation he was seen driving his shiny new taxi with a broad smile. Should he have been stopped from making that choice? Unhappy sellers appeared in the program too. Still, there are unhappy sellers in, say, the housing market as well.

① Some regret is found in ordinary legal markets too, so it alone does not show that the trade should be banned.
② Kidney sellers usually spend their money on buying houses.
③ Housing markets should be regulated as strictly as organ markets.
④ Unhappy sellers prove that organ trading exploits the poor.
⑤ Television programs exaggerate the problems of the poor.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Levy-Izhak Rosenbaum, a businessman from Brooklyn, admitted in 2009 to setting up the sale of three kidneys, for which he received a sentence of two and a half years and spent over two of them behind bars. A year earlier, in Singapore, the retail tycoon Tang Wee Sung faced the law because ① he had agreed to buy a kidney illegally. Later ② he obtained a kidney taken from the corpse of a murderer who had been executed for ③ his crime. Getting a kidney in this way was legal, but ④ his choice was arguably more dubious, ethically, than buying one would have been, because using executed prisoners' organs creates an incentive to convict and execute people accused of capital crimes. For agreeing to that purchase, a court had sent ⑤ him to jail for a single day.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Lockdowns also cost months, even years, of schooling. Henrietta Fore, who headed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s its executive director, reported that when the pandemic was at its worst, schools were shut in 192 countries, so 1.6 billion children could not attend classes in person. Many of them had no chance to study online instead. It was projected that at least 24 million children would never return to school. For many girls, this is likely to mean marrying young rather than looking forward to a career. In low-income countries, the closing of schools, together with the economic hardship that lockdowns brought, has led to a sharp rise in child labor.

① 학교를 닫은 나라는 150개국이었다.
②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아이는 16억 명이었다.
③ 대부분의 아이가 원격 학습으로 수업을 이어 갔다.
④ 적어도 2,400만 명의 아이가 학교를 영영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저소득 국가에서 아동 노동은 오히려 줄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Having lost in Australia's courts, the tobacco industry worried that much larger markets such as India and China might copy the law, and those are exactly the places that need it most. In Australia only about 15 percent of people smoke, and in the United States about 20 percent, but a survey in The Lancet of 14 countries with low or middle incomes found that on average 41 percent of men smoked, and more and more women were starting. To stop plain packaging from spreading, tobacco-producing countries complained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at the law went further than public health required and unfairly interfered with trademarks. A WTO disputes panel rejected the complaint, and in 2020 the appeals of two of those countries were dismiss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alled this a big win for public health and for controlling tobacco. It estimates that smoking killed about 100 million people in the twentieth century and may kill up to a billion in this century if present trends continue.

① 담배 업계는 인도나 중국 같은 큰 시장이 그 법을 따라 할까 걱정했다.
② 『The Lancet』 조사에서 14개국 남성의 평균 흡연율은 41%였다.
③ 담배 생산국들은 그 법이 공중 보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④ 2020년에 두 나라의 상소가 기각되었다.
⑤ 세계보건기구는 21세기에 흡연으로 약 1억 명이 죽을 것으로 추정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We also have to think about people who, even in ordinary times, struggle to meet the basic needs of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In countries ① where a large share of the population lives in or near extreme poverty, governments have especially strong reasons to avoid lockdowns. Yet rich countries, too, should not ignore how a recession in advanced economies ② threatens the very survival of people elsewhere. Until 2020, extreme poverty ③ has been falling steadily for twenty years, reaching a low of 736 million people, fewer than one person in ten worldwide, in 2019. The World Bank estimates that in 2020 the pandemic pushed 97 million more people ④ into extreme poverty. It is hard to say how much of this was due to lockdowns rather than to the virus itself, yet the share due to lockdowns must surely have been ⑤ significant.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authors admit that they cannot estimate these costs and benefits accurately. Even if economists and social scientists gathered the relevant data, 'lives saved' and 'lost GDP' could not be compared directly; both would first have to be put into a common unit. In other words, deciding whether the benefits exceeded the costs would require (A) [converting / to convert] very different outcomes into one unit of value. One way forward is to note that a lockdown that lasts long enough will leave a smaller economy, which will be able to pay for (B) [fewer / less] doctors, nurses and medicines. Britain's National Health Service estimates that about £25,000 ($30,000) buys one additional 'quality-adjusted life year', in effect one more healthy year of life for a patient. So if we knew what lockdowns cost the economy, we could compare the healthy years gained now by containing the virus with (C) [what / that] a shrunken economy is likely to cost us in healthy years later on. However, no sufficiently rigorous attempt to do this has yet been seen.

	(A)	(B)	(C)
①	converting	fewer	what
②	converting	less	what
③	to convert	fewer	that
④	to convert	less	what
⑤	converting	fewer	tha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Should selling an organ be treated as a crime? Before answering, look at the need. In the United States, 100,000 people a year are looking for an organ transplant, yet in 2018 only 21,167 of them ① succeeded. Every day, 12 Americans with failing kidneys ② die before a donor kidney reaches them, and across the world kidney failure ③ claims millions of lives. Although trading in human organs is ④ permitted almost everywhere, estimates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uggest that roughly 10 percent of the kidneys transplanted around the world are ⑤ obtained through the black market.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Most people agree that governments should forbid the selling of certain dangerous goods; many food additives, children's toys coated with substances that might harm a child who swallows them, and power saws lacking protective guards are common examples. Even so, cigarettes are in a class of their own. No other product, legal or not, kills nearly as many people; the toll is higher than that of road accidents, malaria and AIDS together. They are also highly addictive, and wherever everyone pays for health care, everyone bears the cost of treating the diseases they cause. Whether to ban cigarettes outright is a separate question, since a ban would surely hand organized crime a new source of income. Still, it seems strange to say that a state may, in principle, stop a product from being sold at all, yet may not _____.

① stop people from smoking in their own homes
② insist that its packs carry graphic pictures of the harm it does
③ keep organized crime out of the tobacco trade
④ make everyone share the cost of treating smokers
⑤ protect the trademarks printed on its packaging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Not giving a kidney, he argues, therefore amounts to valuing your own life 4,000 times as highly as a stranger's, a ratio he calls 'obscene.'

Some argue that the poor would benefit if organ sales were made legal. Nancy Scheper-Hughes, who founded Organ Watch, answers sharply that we should find better ways to help the destitute than removing their organs. (①) Surely we should, but we do not: our aid to the poor falls badly short, leaving hundreds of millions in extreme poverty. (②) In an ideal world nobody would live in destitution, and selfless donors would be plentiful enough that no patient died waiting for a kidney. (③) Zell Kravinsky, an American who donated one of his own kidneys to someone he had never met, notes that one donated kidney may rescue someone from death, whereas the donor's own chance of dying from the operation is just 1 in 4,000. (④) Still, nearly all of us keep both our kidneys, the shortage goes on, and so does the poverty of the people we leave unaided.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At one point in 2020, close to four billion people, nearly half of humanity, were living under lockdowns ordered by their governments to slow the spread of COVID-19. ① Lockdowns bring health benefits, since fewer people die of COVID-19 and of other infectious diseases. ② Yet they also carry heavy costs, including social isolation, job losses and a wave of bankruptcies. ③ In the United States, the balance between public health and free expression is decided by courts, largely by interpreting a text that is 225 years old. ④ To weigh these costs against the benefits, we first need to know how large the benefits are. ⑤ A research team led by Olga Yakusheva, an economist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estimated that U.S. lockdowns and similar public-health steps in 2020 saved from 913,762 to 2,046,322 lives, though they may also have cost between 84,000 and 514,800 lives indirectly.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2012 two courts reached opposite verdicts on cigarette packaging. A U.S. Court of Appeals overturned 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ule requiring graphic health warnings on packs, while Australia's top court backed a law demanding not only warnings and large pictures of smoking damage but also plain packs: brand names in small standard type, without logos, and in no color except a dull olive-brown.

(A) In Australia, by contrast, the question was a different one: did the law amount to seizing, without compensation, the rights that tobacco firms held in their brands as intellectual property?

(B) The High Court decided that it did not. One would think that today's Australian packs are enough to frighten off anyone not already hooked on cigarettes.

(C) The American ruling rested on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free speech. The court agreed that the government may demand health warnings that are factually accurate, but a majority of the divided bench held that it could not go so far as to require pictures.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Yakusheva and her colleagues tried to sidestep difficult ethical questions by counting only how many lives were saved or lost. That approach, however, avoids issues that any fuller weighing of what lockdowns cost and achieve should confront. First, a sound assessment would not ignore the difference between dying at 90 and dying at 20, 30 or 40; the years of life that are lost or gained should be counted, not merely the number of lives. Second, how lockdowns change people's quality of life also counts. Lockdowns throw many people out of work, for example, and unemployment sharply lowers life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is hard to measure, but a proper accounting cannot simply dismiss it.

→ Counting only the (A) _____ saved or lost, as Yakusheva's team did, falls short: a fuller assessment would also count years of life and consider how lockdowns affect people's (B) _____ of life.

① years ..... length
② lives ..... quality
③ lives ..... length
④ years ..... quality
⑤ jobs ..... cost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In 2012 an American court and Australia's highest court reached opposite decisions on graphic warnings for cigarette packs. A survey in The Lancet found that, on average, 41 percent of men smoked in 14 countries with low or middle incomes. Since 1988, Iran has run a regulated, government-funded system for buying kidneys. In Singapore, Tang Wee Sung was jailed for one day for agreeing to an illegal kidney purchase. Yakusheva's team counted only how many lives were saved or lost, not years of life. During the pandemic, 1.6 billion children were left without in-person learning. Unemployment has been estimated to cut life satisfaction by 20%.

<QUIZ>

(1) In what year did the two courts reach opposite decisions?

Answer for (1): _____

(2) On average, what percentage of men smoked in the 14 countries?

Answer for (2): _____

(3) Which country has run a regulated system for buying kidneys since 1988?

Answer for (3): _____

(4) Who was jailed for one day in Singapore?

Answer for (4): _____

(5) Is it true or false that Yakusheva's team counted years of life?

Answer for (5): _____

(6) How many children were left without in-person learning?

Answer for (6): _____

(7) By how much has unemployment been estimated to cut life satisfaction?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False	N. 1988
B. True	O. 192
C. 2020	P. 2012
D. 15%	Q. Nancy Scheper-Hughes
E. 20%	R. 41%
F. Singapore	S. four billion
G. Levy-Izhak Rosenbaum	T. 1.6 billion
H. 24 million	U. £25,000
I. Iran	V. Tang Wee Sung
J. 10%	W. Olga Yakusheva
K. 2009	X. 97 million
L. India	Y. 2006
M. Zell Kravinsky	Z. 736 million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 법은 담뱃갑의 나머지 부분 자체가 무늬 없이 만들어질 것을 요구한다. (require that + 동사원형)

02 이 차이 밑에는 더 큰 쟁점이 놓여 있다. (분사 보어 문두 → 도치)

03 다른 어떤 제품도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근접하지 못한다. (come close to -ing)

04 밀은 건강 경고는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만, 담배 제품의 판매 금지는 거부했을 것이다. (could have p.p. / would have p.p.)

05 우리는 어느새 이유도 잘 모른 채 어떤 제품에 끌려 있다. (find + 재귀대명사 + p.p. / without -ing)

06 그는 신장 세 개의 판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plead guilty to / 완료 동명사)

07 그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을까? (should have been p.p. / prevent A from -ing)

08 신장을 기증하지 않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낯선 사람의 생명의 4,000배로 평가한다는 뜻이다. (Not + 동명사 주어 / mean -ing / that of)

09 1988년 이래로 이란에는 정부가 재정을 대는 규제된 신장 구매 제도가 있다. (since + 현재완료)

10 삶의 질은 측정하기 어렵지만, 제대로 된 계산은 그것을 무시하고 넘길 수 없다. (형용사 + as + S + V(양보))

11 2020년까지 극빈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줄어 왔다. (과거완료진행)

12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여러 정책이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What절 주어 + is + 원형)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엇갈린 두 판결이 나온 해 / 판결한 두 법원	
민무늬 담뱃갑에 허용된 단 하나의 색	
미국 법원이 해석하는 글의 나이 / 판결 당시 추정 미국인 연간 흡연 사망자	
흡연율(오스트레일리아인 / 미국인) / 『The Lancet』 조사 국가 수 · 남성 평균 흡연율	
담배 생산국이 제소한 기구 / 상소가 기각된 해	
세계보건기구의 흡연 사망 추정(20세기 / 21세기)	
신장 3개의 판매 알선을 인정한 사람 / 해 / 형량	
불법 신장 구매에 동의해 구금된 싱가포르 사업가 / 구금 기간	
미국에서 해마다 장기 이식을 바라는 사람 / 2018년 성공 / 암시장 신장 비율	
신장을 판 인도인 연구의 해 · 인원 / 6년 뒤 빚이 남은 비율	
마닐라의 판매자를 보여 준 TV 프로그램 / 그가 신장을 팔아 사려던 것	
Organ Watch 설립자 / 신장을 기증한 미국인 · 그가 말한 사망 위험	
이란의 신장 구매 제도가 시작된 해 / 2017년 가격	
2020년 한때 봉쇄 아래 있던 인구	
봉쇄의 효과를 추정한 경제학자와 소속 / 순으로 구한 생명의 수	

항목	답
극빈 인구 — 2019년의 최저치 / 2020년에 더해진 수(세계은행 추정)	
휴교한 나라 수 / 대면 학습을 못 받은 아이 / 영구 이탈 예상	
영국에서 질 보정 수명 1년을 마련하는 비용 / 실업이 줄이는 삶의 만족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Kidneys for Sale?」에서 저자는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뒤, 합법적인 신장 시장을 규제해 판매자가 건강의 위험을 포함해 자기가 하는 일을 충분히 알도록 보장할 수 있는지 물은 다음(100쪽 ¶1), 그 답을 찾으려고 1988년부터 정부가 재정을 대는 규제된 신장 구매 제도를 운영해 온 이란으로 눈을 돌렸다(100쪽 ¶2). 「Public Health versus Private Freedom」에서 저자는 현대 광고가 무의식적 욕구에 호소해 우리가 왜인지도 잘 모른 채 제품에 끌리게 한다고 보고(92쪽 ¶5), 끔찍한 그림이 그 호소의 힘을 상쇄해 더 숙고하는 결정을 돕는다고 썼다(92쪽 ¶6). 이를 바탕으로, 두 편에서 저자가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따진, 선택하는 사람의 상태를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 근거를 두 편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선택하는 사람의 상태: Could a legal market in kidneys be regulated to ensure that sellers were fully _____ about what they were doing, including the risks to their health?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5 DOING GOOD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Good Charity, Bad Charity · High-Priced Art · Extreme Altruism
원서 PDF 131~133 · 137~140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남을 도우려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이 권은 남을 돕는 일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룬 세 편을 묶었다. 「Good Charity, Bad Charity」에서 저자는 기부처 사이에 객관적인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자선 자문 업계의 전제에 반대하고, 미술관 새 별관과 트라코마 예방을 견주는 사고 실험을 거쳐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 이타주의'를 소개한다. 「The Ethical Cost of High-Priced Art」는 2014년 크리스티 경매의 기록적인 가격을 두고, 빈부 격차에 맞선다는 작품마저 초부유층의 소비재가 되는 현실을 짚은 뒤 비싼 미술품 구매가 오히려 지위를 낮추도록 지위를 다시 정의하자고 제안한다. 「Extreme Altruism」은 얕은 연못의 논증에서 출발해 아주 엄격한 도덕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그들을 불편해하는 까닭을 묻는다. 세 편을 이어 읽으면 같은 돈과 노력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되풀이된다. 이 노트는 어디에 기부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저자의 논증과 다른 사람의 견해를 가려 읽고,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야를 가릴 객관적 이유가 있다(131쪽 ¶4) / 비싼 미술품 구매가 지위를 낮추도록 지위를 윤리적으로 다시 정의하자(138쪽 ¶6~¶7) / 선행가가 불편한 것은 우리를 꾸짖는 존재여서일 수 있다(140쪽 ¶3~¶4) / 트라코마 기부는 적어도 열 배의 가치(132쪽 ¶3)
4~5	**밑줄 함축 의미**	this vital question / You'd have to be nuts / our dollars go much further there / something that everyone can pronounce / How noble and courageous that sounds / turning it into another consumer good for the super-rich / a redefinition of status / another, and another, and another / a standing reproach to our own way of life / this comfortable belief / that is not why they do it
6	지칭 추론	his · he가 두초와 쿤스 사이를 오가는 137쪽 ¶4~¶5 / it(137쪽 ¶1 = 크리스티 뉴욕 경매장) · They(137쪽 ¶3 = 그 작품들) / she · they(139쪽 ¶5 = 와이즈 · 와이즈와 카우프먼) / she · her(139쪽 ¶6 = 브라운-웨일) / them(140쪽 ¶3 = 남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7~8	내용 일치·불일치	10만 달러 · 30~40세 · 100달러 · 15년 + 15년 · 1,000명 · 5,000만 달러 · 50년 · 100만 명(131쪽 ¶5 ~ 132쪽 ¶1) / 2014년 5월 · 7억 4,500만 달러 · 6,000만 달러 · 8,400만 달러 · 4,100만 달러(137쪽 ¶1~¶3) / 90센트(133쪽 첫 줄) / 12세 · 입양 20명 + 친자녀 2명(140쪽 ¶2)
9~10	**어법**	to which + 명사 의문문 · the chances are that · to which(관계) · 가주어 it seems clear · 분리 부정사 · cause + O + to V · culminating in + 의미상 주어 · prevent + 소유격 + -ing · out of every · Even if + 가정법 과거 ·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 not just A but B · appear to V · So + be + 주어 · Not content with · worth of · 전치사구 문두 도치 · each of which · whether절 주어 · nor + 도치 · could have p.p. · lie in · ask + IO + 간접의문문 · How 감탄문 · have no difficulty in -ing · 가정법 과거 진행 · to부정사 주어 · invite + O + to V · be unanimous in -ing · 완료 분사구문 · for A than for B · what절 · turn out not to V · 결과 분사구문 · found와 find · 동격 that · so could we · no ~ other than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prevailing ↔ rare · objective ↔ subjective · preventable ↔ unavoidable · impaired ↔ unimpaired · irrational ↔ rational · outweigh ↔ fall short of · excessive ↔ modest · boost ↔ lower · poorer ↔ richer(138쪽 ¶4) · radical ↔ conservative · outlandish ↔ reasonable · unanimous ↔ divided · inadequate ↔ adequate · thriving ↔ declining · hostile ↔ friendly · reproach ↔ praise
12	빈칸 추론	the harm of one person's becoming blind outweighs the benefits(132쪽 ¶3) / objective reasons(131쪽 ¶4) / at least ten times the value(132쪽 ¶3) / co-opting any radical demands(138쪽 ¶2) / status-lowering, not status-enhancing(138쪽 ¶7) / a standing reproach(140쪽 ¶4)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문장 삽입	브라운-웨일의 신장 기증(139쪽 ¶6 ~ 140쪽 첫 줄): 교회 목사 → 뉴스 →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전화 → 그 여성과는 맞지 않음 → 간호사의 제안 → 동의 · 낯선 사람에게 기증 → 크로이의 사례
14	무관한 문장	호그와 바도의 가족(140쪽 ¶2: 12세에 읽은 책 · 낳기 둘 + 입양 둘 · 외면할 수 없는 아이들 · 입양 20명 + 친자녀 2명)에 같은 편 다른 대목(139쪽 ¶6 브라운-웨일)의 사실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얕은 연못의 논증(139쪽 ¶1~¶3): 연못과 신발 → 청중의 손 → 기부로 아이를 구함 → 또 한 아이 · 어디까지 주어야 하나
16	요약문 완성	근거에 기반한 자선(132쪽 ¶6 ~ 133쪽 ¶1): 독립 평가 기관 · 말라리아 퇴치 재단 · SCI 재단 · GiveDirectly · 효과적 이타주의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금액 · 질병 · 연도 · 숫자 · True/False · 운동의 이름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0만 달러 · 30~40세 · 100달러 · 15년 + 15년 · 1,000명 · 5,000만 달러 · 50년 · 100만 명 · 5,000만 번 · 500분의 1 · 10만 명 · 100명에 한 명 · 1,000명에 한 명 · 10명 · 적어도 10배 · 90센트(1편) / 2014년 5월 · 7억 4,500만 달러 · 6,000만 달러 · 8,400만 달러 · 4,100만 달러 · 4,500만 달러 · 700년 · 1987 · 3,300만 달러 · 몇천 달러 · 500만 명(2편) / 50년 전 · 소득의 약 절반 · 수천 명 · 12세 · 입양 20명 + 친자녀 2명(3편). 비슷한 숫자 쌍(10만 달러와 관람객 10만 명, 5,000만 달러와 5,000만 번, 4,500만과 4,100만 달러, 8,400만과 3,300만 달러, 입양 20명과 친자녀 2명, 1987과 2014)이 함정이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objective ↔ no objective, outweighs ↔ falls short of, irrational ↔ rational, poorer ↔ richer, status-lowering ↔ status-enhancing, hostile ↔ friendly, false ↔ true). '~인 듯하다'(seems · appear · it seems) · '~에 따르면'(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 '저자의 판단으로는'(in my judgment) · '저자의 짐작'(my guess) · '주장하기 어렵지 않다'(would not be hard to argue) · '~일 수 있다'(may be)를 사실로 바꾼 선지, 록펠러 자선 자문단 · 쿤스 · 맥파쿼의 친구들 · 맨더빌 등 사상가의 견해를 저자(싱어)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 1-2. 구조도 – 「Good Charity, Bad Charity · High-Priced Art · Extreme Altruism」 (131~133 · 137~140쪽)

논증형 세 편. ① 물음 → 통념(객관적인 답은 없다) → 저자의 반박 → 사례(별관 vs 트라코마) → 사고 실험 → 한계 인정과 더 어려운 선택 → 근거에 기반한 자선(효과적 이타주의). ② 사례(기록적 경매) → 투자인가 → 두초와의 대비 → 반론(쿤스: 생각에 도전) → 저자의 반박 → 단서(창작의 가치) → 저자의 결론(지위의 재정의). ③ 얕은 연못 → 어디까지 주어야 하나 → 맥파쿼가 소개한 네 사례 → 이타주의에 대한 적대감 → 저자의 답. 핵심 축은 **객관적인 답은 없다 vs 더 많은 선을 가릴 객관적 이유, 지위를 높이는 미술품 vs 지위를 낮추는 낭비, 위선자라는 편한 믿음 vs 우리를 꾸짖는 실제 이타주의자.**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31 ¶1~¶2	물음 · 통념	어느 대의에 기부할까 · 전문 자선 자문가 = 할 말이 많지 않을 것 · 그 분야의 전제 = 어느 쪽이 나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거나 어쩌면 할 수 없음
131 ¶3	통념의 예	록펠러 자선 자문단 = 기부 분야 여섯 개를 표로 · '가장 시급한 문제는?' → '분명히 객관적인 답이 없다'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31 ¶4	저자의 반박	참인가? 아니다 · 보건과 안전 vs 예술 · 문화 · 유산 = 한쪽에서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볼 객관적 이유가 있어 보임
131 ¶5~¶7	사례(가정)	미술관 새 별관 vs 트라코마 · 10만 달러 · 30~40세 실명 · 예방 가능 · 100달러 = 시력 장애 15년 + 실명 15년 · 1,000명
132 ¶1	다른 쪽 계산	별관 5,000만 달러 · 50년 · 해마다 100만 명 = 5,000만 번 · 비용의 500분의 1 = 관람객 10만 명의 미적 경험
132 ¶2~¶3	사고 실험 · 결론	악마 = 100명마다 한 명 실명 · 1,000명에 한 명이어도 가치 없음(저자의 판단) → 한 명의 실명 > 1,000명의 관람 → 트라코마 기부 = 적어도 10배
132 ¶4~¶5	한계와 난제	경제학자의 방법 · 작은 위험에 비합리적 태도(듯함) · 그래도 이 경우 답은 분명 / 인간 복지에 관한 한 대체로 극빈층 = 돈이 더 멀리 감 / 빈곤층 직접 지원 vs 온실가스 감축 · 인간 vs 동물 사이 선택은 더 어려움
132 ¶6~133 ¶1	근거 기반 자선	독립 평가 기관 GiveWell · The Life You Can Save · 말라리아 퇴치 재단 · SCI 재단 · GiveDirectly(90센트) / 효과적 이타주의 = 가능한 한 가장 큰 긍정적 변화
137 ¶1	사례	2014년 5월 크리스티 뉴욕 · 7억 4,500만 달러 = 최고 총액 · 뉴먼 · 베이컨 · 로스코 · 워홀 각 6,000만 달러 넘게 · 아시아 수집가(『New York Times』에 따르면)
137 ¶2~¶3	투자인가 · 물음	투자라면 앞으로의 시장 가격에 달림 / 이익이 동기가 아니라면 왜? · 아름답지도 솜씨도 특이하지도 않음 · 뉴먼 8,400만 · 워홀 4,100만 달러
137 ¶4	대비	10년 전 메트로폴리탄 = 두초의 「성모자」 4,500만 달러 · 그 기부도 비판(생각 그대로) · 그러나 700년 · 주요 인물 · 남은 그림 드묾 → 뉴먼 · 워홀은 해당 없음
137 ¶5~138 ¶1	반론(쿤스)	전후 미술은 생각에 도전 · 1987년 인터뷰 · 짐 빔 작품(버번을 채운 장난감 기차) · 「사치와 타락」 / 레이건주의 · 사회적 이동성 붕괴 · 내 작품은 이 흐름에 맞선다
138 ¶2~¶3	저자의 반박	고귀하고 용감하게 들린다(반어) · 시장은 급진적 요구도 초부유층의 소비재로 · 3,300만 달러 / 실제로 관심이 있다면 개발도상국 원주민 화가 · 몇천 달러로 마을 전체의 웰빙을 바꿀 수 있음(could)
138 ¶4~¶5	단서	예술 창작은 중요한 자기표현 · 기본적 필요가 힘겨워도 예술을 만듦 / 수백만 달러는 필요 없음 · 치솟은 가격은 표현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하기 어렵지 않음
138 ¶6~¶7	저자의 결론	지위를 높이려는 것(저자의 짐작) → 그렇다면 지위를 윤리적으로 재정의할 수단이 될 수도(may) · 더 윤리적인 세상이라면 수천만 달러 구매 = 지위를 낮춤 · 해마다 어린이 500만 명
139 ¶1~¶3	논증 · 물음	50년 전 「기근, 풍요, 그리고 도덕」 · 얕은 연못 · 신발 / 청중 대개 만장일치 · 기부로 아이를 구함 / 또 한 아이 → 사치를 모두 끊고 그들만큼 가난해질 때까지?
139 ¶4~140 첫 줄	사례 1	맥파퀴 『Strangers Drowning』 · 엄격한 도덕 기준 / 와이즈 = 아이스크림 · 옥스팜 · 소득의 약 절반 / 브라운-웨일 = 낯선 사람에게 신장 · 크로이(저자가 아는 사례)
140 ¶1~¶2	사례 2	바바 암테 = 한센병 환자 · 공동체 · 수천 명 · 아들들이 이어 감 / 호그 · 바도 = 열두 살의 바람 · 입양 20명 + 친자녀 2명
140 ¶3~¶4	물음 · 저자의 답	사상가들 다수가 이타주의에 적대 · 친구들의 불편함 · 왜 존경하지 않나 / 우리를 꾸짖는 존재이기 때문일 수 있음 · 위선자라는 믿음은 틀림 · 보람은 까닭이 아님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어느 대의에 줄까	자선 자문 분야의 전제 · 록펠러 자선 자문단 = 어느 쪽이 나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거나 할 수 없다	한 분야에서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볼 객관적 이유가 있어 보인다(저자)
10만 달러의 쓰임	미술관 새 별관 = 관람객 10만 명의 더 나아진 미적 경험	트라코마 예방 = 1,000명의 실명을 막음 · 적어도 10배의 가치(저자)
비교 방법	저자도 인정하는 약점 = 사람들이 작은 위험에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므로 이 방법은 비판받을 수 있다	그래도 이 경우를 포함한 많은 경우에 답은 충분히 분명하다(저자)
기부처 고르기	각 분야에서 어느 단체가 가장 효과적인지 알 수 없었다(얼마 전까지의 사정)	독립 평가 기관 덕분에 높은 확신 ·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 이타주의(저자가 소개)
뉴먼 · 워홀의 작품	수천만 달러에 팔린 작품(경매의 가격)	아름답지도, 대단한 솜씨를 보여 주지도, 그 화가의 작품 가운데 특이하지도 않다(저자)
전후 미술의 가치	생각에 도전하는 능력 · 내 작품은 빈부 격차의 흐름에 맞선다(쿤스)	시장은 어떤 급진적 요구도 초부유층의 소비재로 바꾼다 · 그 기차도 3,300만 달러에 팔림(저자)
빈부 격차 줄이기	쿤스의 말 – 내 작품은 사치의 은유로 계급 구조를 드러내며 빈부 격차의 흐름에 맞선다	개발도상국 원주민 화가의 작품을 사는 데 몇천 달러 = 마을 전체의 웰빙(저자)
예술 창작과 가격	저자가 필요 없다고 본 생각 = 구매자가 수백만 달러를 내야 창작이 북돋워진다	창작은 중요한 자기표현 · 치솟은 가격은 오히려 표현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하기 어렵지 않다(저자)
지위	저자의 짐작 = 구매자들은 유명 화가의 원작을 가지면 자기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더 윤리적인 세상에서는 수천만 달러 구매가 지위를 낮춘다 · 지위를 윤리적으로 재정의(저자)
얕은 연못	청중이 대개 잘못이라고 답한 쪽 = 신발을 먼저 생각해 아이를 못 본 체한다	저자 = 우리 모두 기부로 개발도상국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타주의자 평가	모든 이타주의자는 위선자라는 편한 믿음 · 이상한 사람들이라며 깎아내림	그 믿음은 틀렸다 · 우리를 꾸짖는 존재여서 불편한 것일 수 있다(저자)
이타주의자의 동기	많은 이타주의자가 느끼는 것 = 자기 삶이 대단히 보람 있고 충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하는 까닭은 아님 · 남을 돕고 자기 가치대로 산다는 앎 말고는 보상 없이(저자)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	세계 최대 자선 서비스 기관 **가운데 하나** · 소책자의 **여섯** 분야(보건과 안전 · 교육 · 예술, 문화, 유산 · 인권과 시민권 · 경제적 안정 · 환경) · '분명히 객관적인 답이 없다' = 웹사이트의 말
$100,000 · trachoma	미술관 새 별관과 트라코마 단체가 함께 기부 요청(**가정**) · 트라코마 = **감염성 미생물**이 일으키는 눈병 · 개발도상국 어린이 · 대개 **30~40세**에 실명 · 예방 가능
$100 · 15 + 15 years	**100달러**마다 한 사람의 시력 장애 **15년** + 실명 **15년**을 막음 → **10만 달러**면 **1,000명** · 사회보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new wing	**5,000만 달러**(가정) · 쓸모 있는 **50년** · 해마다 **100만 명** → **5,000만 번**의 관람 · 기부 몫 **500분의 1** → 관람객 **10만 명**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evil demon	별관 관람객 **100명**마다 한 명을 무작위로 골라 **15년** 실명 / **1,000명**에 한 명이어도 가치 없음 = 저자의 **판단**(and I bet in yours)
ten times	1,000명의 관람마다 **10명**의 실명을 막음 → 트라코마 기부 = **적어도 10배**의 가치
economists · seat belts	경제학자들이 쓰는 비교 방법 · 작은 위험에 비합리적 태도를 보이는 **듯함**(appear) → 안전띠 법 · 그래도 이 경우 답은 분명
extreme poverty	인간 복지에 관한 한 대체로 개발도상국의 극빈층 = 돈이 훨씬 더 멀리 감 / 더 어려운 선택 = 빈곤층 직접 지원 vs 온실가스 배출 감축(미래 세대) · 인간 vs 인간 아닌 동물의 고통
GiveWell · The Life You Can Save	**독립적인** 자선 단체 평가 기관 · 말라리아 퇴치 재단(Against Malaria Foundation) = 생명을 구하고 말라리아를 줄임
SCI Foundation	예전 이름 Schistosomiasis Control Initiative · **아주 적은 비용** · 소외 열대 질환(특히 **기생충**이 일으키는 것)
GiveDirectly	1달러마다 **적어도 90센트** · 아주 소득이 낮은 **아프리카** 가정 · 후속 연구 = 장기적 이익
effective altruism	근거에 기반한 자선 방식 · **국제적** 운동 · 가능한 한 가장 큰 긍정적 변화 · 아직 비교적 새로움 · 더 많은 연구로 실제 진전
Christie's · May 2014	**2014년 5월** · 뉴욕 경매장 · 전후 · 현대 미술 **7억 4,500만 달러** = 한 번 경매 **최고** 총액 · 아시아 수집가 = 『New York Times』에 **따르면**
Newman · Bacon · Rothko · Warhol	각각 **6,000만 달러** 넘게 / 뉴먼 = 세로 색 띠 · 변형을 다 해 본 **듯함**(it seems) · 지난달 **8,400만 달러** / 워홀의 작은 마릴린 먼로 **4,100만 달러**
Duccio · the Met	**10년 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작은 「성모자」 **4,500만 달러** · **700년** · 남은 그림 드묾 · 저자의 책 『The Life You Can Save』에서 기부자들을 비판
Jeff Koons · 1987	2014년 경매에 작품이 나온 화가 · 전후 미술은 생각에 도전(쿤스의 견해) · **1987년** 미술 평론가들과 인터뷰
Jim Beam work	버번을 채운 특대 **스테인리스강 장난감 기차** · 전시회 「사치와 타락」 = 1980년대의 천박함 · 과잉 · 사치의 위험(『New York Times』에 따르면) · **3,300만 달러**에 팔림
Helena Kontova · Reagan	평론가 콘토바의 물음 = 사회 정치적 의도와 당시 대통령 레이건의 정치 / 쿤스 = 사회적 이동성 붕괴 · 저소득과 고소득만 남음 · 내 작품은 이 흐름에 맞선다
indigenous artists · status	개발도상국 원주민 화가 작품에 **몇천 달러** = 마을 전체의 웰빙을 바꿀 수 있음(could) / 원작을 가지면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 = 저자의 **짐작**(my guess)
five million children	해마다 어린이 **500만 명** · 안전한 식수 · 모기장이 없거나 홍역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해서
Famine, Affluence, and Morality	**50년 전** 저자의 글 · 얕은 연못 · 비싼 새 신발 · 청중 = **대개** 만장일치 · 말라리아 · 설사 · 홍역 · 영양 부족
Larissa MacFarquhar	『Strangers Drowning』 · 아주 엄격한 도덕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물 소개 · 맨더빌 · 스미스 · 칸트 · 다윈 · 프로이트 = **많은 이가** 이타주의에 적대 또는 존재 부정
Julia Wise · Jeff Kaufman	어린 시절부터 · 아이스크림 · **옥스팜** · 지금은 소득의 **약 절반**을 기부 · www.givinggladly.com
Brown-Whale · Chris Croy	**메릴랜드주 에식스** 교회 목사 · 뉴스를 보고 신장 제공 · 그 여성과는 맞지 않음 → 간호사의 제안으로 낯선 사람에게 / 크로이 = 철학 수업 토론이 계기
Baba Amte · Hoag · Badeau	암테 = 인도의 부유한 지주의 아들 · 한센병 환자 공동체 · 몇 년 만에 **수천 명** · 아들들이 이어 감 / 호그 = **12세**에 읽은 책 · 입양 **20명** + 친자녀 **2명** · 전혀 부유하지 않음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Good Charity, Bad Charity · High-Priced Art · Extreme Altruism (원서 PDF 131~133 · 137~140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5-1 통념과 저자의 반박, 사례 — 미술관 별관인가 트라코마 예방인가 131쪽 ¶1 ~ 132쪽 ¶1

원문 위치 원서 131쪽 ¶1 ~ 132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1쪽 ¶1 셋째 문장	But to which cause should you give?	중심 물음 — 주제 · 제목 1순위
▲	131쪽 ¶2 첫 문장	the chances are that they won't have much to say about this vital question	the chances are that = 아마 ~일 것이다
★	131쪽 ¶2 셋째 문장	the prevailing assumption in their field is that we shouldn't, or perhaps can't, make objective judgments	저자가 반박할 통념 — 요지 함정
★	131쪽 ¶3 첫 문장	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 one of the world's largest philanthropic service organizations	기관명 · 동격
▲	131쪽 ¶3 둘째 문장	a chart showing areas to which a philanthropist might give	현재분사 후치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131쪽 ¶3 셋째 문장	"There's obviously no objective answer to that question."	웹사이트의 견해 — 저자의 주장 아님
★	131쪽 ¶4 첫~둘째 문장	Is this true? I don't think so.	저자의 반박 — 주장 · 요지 1순위
◆	131쪽 ¶4 넷째 문장	To me it seems clear that there are objective reasons for thinking we may be able to do more good	저자의 주장(seems · may 살리기)
▲	131쪽 ¶5 첫 문장	seeking funds to build a new wing to better display its collection	to부정사 · 분리 부정사(to better display)
★	131쪽 ¶5 셋째 문장	Let's say that you could afford to give $100,000.	숫자 — 가정(Let's say)
★	131쪽 ¶5 넷째 문장	trachoma, an eye disease caused by an infectious microorganism that affects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질병명 · 동격 — 내용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1쪽 ¶5 다섯째 문장	typically culminating in their becoming blind between 30 and 40 years of age	분사구문 ·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	131쪽 ¶5 여섯째 문장	It is preventable.	어휘 반전: preventable ↔ unavoidable
★	131쪽 ¶5 끝 두 문장	each $100 ... 15 years of impaired vision followed by another 15 years of blindness ... 1,000 people	숫자 — 서답형 1순위
▲	131쪽 ¶7 첫 문장	1,000 people spared 15 years of impaired vision	과거분사 후치(spare + O + O의 수동)
★	132쪽 ¶1 첫~둘째 문장	$50 million ... 50 years ... one million people ... each year ... 1/500th ... 100,000 visitors	숫자 — 가정(Suppose)

내용

기부할 만한 대의에 돈을 내려 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어느 대의에 내야 할까? 전문 자선 자문가에게 도움을 구해도 그들은 이 중요한 물음에 대해 할 말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러 자선 선택지를 안내해 주기는 하겠지만, 그 분야에 널리 퍼진 전제는 어느 선택지가 다른 것보다 나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거나 어쩌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 서비스 기관 가운데 하나인 록펠러 자선 자문단(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의 웹사이트는 기부자가 돈을 낼 수 있는 분야(보건과 안전, 교육, 예술 · 문화 · 유산, 인권과 시민권, 경제적 안정, 환경)를 표로 보여 주는 소책자를 내려받게 해 두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그 물음에는 분명히 객관적인 답이 없다'고 답한다.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보건과 안전'과 '예술, 문화와 유산'을 비교해 보면,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저자에게는 분명해 보인다. 지역 미술관이 소장품을 더 잘 전시하려고 새 별관을 지을 기금을 모으며 기부를 요청하고, 당신은 10만 달러를 낼 수 있다고 하자. 동시에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생기는, 감염성 미생물이 일으키는 눈병인 트라코마의 발생을 줄이려는 단체도 기부를 요청한다. 트라코마는 시력을 서서히 앗아 가 대개 30세에서 40세 사이에 실명에 이르게 하지만, 예방할 수 있다. 조사해 보니 100달러마다 한 사람이 15년 동안 시력 장애를 겪고 이어서 15년 동안 실명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따라서 10만 달러면 1,000명이 시력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선택에서 10만 달러는 어디에서 가장 큰 선을 행할까? 한쪽에는 그런 고통과, 사회 보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뒤따를 온갖 문제를 피한 1,000명이 있다. 다른 쪽을 따져 보려고 저자는 새 별관에 5,000만 달러가 들고, 쓸모 있으리라 예상되는 50년 동안 해마다 100만 명이 즐겨 모두 5,000만 번의 더 나아진 관람이 생긴다고 가정한다. 비용의 500분의 1을 낸 당신은 관람객 10만 명의 더 나아진 미적 경험을 자기 몫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것을 1,000명이 15년의 실명을 면하는 것과 어떻게 견줄 것인가?

어법

- **But to which cause should you give?** : give to which cause의 전치사 to가 의문사 which + 명사와 함께 문장 맨 앞으로 나왔다. 뒤는 조동사 should + 주어 you 도치(의문문).
- **If you seek help from professional philanthropy advisers, the chances are that they won't have much to say about this vital question** : the chances are that ~ = 아마 ~일 것이다(가능성이 크다 — 단정 아님). have much to say about = ~에 대해 할 말이 많다. this vital question = 어느 대의에 기부할 것인가.
- **the prevailing assumption in their field is that we shouldn't, or perhaps can't, make objective judgments about which options are better than others** : 주어 assumption(단수) → is, that절이 보어. shouldn't, or perhaps can't, make = 조동사 둘이 make를 함께 받는다(or perhaps can't는 삽입). about + 간접의문문(which options are better).

- **Its website offers a downloadable pamphlet with a chart showing areas to which a philanthropist might give** : showing = chart를 꾸미는 현재분사 후치. to which = give to의 to가 관계대명사 앞으로(a philanthropist might give to areas).
- **To me it seems clear that there are objective reasons for thinking we may be able to do more good in one of these areas than in another** : 가주어 it + seems clear + 진주어 that절. for + 동명사(thinking) 뒤에 that이 생략된 명사절. more ~ in A than in B = 비교 대상을 전치사까지 맞춤. seems · may = 단정하지 않는 말.
- **Suppose your local art museum is seeking funds to build a new wing to better display its collection** : Suppose (that) = ~라고 가정해 보자. to build = 무엇에 쓸 기금인지 밝히는 to부정사(형용사적). to better display = 목적(~하려고) — to와 동사 사이에 부사 better가 들어간 분리 부정사.
- **Trachoma causes people to slowly lose their sight, typically culminating in their becoming blind between 30 and 40 years of age** : cause + O + to V = O가 ~하게 하다. culminating = 결과의 분사구문(그러다 결국 ~에 이른다). culminate in + 동명사(becoming), their =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 **each $100 you donate could prevent a person's experiencing 15 years of impaired vision followed by another 15 years of blindness** : $100 (that) you donate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prevent + 동명사(experiencing), a person's = 의미상 주어. followed by = 뒤이어 ~가 오는(과거분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hilanthropy	자선(활동), 박애	charity	—
vital	매우 중요한	crucial	trivial
prevailing	널리 퍼진, 지배적인	dominant	rare
objective	객관적인	impartial	subjective
urgent	시급한	pressing	—
wing	(건물의) 별관, 부속 건물	annex	—
incidence	발생(률)	rate	—
infectious	감염성의, 전염되는	contagious	noninfectious
culminate in	결국 ~에 이르다	end in	—
preventable	예방할 수 있는	avoidable	unavoidable
impaired	손상된, 약해진	damaged	unimpaired
ensuing	뒤따르는	following	preceding
enhanced	향상된, 더 나아진	improved	diminished
aesthetic	미적인	—	—

내용 일치 전문 자선 자문가 = 이 물음에 할 말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큼'(the chances are) · 그 분야의 전제 =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거나 어쩌면 판단할 수 없음 · 록펠러 자선 자문단 = 세계 최대 자선 서비스 기관 '가운데 하나' · 소책자의 여섯 분야 · '분명히 객관적인 답이 없다' = 웹사이트의 말(저자의 주장 아님) · 저자 =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 10만 달러와 새 별관 = 가정(Let's say · Suppose) · 트라코마 = 감염성 미생물 · 개발도상국 어린이 · 대개 30~40세에 실명 · 예방 가능 · 100달러 = 시력 장애 15년 + 실명 15년 · 10만 달러 = 1,000명 · 사회 보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 별관 5,000만 달러 · 50년 · 해마다 100만 명 · 5,000만 번 · 500분의 1 · 10만 명. **밑줄 의미** this vital question = 어느 대의에 기부할 것인가(131쪽 ¶1) / Is this true? = '분명히 객관적인 답이 없다'는 웹사이트의 말이 참인가 / On one side ... What do we have

on the other side? = 트라코마 쪽의 이익을 정리한 뒤 미술관 쪽의 이익을 계산하겠다는 예고 / 132쪽 ¶1 that(How does that compare) = 관람객 10만 명의 더 나아진 미적 경험.

> **한 줄 요약** 자선 자문 업계는 어느 기부가 더 나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지만, 저자는 객관적 이유가 있다고 보고 미술관 새 별관과 트라코마 예방 가운데 한쪽에 10만 달러를 내는 경우를 가정해 두 쪽의 이익을 견주기 시작한다.

5-2 사고 실험과 저자의 답, 방법의 한계,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 이타주의' 132쪽 ¶2 ~ 133쪽 ¶1

원문 위치 원서 132쪽 ¶2 ~ 133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2쪽 ¶2 첫 문장	To answer, try a thought experiment.	전환 — 순서 배열의 고리
▲	132쪽 ¶2 넷째 문장	out of every 100 people who see the new wing, he will choose one, at random, and inflict 15 years of blindness on that person	out of every + 수 · inflict A on B
◆	132쪽 ¶2 여섯째 문장	You'd have to be nuts.	밑줄 의미: 제정신이면 가지 않는다
▲	132쪽 ¶2 일곱째 문장	Even if the evil demon blinded only one person in every 1,000, … seeing the new wing still would not be worth the risk	가정법 과거 · 동명사 주어
★	132쪽 ¶2 일곱째 문장	in my judgment, and I bet in yours	저자의 판단 — 단정 선지 함정
★	132쪽 ¶3 첫 문장	the harm of one person's becoming blind outweighs the benefits received by 1,000 people	빈칸 1순위 ·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	132쪽 ¶3 첫 문장	outweighs	어휘 반전: outweigh ↔ fall short of
▲	132쪽 ¶3 셋째 문장	will save not just one but 10 people from becoming blind	not just A but B · save A from -ing
★	132쪽 ¶3 셋째~넷째 문장	10 people … for every 1,000 … at least ten times the value of giving to the museum	숫자 — 결론의 계산
★	132쪽 ¶4 둘째 문장	many people appear to have irrational attitudes toward the small risks of very bad things happening	방법의 약점(appear 살리기)
▲	132쪽 ¶4 셋째 문장	legislation requiring people to fasten their seat belts	현재분사 후치 · require + O + to V
◆	132쪽 ¶5 셋째 문장	as our dollars go much further there	밑줄 의미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2쪽 ¶5 끝 두 문장	is more difficult. So, too, is the choice between helping humans and reducing …	So + be동사 + 주어 도치
★	132쪽 ¶6 둘째 문장	GiveWell and The Life You Can Save … the Against Malaria Foundation … the SCI Foundation	고유명사 — 내용 일치
★	133쪽 첫 줄	GiveDirectly, which will transfer at least 90 cents of every dollar you give	숫자 — 서답형 후보
★	133쪽 ¶1 첫~둘째 문장	"Effective altruism," as this evidence-based approach to charity is known … the biggest possible positive difference	개념 정의 · 요약 1순위

내용

이 물음에 답하려고 저자는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새 별관까지 포함해 미술관을 보러 가는 것과 별관은 보지 않고 미술관만 보는 것 가운데 고를 수 있다면, 당연히 별관과 함께 보는 쪽을 고를 것이다. 그런데 사악한 악마가 새 별관을 보는 사람 100명마다 한 명을 무작위로 골라 15년 동안 앞을 못 보게 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그래도 별관을 보러 가겠는가? 제정신이라면 가지 않을 것이다. 저자의 판단으로는, 그리고 독자도 그러리라고 저자가 장담하듯이, 악마가 1,000명 가운데 한 명만 실명시킨다 해도 별관을 보는 것은 그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없다. 이에 동의한다면 사실상 한 사람이 실명하는 해악이 1,000명이 새 별관을 관람해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말하는 셈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실명을 막는 기부는 1,000명이 별관을 관람하게 하는 기부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런데 트라코마를 막는 단체에 낸 기부는, 같은 돈이 미술관에서 1,000명에게 더 나아진 관람을 줄 때마다 한 명이 아니라 열 명의 실명을 막는다. 그러므로 트라코마 예방 기부는 미술관에 내는 것보다 적어도 열 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익을 비교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판단할 때 경제학자들이 쓰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작은 위험에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므로 이 방법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그래서 안전띠를 매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도 지금 다루는 경우를 포함해 많은 경우에 답은 충분히 분명하다. 물론 이것은 자선 분야 사이에서 고르는 방법의 한 예일 뿐이며, 비교적 쉬운 선택도 훨씬 어려운 선택도 있다. 대체로 인간의 복지에 관해서라면, 개발도상국의 극빈층을 도울 때 더 많은 것을 이룬다. 그곳에서는 같은 돈이 훨씬 더 멀리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돕는 것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 애써 그들과 모든 미래 세대를 돕는 것 사이의 선택은 더 어렵다. 인간을 돕는 것과 우리가 인간 아닌 동물에게 가하는 엄청난 고통을 줄이는 것 사이의 선택도 그렇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분야 안에서 어느 자선 단체가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낼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GiveWell, The Life You Can Save 같은 독립적인 자선 단체 평가 기관 덕분에, 이를테면 말라리아 퇴치 재단(Against Malaria Foundation)에 낸 기부가 생명을 구하고 말라리아 발생을 줄이리라는 것, SCI 재단(누구나 발음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기 전 이름은 Schistosomiasis Control Initiative)에 낸 기부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소외 열대 질환, 특히 기생충이 일으키는 질환의 발생을 줄이리라는 것을 높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현금을 주고 받는 사람이 쓸 곳을 정하게 하는 방식이 좋다면, 낸 돈 1달러마다 적어도 90센트를 소득이 아주 낮은 아프리카 가정에 보내는 GiveDirectly가 있다. 후속 연구들은 이런 현금 지원이 받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근거에 기반한 이런 자선 방식을 '효과적 이타주의'라고 부르며, 이는 국제적인 운동이다. 이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재능과 자원을 써서 세상에 가능한 한 가장 큰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 어느 분야가 시간과 돈에 비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는 일은 아직 비교적 새롭지만, 더 많은 효과적 이타주의자가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실제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법

- **imagine that an evil demon declares that out of every 100 people who see the new wing, he will choose one, at random, and inflict 15 years of blindness on that person** : imagine that절 안에 declares that절이 들어 있다. out of every 100 people = 100명마다. will choose와 (will) inflict가 and로 병렬. inflict A on B = B에게 A를 가하다.
- **Even if the evil demon blinded only one person in every 1,000, in my judgment, and I bet in yours, seeing the new wing still would not be worth the risk** : Even if + 과거(blinded) → 주절 would not be = 가정법 과거(사실이 아닌 상황을 가정). seeing = 동명사 주어 → 단수. be worth + 명사 = ~할 가치가 있다. in my judgment = 저자의 판단임을 밝히는 삽입.
- **you are saying, in effect, that the harm of one person's becoming blind outweighs the benefits received by 1,000 people visiting the new wing** : of 뒤 동명사(becoming), one person's = 의미상 주어. received by = benefits를 꾸미는 과거분사. visiting = people을 꾸미는 현재분사. harm(단수) → outweighs. in effect = 사실상.
- **your donation ... will save not just one but 10 people from becoming blind for every 1,000 people it could provide with an enhanced museum experience** : not just A but B = A뿐 아니라 B. save + O + from -ing = O가 ~하지 않게 하다. people (that) it could provide with ~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provide A with B의 A가 선행사).
- **It's open to criticism because many people appear to have irrational attitudes toward the small risks of very bad things happening** : be open to = ~의 여지가 있다. appear to V = ~인 것 같다(단정 아님). risks of + 명사(very bad things) + -ing = 동명사 happening의 의미상 주어가 소유격이 아닌 보통 명사 형태로 앞에 놓였다(things happening).
- **we will achieve more if we help those in extrem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s our dollars go much further there** : those in ~ = ~에 놓인 사람들. as = 이유의 접속사. much + 비교급(further) 강조. go further = (돈이) 더 많은 것을 해내다.
- **So, too, is the choice between helping humans and reducing the vast amount of suffering we inflict on nonhuman animals** : So + be동사 + 주어 = 앞 문장(is more difficult)을 받아 '~도 그렇다'(도치). between A and B에 동명사 둘. suffering (that) we inflict on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Not content with merely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its adherents want to use their talents and resources to make the biggest possible positive difference to the world** : (Being) Not content with =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에 만족하지 않고). make + O + 보어(a better place). make a difference to = ~에 변화를 가져오다. the biggest possible = 가능한 한 가장 큰.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hought experiment	사고 실험	—	—
at random	무작위로	randomly	deliberately
inflict A on B	B에게 A를 가하다	impose	spare
outweigh	~보다 더 무겁다, 크다	exceed	fall short of
irrational	비합리적인	unreasonable	rational
legislation	법률, 입법	law	—
welfare	복지	well-being	—
emission	배출	discharge	absorption
evaluator	평가하는 사람(기관)	assessor	—
neglected	소외된, 방치된	overlooked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arasite	기생충	—	—
recipient	받는 사람	receiver	donor
adherent	지지자, 따르는 사람	follower	opponent
altruism	이타주의	selflessness	selfishness

내용 일치 사고 실험 = 악마가 별관 관람객 100명마다 한 명을 무작위로 골라 15년 실명 · 1,000명에 한 명이어도 가치 없음 = '저자의 판단, 그리고 독자도 그러리라는 장담'(in my judgment, and I bet in yours) · 한 사람의 실명 > 1,000명의 별관 관람 · 트라코마 기부 = 1,000명의 관람마다 10명의 실명을 막음 → 적어도 10배 · 방법 = 경제학자들이 쓰는 것 · 약점 = 작은 위험에 비합리적 태도를 보이는 '듯함'(appear) · 안전띠 법 · 그래도 이 경우 답은 충분히 분명 · 극빈층을 도우면 더 많이 이룸 · 기후(온실가스) · 동물 사이 선택은 더 어려움 · 평가 기관 = GiveWell · The Life You Can Save · 말라리아 퇴치 재단 · SCI 재단 = 아주 적은 비용 · 소외 열대 질환(특히 기생충) · GiveDirectly = 1달러마다 적어도 90센트 · 아프리카 가정 · 후속 연구 = 장기적 이익 · 효과적 이타주의 = 근거 기반 · 국제적 운동. **밑줄 의미** You'd have to be nuts = 실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별관을 보러 가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하지 않을 일 / our dollars go much further there = 같은 돈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많은 선을 이룰 수 있다 / something that everyone can pronounce = 원래 이름(Schistosomiasis)이 발음하기 어려웠다는 저자의 농담 / 133쪽 ¶1 its adherents = 효과적 이타주의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

> **한 줄 요약** 한 사람의 실명이 1,000명의 관람보다 무겁다는 사고 실험으로 트라코마 기부가 적어도 열 배의 가치가 있음을 보인 저자는, 방법의 한계와 더 어려운 선택도 인정하면서 독립 평가 기관과 효과적 이타주의 덕분에 근거에 따라 기부처를 고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5-3 사례와 반론 — 기록적인 경매, 투자인가 생각에 대한 도전인가 137쪽 ¶1 ~ 138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37쪽 ¶1 ~ 138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7쪽 ¶1 첫 문장	In May 2014, Christie's New York salesroom sold $745 million worth of postwar and contemporary art	연도 · 숫자 — 서답형 1순위
▲	137쪽 ¶1 첫 문장	the highest total that it had ever reached in a single auction	최상급 + that + 과거완료
▲	137쪽 ¶1 둘째 문장	Among the higher-priced works sold were paintings by … each of which sold for more than $60 million	전치사구 문두 → 동사 · 주어 도치 · each of which
★	137쪽 ¶1 셋째 문장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Asian collectors played a significant part in boosting prices.	출처 — 단정 선지 함정
◆	137쪽 ¶2 첫 문장	No doubt some buyers regard their purchases as an investment	반론 1 — 투자라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7쪽 ¶2 둘째 문장	whether the price they paid was excessive or modest will depend on how much the market will be willing to pay	whether절 주어 · 간접의문문
●	137쪽 ¶2 둘째 문장	excessive or modest	어휘 반전: excessive ↔ modest
★	137쪽 ¶3 첫 문장	But if profit is not the motive, why would anyone want to pay tens of millions of dollars	중심 물음
▲	137쪽 ¶3 둘째 문장	They are not beautiful, nor do they display great artistic skill.	nor + 조동사 + 주어 도치
★	137쪽 ¶3 다섯째 문장	Once Newman had an idea, it seems, he liked to work out all of the variations	삽입 it seems — 추측
★	137쪽 ¶3 끝 두 문장	$84 million … Marilyn Monroe by Andy Warhol … $41 million	숫자 · 인물 — 내용 일치
★	137쪽 ¶4 첫 문장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paid $45 million for a small Madonna and Child by Duccio	숫자 · 작품
▲	137쪽 ¶4 둘째 문장	better things that the donors who financed the purchase could have done with their money	could have p.p. · 관계절 겹침
★	137쪽 ¶4 끝 세 문장	beautifully executed and 700 years old … None of that applies to Newman or Warhol.	대비 — 두초와 다른 점
◆	137쪽 ¶5 첫~둘째 문장	the importance of postwar art lies in its ability to challenge our ideas. That view was firmly expressed by Jeff Koons	반론 2 — 쿤스의 견해
★	137쪽 ¶5 셋째~넷째 문장	In a 1987 interview … "the 'Jim Beam' work" … an oversized stainless steel toy train filled with bourbon	연도 · 작품 — 서답형 후보

내용

2014년 5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장은 전후 · 현대 미술품을 7억 4,500만 달러어치 팔았다. 이 경매장이 한 번의 경매에서 올린 가장 높은 총액이었다. 비싸게 팔린 작품 가운데에는 바넷 뉴먼, 프랜시스 베이컨, 마크 로스코, 앤디 워홀의 그림이 있었고, 이들은 각각 6,000만 달러 넘게 팔렸다. 『New York Times』에 따르면 아시아 수집가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큰 몫을 했다. 어떤 구매자들은 틀림없이 이 구매를 주식이나 부동산, 금괴처럼 투자로 여길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치른 값이 지나쳤는지 적당했는지는 앞으로 언젠가 시장이 그 작품에 얼마를 낼 용의가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익이 동기가 아니라면, 왜 이런 작품에 수천만 달러를 내려 하는가? 저자가 보기에 이 작품들은 아름답지도 않고 대단한 예술적 솜씨를 보여 주지도 않는다. 그 화가들의 작품 가운데에서 특이한 것조차 아니다. '바넷 뉴먼'을 이미지로 검색해 보면, 대개 가는 선으로 나뉜 세로 색 띠가 있는 그림이 많이 나온다. 뉴먼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그 변형을 모두 해

보기를 좋아했던 것 같다. 지난달 누군가가 그 변형 가운데 하나를 8,400만 달러에 샀다. 워홀이 그린 마릴린 먼로의 작은 그림 하나(이것도 여러 점이 있다)는 4,100만 달러에 팔렸다. 그보다 10년 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두초의 작은 「성모자」를 4,500만 달러에 샀다. 저자는 그 뒤 『The Life You Can Save』에서 그 구매에 돈을 댄 기부자들이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더 나은 일이 있었다고 썼고, 지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의 성모자는 아름답게 그려졌고 700년이 되었다. 두초는 서양 미술사의 중요한 전환기에 활동한 주요 인물이며 그의 그림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뉴먼이나 워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쩌면 전후 미술의 중요성은 우리의 생각에 도전하는 능력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견해를 굳게 밝힌 사람이 기록을 세운 2014년 크리스티 경매에 작품이 나온 화가 가운데 하나인 제프 쿤스다. 쿤스는 1987년 미술 평론가들과 한 인터뷰에서 나중에 그 경매에서 팔린 작품을 언급하며 그것을 '짐 빔 작품'이라고 불렀다. 쿤스는 버번위스키를 채운 커다란 스테인리스강 장난감 기차인 이 작품을 「사치와 타락(Luxury and Degradation)」이라는 전시회에 내놓았는데, 『New York Times』에 따르면 이 전시회는 한창 잘나가던 1980년대의 '천박함, 과잉, 사치의 위험'을 살핀 것이었다.

어법

- **In May 2014, Christie's New York salesroom sold $745 million worth of postwar and contemporary art, the highest total that it had ever reached in a single auction** : 금액 + worth of = ~어치의. 쉼표 뒤 명사구(the highest total ...) = 앞 절 내용과 동격. 최상급 + that + had ever p.p. = 그때까지 ~한 것 가운데 가장. it = 그 경매장.
- **Among the higher-priced works sold were paintings by Barnett Newman, Francis Bacon, Mark Rothko, and Andy Warhol, each of which sold for more than $60 million** : 범위의 전치사구(Among ...)가 문두 → 동사(were) + 주어(paintings) 도치, 주어가 복수라 were. sold(앞) = works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 each of which = 수량 + of + 관계대명사(계속적).
- **In that case, whether the price they paid was excessive or modest will depend on how much the market will be willing to pay for the work at some future date** : whether절이 주어 — 단수 취급(조동사 will이라 형태로는 드러나지 않음). the price (that) they pai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on + 간접의문문(how much ...).
- **They are not beautiful, nor do they display great artistic skill** : 부정문 뒤 nor + 조동사(do) + 주어(they) 도치 = ~도 아니다. They = 수천만 달러에 팔린 작품들.
- **Do an image search for "Barnett Newman" and you will see many paintings with vertical color bars, usually divided by a thin line** : 명령문 + and = ~하면 …할 것이다(조건). divided by = bars를 꾸미는 과거분사.
- **Once Newman had an idea, it seems, he liked to work out all of the variations** : Once = 일단 ~하면(접속사). it seems = 삽입(그런 것 같다 — 단정 아님). work out = 하나하나 해 보다.
- **I wrote that there were better things that the donors who financed the purchase could have done with their money** : things를 꾸미는 that절(목적격) 안에 donors를 꾸미는 who절이 겹쳐 있다. could have p.p. = ~할 수 있었다(그러나 하지 않았다).
- **Perhaps, though, the importance of postwar art lies in its ability to challenge our ideas** : 주어 importance(단수) → lies. lie in = ~에 있다. ability to V = 형용사적 to부정사. Perhaps · though = 반론을 들여오는 표지.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alesroom	경매장	auction house	—
contemporary	현대의, 동시대의	modern	—
boost	끌어올리다	raise	lower
investment	투자	—	—
excessive	지나친	extravagant	modest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odest	적당한, 많지 않은	moderate	excessive
motive	동기	incentive	—
oeuvre	(한 작가의) 전 작품	body of work	—
vertical	세로의, 수직의	upright	horizontal
variation	변형	version	—
finance (v.)	자금을 대다	fund	—
execute	(작품을) 만들어 내다	render	—
transitional	과도기의	intermediate	—
oversized	특대의	huge	undersized

내용 일치 2014년 5월 · 크리스티 뉴욕 · 전후 · 현대 미술 7억 4,500만 달러 = 한 번 경매 최고 총액 · 뉴먼 · 베이컨 · 로스코 · 워홀 = 각각 6,000만 달러 넘게 · 아시아 수집가 = 『New York Times』에 '따르면' · 투자라면 = 앞으로의 시장 가격에 달림 · 아름답지도 솜씨도 아님 = 저자의 평가 · 세로 색 띠 · 변형을 모두 해 보기를 좋아한 '것 같다'(it seems) · 지난달 8,400만 달러 · 마릴린 먼로 4,100만 달러 · 10년 전 메트로폴리탄 = 두초의 작은 「성모자」 4,500만 달러 · 『The Life You Can Save』(저자의 책)에서 비판 · 생각은 그대로 · 700년 · 남은 그림이 거의 없음 · 쿤스 = 전후 미술은 생각에 도전한다(쿤스의 견해) · 1987년 인터뷰 · 짐 빔 작품 = 버번을 채운 스테인리스강 장난감 기차 · 「사치와 타락」 전시회. **지칭** 137쪽 ¶1 it(it had ever reached) = 크리스티 뉴욕 경매장 / each of which = 네 화가의 그림 / ¶2 they(the price they paid) = 그림을 투자로 여기는 구매자들 / ¶3 They(They are not beautiful) = 그 작품들 · he = 뉴먼 / ¶4 their money = 기부자들의 · his paintings = 두초의 · None of that = 아름다운 솜씨 · 700년 · 전환기의 주요 인물 · 드물게 남은 그림 / ¶5 That view = 전후 미술의 중요성은 생각에 도전하는 능력에 있다는 견해 · it(calling it) = 나중에 그 경매에서 팔린 작품.

> **한 줄 요약** 2014년 크리스티 경매의 기록적인 가격을 두고 저자는 투자가 아니라면 아름답지도 특이하지도 않은 작품에 왜 그런 돈을 내는지 묻고, 두초의 성모자가 지닌 아름다움 · 700년 · 희소성마저 없다고 본 뒤 전후 미술이 생각에 도전한다는 쿤스의 견해를 검토하기 시작한다.

5-4 쿤스의 말과 저자의 반박, 창작의 가치와 '지위'를 다시 정의하자는 결론 138쪽 ¶1 ~ ¶7

원문 위치 원서 138쪽 ¶1 ~ ¶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8쪽 ¶1 첫 문장	the Jim Beam work "used the metaphors of luxury to define class structure."	인용 — 쿤스의 말
▲	138쪽 ¶1 둘째 문장	asked him how his "socio-political intention" related to the politics of then-President Ronald Reagan	ask + IO + 간접의문문 · then-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8쪽 ¶1 셋째 문장	social mobility is collapsing … we're down to low and high only. … My work stands in opposition to this trend.	쿤스의 주장 — 저자의 주장 아님
◆	138쪽 ¶2 첫~셋째 문장	Art as a critique of luxury and excess! … How noble and courageous that sounds.	반어 — 밑줄 의미 후보 · How 감탄문
◆	138쪽 ¶2 넷째 문장	co-opting any radical demands … and turning it into another consumer good for the super-rich	밑줄 의미 1순위 · have no difficulty (in) -ing
★	138쪽 ¶2 다섯째 문장	the toy train filled with bourbon sold for $33 million	숫자 — 서답형 1순위
▲	138쪽 ¶3	If artists, art critics, and art buyers really had any interest …, they would be focusing	가정법 과거(진행형)
★	138쪽 ¶3	spending a few thousand dollars on the purchase of works by indigenous artists could make a real difference to the well-being of entire villages	저자의 대안 — 통합 사고 근거
◆	138쪽 ¶4 첫 문장	Nothing I have said here counts against the importance of creating art.	저자의 단서 — 오해 막기
●	138쪽 ¶4 둘째 문장	our lives would be poorer without them	어휘 반전: poorer ↔ richer
▲	138쪽 ¶4 셋째 문장	even when they are struggling to satisfy their basic physical needs	양보의 even when
★	138쪽 ¶5 둘째 문장	it would not be hard to argue that sky-high prices have a corrupting influence	조심스러운 주장 — 단정 선지 함정
★	138쪽 ¶6 첫 문장	my guess is that they think that owning original works by well-known artists will enhance their own status	저자의 짐작(my guess)
★	138쪽 ¶6 둘째 문장	a redefinition of status along more ethically grounded lines	주장 1순위
▲	138쪽 ¶7 첫 문장	to spend tens of millions of dollars on works of art would be status-lowering, not status-enhancing	to부정사 주어 · 가정의 would
★	138쪽 ¶7 둘째 문장	five million children die each year because they lack safe drinking water or mosquito nets	숫자 — 내용 일치

내용

그 인터뷰에서 쿤스는 짐 빔 작품이 '사치의 은유를 써서 계급 구조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평론가 헬레나 콘토바가 그의 '사회 정치적 의도'가 당시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정치와 어떻게 관련되느냐고 묻자, 쿤스는 '레이건주의 아래에서 사회적 이동성이 무너지고 있으며, 저소득 · 중소득 · 고소득으로 이루어진 구조 대신 저소득과 고소득만 남게 되었다. … 내 작품은 이 흐름에 맞선다'고 답했다. 사치와 과잉을 비판하는 예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벌어지는 격차에 맞서는 예술! 얼마나 고귀하고 용감하게 들리는가. 그러나 미술 시장은 예술 작품이 내세우는 어떤 급진적 요구라도 거뜬히 끌어안아, 그것을 초부유층을 위한 또 하나의 소비재로 바꾸어 버린다. 크리스티가 쿤스의 작품을 경매에 내놓았을 때 버번을 채운 장난감 기차는 3,300만 달러에 팔렸다. 화가와 평론가, 미술품 구매자들이 실제로 빈부 격차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다면 개발도상국에 힘을 쏟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원주민 화가들의 작품을 사는 데 몇천 달러만 써도 마을 전체의 웰빙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의 말이 예술 창작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일은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일처럼 중요한 자기표현의 형식이며, 그것이 없다면 우리 삶은 더 빈약해질 것이다. 모든 문화에서, 온갖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인 신체적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와중에도 예술을 만든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북돋우려고 구매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치솟은 가격이 예술적 표현을 타락시키는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구매자들이 왜 이런 터무니없는 돈을 내는지에 대해 저자는, 유명 화가의 원작을 가지면 자기 지위가 높아진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변화를 이룰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지위를 더 윤리적인 근거에 따라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더 윤리적인 세상이라면 미술품에 수천만 달러를 쓰는 것은 지위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낮추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행동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안전한 식수나 모기장이 없어서, 또는 홍역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해서 해마다 어린이 500만 명이 죽는 세상에서, 당신은 그 돈으로 할 더 나은 일을 찾을 수 없었는가?'

어법

- The critic Helena Kontova then asked him how his "socio-political intention" related to the politics of then-President Ronald Reagan : ask + IO(him) + DO(간접의문문 how + S + V). The critic Helena Kontova = 동격. then- = 당시의(then-President = 당시 대통령).
- instead of a structure composed of low, middle, and high income levels, we're down to low and high only : composed of = structure를 꾸미는 과거분사(~로 이루어진). be down to = (줄어서) ~만 남다. instead of + 명사구.
- How noble and courageous that sounds. : How + 형용사 + 주어 + 동사 = 감탄문. sound + 형용사 보어. 뒤에 But이 이어져 반어(들리기만 그렇다)가 된다.
- But the art market has no difficulty in co-opting any radical demands that a work of art makes, and turning it into another consumer good for the super-rich : have no difficulty (in) -ing = 어렵지 않게 ~하다. co-opting과 turning이 in에 함께 걸려 병렬. demands that a work of art makes =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turn A into B = A를 B로 바꾸다.
- If artists, art critics, and art buyers really had any interest in reducing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y would be focusing their efforts on developing countries : 가정법 과거(had → would be focusing): 지금 사실과 반대 — 실제로는 관심이 없다는 함의. would be -ing = 가정법의 진행형. interest in + 동명사.
- Drawing, painting, and sculpting, like singing or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are significant forms of self-expression, and our lives would be poorer without them : 동명사 주어 셋 → 복수 동사 are. like ~ = 삽입된 비교(~처럼). without them → would be = 가정(그것들이 없다면).
- But we don't need art buyers to pay millions of dollars to encourage people to do that : need + O + to V = O가 ~할 필요가 있다. to encourage = 목적. encourage + O + to V. do that = 예술을 만드는 것.
- In a more ethical world, to spend tens of millions of dollars on works of art would be status-lowering, not status-enhancing : to부정사 주어(to spend …) — 단수 취급(would라 형태로는 드러나지 않음). In a more ethical world = 조건을 대신하는 부사구 → would. A, not B = B가 아니라 A. spend A on B.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etaphor	은유	symbol	—
mobility	이동성	movement	immobility
critique	비판	criticism	praise
excess	과잉, 지나침	extravagance	moderation
courageous	용감한	brave	cowardly
co-opt	끌어들여 제 것으로 삼다	absorb	—
radical	급진적인	revolutionary	conservative
indigenous	원주민의, 토착의	native	foreign
self-expression	자기표현	—	—
sky-high	치솟은	soaring	rock-bottom
corrupting	타락시키는	degrading	uplifting
outlandish	터무니없는	outrageous	reasonable
status	지위	standing	—
immunize	예방 접종하다	vaccinate	—

내용 일치 짐 빔 작품 = 사치의 은유로 계급 구조를 규정(쿤스의 말) · 콘토바의 물음 = 사회 정치적 의도와 당시 대통령 레이건의 정치 · 사회적 이동성 붕괴 · 저소득과 고소득만 남음 · 내 작품은 이 흐름에 맞선다 = 쿤스의 주장 · 고귀하고 용감하게 '들린다' = 반어 · 시장은 급진적 요구도 초부유층의 소비재로 · 3,300만 달러 · 실제로 관심이 있다면 개발도상국 · 원주민 화가 · 몇천 달러 = 마을 전체의 웰빙 · 예술 창작의 중요성은 부정하지 않음 · 기본적 필요를 채우기 힘들어도 예술을 만듦 · 수백만 달러는 필요 없음 · 치솟은 가격의 타락시키는 영향 = 주장하기 '어렵지 않을 것'(would not be hard to argue) · 지위를 높인다고 생각한다 = 저자의 '짐작'(my guess) · 해마다 어린이 500만 명 · 식수 · 모기장 · 홍역. **밑줄 의미** How noble and courageous that sounds = 들리기는 훌륭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반어 / turning it into another consumer good for the super-rich = 부자를 비판하는 작품마저 부자가 사는 비싼 물건이 된다 / do that(138쪽 ¶5) = 예술을 만드는 것 / a redefinition of status along more ethically grounded lines = 큰돈을 들인 미술품 구매가 지위를 높이는 대신 낮추도록 지위의 기준을 바꾸는 것.

> **한 줄 요약** 저자는 빈부 격차에 맞선다는 쿤스의 작품마저 초부유층의 소비재로 팔렸다고 짚고, 예술 창작의 가치는 인정하되 치솟은 가격은 필요 없다고 본 뒤, 지위를 윤리적으로 다시 정의해 비싼 미술품 구매가 지위를 낮추게 하자고 제안한다.

5-5 얕은 연못의 논증과 물음, 사례 1 — 와이즈와 브라운-웨일 139쪽 ¶1 ~ 140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39쪽 ¶1 ~ 140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9쪽 ¶1 첫 문장	Fifty years ago, in an essay entitled "Famine, Affluence, and Morality,"	시점 · 글 제목
▲	139쪽 ¶1 첫 문장	invited readers to imagine that they are walking past a shallow pond when they see a small child who has fallen in and seems to be drowning	invite + O + to V · be -ing when
◆	139쪽 ¶1 둘째~셋째 문장	your expensive new shoes would be ruined. Would it be wrong to ignore the child and walk on?	사례 — 순서 배열의 출발
★	139쪽 ¶2 첫 문장	they are usually unanimous in saying that it would be wrong to put one's shoes first	usually 살리기 — True/False 후보
▲	139쪽 ¶2 둘째 문장	I then point out that by donating to a charity that protects children … we can all save a child's life	by + -ing · protect A from B
▲	139쪽 ¶3 첫 문장	having saved one child by donating to an effective charity	완료 분사구문
◆	139쪽 ¶3 첫 문장	another, and another, and another	밑줄 의미 — 끝없는 요구
▲	139쪽 ¶3 둘째 문장	giving until giving more would make us as poor as those we are helping	as ~ as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139쪽 ¶4 첫~둘째 문장	Larissa MacFarquhar's remarkable book, Strangers Drowning … a highly demanding moral standard	인물 · 책 — 서답형 후보
▲	139쪽 ¶5 첫 문장	she should not care more for her own well-being than for anyone else's	비교 대상 맞추기(for A than for B)
▲	139쪽 ¶5 둘째 문장	the money Julia would pay for ice cream, it would be better if she gave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가정법
★	139쪽 ¶5 셋째~넷째 문장	charities like Oxfam … a large part of what they earned—currently it's about half of their income	what절 · 숫자 — 어법 · 내용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39쪽 ¶6 첫 문장	a pastor at a church in Essex, Maryland … a young woman who needed a kidney transplant	직업 · 장소
●	139쪽 ¶6 셋째 문장	she turned out not to be a good match	어휘 반전 후보 · 삽입 문항의 고리
▲	139쪽 ¶6 넷째 문장	She agreed, joining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donate their kidneys to strangers.	결과의 분사구문
★	139쪽 ¶6 끝 문장	(I know of one, Chris Croy, who was prompted to do so by a philosophy class discussion	인물 · 수동 be prompted to V

내용

50년 전 저자는 「기근, 풍요, 그리고 도덕(Famine, Affluence, and Morality)」이라는 글에서, 얕은 연못 옆을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듯한 어린아이를 보는 장면을 독자에게 상상해 보게 했다. 아이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러면 비싼 새 신발이 망가진다. 아이를 못 본 체하고 계속 걸어가는 것은 잘못일까? 저자가 청중에게 이 물음에 손을 들어 답해 달라고 하면, 대개 신발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만장일치로 답한다. 그러면 저자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말라리아, 설사, 홍역, 영양 부족에서 지켜 주는 자선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우리 모두 아이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짚는다. 이것은 단순한 논증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자선 단체에 기부해 한 아이를 구하고 나면 또 한 아이, 또 한 아이, 또 한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단순하지 않게 된다. 또 한 생명을 구하려고 사치품에 쓰는 돈을 모두 끊고, 더 주면 우리가 돕는 사람들만큼 가난해질 때까지 주어야 하는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저자의 예는 라리사 맥파쿼의 주목할 만한 책 『Strangers Drowning』의 제목에 메아리친다. 이 책의 핵심은 아주 엄격한 도덕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인물 소개다. 줄리아 와이즈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다면 자기 웰빙을 다른 누구의 웰빙보다 더 아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자기가 아이스크림에 쓸 돈으로 다른 누군가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돈을 그 사람에게 주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다. 줄리아는 옥스팜 같은 자선 단체에 저축한 돈을 내기 시작했다. 제프 카우프먼과 사랑에 빠졌을 때 두 사람은 버는 돈의 큰 부분을 함께 기부하기로 했고, 지금은 그것이 소득의 약 절반이다. 메릴랜드주 에식스의 한 교회 목사였던 킴벌리 브라운-웨일은 신장 이식이 필요한 젊은 여성에 관한 뉴스를 보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전화를 걸어 자기 신장 하나를 내놓겠다고 했다. 그 여성과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 간호사가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동의했고, 낯선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흐름에 함께했다. 저자는 그런 사람 가운데 「기근, 풍요, 그리고 도덕」을 다룬 철학 수업의 토론을 계기로 기증한 크리스 크로이를 알고 있다.

어법

- **I invited readers to imagine that they are walking past a shallow pond when they see a small child who has fallen in and seems to be drowning** : invite + O + to V. be -ing ~ when S + V = ~하고 있는데 그때 …하다. 상상 속 장면이라 현재 시제. has fallen in과 seems to be drowning이 병렬. seem to be -ing = ~하고 있는 것 같다.
- **When I ask audiences for a show of hands on that question, they are usually unanimous in saying that it would be wrong to put one's shoes first** : be unanimous in -ing = 한목소리로 ~하다. usually = 늘 그렇다는 말이 아님. 가주어 it + 진주어 to put. put A first = A를 우선하다.
- **I then point out that by donating to a charity that protects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malaria, diarrhea, measles, or inadequate nutrition, we can all save a child's life** : point out that = ~라고 짚다. by + 동명사 = ~함으로써. protect A from B. we can all = all이 조동사 뒤에서 주어 we를 받는다(우리 모두).

- **having saved one child by donating to an effective charity, we have the opportunity to save another, and another, and another** : having p.p. = 완료 분사구문(주절보다 먼저 일어난 일 = after we have saved). opportunity to V = 형용사적 to부정사.
- **Must we stop all spending on luxuries, so that we can save yet another life, giving until giving more would make us as poor as those we are helping?** : so that + can = ~할 수 있도록(목적). giving = 분사구문(그렇게 주면서). until 뒤 giving more = 동명사 주어. as poor as = 원급 비교. those (whom) we are helping.
- **she should not care more for her own well-being than for anyone else's** : 비교 대상을 전치사까지 맞춤(for A than for B). anyone else's = anyone else's well-being(반복을 피한 소유격).
- **When she fell in love with Jeff Kaufman, they agreed that they would both donate a large part of what they earned—currently it's about half of their income** :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그들이 버는 것) — 선행사가 없으므로 which로 바꾸면 틀린다. would = 과거 시점에서 본 미래(시제 일치). 대시 뒤 it = 그들이 기부하는 몫.
- **Though she turned out not to be a good match for the young woman, a nurse asked her if she would be willing to donate her kidney to someone else** : turn out (not) to V = ~(아닌) 것으로 드러나다 — to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to 앞에. ask + O + if절(~인지). be willing to V = 기꺼이 ~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amine	기근	starvation	abundance
affluence	풍요	wealth	poverty
shallow	얕은	—	deep
unanimous	만장일치의	of one mind	divided
diarrhea	설사	—	—
inadequate	부족한, 불충분한	insufficient	adequate
luxury	사치(품)	extravagance	necessity
echo (v.)	되울리다, 메아리치다	reflect	—
profile (n.)	인물 소개	portrait	—
demanding	엄격한, 많은 것을 요구하는	exacting	undemanding
derive A from B	B에서 A를 얻다	obtain	—
pastor	목사	minister	—
transplant	이식	graft	—
prompt (v.)	~하게 하다, 자극하다	spur	discourage

내용 일치 50년 전 · 「기근, 풍요, 그리고 도덕」 · 얕은 연못 · 익사하는 '듯한'(seems) 아이 · 비싼 새 신발 · 청중 = '대개' 만장일치(usually unanimous) · 말라리아 · 설사 · 홍역 · 영양 부족 · 한 아이 다음에 또 한 아이 = 단순한 논증이 단순하지 않게 되는 지점 · 사치품 지출을 모두 끊어야 하는가 = 저자가 던진 물음(이 대목에서 답을 단정하지 않음) · 맥파쿼의 『Strangers Drowning』 = 아주 엄격한 도덕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물 소개 · 줄리아 와이즈 = 어린 시절부터 · 아이스크림 · 옥스팜 · 제프 카우프먼 · 지금은 소득의 약 절반 · 킴벌리 브라운-웨일 = 메릴랜드주 에식스 교회 목사 ·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장 제공 · 그 여성과는 맞지 않음 · 간호사의 제안 · 낯선 사람에게 신장 기증 · 크리스 크로이 = 철학 수업 토론이 계기. **지칭** 139쪽 ¶1 they = 독자들 / ¶2 they(they are usually unanimous) = 청중 / ¶3 those we are helping = 우리가 기부로 돕는 사람들 / ¶4 her book = 맥파쿼의 책 / ¶5 she · Julia = 줄리아 와이즈 · that person = 아이스크림 값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사람 · they(they agreed) = 줄리아와 제프 / ¶6 she · her = 브라운-웨일 · one(I know of one) = 낯선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람.

한 줄 요약 얕은 연못의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저자의 논증은 기부로 아이를 계속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주어야 하느냐는 물음을 낳고, 맥파쿼의 책은 소득의 약 절반을 기부하는 와이즈 부부와 낯선 사람에게 신장을 준 브라운-웨일처럼 엄격한 도덕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5-6 사례 2와 저자의 답 – 우리는 왜 선행가를 불편해하는가 140쪽 ¶1 ~ ¶4

원문 위치 원서 140쪽 ¶1 ~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0쪽 ¶1 첫 문장	Baba Amte, the son of a wealthy Indian landowner, encountered a dying leper	인물 · 동격
▲	140쪽 ¶1 둘째 문장	overcame his initial disgust and fear of catching the disease and shielded the leper from the rain	fear of + 동명사 · 동사 병렬
▲	140쪽 ¶1 셋째 문장	The experience stayed with him, leading him to found a leper colony	결과의 분사구문 · lead + O + to V · found
●	140쪽 ¶1 넷째 문장	living there in a thriving community	어휘 반전: thriving ↔ declining
★	140쪽 ¶1 끝 두 문장	several thousand lepers and people with other disabilities … his sons carried on his work	숫자 · 내용 일치
★	140쪽 ¶2 첫 문장	Sue Hoag was 12 when she read a book about a family that adopted several needy children	숫자 – 서답형 후보
▲	140쪽 ¶2 셋째 문장	could not shut out the knowledge that other children were in desperate need of a good home	동격 that
★	140쪽 ¶2 셋째 문장	unlikely to be adopted because of a disability or their race, age, or a history of violence	내용 일치 · 무관한 문장 자리
★	140쪽 ¶2 넷째 문장	not at all wealthy … a family of 20 adopted children, as well as their two biological children	숫자 – 20과 2 혼동 주의
★	140쪽 ¶3 첫 문장	Bernard Mandeville, Adam Smith, Immanuel Kant, Charles Darwin, and Sigmund Freud	인물 – 내용 일치
★	140쪽 ¶3 둘째 문장	Many of these thinkers were hostile to altruism, or even denied that it exists	True/False 뒤집기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0쪽 ¶3 셋째 문장	some people not only profess, but also live by, extremely demanding moral principles	not only A but also B · 목적어 공유
◆	140쪽 ¶3 넷째 문장	why don't we just admire people who do so much for others, rather than dismiss them as "weird"?	제목 · 요지의 물음
◆	140쪽 ¶4 첫 문장	The answer may be that … a standing reproach to our own way of life	저자의 답(may 살리기) · 밑줄 의미
▲	140쪽 ¶4 셋째 문장	If we could believe that all altruists are hypocrites, we would not feel so bad	가정법 과거
★	140쪽 ¶4 끝 세 문장	for no reward other than the knowledge … But that is not why they do it.	보람은 동기가 아님 — 매력적 오답 자리

내용

어느 비 오는 밤, 인도의 부유한 지주의 아들 바바 암테는 죽어 가는 한센병 환자를 만났다. 바바는 처음 느낀 혐오감과 병이 옮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 내고 그 환자를 비로부터 막아 주었다. 이 경험은 그의 마음에 남아 결국 한센병 환자들의 공동체를 세우게 했다. 몇 년 만에 수천 명의 한센병 환자와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번창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었다. 바바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이어 갔다. 수 호그는 열두 살 때 도움이 필요한 아이 여럿을 입양한 가족에 관한 책을 읽었고, 그때부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 헥터 바도를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아이 둘을 낳고 둘을 입양하기로 했다. 그렇게 했지만, 장애나 인종, 나이, 폭력 전력 때문에 입양될 가능성이 낮아 좋은 가정이 절박하게 필요한 다른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호그와 바도는 전혀 부유하지 않았지만, 결국 친자녀 둘에 더해 입양한 아이 스무 명을 둔 가족이 되었다. 맥파쿼는 이런 인물 소개 사이사이에 버나드 맨더빌, 애덤 스미스, 이마누엘 칸트, 찰스 다윈,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이 이타주의에 대해 보인 태도에 관한 논의를 엮어 넣는다. 이 사상가들 가운데 많은 이가 이타주의에 적대적이었고, 심지어 이타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기도 했다. 맥파쿼가 친구들에게 'do-gooder(남을 돕는 일에 열심인 사람)'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하자,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주 엄격한 도덕 원칙을 입으로 내세울 뿐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산다는 생각에 불편해했다. 맥파쿼는 이 적대감이 의아했다. 남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며 깎아내리지 말고 그냥 존경하면 되지 않는가? 저자는 그 답이 이럴 수 있다고 본다. 우리도 훨씬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느끼며, 『Strangers Drowning』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늘 꾸짖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들이 더 높은 도덕 기준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모든 이타주의자가 위선자라고 믿을 수 있다면 마음이 그리 불편하지 않겠지만, 이 책은 그 편안한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남을 돕고 자기 가치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을 아는 것 말고는 아무 보상 없이 남에게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자기 삶을 대단히 보람 있고 충만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법

- **Baba overcame his initial disgust and fear of catching the disease and shielded the leper from the rain** : overcame과 shielded가 and로 병렬. his initial disgust and fear of ~ = 목적어 둘. fear of + 동명사(catching). shield A from B = A를 B로부터 막아 주다.
- **The experience stayed with him, leading him to found a leper colony** : leading = 결과의 분사구문(그래서 ~하게 했다). lead + O + to V. found = '세우다'(원형, 과거형 founded) — find의 과거형 found와 구별.

- **they could not shut out the knowledge that other children were in desperate need of a good home—children who were unlikely to be adopted because of a disability or their race, age, or a history of violence** : the knowledge that ~ = 동격 that(지식의 내용). 대시 뒤 children = 앞의 other children을 다시 받아 설명. be unlikely to be p.p. = ~될 가능성이 낮다.
- **she found that they became uncomfortable with the idea that some people not only profess, but also live by, extremely demanding moral principles** : the idea that = 동격 that. not only profess, but also live by = 두 동사(구)가 목적어 principles를 함께 받는다(쉼표로 묶음).
- **If they can live by higher moral standards, then so could we** : so + 조동사 + 주어 = 우리도 그럴 수 있다(도치). could =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말하는 조동사.
- **If we could believe that all altruists are hypocrites, we would not feel so bad** : 가정법 과거(If + could → would): 지금 사실과 반대 — 실제로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책이 그 믿음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
- **There are people who devote their lives to others, for no reward other than the knowledge that they are helping others and acting in accord with their own values** : no ~ other than B = B 말고는 어떤 ~도 없이. the knowledge that = 동격. are helping과 (are) acting이 병렬. in accord with = ~에 맞게.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per	한센병 환자	—	—
disgust	혐오감	revulsion	delight
colony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settlement	—
thriving	번창하는	flourishing	declining
needy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처지의	poor	well-off
biological	친(親)-, 생물학적인	birth	adopted
hostile	적대적인	antagonistic	friendly
profess	공언하다, 내세우다	claim	—
dismiss A as B	A를 B라며 깎아내리다	brush off	take seriously
reproach	꾸짖음, 비난	rebuke	praise
hypocrite	위선자	pretender	—

내용 일치 바바 암테 = 인도의 부유한 지주의 아들 · 죽어 가는 한센병 환자 · 혐오감과 감염의 두려움을 이겨 냄 · 공동체를 세움 · 몇 년 만에 수천 명 · 아들들이 이어 감 · 수 호그 = 열두 살에 읽은 책 · 처음 계획 = 낳기 둘 + 입양 둘 · 전혀 부유하지 않음 · 입양 20명 + 친자녀 2명 · 맨더빌 · 스미스 · 칸트 · 다윈 · 프로이트 · 많은 사상가가 적대적이거나 이타주의의 존재를 부정 · 친구들의 불편함 · 맥파쿼 = 적대감이 의아함 · 저자의 답 = '그럴 수 있다'(may be) · 모든 이타주의자가 위선자라는 믿음 = 틀림(책이 보여 줌) · 보람 있고 충만함 ≠ 그렇게 하는 까닭. **밑줄 의미** a standing reproach to our own way of life = 그들의 삶이 존재 자체로 늘 우리의 생활 방식을 꾸짖는다 / this comfortable belief = 모든 이타주의자가 위선자라는 믿음(믿으면 마음이 편해지므로) / that is not why they do it = 삶이 보람 있다는 것이 그들이 남을 돕는 동기는 아니다 / 140쪽 ¶3 them(dismiss them) = 남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 **한 줄 요약** 맥파쿼는 선행가에 대한 적대감을 의아해하고, 저자는 그들이 우리를 꾸짖는 존재이기 때문일 수 있다고 답하며, 그들은 보상이 아니라 남을 돕는다는 앎과 자기 가치에 따라 산다고 말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5 CHARITY]

범위	Good Charity, Bad Charity · High-Priced Art · Extreme Altruism (원서 PDF 131~140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y do buyers hand over such extravagant sums for paintings? I suspect that they expect owning original works by famous artists to raise their own standing. If so, we could change things by redefining status on a more ethical basis. In a more ethical society, spending tens of millions on a single artwork would lower a person's standing instead of raising it. People would ask: when five million children die every year for lack of safe water, mosquito nets, or measles vaccines, could you not put your money to better use?

① Art buyers should pay higher taxes.
② Buying hugely costly art should lower, not raise, one's status.
③ Famous artists' works deserve their high prices.
④ Most art buyers are mainly seeking profit.
⑤ Museums should sell art to save children.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Larissa MacFarquhar weaves her profiles of extreme altruists together with the views of thinkers such as Kant, Darwin, and Freud, many of whom were hostile toward altruism or even claimed that it did not exist. When she told friends that her book was about 'do-gooders,' they grew uneasy at the thought that some people actually live by the very demanding principles they proclaim. Why, she wondered, do we call such people 'weird' instead of admiring them? Perhaps it is because we sense that we, too, should live far more ethically, and their lives rebuke our own. It would be comforting to think that every altruist is a hypocrite, but her book shows that this belief is false.

① Great Thinkers Who Praised Altruism
② The Hidden Rewards That Drive Altruists
③ How to Tell a Real Altruist from a Hypocrite
④ Strangers in Danger: A Guide to Rescue
⑤ Why Do-Gooders Make the Rest of Us Uneasy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ich worthy cause should you give to? The view that prevails among professional advisers on giving is that we should not, or perhaps cannot, judge objectively which options are better. One of the largest such advisory groups in the world lists areas a donor might support, from health and safety to the arts, and then declares that there is clearly no objective way to say which issue is most urgent. I disagree. Set health and safety beside arts, culture, and heritage, and it seems plain to me that there are objective grounds for thinking we could achieve more good in one field than in the other.

① Donors should let advisers choose a cause.
② Health matters less than the arts.
③ Every charitable area is equally urgent.
④ There are objective reasons to think some causes do more good.
⑤ Charities should be judged by their size.

4. 밑줄 친 turning it into another consumer good for the super-rich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Koons said his Jim Beam piece used images of luxury to show society's class structure. Asked by the critic Helena Kontova how his political aims related to then-President Reagan's policies, he replied that under Reaganism people could no longer climb the social ladder, only low and high incomes were left, and his work opposed this trend. Art against luxury and inequality sounds noble. Yet the market easily absorbs whatever radical message an artwork carries, turning it into another consumer good for the super-rich. Koons's bourbon-filled train later fetched $33 million at Christie's.

① wealthy buyers always reject radical art
② artists now make luxury goods, not art
③ even art attacking wealth is sold as a luxury item to the very rich
④ the super-rich share the message of such art
⑤ consumer goods now cost more than paintings

5. 밑줄 친 our dollars go much further ther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conomists use this way of comparing benefits to work out how much people value particular states of affairs. The method can be criticized, since many people seem to react irrationally to small risks of terrible outcomes; that is why laws must make us buckle our seat belts. Even so, the answer is plain enough in many cases, this one among them. Of course, this is only one example of choosing between fields of giving, and some such choices are far harder than others. Generally, when it comes to human welfare, we accomplish more when we aid the extremely poor in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our dollars go much further there. Harder is the choice between giving directly to the world's poor and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which would help both them and future generations.

① the same amount of money can achieve much more good in poor countries
② prices are rising faster in developing countries
③ donations take longer to reach poor countries
④ rich countries should spend their money at home
⑤ the poor must travel far to receive help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Ten years before the 2014 auction, New York's Metropolitan Museum of Art bought Duccio's small Madonna and Child for $45 million. The author still believes its donors could have put their money to better use, yet the painting is 700 years old and exquisitely done. Duccio was a major artist at a key moment for Western painting, and only a few of ① his works have come down to us; none of this is true of Newman or Warhol. Maybe, though, postwar art matters because it challenges our ideas. Jeff Koons, whose work was sold at the 2014 auction, strongly held this view. In 1987 ② he gave an interview to several art critics. In it, ③ he spoke of a piece that ④ he called 'the Jim Beam work,' which Christie's would sell at that same auction many years later. ⑤ He had once shown this piece, a giant toy train of stainless steel full of bourbon, at a show titled 'Luxury and Degradation.'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Imagine that the art museum in your town is raising money for a new wing so that it can display its collection better, and it asks you for a gift. Say you could give $100,000. Meanwhile, a group working to reduce trachoma also asks for your help. An infectious microorganism causes this eye disease, which strikes children in the developing world and gradually takes away people's sight, usually leaving them blind when they are between 30 and 40. Yet it can be prevented: each $100 could spare one person 15 years of poor vision and the 15 years of blindness that would follow, so $100,000 could save the sight of 1,000 people. The wing, by contrast, might cost $50 million and draw a million visitors a year for 50 years.

① 트라코마는 주로 노인에게 생기는 눈병이다.
② 트라코마에 걸린 사람은 대개 20대에 시력을 잃는다.
③ 트라코마는 예방할 수 없는 병이다.
④ 10만 달러면 1,000명이 시력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다.
⑤ 새 별관은 해마다 5,0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가정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In May 2014, Christie's salesroom in New York sold postwar and contemporary art worth $745 million, its highest total ever for a single auction. Works by Warhol, Rothko, Bacon, and Newman each went for over $60 million, and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Asian collectors had helped drive prices up. Some buyers surely treat such purchases as investments, much like shares or gold. But if they are not after profit, why pay so much? The works are neither beautiful nor especially skillful, and they are hardly unusual for these artists. Newman, it seems, liked to work through every variation of an idea, and one of his many paintings of vertical color bars went for $84 million. Warhol's small image of Marilyn Monroe sold for $41 million.

① 2014년 5월 경매의 낙찰 총액은 그 경매장의 한 번 경매 가운데 가장 높았다.
② 네 화가의 그림은 각각 6,000만 달러 넘게 팔렸다.
③ 아시아 수집가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④ 마릴린 먼로를 그린 워홀의 작은 그림은 4,100만 달러에 팔렸다.
⑤ 글쓴이는 그 작품들이 아름답고 뛰어난 솜씨를 보여 준다고 본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The author's example of a drowning child is echoed in the title of a remarkable book by Larissa MacFarquhar, Strangers Drowning. At its heart are portraits of people ① who live by an extremely demanding moral standard. One of them is Julia Wise. Even as a child, she believed that, since every person has equal value, her own well-being should matter to her no more than ② anyone else's. Whenever another person could benefit more from her ice-cream money, it was better, she thought, for her ③ to give it away to that person. So she began donating her savings to groups such as Oxfam. After she and Jeff Kaufman fell in love, the two promised each other that they ④ would both give away a large share of ⑤ which they earned; today that share comes to about half of their income.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On a rainy night, Baba Amte, (A) [whose / who] father was a wealthy landowner in India, came upon a leper who was dying. At first he felt disgust and was afraid of catching the disease, but he overcame these feelings and sheltered the man from the rain. This encounter never left him, and it eventually (B) [led / leading] him to establish a colony for lepers. A few years later, several thousand people with leprosy or other disabilities had made their home there, in a community that (C) [thrived / thriving]. After Baba's death, his sons carried his work forward.

	(A)	(B)	(C)
①	who	led	thrived
②	whose	leading	thriving
③	whose	led	thrived
④	who	leading	thriving
⑤	whose	led	thriving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If artists, critics, and collectors truly cared about narrowing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y would ① concentrate on developing countries, where buying the work of indigenous artists for a few thousand dollars could greatly improve the well-being of whole villages. None of this ② undermines the importance of making art. Drawing, painting, and sculpture, like singing or playing music, are ③ meaningful ways of expressing ourselves; without them our lives would be ④ richer. In every culture and in every kind of circumstance, people make art, even while they ⑤ struggle to meet their most basic physical needs. Buyers need not pay millions to encourage this; indeed, one could easily make the case that soaring prices corrupt artistic expression.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Consider a thought experiment. You can visit the art museum with its new wing or without it, and naturally you would choose to see the wing. Now suppose an evil demon announces that, of every 100 visitors to the new wing, he will pick one at random and make that person blind for 15 years. Only a fool would still go. Most readers, like the author, would stay away even if only one visitor in a thousand were struck blind. Anyone who agrees has, without saying so, accepted that one person's loss of sight _____. It follows that preventing a single case of blindness beats giving a thousand people a trip to the wing, and the trachoma gift prevents ten such cases for every thousand museum visits it would otherwise pay for.

① matters less than the enjoyment of a thousand visitors
② weighs more heavily than the pleasure 1,000 visitors would get from the wing
③ can be prevented only by avoiding museums
④ is a risk worth taking for the sake of great art
⑤ should be paid for by the museum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As it turned out, however, her kidney was not a good match for the woman in the report.

Kimberly Brown-Whale, one of the people Larissa MacFarquhar describes in Strangers Drowning, was the pastor of a church in Essex, Maryland. (①) One day a news report caught her attention: a young woman needed a new kidney. (②) Without giving the matter much thought, she telephoned and offered one of her own. (③) A nurse then asked whether she might let a different patient have her kidney instead. (④) She agreed, and so joined a growing group of people who give kidneys to strangers. (⑤) The author knows of another such donor, Chris Croy, whom a discussion of 'Famine, Affluence, and Morality' in a philosophy class moved to do the same.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At the age of 12, Sue Hoag read the story of a family who had adopted several children in need, and from that time on she had wanted to do the same thing herself. ① After marrying Hector Badeau, she and her husband decided that they would have two children and adopt two others. ② They did exactly that, yet they could not put out of their minds the fact that other children badly needed a good home. ③ These were children whom few families would adopt, because of a disability, their race or age, or a violent past. ④ Kimberly Brown-Whale, a pastor in Maryland, offered one of her kidneys after seeing a news report. ⑤ Although the couple were far from wealthy, they eventually raised 20 adopted children in addition to the two born to them.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ifty years ago, in his essay 'Famine, Affluence, and Morality,' the author asked readers to picture themselves strolling by a shallow pond and seeing a small child in it who appears to be drowning. Rescuing the child would be easy but would ruin their expensive new shoes.

(A) The argument looks simple until we notice that after saving one child through an effective charity, we can save a second child, then a third. Must we give up every luxury, giving until we are as poor as the people we help?

(B) Is it wrong to walk on? When he asks audiences for a vote by show of hands, they usually agree as one that putting one's shoes first would be wrong.

(C) He then points out that all of us can save a child's life by giving to a charity that guards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against malaria, diarrhea, measles, or poor nutrition.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Only lately has it become possible to learn which charity in a given field works best. Now independent evaluators such as GiveWell let us be highly confident that gifts to the Against Malaria Foundation save lives, and that the SCI Foundation cheaply reduces neglected tropical diseases. Donors who prefer to give cash and let recipients decide how to use it can choose GiveDirectly, which passes at least 90 cents of each dollar to a very poor African family; later studies confirm lasting benefits. This evidence-based approach, known as effective altruism, is now an international movement whose members want to do not just some good but the most good they possibly can.

→ Thanks to independent evaluators, donors can now choose charities on the basis of (A) _____, and effective altruists aim to do the (B) _____ good they can rather than merely some good.

① tradition ..... most
② evidence ..... most
③ evidence ..... least
④ reputation ..... most
⑤ popularity ..... least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Suppose you could give $100,000 either to a museum or to a group fighting trachoma, an eye disease; each $100 given to the group could spare one person 15 years of poor sight and then 15 more years of blindness. Choosing charities on the basis of evidence like this is called effective altruism. At Christie's in May 2014, art sold for record sums, and Jeff Koons's steel toy train, which he had discussed in a 1987 interview, went for $33 million. In Strangers Drowning, Larissa MacFarquhar describes Sue Hoag and Hector Badeau, who adopted 20 children in addition to their two biological ones, and she notes that many earlier thinkers were hostile toward altruism.

<QUIZ>

(1) How many dollars could spare one person 15 years of poor sight and then 15 more years of blindness?
Answer for (1): _____

(2) What eye disease does the group fight?
Answer for (2): _____

(3) In what year was the Christie's auction held?
Answer for (3): _____

(4) How much did Koons's toy train sell for?
Answer for (4): _____

(5) How many children did Hoag and Badeau adopt?
Answer for (5): _____

(6) Is it true or false that the earlier thinkers were all friendly toward altruism?
Answer for (6): _____

(7) What is choosing charities on the basis of evidence called?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trachoma	N. 2
B. malaria	O. measles
C. $100	P. $745 million
D. $100,000	Q. 12
E. $33 million	R. 2014
F. 20	S. $50 million
G. 1987	T. 1,000
H. True	U. False
I. $84 million	V. $45 million
J. extreme altruism	W. 5 million
K. 22	X. 700
L. effective altruism	Y. 90 cents
M. $41 million	Z. 15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런데 어느 대의에 기부해야 할까? (전치사 + which + 명사 의문문)

02 트라코마는 사람들이 서서히 시력을 잃게 한다. (cause + O + to V)

03 악마가 1,000명 가운데 한 명만 실명시킨다 해도, 새 별관을 보는 것은 그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없을 것이다. (Even if + 가정법 과거 / 동명사 주어)

04 한 사람이 실명하는 해악은 1,000명이 받는 이익보다 크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 과거분사 후치)

05 비싸게 팔린 작품 가운데에는 뉴먼과 워홀의 그림이 있었다. (전치사구 문두 → 동사 · 주어 도치)

06 그것들은 아름답지도 않고, 대단한 예술적 솜씨를 보여 주지도 않는다. (nor + 조동사 + 주어 도치)

07 미술 시장은 어떤 급진적 요구라도 어렵지 않게 끌어안는다. (have no difficulty (in) -ing)

08 그들이 실제로 빈부 격차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다면, 개발도상국에 힘을 쏟고 있을 것이다. (가정법 과거(진행형))

09 한 아이를 구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또 한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다. (완료 분사구문 / 형용사적 to부정사)

10 그녀는 자기 웰빙을 다른 누구의 웰빙보다 더 아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비교 대상 맞추기(for A than for B))

11 그 경험은 그의 마음에 남아, 그가 한센병 환자 공동체를 세우게 했다. (결과의 분사구문 / lead + O + to V)

12 모든 이타주의자가 위선자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법 과거)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기부할 수 있다고 가정한 돈 / 트라코마로 대개 실명하는 나이	
100달러로 막을 수 있는 것 / 10만 달러로 시력을 지킬 사람 수	
새 별관 비용 · 쓸모 기간 · 해마다 관람객(가정)	
기부자의 비용 몫 / 그 몫으로 내세울 관람객 수	
악마가 실명시킬 비율(처음 · 줄인 경우) / 실명 기간	
1,000명의 관람마다 막는 실명 / 트라코마 기부의 가치	
독립적인 자선 단체 평가 기관 둘	
GiveDirectly가 보내는 몫 · 받는 곳	
근거에 기반한 자선 방식의 이름	
크리스티 경매의 때 · 낙찰 총액	
네 화가 각각의 낙찰가 / 뉴먼의 변형 · 워홀의 마릴린 먼로	
메트로폴리탄이 산 작품 · 값 · 작품의 나이	
쿤스의 인터뷰 해 / 짐 빔 작품을 내놓은 전시회	
짐 빔 작품의 모습 / 낙찰가	
쿤스에게 물은 평론가 / 당시 대통령	

항목	답
해마다 죽는 어린이 수(138쪽 ¶7)	
얕은 연못이 나온 저자의 글 · 쓴 때	
맥파쿼의 책 / 와이즈 부부가 기부하는 몫	
브라운-웨일의 직업 · 교회가 있는 곳 / 철학 수업을 계기로 신장을 준 사람	
바바 암테의 아버지 / 공동체에 살게 된 사람 수	
호그가 책을 읽은 나이 / 입양한 아이 · 친자녀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Good Charity, Bad Charity」에서 저자는 개발도상국의 극빈층을 도우면 같은 돈이 훨씬 더 멀리 가므로 더 많은 것을 이룬다고 했고(132쪽 ¶5), 트라코마 예방 기부가 미술관 기부보다 적어도 열 배의 가치가 있다고 계산했다(132쪽 ¶3). 「The Ethical Cost of High-Priced Art」에서는 화가와 구매자들이 실제로 빈부 격차를 줄이고 싶다면, 개발도상국 원주민 화가의 작품을 사는 데 몇천 달러만 써도 마을 전체의 웰빙을 실제로 바꿀 수 있다고 했고(138쪽 ¶3), 「Extreme Altruism」에서는 효과적인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 우리 모두 아이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139쪽 ¶2~¶3).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 이타주의자들이 자기 재능과 자원으로 세상에 만들려는 것을 빈칸에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 근거를 「Good Charity, Bad Charity」와 다른 한 편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효과적 이타주의자가 만들려는 것: Not content with merely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its adherents want to use their talents and resources to make the biggest possible positive _____ to the world.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6 HAPPINESS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ppiness, Money, and Giving · Gross National Happiness · Happy, Nevertheless
원서 PDF 144~147 · 155~156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행복은 무엇이며, 잴 수 있고 늘릴 수 있는가."

이 권은 행복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묻는 세 편을 묶었다. 「Happiness, Money, and Giving It Away」에서 저자는 소득이 아주 낮은 수준을 넘으면 부가 행복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는 연구를 소개한 뒤, 미국 역사상 최대의 기부로 삶에 목적을 준 버핏을 들어 행복에는 좋은 기분 이상의 것이 있다고 말한다. 「Can We Increase Gross National Happiness?」는 국민총행복을 정책 목표로 삼은 부탄을 따라가며, 행복을 정의하고 재기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틀리느니 막연하게 옳은 목표가 나을 수 있다고 본다. 「Happy, Nevertheless」는 장애 인권 변호사 해리엇 맥브라이드 존슨을 추모하는 글로, 저자의 강연에 맞선 그녀의 반론과 두 사람의 교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에 관한 저자의 물음을 담았다. 세 편을 이어 읽으면 좋은 기분과 삶의 만족, 그리고 그것을 잴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되풀이된다. 저자와 존슨의 의견이 엇갈린 대목은 누구의 견해인지 가려 적었고, 이 노트는 어느 한쪽을 권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원서를 옆에 펴고 네 눈으로 먼저 찾아 기호로 표시하고 그 까닭을 한 줄로 적어 두어라.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행복에는 좋은 기분 이상의 것이 있다 – 버핏의 만족(145쪽 ¶7~¶8) / 객관적 척도가 없어도 행복을 정책 목표로 삼는 생각은 아직 흐릿할 뿐일 수 있다(147쪽 ¶2) / 궁극적으로 지구 전체의 행복을(147쪽 ¶6) / 저자를 '적'만이 아닌 사람으로 본 듯한 존슨(저자의 해석) – 저녁 식사의 작은 도움(156쪽 ¶1)
4~5	**밑줄 함축 의미**	only at quite low levels of income / a deception / an end in itself / as long as we do not reflect too much / gave purpose to his life / more to happiness than being in a good mood / just another political slogan / vaguely right than precisely wrong / woolly / shoot on sight / the inequality implied in "Professor Singer" and "Ms. Johnson" / not simply as "the enemy" / doubly insulting
6	지칭 추론	he · his와 she가 저자와 존슨 사이를 오가는 155쪽 ¶2~¶3(강연과 반론) / it(155쪽 ¶1 = 저자의 손) · the position(155쪽 ¶2 = 저자의 입장) / they(144쪽 ¶4 = 고소득층) · The two · they(146쪽 ¶1 = 두 가지 · 관광객) / it(147쪽 ¶3 = 정책안) · it(156쪽 ¶1 = 팔꿈치 · 손목) · they(156쪽 ¶1 = 장애 운동의 친구들)
7~8	내용 일치·불일치	미국 · 뉴질랜드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일본 · 독일 · 브라질 · 콜롬비아 · 필리핀 · 12,000달러 · 1950년대 · 5만~9만 달러(144쪽 ¶1~¶2) / 2006 · 『Science』 · 카너먼(144쪽 ¶4) / 2위 · 2021 · 6위 · 960억 달러 · 300억 · 70억 달러(145쪽 ¶4~¶6) / 2011 · 팀푸 · 틴레이 · 삭스 · 이틀 반(146쪽 ¶2~¶3) / 2001년 봄 · 찰스턴 · 세 손가락 · Not Dead Yet · 1년 반 전(155쪽 ¶1)
9~10	**어법**	would be(대동사) · conducted(과거분사 후치) · no + 비교급 than · ask + IO + 간접의문문 · may not reflect · by + -ing · instead of + -ing · at and commuting to(전치사 공유) · It is not A but B that · there is no point in -ing · once(접속사) · 동명사 주어 + 단수 동사 · as long as · Even if + 가정법 과거 · be hard-pressed to V · 관계대명사 that 병렬 · 가정법 과거완료 + 대동사 · 계속적 which · wonder if · Never before 도치 · expect + O + to V · regard A as B · 계속적 which(앞 절 전체) · It ~ that 강조 · would rather A than B · be found to be · 강조의 did · prescribe that · so ~ that · 삽입절 she pointed out · should have been p.p. · worth -ing · on condition that · whose · arrange for + O + to V · with whom · that of · why + 원형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identical ↔ different · confidence ↔ doubt · subjective ↔ objective · leisure ↔ work · benevolence ↔ malevolence · purposive ↔ aimless · lean ↔ prosperous · frugal ↔ lavish · boost ↔ reduce · pertinent ↔ irrelevant · surplus ↔ shortage(146쪽 ¶5) · subtract ↔ add · randomly ↔ systematically · vaguely ↔ precisely · vehement ↔ mild · appalled ↔ pleased · sporadically ↔ regularly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2	빈칸 추론	as long as we do not reflect too much on why we are doing it(145쪽 ¶3) / only at quite low levels of income(144쪽 ¶1) / more to happiness than being in a good mood(145쪽 ¶8) / the degree to which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146쪽 ¶5) / vaguely right than precisely wrong(147쪽 ¶2) / a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ir lives(156쪽 ¶2)
13	문장 삽입	두 접근의 조사 결과(146쪽 ¶6 ~ 147쪽 ¶1): 둘째 접근의 물음 → 어느 쪽이 나은가 = 가치의 문제 → 첫째 접근에서 높게 나온 나라(나이지리아 · 멕시코 · 브라질 · 푸에르토리코) → 국민 문화와 더 관계? → 둘째 접근이면 덴마크 · 스위스 → 같은 뜻인지 불분명
14	무관한 문장	국민총행복위원회와 담배 판매 금지(147쪽 ¶3~¶4)에 다른 편의 사실(버핏의 검소한 생활, 145쪽 ¶4)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버핏의 사례(145쪽 ¶4~¶6): 2위 · 6위 · 960억 달러 → Yet 검소한 생활 · 다 쓰기도 어려움 → 이 관점에서 무의미해 보이는 축적 · '기만'의 희생자? → Coincidentally 같은 주의 기부(300억 + 70억 달러)
16	요약문 완성	장애와 삶의 만족(156쪽 ¶2): 존슨의 좋은 삶(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 조사 =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족 · 기대를 낮췄나, 익숙해지면 차이가 없나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숫자 · 학술지 · 연도 · 나라 · 단체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2,000달러 · 1950년대 · 5만~9만 달러 · 9만 달러 넘게 · 2006 · 2위 · 2021 · 6위 · 960억 달러 · 1960년대 · 300억 달러 · 70억 달러(1편) / 2011 · 이틀 반 · 66차 총회(2편) / 1957~2008 · 2001년 봄 · 세 손가락 · 1년 반 전 · 2003 · 6년(3편). 비슷한 숫자 쌍(2001과 2011과 2003, 300억과 70억과 960억, 2위와 6위, 5만~9만과 9만 넘게)이 함정이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not happier ↔ happier, little correlation ↔ strong correlation, more time at work ↔ more leisure, frugal ↔ lavish, appalled ↔ pleased, didn't object ↔ objected, did not believe in a life after death ↔ believed). '시사한다'(suggests) · '~로 보인다'(appear) · '아마'(Perhaps) · '~일 수도'(may · might seem) · '그녀가 지적했다'(she pointed out) · '자매에 따르면'(According to her sister)을 사실로 바꾼 선지, 카너먼 · 스미스 · 케인스 · 부탄 정부 · 존슨의 견해를 저자(싱어)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Happiness, Money, and Giving · Gross National Happiness · Happy, Nevertheless」 (144~147 · 155~156쪽)

논증형 두 편과 추모의 글 한 편. ① 물음(더 부자면 더 행복?) → 연구(낮은 소득에서만) → 조사의 한계 · 카너먼 → 새롭지 않은 생각 → 역설 → 저자의 추측 → 버핏의 사례 → 저자의 답. ② 사례(부탄의 국민총행복) → 진지한 학회 → 쟁점(정의와 측정) → 두 접근 → 조사 결과 → 반론(객관적 척도?) → 케인스 → 위원회 · 담배 금지 · 유엔 → 저자의 결론. ③ 첫 만남 → 저자의 강연과 존슨의 반론 → 프린스턴 방문 → 저녁 식사의 도움 → 장애와 삶의 만족이라는 물음 → 남은 이견 → 추모에 대한 저자의 비판. 핵심 축은 **돈 vs 목적 있는 삶**, **좋은 기분 vs 삶의 만족**, **정확한 척도 vs 막연하게 옳은 목표**.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44 ¶1	물음 · 연구	더 부자면 더 행복할까 · 많은 사람은 그렇다고 믿음 / 여러 해의 연구 = 꽤 낮은 소득 수준에서만(시사) · 미국은 뉴질랜드보다 부유하나 더 행복하지 않음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일본 · 독일 = 훨씬 가난한 브라질 · 콜롬비아 · 필리핀보다 더 행복하지 않아 보임
144 ¶2	연구 2	나라 안에서도 같은 효과 · 미국 연 12,000달러 미만은 예외 · 1950년대보다 부유하나 더 행복하지 않음 · 5만~9만 달러 가족 ≒ 9만 달러 넘는 가족
144 ¶3~¶4	조사의 한계 · 카너먼	삶의 만족 판단 = 크게 믿을 수 없음(시간을 실제로 즐기는지 반영 못 할 수도) / 카너먼 = 하루 중 자주 기분을 물음 · 2006『Science』· 소득과 행복의 상관 작음 · 고소득층 = 긴장 · 스트레스 · 일과 출퇴근
144 ¶5~145 첫 줄	새롭지 않은 생각	종교 = 물질에 대한 집착 · 비틀스 = 돈으로 사랑을 못 삼 · 애덤 스미스 = 부가 줄 것이라 상상하는 즐거움은 '기만'(그래도 인류의 근면을 움직임)
145 ¶1~¶3	역설 · 추측	정부와 우리는 왜 돈을 좇나 / 아마 목적을 지닌 존재의 본성 · 정착 · 화폐 → 획득의 한계 사라짐 · 돈 = 목적 자체 · 이유를 깊이 따지지 않는 한 할 만한 일
145 ¶4~¶5	사례	버핏 = 오랫동안 세계 2위(게이츠 다음) · 2021『Forbes』6위 · 960억 달러 · 검소 / 1960년대 첫 몇백만 달러 뒤의 축적은 무의미해 보일 수도 · '기만'의 희생자?
145 ¶6~¶7	기부	카너먼의 글과 같은 주 · 미국 역사상 최대 기부 = 게이츠 재단 300억 + 다른 재단 70억 달러 · 카네기 · 록펠러보다 큼(물가 반영) / 단번에 삶에 목적 · 불가지론자
145 ¶8	저자의 답	카너먼의 연구대로라면 좋은 기분으로 보낸 시간은 더 적었을지도 · 그러나 게이츠 재단을 통해 질병 치료에 기여한다는 만족 · 행복에는 좋은 기분 이상의 것
146 ¶1~¶3	사례 · 학회	부탄 = 높은 비자 요금 · 경제 성장 대신 국민총행복 / 정치 구호일 뿐인가(저자의 처음 의문) · 2011 팀푸 학회 · 틴레이 총리 주최 · 삭스 공동 주최 · 이틀 반 내내 참석 · 장관 여럿
146 ¶4~147 첫 줄	쟁점 · 두 접근	정의와 측정이 문제 / 첫째 = 평생 쾌락이 고통을 넘는 정도(순간을 무작위로 표집) · 둘째 = 지금까지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나 · 무엇을 증진할지는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
147 ¶1	조사 결과	첫째 접근 = 나이지리아 · 멕시코 · 브라질 · 푸에르토리코 → 국민 문화와 더 관계? · 둘째 접근 = 덴마크 · 스위스 같은 부국 / 다른 언어 · 문화의 답이 같은 뜻인지 불분명
147 ¶2	반론 · 저자의 답	객관적 척도 없이 행복이 목표라면 말이 되나 · 케인스 = 정확하게 틀리느니 막연하게 옳은 편 · 새 생각은 처음에 흐릿 · 행복 정책도 그럴 수 있다(may)
147 ¶3~¶4	실천	총리가 이끄는 국민총행복위원회 = 새 정책안 심사 · 어긋나면 되돌림 / 담배 판매 금지(논란) · 인도에서 소량 자가 소비용 · 수입세 영수증 · 코로나 동안 해제
147 ¶5~¶6	유엔 · 결론	부탄이 발의한 유엔 총회 결의 · GDP에 반영 안 됨 · 추가 척도 · 66차 총회 패널 토론 / 지지가 점차 커짐 · 노력을 응원 · 궁극적으로 지구 전체의 행복
155 ¶1	첫 만남	2001년 봄 · 찰스턴 칼리지 강연 · 전동 휠체어 · 오른손의 세 손가락 · Not Dead Yet 지지자(1년 반 전 나소 홀 봉쇄)
155 ¶2~¶4	강연 · 반론	저자의 강연 = 중증 장애 신생아의 생명 유지 장치를 거두는 관행 ≒ 장애가 너무 심해 가족이 최선이라 믿을 때 부모가 의사와 상의해 아기의 생명을 끝내기로 정하게 하는 것(저자의 주장) / 존슨의 반론 = 그 말대로면 부모가 나를 죽이도록 허용되었어야 · 장애가 삶을 덜 살 만하게 한다는 믿음은 잘못 / 이메일로 이어진 논쟁 · 'arguing hard'
155 ¶5~156 첫 줄	프린스턴 방문	공개 자리에선 이름 부르기 피하기 · 'Professor Singer'와 'Ms. Johnson'의 불평등 거부 → Mr. Singer / 2003「Unspeakable Conversations」· 좋은 말벗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56 ¶1~¶2	도움 · 물음	팔꿈치 · 손목 · 친구들은 경악 · '적'만이 아닌 사람으로 본 듯(저자) / 좋은 삶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 ≒ 장애가 없는 사람들 · 기대를 낮췄나, 적응했나
156 ¶3~¶4	이견 · 추모	6년 이메일 · 동물로의 확장(저자의 설득 · 존슨은 반대하지 않되 다루지 않음) · 둘 다 종교 없음 · 부시 / 자매 베스 · 천국을 달린다는 추모 = 이중으로 모욕적(저자)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돈과 행복	더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할 것(많은 사람의 믿음)	여러 해의 연구 = 부는 꽤 낮은 소득 수준에서만 행복으로 이어진다(시사 · 저자가 근거로 듦)
행복을 재는 조사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기만 하는 대부분의 조사를 그대로 믿음	그런 전체 판단은 시간을 실제로 얼마나 즐기는지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 크게 믿을 수 없다(저자)
돈을 좇는 까닭	돈이 행복을 늘리지 않는데도 정부와 많은 사람이 소득을 늘리려 애씀(저자가 짚는 역설)	저자의 추측 = 아마 목적을 지닌 존재의 본성 · 이유를 깊이 따지지 않으면 돈 벌기가 할 만한 일로 느껴진다
행복의 뜻	행복 = 좋은 기분으로 보낸 시간(그 잣대라면 일찍 은퇴한 버핏이 더 나았을지도)	질병 치료에 기여한다는 만족 – 행복에는 좋은 기분 이상의 것이 있다(저자)
국민총행복	또 하나의 정치 구호일 뿐일 것(저자의 처음 의문)	실제로 큰 의미가 있다(저자가 확인) – 총리와 장관들이 학회를 진지하게 대하고, 위원회가 새 정책안을 모두 심사한다
정책의 목표	경제 성장 · 소득 · 국내총생산(GDP)	행복 증진 – 관광객은 경제를 키워도 환경 · 문화를 해쳐 행복을 줄일 것(부탄) · 우리도 합의할 수 있다(저자, may)
측정의 어려움	객관적 척도가 없으면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저자가 던진 반론의 물음)	케인스 = 정확하게 틀리느니 막연하게 옳은 편이 낫다 / 저자 = 행복 정책도 아직 흐릿할 뿐일 수 있다(may)
행복의 범위	한 나라만의 행복	저자의 바람 =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행복이 목표가 되기를
존슨의 삶	장애가 있으면 삶이 덜 살 만하다는 믿음 – 존슨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믿음	저자 = 그녀의 삶은 분명 좋은 삶이었다 · 그녀 자신에게도, 장애인을 위한 법률 · 정치 활동 덕에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청한 일	그녀가 저자에게 도움을 청한 데 경악(장애 운동의 몇몇 친구)	어려움 없이 청한 것이 기쁨 – 자신을 그저 '적'이 아닌 교류가 가능한 사람으로 본 듯(저자)
추모의 말	이제 천국의 들판을 달리고 뛰논다(몇몇 추모의 말)	이중으로 모욕적 – 존슨은 죽은 뒤의 삶을 믿지 않았고, 천국의 행복에 왜 달리기가 필요한가(저자)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Kahneman · Science 2006	저자의 전 프린스턴 대학 동료 · 공동 연구자 여럿 · 하루 중 자주 기분을 물어 주관적 웰빙 측정 · **2006년**『Science』· 소득과 행복의 상관 **작음**
고소득층(카너먼 연구)	긴장 ·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감정과 이어진 활동에 시간을 더 씀 · 여가 대신 일과 출퇴근 · 적대적이고 화나고 불안하고 긴장된 기분(스스로 말한 기분)이 더 잦음
United States · New Zealand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더 **부유**하나 더 행복하지 **않음**
Austria · France · Japan · Germany	훨씬 가난한 브라질 · 콜롬비아 · 필리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appear)
$12,000	미국에서 연 **12,000달러** 미만 같은 아주 낮은 소득 수준은 예외 · 그 위로는 소득이 늘어도 행복에 큰 차이 없음
1950s · $50,000~$90,000	미국인 = **1950년대**보다 부유하나 더 행복하지 않음 / 중간 소득 가족(**5만~9만 달러**) ≒ **9만 달러 넘는** 부유한 가족
life satisfaction	대부분의 행복 조사가 묻는 전체 판단 · 크게 믿을 수 없음 –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실제로 얼마나 즐기는지 반영하지 못할 **수도**(may)
Adam Smith · The Beatles	스미스 = 저녁 식사는 정육점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에서 · 상상한 부의 즐거움 = '**기만**'(그래도 인류의 근면을 움직임) / 비틀스 =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
Warren Buffett	미국 투자가 · 오랫동안 세계 **2위**(빌 게이츠 다음) · **2021년**『Forbes』**6위** · 재산 **960억 달러** · 검소한 생활 · **1960년대**에 첫 몇백만 달러 · 불가지론자
$30 + $7 billion	카너먼의 글이 나온 **같은 주** · 미국 역사상 최대 기부 ·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300억 달러** · 다른 자선 재단 **70억 달러** · 물가를 반영한 카네기 · 록펠러의 기부보다 큼
Bhutan	히말라야의 작은 왕국 · 높은 비자 요금(관광객 유입을 줄임) · 경제 성장 대신 '국민총행복' · 관광객은 경제를 키워도 환경 · 문화를 해쳐 장기적으로 행복을 줄일 것
Thimphu 2011	**2011년** 수도 **팀푸** ·「Economic Development and Happiness」학회 · 지그메 Y. 틴레이 총리 주최 · 제프리 삭스 공동 주최
Jeffrey Sachs	컬럼비아 대학 지구연구소 소장 · 당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특별 고문
Jigme Y. Thinley	형식적 환영사 뒤 돌아가리라는 예상과 달리 사려 깊은 연설 · **이틀 반** 내내 참석 · 논의에 적절한 기여 · 대부분의 회의에 장관 여럿
두 접근	**첫째** = 평생 쾌락이 고통을 넘는 정도(긍정적 순간 – 부정적 순간 · 무작위 표집) / **둘째** = '지금까지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나' · 어느 쪽인가 =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
Nigeria · Mexico · Brazil · Puerto Rico	**첫째** 접근의 조사에서 높게 나옴 → 객관적 지표보다 국민 문화와 더 관계있을 **수도**(may) / **둘째** 접근 = 덴마크 · 스위스 같은 부국이 위
John Maynard Keynes	'정확하게 틀리느니 막연하게 옳은 편이 낫다' · 새 생각은 처음 나올 때 흐릿해 뚜렷하게 정의하려면 더 다듬어야 함
GNH Commission	국민총행복위원회 · **총리**가 위원장 · 각 부처의 새 정책안을 모두 심사 · 목표에 어긋나면 재검토하도록 되돌림 · 승인 없이는 추진 불가
tobacco ban	논란 많은 담배 판매 금지 · **인도**에서 소량을 자가 소비용으로만(되팔기 금지) · 공공장소 흡연 때 수입세 영수증 지참 · 코로나 대유행 동안 해제(밀수업자의 국경 이동을 줄이려고)
UN General Assembly	부탄이 발의한 결의 · 행복 추구 = 인간의 근본 목표 · GDP에 반영 안 됨 · 회원국에 추가 척도 개발 권유 · **66차** 총회 때 부탄이 패널 토론 개최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Harriet McBryde Johnson	**1957~2008** ·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을 안고 태어남 · 변호사 · 전동 휠체어 · 오른손의 움직이는 손가락 **세 개** · 자전적 책『Too Late to Die Young』
2001 · Charleston	**2001년 봄** 찰스턴 칼리지 강연에서 첫 만남 · 강연「Rethinking Life and Death」· **이듬해** 프린스턴 대형 학부 강의에 초청
Not Dead Yet	장애 인권 단체 · 그보다 **1년 반 전** 저자의 생명윤리 교수 임명에 항의해 프린스턴 대학 나소 홀 봉쇄 · 존슨은 지지자로 강연에 옴
2003 · NYT Magazine	「Unspeakable Conversations」·『The New York Times Magazine』표지 기사(**2003년**) · 프린스턴 방문 묘사 · 저자를 좋은 말벗이라 씀
Beth · George W. Bush	자매 베스에 **따르면** 죽음에서 가장 걱정한 것 = 사람들이 늘어놓을 말 / **6년** 동안 이따금 이메일 · 둘 다 종교 없음 · 부시 정부의 방향을 싫어함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Happiness, Money, and Giving · Gross National Happiness · Happy, Nevertheless (원서 PDF 144~147 · 155~156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6-1 물음과 연구 – 더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할까, 조사의 한계와 카너먼 144쪽 ¶1 ~ 145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44쪽 ¶1 ~ 145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4쪽 ¶1 첫~둘째 문장	Would you be happier if you were richer? Many people believe that they would be.	물음 · 대동사 would be
★	144쪽 ¶1 셋째 문장	greater wealth implies greater happiness only at quite low levels of income	요지 · 빈칸 – only의 한정
▲	144쪽 ¶1 셋째 문장	research conducted over many years suggests that	과거분사 후치 · 단수 동사
★	144쪽 ¶1 넷째 문장	People in the United States … are, on average, richer than New Zealanders, but they are not happier	나라 비교 – 내용 일치 뒤집기
▲	144쪽 ¶1 다섯째 문장	appear to be no happier than people in much poorer countries	no + 비교급 than · much + 비교급
★	144쪽 ¶2 첫 문장	except at very low income levels, such as below $12,000 annually for the United States	숫자 – 서답형
★	144쪽 ¶2 넷째 문장	$50,000–$90,000 … almost identical to well-off Americans, with a family income of more than $90,000	숫자 – 내용 일치
▲	144쪽 ¶3 첫 문장	simply ask people how satisfied they are with their lives	간접의문문 어순
◆	144쪽 ¶3 둘째 문장	this kind of overall "life satisfaction" judgment may not reflect how much people really enjoy	저자의 단서(may) · 통합 사고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4쪽 ¶4 첫 문장	Daniel Kahneman and several co-researchers … asking them about their mood at frequent intervals	인물 · 방법
★	144쪽 ¶4 둘째 문장	In an article published in Science in 2006 … little correlation between income and happiness	연도 · 학술지 — 서답형
●	144쪽 ¶4 셋째 문장	activities that are associated with negative feelings, such as tension and stress	어휘 반전: negative ↔ positive
▲	144쪽 ¶4 넷째 문장	Instead of having more time for leisure, they spent more time at and commuting to work	instead of + -ing · 전치사 공유
◆	144쪽 ¶5 첫 문장	there is nothing new in the idea that money does not buy happiness	동격 that · 전환
▲	144쪽 ¶5 넷째 문장	it is not from the butcher's benevolence that we get our dinner, but from	It is not A but B that 강조
◆	145쪽 첫 줄	described the imagined pleasures of wealth as "a deception"	밑줄 의미 1순위

내용

더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할까? 많은 사람은 그렇다고 믿는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친 연구는 부가 늘어 행복이 커지는 것은 소득이 꽤 낮은 수준일 때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예컨대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뉴질랜드 사람들보다 부유하지만 더 행복하지는 않다. 더 극적인 예로,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일본 · 독일 사람들은 브라질 · 콜롬비아 · 필리핀처럼 훨씬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 조금도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문화가 다른 나라끼리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효과는 한 나라 안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미국의 경우 연 12,000달러 미만처럼 아주 낮은 소득 수준은 예외다. 그 선을 넘으면 소득이 늘어도 행복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미국인은 1950년대보다 부유해졌지만 더 행복해지지 않았고, 오늘날 가족 소득 5만~9만 달러의 중간 소득층은 가족 소득이 9만 달러를 넘는 부유층과 거의 같은 수준의 행복을 누린다. 대부분의 행복 조사는 사람들에게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기만 한다. 저자는 이런 연구를 크게 믿을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전체적인 '삶의 만족' 판단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실제로 얼마나 즐기는지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프린스턴 대학 동료였던 대니얼 카너먼과 공동 연구자 여럿은 하루 동안 자주 기분을 물어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을 재려 했다. 2006년 『Science』에 실린 글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료가 소득과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가 작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보고했다. 오히려 카너먼과 동료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긴장이나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감정과 이어진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가가 늘기는커녕 일터에서, 그리고 출퇴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스스로 적대적이고 화나고 불안하고 긴장되었다고 표현한 기분에 더 자주 놓였다. 물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은 새롭지 않다. 많은 종교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고 가르치고, 비틀스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고 일깨웠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얻는 것은 정육점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대한 그의 관심 덕분이라고 말한 애덤 스미스조차, 부가 가져다줄 것이라 상상하는 즐거움을 '기만'이라고 불렀다(다만 인류의 근면을 일깨워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어법

- **Would you be happier if you were richer? Many people believe that they would be.** : 가정법 과거(if + 과거 were, 주절 would + 원형) — 지금 사실과 다른 가정. they would be = they would be happier(반복되는 happier를 생략하고 be에서 멈춘 대동사 구조).
- **But research conducted over many years suggests that greater wealth implies greater happiness only at quite low levels of income** : conducted = research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수행된 연구). 주어 research(불가산) → 단수 suggests. suggest that = ~라는 점을 시사하다(단정 아님). only가 at quite low levels를 한정(꽤 낮은 소득 수준에서'만').
- **More dramatically, people in Austria, France, Japan, and Germany appear to be no happier than people in much poorer countries** : appear to be = ~인 것으로 보인다(단정 아님). no + 비교급 + than = ~보다 조금도 더 …하지 않다(= 비슷하다). much + 비교급 = 훨씬 더 ~한(much가 poorer를 강조).
- **Most surveys of happiness simply ask people how satisfied they are with their lives** : ask + 간접목적어(people) + 직접목적어(간접의문문). 간접의문문 어순 = how + 형용사 + 주어 + 동사(how satisfied they are). 직접의문문 어순(how satisfied are they)으로 바꾸면 틀린다.
- **We cannot place great confidence in such studies, because this kind of overall "life satisfaction" judgment may not reflect how much people really enjoy the way they spend their time** : place confidence in = ~을 믿다. may not = ~하지 않을 수도 있다(추측). how much ~ = reflect의 목적어인 간접의문문. the way they spend = the way (that) they spend(방식을 나타내는 관계절).
- **Kahneman and several co-researchers tried to measure people's subjective well-being by asking them about their mood at frequent intervals during a day** : try to V = ~하려고 애쓰다(시도했다는 뜻). by + 동명사 = ~함으로써. them = people. at frequent intervals = 짧은 간격으로 자주.
- **Instead of having more time for leisure, they spent more time at and commuting to work** : instead of + 동명사 = ~하는 대신. at과 commuting to가 work 하나를 함께 받는 구조(= more time at work and commuting to work). spend + 시간 + 전치사구 / -ing.
- **Even Adam Smith, who told us that it is not from the butcher's benevolence that we get our dinner, but from his regard for his self-interest, described the imagined pleasures of wealth as "a deception"** : 주어 Adam Smith와 동사 described 사이에 계속적 who절이 삽입. that절 안 = It is not A but B that 강조 구문(강조되는 것은 from ~ 전치사구). describe A as B = A를 B라고 말하다. imagined = 과거분사 전치(상상한, 상상 속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mply	의미하다, 함축하다	mean	—
dramatically	극적으로	strikingly	—
annually	해마다, 1년에	yearly	—
identical	똑같은	same	different
well-off	부유한	wealthy	poor
confidence	신뢰	trust	doubt
subjective	주관적인	personal	objective
correlation	상관관계	connection	—
leisure	여가	free time	work
commute	통근하다	travel to work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hostile	적대적인	unfriendly	friendly
attachment	집착, 애착	devotion	detachment
benevolence	자비심, 선의	kindness	malevolence
deception	기만, 속임	illusion	—

내용 일치 많은 사람의 믿음 = 더 부자면 더 행복 · 연구 = 부는 '꽤 낮은 소득 수준에서만' 행복으로(시사, suggests) · 미국 = 뉴질랜드보다 부유하나 더 행복하지 않음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일본 · 독일 = 브라질 · 콜롬비아 · 필리핀보다 더 행복하지 않아 '보임'(appear) · 나라 안에서도 같은 효과 · 예외 = 미국 연 12,000달러 미만 · 1950년대보다 부유하나 더 행복하지 않음 · 5만~9만 달러 ≒ 9만 달러 넘는 가족 · 삶의 만족 조사 = 크게 믿을 수 없음(반영 못 할 '수도') · 카너먼 = 저자의 전 프린스턴 동료 · 하루 중 자주 기분 · 2006년『Science』· 상관 작음 · 고소득층 = 긴장 · 스트레스 · 일과 출퇴근 · 적대 · 분노 · 불안 · 긴장의 기분 · 종교 · 비틀스 · 스미스 = '기만'(그래도 인류의 근면을 움직임). **밑줄 의미** only at quite low levels of income = 소득이 꽤 낮을 때만 부가 행복을 늘린다는 한정 / may not reflect how much people really enjoy … = 한 번에 내리는 전체 판단이 하루하루의 실제 즐거움과 다를 수 있다는 저자의 의심 / a deception = 부가 줄 것이라 상상한 즐거움은 착각이라는 스미스의 말(그래도 사람들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함) / 144쪽 ¶1 they would be = 많은 사람 / ¶4 they reported = 카너먼과 공동 연구자들 · they spent = 소득이 높은 사람들.

> **한 줄 요약** 여러 해의 연구는 부가 꽤 낮은 소득 수준에서만 행복을 늘린다는 점을 시사하고, 카너먼의 기분 연구도 소득과 행복의 상관이 작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은 종교와 스미스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6-2 역설과 저자의 추측, 버핏의 사례 — 행복에는 좋은 기분 이상의 것이 있다 145쪽 ¶1 ~ ¶8

원문 위치 원서 145쪽 ¶1 ~ ¶8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5쪽 ¶1 첫 문장	Nevertheless, there is something paradoxical about this.	전환 — 역설의 제기
★	145쪽 ¶1 둘째~셋째 문장	Why do governments all focus on increasing per capita national income?	물음 — 순서 배열의 고리
★	145쪽 ¶2 첫 문장	Perhaps the answer lies in our nature as purposive beings.	저자의 추측(Perhaps) — 단정 금지
▲	145쪽 ¶2 셋째 문장	there was no point in owning anything that one could not carry	there is no point in -ing
●	145쪽 ¶3 첫 문장	provides a safeguard against lean times	어휘 반전: lean ↔ prosperous
◆	145쪽 ¶3 첫 문장	today it has become an end in itself	밑줄 의미 — 수단이 목적이 됨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5쪽 ¶3 둘째 문장	something to do that feels worthwhile, as long as we do not reflect too much on why we are doing it	빈칸 1순위
★	145쪽 ¶4 둘째 문장	the second wealthiest person … after Bill Gates, and in 2021 Forbes magazine ranks him sixth … $96 billion	숫자 — 서답형
●	145쪽 ¶4 셋째 문장	his frugal lifestyle	어휘 반전: frugal ↔ lavish(넷째 문장)
▲	145쪽 ¶4 넷째 문장	Even if his tastes were more lavish, he would be hard-pressed to spend	가정법 과거 · be hard-pressed to V
◆	145쪽 ¶5 첫 문장	his efforts to accumulate more money might seem completely pointless	might seem — 이 관점에서의 판단
★	145쪽 ¶6 첫 문장	the largest philanthropic donation in US history—$30 billion … another $7 billion	숫자 — 서답형 · 내용 일치
▲	145쪽 ¶6 둘째 문장	Even when the donations made by Andrew Carnegie and John D. Rockefeller are adjusted for inflation, Buffett's is greater	과거분사 후치 · Buffett's
◆	145쪽 ¶7 첫~둘째 문장	With a single stroke, Buffett gave purpose to his life. Since he is an agnostic	밑줄 의미 · 이유의 Since
▲	145쪽 ¶8 첫 문장	than he would have if, at some point in the 1960s, he had quit working	가정법 과거완료 · 대동사
★	145쪽 ¶8 셋째 문장	there is more to happiness than being in a good mood	저자의 결론 — 주장 1순위

내용

그런데 여기에는 역설적인 데가 있다. 왜 모든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가? 돈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 주지 않는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얻으려 애쓰는가? 저자는 아마 그 답이 목적을 지닌 존재라는 우리의 본성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우리는 먹고살고 짝을 찾고 아이를 기르려고 열심히 일해야 했던 존재에게서 진화했다. 떠돌아다니는 사회에서는 들고 다닐 수 없는 것을 가져 봐야 소용이 없었지만, 인간이 정착해 화폐 제도를 만들자 소유를 늘리는 데 걸려 있던 그 한계가 사라졌다. 일정한 정도까지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는 보호 장치가 되지만, 오늘날 돈 모으기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었다. 자기 지위나 성공을 재는 방법이 되었고, 무엇을 할 다른 이유는 떠오르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지루할 때 기댈 목표가 되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돈 벌기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할 일을 준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투자가 워런 버핏의 삶을 생각해 보자. 그는 여러 해 동안 빌 게이츠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였고, 2021년『Forbes』는 그의 재산을 960억 달러로 계산해 그를 6위에 올렸다. 그러나 검소한 생활 방식은 그가 큰돈을 쓰는 것을 딱히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취향이 더 사치스럽다 해도 그는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 이상을 쓰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1960년대에 첫 몇백만 달러를 번 뒤 돈을 더

모으려 한 그의 노력은 완전히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다. 버핏은 애덤 스미스가 말하고 카너먼과 동료들이 더 깊이 연구한 그 '기만'의 희생자일까? 공교롭게도 카너먼의 글은 버핏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자선 기부를 발표한 바로 그 주에 나왔다.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300억 달러, 다른 자선 재단들에 70억 달러를 더 내놓은 것이다. 앤드루 카네기와 존 D. 록펠러의 기부를 물가에 맞춰 환산해도 버핏의 기부가 더 크다. 단번에 버핏은 자기 삶에 목적을 주었다. 그는 불가지론자이므로 이 기부는 죽은 뒤의 삶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리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버핏의 삶은 행복의 본질에 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카너먼의 연구로 짐작해 보면, 버핏은 1960년대 어느 시점에 일을 그만두고 자산으로 살면서 브리지 게임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경우보다 좋은 기분으로 보낸 시간이 더 적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랬다면 그는, 자신의 고된 노력과 뛰어난 투자 솜씨가 게이츠 재단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수십억 명에게 죽음과 장애를 가져오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지금 마땅히 느낄 수 있는 만족을 분명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자는 버핏이 행복에는 좋은 기분 이상의 것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고 말한다.

어법

- **Why do so many of us strive to obtain more money, if it won't make us happier?** : strive to V = ~하려고 애쓰다. if절 = '그렇다면 대체 왜'의 뜻을 띤 조건(돈이 행복을 늘리지 않는데도). won't = will not. make + O + 형용사 보어(happier).
- **For nomadic societies, there was no point in owning anything that one could not carry, but once humans settled down and developed a system of money, that limit to acquisition disappeared** : there is no point in -ing = ~해 봐야 소용없다.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carry의 목적어, 선행사 anything). once = 일단 ~하자(접속사). that limit =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만 가진다는 한계.
- **Accumulating money up to a certain amount provides a safeguard against lean times, but today it has become an end in itself, a way of measuring one's status or success, and a goal to fall back on** : 동명사 주어(Accumulating ...) → 단수 provides. it = 돈을 모으는 것. become 뒤 보어 셋(an end in itself / a way of -ing / a goal to fall back on)이 병렬. a goal to fall back on = to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전치사 on이 끝에 남음).
- **Making money gives us something to do that feels worthwhile, as long as we do not reflect too much on why we are doing it** : 동명사 주어 → 단수 gives. give + IO + DO. something을 to do와 관계절 that feels worthwhile이 함께 꾸밈. as long as = ~하는 한(조건). why we are doing it = 간접의문문(reflect on의 목적어).
- **Even if his tastes were more lavish, he would be hard-pressed to spend more than a tiny fraction of his wealth** : Even if + 과거(were), 주절 would + 원형 = 가정법 과거(실제로는 취향이 사치스럽지 않음). be hard-pressed to V = ~하기 어렵다. a fraction of = ~의 일부.
- **Is Buffett a victim of the "deception" that Adam Smith described, and that Kahneman and his colleagues have studied in more depth?** :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절 두 개가 and로 병렬 — 선행사는 하나(the deception). 스미스가 말한(과거 described) 것과 카너먼 팀이 연구해 온(현재완료 have studied) 것이 같은 대상.
- **Even when the donations made by Andrew Carnegie and John D. Rockefeller are adjusted for inflation, Buffett's is greater** : made by ~ = donations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 are adjusted = 수동. Buffett's = Buffett's donation(명사 생략) → 단수 동사 is. Even when = ~할 때조차.
- **Buffett spent less of his life in a positive mood than he would have if, at some point in the 1960s, he had quit working, lived on his assets, and played a lot more bridge** : 가정법 과거완료: if + had p.p.(had가 quit · lived · played 세 동사에 걸림), 주절 he would have (spent) — 비교절이라 반복되는 spent를 생략한 대동사 구조. quit + -ing = ~을 그만두다. a lot more + 명사 = 훨씬 더 많은.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aradoxical	역설적인	contradictory	—
per capita	1인당	per person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trive	애쓰다	struggle	—
purposive	목적을 지닌	purposeful	aimless
nomadic	떠돌아다니는, 유목의	wandering	settled
acquisition	획득, 손에 넣기	gain	loss
safeguard	보호 장치	protection	—
lean (adj.)	궁핍한, 어려운	hard	prosperous
worthwhile	할 만한 가치가 있는	rewarding	pointless
frugal	검소한	thrifty	lavish
lavish	사치스러운	extravagant	frugal
philanthropic	자선의	charitable	—
agnostic (n.)	불가지론자	—	—
assets	자산	property	debts

내용 일치 역설 = 돈이 행복을 늘리지 않는데 왜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에, 우리는 돈에 매달리나 · 답 = '아마'(Perhaps) 목적을 지닌 존재의 본성 · 유목 사회 = 들고 다닐 수 없는 것은 소용없음 → 정착 · 화폐 → 한계 사라짐 · 어느 정도의 저축 = 어려운 시기의 보호 장치 · 오늘날 = 목적 자체 · 지위와 성공의 잣대 · 기댈 목표 · 버핏 = 오랫동안 2위(게이츠 다음) · 2021년 『Forbes』 6위 · 960억 달러 · 검소 · 1960년대 첫 몇백만 달러 · 더 모으는 노력은 무의미해 '보일 수도'(might seem) · 카너먼의 글과 같은 주 · 미국 역사상 최대 기부(게이츠 재단 300억 + 다른 재단 70억) · 카네기 · 록펠러보다 큼(물가 반영) · 불가지론자 → 사후 보상을 바란 기부 아님 · 좋은 기분의 시간은 더 적었을 '수도'(Perhaps) · 그러나 질병 치료에 기여한다는 만족(저자). **밑줄 의미** an end in itself =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수단이던 돈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었다 / as long as we do not reflect too much on why we are doing it = 이유를 따지지 않을 때에만 보람 있게 느껴진다는 단서 / gave purpose to his life = 무의미해 보일 수 있던 축적이 기부로 목적을 얻었다 / there is more to happiness than being in a good mood = 좋은 기분만으로 행복을 다 잴 수 없다는 저자의 결론 / 145쪽 ¶4 he would be hard-pressed = 버핏 / ¶7 it will benefit him = 그의 기부.

> **한 줄 요약** 돈이 행복을 늘리지 않는데도 우리가 돈을 좇는 것은 아마 목적을 지닌 존재의 본성 때문이며, 미국 역사상 최대의 기부로 삶에 목적을 준 버핏은 행복에 좋은 기분 이상의 것이 있음을 일깨운다.

6-3 사례와 쟁점 — 부탄의 국민총행복과 행복을 정의하는 두 접근 146쪽 ¶1 ~ 147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46쪽 ¶1 ~ 147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6쪽 ¶1 첫 문장	high visa fees, which reduce the influx of tourists, and its policy of promoting "gross national happiness" instead of economic growth	부탄이 알려진 두 가지 — 내용 일치
▲	146쪽 ¶1 첫 문장	high visa fees, which reduce	계속적 which · 복수 동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6쪽 ¶1 둘째 문장	The two are related: more tourists might boost the economy, but they would damage	지칭 The two · they = 관광객
★	146쪽 ¶2 첫 문장	or was just another political slogan	저자의 처음 의문 — 뒤집기 후보
★	146쪽 ¶2 둘째 문장	in 2011, I was invited to Bhutan's capital, Thimphu	연도 · 도시 — 서답형
★	146쪽 ¶2 둘째 문장	organized by Prime Minister Jigme Y. Thinley and co-hosted by Jeffrey Sachs	인물 — 역할 바꿔치기 주의
▲	146쪽 ¶3 첫 문장	Never before have I been at a conference that was taken so seriously	부정어 문두 → 도치
▲	146쪽 ¶3 둘째 문장	I had expected Thinley to open the conference with a formal welcome, and return to his office	expect + O + to V · 과거완료
★	146쪽 ¶3 넷째 문장	stayed at the conference for the entire two and a half days	숫자 · 내용 일치
●	146쪽 ¶3 넷째 문장	made pertinent contributions to our discussions	어휘 반전: pertinent ↔ irrelevant
◆	146쪽 ¶4 둘째 문장	Problems arise when we try to agree on a definition of happiness, and to measure it.	전환 — 쟁점 제기
★	146쪽 ¶5 첫 문장	the surplus of pleasure over pain … or as the degree to which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	두 접근 — 통합 사고
●	146쪽 ¶5 둘째 문장	add up the number of positive moments … and then to subtract the negative ones	어휘 반전: add ↔ subtract
▲	146쪽 ¶5 넷째 문장	to measure happiness defined in that way, one would have to sample moments	목적의 to V · 과거분사 후치
★	146쪽 ¶6 첫 문장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way your life has gone so far?"	둘째 접근 — 직접의문문
◆	147쪽 첫 줄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of value	저자의 단서 — 어느 쪽도 고르지 않음

내용

히말라야의 작은 왕국 부탄은 국제적으로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관광객 유입을 줄이는 높은 비자 요금, 그리고 경제 성장 대신 '국민총행복'을 증진하는 정책이다. 둘은 이어져 있다. 관광객이 늘면 경제는 커질 수 있겠지만, 부탄의 환경과 문화를 해쳐 장기적으로 행복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한다는 부탄의 목표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 구호일 뿐인지 궁금했다. 그 목표가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11년, 「Economic Development and Happiness」(경제 발전과 행복) 학회에서 강연하도록 수도 팀푸에 초청받았을 때였다. 이 학회는 지그메 Y. 틴레이 총리가 주최하고, 컬럼비아 대학 지구연구소 소장이자 당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특별 고문이던 제프리 삭스가 공동 주최했다. 저자는 한 나라의 정부가 이토록 진지하게 받아들인 학회에는 가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틴레이 총리가 형식적인 환영사로 학회를 연 뒤 집무실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의 연설은 행복을 국가 정책으로 증진하는 데 걸린 핵심 쟁점을 사려 깊게 검토한 것이었다. 그는 이틀 반 동안 내내 학회에 머물며 논의에 적절한 기여를 했고, 대부분의 회의에는 장관 여럿도 참석했다. 행복은 예부터 어디서나 좋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문제는 행복의 정의에 합의하고 그것을 재려 할 때 생긴다. 중요한 물음 하나는 행복을 평생에 걸쳐 겪은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는 정도로 볼지, 우리가 삶에 만족하는 정도로 볼지다. 앞의 접근은 사람들이 겪는 긍정적인 순간을 모두 더한 뒤 부정적인 순간을 뺀다. 결과가 상당히 양수이면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다고, 음수이면 불행하다고 본다. 그렇게 정의한 행복을 재려면 사람들의 삶의 순간들을 무작위로 표집해, 그때 그들이 긍정적인 정신 상태인지 부정적인 정신 상태인지를 알아내야 할 것이다. 둘째 접근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고 묻는다. 만족한다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면 불행하다기보다 행복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떤 방식이 우리가 증진해야 할 것을 가장 잘 담아내는지는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를 낳는다.

어법

- **The small Himalayan kingdom of Bhutan is known internationally for two things: high visa fees, which reduce the influx of tourists, and its policy of promoting "gross national happiness" instead of economic growth** : be known for = ~로 알려져 있다. 콜론 뒤 = two things의 내용(명사구 둘). which = 계속적 관계대명사(선행사 high visa fees → 복수 동사 reduce). of + 동명사(promoting). instead of + 명사.
- **The two are related: more tourists might boost the economy, but they would damage Bhutan's environment and culture, and so reduce happiness in the long run** : might · would = 관광객이 더 온다면이라는 가정 속의 추측. would 뒤 damage와 reduce가 병렬(and so = 그래서). they = more tourists.
- **I wondered if it really meant anything in practice, or was just another political slogan** : wonder if = ~인지 궁금해하다(if = whether). 주어 it(부탄의 목표) 뒤 동사 meant와 was가 or로 병렬. another = 또 하나의.
- **Never before have I been at a conference that was taken so seriously by a national government** : 부정 부사구 Never before가 문장 앞 → 조동사 have + 주어 I 도치. 현재완료 = 지금까지의 경험. was taken seriously = take ~ seriously의 수동.
- **I had expected Thinley to open the conference with a formal welcome, and return to his office** : had expected = 과거완료(학회가 열리기 전에 품었던 예상 — 실제로는 빗나감). expect + O + to V. to open과 (to) return이 병렬.
- **One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we see happiness as the surplus of pleasure over pain experienced over a lifetime, or as the degree to which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 : whether절이 보어. see A as B가 두 번 병렬(as the surplus … / or as the degree …). experienced = 과거분사 후치(겪은). the degree to which =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 to the degree에서 to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 **If the result is substantially positive, we regard the person's life as happy; if negative, as unhappy** : regard A as B = A를 B로 여기다. if negative = if the result is negative(주어 + be 생략). as unhappy = we regard the person's life as unhappy(반복 생략).
- **But the question of which of these ways of understanding happiness best captures what we should promote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of value** : 주어 the question(단수)과 동사 raises 사이가 멀다. of + 간접의문문(which … captures). what we should promote = 관계대명사 what절(captures의 목적어).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flux	유입	inflow	outflow
boost	북돋우다, 끌어올리다	increase	reduce
maximize	극대화하다	increase	minimize
slogan	구호	motto	—
formal	형식적인, 의례적인	ceremonial	informal
thoughtful	사려 깊은	considered	careless
pertinent	적절한, 핵심을 찌르는	relevant	irrelevant
universally	보편적으로, 어디서나	everywhere	—
surplus	초과분, 남는 양	excess	shortage
subtract	빼다	deduct	add
substantially	상당히	considerably	slightly
randomly	무작위로	at random	systematically
capture	담아내다, 포착하다	reflect	miss
fundamental	근본적인	basic	superficial

내용 일치 부탄 = 히말라야의 작은 왕국 · 높은 비자 요금(관광객 유입을 줄임) · 경제 성장 '대신' 국민총행복 · 관광객 → 경제는 키울 수 있으나 환경 · 문화 훼손 → 장기적으로 행복 감소 · 저자의 처음 의문 = 정치 구호일 뿐인가 · 2011년 · 수도 팀푸 · 틴레이 총리 주최 · 제프리 삭스 공동 주최(컬럼비아 대학 지구연구소 소장 · 반기문 사무총장의 특별 고문) · 이토록 진지한 학회는 처음 · 형식적 환영사 예상 → 사려 깊은 연설 · 이틀 반 내내 · 대부분의 회의에 장관 여럿 · 행복 = 예부터 어디서나 좋은 것 · 문제 = 정의와 측정 · 첫째 접근 = 평생 쾌락이 고통을 넘는 정도(무작위 표집) · 둘째 접근 = 지금까지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나 · 어느 쪽이 나은가 =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저자는 고르지 않음). **지칭** 146쪽 ¶1 The two = 높은 비자 요금과 국민총행복 정책 · they would damage = 더 많은 관광객 / ¶2 it really meant = 부탄의 목표 / ¶3 his address · He then stayed = 틴레이 총리 / ¶4 measure it = 행복 / ¶5 The former approach = 쾌락이 고통을 넘는 정도로 보는 접근 · they are experiencing = 표집된 사람들 / ¶6 they are happy =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들.

> **한 줄 요약** 국민총행복을 내건 부탄 정부는 저자가 처음 품은 의문과 달리 학회를 진지하게 대했고, 행복을 쾌락이 고통을 넘는 정도로 볼지 삶에 만족하는 정도로 볼지는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로 남는다.

6-4 조사 결과와 반론, 부탄의 실천 – 흐릿해도 옳은 목표일 수 있다는 저자의 답 147쪽 ¶1 ~ ¶6

원문 위치 원서 147쪽 ¶1 ~ ¶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7쪽 ¶1 첫 문장	countries like Nigeria, Mexico, and Brazil, and the U.S. territory of Puerto Rico, do well	나라 – 접근 바꿔치기 주의
▲	147쪽 ¶1 첫 문장	do well, which suggests that the answer may have more to do with the national culture than with	계속적 which(앞 절 전체)
●	147쪽 ¶1 첫 문장	objective indicators like health, education, and standard of living	어휘 반전: objective ↔ subjective
▲	147쪽 ¶1 둘째 문장	it tends to be the richer countries, like Denmark and Switzerland, that come out on top	It ~ that 강조 구문
★	147쪽 ¶1 셋째 문장	it is not clear whether people's answers … really mean the same thing	저자의 단서 – 단정 금지
★	147쪽 ¶2 첫 문장	if we have no objective measure of happiness, does this make sense?	반론의 물음 – 요지의 출발점
◆	147쪽 ¶2 둘째 문장	"I would rather be vaguely right than precisely wrong."	케인스의 말 · would rather A than B
●	147쪽 ¶2 셋째 문장	they are likely to be woolly, and in need of more work to define them sharply	어휘 반전: woolly ↔ clear
◆	147쪽 ¶2 넷째 문장	That may be the case with the idea of happiness as the goal of national policy.	저자의 답(may) · 요지
★	147쪽 ¶3 첫 문장	a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which screens all new policy proposals	기관 · 역할 – 내용 일치
▲	147쪽 ¶3 둘째 문장	If a policy is found to be contrary to the goal …, it is sent back	be found to be · 수동
▲	147쪽 ¶4 첫 문장	One controversial law that did go ahead– … – was a ban on the sale of tobacco	강조의 did · 주어와 동사 사이 삽입
★	147쪽 ¶4 둘째 문장	from India for their own consumption, but not for resale … the import-tax receipt	조건 – 내용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47쪽 ¶4 셋째 문장	(The government lifted the ban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괄호 속 사실 — True/False 후보
★	147쪽 ¶5 첫·셋째 문장	a Bhutanese-initiated resolution … not reflected in GDP … the General Assembly's 66th session	유엔 총회 · 숫자 — 서답형
★	147쪽 ¶6 둘째 문장	hope that ultimately the goal becomes global, rather than merely national, happiness	저자의 결론 — 주장

내용

첫째 접근을 쓰는 조사에서는 나이지리아 · 멕시코 · 브라질과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같은 곳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는 그 답이 건강 · 교육 · 생활 수준 같은 객관적 지표보다 그 나라의 문화와 더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접근을 택하면 덴마크나 스위스처럼 더 부유한 나라들이 위에 오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에서 나온 조사 답변이 실제로 같은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리는 소득이나 국내총생산(GDP)이 아니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는 데 합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복을 재는 객관적 척도가 없다면 그것이 말이 될까?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정확하게 틀리느니 막연하게 옳은 편이 낫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는 생각이 처음 세상에 나올 때는 흐릿하기 쉬워서 뚜렷하게 정의하려면 더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행복을 국가 정책의 목표로 삼는 생각도 그런 경우일 수 있다고 본다. 부탄에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민총행복위원회가 있어, 정부 부처가 내놓는 새 정책안을 모두 심사한다. 정책안이 국민총행복 증진이라는 목표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재검토하도록 부처로 되돌려 보내고,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 실제로 통과된 논란 많은 법 하나가 담배 판매 금지다. 이 법은 정부가 전체 행복을 극대화하리라고 믿는 강경한 조치를 얼마나 기꺼이 취하는지 보여 준다. 부탄 사람들은 인도에서 소량의 궐련이나 담배를 자기가 피울 용도로만 들여올 수 있고 되팔 수는 없으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수입세 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정부는 코로나 대유행 동안,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불법 담배 밀수업자의 국경 이동을 줄이려고 이 금지를 풀었다). 부탄이 발의한 결의에 따라 유엔 총회는 행복 추구를 인간의 근본 목표로 인정하고, 이 목표가 GDP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결의는 회원국들에 행복이라는 목표를 더 잘 담아낼 추가 척도를 개발하도록 권했다. 부탄은 66차 총회 기간에 행복과 웰빙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도 열었다. 이런 논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웰빙과 행복 쪽으로 바꾸려는, 점점 커지는 국제적 움직임의 일부다. 행복을 재고 무엇이 행복을 늘리는지 이해하려는 과학자가 늘면서, 행복을 공공 정책의 목표로 삼는 생각은 점차 지지를 얻고 있다. 저자는 이 노력이 잘되기를 빌며, 궁극적으로 그 목표가 그저 한 나라의 행복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행복이 되기를 바란다.

어법

- countries like Nigeria, Mexico, and Brazil, and the U.S. territory of Puerto Rico, do well, which suggests that the answer may have more to do with the national culture than with objective indicators : which = 앞 절 전체(그런 나라들이 높게 나온다는 사실)를 받는 계속적 관계대명사 → 단수 suggests. have more to do with A than with B = B보다 A와 더 관계가 있다. may = 단정 아님.
- When the second approach is taken, it tends to be the richer countries, like Denmark and Switzerland, that come out on top : It is ~ that 강조 구문에 tend to가 결합(it tends to be X that …). that 뒤 동사 come = 강조된 the richer countries(복수)에 일치. come out on top = 1위를 차지하다.
- But it is not clear whether people's answers to survey questions in different languages and in different cultures really mean the same thing : 가주어 it + 진주어 whether절. 주어 answers(복수) → mean. in different languages와 in different cultures가 병렬.

- **We may agree that our goal ought to be promoting happiness, rather than income or gross domestic product** : may = ~할 수도 있다(합의를 단정하지 않음). ought to = should. be + 동명사 보어(promoting). A rather than B = B가 아니라 A.
- **John Maynard Keynes famously said: "I would rather be vaguely right than precisely wrong."** : would rather A than B = B하느니 차라리 A하겠다(A · B 모두 원형 — than 뒤 be가 생략된 꼴). vaguely ↔ precisely, right ↔ wrong이 짝을 이루는 대구.
- **He pointed out that when ideas first come into the world, they are likely to be woolly, and in need of more work to define them sharply** : be likely to V = ~하기 쉽다. be 뒤 보어 woolly와 in need of가 병렬. to define = more work를 꾸미는 to부정사. them = ideas.
- **If a policy is found to be contrary to the goal of promoting gross national happiness, it is sent back to the ministry for reconsideration** : be found to be = ~인 것으로 판명되다(find + O + to be의 수동). contrary to = ~에 어긋나는. it = a policy. is sent back = 수동.
- **One controversial law that did go ahead—and that indicates how willing the government is to take tough measures it believes will maximize overall happiness— was a ban on the sale of tobacco** : 주어 law + 관계절 두 개(that did go ahead / that indicates ...) → 동사 was. did = 강조의 조동사(실제로 통과된). how willing the government is to V = 간접의문문. measures it believes will maximize =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it believes가 끼어든 구조(measures which, it believes, will maximiz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erritory	(미국의) 자치령, 영토	region	—
indicator	지표	measure	—
objective (adj.)	객관적인	impartial	subjective
vaguely	막연하게	roughly	precisely
woolly	흐릿한, 모호한	fuzzy	clear
screen (v.)	심사하다, 걸러 내다	examine	—
contrary to	~에 어긋나는	against	consistent with
controversial	논란이 많은	disputed	uncontroversial
resale	되팔기	reselling	—
smuggler	밀수업자	trafficker	—
resolution	결의(안)	motion	—
convene	(회의를) 열다, 소집하다	assemble	dismiss
re-orient	방향을 바꾸다	redirect	—
gradually	점차	steadily	suddenly

내용 일치 첫째 접근 = 나이지리아 · 멕시코 · 브라질 · 푸에르토리코(미국 자치령) → 객관적 지표보다 국민 문화와 더 관계있을 '수도'(may) · 둘째 접근 = 덴마크 · 스위스 같은 부국 · 다른 언어 · 문화의 답이 같은 뜻인지 = 분명하지 않음 · 소득 · GDP보다 행복 = 합의할 '수도'(may) · 객관적 척도 없이 말이 되나(저자가 던진 물음) · 케인스 = 정확하게 틀리느니 막연하게 옳은 편 · 새 생각은 처음에 흐릿 · 행복 정책도 그럴 '수도'(may) · 국민총행복위원회 = 총리가 위원장 · 새 정책안 모두 심사 · 어긋나면 부처로 되돌림 · 승인 없이 추진 불가 · 담배 판매 금지 = 논란 · 인도에서 소량 자가 소비용 · 되팔기 금지 · 공공장소 흡연 때 수입세 영수증 · 코로나 동안 해제 · 유엔 총회 결의(부탄 발의) = 행복 추구는 근본 목표 · GDP에 반영 안 됨 · 추가 척도 권유 ·

66차 총회 패널 토론 · 저자의 바람 = 지구 전체의 행복. **밑줄 의미** vaguely right than precisely wrong = 정확하지만 엉뚱한 목표보다 흐릿해도 옳은 목표가 낫다는 케인스의 말 / woolly = 새 생각이 처음 나올 때의 흐릿함 / That may be the case = 행복 정책도 아직 흐릿할 뿐일 수 있다는 저자의 조심스러운 답 / global, rather than merely national, happiness = 한 나라를 넘어 세계 전체의 행복 / 147쪽 ¶3 it is sent back = 정책안 / ¶4 it believes = 부탄 정부.

한 줄 요약 행복 조사는 접근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언어 · 문화의 차이도 걸리지만, 저자는 새 생각이 처음엔 흐릿하듯 행복을 정책 목표로 삼는 생각도 그럴 수 있다고 보며, 부탄과 유엔의 움직임을 응원하고 지구 전체의 행복을 바란다.

6-5 만남과 반론 — 저자의 강연에 맞선 존슨, 호칭의 조건과 너그러운 기록 155쪽 ¶1 ~ 156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55쪽 ¶1 ~ 156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55쪽 ¶1 첫 문장	I met Harriet McBryde Johnson in the spring of 2001, when I was giving a lecture at the College of Charleston	연도 · 장소 — 서답형
◆	155쪽 ¶1 둘째 문장	if you're not prepared to shoot on sight, you have to be prepared to shake hands	밑줄 의미 · be prepared to V
★	155쪽 ¶1 둘째 문장	from her powered wheelchair and took it with the three working fingers on her right hand	숫자 · 지칭 it = 저자의 손
★	155쪽 ¶1 셋째 문장	a supporter of Not Dead Yet, the disability rights organization that a year and a half earlier blockaded	단체 · 시점 — 내용 일치
◆	155쪽 ¶1 넷째 문장	I told her I looked forward to an interesting exchange.	저자의 태도 — 순서의 고리
▲	155쪽 ¶2 첫 문장	a defense of the position that had aroused such vehement opposition	과거완료 · such + 형용사 + 명사
★	155쪽 ¶2 둘째 문장	physicians routinely withdraw life support from severely disabled newborns	저자의 강연 — 의견이 갈린 대목
▲	155쪽 ¶2 둘째 문장	disabilities so serious that the family believes this will be best	명사 + so + 형용사 + that
▲	155쪽 ¶3 첫 문장	Johnson, who was born with a muscle-wasting disease, spoke up	계속적 who · 주어와 동사 사이 삽입
◆	155쪽 ¶3 둘째 문장	I was saying, she pointed out, that her parents should have been permitted to	삽입절 · should have been p.p.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55쪽 ¶3 넷째 문장	It is a mistake, she said, to believe that having a disability makes life less worth living.	존슨의 견해 — 저자의 주장으로 쓰지 말 것
★	155쪽 ¶4 둘째 문장	Too Late to Die Young … "arguing hard" listed among the pleasures of her life	책 제목 · 내용 일치
▲	155쪽 ¶5 둘째 문장	on condition that in public we avoid the informality of using first names that I had, in my Australian way, adopted	on condition that + 원형 · 관계절
◆	155쪽 ¶5 셋째 문장	the inequality implied in "Professor Singer" and "Ms. Johnson."	밑줄 의미 1순위
★	155쪽 ¶6 첫 문장	"Unspeakable Conversations," her memorable cover article for The New York Times Magazine in 2003	글 제목 · 연도 — 서답형
▲	155쪽 ¶6 둘째 문장 ~ 156쪽 첫 줄	more generous to me than I had a right to expect from someone whose very existence I had questioned	비교 · whose + 명사

내용

저자는 2001년 봄 찰스턴 칼리지에서 강연하던 때 해리엇 맥브라이드 존슨을 만났다. 그녀가 지키는 남부식 예절에 따르면, 보자마자 쏠 생각이 아니라면 악수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저자가 손을 내밀자 그녀는 전동 휠체어에서 손을 벋어, 오른손에서 움직이는 손가락 세 개로 그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Not Dead Yet의 지지자로 강연에 왔다고 덧붙였다. 이 장애 인권 단체는 그보다 1년 반 전, 저자가 생명윤리 교수로 임명된 데 항의해 프린스턴 대학의 나소 홀을 봉쇄한 적이 있다. 저자는 흥미로운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저자의 강연 「Rethinking Life and Death」는 그토록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킨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저자는 의사들이 중증 장애가 있는 신생아에게서 으레 생명 유지 장치를 거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아이의 장애가 너무 심해 가족이 그것이 아이나 가족 전체에게 최선이라고 믿을 때 부모가 의사와 상의해 아기의 생명을 끝내기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연이 끝나자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을 안고 태어난 존슨이 말을 꺼냈다. 그녀는 저자의 말이 결국 자기 부모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신을 죽이도록 허용되었어야 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변호사이고 누구 못지않게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장애가 있으면 삶이 덜 살 만해진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의견 교환은 강연장에서 몇 분 동안, 그 뒤에는 이메일로 이어졌다. 여러 해 뒤 그녀의 자전적 책 『Too Late to Die Young』을 읽었을 때, 저자는 그녀가 삶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로 '치열하게 논쟁하기'를 꼽은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듬해 저자는 자신이 가르치던 대형 학부 강의에서 이야기해 달라며 그녀를 프린스턴에 초청했다. 그녀는 수락했지만, 저자가 오스트레일리아식으로 이메일에서 써 온 이름 부르기의 허물없음을 공개 자리에서는 피하자는 조건을 달았다. 또 'Professor Singer'와 'Ms. Johnson'이라는 호칭에 담긴 불평등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저자는 그녀가 자신을 Mr. Singer라고 불러도 된다고 동의했다. 그녀는 2003년 『The New York Times Magazine』의 인상적인 표지 기사 「Unspeakable Conversations」에서 프린스턴 방문을 묘사했다. 그녀는 글을 아름답게 썼고 기억력이 놀라웠으며(그때 메모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았던 사람에게 저자가 기대할 자격이 있던 것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녀는 저자가 좋은 말벗이었다고까지 썼고, 저자 역시 그녀를 그렇게 여겼다.

어법

- **Her brand of Southern etiquette prescribed that if you're not prepared to shoot on sight, you have to be prepared to shake hands, so when I held out mine, she reached up from her powered wheelchair and took it** : prescribe that = ~하라고 정해 두다. be prepared to V = ~할 준비가 되어 있다(두 번 대구). mine = my hand(소유대명사). it = 저자가 내민 손.
- **Not Dead Yet, the disability rights organization that a year and a half earlier blockaded Princeton University's Nassau Hall in protest against my appointment as a professor of bioethics** : Not Dead Yet = 뒤의 명사구와 동격. that = 주격 관계대명사(→ blockaded). a year and a half earlier = 그때(2001년 봄)보다 1년 반 전. in protest against = ~에 항의하여.
- **My lecture, "Rethinking Life and Death," was a defense of the position that had aroused such vehement opposition** : 강연 제목 = 주어의 동격. had aroused = 과거완료(강연 이전부터 반대를 불러일으켜 온). such + 형용사 + 명사 = 그토록 ~한.
- **allowing parents to decide,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to end the life of a baby when the child has disabilities so serious that the family believes this will be best for the child or for the family as a whole** : allow + O + to V(decide) → decide + to V(end). in consultation with = ~와 상의하여(삽입). disabilities so serious that = 명사 뒤에서 꾸미는 so ~ that 구문(너무 심해서 ~할 정도인 장애).
- **I was saying, she pointed out, that her parents should have been permitted to kill her shortly after her birth** : she pointed out = 삽입된 전달절. I was saying that ~ = 저자의 말이 결국 ~라는 뜻이라는 존슨의 지적. should have been p.p. = ~하도록 허용되었어야 했다(저자의 논리를 따를 때의 귀결).
- **It is a mistake, she said, to believe that having a disability makes life less worth living** : 가주어 It + 진주어 to believe(사이에 she said 삽입). 동명사 주어 having a disability → 단수 makes. worth -ing = ~할 가치가 있는 → less worth living = 덜 살 만한.
- **She accepted but on condition that in public we avoid the informality of using first names that I had, in my Australian way, adopted over e-mail** : on condition that = ~라는 조건으로. 과거 문맥인데 that절에 avoid — 조건의 내용을 시제를 맞추지 않은 현재형(또는 원형)으로 씀. that I had adopted = 목적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informality of using first names), 사이에 in my Australian way 삽입.
- **she was more generous to me than I had a right to expect from someone whose very existence I had questioned** : 비교급 + than절. a right to V = ~할 권리. whose + 명사(very existence) = 소유격 관계대명사(very = 바로 그). had questioned = 과거완료(그 이전에 문제 삼았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tiquette	예절	manners	—
prescribe	규정하다, 정해 두다	dictate	—
powered	전동의	motorized	manual
blockade (v.)	봉쇄하다	barricade	—
appointment	임명	nomination	dismissal
vehement	격렬한	fierce	mild
withdraw	거두다, 중단하다	remove	provide
consultation	상의, 협의	discussion	—
muscle-wasting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utobiographical	자전적인	—	—
informality	격식 없음	casualness	formality
inequality	불평등	disparity	equality
recollection	기억(력)	memory	—
generous	너그러운	kind	harsh

내용 일치 2001년 봄 · 찰스턴 칼리지 강연 · 남부식 예절(쏠 생각이 아니면 악수) · 전동 휠체어 · 오른손의 움직이는 세 손가락 · Not Dead Yet = 장애 인권 단체 · 1년 반 '전' 나소 홀 봉쇄(저자의 생명윤리 교수 임명에 항의) · 강연 「Rethinking Life and Death」 = 저자 입장의 옹호 · 중증 장애 신생아의 생명 유지 장치를 거두는 관행 ≒ 장애가 너무 심해 가족이 최선이라 믿을 때 부모가 의사와 상의해 아기의 생명을 끝내기로 정하게 하는 것(저자의 강연 속 주장) · 존슨 =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 · 그 말대로면 부모가 자신을 죽이도록 허용되었어야(존슨의 지적) · 변호사 · 누구 못지않게 삶을 즐김 · 장애가 삶을 덜 살 만하게 한다는 믿음은 잘못(존슨의 말) · 『Too Late to Die Young』 · '치열하게 논쟁하기' · 이듬해 프린스턴 초청 · 공개 자리에선 이름 부르기 피하기 · 호칭의 불평등 거부 → Mr. Singer · 2003 「Unspeakable Conversations」 · 메모 없이 기억 · 좋은 말벗. **밑줄 의미** if you're not prepared to shoot on sight, you have to be prepared to shake hands = 상대가 적이라도 해칠 생각이 아니라면 예의는 갖춘다는 예절 / the inequality implied in "Professor Singer" and "Ms. Johnson" = 한쪽만 직함으로 부르면 둘의 지위가 기울어진다는 것 / more generous to me than I had a right to expect =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은 사람에게 베푼 뜻밖의 너그러움 / 155쪽 ¶1 took it = 저자의 손 · ¶2 the position = 강연 이전부터 반대를 불러온 저자의 입장 · ¶3 her parents = 존슨의 부모.

> **한 줄 요약** 저자의 강연에 존슨은 장애가 삶을 덜 살 만하게 한다는 믿음은 잘못이라고 맞섰고, 두 사람은 이견 속에서도 대등한 호칭을 정해 교류를 이어 갔으며, 존슨은 그 만남을 너그럽게 기록했다.

6-6 도움과 물음, 남은 이견 — 적이 아닌 사람, 장애와 삶의 만족, 추모에 대한 저자의 비판

156쪽 ¶1 ~ ¶4

원문 위치 원서 156쪽 ¶1 ~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56쪽 ¶1 첫 문장	I arranged for her to have dinner with a group of undergraduates who met regularly	arrange for + O + to V
▲	156쪽 ¶1 둘째 문장	she occasionally asked me to move things to where she could reach them	ask + O + to V · to where
★	156쪽 ¶1 셋째 문장	her right elbow slipped out from under her … she asked me to grasp her wrist and pull it forward	사건 — 내용 일치
▲	156쪽 ¶1 셋째 문장	as she was not able to move it back	이유의 as · 지칭 it = 팔꿈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56쪽 ¶1 다섯째 문장	they were appalled that she had called on me to help her	친구들의 반응 — True/False 후보
◆	156쪽 ¶1 일곱째 문장	she saw me not simply as "the enemy" but as a person with whom it was possible to have some forms of human interaction	밑줄 의미 · 제목 · 저자의 해석
★	156쪽 ¶2 둘째 문장	Her life was evidently a good one, and not just for herself	저자의 판단
▲	156쪽 ¶2 둘째 문장	her legal work and political activism on behalf of the disabled	on behalf of · the + 형용사
★	156쪽 ¶2 셋째 문장	show a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ir lives that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at of people who are not disabled	통합 사고 1순위 · 요약문
◆	156쪽 ¶2 넷째 ~ 다섯째 문장	adjusted their expectations downward … Or do even severe disabilities really make no difference	저자의 물음 둘 — 답을 단정하지 말 것
▲	156쪽 ¶3 둘째 문장	that would lead to a flurry of e-mail messages that at least clarified the points on which we disagreed	과거의 습관 would · on which
★	156쪽 ¶3 셋째 문장	her attribution of rights to humans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had implications for how we should think about animals too	저자의 설득 — 의견이 갈린 대목
◆	156쪽 ¶3 넷째 문장	She didn't object to the argument but felt she had enough issues to handle	반대하지 않음 ≠ 동의
★	156쪽 ¶3 다섯째 문장	for neither of us had any … under the presidency of George W. Bush	공통점 — 내용 일치
★	156쪽 ¶4 첫 문장	According to her sister, Beth, what most concerned Harriet about dying	출처 한정(According to)
◆	156쪽 ¶4 둘째 문장	doubly insulting, first because Johnson did not believe in a life after death, and second	저자의 비판 — 이유 두 개

내용

그녀의 강연이 끝난 뒤 저자는 그녀가 윤리적 물음을 토론하려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학부생들과 저녁을 함께하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저자는 그녀의 오른쪽에 앉았고, 그녀는 이따금 손이 닿는 곳으로 물건을 옮겨 달라고 했다. 한번은 그녀의 오른쪽 팔꿈치가 몸 아래에서 미끄러져 나갔는데, 그녀는 그것을 제자리로 돌릴 수 없어 저자에게 손목을 잡아

앞으로 당겨 달라고 했다. 저자가 그렇게 하자 그녀는 다시 포크로 음식에 손이 닿았다. 저자는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녀가 장애 운동을 하는 친구 몇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그녀가 저자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데 경악했다. 저자는 그녀가 그 일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은 것이 기쁘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그저 '적'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인간적인 교류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았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학생들은 존슨의 방문을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그 대화는 저자의 마음에도 남았다. 저자는 그녀의 삶이 분명 좋은 삶이었으며, 그녀 자신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장애인을 위한 그녀의 법률 활동과 정치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삶의 만족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알고 있다. 오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기대를 낮추어 더 적은 것에 만족하게 된 것일까? 아니면 아무리 심한 장애라도 일단 익숙해지면 실제로 행복에 아무 차이를 만들지 않는 것일까? 저자는 이 두 물음을 던질 뿐 답을 내리지 않는다. 그 뒤 6년 동안 두 사람은 이따금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저자가 장애 문제에 관해 글을 쓰거나 말하면 그녀가 비판을 보내왔고, 그러면 이메일이 한바탕 오가며 적어도 두 사람이 의견을 달리하는 지점이 분명해졌다. 저자는 그녀가 중증 지적 장애인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는 동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관한 함의도 있다고 설득하려 했다. 저자가 든 까닭은, 동물도 그녀가 생명권을 옹호하는 사람들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논증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영역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아도 다룰 쟁점이 이미 충분하다고 느꼈다. 종교에서는 의견을 모으기가 더 쉬웠다. 둘 다 종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아래에서 나라가 가는 방향을 싫어한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그녀의 자매 베스에 따르면, 해리엇이 죽음에 관해 가장 걱정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늘어놓을 허튼소리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를 기리는 말 가운데에는 그녀가 이제 천국의 들판을 달리고 뛰논다는 말이 여럿 있었다. 저자는 이것이 이중으로 모욕적이라고 말한다. 첫째, 존슨은 죽은 뒤의 삶을 믿지 않았다. 둘째, 천국의 더없는 행복을 누리려면 왜 달리고 뛸 수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는가?

어법

- **After she spoke, I arranged for her to have dinner with a group of undergraduates who met regularly to discuss ethical questions** : arrange for + O + to V = O가 ~하도록 마련하다. who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group of undergraduates → met). to discuss = 목적.
- **At one point her right elbow slipped out from under her, and as she was not able to move it back, she asked me to grasp her wrist and pull it forward** : as = 이유의 접속사. move it back의 it = 팔꿈치, pull it forward의 it = 손목. ask + O + to V(grasp · pull 병렬).
- **I thought nothing of the incident, but when she told some of her friends in the disability movement about it, they were appalled that she had called on me to help her** : think nothing of =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be appalled that = ~에 경악하다(감정의 원인인 that절). had called = 과거완료(친구들이 듣기 전의 일). call on + O + to V = ~에게 ~해 달라고 청하다.
- **It suggests that she saw me not simply as "the enemy" but as a person with whom it was possible to have some forms of human interaction** : It = 그녀가 거리낌 없이 도움을 청한 일. suggest = 시사하다(저자의 해석). not simply A but B. see A as B. with whom = 전치사 + 관계대명사(interaction with a person), 그 안에 가주어 it + 진주어 to have.
- **I know that surveys have found that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show a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ir lives that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at of people who are not disabled** : living = 현재분사 후치(장애를 안고 사는). that is ~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level). that of = the level of satisfaction(반복을 피하는 대명사 that).
- **Have people with long-term disabilities adjusted their expectations downward, so that they are satisfied with less? Or do even severe disabilities really make no difference to our happiness, once we get used to them?** : 현재완료 의문문. so that = 그 결과(결과의 접속사). make no difference to = ~에 아무 차이도 만들지 않다. once = 일단 ~하면. get used to + 명사(them = disabilities).

- **If I wrote or spoke on disability issues, she would send me her criticisms, and that would lead to a flurry of e-mail messages that at least clarified the points on which we disagreed** : would = 과거의 반복된 습관(~하곤 했다). on which = disagree on의 on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that clarified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messages).
- **doubly insulting, first because Johnson did not believe in a life after death, and second, why assume that heavenly bliss requires you to be able to run and skip?** : first ... second로 이유 둘을 나열. why + 원형(assume) = 왜 ~라고 가정하는가(반문 —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 require + O + to V. you = 일반 사람.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dergraduate	학부생	college student	graduate
grasp	꽉 잡다	grip	release
appalled	경악한	horrified	pleased
interaction	교류	contact	—
evidently	분명히	clearly	—
activism	(사회) 운동, 활동	campaigning	—
adjust	조정하다	adapt	—
sporadically	이따금, 산발적으로	occasionally	regularly
flurry	한바탕의 쇄도	burst	—
clarify	분명히 하다	explain	obscure
attribution	(권리를) 인정함, 부여	assignment	—
implication	함의	consequence	—
tribute	추모의 말, 헌사	homage	—
bliss	더없는 행복	joy	misery

내용 일치 강연 뒤 저녁 = 윤리적 물음을 토론하는 학부생 모임 · 저자 = 그녀의 오른쪽 · 오른쪽 팔꿈치가 미끄러짐 → 손목을 잡아 앞으로 · 포크로 다시 음식에 · 저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김 · 장애 운동의 친구 몇 = 경악 · 저자 = 기쁨 · '적'만이 아닌 사람으로 본 듯(It suggests) · 좋은 삶 =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 조사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 ≒ 장애가 없는 사람들 · 기대를 낮췄나, 익숙해지면 차이가 없나 = 저자의 물음(답하지 않음) · 6년 동안 이따금 이메일 · 의견이 다른 지점이 분명해짐 · 동물로의 확장 = 저자의 설득 · 존슨 = 반대하지 않았으나 새 영역에 들어가지 않음 · 둘 다 종교 없음 · 부시 정부의 방향을 싫어함 · 자매 베스에 '따르면' · 천국의 들판 = 이중으로 모욕적(저자). **지칭** 156쪽 ¶1 move it back = 오른쪽 팔꿈치 · pull it forward = 손목 · they were appalled = 장애 운동의 친구들 · It suggests = 그녀가 거리낌 없이 도움을 청한 일 / ¶2 that of = 삶의 만족 수준 · get used to them = 장애 / ¶3 they could enjoy = 동물 · the people whose right to life she was defending = 중증 지적 장애인 / ¶4 her sister = 해리엇의 자매 · you(requires you) = 일반 사람.

> **한 줄 요약** 저녁 식사의 작은 도움에서 저자는 존슨이 자신을 적만이 아닌 사람으로 보았다고 여기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조사 앞에서 두 물음을 남기며, 사후의 삶을 믿지 않은 그녀에게 천국을 말한 추모는 이중으로 모욕적이라고 본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6 HAPPINESS]

범위	Happiness, Money, and Giving · Gross National Happiness · Happy, Nevertheless (원서 PDF 144~156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ith one stroke of generosity, Buffett gave his life a purpose, and as an agnostic he was not hoping for any reward in a life to come. What, then, can his story teach us about happiness? Kahneman's findings suggest that Buffett might have enjoyed more cheerful hours had he retired sometime in the 1960s, lived off his savings, and played far more bridge. Yet had he done so, he would surely have missed the satisfaction he can now rightly take in knowing that his effort and investing skill will help the Gates Foundation defeat diseases that kill or disable billions of the poorest people on earth. A happy life, it seems, is not only a matter of pleasant hours.

① Rich people should give away all their wealth to be happy.
② Positive moods are the only reliable sign of happiness.
③ Retiring early is the surest path to a good life.
④ Happiness involves more than just feeling good.
⑤ Religious hopes drive most great acts of charity.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fter Johnson's talk, Singer set up a dinner for her with some undergraduates who regularly gathered to discuss ethics. He took the seat to her right, and now and then she asked him to move things closer to her. Once, her right elbow slid out from under her; unable to put it back herself, she asked him to take hold of her wrist and draw it forward. He did, and she could eat with her fork again. Singer gave the moment no thought, but friends of hers in the disability movement were horrified to learn that she had asked him for help. Singer, however, is glad it caused her no difficulty, for it hints that she regarded him as more than 'the enemy': as someone with whom some human contact was possible.

① Why Disability Activists Refused to Meet Singer
② A Dinner Debate on the Rights of Animals
③ More Than an Enemy: A Small Moment of Help at Dinner
④ How Students Learned to Argue Hard
⑤ The Danger of Asking Opponents for Help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uppose we agree that what governments should be promoting is happiness, not income or GDP. A hard question follows: can this goal make sense when there is no objective way to measure happiness? John Maynard Keynes once remarked that he would sooner be roughly right than exactly wrong. When ideas first appear, he noted, they are usually fuzzy and need further work before they can be given a sharp definition. According to the author, the idea of making happiness the aim of national policy may be in exactly that position: still fuzzy, and still in need of the work that will sharpen it.

① Governments should measure happiness as precisely as they measure GDP.
② Making happiness a policy goal may make sense even before it can be measured precisely.
③ Vague ideas should be dropped until they can be clearly defined.
④ Income is a more objective and therefore better goal than happiness.
⑤ Keynes proved that happiness can never be measured.

4. 밑줄 친 a deceptio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Of course, the notion that money cannot buy happiness is nothing new. Many religions teach that clinging to worldly goods leaves us unhappy, and the Beatles sang that money can't buy love. Adam Smith himself, who explained that we owe our dinner not to the butcher's kindness but to his concern for his own interest, called the pleasures we imagine wealth will give us a deception, though he added that this deception keeps the industry of humankind constantly moving. And yet there is something puzzling here. Why do all governments concentrate on raising national income per head? And why do so many people struggle to earn more, if more money will not make them any happier?

① a trick that butchers use to make customers pay more
② a lie that governments tell about national income
③ the religious teaching that owning things is sinful
④ the warning that money cannot buy love
⑤ a false picture of the pleasures wealth will bring, which still keeps people working hard

5. 밑줄 친 the inequality implied in "Professor Singer" and "Ms. Johnson"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ir argument lasted several minutes in the lecture hall and later continued by e-mail. Years afterward, reading her memoir, Too Late to Die Young, Singer was not surprised to find 'arguing hard' named among the things she most enjoyed in life. A year after they met, he asked her to come to Princeton and address a large undergraduate class of his. She agreed, but on one condition: in public they would drop the casual first-name habit that he, being Australian, had fallen into in their e-mails. Nor would she put up with the inequality implied in "Professor Singer" and "Ms. Johnson." In the end, Singer agreed that she could call him Mr. Singer.

① the uneven standing created by giving him an academic title while she was simply 'Ms.'
② the unfairness of paying professors more than lawyers
③ the gap between their views on disability
④ the difference between Australian and American manners
⑤ the difference in age between a teacher and his students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Singer's lecture, 'Rethinking Life and Death,' defended the view that had provoked such fierce protest. ① He noted that doctors routinely take newborns with severe disabilities off life support, and ② he argued that this differs little from letting parents, after talking with their doctors, end a baby's life when its disabilities are so grave that the family judges this best for the baby or for the household as a whole. When ③ he had finished, Johnson, who had had a muscle-wasting disease from birth, spoke up. By ④ his reasoning, she pointed out, her parents ought to have been allowed to end her life soon after birth. Yet ⑤ she had become a lawyer who enjoyed her life no less than anyone else.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Would more money make you happier? Many people think so, but long-term research suggests that extra wealth brings extra happiness only when incomes are quite low. Americans, for instance, are richer on average than New Zealanders, yet no happier. Even more strikingly, people in Japan, Germany, France, and Austria seem no happier than those in far poorer nations such as the Philippines, Colombia, and Brazil. The same pattern shows up inside a single country, except at very low incomes, such as under $12,000 a year in the US. Above that level, more income does little for happiness. Americans today are richer than in the 1950s but not happier, and middle-income families, earning $50,000 to $90,000, are almost exactly as happy as families earning over $90,000.

①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뉴질랜드인보다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다.
② 오스트리아와 일본 사람들은 브라질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
③ 미국인은 1950년대보다 더 부유해졌지만 더 행복해지지는 않았다.
④ 한 나라 안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행복도 꾸준히 커진다.
⑤ 가족 소득이 9만 달러를 넘는 미국인은 중간 소득층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Singer's first meeting with Harriet McBryde Johnson came in spring 2001, when he was lecturing at the College of Charleston. According to her brand of Southern manners, if you are not ready to shoot someone on sight, you must be ready to shake hands. When he offered his hand, then, she raised her own from her motorized wheelchair and grasped his with the three fingers of her right hand that still worked. She then told him she had come to his lecture to support Not Dead Yet, a disability rights group that eighteen months before had blockaded Nassau Hall at Princeton University to protest his appointment to a professorship in bioethics. Singer replied that he expected their exchange to be an interesting one.

① 두 사람은 2001년 봄에 처음 만났다.
② 저자는 그때 찰스턴 칼리지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③ 존슨은 오른손의 움직이는 세 손가락으로 저자의 손을 잡았다.
④ 존슨은 Not Dead Yet을 지지하려고 강연에 왔다고 말했다.
⑤ Not Dead Yet의 나소 홀 봉쇄는 두 사람이 만나고 1년 반 뒤에 있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Typical happiness surveys just ask people how content ① <u>they are</u> with life. Such findings deserve only limited trust, because an overall judgment of 'life satisfaction' may not reveal how much people truly enjoy spending ② <u>their</u> days as they do. Daniel Kahneman, once the author's colleague at Princeton, and several fellow researchers tried to gauge people's subjective well-being by questioning them about their mood many times ③ <u>during</u> a single day. Their 2006 article in Science reported that income and happiness were only weakly linked. In fact, people earning more spent more time on activities ④ <u>associating</u> with tension, stress, and other negative feelings. Rather than enjoying more leisure, they worked or traveled to work longer, and they more often reported moods ⑤ <u>that</u> they called hostile, angry, anxious, or tense.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en the author first learned that Bhutan aimed to maximize its people's happiness, he wondered whether the aim had any practical meaning or was merely one more political slogan. He found out in 2011, when he was invited to Thimphu, the capital, to give a talk at a conference titled 'Economic Development and Happiness' that Prime Minister Jigme Y. Thinley had organized. The author says that never before (A) [has he attended / he has attended] a conference that a national government treated so seriously. He had expected Thinley (B) [to open / opening] the event with a formal greeting and then go back to his office. Instead, Thinley gave a thoughtful speech, stayed through the whole two-and-a-half-day meeting, and (C) [made / making] valuable contributions to the discussions.

	(A)	(B)	(C)
①	has he attended	opening	made
②	he has attended	to open	made
③	has he attended	to open	making
④	has he attended	to open	made
⑤	he has attended	opening	making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Ever since ancient times, people have ① <u>universally</u> regarded happiness as something good. The trouble starts when people attempt to ② <u>agree</u> about what happiness is and how it can be measured. One key question is whether happiness is the ③ <u>shortage</u> of pleasure over pain across a whole lifetime, or how far we are content with the lives we lead. The first view counts up all the positive moments in a person's life and then ④ <u>subtracts</u> the bad ones. A clearly positive balance means a happy life, and a negative one an unhappy life. Measuring happiness understood this way, then, would require us to pick moments of people's lives ⑤ <u>randomly</u> and find out whether their state of mind at those moments is positive or negative.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Perhaps the explanation is that we are creatures who need purposes. Our ancestors had to labor for food, mates, and offspring. A wandering people gains nothing by owning more than it can carry, but settled life and money removed that natural cap on getting more. Some savings are a sensible cushion against bad years. Today, though, money has become a goal for its own sake: a scorecard of status and success, and a default aim when nothing else gives us a reason to act and idleness would bore us. Making money supplies an activity that feels worthwhile, _____.

① provided we do not ask too closely why we do it
② because it always makes us happier in the end
③ only when we share our earnings with the poor
④ since nomads valued money above all else
⑤ unless we have already saved enough for bad year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When people are instead asked how satisfied they feel with life, richer nations such as Denmark and Switzerland tend to come out ahead.

Another approach simply asks people how content they are with their lives so far; those reporting satisfaction or great satisfaction count as happy. (①) Which approach better reflects what we ought to promote raises basic questions of value. (②) Surveys that tally good and bad moments give high scores to Nigeria, Mexico, Brazil, and Puerto Rico, a U.S. territory. (③) This suggests the results may depend more on national culture than on objective measures like health, schooling, and living standards. (④) With both kinds of survey, though, it is unclear whether answers given in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mean the same.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In Bhutan, a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 led by the prime minister reviews every new policy. ① A proposal judged to work against gross national happiness goes back to its ministry for rethinking. ② Warren Buffett's thrifty lifestyle shows that spending vast sums gives him little pleasure. ③ Without the Commission's approval, no policy can proceed. ④ One disputed law that did pass, showing how far the leaders will go with harsh steps they believe will raise overall happiness, banned tobacco sales. ⑤ Citizens may still bring small amounts of tobacco from India for personal use, but not for resale, and must carry proof of paying import tax when smoking in public.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onsider in this light Warren Buffett, the American investor, long the world's second-richest person after Bill Gates and ranked sixth by Forbes in 2021, with $96 billion.

(A) Seen this way, once Buffett had made his first few million in the 1960s, piling up more might look pointless. Had he fallen for the 'deception' Adam Smith wrote of, which Kahneman's team has studied more closely?

(B) Yet his modest way of life shows that spending huge sums gives him no special pleasure, and even with costlier tastes he could hardly spend more than a sliver of his fortune.

(C) By coincidence, the week Kahneman's article came out, Buffett announced the biggest charitable gift in US history: $30 billion for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and $7 billion for other charities. Even adjusted for inflation, Rockefeller's and Carnegie's gifts were smaller.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Long after Johnson's visit, Singer's students were still discussing it, and the conversations stayed with Singer, too. Her life was plainly good, and not only for her: her legal work and her campaigning for disabled people benefited others too. Singer notes that, according to surveys,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report being about as satisfied with their lives as people without disabilities. Perhaps people who have lived with a disability for years have come to expect less, so that less is enough to satisfy them. Or perhaps, once people grow used to them, even severe disabilities make no real difference to their happiness. Singer leaves both possibilities open.

→ Surveys suggest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rate their lives about as (A) _____ as others do, which leaves open whether they have (B) _____ their expectations or have truly adapted.

① highly ..... lowered
② highly ..... raised
③ poorly ..... lowered
④ poorly ..... raised
⑤ differently ..... abandoned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Research suggests that, in the United States, extra income adds much to happiness only at very low levels, such as under $12,000 a year. In 2006, Daniel Kahneman and his colleagues reported their study of moods in the journal Science. That same week, Warren Buffett announced that he would give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30 billion and other foundations $7 billion. In 2011, Singer traveled to Thimphu, Bhutan's capital, for a conference on happiness. Surveys asking people to rate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tend to rank richer countries, such as Denmark and Switzerland, highest. Johnson attended the lecture where she first met Singer in order to support Not Dead Yet. Later, when she asked him at a dinner to pull her wrist forward, her fellow activists in the disability movement were appalled.

<QUIZ>

(1) Below what yearly income does extra money add much to Americans' happiness?

Answer for (1): _____

(2) In which journal did Kahneman and his colleagues report their study?

Answer for (2): _____

(3) How much did Buffett give to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Answer for (3): _____

(4) In what year did Singer travel to Thimphu?

Answer for (4): _____

(5) Which countries do surveys of life satisfaction tend to rank highest?

Answer for (5): _____

(6) Is it true or false that Johnson's fellow activists were pleased that she had asked Singer for help?

Answer for (6): _____

(7) Which organization did Johnson attend the lecture to support?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30 billion	N. Nigeria and Mexico
B. Brazil and Colombia	O. GNH Commission
C. 2001	P. 2006
D. $7 billion	Q. $90,000
E. Science	R. The Earth Institute
F. Forbes	S. Princeton University
G. True	T. Denmark and Switzerland
H. False	U. Austria and Germany
I. 2003	V. College of Charleston
J. $50,000	W. $12,000
K. The New York Times Magazine	X. the 1950s
L. 2011	Y. Not Dead Yet
M. $96 billion	Z. Too Late to Die Young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더 부자라면 당신은 더 행복할까? 많은 사람은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가정법 과거 / 대동사 would be)

02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훨씬 더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 조금도 더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ppear to be / no + 비교급 than / much + 비교급)

03 대부분의 행복 조사는 사람들에게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다. (ask + IO + 간접의문문(how + 형용사 + S + V))

04 우리가 저녁 식사를 얻는 것은 정육점 주인의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에 대한 그의 관심에서다. (It is not A but B that 강조)

05 들고 다닐 수 없는 것을 가져 봐야 소용이 없었다. (there is no point in -ing)

06 취향이 더 사치스럽다 해도, 그는 재산의 아주 작은 일부 이상을 쓰기도 어려울 것이다. (Even if + 가정법 과거 / be hard-pressed to V)

07 나는 국가 정부가 이토록 진지하게 받아들인 학회에 전에 가 본 적이 없다. (부정어 문두 도치 / 현재완료)

08 나는 정확하게 틀리느니 차라리 막연하게 옳겠다. (would rather A than B)

09 정책안이 그 목표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명되면, 재검토를 위해 부처로 되돌려 보내진다. (be found to be / 수동)

10 그녀는 장애가 있으면 삶이 덜 살 만해진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가주어 It + to V / 동명사 주어 / worth -ing)

11 그녀는 나를 그저 '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류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았다. (not simply A but B / 전치사 + 관계대명사)

12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삶의 만족을 보인다. (현재분사 후치 / 대명사 that of)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미국 안의 예외(아주 낮은 소득) / 비교한 연대	
중간 소득 가족 / 행복이 거의 같은 가족	
더 부유하나 더 행복하지 않은 비교	
훨씬 가난해도 행복이 뒤지지 않아 보이는 나라 셋	
기분을 자주 물은 연구자 / 학술지 · 해	
부의 즐거움을 '기만'이라 한 사람	
버핏의 오랜 순위 / 2021년 순위 · 재산	
첫 몇백만 달러를 번 때 / 버핏의 종교관	
게이츠 재단 기부 / 다른 재단 기부	
물가를 반영해도 기부가 더 적은 두 사람	
초청된 해 · 도시 / 주최 · 공동 주최	
총리가 학회에 머문 기간	
첫째 접근의 상위 / 둘째 접근의 상위	
'막연하게 옳은 편'을 말한 사람	
정책안을 심사하는 기관 · 위원장	

항목	답
담배를 들여오는 나라 / 흡연 때 지닐 것	
부탄이 패널 토론을 연 유엔 총회 회차	
첫 만남의 때 · 곳 / 존슨이 지지한 단체	
존슨의 책 / 2003년 표지 기사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Happy, Nevertheless」에서 저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 수준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낱말은 다른 두 편에서도 행복을 '좋은 기분'만으로 보지 않는 잣대로 쓰인다. 「Can We Increase Gross National Happiness?」는 행복을 정의하는 두 접근을 나누었고, 「Happiness, Money, and Giving It Away」는 행복 조사의 한계를 짚은 뒤 버핏의 기부를 들어 행복에는 좋은 기분 이상의 것이 있다고 했다. 빈칸에 들어갈 영어 한 단어를 쓰고, 그 근거를 「Happy, Nevertheless」 밖의 두 편에서 하나씩 찾아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좋은 기분과 다른 행복의 잣대: I know that surveys have found that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show a level of _____ with their lives that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at of people who are not disabled.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7 POLITICS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Why Vote? · Is Citizenship a Right? · Should We Honor Racists?
원서 PDF 160~163 · 168~170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시민의 의무와 권리는 어디까지이며, 우리는 누구를 기려야 하는가."

이 권은 시민이 지는 의무와 누리는 권리, 그리고 공동체가 누구를 기리는가를 묻는 세 편을 묶었다. 「Why Vote?」에서 저자는 한 표가 결과를 정할 가능성이 아주 작아 투표가 비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투표하지 않으면 소수가 나라의 미래를 정할 수 있다고 보고,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의무 투표를 소개한다. 「Is Citizenship a Right?」는 영국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해 무국적자가 된 사크르의 사례에서 출발해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의 균형을 따진 뒤, 재판 없이는 시민권을 박탈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본다. 「Should We Honor Racists?」는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 항의와 윌슨이라는 이름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며, 그의 공헌을 지우지 말고 업적과 인종차별을 함께 담는 섬세한 대화 속에서 기억하자고 말한다. 세 편 모두 실존 인물과 정치 사건을 다루므로 이 노트는 누구의 말인지 원서대로 가려 적었고, 어느 정치적 입장도 권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원서를 옆에 펴고 네 눈으로 먼저 찾아 기호로 표시한 뒤, 그 자리를 고른 까닭을 한 줄로 꼭 적어 두어라.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윌슨의 공헌은 지우지 말고 업적과 인종차별을 함께 담는 섬세한 대화 속에서(169쪽 ¶7 ~ 170쪽 ¶1) / 세계 시민권이 없는 지금은 재판 없이 박탈하지 않는 원칙이 최선일 수도(163쪽 ¶5) / 이중 국적이 없어 무국적자가 된 사크르(162쪽 ¶3~¶4) / 의무 투표 =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161쪽 ¶7)
4~5	**밑줄 함축 의미**	get a free ride / a discontented majority / cheer their team on / a social norm of voting / "a privilege, not a right"(메이의 말) / more sinister possibility / leaving at large / a grave injustice / sets a precedent / political veils / the symbol can develop a different meaning / ceases to embody / a nuanced conversation
6	지칭 추론	His · he · his가 윌슨, them이 그가 물려받은 흑인 직원들을 가리키는 168쪽 ¶3~¶4 / they(160쪽 ¶4 · 161쪽 ¶6 = 유권자) · it(160쪽 ¶4 = 무효표 비율) / him · his(162쪽 ¶3~¶4 = 사크르) · they(162쪽 ¶5 = 외국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 / this course(163쪽 ¶2 = 시민권 박탈) · They(170쪽 ¶1 = 윌슨의 공헌)
7~8	내용 일치·불일치	적어도 95% · 2020 · 62% · 1960 · 40% 미만 · 1920년대 · 60% · 70% · 1%(160쪽 ¶1~¶3) / 2005 · 40% · 600만 · 3,000만 · 54%(161쪽 ¶1~¶2) / 1918 · 2005 · 175 · 1961 · 20번 중 19번 · 2013 · 52(162~163쪽) / 2015 · 1913 · 노벨 평화상 · 총장 · 14개조 · 1920~1936 · 팔레 윌슨 · 1948 · 7년 · 2020(168~170쪽)
9~10	**어법**	have voted + since · contrast with · 계속적 where · fewer than · bother to V · 삽입절 polls show · what절 주어 · not A but B · have + O + p.p. · prevent + O + -ing · nowhere near -ing · 동격 that · 대동사 has · make + O + 원형 · 분사구문 leaving · those eligible · with + O + 분사 · each of us + 단수 · 가정법 과거 · of such importance that · strip A of B · apparently · render + O + 형용사 · Arguably · for which · 강조의 does · Should 도치 · be unable to V · prefer A to B · emerge(자동사) · vow not to V · requirement that + 원형 · insist that + 원형 · 과거완료 수동 · have only to V · no worse than · name A after B · cease to V · It was not until ~ that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compulsory ↔ voluntary · valid ↔ invalid · offsetting(160쪽 ¶4) · minuscule ↔ enormous · irrational ↔ rational · robust ↔ fragile · revoke ↔ grant · disclose ↔ conceal · sinister ↔ benign · jeopardize ↔ protect · reactionary ↔ progressive · segregated ↔ integrated · demote ↔ promote · salient ↔ inconspicuous · nuanced ↔ simplistic
12	빈칸 추론	a minority of the population can determine a country's future, leaving a discontented majority(160쪽 ¶7 ~ 161쪽 첫 줄) / the likelihood that my vote would decide the outcome(160쪽 ¶6) / to keep democracy robust(161쪽 ¶4) / not to be revoked without a judicial hearing(163쪽 ¶5) / the symbol can develop a different meaning(169쪽 ¶6)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문장 삽입	미국과의 비교(162쪽 ¶5): 한정된 사유 → 신청 사기 · 외국 군대 복무 → Arguably 테러 조직 가담이 더 나쁠 수도 → 민간인을 노릴 가능성 → But one important difference(외국 군대 복무자는 아마 그 나라 시민) → no such ties
14	무관한 문장	투표하는 여러 이유와 의무 투표(161쪽 ¶5~¶7)에 다른 편의 사실(2005년 런던 폭탄 공격 전까지 거의 쓰이지 않은 영국의 시민권 박탈 권한, 162쪽 ¶2)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폴란드의 예(161쪽 ¶1~¶3): 2005 · 겨우 40%(자유선거 이래 최저) → As a result 카친스키 총리(600만 표) → 2년 뒤 불참자의 불만 → 54% 가까이 · 정부 참패
16	요약문 완성	권리와 공공선(163쪽 ¶3~¶4): 20번 중 19번 옳아도 무고한 귀화 시민 한 명이 무국적자 = 중대한 불의 · 52명이 죽는 공격 앞에서 권리가 절대적이라고 고집하기 어려움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숫자 · 연대 · 연도 · 도시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8세 · 적어도 95% · 2020 · 62% · 1960 · 40% 미만 · 1920년대 · 60% · 70% · 1% · 2005 · 40% · 600만 · 3,000만 · 2년 뒤 · 54%(1편) / 1918 · 2005 · 2021 · 175 · 1961 · 20번 중 19번 · 2013 · 52 · 4(2편) / 2015 · 1913 · 1920~1936 · 1948 · 7년 · 5년 가까이 · 2020(3편). 비슷한 숫자 쌍(두 편에 나오는 2005, 두 번 나오는 40%, 1918과 1913, 1920년대와 1920, 1948과 2015와 2020, 175와 52와 19)이 함정이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highest ↔ lowest, earlier ↔ later, did not hold dual nationality ↔ did, does not have the power ↔ has, not under serious challenge ↔ under serious challenge, should not be erased ↔ should be erased). '~인 듯'(apparently) · '아마'(presumably · perhaps) · '~라고 볼 여지'(Arguably) · '~라고 변호할 수도'(One might plead) · '~일 수도'(may)를 단정으로 바꾼 선지, 정부들의 대응 · 메이 · 흑인 정의 연맹 · 슬로터 · 윙고의 말을 저자(싱어)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Why Vote? · Is Citizenship a Right? · Should We Honor Racists?」 (160~163 · 168~170쪽)

논증형 세 편. ① 사례(오스트레일리아의 투표율) → 제도(의무 투표) → 남는 물음(저자는 왜 투표하나) → 역설(투표는 비합리적으로 보임) → 반례(폴란드) → 무임승차 → 투표의 여러 이유 → 저자의 답. ② 물음 → 영국의 박탈과 사크르 → 미국과의 비교 → 쟁점(증거 없는 박탈) → 반론(정부들의 대응) → 더 큰 물음(권리와 공공선) → 저자의 결론. ③ 사례(프린스턴의 항의) → 윌슨의 두 얼굴 → 쟁점(결함 있는 위인을 계속 기릴까) → 정치적 베일과 변하는 상징 → 2020년의 결정 → 저자의 답. 핵심 축은 **무임승차 vs 투표의 사회 규범, 공공선 vs 개인의 권리, 지우기 vs 함께 기억하기.**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60 ¶1	사례	저자 = 오스트레일리아 시민 · 18세 이후 모든 연방 선거에서 투표 / 연방 선거 대부분에서 등록 유권자 투표율 적어도 95% · 미국 2020년 62% = 1960년 이후 최고 · 임기 중간의 의회 선거 = 대개 40% 미만
160 ¶2~¶3	제도	1920년대 투표율 60% 미만 → 의회가 투표를 의무화 · 진지한 폐지 시도 없음 · 약 70% 지지(여론 조사) / 불참자에게 편지 · 사유가 없으면 적은 벌금 · 벌금 대상 = 투표 자격자의 1% 미만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60 ¶4~¶5	의무의 실제	의무 = 유효표가 아니라 투표소에 가서 이름 확인 · 용지 넣기 · 비밀 투표라 빈 용지 · 욕설을 못 막음 · 무효표는 조금 많으나 투표율 차이를 상쇄 못 함 / 벨기에 · 아르헨티나가 더 먼저 · 라틴아메리카 · 제재와 집행은 다양
160 ¶6	남는 물음	미국에 살아 의무가 없던 때에도 투표 · 정당 선호로도 설명 안 됨 · 내 표가 결과를 정할 가능성 = 아주 작음(한 번도 그런 적 없음)
160 ¶7~161 첫 줄	역설	자발적 투표 + 한 표의 영향 극히 작음 → 아주 작은 비용도 투표를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함 /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추론해 투표하지 않으면 소수가 나라의 미래를 정하고 불만인 다수가 남을 수 있음
161 ¶1~¶3	반례	폴란드 2005 = 겨우 40%(공산주의 뒤 자유선거 이래 최저) · 3,000만 유권자 중 600만 표로 카친스키 총리 / 2년 뒤 불참자의 불만이 드러남 · 54% 가까이(젊고 교육 수준 높은 층에서 특히) · 정부 참패
161 ¶4	무임승차	소수의 결정을 원치 않으면 높은 투표율을 바람 · 그러나 한 표의 몫이 작아 무임승차의 유혹 — 남들이 충분히 투표해 민주주의를 지켜 주기를 바람
161 ¶5~¶6	투표의 여러 이유	즐거움 · 시민적 의무감 · 축구 팬처럼 응원 · 불평할 자격 · 수백만 분의 1이라도 결과가 중요하다는 계산(저자가 든 가능한 이유 · might · may)
161 ¶7	저자의 답	그래도 투표소에 오지 않으면 의무 투표 =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 · 작은 비용 → 투표가 합리적 + 사회 규범 · 오스트레일리아 모델을 고려하는 편이 좋다
162 ¶1~¶2	물음 · 사례	정부가 시민권을 빼앗을 수 있어야 하나 / 영국 = 1918년부터 귀화 시민의 시민권 박탈 권한 · 2005년 런던 폭탄 공격 전까지 거의 안 씀 · 2021년 말까지 175명 · 메이 = '권리가 아니라 특권'(메이의 선언)
162 ¶3~¶4	사크르	대부분 이중 국적 · 사크르 = 아님 → 무국적 / 소말리아에서 항소 · 대법원(다른 사건) = 무국적자로 만들 권한 없음 · 위치 노출 걱정으로 항소 중단(apparently) · 드론 공격으로 사망 · 그 뒤 법 개정
162 ¶5	미국과의 비교	한정된 사유(신청 사기 · 외국 군대 복무) · 테러 조직 가담이 더 나쁘다고 볼 여지(Arguably) / 그러나 외국 군대 복무자는 아마 그 나라 시민이 될 수 있음 · 테러 조직은 그런 연결 없음
162 ¶6~163 ¶2	쟁점 · 반론	1961년 유엔 협약 = 증명되면 무국적 허용 · 영국 법 = 사법적 · 공개적 증명 요구 없음 · 증거 비공개 · 실수와 남용의 위험 / 공정한 항소 제도의 강력한 근거(저자) · 정보원 노출 · 안보 위협(정부들의 대응) / 박탈만으로는 용의자를 풀어 둔 문제가 그대로
163 ¶3~¶4	더 큰 물음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의 균형 · 20번 중 19번 옳아도(가정) 무고한 귀화 시민이 무국적자 = 중대한 불의 / 19명 중 1명이 52명이 죽은 공격과 비슷한 테러를 저지른다면(가정) · 권리가 절대적이라 고집하기 어려움
163 ¶5	저자의 결론	훨씬 큰 해악은 무시 못 함 · 그러나 민주 정부의 박탈 = 권위주의 정권에 선례(옛 소련 · 브로드스키) · 세계 시민권이 없는 지금 = 재판 없이 박탈하지 않는 원칙이 최선일 수도(may)
168 ¶1~¶2	사례	2015년 가을 · 강의 중 학생들이 나감 · 흑인 정의 연맹의 항의 · 총장실 점거 · 세 요구 / 전국의 주목 = 윌슨 스쿨 · 칼리지 개명 · 벽화 철거 · 윌슨은 인종차별주의자(연맹의 말)
168 ¶3~169 ¶2	윌슨의 두 얼굴	국내 진보 · 외교 이상주의 / 흑인 정책 = 반동적(1913 · 분리 부활 · 강등 · '혜택') /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동문 · 프린스턴 총장 · 슬로터의 평가(perhaps) · 14개조 · 바르샤바 · 프라하 · 국제연맹 · 팔레 윌슨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69 ¶3~¶4	쟁점	깊은 결함의 위인들 · 노예를 소유한 건국의 아버지들 · 시대 기준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변호(might) → 계속 기릴 근거인가(저자의 물음) · 뉴올리언스 교육위원회 = 아님 · 수도 이름도?(열린 물음)
169 ¶5~170 ¶1	저자의 답	정치적 베일(윙고) · 도덕 기준이 바뀌면 상징의 의미도 · 1948 · 로자 파크스는 7년 뒤 · 인종차별이 두드러짐 / 5년 가까이 유지 · 기념물 · 2020년 개명 / 공헌은 지우지 말고 업적과 인종차별을 함께 담는 섬세한 대화로 · 교육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투표의 합리성	한 표가 결과를 정할 가능성이 극히 낮으면 아주 작은 비용만으로도 투표는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추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추론해 투표하지 않으면 소수가 나라의 미래를 정하고 불만인 다수가 남을 수 있다(저자 · 폴란드의 예)
무임승차	자기는 투표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충분히 투표해 민주주의를 지켜 주기를 바라는 유혹	의무 투표는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 – 투표하지 않는 데 작은 비용을 물리면 모두에게 투표가 합리적이 된다(저자)
낮은 투표율	투표율이 낮은 선거(예: 미국 2020년 62%가 1960년 이후 최고 · 임기 중간의 의회 선거는 대개 40% 미만)	투표율을 걱정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모델을 고려하는 편이 좋다 – 투표의 사회 규범 · 모두가 투표하니 기꺼이 투표(저자)
박탈의 증거	영국 법 = 사법적 · 공개적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항소해도 근거 증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 실수와 남용의 위험	시민권 박탈 결정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재검토하는 항소 제도를 둘 강력한 근거가 있다(저자)
박탈이라는 수단	공개 증거 없이 박탈할 수 있어 체포 · 재판보다 이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정부	박탈만으로는 테러 용의자를 잡지 않고 풀어 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는 다른 곳에서 공격할 수도 있다(저자)
무고한 한 사람	테러 연루 의심에 기대어 시민권을 박탈하는 결정(정부가 20번 중 19번 옳다고 가정)	그래도 무고한 귀화 시민 한 명이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은 높고, 그것은 중대한 불의다(저자)
민주 정부의 박탈	민주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해 사람들을 무국적자로 만들기 시작함	반체제 인사를 추방하려는 권위주의 정권에 선례가 된다 → 세계 시민권이 없는 지금은 재판 없이 박탈하지 않는 원칙이 최선일 수도(저자, may)
윌슨의 공헌	역사에서 지우기	지울 수도, 지워서도 안 된다 – 업적과 인종차별 정책 · 관행에 보탠 몫을 함께 담아 가치의 변화에 관한 섬세한 대화 속에서 인정한다(저자)
1948년과 지금	윌슨의 이름이 붙은 1948년 = 로자 파크스의 버스 승차는 7년 뒤 · 남부의 인종 분리에 심각한 도전이 없던 때	지금은 그런 분리를 상상할 수 없으니 윌슨의 인종차별이 더 두드러지고, 오늘의 프린스턴이 중시하는 가치를 더는 구현하지 못한다(저자)
대화의 결과	그런 대화가 없으면 대학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지닌 복잡성을 모르고 지날 학생과 교수	그 섬세한 대화가 낳을 결과 하나는 그들을 교육하는 일이어야 한다(저자)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ustralia · 95%	저자 = 오스트레일리아 시민 · **18세** 이후 모든 연방 선거에서 투표 · 연방 선거 대부분의 등록 유권자 투표율 = **적어도 95%**
United States · 62% · 40%	**2020년** 투표율 **62%** = **1960년** 이후 **최고** · 대통령 임기 중간의 의회 선거 = 대개 투표 자격자의 **40% 미만**
1920s · 60% · 70% · 1%	투표율이 **60%** 아래로 떨어진 **1920년대**에 의회가 투표를 의무화 · 약 **70%**가 지지(여론 조사) · 불참자 = 까닭을 묻는 편지 · 사유(병 · 해외여행)가 없으면 적은 벌금 · 벌금 대상 = 투표 자격자의 **1% 미만**
의무의 내용	유효표가 **아니라** 투표소에 가서 이름을 확인받고 용지를 함에 넣는 것 · 비밀 투표라 빈 용지 · 욕설을 막을 수 없음 · 무효표는 조금 더 많지만 투표율 차이를 상쇄하지 못함
Belgium · Argentina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먼저** 의무 투표 도입 ·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도 시행 · 제재와 집행은 나라마다 다름
Poland 2005	투표 자격자의 겨우 **40%** 투표 = 공산주의 시기 뒤 자유선거 이래 **최저** ·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총리(과반 의석의 정당 연합) · 투표 자격자 **3,000만** 명 중 **600만** 표
Poland · 2년 뒤	다시 투표 → 2005년 불참자 다수가 결과에 불만이었음이 분명 · 투표율 **54%** **가까이**(젊고 교육 수준 높은 유권자에서 특히 증가) · 카친스키 정부 **참패**
free-rider problem	한 표의 몫이 작아 투표하지 않고 남들의 투표에 기대려는 유혹 · 의무 투표 = 이를 극복하는 **한** 방법 · 투표의 여러 이유 = 즐거움 · **시민적 의무감** · **축구 팬**처럼 응원 · 불평할 자격 · **수백만 분의** 1이라도 결과가 중요
UK · 1918 · 2005 · 175	**1918년**부터 귀화 영국인의 시민권 박탈 권한 · **2005년** 런던 교통망 폭탄 공격 전까지 거의 안 씀 · 그때부터 **2021년 말**까지 **175명**(국가 안보) · 테리사 메이(당시 **내무장관**) =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메이의 선언)
Mohamed Sakr	**이중 국적 아님** · 부모는 **이집트**에서 왔으나 이집트 시민 아님 → **무국적** · **소말리아**에서 항소 · 휴대전화 위치 노출 걱정으로 그만둔 **듯**(apparently) · 몇 달 뒤 **미국 드론 공격**으로 사망
UK Supreme Court · 법 개정	**그 뒤 다른 사건**에서 정부에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 권한이 없다고 판결 / 그 뒤 법 개정 = 내무장관은 박탈이 그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합리적 믿음**이 있어야 함
US citizenship	**한정된** 사유로만 박탈 = 시민권 신청 때의 **사기** · 다른 나라 **군대** 복무 · 외국 군대 복무자는 **아마**(presumably) 그 나라 시민이 될 수 있음 · 테러 조직 = 그런 연결 없음
1961 UN Convention	무국적 감축에 관한 유엔 협약 · 영국 = **서명국** · 나라의 핵심 이익을 해친 것이 **증명되면** 무국적 선언 허용 / 영국 법 = 더 약한 주장조차 증명을 요구하지 않음
19 out of 20 · 2013 · 52	정부가 **20번 중 19번** 옳다고 가정 · **2013년** 결정이 그렇다 해도 무고한 귀화 시민이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 높음 = **중대한 불의** / 런던 폭탄 공격 = 무고한 **52명** 사망(폭탄 공격범 **4명**도 사망)
Joseph Brodsky	시인 · **뒷날** 노벨상 수상자 · **옛 소련**이 추방(반체제 인사 추방의 한 예 · 그 밖에도 많음)
2015 · Black Justice League	**2015년 가을** 저자의 실천 윤리학 강의 중 학생들이 나감 · 비무장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경찰에게 살해된 일에 대응해 생긴 학생 단체 ·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루버** 총장의 집무실을 점거
연맹의 요구	**문화 역량 교육** · 소외된 사람들의 역사 수업 의무 · **문화 친화 공간** / 전국의 주목 = 윌슨 스쿨 · 윌슨 칼리지 **개명** · 식당 **벽화** 철거
Woodrow Wilson	아동 노동 금지 · 노동자 권리 · 은행법 개혁 · 독점에 맞섬 / **1913년** 대통령 · 분리 일터 · 화장실 부활(남북전쟁 끝에 폐지됐던) · 흑인 관리자 강등 ·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동문 · 대통령 전 프린스턴 **총장**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nne-Marie Slaughter	우드로 윌슨 스쿨의 **전 학장** · 윌슨이 **아마**(perhaps)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 프린스턴을 위대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꿈(슬로터의 말)
Fourteen Points · League of Nations	민족 자치 · 독립 폴란드 · 공개 조약 · 무역 장벽 완화 · 국가들의 일반적 연합체 → **국제연맹**(유엔의 전신) · **1920~1936** 제네바 **팔레 윌슨** = 지금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본부 / 바르샤바 윌슨 광장 · 프라하 중앙역 · 프라하와 브라티슬라바의 윌슨 거리
Founding Fathers · New Orleans	노예를 소유한 건국의 아버지들 · 워싱턴 · 제퍼슨 · 매디슨 · 시대 기준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변호는 '할 **수도**'(might) / **뉴올리언스** 교육위원회 = 조지 워싱턴 초등학교 → 수혈의 분리 철폐를 위해 싸운 흑인 외과 의사의 이름
Ajume Wingo	『Veil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 **정치적 베일** = 정치 체제의 역사적 세부를 덮어 이상화된 얼굴을 만듦 · 지도자 = 시민의 덕을 심어 주는 상징의 수단
1948 · Rosa Parks	**1948년** 공공 · 국제 문제 스쿨에 윌슨의 이름 · 로자 파크스의 버스 승차는 **7년 뒤** · 남부의 분리에 심각한 도전 없음 →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음
2020 · George Floyd	항의 뒤 **5년 가까이** 이름 유지 · 스쿨 바깥에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기념물** /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살해 뒤 스쿨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 칼리지에서도 이름을 뺌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Why Vote? · Is Citizenship a Right? · Should We Honor Racists? (원서 PDF 160~163 · 168~170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7-1 사례와 제도 – 오스트레일리아의 높은 투표율과 의무 투표, 그래도 남는 물음 160쪽 ¶1 ~ ¶6

원문 위치 원서 160쪽 ¶1 ~ ¶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0쪽 ¶1 첫 문장	I have voted in every federal election since I turned 18	저자의 사례 · 현재완료
★	160쪽 ¶1 셋째 문장	the turnout of registered voters is at least 95%	숫자 – 서답형
★	160쪽 ¶1 넷째 문장	the 62% turnout in 2020 was the highest since 1960	숫자 – 최고/최저 뒤집기
▲	160쪽 ¶1 넷째 문장	contrasts markedly with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where	계속적 where
★	160쪽 ¶1 다섯째 문장	usually fewer than 40% of eligible Americans bother to vote	중간선거 – 내용 일치
◆	160쪽 ¶2 첫 문장	There is a reason why so many Australians vote.	전환 – 제도 설명
★	160쪽 ¶2 둘째 문장	In the 1920s, when voter turnout fell below 60%, Parliament made voting compulsory	연대 · 숫자 – 서답형
▲	160쪽 ¶2 셋째 문장	the law, which polls show is supported by about 70% of the population	계속적 which + 삽입절
★	160쪽 ¶3 둘째 문장	the number fined is less than 1% of eligible voters	숫자 – 내용 일치
▲	160쪽 ¶4 첫 문장	what is compulsory is not casting a valid vote, but going to the polling place	what절 주어 · not A but B
▲	160쪽 ¶4 둘째 문장	makes it impossible to prevent people leaving their ballot papers blank	가목적어 it · prevent + O + -ing
●	160쪽 ¶4 셋째 문장	it comes nowhere near offsetting the difference in voter turnout	어휘 문항 – offsetting 자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0쪽 ¶5 둘째 문장	Belgium and Argentina introduced it earlier	나라 · 선후 — 뒤집기 주의
◆	160쪽 ¶6 첫 문장	I wa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nd so under no compulsion to vote	저자의 물음 — 빈칸 지문의 출발
◆	160쪽 ¶6 둘째 문장	the likelihood that my vote would decide the outcome of the election was minuscule	동격 that · 대동사 has

내용

오스트레일리아 시민인 저자는 열여덟 살이 된 뒤로 연방 선거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선거 대부분에서 등록 유권자의 투표율은 적어도 95%다. 이 수치는 미국 선거와 뚜렷이 대조된다. 미국에서는 2020년의 투표율 62%가 1960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었고,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의회 선거에서는 대개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인 가운데 40%도 안 되는 사람만 굳이 투표하러 간다. 그토록 많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투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투표율이 60% 아래로 떨어진 1920년대에 의회가 투표를 의무로 만든 것이다. 그 뒤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른 여러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 법을 폐지하려는 진지한 시도는 없었고,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이 법을 지지한다. 투표하지 않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은 그 까닭을 묻는 편지를 받는다. 병이나 해외여행처럼 받아들일 만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적은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벌금을 무는 사람은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의 1%도 안 된다. 실제로 의무인 것은 유효한 표를 던지는 일이 아니라, 투표소에 가서 명부에서 자기 이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함에 넣는 일이다. 비밀 투표이므로 투표용지를 빈칸으로 두거나, 원한다면 거기에 욕설을 써 넣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투표가 의무인 곳에서는 무효표 비율이 조금 더 높지만, 그것으로 투표율의 차이가 상쇄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의무 투표는 오스트레일리아만의 제도가 아니다. 벨기에와 아르헨티나가 더 먼저 도입했고,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한다. 다만 제재와 집행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저자가 연방 선거마다 빠짐없이 투표한 까닭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 몇몇 선거 때 저자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투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에게도 어느 정당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이끌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호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저자가 수고를 들여 투표한 까닭을 설명하지 못한다. 자기 표가 선거 결과를 결정할 가능성은 아주 작았기 때문이다(그리고 예상대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어법

- **As an Australian citizen, I have voted in every federal election since I turned 18.** : as = ~로서(자격의 전치사). have voted = 현재완료(계속) — since + 과거 시점(turned 18)과 함께 '그때부터 지금까지'. turn + 나이 = ~살이 되다.
- **That figure contrasts markedly with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62% turnout in 2020 was the highest since 1960.** : contrast with = ~와 대조를 이루다(자동사).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선행사 the United States — 그런데 그곳에서는). the highest since 1960 = 1960년 이후 가장 높은(최상급 + since).
- **In congressional elections that fall in the middle of a president's term, usually fewer than 40% of eligible Americans bother to vote.**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elections → 복수 fall). fall = (어떤 때에) 놓이다, 해당하다. fewer than = 셀 수 있는 명사의 수에 쓰는 비교. bother to V = 굳이 ~하다(수고를 들이다).
- **there has been no serious attempt to repeal the law, which polls show is supported by about 70% of the population** : there has been = 현재완료(Since then과 함께). to repeal = attempt를 꾸미는 to부정사. which = 계속적 관계대명사로 is supported의 주어 — 사이에 polls show가 끼어든 구조(the law, which [polls show] is supported ...).

- **In practice, what is compulsory is not casting a valid vote, but going to the polling place, having one's name checked off, and putting a ballot paper in the box.** : what is compulsory = 관계대명사 what절 주어 → 단수 동사 is. not A but B — A · B 자리에 동명사(casting / going · having · putting). have + O + p.p.(having one's name checked off = 이름을 확인받기).
- **The secrecy of the ballot makes it impossible to prevent people leaving their ballot papers blank or, if they prefer, writing obscenities on them.** : make + 가목적어 it + 형용사 + 진목적어 to V. prevent + O + (from) -ing — 여기서는 from 없이 동명사. leave + O + 형용사 보어(blank). leaving과 writing이 or로 병렬, 사이에 if they prefer 삽입.
- **While the percentage of invalid votes is a little higher where voting is compulsory, it comes nowhere near offsetting the difference in voter turnout.** : While = ~이긴 하지만(양보). where = ~하는 곳에서(장소의 부사절). come near + -ing = 거의 ~하다 → nowhere near = 전혀 ~하지 못하다. it = 무효표 비율.
- **since the likelihood that my vote would decide the outcome of the election was minuscule (and, predictably, it never has)** : since = 이유의 접속사. that = 동격 접속사(the likelihood의 내용). 주어 the likelihood(단수) → was. it never has = it has never decided the outcome(반복되는 decided the outcome을 생략한 대동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urnout	투표율, 참가자 수	attendance	—
registered	등록된	enrolled	unregistered
markedly	뚜렷이	noticeably	slightly
eligible	자격이 있는	qualified	ineligible
compulsory	의무적인, 강제의	mandatory	voluntary
complexion	성향, 성격	character	—
repeal	(법을) 폐지하다	abolish	enact
fine (n.)	벌금	penalty	—
valid	유효한	legitimate	invalid
obscenity	욕설, 외설스러운 말	profanity	—
offset	상쇄하다	counterbalance	—
sanction	제재	penalty	reward
compulsion	강제, 의무	obligation	choice
minuscule	아주 작은	tiny	enormous

내용 일치 저자 = 오스트레일리아 시민 · 18세 이후 모든 연방 선거에서 투표 · 드문 일 아님 · 등록 유권자 투표율 = 적어도 95% · 미국 2020년 62% = 1960년 이후 '최고' · 임기 중간의 의회 선거 = 대개 40% 미만 · 1920년대 투표율 60% 미만 → 의회가 의무화 · 그 뒤 진지한 폐지 시도 없음 · 약 70% 지지(여론 조사) · 불참자 = 까닭을 묻는 편지 · 사유(병 · 해외여행)가 없으면 적은 벌금 · 벌금 대상 = 투표 자격자의 1% 미만 · 의무 = 유효표가 아니라 투표소에 가서 이름 확인 · 용지를 함에 넣기 · 비밀 투표 → 빈 용지 · 욕설을 못 막음 · 무효표는 조금 더 많으나 투표율 차이를 상쇄하기엔 턱없이 모자람 · 벨기에 · 아르헨티나가 더 '먼저' · 라틴아메리카 · 제재와 집행은 나라마다 다름 · 미국에 살 때는 의무 없었음 · 한 표가 결과를 정할 가능성 = 아주 작음(한 번도 그런 적 없음). **지칭** 160쪽 ¶1 That figure = 오스트레일리아의 95% 투표율 · where = 미국 / ¶2 the law = 의무 투표법 · which = 그 법 / ¶3 asking why = 왜 투표하지 않았는지 / ¶4 them(writing obscenities on them) = 투표용지 · it

comes nowhere near = 무효표 비율 / ¶5 it = 의무 투표 / ¶6 that isn't a full explanation의 that = 의무 투표 제도 · that also doesn't explain의 that = 저자의 정당 선호 · it never has = 저자의 표.

> **한 줄 요약** 오스트레일리아의 높은 투표율 뒤에는 1920년대에 생긴 의무 투표가 있지만, 미국에 살아 의무가 없던 때에도, 자기 한 표가 결과를 정할 가능성이 아주 작은데도 저자가 투표해 온 까닭은 아직 설명되지 않는다.

7-2 역설과 반례, 저자의 답 — 폴란드의 예, 무임승차와 의무 투표 160쪽 ¶7 ~ 161쪽 ¶7

원문 위치 원서 160쪽 ¶7 ~ 161쪽 ¶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0쪽 ¶7 첫 문장	even the smallest cost … is sufficient to make voting seem irrational	역설 · 사역 make + O + 원형
★	160쪽 ¶7 둘째 문장 ~ 161쪽 첫 줄	a minority of the population can determine a country's future, leaving a discontented majority	빈칸 1순위 · 분사구문
★	161쪽 ¶1 둘째 문장	In the 2005 national elections in Poland, barely 40% of those eligible voted	연도 · 숫자 — 순서 배열
▲	161쪽 ¶1 둘째 문장	the lowest total since the advent of free elections after the communist period	최상급 + since · 동격 명사구
★	161쪽 ¶1 셋째 문장	despite receiving only six million votes, out of a total of 30 million eligible voters	숫자 — 내용 일치
▲	161쪽 ¶2 첫 문장	it became evident that many of those who had not voted in 2005 were unhappy	가주어 it · 과거완료
★	161쪽 ¶2 둘째 문장	Turnout rose to nearly 54%, with the increase especially marked among younger and better-educated voters	숫자 · with + O + 분사
★	161쪽 ¶3	Kaczyński's government suffered a heavy defeat.	순서의 끝 고리
◆	161쪽 ¶4 둘째 문장	each of us still faces the temptation to get a free ride	밑줄 의미 1순위
▲	161쪽 ¶4 둘째 문장	not bothering to vote while hoping that enough other people will vote to keep democracy robust	분사구문의 부정 · keep + O + 형용사
▲	161쪽 ¶5 둘째 문장	would have nothing better to do with the time saved if they did not	가정법 과거 · 과거분사 후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1쪽 ¶5 셋째 문장	a sense of civic duty that does not assess the rationality of voting in terms of the possible impact	투표하는 까닭 – 무관한 문장 자리
●	161쪽 ¶6 첫 문장	like football fans, they want to cheer their team on	비유 – 밑줄 의미 오답 재료
▲	161쪽 ¶6 셋째 문장	the result is of such importance that even that tiny chance is enough to outweigh	of + 추상명사 · such ~ that
★	161쪽 ¶7 첫 문장	compulsory voting is one way of overcoming the free-rider problem	저자의 답 – 한 방법(one way)
◆	161쪽 ¶7 끝 세 문장	Australians want to be coerced into voting ... would do well to consider the Australian model	저자의 결론 · would do well to V

내용

투표가 자발적이고 결과가 한 사람의 표로 정해질 가능성이 극히 낮을 때에는, 아주 작은 비용만으로도 투표가 비합리적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투표소까지 걸어가 줄을 서서 표를 던지는 데 드는 시간이 그런 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런 추론을 따라 투표하지 않으면, 인구의 소수가 나라의 미래를 정하고 불만을 품은 다수가 남게 될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예는 많다. 2005년 폴란드 총선에서는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겨우 40%가 투표했다. 공산주의 시기가 끝나고 자유선거가 시작된 뒤 가장 낮은 수치였다. 그 결과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얻은 정당 연합의 지지를 받아 총리가 될 수 있었다.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두 3,000만 명인데 받은 표는 600만 표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불과 2년 뒤 폴란드 유권자들이 다시 투표하러 가야 했을 때, 2005년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많은 이가 그 결과에 불만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투표율은 54% 가까이로 올랐고, 특히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크게 늘었다. 카친스키 정부는 크게 패했다. 소수가 정부를 결정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높은 투표율을 바랄 것이다. 그러나 자기 한 표가 결과에 보태는 몫이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여전히 무임승차의 유혹을 받는다. 자기는 굳이 투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투표해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지키고 시민 다수의 견해에 응답하는 정부를 뽑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투표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투표하지 않아 아낀 시간에 그보다 나은 할 일도 없을 것이다. 자기 한 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투표의 합리성을 따지지 않는 시민적 의무감에서 투표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과를 정하리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축구 팬처럼 자기 팀을 응원하고 싶어서 투표할지도 모른다. 투표하지 않으면 뽑힌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평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투표할 수도 있다. 아니면 자기가 결과를 정할 가능성은 수백만 분의 1에 불과하지만, 결과가 워낙 중요해서 그 작은 가능성만으로도 투표의 사소한 불편을 넘어서기에 충분하다고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고려로도 사람들을 투표소로 이끌지 못한다면, 의무 투표는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다. 투표하지 않는 데 작은 비용을 물리면 모두에게 투표가 합리적인 일이 되고, 동시에 투표라는 사회 규범이 세워진다. 저자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투표를 강제받기를 원하며, 다른 모든 사람도 투표한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투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는 나라라면 오스트레일리아 모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짓는다.

어법

- even the smallest cost—for example, the time it takes to stroll down to the polling place, wait in line, and cast a ballot—is sufficient to make voting seem irrational : 주어 the smallest cost와 동사 is 사이에 대시로 예가

삽입. the time (that) it takes to V = ~하는 데 걸리는 시간. to 뒤 stroll · wait · cast 병렬. make + O + 원형(seem) = 사역동사. even + 최상급 = 가장 작은 ~조차.

- **Yet if many people follow this line of reasoning, and do not vote, a minority of the population can determine a country's future, leaving a discontented majority.** : if절 동사 follow와 do not vote 병렬. leaving = 결과의 분사구문(그리하여 ~을 남긴다). discontented = 불만을 품은(형용사).
- **In the 2005 national elections in Poland, barely 40% of those eligible voted, the lowest total since the advent of free elections after the communist period.** : those eligible = those (who were) eligible(형용사 후치). barely = 겨우(부정에 가까운 뜻). the lowest total ~ = 앞 절 내용(40%)을 다시 받는 동격 명사구. since the advent of = ~이 나타난 이후.
- **Turnout rose to nearly 54%, with the increase especially marked among younger and better-educated voters.** : rise to = ~까지 오르다(rise by = ~만큼). with + O + 분사 보어(marked) = 부대상황(증가가 두드러진 채로). nearly = 거의(54%에 조금 못 미침).
- **each of us still faces the temptation to get a free ride, not bothering to vote while hoping that enough other people will vote to keep democracy robust** : each of us + 단수 동사 faces. to get = temptation의 내용을 밝히는 to부정사. not bothering = 분사구문의 부정(not이 분사 앞). while + -ing = ~하면서. keep + O + 형용사(robust). to keep과 to elect가 목적으로 병렬.
- **Some people vote because they enjoy it, and would have nothing better to do with the time saved if they did not.** : would have … if they did not = 가정법 과거(실제로는 투표함). did not = did not vote(대동사). saved = the time을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아낀 시간). nothing better to do = -thing + 형용사 + to V.
- **the result is of such importance that even that tiny chance is enough to outweigh the minor inconveniences of voting** : of + 추상명사 = 형용사(of importance = important). such + 명사 + that = 너무 ~해서 …하다. be enough to V = ~하기에 충분하다. outweigh = ~보다 더 크다(무겁다).
- **The small cost imposed on not voting makes it rational for everyone to vote and at the same time establishes a social norm of voting.** : imposed on = The small cost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 on 뒤 동명사의 부정 not voting. make + 가목적어 it + 형용사 + for + 의미상 주어 + to V. 주어 cost(단수) → makes와 establishes 병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voluntary	자발적인	optional	compulsory
stroll	거닐다, 천천히 걷다	wander	—
irrational	비합리적인	unreasonable	rational
discontented	불만을 품은	dissatisfied	contented
advent	출현, 도래	arrival	—
coalition	(정당) 연합	alliance	—
evident	분명한	obvious	unclear
temptation	유혹	lure	—
robust	튼튼한, 굳건한	sturdy	fragile
responsive	응답하는, 반응하는	receptive	unresponsive
civic	시민의	—	—
outweigh	~보다 크다(무겁다)	exceed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convenience	불편	bother	convenience
coerce	강제하다	force	—

내용 일치 자발적 투표 · 한 표의 영향 극히 낮음 → 작은 비용(걷기 · 줄 서기 · 투표)도 투표를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함 · 많은 사람이 그렇게 추론하면 소수가 미래를 정하고 불만인 다수가 남을 '수' 있음 · 폴란드 2005 = 겨우 40%(공산주의 뒤 자유선거 이래 최저) · 카친스키 총리 = 과반 의석의 정당 연합 · 3,000만 유권자 중 600만 표 · 2년 뒤 = 2005년 불참자 다수의 불만이 분명해짐 · 54% 가까이(젊고 교육 수준 높은 층에서 특히) · 정부 참패 · 무임승차의 유혹 · 투표의 여러 이유(즐거움 · 시민적 의무감 · 축구 팬처럼 응원 · 불평할 자격 · 수백만 분의 1이라도 결과가 중요) = 저자가 든 '가능한' 이유(might · may) · 의무 투표 =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한' 방법 · 작은 비용 → 투표가 합리적 + 사회 규범 ·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강제받기를 원함(저자) · 오스트레일리아 모델을 고려하는 편이 좋다(would do well). **밑줄 의미** a discontented majority = 투표하지 않은 다수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남는다 / get a free ride = 자기는 투표하지 않고 남들의 투표가 지켜 주는 민주주의의 혜택만 누리려 한다 / cheer their team on = 결과를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쪽을 응원하려는 투표 / a social norm of voting = 모두가 투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됨 / 161쪽 ¶2 it became evident의 it = 가주어 · ¶6 they = 그 밖의 유권자들 · ¶7 They are happy to vote =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

> **한 줄 요약**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투표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투표하지 않으면 폴란드처럼 소수가 미래를 정할 수 있으므로, 저자는 투표하지 않는 데 작은 비용을 물려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의무 투표를 고려해 보라고 말한다.

7-3 물음과 사례 — 무국적자가 된 사크르, 미국과의 비교 162쪽 ¶1 ~ ¶5

원문 위치 원서 162쪽 ¶1 ~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2쪽 ¶1	Should your government be able to take away your citizenship?	물음 — 제목과 맞물림
★	162쪽 ¶2 첫 문장	the legal authority to revoke naturalized Britons' citizenship since 1918	연도 — 서답형
▲	162쪽 ¶2 첫 문장	has had the legal authority … since 1918	현재완료 + since
★	162쪽 ¶2 둘째 문장	Until the terrorist bombings on the London transport system in 2005, this power was rarely exercised	연도 · 전환점 — 무관한 문장 재료
★	162쪽 ¶2 셋째 문장	revoked the citizenship of 175 people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숫자 — 서답형
◆	162쪽 ¶2 넷째 문장	Theresa May declared that citizenship is "a privilege, not a right."	인용 — 누구의 말인지 · 저자의 주장 아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2쪽 ¶3 첫~둘째 문장	Most of those whose citizenship has been revoked held dual nationality. Mohamed Sakr, however, did not.	대조 — 제목
▲	162쪽 ¶3 넷째 문장	by stripping him of citizenship, the UK government made him stateless	strip A of B · make + O + 형용사
★	162쪽 ¶4 둘째 문장	the UK Supreme Court subsequently ruled in a different case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the power	다른 사건 — 뒤집기 주의
◆	162쪽 ¶4 셋째 문장	apparently because he was concerned that the use of his cell phone was revealing his location	apparently — 단정 금지
★	162쪽 ¶4 넷째 문장	while still in Somalia, he was killed in an American drone attack	사건 — 내용 일치
▲	162쪽 ¶4 다섯째 문장	have a reasonable belief that this does not render the person stateless	동격 that · render + O + 형용사
★	162쪽 ¶5 첫 문장	only on limited grounds, such as fraud committed in the citizenship application or service in another country's military	미국의 박탈 사유 — 삽입
◆	162쪽 ¶5 둘째 문장	Arguably, joining a terrorist organization … is even worse than joining a foreign army	Arguably — 저자의 단서
★	162쪽 ¶5 셋째~넷째 문장	they can presumably become citizens of the country for which they are fighting … no such ties	주어진 문장 자리 — such ties

내용

정부가 우리의 시민권을 빼앗을 수 있어야 하는가? 영국 정부는 1918년부터 귀화한 영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할 법적 권한을 지녀 왔다. 2005년 런던 교통망에서 테러 폭탄 공격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권한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2021년 말까지 영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75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내무장관으로 일하던 테리사 메이는 시민권이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선언했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 대부분은 이중 국적자였다. 그러나 모하메드 사크르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이집트에서 영국으로 왔지만, 그 자신은 이집트 시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영국 정부는 그의 시민권을 박탈함으로써 그를 무국적자로 만들었다. 사크르는 살고 있던 소말리아에서 이 결정에 항소했다. 영국 대법원이 그 뒤 다른 사건에서 정부에는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으니, 그의 항소는 승산이 컸다. 그런데도 사크르는 항소를 그만두었다. 휴대전화를 쓰면 자기 위치가 미국 정보기관에 드러난다고 걱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몇 달 뒤 그는 여전히 소말리아에 있다가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 뒤 영국 정부는 법을 고쳐, 내무장관이 누군가의 시민권을 박탈할 때에는 그 결정이 그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지 않는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 신청 때 저지른 사기나 다른 나라 군대에서의 복무처럼 한정된 사유로만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저자는 미국에 적대적인 테러 조직에 가담하는 것이 외국 군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한다. 테러 조직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 다른 나라 군대에 들어가 미국 시민권을 잃은 사람은 아마 자기가 위해 싸우는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테러 조직에는 대개 특정 정부와의 그런 연결이 없다.

어법

- **In the United Kingdom, the government has had the legal authority to revoke naturalized Britons' citizenship since 1918.** : has had = 현재완료(계속, since 1918). to revoke = authority를 꾸미는 to부정사. naturalized = 과거분사 전치(귀화한).
- **Until the terrorist bombings on the London transport system in 2005, this power was rarely exercised.** : until = ~까지(그때까지 이어진 상태). was rarely exercised = 수동 + 빈도 부사 rarely(거의 ~ 않다 — 부정의 뜻).
- **Most of those whose citizenship has been revoked held dual nationality. Mohamed Sakr, however, did not.** : those whose + 명사 = ~한 사람들(소유격 관계대명사). has been revoked = 현재완료 수동. did not = did not hold dual nationality(대동사 did).
- **Therefore, by stripping him of citizenship, the UK government made him stateless.** : by + 동명사 = ~함으로써. strip A of B = A에게서 B를 빼앗다(rob · deprive와 같은 꼴). make + O + 형용사 보어(stateless).
- **Nevertheless, Sakr discontinued his appeal, apparently because he was concerned that the use of his cell phone was revealing his location to US intelligence services.** : apparently = 보기에는 ~인 듯하다(확인된 사실이 아님). be concerned that = ~을 걱정하다. 주어 the use(단수) → was revealing(과거진행 — 그때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걱정).
- **the Home Secretary must, when revoking someone's citizenship, have a reasonable belief that this does not render the person stateless** : must와 have 사이에 when + -ing(접속사를 남긴 분사구문) 삽입. that = 동격 접속사(belief의 내용). render + O + 형용사 = O를 ~하게 만들다. this = 시민권 박탈.
- **Arguably, joining a terrorist organization hostile to the United States is even worse than joining a foreign army** : Arguably =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단정 아님). 동명사 주어 → 단수 is. hostile to ~ = organization을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구. even + 비교급 = 훨씬 더.
- **they can presumably become citizens of the country for which they are fighting** : presumably = 아마(추정). for which = fight for the country의 for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they = 다른 나라 군대에 들어가 미국 시민권을 잃은 사람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voke	취소하다, 박탈하다	withdraw	grant
naturalized	귀화한	—	native-born
exercise (v.)	(권한을) 행사하다	use	—
grounds	근거, 사유	reasons	—
privilege	특권	prerogative	—
dual	이중의	double	single
nationality	국적	citizenship	—
stateless	무국적의	—	—
appeal (v.)	항소하다	challenge	—
subsequently	그 뒤에	later	previousl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iscontinue	그만두다	stop	continue
amend	(법을) 고치다	revise	—
fraud	사기	deception	honesty
hostile	적대적인	antagonistic	friendly

내용 일치 1918년부터 귀화 영국인의 시민권 박탈 권한 · 2005년 런던 교통망 폭탄 공격 '전까지' 거의 안 씀 · 그때부터 2021년 말까지 175명(국가 안보) · 테리사 메이(당시 내무장관) =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메이의 선언 · 저자의 주장 아님) · 대부분 이중 국적 · 사크르 = 이중 국적 아님 · 부모는 이집트에서 왔으나 이집트 시민 아님 → 무국적 · 소말리아에서 항소 · 대법원 = '다른 사건'에서 정부에 무국적자로 만들 권한 없음(그 뒤) · 항소 중단 = 휴대전화 위치 노출 걱정 때문인 '듯'(apparently) · 몇 달 뒤 미국 드론 공격으로 사망 · 그 뒤 법 개정(무국적자가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믿음) · 미국 = 한정된 사유(신청 사기 · 외국 군대 복무) · 테러 조직 가담이 더 나쁘다고 볼 '여지'(Arguably) · 외국 군대 복무자 → '아마' 그 나라 시민 · 테러 조직 = 그런 연결 없음. **지칭** 162쪽 ¶2 this power = 귀화 영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할 권한 · then = 2005년 런던 폭탄 공격 / ¶3 did not = 이중 국적이 아니었다 · His parents · him = 사크르 / ¶4 His case · he was concerned = 사크르 · this does not render = 시민권 박탈 / ¶5 they can presumably become = 외국 군대에 들어가 미국 시민권을 잃은 사람들 · no such ties = 특정 나라와의 연결.

> **한 줄 요약** 영국은 2005년부터 2021년 말까지 국가 안보를 이유로 175명의 시민권을 박탈했고 이중 국적이 없던 사크르는 무국적자가 되었는데, 미국과 견주면 외국 군대와 달리 테러 조직에는 특정 정부와의 연결이 없다는 차이가 드러난다.

7-4 쟁점과 반론, 저자의 답 — 증거 없는 박탈, 권리와 공공선의 균형 162쪽 ¶6 ~ 163쪽 ¶5

원문 위치 원서 162쪽 ¶6 ~ 163쪽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2쪽 ¶6 첫 문장	The 196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to which Britain is a signatory	연도 · 협약 — 어법 지문
▲	162쪽 ¶6 첫 문장	does allow countries to declare their citizens stateless if it is proved that	강조의 does · 가주어 it
◆	162쪽 ¶6 둘째 문장 ~ 163쪽 첫 줄	does not require any judicial or public proof even of the weaker claim	쟁점 — 증거 없는 박탈
▲	163쪽 첫 줄 (¶6 셋째 문장)	Should the person whose citizenship is revoked mount an appeal	If 생략 도치 · whose — 어법
▲	163쪽 첫 줄 (¶6 셋째 문장)	the evidence on which it has based its decision	전치사 + 관계대명사 — 어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3쪽 첫 줄 (¶6 넷째 문장)	judges or tribunals will be unable to probe the evidence put before them	be unable to V — 어법
◆	163쪽 첫 줄 (¶6 다섯째 문장)	Another, more sinister possibility is deliberate abuse of these powers	더 나쁜 가능성 — 밑줄 의미
★	163쪽 ¶1 첫 문장	There is a strong case for an appeal system that allows for full and fair review	저자의 판단
◆	163쪽 ¶1 둘째 문장	But governments will respond that … could reveal intelligence sources and methods, thus jeopardizing national security	정부들의 반론 — 저자의 주장 아님
▲	163쪽 ¶2 첫 문장	one reason why a government may prefer this course to arresting and trying terrorism suspects	prefer A to B · 지칭 this course
★	163쪽 ¶2 둘째 문장	does not solve the problem of leaving at large a suspected terrorist	저자의 반박 — 박탈의 한계
★	163쪽 ¶3 첫 문장	the desirable balance between individu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citizenship, and the public good	더 큰 물음 — 요약문
★	163쪽 ¶4 첫 문장	similar to the London transport bombings, which killed 52 innocent people (the four bombers also died)	숫자 — 요약문 · 내용 일치
◆	163쪽 ¶4 둘째 문장	it is difficult to insist that individual rights are absolute	요약문 빈칸 (B)
★	163쪽 ¶5 첫 문장	it sets a precedent for authoritarian regimes … the poet and later Nobel laureate Joseph Brodsky	선례 · 인물 — 요지
★	163쪽 ¶5 둘째 문장	In the absence of global citizenship, it may be best to retain the principle that citizenship is not to be revoked without a judicial hearing	저자의 결론(may) — 요지

내용

영국이 서명한 1961년 무국적 감축에 관한 유엔 협약은, 시민이 '나라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를 무국적자로 선언하는 것을 실제로 허용한다. 그러나 영국 법은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있는 것이 공공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더 약한 주장조차 사법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항소하더라도, 정부는 결정의 근거가 된 증거를 항소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정부는 이런 사건에서 때때로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판사나 재판소는 눈앞에 놓인 증거를 깊이 조사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더 불길한 가능성은 이 권한을 일부러 남용해, 그 나라에 있는 것이 그저 불편할 뿐인 시민을 없애는 것이다. 저자는 시민권 박탈 결정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항소 제도를 둘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들은 테러 조직에 연루되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증거를 공개하면 정보원과 정보 수집 방법이 드러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대응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아무 증거도 내놓지 않고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테러 용의자를 체포해 재판하기보다 이 방법을 택할 만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시민권을 박탈하기만 해서는 테러 용의자를 잡지 않고 풀어 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크르의 경우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한, 그 용의자는 다른 곳에서 공격을 저지를 수도 있다. 영국이 내놓은 법안이 던지는 더 큰 물음은, 시민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이다. 테러 활동 연루 혐의에 기대어 시민권을 박탈할 때 정부가 20번 가운데 19번 옳게 판단한다고 해 보자. 2013년 영국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러했다 해도, 무고한 귀화 시민 한 명이 무국적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다. 그것은 중대한 불의다. 그런데 이번에는 테러 연루 혐의를 옳게 받은 19명이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무고한 52명의 목숨을 앗아 간(폭탄 공격범 네 명도 죽었다) 런던 교통망 폭탄 공격과 비슷한 테러를 저질렀다고 해 보자. 그런 잔학 행위 앞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절대적이라고 고집하기 어렵다. 무고한 한 사람이 부당하게 무국적자가 되는 것과 무고한 52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가? 저자는 테러 공격이 끼치는 훨씬 큰 해악을 무시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민주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해 사람들을 무국적자로 만들기 시작하면, 반체제 인사를 추방해 없애려는 권위주의 정권에 선례를 남긴다. 옛 소련이 시인이자 뒷날 노벨상 수상자가 된 조지프 브로드스키를 비롯해 많은 사람에게 한 일이 그 예다. 저자는 세계 시민권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사법 심리 없이 시민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어법

- **The 196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to which Britain is a signatory, does allow countries to declare their citizens stateless if it is proved that they have done something** : to which = be a signatory to의 to가 관계대명사 앞으로(계속적 용법). does allow = 강조의 조동사(협약도 허용은 한다). allow + O + to V. declare + O + 형용사 보어(stateless). if it is proved that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의 수동.
- **UK legislation does not require any judicial or public proof even of the weaker claim that someone's presence in the country is not conducive to the public good** : not ... any = 어떤 ~도 아니다. even of = ~에 대해서조차. that = 동격 접속사(the weaker claim의 내용). be conducive to = ~에 도움이 되다.
- **Should the person whose citizenship is revoked mount an appeal, the government is not required to disclose to the appellant the evidence on which it has based its decision.** : Should + 주어 + 원형 = If the person should mount ...(if를 생략한 도치). whose citizenship = 소유격 관계대명사. disclose 뒤 to the appellant가 먼저 오고 긴 목적어 the evidence ...가 뒤로 감. on which = base A on B의 on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 **Though governments are bound to make mistakes from time to time in such cases, judges or tribunals will be unable to probe the evidence put before them.** : be bound to V = ~하기 마련이다. be unable to V = ~할 수 없다(be unable + -ing는 틀림). put before them = the evidence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그들 앞에 제출된).
- **But governments will respond that to make the evidence available to a person believed to be involved with a terrorist organization could reveal intelligence sources and methods, thus jeopardizing national security.** : that절의 주어 = to부정사구(to make ... organization) → 동사 could reveal. make + O + 형용사(available). believed to be = a person을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라고 여겨지는). thus + -ing = 그리하여 ~하다(결과의 분사구문).
- **The ability to revoke citizenship without presenting any evidence in public is one reason why a government may prefer this course to arresting and trying terrorism suspects.** : 주어 The ability(단수) → is. why = 관계부사(선행사 reason). prefer A to B = B보다 A를 택하다 — to가 전치사라 뒤에 동명사(arresting · trying 병렬).
- **If that were the case with the decisions made by the UK government in 2013, there would still be a high probability that an innocent naturalized citizen was made stateless.** : If + were, 주절 would + 원형 = 가정법

과거(사실과 다를 수 있는 가정). made by = decisions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 that = 동격 접속사(probability의 내용). was made stateless = make + O + 형용사의 수동.

- **Is it better to have one innocent person unjustly made stateless, or to have 52 innocent people killed and many others injured?** : 가주어 it + 진주어 to have …(두 개를 or로 견줌). have + O + p.p. = O가 ~을 당하게 되다(피해를 나타내는 have: made · killed · injured).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ignatory	서명국, 서명자	party	—
prejudicial	해로운, 불리한	harmful	beneficial
judicial	사법의, 재판의	legal	—
conducive	도움이 되는	favorable	detrimental
disclose	공개하다	reveal	conceal
appellant	항소인	—	respondent
tribunal	재판소	court	—
probe	깊이 조사하다	investigate	—
sinister	불길한, 사악한	ominous	benign
jeopardize	위태롭게 하다	endanger	protect
at large	잡히지 않은, 활보하는	free	captured
atrocity	잔학 행위	outrage	—
precedent	선례	example	—
dissident	반체제 인사	dissenter	loyalist

내용 일치 1961년 유엔 협약(영국 서명) = 나라의 핵심 이익을 해친 것이 '증명되면' 무국적 선언 허용 · 영국 법 = 더 약한 주장조차 사법적 · 공개적 증명을 요구하지 않음 · 항소해도 증거 공개 의무 없음 · 실수는 있기 마련인데 판사 · 재판소는 증거를 조사할 수 없음 · 더 불길한 가능성 = 고의적 남용(그저 불편한 시민 없애기) · 충분하고 공정한 재검토 = 강력한 근거(저자) · 증거 공개 → 정보원 · 방법 노출 · 국가 안보 위협(정부들의 대응) · 공개 증거 없이 박탈 가능 = 체포 · 재판보다 박탈을 택할 이유 하나 · 박탈만으로는 용의자를 풀어 둔 문제 그대로(사크르처럼 죽지 않는 한) · 더 큰 물음 =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의 균형 · 20번 중 19번(가정) · 2013년 결정이 그렇다 해도 무고한 사람이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 높음 = 중대한 불의 · 52명 사망(폭탄 공격범 4명도 사망) · 권리가 절대적이라고 고집하기 어려움 · 훨씬 큰 해악은 무시 못 함 · 그래도 권위주의 정권에 선례(옛 소련 · 브로드스키) · 세계 시민권이 없는 지금 = 재판 없는 박탈을 하지 않는 원칙이 최선일 '수도'(may). **밑줄 의미** more sinister possibility = 실수보다 나쁜 것, 곧 권한을 일부러 남용할 가능성 / leaving at large a suspected terrorist = 시민권만 빼앗고 용의자는 붙잡지 않은 채 둔다 / a grave injustice = 무고한 귀화 시민이 무국적자가 되는 일 / sets a precedent for authoritarian regimes = 민주 정부의 박탈이 반체제 인사 추방의 본보기가 된다 / 163쪽 ¶2 this course = 시민권 박탈 · ¶4 one carried out = 옳게 의심받은 19명 가운데 한 명 · ¶5 it sets = 시민권을 박탈하기 시작한 민주 정부.

> **한 줄 요약**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박탈은 실수와 남용의 위험을 안고, 테러의 큰 해악 앞에서 권리가 절대적이라고 고집하기는 어렵지만, 저자는 민주 정부의 박탈이 권위주의 정권에 선례가 되므로 재판 없이 박탈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본다.

7-5 사례 — 프린스턴의 항의, 윌슨의 두 얼굴 168쪽 ¶1 ~ 169쪽 ¶2

원문 위치 원서 168쪽 ¶1 ~ 169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8쪽 ¶1 첫 문장	In the Fall of 2015 I was teaching Practical Ethics at Princeton University	연도 · 강의 — 내용 일치
▲	168쪽 ¶1 첫 문장	I was teaching … when, in the middle of the class, several students stood up and walked out	과거진행 + when(그때)
★	168쪽 ¶1 둘째 문장	the Black Justice League (BJL), one of many student groups that have emerged	단체 · 동격 — 어법(emerge)
▲	168쪽 ¶2 첫 문장	vowing not to leave until their demands were met	분사구문 · not ~ until · 수동
★	168쪽 ¶2 둘째 문장	"cultural competency training" … a requirement that students take classes on the history of marginalized people	요구 셋 — 가정법 현재
◆	168쪽 ¶2 셋째 문장	the demand that received national attention was for … to be renamed	전국의 주목 — 개명 요구
◆	168쪽 ¶2 다섯째 문장	Honoring Wilson, the League said, is offensive to Black students, because Wilson was a racist	연맹의 말 — 누구의 말인지
★	168쪽 ¶3 첫 문장	Wilson was a progressive in domestic affairs and an idealist in foreign policy	윌슨의 공적 — 지칭
▲	168쪽 ¶3 셋째 문장	he insisted that foreign policy be guided by moral values	insist that + (should) 원형
●	168쪽 ¶4 첫 문장	Yet his policies for Blacks were reactionary	어휘 반전: reactionary ↔ progressive
★	168쪽 ¶4 셋째 문장	racially segregated workplaces and washrooms, which had been abolished at the end of the Civil War, were re-introduced	사실 — 지칭 지문
◆	168쪽 ¶4 다섯째 문장	he told them that they should regard segregation as a benefit	지칭 them · regard A as B
★	168쪽 ¶5 첫 문장	the only one to receive the Nobel Peace Prize … he was Princeton's president	내용 불일치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9쪽 첫 줄	"perhaps did more than anyone else to transform [Princeton] from a preppie gentlemen's preserve into a great research university"	슬로터의 말 · perhaps
★	169쪽 ¶1 셋째 문장	a Wilson Square in Warsaw … Prague's main train station … Prague and Bratislava	도시 — 서답형 함정
★	169쪽 ¶2 셋째~넷째 문장	the League of Nations … from 1920 until 1936 … Palais Wilson, in Geneva …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연도 · 기관 — 내용 불일치

내용

2015년 가을 저자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실천 윤리학 강의를 하던 중, 몇몇 학생이 수업 도중에 일어나 나갔다. 그들은 흑인 정의 연맹이 이끄는 항의에 수백 명의 다른 학생과 함께하려던 것이었다. 흑인 정의 연맹은 비무장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경찰에게 살해된 일들에 대응해 미국 곳곳에서 생겨난 많은 학생 단체 가운데 하나다. 그날 늦게 연맹 회원들은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루버 프린스턴 총장의 집무실을 점거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요구에는 교수와 직원 모두를 위한 '문화 역량 교육', 학생들이 소외된 사람들의 역사에 관한 수업을 듣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에 특별히 바쳐진 '문화 친화 공간'을 캠퍼스에 마련하는 일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전국의 주목을 받은 요구는 대학의 우드로 윌슨 공공 · 국제 문제 스쿨과 기숙 칼리지의 하나인 윌슨 칼리지의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칼리지 식당에는 윌슨을 그린 커다란 벽화가 있는데, 연맹은 이것도 없애기를 원했다. 연맹은 윌슨이 인종차별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를 기리는 것이 흑인 학생들에게 모욕이 된다고 말했다. 윌슨은 국내 문제에서는 진보주의자, 외교 정책에서는 이상주의자였다. 그의 행정부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노동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주었으며, 은행법을 개혁하고 독점에 맞섰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그는 외교 정책이 도덕적 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럽의 민주주의와 민족 자결을 옹호했다. 그러나 흑인에 대한 그의 정책은 반동적이었다. 1913년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물려받은 연방 정부는 많은 흑인을 고용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몇몇은 백인과 나란히 중간 관리직에서 일했다. 그의 행정부 아래에서, 남북전쟁이 끝날 때 폐지되었던 인종 분리 일터와 화장실이 다시 생겼다. 흑인 관리자들은 더 하찮은 자리로 강등되었다. 흑인 대표단이 항의하자 그는 그들에게 분리를 혜택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프린스턴에서 윌슨의 이름이 두드러지는 것은, 그가 이 대학의 가장 유명한 동문 가운데 한 사람(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동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 프린스턴 총장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드로 윌슨 스쿨의 학장을 지낸 앤마리 슬로터의 말을 빌리면, 그는 프린스턴을 부유한 사립학교 출신 신사들만의 영역에서 위대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꾸는 데 '아마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낼 평화 조약의 바탕으로 제안한 '14개조'로 세계에 이름이 높다. 그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 민족들의 자치와 독립된 폴란드 국가를 요구했다. 그러니 바르샤바에 윌슨 광장이 있고, 프라하의 중앙역이 그의 이름을 따랐으며, 프라하와 브라티슬라바 두 곳에 윌슨 거리가 있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14개조의 다른 조항에는 공개 조약(다른 나라 영토를 전후에 나누어 가질 꾀를 꾸미는 비밀 조약을 맺지 않기)과 무역 장벽 완화 요구도 있다. 아마 가장 중대한 것은 크고 작은 나라 모두에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서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들의 일반적 연합체'를 만들자는 제안일 것이다. 이 요구가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창설로 이어졌고, 국제연맹은 1920년부터 1936년까지 제네바의 팔레 윌슨에 본부를 두었다. 이 건물은 지금도 그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의 본부다.

어법

- **In the Fall of 2015 I was teaching Practical Ethics at Princeton University when, in the middle of the class, several students stood up and walked out.** : 과거진행(was teaching) + when절 = ~하고 있던 그때 …했다(when이 뒤에 와서 '그런데 그때'의 뜻). stood up과 walked out 병렬.
- **one of many student groups that have emerged across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police killings of unarmed African Americans** : the Black Justice League와 동격인 명사구. one of + 복수 명사.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groups → 복수 have). emerge = 자동사라 수동(have been emerged)으로 쓸 수 없음. in response to = ~에 대응하여.
- **members of the BJL occupied the office of Princeton University President Christopher Eisgruber, vowing not to leave until their demands were met** : vowing = 동시 상황의 분사구문. vow + not to V(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to 앞에). not ~ until = ~할 때까지 …하지 않다. were met = 수동(요구가 받아들여지다).
- **a requirement that students take classes on the history of marginalized people** : requirement that + 주어 + (should) 원형 — 요구 · 필요를 나타내는 명사 뒤 that절에서 원형 take(과거 문맥이어도 took가 아님). marginalized = 과거분사 전치(소외된).
- **But the demand that received national attention was for the university's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and Wilson College, one of its residential colleges, to be renamed.** : 주어 the demand(단수) + 관계절 → was. for + 의미상 주어(the School … and Wilson College) + to be p.p.(이름이 바뀌는 것). one of its residential colleges = Wilson College와 동격.
-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 he insisted that foreign policy be guided by moral values** : insist that + (should) 원형 —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당위)일 때 원형 be. 사실을 주장할 때(~라고 우기다)는 직설법. be guided by = 수동.
- **Under his administration, racially segregated workplaces and washrooms, which had been abolished at the end of the Civil War, were re-introduced.** : 주어 workplaces and washrooms(복수) → were re-introduced(수동). which절 = 계속적 관계대명사, had been abolished = 과거완료 수동(다시 생기기 전에 이미 폐지되었던).
- **Wilson's name features prominently at Princeton not only because he is one of the university's most famous alumni (and the only one to receive the Nobel Peace Prize), but also because, before he was US president, he was Princeton's president.** : feature = (자동사) 두드러지게 나오다. not only because A but also because B. alumni = alumnus의 복수(동문). the only one to V = ~한 유일한 사람(to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armed	비무장의	defenseless	armed
occupy	점거하다	take over	vacate
vow	맹세하다	pledge	—
marginalized	소외된	excluded	—
affinity	친밀감, 유대	kinship	aversion
mural	벽화	wall painting	—
offensive	모욕적인, 불쾌한	insulting	inoffensive
progressive (n.)	진보주의자	reformer	conservative
monopoly	독점	—	competitio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elf-determination	(민족) 자결	autonomy	—
reactionary	반동적인	regressive	progressive
segregated	분리된	separated	integrated
demote	강등하다	downgrade	promote
menial	하찮은, 천한	lowly	—

내용 일치 2015년 가을 · 실천 윤리학 강의 중 학생들이 나감 · 흑인 정의 연맹이 이끈 항의(수백 명) · 비무장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경찰에게 살해된 일에 대응해 생긴 많은 학생 단체 중 하나 · 그날 늦게 아이스그루버 총장 집무실 점거 · 요구 = 문화 역량 교육 · 소외된 사람들의 역사 수업 의무 · 문화 친화 공간 · 전국의 주목 = 윌슨 스쿨과 윌슨 칼리지의 이름 변경 · 식당 벽화 철거 · 윌슨은 인종차별주의자라 기리면 모욕(연맹의 말) · 국내 = 진보주의자(아동 노동 금지 · 노동자 권리 · 은행법 개혁 · 독점에 맞섬) · 외교 = 이상주의자(도덕적 가치 · 유럽의 민주주의와 민족 자결) · 흑인 정책 = 반동적 · 1913년 대통령 · 분리 일터 · 화장실 부활(남북전쟁 끝에 폐지됐던) · 흑인 관리자 강등 · 분리를 혜택으로 여기라 ·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동문 · 대통령 전에 프린스턴 총장 · 슬로터(전 학장) = '아마' 누구보다 · 14개조 · 바르샤바 윌슨 광장 · 프라하 중앙역 · 프라하와 브라티슬라바의 윌슨 거리 · 국제연맹 = 1920~1936 제네바 팔레 윌슨 · 지금 =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본부. **지칭** 168쪽 ¶1 They = 수업 중에 나간 학생들 / ¶2 their demands = 연맹 회원들 · which the BJL also wanted removed = 윌슨 벽화 · the League said = 흑인 정의 연맹 / ¶3 His administration · he insisted = 윌슨 / ¶4 some working = 연방 정부가 고용한 흑인 · them · they should regard = 항의한 흑인 대표단 / 169쪽 ¶1 He called · named after him = 윌슨 / ¶2 That call = 국가들의 일반적 연합체 제안 · The building = 팔레 윌슨.

> **한 줄 요약** 흑인 정의 연맹은 인종차별주의자인 윌슨을 기리는 것이 모욕이라며 이름 변경을 요구했고, 윌슨은 국내의 진보주의자이자 외교의 이상주의자로 프린스턴과 세계에서 기려지지만 흑인에 대한 정책은 반동적이었다.

7-6 쟁점과 저자의 답 — 변하는 상징, 지우지 말고 함께 기억하기 169쪽 ¶3 ~ 170쪽 ¶1

원문 위치 원서 169쪽 ¶3 ~ 170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9쪽 ¶3 첫 문장	History is full of deeply flawed people who did great things.	쟁점 제기 — 일반화
★	169쪽 ¶3 둘째 문장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and James Madison	인물 — 서답형 함정
◆	169쪽 ¶3 셋째 문장	One might plead on their behalf that, in contrast to Wilson, they were at least no worse than the standards that prevailed in their time.	가능한 변호(might) — 저자의 주장 아님
★	169쪽 ¶3 넷째 문장	But is that sufficient grounds to continue commemorating them?	저자의 물음 — 판정 단정 금지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69쪽 ¶4 첫~둘째 문장	A New Orleans school board thought not … renamed George Washington Elementary School after a Black surgeon	도시 — 서답형
▲	169쪽 ¶4 둘째 문장	After adopting a resolution declaring that no school should be named after a slaveholder	after + -ing · name A after B
◆	169쪽 ¶4 셋째 문장	Should the name of the country's capital city be reconsidered, too?	열린 물음 — 답을 단정하지 말 것
◆	169쪽 ¶5 첫 문장	"political veils" gloss over a political system's historical details, creating an idealized visage	윙고의 개념 — 밑줄 의미
▲	169쪽 ¶5 둘째 문장	political leaders, who become symbolic vehicles for inculcating civic virtues	계속적 who · 통합 사고
★	169쪽 ¶6 첫 문장	the symbol can develop a different meaning	밑줄 의미 1순위
★	169쪽 ¶6 둘째 문장	in 1948, Rosa Parks's famous bus ride was still seven years away	연도 · 숫자 — 서답형
◆	169쪽 ¶6 넷째 문장	Wilson's racism therefore becomes more salient, and he ceases to embody the values	저자의 판단
★	169쪽 ¶7 첫 문장	for nearly five years … although a monument was erected outside the School acknowledging Wilson's racism	기간 · 기념물 — 주장 지문
▲	169쪽 ¶7 셋째 문장	It was not until 2020, after the very public police murder of George Floyd, that Princeton University acknowledged	It was not until ~ that 강조
★	170쪽 ¶1 첫~둘째 문장	cannot and should not be erased from history … a nuanced conversation about changing values	저자의 결론 — 주장

내용

역사에는 큰일을 했지만 깊은 결함을 지닌 사람들이 가득하다. 미국에서는 노예를 소유했던 건국의 아버지들과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같은 초기 대통령들만 보아도 된다. 그들을 위해, 윌슨과 달리 그들은 적어도 자기 시대에 널리 받아들여진 기준보다 나쁘지는 않았다고 변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것이 그들을 계속 기릴 충분한 근거가 되느냐고 묻는다. 뉴올리언스의 한 교육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어떤 학교도 노예 소유주의 이름을 따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채택한 뒤, 조지 워싱턴 초등학교의 이름을 수혈에서의 인종 분리 철폐를 위해 싸운 흑인 외과 의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저자는 수도 이름도 다시 생각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아주메 윙고는 책 『Veil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에서 '정치적 베일'이 한 정치 체제의 역사적 세부를 덮어 이상화된 얼굴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설명한다. 위대한(또는 그리 위대하지 않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 그들은 시민의 덕을 심어 주는 상징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 기준이 바뀌면 그 역사적 인물의 다른 면모가 더 중요해지고, 상징은 다른 의미를 띨 수 있다. 1948년 프린스턴의 공공 · 국제 문제 스쿨에 윌슨의 이름이 붙었을 때, 로자 파크스의 유명한 버스 승차는 아직 7년 뒤의 일이었고, 미국 남부의 인종 분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지 않았다. 지금 그런 분리는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윌슨의 인종차별은 더 두드러지고, 그는 오늘날 프린스턴 대학에 중요한 가치를 더는 구현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흑인 정의 연맹의 항의 뒤 5년 가까이 윌슨 칼리지와 우드로 윌슨 공공 · 국제 문제 스쿨은 이름을 그대로 지녔다. 다만 스쿨 바깥에 윌슨의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기념물이 세워졌다. 프린스턴 대학이 윌슨의 인종 분리 정책 때문에 공공 · 국제 문제 스쿨에 그의 이름을 붙여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은, 모두가 지켜본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 뒤인 2020년이 되어서였다. 대학은 칼리지에서도 그의 이름을 뺐다. 저자는 대학과 미국과 세계에 대한 윌슨의 공헌은 역사에서 지워질 수도 없고 지워져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오히려 바뀌는 가치에 관한 섬세한 대화를 낳고, 그의 긍정적 업적과 미국의 인종차별적 정책 · 관행에 그가 보탠 몫을 함께 담는 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프린스턴에서 그 대화가 낳을 결과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대학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지닌 복잡성을 모르고 지날 학생과 교수들을 교육하는 일이어야 한다.

어법

- **History is full of deeply flawed people who did great things.** : be full of = ~으로 가득하다. who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people). deeply flawed = 부사 + 과거분사(깊은 결함이 있는).
-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only to look at slave-owning Founding Fathers and early presidents like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and James Madison.** : have only to V = ~하기만 하면 된다. slave-owning = 명사 + 현재분사의 복합 형용사(노예를 소유한).
- **One might plead on their behalf that, in contrast to Wilson, they were at least no worse than the standards that prevailed in their time.** : might = ~할 수도 있다(가능한 변호 — 저자의 주장 아님). plead that = ~라고 변호하다. on their behalf = 그들을 위해. no worse than = ~보다 조금도 나쁘지 않은. that prevailed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standards).
- **After adopting a resolution declaring that no school should be named after a slaveholder, it renamed George Washington Elementary School after a Black surgeon who fought for desegregation of blood transfusions.** : after + 동명사(adopting). declaring = a resolution을 꾸미는 현재분사 후치. name A after B = B의 이름을 따서 A라고 이름 짓다(rename A after B). it = 뉴올리언스 교육위원회.
- **Ajume Wingo describes how "political veils" gloss over a political system's historical details, creating an idealized visage.** : describe의 목적어 = how 간접의문문(how + S + V). gloss over = 얼버무려 덮다. creating = 결과의 분사구문(그 결과 ~을 만든다). idealized = 과거분사 전치.
- **Wilson's racism therefore becomes more salient, and he ceases to embody the values that are important to Princeton University today.** : therefore = 앞 문장(분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음)의 결과. cease to V = ~하기를 그치다.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values → 복수 are).
- **It was not until 2020, after the very public police murder of George Floyd, that Princeton University acknowledged that his segregationist policies made it inappropriate to have a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named after him.** : It was not until A that B = A가 되어서야 비로소 B했다(강조 구문). make + 가목적어 it + 형용사 + 진목적어 to V. have + O + p.p.(named) = O가 ~되게 하다.
- **They should, instead, be recognized in a manner that creates a nuanced conversation about changing values, and includes both his positive achievements and his contribution to America's racist policies and practices.** : should be p.p. = 조동사 수동(They = 윌슨의 공헌).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manner) → creates와 includes 병렬. both A and B.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lawed	결함이 있는	imperfect	flawless
plead	변호하다, 주장하다	argue	—
prevail	널리 퍼지다, 우세하다	predominate	—
commemorate	기리다, 기념하다	honor	—
slaveholder	노예 소유주	slave owner	—
desegregation	인종 분리 철폐	integration	segregation
gloss over	얼버무리다, 덮어 감추다	cover up	expose
visage	얼굴, 모습	face	—
inculcate	(생각을) 심어 주다	instill	—
salient	두드러진	prominent	inconspicuous
embody	구현하다	represent	—
erect	세우다	build	demolish
nuanced	섬세한, 미묘한 차이를 살린	subtle	simplistic

내용 일치 역사에는 큰일을 한 깊은 결함의 인물이 가득 · 노예를 소유한 건국의 아버지들 · 워싱턴 · 제퍼슨 · 매디슨 · 그들은 적어도 시대 기준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변호할 '수도'(might — 저자의 주장 아님) · 계속 기릴 충분한 근거인가(저자의 물음) · 뉴올리언스 교육위원회 = 아니라고 봄 · 노예 소유주 이름 금지 결의 · 조지 워싱턴 초등학교 → 수혈의 인종 분리 철폐를 위해 싸운 흑인 외과 의사 · 수도 이름도?(열린 물음) · 윙고 = 정치적 베일이 역사적 세부를 덮어 이상화된 얼굴 · 지도자 = 시민의 덕을 심는 상징 · 도덕 기준이 바뀌면 다른 면모가 중요 · 상징이 다른 의미를 띨 '수' 있음 · 1948년 이름이 붙음 · 로자 파크스는 7년 뒤 · 남부의 분리에 심각한 도전 없었음 · 지금은 상상 불가 · 인종차별이 더 두드러짐 · 오늘의 가치를 구현 못 함(저자) · 항의 뒤 5년 가까이 이름 유지 ·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기념물 · 2020년 플로이드 살해 뒤에야 스쿨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 칼리지에서도 이름 뺌 · 공헌은 지울 수도 지워서도 안 됨 · 업적과 인종차별 정책 · 관행에 보탠 몫을 함께 · 복잡성을 모를 학생 · 교수 교육(저자). **밑줄 의미** political veils = 체제의 역사적 세부를 덮어 이상화된 얼굴만 보이게 하는 장치(윙고) / the symbol can develop a different meaning = 도덕 기준이 바뀌면 기리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도 달라진다 / he ceases to embody the values = 윌슨이 오늘의 프린스턴이 중시하는 가치를 더는 대표하지 못한다 / a nuanced conversation about changing values = 업적과 인종차별을 함께 다루며 가치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 169쪽 ¶3 they = 건국의 아버지들과 초기 대통령들 · ¶4 it renamed = 뉴올리언스 교육위원회 · ¶6 Now it is unthinkable의 it = 남부의 인종 분리 · 170쪽 첫 줄 It also removed = 프린스턴 대학 · ¶1 They = 윌슨의 공헌.

> **한 줄 요약** 도덕 기준이 바뀌면 기리는 인물의 상징도 다른 의미를 띠어 윌슨의 인종차별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저자는 그의 공헌을 지우지 말고 업적과 인종차별을 함께 담는 섬세한 대화 속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7 CITIZENS]

범위	Why Vote? · Is Citizenship a Right? · Should We Honor Racists? (원서 PDF 160~170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or almost five years after the protests, Princeton kept Wilson's name, though a monument recognizing his racism went up outside his School. Only in 2020, after George Floyd was killed by police in full public view, did the university decide that Wilson's segregationist record made the School's name unacceptable, and it took his name off the college as well. Even so, what Wilson did for the university, the nation, and the world should not be wiped out of history. It should be remembered through a nuanced discussion of shifting values that covers both his real achievements and his part in America's racist policies.

① Princeton should have kept Wilson's name.
② Racist leaders should be erased from history.
③ Wilson should be remembered for both his achievements and his racism.
④ Students should choose the names a university honors.
⑤ Monuments work better than renaming building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Most people who have lost British citizenship had a second nationality to fall back on. Mohamed Sakr did not. Although his parents had moved to Britain from Egypt, he held no Egyptian citizenship, so when the UK government took away his British citizenship, it left him a citizen of no country at all. Sakr, who was then living in Somalia, challenged the decision from there, and his chances looked good: in a separate case, the UK Supreme Court later ruled that the government has no power to leave anyone stateless. Yet Sakr dropped his appeal, apparently fearing that his cell phone was giving away his location to American intelligence. Some months afterward, still in Somalia, he died in a US drone strike. Britain then changed its law, requiring the Home Secretary to hav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a person losing citizenship will not end up stateless.

① A Citizen of Nowhere: The Case of Mohamed Sakr
② How Dual Nationality Protects Terror Suspects
③ Why the Supreme Court Sided with the Government
④ Somalia: A Safe Haven for British Exiles
⑤ The Rise of Drone Warfare in Africa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far greater harm that a terrorist attack would cause is not something we can brush aside. Still, the author warns, once a democratic government begins stripping people of their citizenship and leaving them stateless, it hands a precedent to authoritarian regimes. Such regimes are eager to get rid of dissidents by driving them out of the country, just as the Soviet Union once expelled the poet Joseph Brodsky, who would later win the Nobel Prize, along with many others. As long as there is no such thing as global citizenship, the author concludes, the wisest course may be to hold on to one simple rule: nobody should lose citizenship unless a court has first given the case a hearing.

① Terrorist attacks are so harmful that governments must revoke suspects' citizenship.
② It may be best for democracies to keep the rule that no one loses citizenship without a judicial hearing.
③ Global citizenship should replace national citizenship as soon as possible.
④ Poets and other dissidents deserve special protection from expulsion.
⑤ Only authoritarian regimes have ever revoked citizenship.

4. 밑줄 친 get a free rid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Nobody who values self-government wants a tiny minority to pick the people who rule, so all of us have reason to hope for a high turnout. The trouble is that a single ballot adds almost nothing to the final count. This is exactly why each of us is tempted to get a free ride. We can stay at home and save ourselves the bother, while counting on enough other citizens to go to the polls to keep democracy strong and to put in place a government that responds to what most people think. The smaller the effect of any one vote, the stronger this temptation becomes.

① to vote for the party that is most likely to win
② to let compulsory voting laws decide for us
③ to cheer for one's own side like a football fan
④ to travel abroad on election day to avoid a fine
⑤ to enjoy the benefits of others' voting without voting oneself

5. 밑줄 친 the symbol can develop a different meaning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jume Wingo explains how 'political veils' cover up the historical details of a political system and present an idealized face. Political leaders receive the same treatment and become symbols used to teach civic virtues. Yet as moral standards change, other traits of the historical figure come to matter more; as a result, the symbol can develop a different meaning. In 1948, when Princeton gave Wilson's name to one of its schools, Rosa Parks's well-known bus ride lay seven years in the future, and segregation in the South faced no serious challenge. Today such segregation is unthinkable. So Wilson's racism now stands out more, and he no longer embodies the values Princeton holds important.

① Wilson's name will lose all meaning once the protesting students graduate.
② Symbols of past leaders should be redesigned by every generation.
③ Political veils reveal the hidden truth about a nation's leaders.
④ What an honored figure stands for can shift as moral standards change.
⑤ Wilson's achievements were exaggerated when his name was added in 1948.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Wilson was a progressive at home and an idealist abroad. ① His administration outlawed child labor, gave workers new rights, reformed the banking laws, and took on monopolies, and after World War I ② he demanded that moral values steer foreign policy. Toward Black Americans, however, ③ his policies were reactionary. The federal government Wilson inherited on becoming president in 1913 employed many Black people, and some of ④ them held mid-level management posts alongside white colleagues. Under his administration, the segregation of workplaces and washrooms, ended after the Civil War, returned, and Black managers were moved down to more menial jobs. When a delegation of Black citizens protested, ⑤ he told them to view segregation as a benefit.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Ever since he turned 18, the author, an Australian citizen, has cast a ballot in every federal election, which is typical. In most of Australia's federal elections, turnout among registered voters reaches at least 95%. The contrast with the United States is striking: there, the 62% turnout recorded in 2020 was the best since 1960, and in the congressional elections held midway through a president's term, under 40% of Americans entitled to vote usually do so. Back in the 1920s, after turnout dropped under 60%, Parliament made voting a legal duty, and no government since has seriously tried to scrap the law, which about 70% of Australians support, according to polls. Nonvoters receive a letter asking for an explanation, and those with no good excuse pay a small fine, though fewer than 1% of those eligible end up being fined.

① 오스트레일리아 의회는 투표율이 60% 아래로 떨어진 1920년대에 투표를 의무로 만들었다.
② 미국의 2020년 투표율 62%는 1960년 이후 가장 낮았다.
③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약 70%가 의무 투표법의 폐지를 원한다.
④ 미국에서 대통령 임기 중간의 의회 선거에는 대개 투표 자격자의 절반 넘게 투표한다.
⑤ 벌금을 내는 사람은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의 10%가 넘는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Wilson's name is everywhere at Princeton, partly because he is among its most famous graduates and its sole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and partly because he headed Princeton before becom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ne-Marie Slaughter, once dean of the Wilson School, has said that he may have done more than anybody to make Princeton a great research university instead of a preserve for preppy gentlemen. Around the world, Wilson is known for his Fourteen Points, offered as a framework for the peace treaty that would close World War I. They demanded self-rule for peoples under Austro-Hungarian and Ottoman rule and a Polish state of its own, which is why Warsaw has a Wilson Square and Prague's main station bears his name. Another point proposed a general association of nations, which led to the League of Nations. From 1920 to 1936 the League was based in Geneva's Palais Wilson, which today houses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① 윌슨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일한 프린스턴 동문이다.
② 윌슨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 프린스턴의 총장이었다.
③ 14개조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 민족들의 자치 요구가 들어 있었다.
④ 국제연맹은 1920년부터 1936년까지 제네바의 팔레 윌슨에 본부를 두었다.
⑤ 팔레 윌슨은 지금 국제연맹의 후신인 유엔의 본부로 쓰인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The UN's 1961 convention on reducing statelessness, ① which Britain has signed, does let a country make its citizens stateless once it has been proved that they acted against the country's vital interests. British law, however, asks for no judicial or public proof, not even for the weaker claim that a person's presence in Britain does not serve the public good. If someone whose citizenship ② has revoked appeals, the government need not reveal to that person the evidence ③ on which its decision rests. Governments will inevitably make mistakes in some of these cases, and yet judges and tribunals will be unable ④ to examine the evidence placed before them. Worse still, these powers might ⑤ be abused deliberately to get rid of citizens who are merely inconvenient.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the fall of 2015, in the middle of the author's Practical Ethics class at Princeton, several students rose from their seats and left the room. They were joining a protest by the Black Justice League, one of a wave of student organizations (A) [that have emerged / that have been emerged] nationwide after unarmed African Americans were killed by police. Later that day, League members took over the office of Christopher Eisgruber, Princeton's president, vowing to stay until their demands (B) [were met / met]. One demand was a rule that every student (C) [take / took] courses on marginalized people's history; another was that Wilson's name be removed from a school and a college.

	(A)	(B)	(C)
①	that have been emerged	were met	take
②	that have emerged	met	took
③	that have emerged	were met	take
④	that have been emerged	met	take
⑤	that have emerged	were met	took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In practice, the law does not ① require anyone to cast a valid vote. What it requires is turning up at the polling place, having your name checked off, and dropping a ballot paper into the box. Because the ballot is ② secret, nobody can stop voters from leaving their papers blank or even scrawling obscenities on them. Invalid votes are somewhat more ③ common where voting is compulsory, but they come nowhere close to ④ doubling the gap in turnout between compulsory and voluntary systems. Nor is Australia ⑤ alone in this: Belgium and Argentina adopted compulsory voting before it did, and it is also used in many other countries, Latin American ones in particular, though penalties and enforcement differ from place to place.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The author voted even during years spent in America, where nothing forced him to, and his party preferences cannot explain the effort either, because his single ballot was never likely to tip the result. Here lies a puzzle. If voting is optional and one vote almost never decides anything, then a few minutes' walk and a short queue can seem a cost not worth paying, and a sensible person might simply stay home. But imagine what happens when large numbers of people draw this conclusion together: _____.

① each remaining ballot will carry even less weight
② the few who still vote may end up choosing the government for an unhappy majority
③ the cost of voting will fall
④ compulsory voting will be introduced
⑤ the result will mirror the majority's wishes even more closely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One important difference, however, is that someone who loses US citizenship by joining another nation's military can presumably become a citizen of the country they fight for.

In the United States, the grounds for taking away citizenship are narrow. (①) They include fraud in a citizenship application and service in a foreign army. (②) It can be argued that joining a terrorist group hostile to America is even worse than enlisting in a foreign army. (③) After all, terrorist groups are more likely to make civilians their targets. (④) Terrorist organizations, by contrast, usually have no comparable link to any particular government.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Still, people vote for many possible reasons. ① Some simply enjoy voting and would have no better use for the time if they stayed home. ② Others feel it is their civic duty, and they do not judge whether voting is rational by asking what effect a single ballot might have. ③ Before the 2005 bombings of London's transport system, Britain had rarely used its power to strip people of citizenship. ④ Still others vote to cheer on their side, like football fans, or to keep the right to complain about whatever government wins. ⑤ If such motives fail, compulsory voting offers one way around the free-rider problem, since a small cost for not voting makes voting rational for everyone.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re are plenty of real cases in which a minority has decided a country's future. In Poland's 2005 national elections, barely 40% of eligible citizens voted, the lowest figure since free elections began after the communist era.

(A) Turnout climbed to almost 54%, with the biggest rise among young voters and those with more education, and Kaczyński's government went down to a heavy defeat.

(B) Two years later, when Poles had to vote again, it became clear that many who had stayed home in 2005 were dissatisfied with how things had turned out.

(C) Consequently, Jarosław Kaczyński became prime minister on the strength of just six million votes, at a time when 30 million people were entitled to vote, backed by a coalition holding most of the seats in Parliament.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ritain's proposed law raises a bigger question: how to weigh individual rights against the public good. Imagine that when the government strips people of citizenship on suspicion of terrorist involvement, it is correct 19 times out of 20. If that were true of the UK government's decisions in 2013, it would still be quite likely that one innocent naturalized citizen had been left stateless, a grave injustice. But now imagine that the 19 rightly suspected people could return to Britain and that one of them carried out an attack like the 2005 bombings of London's transport system, in which 52 innocent people died. Faced with such atrocities, it is hard to go on claiming that individual rights must be treated as absolute.

→ Even a government that is (A) _____ most of the time may leave an innocent person stateless, yet the prospect of an attack that kills dozens makes it difficult to regard individual rights as (B) _____.

① right ..... absolute
② wrong ..... absolute
③ right ..... negotiable
④ wrong ..... negotiable
⑤ careless ..... unimportant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At least 95% of registered voters usually turn out for Australia's federal elections, largely because Parliament made voting compulsory in the 1920s. In Britain, the government has been legally able to take citizenship away from naturalized citizens since 1918, but it rarely did so until the London bombings of 2005; by the end of 2021, 175 people had lost their citizenship on security grounds. At Princeton, Woodrow Wilson's name was given to a school in 1948, when segregation in the South of the United States was not yet facing any serious challenge. Elsewhere, a school board in New Orleans gave George Washington Elementary School a new name, honoring a Black surgeon.

<QUIZ>

(1) What share of registered voters usually turns out for Australia's federal elections?

Answer for (1): _____

(2) In which decade did Australia's Parliament make voting compulsory?

Answer for (2): _____

(3) Since what year has the British government been able to take away naturalized citizens' citizenship?

Answer for (3): _____

(4) How many people had lost British citizenship on security grounds by the end of 2021?

Answer for (4): _____

(5) In what year was Wilson's name given to the school at Princeton?

Answer for (5): _____

(6) Is it true or false that segregation in the South faced serious challenge when Wilson's name was given to the school?

Answer for (6): _____

(7) In which city did a school board rename George Washington Elementary School?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2013	N. Princeton
B. True	O. 19
C. False	P. 1961
D. Geneva	Q. 2015
E. New Orleans	R. the 1960s
F. 70%	S. 1918
G. 2020	T. 175
H. 52	U. the 1920s
I. 1948	V. six million
J. at least 95%	W. Washington
K. Warsaw	X. 2005
L. 1913	Y. 62%
M. fewer than 40%	Z. Bratislava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오스트레일리아 시민으로서 나는 열여덟 살이 된 뒤로 모든 연방 선거에서 투표해 왔다. (as(자격) / 현재완료 + since)

02 많은 사람이 투표하지 않으면, 인구의 소수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여 불만을 품은 다수를 남길 수 있다. (결과의 분사구문 leaving)

03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투표해 주기를 바라면서 무임승차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each of us + 단수 동사 / while + -ing)

04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는 나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모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거분사 후치 / would do well to V)

05 시민권을 박탈함으로써 영국 정부는 그를 무국적자로 만들었다. (by + -ing / strip A of B / make + O + 형용사)

06 미국에 적대적인 테러 조직에 가담하는 것은 외국 군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Arguably / 동명사 주어 / even + 비교급)

07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항소한다면, 정부는 결정의 근거가 된 증거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If 생략 도치(Should + S + 원형) / 전치사 + 관계대명사)

08 세계 시민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법 심리 없이 시민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가주어 it / 동격 that / be to V(의무))

09 그는 외교 정책이 도덕적 가치에 따라 이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nsist that + (should) 원형 / 수동)

10 그들을 위해, 그들이 적어도 자기 시대에 널리 퍼진 기준보다 나쁘지는 않았다고 변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might(가능성) / no worse than / 관계대명사 that)

11 2020년이 되어서야 프린스턴 대학은 그의 인종 분리 정책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딴 스쿨을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It was not until ~ that / make + it + 형용사 + to V / have + O + p.p.)

12 윌슨의 공헌은 역사에서 지워질 수도 없고 지워져서도 안 된다. (조동사 + 수동(cannot and should not be p.p.))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선거의 투표율 / 저자가 투표를 시작한 나이	
미국 2020년 투표율 / 임기 중간의 의회 선거 투표율	
의무 투표가 생긴 때 · 그때의 투표율 / 지지율 / 벌금 대상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먼저 의무 투표를 도입한 나라	
폴란드 2005년 투표율 / 2년 뒤 투표율	
총리가 된 사람 / 그쪽이 받은 표 · 투표 자격자 수	
영국이 박탈 권한을 가진 해 / 박탈이 잦아진 시점(그 전까지는 거의 안 씀)	
2021년 말까지 박탈된 사람 수	
시민권을 '특권'이라 한 사람 · 직책	
사크르의 부모가 온 나라 / 그가 살던 곳	
미국의 시민권 박탈 사유 둘	
무국적 감축에 관한 유엔 협약의 해	
가정한 정부의 정확도 / 런던 공격의 희생자	
옛 소련이 추방한 시인	
항의가 일어난 때 · 강의 / 항의를 이끈 단체	

항목	답
윌슨이 대통령이 된 해 / 프린스턴에서의 직책	
국제연맹 본부(기간 · 건물)	
조지 워싱턴 초등학교의 이름을 바꾼 곳	
윌슨의 이름이 스쿨에 붙은 해 / 이름을 뺀 해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Why Vote?」에서 저자는 자기 한 표가 결과에 보태는 몫이 아주 작아 우리 각자가 무임승차의 유혹을 받는다고 짚었다. 아래 빈칸 문장은 그 대목이다. 다른 두 편에도 이 낱말(또는 그 형용사형)과 이어지는 대목이 있다. 빈칸에 들어갈 영어 한 단어를 쓰고, 그 근거를 「Is Citizenship a Right?」와 「Should We Honor Racists?」에서 하나씩 찾아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시민이 함께 지키는 것: Yet since our own vote makes such a tiny contribution to the outcome, each of us still faces the temptation to get a free ride, not bothering to vote while hoping that enough other people will vote to keep _____ robust and to elect a government that is responsive to the views of a majority of citizen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8 GLOBAL PROBLEMS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The Refugee Dilemma · Paris and the Fate of the Earth · Greta Thunberg
원서 PDF 177~179 · 182~186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국경 너머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가."

이 권은 국경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세 편을 묶었다. 「The Refugee Dilemma」에서 저자는 망명권에 상한이 없다던 메르켈이 2018년에 국경 통제 강화에 동의한 데서 권리에도 결국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낸 뒤, 가까운 나라의 안전한 난민 캠프와 부유국의 더 많은 수용이라는 해법을 내놓는다. 「Paris and the Fate of the Earth」는 리우에서 파리, 글래스고까지 기후 협상을 따라가며 각국의 서약으로는 2℃를 넘을 위험을 막지 못한다고 보고, 항공사의 비유로 그런 위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Greta Thunberg's Moment」는 툰베리의 유엔 연설에서 출발해 부유국의 배출을 러시안룰렛에 빗대고,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이라고 본다. 세 편을 이어 읽으면 누가 문제를 일으켰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르는가라는 물음이 국경을 넘어 되풀이된다. 저자의 결론과 저자가 소개한 정치인 · 활동가의 말을 가려 적었고, 이 노트는 어느 쪽도 권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원서를 옆에 펴고 네 눈으로 먼저 찾아 기호로 표시하고 그 까닭을 한 줄로 적어 두어라.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권리에는 결국 한계가 있어야 한다(178쪽 ¶4) / 가까운 나라의 안전한 캠프 – 밀입국 알선을 없애고 캠프의 사람들에게도 희망을(179쪽 ¶1~¶2) / 2℃를 넘을 10%의 위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항공사 비유(183쪽 ¶2~¶3) /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186쪽 ¶4~¶5)
4~5	**밑줄 함축 의미**	knows no upper limit / Wir schaffen das / not Merkel the idealist, but Merkel the political realist / in the last resort, rights must have a limit / a well-coached migrant / They too need to be given hope / hung in the balance / went unheeded / if not many times higher / How dare you? / a kind of Russian roulette / two bullets rather than just one / where we draw the line
6	지칭 추론	① their만 개발도상국, 나머지 their · They는 부유국으로 갈리는 183쪽 ¶4 / She · this(177쪽 ¶3 = 메르켈 · 망명권) · they(178쪽 ¶3 = 인도적으로 대하려는 정치 지도자) · She(178쪽 ¶4 = 메르켈) / them · they(179쪽 첫 줄 = 부유국) · it(182쪽 ¶3 = 안정화) / They(185쪽 ¶1 = 연설의 첫 말) · they(186쪽 ¶2 = 학교 파업)
7~8	내용 일치·불일치	2015년 7월 10만 · 8월 한 주 21,000 · 2,500 · 튀르키예 · 레바논 · 요르단 · 5,950만(177쪽 ¶1~¶2) / 89만 · 60만 · 18개월 · 1970 브란트(177쪽 ¶4) / 2℃ · 0.8℃ · 7m · 1.5℃ · 154 · 500억 → 550억~600억 · 360억(182쪽 ¶7 ~ 183쪽 ¶1) / 2019년 9월 · 4분 · 600만 · 30년 · 50% · 3,500억 톤 · 2028(185쪽 ¶1~¶4) / 스웨덴 · 모로코 · 리투아니아 · 미국 하위 5개국(185쪽 ¶5)
9~10	**어법**	the number of · 독립분사구문 · with + O + -ing · the + 과거분사 · to부정사 주어 · 부정 주어 + 비교급 · 계속적 which + 과거완료 · on which · Neither A nor B · define A as B · not only A but B · It is not A but B who · that of · 형용사 + as + S + V(양보) · 가주어 + for · 가정법 과거(제안) · 동명사 주어 · enough to · with + 명사 + to V · to 부정사(형용사적) · if not · prevent A from -ing · start by -ing · the second largest · it remains to be seen · 최상급 + 현재완료 · as + V + S 도치 · accuse A of -ing · How dare · would have had to · Nor 도치 · where 명사절 · call for + O + to V · be regarded as · no less A than B · would + if 현재 · from which to V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persecuted ↔ protected · spontaneous ↔ planned · humanely ↔ cruelly · undercut ↔ strengthen · genuine ↔ fake · lethal ↔ harmless · stabilize ↔ destabilize · thaw ↔ freeze · binding ↔ voluntary · vague ↔ precise · unheeded ↔ heeded · slash ↔ increase · insufficient ↔ sufficient · apt ↔ inappropriate · slip by ↔ arrive(185쪽 ¶3) · halve ↔ double · nonviolent ↔ violent · avert ↔ cause
12	빈칸 추론	nonviolent protest that no one has yet tried(186쪽 ¶6) / a responsibility to take refugees(179쪽 첫 줄) / rights must have a limit(178쪽 ¶4) / fell far short of what is required(182쪽 ¶5) / ought not to accept a 10% chance(183쪽 ¶3) / no ethical justification for continuing to emit(185쪽 ¶6)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문장 삽입	우크라이나 난민(178쪽 ¶5 ~ 179쪽 첫 줄): 유럽 안의 난민은 다른 듯 → 2주 동안 200만 명 넘게 → 150만 명은 폴란드, 나머지는 헝가리 · 슬로바키아 · 루마니아 · 몰도바 · 일부 러시아 → 폴란드 · 헝가리 정부의 대조(시리아 난민엔 저항, 우크라이나 난민은 환영) → 실제적 해법은? → 부유국의 책임 → 진짜 난민 가리기
14	무관한 문장	학교 파업과 Extinction Rebellion(186쪽 ¶2~¶3)에 다른 편의 사실(경제 난민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난민 협약, 178쪽 ¶2)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선거의 흐름(177쪽 ¶5 ~ 178쪽 ¶1): 두 달도 안 돼 폴란드 → 이듬해 영국 · 트럼프 → 2017 오스트리아 → 같은 해 독일 연방 선거 → 그다음 해 이탈리아 → Finally 오르반 → 이민이 역할(어쩌면 결정적)
16	요약문 완성	파리 회의의 평가(183쪽 ¶6 ~ 184쪽 첫 줄): 코펜하겐과 달리 완전한 실패는 아님 · 2℃보다 '훨씬 아래' · 모든 나라의 몫 → 그러나 서약은 부족 · 글래스고 이후에도 1.5℃를 넘을 것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숫자 · 도시 · 나라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10만 · 21,000 · 2,500 · 5,950만 · 89만 · 60만 · 18개월 · 1970 · 2017 · 8포인트 · 2018 · 2022 · 200만 · 150만(1편) / 1992 · 189 · 2009 · 154 · 2℃ · 0.8℃ · 7m · 1.5℃ · 500억 · 550억~600억 · 360억 · 10% · 2050 · 2021(2편) / 2019 · 4분 · 600만 · 30년 · 10년 · 50% · 3분의 1 · 3,500억 톤 · 2028 · 15세(3편). 비슷한 숫자 쌍(89만과 60만, 189와 154, 200만과 150만, 2℃와 1.5℃와 0.8℃, 2009와 2019, 2018과 2028)이 함정이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far more ↔ fewer, the highest ↔ the second highest, resisted ↔ welcomed, unheeded ↔ accepted, not a complete failure ↔ a complete failure, insufficient ↔ sufficient, standing alone ↔ leading a crowd, apt ↔ inappropriate). '어쩌면'(possibly) · '~인 듯'(seems) · '~할 수도'(could · may) · '~할 가능성이 크다'(likely) · '툰베리가 지적했다'(Thunberg pointed out)를 사실로 바꾼 선지, 메르켈 · 툰베리 · Extinction Rebellion의 말이나 요구를 저자(싱어)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개발도상국의 주장은 저자가 '옳다'고 했지만 Extinction Rebellion의 요구는 소개만 했다.

1-2. 구조도 – 「The Refugee Dilemma · Paris and the Fate of the Earth · Greta Thunberg」 (177~179 · 182~186쪽)

논증형 세 편. ① 사례(난민 위기의 규모) → 메르켈의 약속 → 잇따른 선거 결과 → 저자의 진단 → 협약의 한계 → 딜레마 · 메르켈의 현실론 → 대조 사례(우크라이나) → 쟁점 → 저자의 제안. ② 걸린 것 → 리우의 출발점 → 실패의 역사 → 두 가지 모호함 → 서약의 격차 · 항공사 비유 → 저자의 대안 → 파리 회의의 평가. ③ 사례(툰베리의 연설) → 툰베리의 근거 → 성적표 → 저자의 판단 → 물음 · 운동 → 시민 불복종의 역사 → 저자의 결론. 핵심 축은 **무제한의 권리 vs 한계 있는 권리**, **지금의 서약 vs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 **부유국의 배출 vs 가난한 나라의 피해**.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77 ¶1~¶2	사례 · 규모	2015년 7월 유럽연합 국경의 이주민 10만 명 넘음 · 8월 한 주 그리스 21,000명 · 관광객의 불평 · 그해 지중해 익사 2,500명 넘게(대부분 북아프리카 → 이탈리아) / 시리아 내전 = 튀르키예 · 레바논 · 요르단에 훨씬 많이 · 로힝야족 · 2014년 말 5,950만 명(유엔 난민 기구 추산 · 역대 최고)
177 ¶3~¶4	메르켈의 약속	망명권에는 상한이 없다 · 내전의 지옥에서 온 난민에게도 / 2015년 망명 신청자 89만 명 등록 · 9월 1일부터 18개월간 60만 건 넘게 승인 · 'Wir schaffen das' · 1970년 브란트의 무릎 꿇기보다도 결정적(저자의 평가)
177 ¶5~178 첫 줄	반발	두 달도 안 돼 폴란드 법과 정의당 집권 · 이듬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택 · 트럼프 당선 · 2017 오스트리아 자유당 연정 ·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8포인트 불리 · 독일을 위한 대안 제3당 · 그다음 해 이탈리아(살비니) · 오르반 재집권
178 ¶1~¶2	저자의 진단	이민이 모든 결과에 역할(어쩌면 결정적) · 이민 희망자뿐 아니라 세계에 비극 · 기후 변화로 굶주릴 아이들의 울음은 아직 들리지 않음 / 난민 협약 = 박해의 다섯 근거 · 경제 난민 받을 의무 없음 · 기후 난민은 생각 못 함
178 ¶3~¶4	딜레마 · 현실론	국경 통제를 강화해 극우 정당(저자의 표현) 지지를 꺾거나, 그 싸움과 다른 가치까지 잃을 위험 / 2018년 정치적 현실주의자 메르켈 · 국경 통제 강화 · 구조된 사람 돌려보내기 → 결국 권리에는 한계(저자)
178 ¶5	대조 사례	유럽 안의 난민은 다른 듯(seems) · 2022년 2월 침공 뒤 2주 동안 200만 명 넘게 · 150만 명 폴란드 / 폴란드 · 헝가리 정부 = 시리아 난민엔 저항, 우크라이나 난민은 환영
178 ¶6~179 첫 줄	쟁점	환영받지 못하는 난민에게 실제적 해법은? · 부유국은 난민을 받을 책임 · 더 받을 수 있고 받아야(저자) / 진짜 난민과 '잘 코치받은' 이주민을 가리기 어려움
179 ¶1~¶2	저자의 제안	협약 → 밀입국 알선 산업 · 가까운 나라의 안전한 캠프(교육 · 일자리 · 부유국 지원) 라면 밀입국과 이동 중 죽음이 사라질 것(would) · 국경 통제 유지 / 돌려보내기는 감정적으로 어려움 · 캠프의 수백만 명에게도 연민과 희망
182 ¶1~¶2	걸린 것 · 출발점	2015년 11월 파리 · 수십억 명의 삶 · 멸종 위기종 / 1992 리우 '지구 정상 회의' · 189개국 · 유엔 기후 변화 기본 협약 ·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막을 만큼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182 ¶3~¶5	실패의 역사	안정화 없음 → 되먹임 고리(북극 얼음 ·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의 메탄) ·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 법적 구속력 전략 좌절(부시 시절 미국의 비타협도 한 원인) · 2009 코펜하겐 · 자발적 서약 · 154개국 · 크게 모자람
182 ¶6~183 첫 줄	첫째 모호함	두 가지 모호함 · 2℃ 상한으로 해결 · 많은 과학자 = 더 낮아도 위험 · 0.8℃만으로 기록적 고온 · 그린란드(7m) · 작은 섬나라의 1.5℃ 호소 묵살(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라 여겨)
183 ¶1~¶3	격차 · 비유	그랜섬 연구소 = 서약이 다 이행돼도 500억 → 2030년 550억~600억 톤 · 2℃ 50%에 360억 톤 / 오스트레일리아 = 지금 멈춰도 10% / 항공사 비유 → 10%(어쩌면 몇 배)를 받아들여선 안 됨(저자)
183 ¶4~¶5	저자의 대안	개발도상국의 값싼 에너지 필요 > 부유국의 낭비 · 그들이 옳다 → 부유국은 늦어도 2050년까지 탈탄소 · 석탄 발전소 폐쇄 / 육류세(perhaps) · 축산업 = 둘째로 큰 배출원 · 암 사망 감소
183 ¶6~184 첫 줄	평가	코펜하겐과 달리 완전한 실패는 아님 · '훨씬 아래' 2℃ · 1.5℃ 노력 · 모든 나라의 몫 / 서약 부족 · 코로나로 미뤄져 2021년 11월 글래스고 · phase out → phase down(중국 · 인도) · 1.5℃를 넘고 2℃도 넘을 수도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85 ¶1~¶2	사례	'This is all wrong!' · 저자가 들은 가장 강력한 4분 연설 · 2019년 9월 유엔 기후 행동 정상 회의 · 시위 참가 약 600만 명(추산) / 비용을 더 떠안을 젊은이들 → 도덕적 분노는 적절(저자) · 'How dare you?'
185 ¶3~¶5	근거 · 성적표	30년 동안 알려진 과학 · 10년 안에 절반을 줄여도 1.5℃ 아래 50%(툰베리) · 3분의 1로 줄이려면 2050년까지 3,500억 톤 · 지금 속도면 2028년 / '매우 좋음' 없음 · 스웨덴 · 모로코 · 리투아니아 · 미국은 하위 5개국
185 ¶6~186 첫 줄	저자의 판단	윤리적 쟁점은 판정하기 어렵지 않다 · 부유국의 1인당 높은 배출 = 정당화 불가 · 3분의 1의 확률 = 총알 두 발의 러시안룰렛 · 전환 비용은 위험과 비교도 안 됨 ·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
186 ¶1~¶3	물음 · 운동	툰베리의 긍정적 마무리 / 젊은이가 세상을 깨울 수 있나 · 학교 파업이 지도자를 움직일까 / Extinction Rebellion = 시민 불복종 옹호 · 도로 봉쇄 · 엄격한 비폭력
186 ¶4~¶6	역사 · 결론	간디 · 킹 · 베트남 전쟁 = 지금은 용기 있고 옳은 일로 널리 여겨짐 / 정부의 실패는 그 못지않게 그르다 →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 / 아직 시도하지 않은 비폭력 방식이 있을 수도 · 혼자 선 15세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망명권의 한계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의 망명권에는 상한이 없다(메르켈, 2015 – 저자는 '용감한 말'이라 함)	그 선언이 아무리 고무적이어도 결국 권리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 메르켈의 2015년과 2018년 발언의 대비가 보여 준다(저자)
이민을 둘러싼 선거	국경을 닫으라는 민족주의자 · 포퓰리스트, 저자가 반이민 · 극우라 부르는 정당과 정부의 잇따른 집권	이민이 그 모든 결과에 역할(어쩌면 결정적) – 이민 희망자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비극이다(저자)
난민 문제의 해법	지금의 협약 체제 – 누가 진짜 난민이고 누가 '잘 코치받은' 이주민인지 가리기 어렵고, 비양심적이며 흔히 치명적인 밀입국 알선 산업도 생겨남(저자가 짚는 문제)	가까운 나라의 안전한 난민 캠프(교육 · 일자리 · 부유국 지원) – 밀입국과 이동 중 죽음이 사라지고, 국경 통제를 지키며 캠프에서 더 받을 것(저자의 제안, would)
연민의 범위	자기 나라에 닿은 사람에게만 쏠리는 연민 – 그들을 돌려보내기는 감정적으로 어렵다(저자도 인정)	난민 캠프에서 기다리는 수백만 명에게도(also) 연민을 가져야 한다 – 그들에게도 희망이 필요하다(저자)
부유국의 수용	많은 부유국이 지금 받아들이는 만큼의 난민	부유국은 난민을 받을 책임이 있고, 많은 나라가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저자)
목표 기온	1.5℃에 필요한 조치는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라며 작은 섬나라들의 호소를 묵살한 코펜하겐의 세계 지도자들(원서는 까닭을 보고함)	많은 과학자는 2℃보다 낮은 상승도 위험하다고 본다 – 0.8℃만으로도 기록적 고온 · 극한 기상 · 그린란드 빙상의 상당한 융해(저자가 근거로 듦)
서약과 위험	지금의 서약 – 다 이행돼도 2030년 550억~600억 톤 · 2℃를 넘을 10%(어쩌면 몇 배)의 가능성을 그대로 안음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10%인 항공사는 위험한 비행을 막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런 위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저자)
에너지와 빈곤	흔히 낭비적인 에너지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부유국의 필요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개발도상국의 값싼 에너지 필요가 더 크다(개발도상국의 주장 – 저자: 옳다) → 부유국은 늦어도 2050년까지 탈탄소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파리 회의의 평가	완전한 실패(앞선 코펜하겐 회의)	완전한 실패는 아니다 – 2℃보다 '훨씬 아래' · 1.5℃ 노력 · 모든 나라가 몫을 한다는 합의 / 다만 서약은 목표에 모자란다(저자)
지도자들의 말	충분히 하고 있다 · '평소대로'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술을 더하면 풀린다(툰베리가 비판한 세계 지도자들)	기후 변화의 비용을 더 떠안을 젊은이들 앞에서 툰베리의 도덕적 분노와 'How dare you?'는 적절했다(저자)
부유국의 배출	대기 중 CO2 대부분에 책임 있는 부유국이 1인당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계속 배출	윤리적 정당화가 있을 수 없다 – 3분의 1의 확률을 강요하는 것은 총알 두 발의 러시안룰렛 · 전환 비용은 그 위험과 비교도 안 된다(저자)
시민 불복종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는 정부들 – 그 실패는 영국의 인도 통치 · 흑인의 평등권 거부 · 베트남 전쟁 못지않게 그르고 피해는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저자)	정부가 과학을 따르게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이다(저자, 조건)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July 2015 · August	**2015년 7월** 유럽연합 국경에 닿은 이주민 **10만 명** 넘음 / **8월**의 한 주 그리스 도착 **21,000명** · 그리스 섬의 휴가가 난민 수용소 한복판이 됐다는 관광객의 불평
Mediterranean	그해 지중해 익사 **2,500명 넘게** · 대부분 **북아프리카 → 이탈리아**로 건너가려던 이주 희망자
Syria · Turkey · Lebanon · Jordan	시리아 내전 난민 = 유럽 어느 나라보다 **튀르키예 · 레바논 · 요르단**에 훨씬 많이 / 아시아 = 미얀마 이슬람 소수 민족 **로힝야족** 박해
UNHCR · end of 2014	유엔 난민 기구 추산 강제로 터전을 떠난 사람 **5,950만 명**(기록상 **최고**) · **180만** 명 망명 결정 대기 · **1,950만** 명 난민 · 나머지 = 자기 나라 안
Angela Merkel 2015	독일 총리 ·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의 망명권에는 **상한이 없다** · 내전의 지옥에서 온 난민에게도 · 'Wir schaffen das'(We can do it)
890,000 · 600,000	**2015년** 등록한 망명 신청자 **89만 명** / 그해 **9월 1일**부터 **18개월** 동안 **60만 건 넘게** 망명 승인
Willy Brandt 1970	바르샤바 게토 봉기 영웅 기념비 앞 즉흥적 무릎 꿇기 · 메르켈의 행동은 그보다도 결정적으로 독일을 인종주의적 과거에서 떼어 놓았다(**저자의 평가**)
Poland · Law and Justice	메르켈의 선언 뒤 **두 달도 안 돼** '법과 정의당'(반이민 – 저자의 서술) 집권 / **이듬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택 · 트럼프 당선
2017 Austria · Germany	오스트리아 조기 총선 → **자유당**(극우 – 저자의 서술)이 든 연정 / 독일 연방 선거 = 기독교민주연합에 **8포인트** 불리 · 연방 하원 의석이 없던 '독일을 위한 대안'(반이민 – 저자의 서술)이 **제3당**
Italy · Hungary	**그다음 해** 이탈리아 총선 → 동맹(League, 극우 – 저자의 서술)의 마테오 살비니가 주도하는 연정 / 헝가리 오르반(권위주의적 반이민 총리 – 저자의 서술) = 큰 차이로 재집권 · 가장 예측할 만한 결과
UN refugee Convention	난민 =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 · **경제 난민**을 받을 의무 없음 · **기후 변화 난민**은 생각 못 함
Merkel 2018	유럽연합 이주 정상 회의 앞 · 이상주의자가 아닌 **정치적 현실주의자** · 이주 = 유럽연합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could) · 국경 통제 강화 ·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을 떠나온 나라로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Ukraine 2022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뒤 첫 **2주 200만 명** 넘게 · **150만 명**은 폴란드로 · 나머지는 헝가리 · 슬로바키아 · 루마니아 · 몰도바 · 일부 러시아 / 폴란드 · 헝가리 정부 = 시리아 난민 수용엔 **저항**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환영**함
Rio 1992 · UNFCCC	'지구 정상 회의' · **189개국**(미국 · 중국 · 인도 · 유럽의 모든 나라) · 유엔 기후 변화 기본 협약 ·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막을 만큼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Copenhagen 2009 · Kyoto	법적 구속력 전략 좌절(부시 시절 미국의 비타협도 한 원인) · 교토 의정서(미국은 서명 안 함)를 대신할 조약 실패 → 코펜하겐 합의 = **자발적** 서약 · **154개국**
2°C · 0.8°C · 1.5°C	산업화 이전보다 **2℃** 상한 / 지금까지 **0.8℃** · 그린란드 빙상 = 해수면 **7m** 상승분의 물 / 작은 섬나라의 **1.5℃** 요구 = 코펜하겐에서 **묵살**
Grantham Research Institute	런던 정치경제대학 · 154개국 서약 분석 · 다 이행돼도 연 **500억 톤** → 2030년 **550억~600억 톤**으로 증가 · 2℃ 50% 가능성이라도 **360억 톤** 필요
National Centre for Climate Restoration	**오스트레일리아** · 지금 당장 배출을 더하지 않아도 2℃를 넘을 가능성 **10%**
2050 · coal · meat	부유국 탈탄소 = 늦어도 **2050년** · 석탄 발전소 폐쇄 · 새 탄광 불허 / 유엔 식량 농업 기구 = 축산업은 **둘째로** 큰 배출원(수송 부문 전체보다 앞) / 세계보건기구 등 = 가공육 · 적색육을 줄이면 암 사망 감소
Paris · Glasgow	**2015년 11월** 파리 · 2℃보다 '훨씬 아래' · 1.5℃ 노력 · **5년** 뒤 회의 → 2020년 예정 · 코로나로 미뤄져 **2021년 11월** 글래스고 · **중국 · 인도**의 요구로 phase out → phase down
Greta Thunberg	스웨덴의 10대 기후 활동가 · **2019년 9월** 유엔 기후 행동 정상 회의 · **4분** 연설 · 'How dare you?' · 처음엔 스웨덴 의회 밖에 **혼자** · 'School Strike for Climate' · 당시 **15세**
6 million · 30 years · 50%	한 주의 기후 파업 · 행진 **약 600만 명**(추산) / 과학은 **30년** 동안 알려짐 / **10년** 안에 배출 절반 → 1.5℃ 아래 **50%**(툰베리의 지적)
IPCC · 350 gigatons · 2028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툰베리가 인용) · 1.5℃를 넘을 위험을 **3분의 1**로 → 2050년까지 CO2 **3,500억 톤** · 지금 속도면 **2028년**에 넘음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매우 좋음' 정부 **없음** · 스웨덴 · 모로코 · 리투아니아가 가장 잘함 · 라트비아 · 영국이 바로 뒤 / 미국 = **하위 5개국**(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한국 · 대만과 함께)
Extinction Rebellion · Gandhi · King	런던의 반란 선언으로 '**지난해**' 시작 · 시민 불복종 · 엄격한 비폭력 / 간디(**남아프리카** → 인도) · 킹(인종 분리 반대) · 베트남 전쟁 / 간디 동상 · 킹의 생일 = 미국 공휴일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The Refugee Dilemma · Paris and the Fate of the Earth · Greta Thunberg (원서 PDF 177~179 · 182~186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8-1 사례와 반발 – 난민 위기의 규모, 메르켈의 약속, 이민에 맞선 선거들 177쪽 ¶1 ~ 178쪽 ¶1

원문 위치 원서 177쪽 ¶1 ~ 178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7쪽 ¶1 첫~둘째 문장	In July 2015, the number of migrants reaching the borders of the European Union passed 100,000. In one week in August, 21,000	숫자 – 내용 일치
▲	177쪽 ¶1 첫 문장	the number of migrants reaching the borders	the number of · 현재분사 후치
★	177쪽 ¶1 다섯째 문장	More than 2,500 would-be migrants drowned … most of them attempting to cross from North Africa to Italy	방향 뒤집기 · 독립분사구문
★	177쪽 ¶2 둘째 문장	brought far more refugees to Turkey, Lebanon, and Jordan than to any country in Europe	내용 일치 1순위
★	177쪽 ¶2 다섯째 문장	59.5 million forcibly displaced people worldwide, the highest level ever recorded	숫자 · 최상급
▲	177쪽 ¶3 첫 문장	with nationalists and populists clamoring for borders to be closed	with + O + -ing · 수동 부정사
◆	177쪽 ¶3 첫 문장	The fundamental right to asylum for the politically persecuted knows no upper limit.	밑줄 의미 · the + 과거분사
★	177쪽 ¶4 둘째 문장	Germany registered 890,000 asylum seekers … accepted more than 600,000 applications	숫자 – 서답형
▲	177쪽 ¶4 셋째 문장	To integrate so many newcomers … was obviously going to be a difficult task	to부정사 주어 · 과거에서 본 미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7쪽 ¶4 셋째 문장	Merkel famously proclaimed, “Wir schaffen das” (We can do it).	밑줄 의미
▲	177쪽 ¶4 넷째 문장	No act by any German leader, not even Willy Brandt’s … has more decisively distanced	부정 주어 + 비교급 · 부사 자리
★	177쪽 ¶5 첫 문장	Less than two months after Merkel championed the unlimited right to asylum, however, Poland’s voters	순서 배열의 첫 고리
▲	178쪽 첫 줄	Alternative for Germany, which had never before won a seat in the Bundestag	계속적 which · 과거완료
◆	178쪽 첫 줄	Finally, and most predictably of all these results, Viktor Orbán	순서 배열의 끝 고리
◆	178쪽 ¶1 첫~둘째 문장	Migration played a role—possibly a decisive role— … That is tragic, not just for would-be immigrants, but for the world.	저자의 진단(possibly)
▲	178쪽 ¶1 셋째 문장	rainfall patterns on which their parents rely to grow food	전치사 + 관계대명사

내용

2015년 7월 유럽연합 국경에 닿은 이주민의 수가 10만 명을 넘었고, 8월의 한 주 동안에만 21,000명이 그리스에 도착했다. 관광객들은 그리스 섬에서 보내려던 여름휴가가 난민 수용소 한복판이 되어 버렸다고 불평했지만, 물론 난민 위기에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따랐다. 그해 2,500명이 넘는 이주 희망자가 지중해에서 익사했고, 대부분은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건너가려던 사람들이었다. 위기는 유럽 밖으로도 번졌다. 시리아 내전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튀르키예 · 레바논 · 요르단에 훨씬 많은 난민을 보냈고, 아프가니스탄 · 소말리아 · 리비아 · 에리트레아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남수단 · 나이지리아 · 콩고 민주 공화국을 떠나는 난민도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미얀마의 이슬람 소수 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가 난민을 더 낳았다. 유엔 난민 기구는 2014년 말 전 세계에서 강제로 터전을 떠난 사람이 5,950만 명으로 기록상 가장 많다고 추산했다. 그 가운데 180만 명은 망명 신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1,950만 명은 난민이었으며, 나머지는 자기 나라 안에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민족주의자와 포퓰리스트들이 국경을 닫으라고 아우성치던 그때,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이 망명할 기본권에는 상한이 없으며, 이것이 내전의 지옥에서 오는 난민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메르켈은 그 용감한 말을 행동으로 옮겼다. 2015년 독일은 망명 신청자 89만 명을 등록했고, 그해 9월 1일부터 18개월 동안 60만 건이 넘는 망명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화적 배경이 아주 다른 그 많은 새 이주민을 통합하는 일은 분명 어려울 터였지만, 메르켈은 '우리는 해낼 수 있다(Wir schaffen das)'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저자는 1970년 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 게토 봉기 영웅 기념비 앞에서 즉흥적으로 무릎 꿇은 일을 포함해, 어떤 독일 지도자의 어떤 행동도 이보다 더 결정적으로 독일을 인종주의적 과거에서 떼어 놓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메르켈이 무제한의 망명권을 옹호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폴란드 유권자들은 저자가 반이민 정당이라 부르는 법과 정의당에 권력을 주었다(아래 정당 앞의 '반이민' · '극우'도 모두 저자의 표현). 이듬해 영국 유권자들은 유럽연합 탈퇴를 택했고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2017년 오스트리아의 조기 총선은 극우 자유당이 든 연립 정부로 이어졌고, 독일 연방 선거에서는 메르켈의 기독교민주연합에 8포인트 불리한 변동이 일어났다. 연방 하원에서 한 석도 얻은 적이 없던 반이민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제3당이 되었다. 그다음 해 이탈리아 총선으로 극우 동맹(League)

의 마테오 살비니가 주도하는 연립 정부가 들어섰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과 가운데 가장 예측할 만했던 일로, 저자가 권위주의적 반이민 총리라고 부르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 큰 차이로 다시 집권했다. 저자는 이민이 이 모든 결과에 어떤 역할을, 어쩌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것이 이민 희망자에게만이 아니라 세계에 비극이라고 말한다. 트럼프의 가혹한 이민 정책(저자의 표현)으로 멕시코 국경에서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움직인다. 그러나 트럼프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오바마의 온건한 제한을 뒤집었고, 기후 변화가 부모들이 가족의 먹을거리를 기르는 데 기대는 강우 양상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 아이들의 울음은 아직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

어법

- **In July 2015, the number of migrants reaching the borders of the European Union passed 100,000** : the number of + 복수명사 = ~의 수(주어의 중심은 number — 과거형 passed라 수가 형태로는 드러나지 않음). a number of(많은)와 구별. reaching = migrants를 꾸미는 현재분사 후치.
- **More than 2,500 would-be migrants drowned in the Mediterranean that year, most of them attempting to cross from North Africa to Italy** : most of them attempting ~ = 의미상 주어(most of them)가 따로 있는 독립분사구문(그들 대부분은 ~하려던 중이었다). would-be = ~이 되려는(이주 희망자).
- **The civil war in Syria brought far more refugees to Turkey, Lebanon, and Jordan than to any country in Europe** : far + 비교급 = 훨씬 더. 비교 대상을 맞추려고 than 뒤에도 전치사 to를 되풀이(to Turkey … than to any country). any + 단수 명사 = 어느 나라보다도.
- **with nationalists and populists clamoring for borders to be closed,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said** : with + O + -ing = O가 ~하는 가운데(부대 상황). clamor for + O + to V = O가 ~하라고 아우성치다. to be closed = 수동 부정사(국경이 닫히도록).
- **The fundamental right to asylum for the politically persecuted knows no upper limit** : the + 과거분사 = ~한 사람들(the politically persecuted =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들). know no ~ = ~이 없다(know no limit = 한계를 모른다).
- **To integrate so many newcomers from very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was obviously going to be a difficult task** : to부정사 주어(To integrate …) → 단수 동사 was. was going to = 과거 시점에서 본 앞날(~하게 될 일이었다). so many + 복수명사.
- **No act by any German leader, not even Willy Brandt's spontaneous decision in 1970 to kneel before a memorial …, has more decisively distanced Germany from its racist past** : 부정 주어 No act + 비교급 = 어떤 행동도 이보다 더 ~하지 못했다(최상급의 뜻). not even ~ = 삽입(~조차도). 단수 주어 → has. decision to V. distance A from B = A를 B에서 떼어 놓다. more decisively = 동사를 꾸미는 부사의 비교급.
- **The anti-immigrant Alternative for Germany, which had never before won a seat in the Bundestag, became the country's third-largest party** : 계속적 which(선행사 = 정당). had won = 과거완료(그 선거 전까지 한 번도). the + 서수 + 최상급(third-largest = 셋째로 큰).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igrant	이주민	immigrant	—
would-be	~이 되려는	aspiring	—
implication	(뒤따르는) 결과, 영향	consequence	—
persecution	박해	oppression	protection
forcibly	강제로	by force	voluntarily
displaced	터전을 잃은	uprooted	settled
asylum	망명, 피난처	refuge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lamor (for)	아우성치며 요구하다	demand	—
register	등록하다	record	—
integrate	통합하다, 받아들여 어울리게 하다	incorporate	exclude
proclaim	선언하다	declare	—
spontaneous	즉흥적인	impulsive	planned
snap election	조기 총선	early election	—
authoritarian	권위주의적인	dictatorial	democratic

내용 일치 2015년 7월 10만 명 '넘음' · 8월 한 주 그리스 21,000명 · 관광객의 불평 · 2,500명 넘게 익사(대부분 북아프리카 → 이탈리아) · 시리아 난민 = 유럽보다 튀르키예 · 레바논 · 요르단에 '훨씬 많이' · 로힝야족 · 2014년 말 5,950만 명(유엔 난민기구 '추산' · 기록상 최고) · 180만 대기 · 1,950만 난민 · 메르켈 = 망명권에 상한 없음 · 89만 등록 · 18개월간 60만 건 넘게 승인 · 'Wir schaffen das' · 브란트의 1970년 무릎 꿇기보다 결정적(저자의 평가) · 두 달도 안 돼 폴란드 · 이듬해 영국 · 트럼프 · 2017 오스트리아 · 독일(8포인트 · 제3당) · 그다음 해 이탈리아 · 오르반 · 이민의 역할(어쩌면 결정적) · 비극(저자). **밑줄 의미** knows no upper limit = 받아들일 난민 수에 미리 정한 한도가 없다는 원칙 / Wir schaffen das = 통합이 어렵더라도 독일은 해낼 수 있다는 메르켈의 다짐 / most predictably of all these results = 오르반의 재집권은 그중 가장 놀랍지 않은 결과 / we cannot yet hear the cries = 기후 변화의 피해자는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저자의 지적 / 177쪽 ¶3 She added · this applies = 메르켈 · 망명권 / 178쪽 ¶1 their parents = 굶주릴 아이들의 부모.

> **한 줄 요약** 2015년의 난민 위기 속에서 메르켈은 망명권에 상한이 없다고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겼지만, 그 뒤 유럽과 미국의 선거에서 저자가 반이민 세력이라 부르는 쪽이 잇따라 힘을 얻었고, 저자는 이민이 그 결과에 어쩌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이를 세계의 비극으로 본다.

8-2 협약의 한계와 딜레마, 저자의 제안 — 권리에는 한계를, 캠프에는 희망을 178쪽 ¶2 ~ 179쪽 ¶2

원문 위치 원서 178쪽 ¶2 ~ 179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8쪽 ¶2 첫 문장	Neither those children nor their parents will be able to claim asylum in the countries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	통합 사고 · Neither A nor B
▲	178쪽 ¶2 둘째 문장	defines refugees as those unable or unwilling to return to their country	define A as B · those + 형용사구
★	178쪽 ¶2 둘째 문장	on the ground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다섯 근거 — 내용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8쪽 ¶2 셋째 문장	There is no requirement to take economic refugees … did not think about climate change refugees	무관한 문장 재료
▲	178쪽 ¶3 둘째 문장	Either they go far enough toward stricter border control to undercut … or they risk losing not only that battle, but	enough to · risk -ing · not only A but
◆	178쪽 ¶4 둘째 문장	it was not Merkel the idealist, but Merkel the political realist who told the German parliament	밑줄 의미 1순위 · 강조 구문
▲	178쪽 ¶4 둘째 문장	but that of migration could become one that determines the fate of the European Union	that of · one
★	178쪽 ¶4 셋째 문장	strengthen Europe's border controls and return people rescued at sea to the countries from which they had come	2018년의 합의 — 내용 일치
◆	178쪽 ¶4 넷째 문장	inspirational as the proclamation of an unlimited right to asylum may be, in the last resort, rights must have a limit	저자의 결론 · 양보 구문
◆	178쪽 ¶5 첫 문장	Refugees from within Europe seems to be a different matter.	저자의 단서(seems)
★	178쪽 ¶5 둘째 문장	more than 2 million refugees fled the country, with 1.5 million crossing the border to Poland	숫자 — 서답형
★	178쪽 ¶5 셋째 문장	had strongly resisted pressure from the European Union to take more Syrian refugees, but welcomed the Ukrainians	삽입 문항 · 대조
★	179쪽 첫 줄	Affluent countries have a responsibility to take refugees, and many of them can and should accept more than they do.	통합 사고 빈칸
▲	179쪽 첫 줄	it has become difficult for tribunals and courts to determine who is a genuine refugee … and who is a well-coached migrant	가주어 · for + 의미상 주어 · 간접의문문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9쪽 ¶1 둘째 문장	If those who claim asylum in a nearby country were sent to a refugee camp ... would be eliminated	가정법 과거(제안) — 제목
◆	179쪽 ¶2 둘째~셋째 문장	we should also have compassion for the millions ... They too need to be given hope.	저자의 결론 · 밑줄 의미

내용

그 아이들도 부모들도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으리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려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경제 난민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협약을 쓴 사람들은 기후 변화 난민을 생각하지 못했다. 망명 신청자와 다른 이민 희망자를 인도적으로 대하고 싶은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끔찍한 도덕적 딜레마에 놓인다. 국경 통제를 충분히 강화해 극우 정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꺾든지, 아니면 그 싸움뿐 아니라 반이민 정부가 위협하는 다른 모든 가치까지 잃을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메르켈 자신도 이 딜레마를 알았다. 2018년 이주 문제를 다룰 유럽연합 정상 회의를 앞두고, 유럽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주의 도전은 유럽연합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독일 의회에서 말한 것은 이상주의자 메르켈이 아니라 정치적 현실주의자 메르켈이었다. 그 뒤 그녀는 다른 유럽 지도자들과 함께 유럽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그들이 떠나온 나라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 저자는 메르켈의 2015년 발언과 2018년 발언의 대비가, 무제한의 망명권 선언이 아무리 고무적이라 해도 결국에는 권리에 한계가 있어야 하는 까닭을 보여 준다고 말한다. 유럽 안에서 나온 난민은 사정이 다른 듯하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처음 2주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그 나라를 떠났다. 150만 명은 국경을 건너 폴란드로 갔고, 다른 이들은 헝가리 · 슬로바키아 · 루마니아 · 몰도바로, 일부는 러시아로도 갔다.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는 시리아 난민을 더 받으라는 유럽연합의 압력에 강하게 저항해 왔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환영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든 우크라이나 난민처럼 이웃 나라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난민에게 이 딜레마의 실제적인 해법이 있을까? 저자는 부유한 나라에 난민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고, 그 가운데 많은 나라가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망명을 청하는 사람이 늘면서, 재판소와 법원은 누가 유엔 협약이 정의한 진짜 난민이고 누가 더 부유한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찾는 '잘 코치받은' 이주민인지 가리기 어려워졌다. 협약은 또 비양심적이고 흔히 치명적인 밀입국 알선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낳았다. 저자의 제안은 이렇다. 가까운 나라에 망명을 청한 사람을 박해에서 안전하고, 교육과 의미 있는 일자리의 기회가 있으며, 부유한 나라의 원조로 재정이 뒷받침되는 난민 캠프로 보낸다면 밀입국 알선과 그로 인한 이동 중의 죽음은 사라질 것이다. 경제적 이주민이 망명을 청할 동기는 줄 것이고, 부유한 나라는 국경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캠프에서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나라에 가까스로 닿은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은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라 해도 감정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저자는 난민 캠프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백만 명에게도 연민을 가져야 하며, 그들에게도 희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어법

- **Neither those children nor their parents will be able to claim asylum in the countries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 : Neither A nor B = A도 B도 아니다(동사는 B에 맞추는 것이 원칙 — 여기서는 조동사 will이라 형태로 드러나지 않음). responsible for ~ = countries를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구(= countr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 **The UN Convention ... defines refugees as those unable or unwilling to return to their country because of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 define A as B = A를 B로 정의하다. those unable or unwilling to V = those

who are unable or unwilling to V(관계대명사 + be 생략, 형용사구 후치). because of + 명사구. well-founded = 근거가 충분한(복합 형용사).

- **Either they go far enough toward stricter border control to undercut public support for far-right parties, or they risk losing not only that battle, but all the other values threatened by anti-immigration governments as well** : Either A or B = A하든지 B하든지. far enough ... to V = ~할 만큼 충분히. risk + -ing = ~할 위험을 무릅쓰다. not only A but (also) B ... as well. threatened by = 과거분사 후치.
- **it was not Merkel the idealist, but Merkel the political realist who told the German parliament that Europe faces many challenges** : It was not A but B who ~ = ~한 것은 A가 아니라 B였다(강조 구문, 사람이라 who). Merkel the idealist = 이름 + 동격 명사(이상주의자로서의 메르켈). faces = 발언 내용을 지금의 사실로 전달한 현재형.
- **"but that of migration could become one that determines the fate of the European Union"** : that = the challenge(앞의 challenges를 받아 반복을 피하는 대명사, that of migration = 이주의 도전). one = a challenge. that determines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one, 단수 → determines).
- **inspirational as the proclamation of an unlimited right to asylum may be, in the last resort, rights must have a limit** : 형용사 + as + 주어 + 동사 = ~이 아무리 …하더라도(양보, = though the proclamation may be inspirational). in the last resort = 결국, 최후에는. must = 당위.
- **it has become difficult for tribunals and courts to determine who is a genuine refugee, as defined by the UN Convention, and who is a well-coached migrant** : 가주어 it + 진주어 to determine, for ~ = 의미상 주어. determine의 목적어 = 간접의문문 두 개(who is ... and who is ...). as defined by = 접속사 as + 과거분사(협약이 정의한 대로).
- **If those who claim asylum in a nearby country were sent to a refugee camp, ..., people smuggling and the resulting deaths in transit would be eliminated** : 가정법 과거(If + were p.p., 주절 would be p.p.) =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일을 제안하며 가정. those who = ~하는 사람들. resulting = 그 결과로 생기는(현재분사 전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well-founded	근거가 충분한	justified	groundless
humanely	인도적으로	compassionately	cruelly
aspiring	~이 되기를 바라는	would-be	—
undercut	약화시키다	weaken	strengthen
idealist	이상주의자	visionary	realist
inspirational	고무적인	inspiring	discouraging
resist	저항하다	oppose	accept
affluent	부유한	wealthy	poor
tribunal	재판소	court	—
genuine	진짜의	real	fake
unscrupulous	비양심적인	unprincipled	principled
lethal	치명적인	deadly	harmless
incentive	동기, 유인	motive	deterrent
compassion	연민	sympathy	indifference

내용 일치 기후 변화로 굶주릴 아이와 부모 = 기후 변화에 책임 있는 나라에 망명 신청 못 함 · 협약의 다섯 근거(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 집단 · 정치적 의견) · 경제 난민 의무 없음 · 기후 난민은 생각 못 함 · 딜레마 = 국경 통제 강화 vs 그 싸움과 다른 가치까지 잃을 위험 · 2018년 = 정치적 현실주의자 메르켈 · 이주가 유럽연합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could) · 국경 통제 강화 · 구조된 사람 돌려보내기 · 권리에는 한계(저자) · 유럽 안의 난민은 다른 '듯'(seems) · 2022년 2월 · 2주 · 200만 넘게 · 150만 폴란드 · 폴란드 · 헝가리 정부 = 시리아 난민에 저항 · 우크라이나 난민 환영 · 부유국의 책임(저자) · 진짜 난민 가리기 어려움 · 밀입국 알선 산업 · 안전한 캠프 제안(would) · 국경 통제 유지 · 캠프의 수백만 명에게도 희망. **밑줄 의미** not Merkel the idealist, but Merkel the political realist = 원칙보다 정치적 결과를 따지는 지도자로 말했다는 것 / in the last resort, rights must have a limit = 아무리 고무적인 권리라도 끝내 한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결론 / a well-coached migrant = 난민 심사에서 할 말을 미리 코치받은 경제적 이주민 / They too need to be given hope = 국경에 닿은 사람만이 아니라 캠프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 178쪽 ¶3 they go = 인도적으로 대하려는 정치 지도자 / 179쪽 첫 줄 many of them · they do = 부유국.

> **한 줄 요약** 난민 협약은 경제 난민과 기후 난민을 담지 못하고 인도적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놓이며, 저자는 메르켈의 변화에서 권리에도 한계가 있어야 함을 읽고, 가까운 나라의 안전한 캠프와 부유국의 더 많은 수용을 제안한다.

8-3 걸린 것과 실패의 역사 — 리우의 약속, 코펜하겐의 서약, 첫째 모호함 182쪽 ¶1 ~ 183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82쪽 ¶1 ~ 183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2쪽 ¶1 첫 문장	The lives of billions of people, for centuries to come, were at stake … in Paris in November 2015	연도 · 장소
◆	182쪽 ¶1 둘째 문장	The fate of an unknown number of endangered species … also hung in the balance.	밑줄 의미
★	182쪽 ¶2 첫 문장	At the “Earth Summit” in Rio de Janeiro in 1992, 189 countries	도시 · 숫자 — 서답형
▲	182쪽 ¶2 첫 문장	at a low enough level to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enough to — 어법 9번
◆	182쪽 ¶3 첫 문장	no such stabilization has taken place, and without it, climate feedback loops could boost	지칭 it = 안정화
▲	182쪽 ¶3 둘째 문장	With less Arctic ice to reflect sunlight, the oceans will absorb more warmth.	with + 명사 + to V
●	182쪽 ¶3 셋째 문장	Thawing Siberian permafrost will release vast quantities of methane.	어휘 반전: thaw ↔ freez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2쪽 ¶4 첫 문장	legally binding agreements … for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that have produced most of the greenhouse gases	통합 사고 · 관계절
▲	182쪽 ¶4 둘째 문장	failed to produce a treaty to replace the expiring Kyoto Protocol (which the United States never signed)	형용사적 to부정사 — 어법 9번
●	182쪽 ¶4 셋째 문장	merely asked countries for voluntary pledges	어휘 반전: voluntary ↔ binding
★	182쪽 ¶5 첫 문장	Those pledges came in from 154 countries … fell far short of what is required	숫자 — 서답형 · 빈칸
◆	182쪽 ¶6 첫 문장	The wording was vague in two key respects.	전환 — 두 모호함
★	182쪽 ¶7 첫 문장	cap the increase in average surface temperature at 2° Celsius above the pre-industrial level	숫자 — 내용 일치
★	183쪽 첫 줄	even with a rise of only 0.8°C so far … enough water to cause a seven-meter rise in sea levels	숫자 — 내용 일치
◆	183쪽 첫 줄	for a target of 1.5°C went unheeded, essentially because world leaders thought … politically unrealistic	밑줄 의미 · 지도자들의 판단

내용

2015년 11월 세계 지도자들과 각국 정부의 협상가들이 파리의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만났을 때, 앞으로 여러 세기에 걸친 수십억 명의 삶이 걸려 있었다. 수를 알 수 없는 멸종 위기 동식물 종의 운명도 위태로웠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의 '지구 정상 회의'에서 미국 · 중국 · 인도와 유럽의 모든 나라를 포함한 189개국은 유엔 기후 변화 기본 협약에 서명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기후 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막을 만큼 낮은 수준에서 안정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안정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것이 없으면 기후의 되먹임 고리가 기온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 햇빛을 반사할 북극 얼음이 줄면 바다는 더 많은 열을 흡수할 것이고, 녹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은 막대한 양의 메탄을 내놓을 것이다. 그 결과 지금 수십억 명이 사는 지구의 넓은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다. 협약 서명국의 앞선 회의들은 적어도 지금 대기 중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만들어 낸 산업화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배출 감축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루려 했다. 그 전략은 흔들렸고(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의 비타협도 한 원인이었다), 2009년 코펜하겐 회의가 만료를 앞둔 교토 의정서(미국은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를 대신할 조약을 내놓지 못하자 폐기되었다. 그 대신 코펜하겐 합의는 각국에 배출을 정해진 양만큼 줄이겠다는 자발적 서약을 요청했을 뿐이다. 주요 배출국을 포함한 154개국이 서약을 냈지만, 그것은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서약으로 이룰 것과 필요한 것 사이의 격차를 헤아리려면 모두가 리우에서 받아들인 문구로 돌아가야 한다. 그 문구는 두 가지 핵심에서 모호했다. 첫째, 무엇이 '기후 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간섭'인가? 둘째, '막는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안전을 전제하는가? 첫째 모호함은 평균 지표 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로 묶는 배출 수준을 목표로 삼는다는 결정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는 그보다 낮은 상승도 위험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0.8℃밖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지구는 기록적인 고온, 더 잦은

극한 기상, 해수면을 7m 높일 만큼의 물을 품은 그린란드 빙상의 상당한 융해를 겪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라고 저자는 말한다. 코펜하겐에서 1.5℃를 목표로 하자는 작은 섬나라 대표들(해수면이 계속 오르면 그 가운데 몇몇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의 호소는 묵살되었다. 무엇보다 세계 지도자들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조치가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어법

- **The lives of billions of people, for centuries to come, were at stake when world leaders and government negotiators met** : 주어 The lives(복수) → were. for centuries to come = 앞으로 여러 세기 동안(to come = 다가올). be at stake = 걸려 있다, 위태롭다.
- **agreed to stabilize greenhouse gas emissions "at a low enough level to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 agree to V. a low enough level to V = ~할 만큼 충분히 낮은 수준(enough는 형용사 뒤, to V가 정도를 나타냄). interference with = ~에 대한 간섭.
- **So far, however, no such stabilization has taken place, and without it, climate feedback loops could boost rising temperatures further still** : so far + 현재완료(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음). it = such stabilization. could = 가능성. further still = 한층 더(still이 비교급을 강조).
- **With less Arctic ice to reflect sunlight, the oceans will absorb more warmth** : with + 명사 + to V = ~할 …이 (줄어든) 상태에서. to reflect = ice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less + 불가산 명사(ice).
-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that have produced most of the greenhouse gases now in the atmosphere**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countries → have produced). now in the atmosphere = gases를 꾸미는 부사 + 전치사구 후치(지금 대기에 있는).
- **was abandoned when the 2009 Copenhagen conference failed to produce a treaty to replace the expiring Kyoto Protocol (which the United States never signed)** : was abandoned = 수동. fail to V = ~하지 못하다. to replace = a treaty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대신할 조약). expiring = 만료되어 가는(현재분사 전치). which = 목적격 관계대명사(signed의 목적어).
- **To fathom the gap between what the pledges would achieve and what is required, we need to go back to the language that everyone accepted in Rio** : To fathom = 목적의 to부정사(~을 헤아리려면). between A and B에 관계대명사 what절 두 개. that everyone accepted = 목적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language).
- **the pleas of representatives of small island states … for a target of 1.5°C went unheeded, essentially because world leaders thought the measures required to meet such a target were politically unrealistic** : go + 형용사(과거분사) = ~한 상태가 되다(went unheeded = 묵살되었다). 주어 the pleas(복수)와 동사 went 사이가 멀다. required to meet = measures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 thought (that) 생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t stake	걸려 있는, 위태로운	at risk	safe
hang in the balance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be uncertain	—
endangered	멸종 위기의	threatened	—
stabilize	안정시키다	steady	destabilize
anthropogenic	인간이 일으킨, 인위적인	man-made	natural
feedback loop	되먹임 고리	—	—
thaw	녹다	melt	freeze
uninhabitable	사람이 살 수 없는	unlivable	habitabl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gally binding	법적 구속력이 있는	enforceable	voluntary
falter	흔들리다, 주춤하다	waver	—
intransigence	비타협, 고집	stubbornness	flexibility
pledge	서약	promise	—
vague	모호한	unclear	precise
unheeded	무시된, 묵살된	ignored	heeded

내용 일치 2015년 11월 파리 · 수십억 명의 삶 · 멸종 위기종 · 1992 리우 · 189개국(미국 · 중국 · 인도 · 유럽 모든 나라) · 유엔 기후 변화 기본 협약 ·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 안정화 '없음' · 되먹임 고리(북극 얼음 · 영구 동토층 메탄) · 살 수 없게 될 '수도'(could) · 법적 구속력 전략 = 산업화된 나라 대상 · 부시 시절 미국의 비타협도 한 원인(partly) · 2009 코펜하겐 실패 · 교토 의정서(미국 서명 안 함) · 자발적 서약 · 154개국 · 크게 모자람 · 두 가지 모호함 · 2℃ 상한 · 많은 과학자 = 더 낮아도 위험 · 0.8℃ · 그린란드 = 7m · 1.5℃ 호소 묵살(지도자들이 비현실적이라 여겨). **밑줄 의미** hung in the balance = 멸종 위기종의 운명이 이 회의 결과에 달려 위태로웠다 / fell far short of what is required = 서약이 필요한 감축량에 크게 못 미쳤다 / went unheeded = 사라질 위기의 섬나라들이 낸 1.5℃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 politically unrealistic = 과학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본 판단 / 182쪽 ¶3 without it = 안정화 · ¶5 they fell = 서약 · 183쪽 첫 줄 some of which = 작은 섬나라.

> **한 줄 요약** 리우에서 189개국이 배출을 안정시키기로 했지만 안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코펜하겐 이후의 자발적 서약은 크게 모자랐으며, 2℃ 상한으로 첫째 모호함은 풀렸지만 많은 과학자는 그보다 낮은 상승도 위험하다고 본다.

8-4 둘째 모호함과 저자의 답 — 10%의 위험은 받아들일 수 없다 183쪽 ¶1 ~ 184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83쪽 ¶1 ~ 184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3쪽 ¶1 첫 문장	The second ambiguity remains.	전환 — 둘째 모호함
★	183쪽 ¶1 둘째 문장	even if they are all implemented, global carbon emissions will rise from … 50 billion tons … to 55–60 billion tons by 2030	숫자 — 내용 불일치
★	183쪽 ¶1 셋째 문장	to have even a 50% chance of keeping to the 2°C limit, annual carbon emissions need to come down to 36 billion tons	숫자 — 내용 일치
▲	183쪽 ¶2 첫 문장	A report from Australia's National Centre for Climate Restoration is no less alarming.	no less + 형용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3쪽 ¶2 둘째 문장	a 10% chance of exceeding 2°C, even if we stopped adding further emissions right now (which is not going to happen)	숫자 · 가정
▲	183쪽 ¶3 첫 문장	Imagine if an airline slashed its maintenance procedures to a level at which there was a 10% chance	Imagine if + 과거 · at which
▲	183쪽 ¶3 둘째 문장	could not claim that it had prevented dangerous planes from flying … even if its flights were much cheaper than anyone else's	prevent A from -ing · 가정법 과거
★	183쪽 ¶3 셋째 문장	we ought not to accept a 10% chance—if not many times higher—of exceeding 2°C	요지 · 저자의 결론
◆	183쪽 ¶4 둘째 문장	Developing countries will argue that their need for cheap energy … is greater than rich countries' need … —and they will be right	지칭 6번 · 저자의 동의
★	183쪽 ¶4 셋째 문장	rich countries should aim at decarbonizing their economies as soon as possible, and by 2050 at the latest	숫자 · 저자의 대안
▲	183쪽 ¶4 넷째 문장	They could start by closing down the dirtiest form of energy production, coal-fired power stations, and refuse licenses	start by -ing · 병렬
★	183쪽 ¶5 둘째 문장	the livestock industry is the second largest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head of the entire transport sector	순위 — 내용 일치
★	183쪽 ¶6 둘째 문장	In contrast to the earlier Copenhagen meeting, it was not a complete failure.	요약문 (A)
★	184쪽 첫 줄	there was a consensus that all countries, developed and developing, should play their part	요약문 · 동격 that
★	184쪽 첫 줄	postponed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 held in Glasgow in November 2021 … "phase out" were replaced by "phase down,"	연도 · 도시 · 낱말
★	184쪽 첫 줄	global temperatures will rise by more than 1.5°C, and quite possibly by more than 2°C	요약문 (B) · 단서(quite possibly)

내용

둘째 모호함은 남아 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그랜섬 연구소는 154개국이 낸 서약을 모두 분석해, 그것이 다 이행되더라도 전 세계 탄소 배출이 지금의 연 500억 톤에서 2030년 550억~600억 톤으로 늘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2℃ 한도를 지킬 50%의 가능성이라도 가지려면 연간 탄소 배출이 360억 톤으로 내려와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기후 복원 센터의 보고서도 그 못지않게 걱정스럽다. 오늘 대기에 쌓인 배출만으로도, 지금 당장 배출을 더하지 않는다 해도(그럴 리는 없다) 2℃를 넘을 가능성이 10%라는 것이다. 어느 항공사가 정비 절차를 줄이고 줄여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10%인 수준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자. 그 회사는 위험한 비행기가 날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고, 요금이 다른 어느 회사보다 훨씬 싸더라도 손님을 거의 얻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위험한 인위적 간섭이 낳을 수 있는 재앙의 규모를 생각하면 2℃를 넘을 10%의 가능성 — 몇 배 더 높지 않다면 — 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개발도상국들은 국민을 가난에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값싼 에너지가 흔히 낭비적인 에너지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부유국의 필요보다 더 절실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저자는 그들이 옳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부유한 나라는 되도록 빨리, 늦어도 2050년까지 경제를 탈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가장 더러운 에너지 생산 방식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닫는 일부터 시작하고, 새 탄광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빠른 성과는 사람들에게 식물성 식품을 더 먹도록 권하는 데서, 이를테면 육류에 세금을 매기고 그 세입으로 더 지속 가능한 대안을 지원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축산업은 수송 부문 전체보다도 앞선, 둘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이는 배출을 줄일 여지가 크고, 그것도 모든 화석 연료 사용을 멈추는 것보다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보건기구와 다른 보건 당국들은 가공육과 적색육을 덜 먹으면 암 사망이 줄어드는 이점도 더해진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게 많은 것이 걸린 파리 회의는 어땠는가? 앞선 코펜하겐 회의와 달리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다. 기후 변화의 위험이 가장 큰 몇몇 나라의 요구로, 합의문은 서명국들이 기온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묶고 나아가 1.5℃로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게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제 몫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사국들의 서약은 그 목표를 이루기에 부족하다. 파리에서 당사국들은 5년 뒤의 다음 회의 전에 서약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 회의는 2020년에 열려야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뤄져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렸다. 석탄 사용을 줄이자는 합의는 중국과 인도의 요구로 'phase out(단계적 폐지)'이 'phase down(단계적 감축)'으로 바뀐 뒤에야 이루어졌고, 실제로 얼마나 줄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일부 나라만 서약을 강화했고, 2021년 말의 서약이 모두 완전히 이행되더라도 지구 기온은 1.5℃보다 더, 어쩌면 2℃보다 더 오를 것이다.

어법

- **concluded that even if they are all implemented, global carbon emissions will rise from their current level of 50 billion tons per year to 55–60 billion tons by 2030** : even if + 현재(조건, 직설법) = ~하더라도. they = the submissions(서약). all = they와 동격(모두). rise from A to B. by 2030 = 2030년까지.
- **The level of emissions in the atmosphere today already means that we have a 10% chance of exceeding 2°C, even if we stopped adding further emissions right now (which is not going to happen)** : 주어 The level(단수) → means. even if + 과거(stopped) = 사실과 다른 가정. stop + -ing = ~하기를 멈추다. which = 앞 절 내용을 받는 계속적 관계대명사(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 **Imagine if an airline slashed its maintenance procedures to a level at which there was a 10% chance that its planes would not safely complete their flights** : Imagine if + 과거 = ~한다고 상상해 보라(가정). at which = there was a chance at the level(전치사 + 관계대명사). a chance that ~ = 동격 that절(~할 가능성).
- **The company could not claim that it had prevented dangerous planes from flying, and it would find few customers, even if its flights were much cheaper than anyone else's** : prevent A from -ing = A가 ~하지 못하게 막다. had prevented = 주장 시점보다 앞선 일(과거완료). few = 거의 없는. anyone else's = anyone else's flights(명사 생략). much + 비교급.

- **we ought not to accept a 10% chance—if not many times higher—of exceeding 2°C** : ought not to + 원형 = ~해서는 안 된다(not의 위치는 to 앞). if not ~ =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면(10%, 어쩌면 그 몇 배). a chance … of -ing — 사이에 대시 삽입.
- **Developing countries will argue that their need for cheap energy to lift their people out of poverty is greater than rich countries' need to maintain their often wasteful levels of energy consumption—and they will be right** : that절 주어 their need(단수) → is. to lift · to maintain = need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첫째 · 둘째 their(their need · their people)와 they = 개발도상국, 셋째 their(their often wasteful levels) = 부유국. will be right = 그 주장이 옳을 것(저자의 판단).
- **They could start by closing down the dirtiest form of energy production, coal-fired power stations, and refuse licenses to develop new coal mines** : start by -ing = ~하는 것으로 시작하다. coal-fired power stations = 앞 명사구와 동격. refuse는 closing이 아니라 could 뒤의 start와 병렬인 원형(could refuse).
- **that agreement was reached only after, at the insistence of China and India, the words "phase out" were replaced by "phase down," and it remains to be seen how much of a reduction will take place** : only after + 절 = ~한 뒤에야. at the insistence of = ~의 요구로(삽입). be replaced by = 수동. it remains to be seen + 간접의문문 = ~는 두고 보아야 한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mbiguity	모호함	vagueness	clarity
implement	이행하다	carry out	—
alarming	걱정스러운	worrying	reassuring
slash	대폭 줄이다	cut	increase
maintenance	정비	upkeep	neglect
catastrophe	재앙	disaster	—
decarbonize	탈탄소화하다	—	—
revenue	세입, 수입	income	expenditure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viable in the long term	unsustainable
livestock	가축	farm animals	—
scope	여지, 범위	room	—
consensus	합의	agreement	disagreement
insufficient	불충분한	inadequate	sufficient
postpone	미루다	delay	advance

내용 일치 둘째 모호함은 남음 · 그랜섬 연구소(런던 정치경제대학) · 154개국 서약 다 이행돼도 500억 → 2030년 550억~600억 톤으로 '증가' · 2℃ 50% 가능성이라도 360억 톤 · 오스트레일리아 보고서 = 지금 멈춰도 10%(멈출 리 없음) · 항공사 비유 → 10%(어쩌면 몇 배)를 받아들여선 안 됨(저자) · 개발도상국의 주장 = 옳다(저자) · 부유국 = 늦어도 2050년 탈탄소 · 석탄 발전소 · 새 탄광 · 육류세는 '이를테면'(perhaps) · 축산업 = 둘째(수송 부문보다 앞) · 암 사망 감소 · 파리 = 완전한 실패는 아님 · '훨씬 아래' 2℃ · 1.5℃ 노력 · 모든 나라의 몫 · 서약 부족 · 5년 뒤 → 2020 예정 · 코로나로 미뤄져 2021년 11월 글래스고 · 중국 · 인도의 요구로 phase down · 1.5℃ 넘고 2℃도 넘을 '수도'(quite possibly). **밑줄 의미** if not many times higher = 10%는 낮게 잡은 값이고 실제 위험은 그 몇 배일 수도 있다 / could not claim that it had prevented dangerous planes from flying = 위험을 10%나 남겨 두고 '막았다'고 할 수 없다 — 리우의 'prevent'에 대한 저자의 답 / not a

complete failure = 코펜하겐보다는 나았다는 제한된 평가 / it remains to be seen = 석탄 합의의 실제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 183쪽 ¶3 its planes = 항공사 · ¶4 they will be right = 개발도상국 · They could start = 부유국.

한 줄 요약 서약이 다 이행돼도 배출은 늘고, 오늘 멈춰도 2℃를 넘을 가능성이 10%이므로 저자는 항공사 비유로 그런 위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며, 부유국의 빠른 탈탄소를 대안으로 내놓고, 파리 회의는 완전한 실패는 아니지만 서약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8-5 사례와 근거, 저자의 판단 — 툰베리의 분노와 총알 두 발의 러시안룰렛 185쪽 ¶1 ~ 186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85쪽 ¶1 ~ 186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5쪽 ¶1 첫~둘째 문장	This is all wrong!" These words begin the most powerful four-minute speech I have ever heard.	저자의 평가 · 최상급 + 현재완료
★	185쪽 ¶1 셋째 문장	at the United Nations Climate Action Summit in September 2019 … attended by an estimated six million people	연도 · 숫자 — 서답형
★	185쪽 ¶2 첫 문장	predominantly the young people who will have to cope with more of the costs of climate change than the world leaders	툰베리의 분노가 적절한 까닭
▲	185쪽 ¶2 둘째 문장	Her tone of moral outrage was therefore apt, as was the leitmotif of her speech: "How dare you?"	as + V + S 도치 · 어휘 11번
▲	185쪽 ¶2 셋째 문장	She accused the world's leaders of stealing the dreams of the young with empty words.	accuse A of -ing · the + 형용사
◆	185쪽 ¶2 다섯째 문장	"business as usual," coupled with yet-to-be-discovered technological solutions, will solve the problem	밑줄 의미 · 지도자들의 말
▲	185쪽 ¶3 첫 문장	Thunberg justified her outrage by pointing out that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has been known for 30 years.	by -ing · 현재완료 수동
●	185쪽 ¶3 둘째 문장	the opportunities for a timely transition to a net-zero greenhouse gas economy slipped by	어휘 반전: slip by ↔ arriv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5쪽 ¶3 셋째 문장	halving emissions over the next ten years would, Thunberg pointed out, give us only a 50% chance of keeping global warming below 1.5°	툰베리의 지적 — 숫자
★	185쪽 ¶4 둘째~셋째 문장	to reduce the risk of exceeding 1.5°C to one in three … 350 gigatons. At the current rate, we will exceed this limit in 2028.	숫자 — 내용 일치
★	185쪽 ¶5 둘째~셋째 문장	Sweden, Morocco, and Lithuania are currently doing the best … The United States is in the bottom five	순위 — 바꿔치기 주의
◆	185쪽 ¶6 첫 문장	The ethical issue is not difficult to adjudicate.	저자의 판단 — 전환
★	185쪽 ¶6 둘째 문장	For affluent countr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most of the CO2 that is now in the atmosphere, there can be no ethical justification	통합 사고 · 계속적 which
◆	186쪽 첫 줄	playing a kind of Russian roulette … load our six-chambered revolver with two bullets rather than just one	밑줄 의미 1순위
▲	186쪽 첫 줄	Nor would the costs, for affluent countries, be in any way comparable to the risks	Nor + 조동사 + 주어 도치
★	186쪽 첫 줄	would bring some transitional costs, but in the long run would save lives and benefit everyone	저자의 결론

내용

'This is all wrong!(이건 완전히 잘못됐어요!)' 저자가 들어 본 가장 강력한 4분짜리 연설은 이 말로 시작한다. 스웨덴의 10대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9월 유엔 기후 행동 정상 회의에서 한 말이고, 추산 600만 명이 참가한 한 주 동안의 전 세계 기후 파업과 행진에 뒤이은 연설이었다. 행진한 사람들은 주로, 툰베리가 연설한 세계 지도자들보다 기후 변화의 비용을 더 많이 감당해야 할 젊은이들이었다. 그러므로 저자는 그녀의 도덕적 분노의 어조가 적절했고, 연설을 관통한 'How dare you?(어떻게 감히?)'라는 주제도 그러했다고 본다. 그녀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빈말로 젊은이들의 꿈을 훔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어떻게 감히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하는가? 어떻게 감히 '평소대로'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술적 해법을 더하면 문제가 풀릴 것처럼 꾸미는가? 툰베리는 기후 변화의 과학이 30년 동안 알려져 왔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했다. 세계 지도자들이 외면하는 동안 순배출 제로의 온실가스 경제로 제때 옮겨 갈 기회는 흘러가 버렸다. 이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영웅적인 노력도 지구 온난화를 1.5℃ 아래로 묶을 가능성을 50%밖에 주지 못한다고 툰베리는 지적했다. 그 한계를 넘으면 통제할 수 없는 되먹임 고리가 시작되어 더 많은 온난화, 더 많은 되먹임 고리, 그리고 또 더 많은 온난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툰베리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를 들어, 1.5℃를 넘을 위험을 3분의 1로 줄이려면 지금부터 205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을 3,500억 톤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속도라면 2028년에 이 한도를 넘는다. 기후 변화 대응 지수에 따르면 세계의 어느 정부도 아직 기후 보호에서 '매우 좋음'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금은 스웨덴 · 모로코 · 리투아니아가 가장 잘하고 있고 라트비아와 영국이 그 뒤를 바짝 따른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한국 · 대만과 함께 하위 5개국에 든다. 저자는 이 윤리적 쟁점이 판정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에 책임이 있는 부유한 나라가, 기후 변화로 가장 고통받을 저소득국 사람들보다 1인당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계속 내보내는 것을 정당화할 윤리적 근거는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 1.5℃를 넘는 온난화의 3분의 1 가능성을 떠안기는 것은 일종의 러시안룰렛, 곧 저소득국의 수천만, 어쩌면 수억 명의 머리에 권총을 겨눈 것과 같다. 다만 비유를 정확히 하려면 여섯 칸짜리 탄창에 총알을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넣어야 했을 것이다. 또 부유한 나라가 치를 비용은 그들이 저소득국에 떠안기는 위험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깨끗한 경제로 바꾸는 데에는 얼마간의 전환 비용이 들겠지만, 길게 보면 생명을 구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어법

- **These words begin the most powerful four-minute speech I have ever heard** : 최상급 + (that) I have ever heard = 내가 들어 본 가운데 가장 ~한(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경험의 현재완료). four-minute = 하이픈으로 이은 복합 형용사(minute는 단수).
- **They were spoken by Greta Thunberg … and followed a week of worldwide climate strikes and marches attended by an estimated six million people** : 주어 They(= These words)에 수동 were spoken과 능동 followed가 and로 병렬. attended by = marches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 an estimated + 수 = 추산 ~.
- **The marchers were predominantly the young people who will have to cope with more of the costs of climate change than the world leaders Thunberg was addressing** : more of the costs … than ~ = ~보다 더 많은 비용. the world leaders (whom) Thunberg was addressing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will have to = 미래의 의무.
- **Her tone of moral outrage was therefore apt, as was the leitmotif of her speech** : as + be동사 + 주어 = ~도 그러했다(as was the leitmotif = the leitmotif was apt, too). 앞 절의 동사 was를 받아 도치.
- **She accused the world's leaders of stealing the dreams of the young with empty words** : accuse A of -ing = A가 ~했다고 비난하다. the young = 젊은이들(the + 형용사 = 복수 보통명사).
- **How dare they pretend that "business as usual," coupled with yet-to-be-discovered technological solutions, will solve the problem?** : How dare + 주어 + 원형 = 어떻게 감히 ~하는가(dare가 조동사처럼 쓰임). coupled with = 과거분사구 삽입(~와 결합된). yet-to-be-discovered = 아직 발견되지 않은(to부정사 수동을 하이픈으로 이은 형용사).
- **To impose on them a one in three chance of warming beyond 1.5°C is playing a kind of Russian roulette** : to 부정사 주어 → 단수 is. impose A on B에서 목적어 A(a one in three chance …)가 길어 on them 뒤로 보냈다. is playing = be + 동명사 보어(~하는 것이다).
- **except that to make the analogy accurate, we would have had to load our six-chambered revolver with two bullets rather than just one** : except that = ~이라는 점만 빼면. to make ~ = 조건의 to부정사(~하려면). would have had to = 가정법 과거완료(그렇게 했어야 했을 것). load A with B. A rather than B.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edominantly	주로	mainly	—
cope with	감당하다	deal with	—
outrage	분노	indignation	—
apt	적절한	fitting	inappropriate
leitmotif	(되풀이되는) 중심 주제	refrain	—
accuse A of B	A를 B로 비난하다	charge A with B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imely	시기적절한	prompt	belated
transition	전환	shift	—
halve	절반으로 줄이다	cut in half	double
uncontrollable	통제할 수 없는	unmanageable	controllable
adjudicate	판정하다	judge	—
impose (on)	(부담을) 지우다	force on	—
analogy	비유	comparison	—
comparable	비교할 만한	equivalent	incomparable

내용 일치 'This is all wrong!' · 저자가 들은 가장 강력한 4분 연설(저자의 평가) · 스웨덴의 10대 기후 활동가 · 2019년 9월 유엔 기후 행동 정상 회의 · 한 주 시위 약 600만 명(추산) · 행진자 = 주로 젊은이 · 도덕적 분노 = 적절(저자) · 'How dare you?' · 꿈을 훔친다 · 30년 · 10년 안에 절반 → 50%(툰베리의 지적) · 되먹임 고리의 위험 · IPCC 보고서(툰베리가 인용) = 3분의 1 · 2050년까지 3,500억 톤 · 2028년 · 기후 변화 대응 지수 = '매우 좋음' 없음 · 스웨덴 · 모로코 · 리투아니아 · 라트비아 · 영국 · 미국은 하위 5개국(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한국 · 대만) · 부유국 = 대기 중 CO2 대부분에 책임 · 정당화 불가 · 총알 두 발 · 전환 비용 · 장기적 이익. **밑줄 의미** How dare you? = 젊은이의 미래를 걸고도 할 일을 하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 / business as usual = 지금까지 하던 대로 / slipped by = 제때 전환할 기회가 쓰이지 않은 채 지나갔다 / a kind of Russian roulette =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 확률 놀음 / two bullets rather than just one = 위험이 6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보통의 러시안룰렛보다 두 배 / 185쪽 ¶1 They were spoken = 연설의 첫 말 / ¶6 which are responsible = 부유국 / 186쪽 첫 줄 them = 저소득국 사람들.

> **한 줄 요약** 툰베리의 도덕적 분노는 기후 변화의 비용을 더 떠안을 젊은이들 앞에서 적절했고, 저자는 대기 중 CO2 대부분에 책임 있는 부유국의 높은 배출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저소득국에 3분의 1의 위험을 떠안기는 것은 총알 두 발의 러시안룰렛이라고 판단한다.

8-6 물음과 운동, 저자의 결론 —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조건과 새로운 생각 186쪽 ¶1 ~ ¶6

원문 위치 원서 186쪽 ¶1 ~ ¶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6쪽 ¶1 둘째 문장 이하	Thunberg ended on a positive note: “We will not let you get away with this.	툰베리의 말 — 저자의 주장 아님
★	186쪽 ¶2 첫 문장	Can young people really wake the world to … changing direction?	저자의 물음 — 젊은이가 세상을 깨울 수 있나
◆	186쪽 ¶2 셋째 문장	School strikes will trouble parents, especially parents who then need to arrange child care, but will they influence political leaders?	지칭 they = 학교 파업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6쪽 ¶2 넷째 문장	What can be done to keep climate on the agenda until governments get serious about reducing the risk	keep + O + 전치사구 · get serious about
★	186쪽 ¶3 첫 문장	“Extinction Rebellion,” an international movement that began last year with a Declaration of Rebellion in London, advocates civil disobedience.	소개된 운동 — 저자의 주장 아님
▲	186쪽 ¶3 둘째 문장	calls for thousands of activists to block roads … not just for one day, but for long enough to impose real economic costs	call for + O + to V · long enough to
●	186쪽 ¶3 둘째 문장	all the while maintaining strictly nonviolent discipline even in the face of government repression	어휘 반전: nonviolent ↔ violent
★	186쪽 ¶4 첫 문장	first used as part of a mass movement by Mahatma Gandhi in South Africa and subsequently in India	장소 순서 — 내용 일치
▲	186쪽 ¶4 넷째 문장	resorting to civil disobedience is now widely regarded as courageous and right	동명사 주어 · be regarded as
▲	186쪽 ¶5 첫 문장	is no less wrong than British rule in India … and it is likely to cause harm on a far larger scale	no less A than B · be likely to
★	186쪽 ¶5 둘째 문장	civil disobedience also would be justified if it has a chance of persuading governments to follow the science	주장 1순위 · 조건
★	186쪽 ¶6 첫 문장	There may be other effective forms of nonviolent protest that no one has yet tried.	빈칸 1순위
★	186쪽 ¶6 둘째 문장	standing alone outside Sweden’s parliament holding a sign saying, in Swedish, “School Strike for Climate.”	장소 · True/False — 서답형
▲	186쪽 ¶6 셋째 문장	No one could have predicted that this then-15-year-old girl would … gain a platform from which to address	could have p.p. · from which to V

내용

어떻게 그곳에 이를 것인가? 툰베리는 긍정적인 말로 연설을 끝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대로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선을 긋는 곳입니다. 세상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말든 변화는

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어서 묻는다. 젊은이들이 방향을 바꿔야 할 긴급함에 세상을 실제로 일깨울 수 있을까? 부모를 설득할 수 있을까? 학교 파업은 부모들, 특히 그 때문에 아이 돌봄을 마련해야 하는 부모들을 괴롭히겠지만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줄까? 정부가 재앙의 위험을 줄이는 데 진지해질 때까지 기후를 의제로 붙들어 두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런던에서 반란 선언으로 '지난해' 시작한 국제 운동 Extinction Rebellion은 시민 불복종을 옹호한다. 이 운동은 수천 명의 활동가가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도로를 막고 교통 체계를 멈추게 하자고 요구한다.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라 정부와 경제 엘리트에게 실제 경제적 비용을 지울 만큼 오래, 그리고 정부의 탄압 앞에서도 내내 엄격한 비폭력의 규율을 지키면서. 대중 운동의 일부로 시민 불복종을 처음 쓴 사람은 남아프리카에서, 그 뒤에는 인도에서 활동한 마하트마 간디였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지자는 인종 분리에 맞서 싸운 마틴 루서 킹 주니어였다. 시민 불복종은 다른 형태의 항의와 함께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데에도 한몫했다. 이 모든 예에서 시민 불복종에 기댄 일은 이제 용기 있고 옳은 일로 널리 여겨져, 세계 곳곳에 간디의 동상이 있고 미국에서는 킹의 생일이 공휴일이다. 저자는 정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는 것이 영국의 인도 통치, 흑인에 대한 평등권 거부, 베트남 전쟁 못지않게 그르고, 그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가 과학을 따르고 파국적 기후 변화를 피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효과적인 비폭력 항의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툰베리가 처음 알려진 것은 스웨덴어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스웨덴 의회 밖에 혼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열다섯 살이던 이 소녀가 수백만 젊은이가 지지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말할 무대를 얻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저자는 상황의 긴급함과 급격한 방향 전환의 필요를 가장 잘 전할 방법에 관해 더 혁신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법

- **Right here, right now is where we draw the line** : where we draw the line = 보어 자리의 명사절(우리가 선을 긋는 곳). 부사구 Right here, right now가 주어처럼 쓰여 '바로 지금 여기'라는 때와 곳을 가리킨다. draw the line = 선을 긋다(더는 용납하지 않다).
- **What can be done to keep climate on the agenda until governments get serious about reducing the risk of catastrophe?** : can be done = 조동사 + 수동. keep + O + 전치사구 = O를 ~에 붙들어 두다. until + 현재(미래 대신). get serious about + -ing = ~에 진지해지다.
- **Extinction Rebellion calls for thousands of activists to block roads and shut down transport systems ..., not just for one day, but for long enough to impose real economic costs ..., all the while maintaining strictly nonviolent discipline** : call for + O + to V = O가 ~하기를 요구하다(block · shut down 병렬). not just A but B. long enough to V = ~할 만큼 오래. all the while + -ing = 그동안 내내 ~하면서.
- **In each of these examples, resorting to civil disobedience is now widely regarded as courageous and right** : 동명사 주어(resorting to ...) → 단수 is. resort to + 명사 = ~에 기대다(to는 전치사). be regarded as + 형용사 = ~로 여겨지다.
- **The failure of governmen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s no less wrong than British rule in India, the denial of equal rights to Blacks, or the war in Vietnam** : no less A than B = B 못지않게 A하다(B만큼 그르다). 주어 The failure(단수) → is. failure to V = ~하지 못함. than 뒤 비교 대상 셋을 나열.
- **So, civil disobedience also would be justified if it has a chance of persuading governments to follow the science and do what is necessary to avert catastrophic climate change** : would + if + 현재 = 열린 조건에 대한 조심스러운 판단(~라면 정당화될 것이다). persuade + O + to V(follow · do 병렬). what is necessary = 관계대명사 what절. to avert = 목적.
- **No one could have predicted that this then-15-year-old girl would start a movement supported by millions of young people and gain a platform from which to address the world's leaders** : could have p.p. = ~할 수 있었을 것이다(부정 주어 →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then-15-year-old = 당시 15세의(복합 형용사, year는 단수). supported by = 과거분사 후치. from which to V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to부정사(그곳에서 ~할 무대).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get away with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다	escape punishment for	—
platform	(발언의) 무대	stage	—
agenda	의제	list of issues	—
advocate (v.)	옹호하다	support	oppose
nonviolent	비폭력의	peaceful	violent
repression	탄압	oppression	freedom
subsequently	그 뒤에	later	previously
proponent	지지자	advocate	opponent
segregation	(인종) 분리	separation	integration
resort to	~에 기대다, 의지하다	turn to	—
courageous	용기 있는	brave	cowardly
avert	막다, 피하다	prevent	cause
innovative	혁신적인	creative	conventional
convey	전하다	communicate	—

내용 일치 툰베리 = 긍정적 마무리(툰베리의 말) · 저자의 물음 = 젊은이가 세상을 깨울 수 있나 · 부모 설득 · 학교 파업이 지도자에게? · 의제 붙들기 · Extinction Rebellion = '지난해' 런던의 반란 선언으로 시작 · 시민 불복종 옹호 · 도로 · 교통 봉쇄 · 하루가 아니라 실제 비용을 지울 만큼 · 엄격한 비폭력(그 운동의 요구 — 저자는 소개만) · 간디 =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그 뒤 인도 · 킹 = 인종 분리 반대 · 베트남 전쟁에도 한몫(다른 항의와 함께) · 지금은 용기 있고 옳은 일 · 간디 동상 · 킹의 생일 = 공휴일 · 정부의 실패 = 그 못지않게 그름 · 피해는 훨씬 클 '가능성'(likely) ·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당화될 것(저자) · 아직 시도하지 않은 방식이 있을 '수도'(may) · 스웨덴 의회 밖에 혼자 · 당시 15세 · 더 혁신적인 생각. **지칭** 186쪽 ¶1 you = 툰베리가 연설한 세계 지도자들 · we = 툰베리와 젊은이들 / ¶2 they convince their parents = 젊은이들 · will they influence = 학교 파업 / ¶4 its most famous proponent = 시민 불복종의 지지자 / ¶5 it is likely = 정부의 감축 실패 · if it has a chance = 시민 불복종 / ¶6 this then-15-year-old girl = 툰베리.

> **한 줄 요약** 젊은이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느냐는 물음 앞에서 저자는 시민 불복종의 역사를 돌아보고, 정부의 감축 실패가 그에 못지않게 그르므로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이라 보며, 툰베리처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새 방식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8 BORDERS]

범위	The Refugee Dilemma · Paris and the Fate of the Earth · Greta Thunberg (원서 PDF 177~186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Gandhi pioneered civil disobedience as a tool of mass protest, in South Africa and later in India. In America, Martin Luther King, Jr. became its best-known champion in the fight against racial segregation, and, together with other kinds of protest, it helped end the Vietnam War. These campaigns are now widely seen as brave and right: Gandhi has statues across the globe, and King's birthday is a US national holiday. Governments' failure to cut greenhouse gases is every bit as wrong as the refusal of equal rights to Black Americans, British rule in India, or the fighting in Vietnam, and it will probably do far more damage. If civil disobedience had some prospect of convincing governments to act on the science, it would be justified here too.

① Civil disobedience is justified only after it has already succeeded once.
② Climate campaigners should never break the law, whatever governments do.
③ Civil disobedience over climate could be justified if it may persuade governments to act on scientific advice.
④ Governments' failure on climate is a smaller wrong than the injustices Gandhi and King opposed.
⑤ The best way to honor protest leaders is to build statues of them.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refugee Convention has also given birth to a new trade in moving people across borders, a business that is ruthless and often deadly. Suppose that anyone seeking asylum in a neighboring country were placed in a camp where they were safe from persecution and could study and do meaningful work, with affluent nations paying the bills. Then the smuggling trade, and the deaths of people on the move, would vanish. Economic migrants would have less reason to claim asylum, and wealthy countries could take in more refugees straight from the camps while keeping control of their borders. Sending back people who reach our country is painful, even when they go somewhere safe. Yet we owe compassion to the millions waiting in camps, too; they also deserve hope.

① Why Refugees Should Always Be Returned Home
② Safe Camps Nearby: A Way to Defeat Smugglers and Offer Hope
③ The Hidden Profits Affluent Nations Make from Refugees
④ How Economic Migrants Deceive the Courts
⑤ Opening Every Border to Every Asylum Seeker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n Australian body, the National Centre for Climate Restoration, paints an equally worrying picture: the emissions already in the air give us a one-in-ten chance of passing 2°C, even if every new emission stopped today, which will not happen. Picture an airline that cut back on maintenance until each of its flights had a one-in-ten risk of not ending safely. It could hardly boast that it had kept dangerous aircraft on the ground, and even with the lowest fares around, it would attract few passengers. In the same way, considering how catastrophic dangerous human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could be, we should refuse to live with a 10% risk of going beyond 2°C, and the real risk may be several times greater.

① Airlines should spend more on maintenance than they do now.
② Stopping all emissions today would remove any risk of passing 2°C.
③ Australian researchers have exaggerated the danger of warming.
④ Cheap flights are worth a small risk to passengers' safety.
⑤ A one-in-ten risk of passing 2°C is far too high to accept.

4. 밑줄 친 it was not Merkel the idealist, but Merkel the political realis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Leaders who want to treat asylum seekers and other would-be migrants humanely are caught in a terrible bind. Either they tighten border control enough to weaken public backing for the far right, or else they may lose that fight and, along with it, every other value that anti-immigrant governments put at risk. Merkel herself saw this. Before an EU summit on migration in 2018, it was not Merkel the idealist, but Merkel the political realist that warned the German parliament that migration might turn out to be the challenge deciding the European Union's future. She then joined other European leaders in agreeing to tighten Europe's borders and to send people rescued at sea back to the countries they had left.

① Merkel had stopped caring about refugees and now rejected all immigration.
② Merkel spoke as a leader weighing what was politically possible, not as a champion of a limitless principle.
③ Merkel had lost power and could no longer influence European policy.
④ Merkel was repeating her 2015 promise that Germany could do it.
⑤ Merkel was blaming other European leaders for being unrealistic.

5. 밑줄 친 we would have had to load our six-chambered revolver with two bullets rather than just one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ethical question is not a hard one to settle. Affluent countries released the bulk of the CO2 the atmosphere now holds, so nothing can justify their going on emitting far more per person than the people of poor countries, who stand to suffer most as the planet warms. Forcing on those people a one-in-three risk that the world will warm past 1.5°C is a sort of Russian roulette, like a loaded gun aimed at tens or even hundreds of millions in poorer nations. To make the comparison exact, though, we would have had to load our six-chambered revolver with two bullets rather than just one, and the price of a clean economy for rich countries bears no comparison with that risk.

① The danger imposed on poor countries is one in three, twice that of ordinary Russian roulette.
② Rich countries should help poor countries defend themselves.
③ The risk of passing 1.5°C is about one in six.
④ Poor countries will suffer twice as much as rich countries.
⑤ Switching to a clean economy will cost twice as much as expected.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What should be done instead? Developing nations will say that ① their demand for inexpensive power to raise people out of poverty matters more than the desire of rich nations to keep up ② their often wasteful energy habits, and the author thinks this claim is correct. That is why the rich world ought to decarbonize ③ their economies as fast as possible, and no later than 2050. ④ They could begin by shutting coal-fired power stations, the dirtiest way of producing energy, and ⑤ they could refuse permits for new coal mines. Getting the public to switch to more plant-based food could bring another quick gain, since a UN agency ranks livestock farming second among all sources of greenhouse gases.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In July 2015, more than 100,000 migrants reached the EU's borders, and 21,000 landed in Greece in a single August week. Some tourists grumbled that their Greek island holiday now lay in the middle of a refugee camp, but the crisis had far graver consequences: that year over 2,500 people hoping to migrate died at sea in the Mediterranean, most while trying to get from North Africa to Italy. Syria's civil war drove far more refugees into Jordan, Lebanon, and Turkey than into any European country, and in Asia, persecution of Myanmar's Muslim Rohingya minority forced still more people to flee. By late 2014, the UN refugee agency put the number of people forced from their homes at 59.5 million, a record high.

① 2015년 7월 유럽연합 국경에 닿은 이주민은 10만 명에 못 미쳤다.
② 시리아 내전으로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튀르키예 · 레바논 · 요르단에 훨씬 많은 난민이 갔다.
③ 8월 한 주 동안 그리스에 도착한 이주민은 2,100명이었다.
④ 그해 지중해에서 익사한 이주 희망자 대부분은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로 건너가려 했다.
⑤ 2014년 말 강제로 터전을 떠난 5,950만 명은 그때까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The first vague point was settled when leaders agreed to keep the rise in average surface temperature to 2°C above pre-industrial levels. Many scientists think even a smaller rise is dangerous. Warming of just 0.8°C has already brought record heat and wilder weather, and Greenland's ice sheet, which holds enough water to lift the seas by seven meters, has melted heavily. At Copenhagen, small island states begged for a 1.5°C target, but leaders brushed them aside as politically unrealistic. A study of all 154 national pledges found that, even if every one is honored, yearly emissions will grow from 50 billion tons now to between 55 and 60 billion tons in 2030, while even a 50-50 chance of staying under 2°C requires 36 billion tons.

① 첫째 모호함은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로 묶는 목표로 해결되었다.
② 지금까지 0.8℃ 오른 것만으로도 그린란드 빙상이 상당히 녹았다.
③ 154개국의 서약이 모두 이행되면 2030년 연간 배출량은 360억 톤으로 줄어든다.
④ 코펜하겐에서 작은 섬나라들이 요구한 1.5℃ 목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⑤ 2℃ 안에 머물 가능성을 50%라도 가지려면 연간 배출이 360억 톤으로 내려와야 한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At the 1992 'Earth Summit' in Rio de Janeiro, 189 countries, among ① them the United States, China, and India, signed the UN climate convention and promised to keep greenhouse gas output at a level low enough ② to prevent dangerous human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Yet that has not happened, and without it, feedback loops could push temperatures even higher: with less Arctic ice ③ reflecting sunlight, the oceans will soak up more heat, and melting Siberian permafrost will give off huge amounts of methane. Earlier meetings sought legally binding cuts for the industrialized nations ④ that had released most of the gases already in the air. That approach was dropped after the Copenhagen meeting of 2009 could not deliver a treaty ⑤ replaced the Kyoto Protocol, which was about to expire.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ith nationalists and populists demanding that borders (A) [be / were] closed, Chancellor Angela Merkel declared that the basic right of politically persecuted people to asylum has no upper limit, even for those escaping the hell of civil war. She backed her words with deeds. Germany registered 890,000 people seeking asylum in 2015, and in the 18 months that began that September it approved over 600,000 asylum claims. Integrating so many newcomers from such different cultures (B) [was / were] clearly going to be hard, yet Merkel famously announced, 'Wir schaffen das' (We can do it). In the author's view, no German leader's deed, not even Willy Brandt's kneeling in 1970 before the monument to the Warsaw Ghetto Uprising's heroes, has separated Germany from its racist history more (C) [decisive / decisively].

	(A)	(B)	(C)
①	be	were	decisive
②	were	was	decisively
③	be	were	decisively
④	be	was	decisively
⑤	were	was	decisive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Most of the marchers were young people, who will bear a larger share of climate change's costs than the leaders Thunberg was speaking to. Her morally outraged tone was therefore ① fitting, and so was the refrain of her speech: 'How dare you?' She charged world leaders with ② stealing young people's dreams with hollow words, and with pretending that 'business as usual,' plus technologies not yet ③ invented, would fix the problem. She defended her anger by noting that scientists have understood climate change for three decades. While leaders looked the other way, the chance of a timely move to a net-zero economy ④ arrived. Now, she pointed out, even cutting emissions in half within ten years would give us only an even chance of keeping warming ⑤ below 1.5°C.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Civil disobedience may not be the only tool open to climate campaigners. They might also discover powerful kinds of peaceful protest that _____. Thunberg's own story shows why. Her campaign started with one schoolgirl holding a sign, 'School Strike for Climate,' in front of Sweden's parliament. Who would have expected a fifteen-year-old standing alone to end up addressing world leaders, backed by millions of her peers? What is needed now, the author says, is more inventive thinking about how to make people feel how pressing the crisis is and how drastically we must change direction.

① only adults are allowed to use
② are still waiting to be invented
③ have already failed in many countries
④ require the approval of world leaders
⑤ depend on blocking roads in major citie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wo of these countries, Poland and Hungary, had fiercely opposed EU pressure to accept more Syrian refugees, yet they welcomed the Ukrainians.

Refugees from inside Europe, however, seem to be another matter. (①) Within a fortnight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over 2 million people had fled. (②) About 1.5 million went to Poland, while others headed for Moldova, Romania, Slovakia, and Hungary, and some even for Russia. (③) Is there a workable answer to the dilemma for refugees whom, for whatever reason, neighbors do not receive as they received the Ukrainians? (④) Rich countries have a duty to admit refugees, and many could and should take in more than they now do. (⑤) But as asylum claims have multiplied, courts find it ever harder to tell genuine refugees from well-coached migrants.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Whether the young can jolt the world into changing direction, or even persuade their own parents, is an open question. Parents scrambling for child care during school strikes will be annoyed; whether leaders will be moved is less certain. ① What can keep climate change high on the agenda till governments take the threat of catastrophe seriously? ② Extinction Rebellion, a movement launched in London by issuing a Declaration of Rebellion, offers one answer: civil disobedience. ③ The movement urges activists in their thousands to block roads and halt transport in major cities, not for a single day but until governments and business elites bear real economic costs. ④ The UN refugee Convention places no duty on countries to take in people who flee poverty rather than persecution. ⑤ Throughout, protesters are to remain strictly nonviolent, even when governments crack down.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the author's account, within two months of Merkel's defense of a limitless right to asylum, Polish voters handed power to Law and Justice, an anti-immigrant party.

(A) The next year, Italy's election produced a coalition where the far-right League's Matteo Salvini held great sway. Finally, and least surprisingly, Hungary's Viktor Orbán won office again by a wide margin. Migration played a part, possibly a decisive one, in each of these outcomes.

(B) The next year, Britain voted to quit the EU, and Americans elected Trump. In 2017, a snap election in Austria brought the far-right Freedom Party into a coalition government.

(C) In Germany's federal election that same year, Merkel's Christian Democratic Union suffered an eight-point swing against it, while Alternative for Germany, an anti-immigrant party that had never won a Bundestag seat, became the third-largest party.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o how did the Paris meeting fare? Unlike the earlier meeting in Copenhagen, it was not a total failure. Pressed by some of the nations most threatened by climate change, the parties agreed to hold warming 'well below' 2°C and even to try to stop it at 1.5°C. Even more important, everyone accepted that all countries, rich and poor alike, must help cut emissions. Yet the promises made in Paris are not enough to reach that target. A follow-up meeting, delayed by the COVID-19 pandemic, finally took place in Glasgow in November 2021, but even if every pledge standing at the close of that year is fully kept, the world will warm beyond 1.5°C, and very possibly beyond 2°C.

→ The Paris Conference was more (A) _____ than the Copenhagen meeting in its targets and its call for every country to act, but the pledges countries have made remain (B) _____ to meet those targets.

① successful ..... insufficient
② successful ..... adequate
③ disappointing ..... insufficient
④ disappointing ..... excessive
⑤ binding ..... adequate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Germany registered 890,000 people seeking asylum in 2015 and approved over 600,000 asylum claims in the following 18 months. Within two weeks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over 2 million refugees had left, 1.5 million of them for Poland. Earlier, in 1992, 189 countries gathered at Rio de Janeiro's Earth Summit had promised to stabiliz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After the Copenhagen conference of 2009, 154 countries offered voluntary pledges to reduce emissions. In September 2019, an estimated 6 million people joined a week of climate strikes and marches. Thunberg had first become known not for leading a crowd but for standing by herself outside Sweden's parliament.

<QUIZ>

(1) How many asylum seekers did Germany register in 2015?

Answer for (1): _____

(2) Which country did 1.5 million Ukrainian refugees go to?

Answer for (2): _____

(3) In which city was the 1992 Earth Summit held?

Answer for (3): _____

(4) How many countries made voluntary pledges after the Copenhagen conference?

Answer for (4): _____

(5) About how many people took part in the week of climate strikes and marches in 2019?

Answer for (5): _____

(6) Is it true or false that Thunberg's first fame came from leading a large crowd of marchers?

Answer for (6): _____

(7) Outside which country's parliament did Thunberg stand alone?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600,000	N. 6 million
B. True	O. Morocco
C. False	P. 100,000
D. 189	Q. 59.5 million
E. 154	R. Poland
F. Paris	S. Lithuania
G. Rio de Janeiro	T. Germany
H. Hungary	U. 890,000
I. 2 million	V. Italy
J. 21,000	W. 2,500
K. Copenhagen	X. Kyoto
L. Glasgow	Y. Sweden
M. 1.5 million	Z. 350 gigatons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해 2,500명이 넘는 이주 희망자가 지중해에서 익사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건너가려던 중이었다. (독립분사구문(most of them + -ing))

02 어떤 독일 지도자의 어떤 행동도 독일을 인종주의적 과거에서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떼어 놓지 못했다. (부정 주어 + 비교급 / distance A from B)

03 그 아이들도 그 부모들도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Neither A nor B / 형용사구 후치)

04 유럽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독일 의회에 말한 것은 이상주의자 메르켈이 아니라 정치적 현실주의자 메르켈이었다. (강조 구문 It is not A but B who)

05 무제한의 망명권 선언이 아무리 고무적이라 해도, 결국 권리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형용사 + as + S + V(양보))

06 재판소와 법원이 누가 진짜 난민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워졌다. (가주어 it / for + 의미상 주어 / 간접의문문)

07 지금 당장 배출을 멈춘다 해도, 우리가 2℃를 넘을 가능성은 이미 10%다. (even if + 가정법 과거 / stop + -ing)

08 그 회사는 위험한 비행기가 날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prevent A from -ing / 과거완료)

09 그녀의 도덕적 분노의 어조는 적절했고, 그녀 연설의 중심 주제도 그러했다. (as + V + S 도치)

10 그녀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빈말로 젊은이들의 꿈을 훔친다고 비난했다. (accuse A of -ing / the + 형용사)

11 정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영국의 인도 통치 못지않게 그르다. (no less A than B)

12 정부가 과학을 따르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것이다. (would + if 현재 / persuade + O + to V)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2015년 7월 국경의 이주민 / 8월 한 주 그리스 / 지중해 익사	
시리아 난민이 훨씬 많이 간 세 나라 / 2014년 말 강제로 터전을 떠난 사람	
2015년 독일이 등록한 망명 신청자 / 18개월간 승인	
메르켈의 유명한 말 / 1970년에 무릎 꿇은 지도자	
메르켈의 선언 뒤 두 달도 안 돼 집권한 정당	
2017년 독일 연방 선거 / 처음 의석을 얻어 제3당	
난민 협약에 없는 두 종류의 난민	
2022년 2월 침공 뒤 2주 / 폴란드로 간 사람	
1992년 지구 정상 회의 도시 / 서명국 수	
2009년 회의 / 대신하지 못한 조약 / 자발적 서약	
상한으로 정한 기온 상승 / 지금까지의 상승	
그린란드 빙상이 다 녹으면 / 섬나라가 요구한 목표	
지금 배출 / 2030년(서약 이행 시) / 2℃ 50%에 필요한 수준	
지금 멈춰도 2℃를 넘을 가능성(오스트레일리아 보고서)	
부유국 탈탄소 시한 / 축산업의 배출 순위	

항목	답
미뤄진 회의의 도시 · 때 / 석탄 합의에서 바뀐 말	
툰베리 연설의 자리 · 때 / 시위 참가자(추산)	
IPCC의 한도 / 지금 속도로 넘는 해	
기후 변화 대응 지수 상위 셋 / 하위 5개국에 든 미국 외 네 나라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The Refugee Dilemma」에서 저자는 부유한 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일을 그 나라가 져야 할 몫으로 보고, 많은 나라가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고 썼다(아래 문장). 「Greta Thunberg's Moment」에서는 지금 대기 중 CO2의 대부분을 누가 내보냈는가가 부유국의 계속된 높은 배출을 정당화할 수 없는 까닭이 되고, 「Paris and the Fate of the Earth」에서 저자는 개발도상국의 더 큰 필요를 들어 부유국이 먼저, 늦어도 2050년까지 탈탄소해야 한다고 본다. 빈칸에 들어갈 영어 명사 한 단어를 원서에서 찾아 쓰고, 그 근거를 「The Refugee Dilemma」 밖의 두 편에서 하나씩 찾아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부유한 나라가 지는 몫: Affluent countries have a _____ to take refugees, and many of them can and should accept more than they do.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9 SCIENCE AND TECHNOLOGY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Golden Rice · Life Made to Order · The Cost of Being Unscientific
원서 PDF 191~194 · 197~199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과학의 증거를 어떻게 저울질하며, 과학을 외면하면 무엇을 잃는가."

이 권은 과학의 증거를 어떻게 따지고, 과학을 외면하면 무엇을 잃는지를 묻는 세 편을 묶었다. 「A Clear Case for Golden Rice」에서 저자는 1990년대에 유전자 변형 작물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우려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규제는 유지하되 전면 반대는 버리고 작물마다 위험과 이익을 견주어 판단하자고 말한다. 「Life Made to Order」는 합성 박테리아 신시아를 둘러싼 '신 노릇' 비판과 생명 특허 논쟁을 살핀 뒤, 합성 생물의 위험을 기후 변화 같은 다른 위협과 견주어야 한다고 본다. 「The Tragic Cost of Being Unscientific」은 과학계의 합의를 거부한 음베키의 에이즈 정책이 낳은 대가에서 출발해, 좋은 의도만으로는 모자라며 생명이 걸린 결정은 과학적 증거를 평가한 뒤에 내려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이 노트는 누구의 말인지 원서대로 가려 적었고, 어느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도 권하지 않는다. 원서를 펴고 출제될 자리를 먼저 찾아 표시해 두어라.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유전자 변형 식물마다 장점을 사안별로 따져야(192쪽 ¶6) / 위험을 가능한 이익과 견주어야 – 이익이 크면 더 큰 위험도 감수할 만(192쪽 ¶4~¶5) / 실험실에서 만든 유전체로 살아 있는 박테리아 신시아(193쪽 ¶2~¶3) / 과학자와는 의견이 달라도 탐구의 방법인 과학은 거부하면 안 됨(199쪽 ¶1)
4~5	**밑줄 함축 의미**	the target of one / complicity in the deaths / That hurdle was raised higher / we Greens / blanket opposition to the very idea of GMOs / like taking a loyalty oath / "playing God" / extinguish the argument / the life force was already in the cell / That battle was lost / as appealing as buying monochrome cathode ray tube monitors / good intentions are not enough / reject science as a method of inquiry
6	지칭 추론	he · He · them · his가 음베키와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197쪽 ¶6 ~ 198쪽 ¶1 / him(198쪽 ¶2 = 막고바) · the president's(= 음베키) / it(191쪽 ¶2 = 비타민 A 결핍) · The board(192쪽 첫 줄 = 인도주의 위원회) / it(193쪽 ¶3 = 신시아) · That battle(194쪽 ¶1 = 생물 특허 반대) · Those who did so(198쪽 ¶6 =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
7~8	내용 일치·불일치	200만 · 1990년대 초 · 2014 · 25만~50만 · 절반 · 12개월(191쪽 ¶1~¶2) / 2000 · 2004 · 2021 · 2022(191쪽 ¶4) / 10분의 1 · 50만 · 수백만 헥타르(192쪽) / 2010 · 13 · 20명 · 10년 · 4,000만 달러 · 1980 · 1984 · 6억 달러 · 2018 · 2025 · 1만 배럴 · 6년(193~194쪽) / 1999~2008 · 36만 5,000 · 1994 · 1961 · 69 · 5,000배 · 2021년 10월 · 16만 3,000(197~198쪽)
9~10	**어법**	accuse A of B · 계속적 which · for whom · 삽입절 Moore claimed · by + 과거 시점 + 과거완료 · 수량 + of whom · It was not until ~ that · 강조의 did · as long as · 부정 의문 Might ~ not · 분사구문 passing · be among those who · prevent + O + -ing · that of · none of + 복수 · 동격 that · despite the fact that · what절 주어 · may well · be worth -ing · 과거완료 had created · from which · 현재완료진행 · as close to ~ as · Asked 분사구문 · describe A as B · have yet to V · take + 사람 + 시간 + to V · 계속적 when · object to -ing · lead + O + to V · 동격 the hope that · 동격 that 두 개 · even as · If 생략 도치 · 배수 비교 · appear to have p.p. · be to V · 강조의 do · not for A but for B · having p.p. · so ~ that · must have p.p. · allow + O + to be p.p. · recommend that + 원형 · may와 must not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deficiency ↔ sufficiency · susceptibility ↔ resistance · thrive ↔ wither · proponent ↔ opponent · reliable ↔ unreliable · blanket ↔ selective · extinguish(193쪽 ¶5) ↔ ignite · inert ↔ animate · sweeping ↔ narrow · absorb ↔ emit · consensus ↔ disagreement · overwhelming ↔ negligible · predecessor ↔ successor · culpable ↔ blameless · unorthodox ↔ orthodox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2	빈칸 추론	the strongest obligation to allow all the evidence to be fairly presented and examined without fear or favor(198쪽 ¶4) / risks need to be weighed against possible benefits(192쪽 ¶4) / Synthia's very existence challenges the distinction between living and artificial(194쪽 ¶2) / we must not reject science as a method of inquiry(199쪽 ¶1)
13	문장 삽입	신젠타의 일(191쪽 ¶5 ~ 192쪽 첫 줄): 비판자들의 주장 → It is true that 개발을 도움 → but 상품화하지 않음 → Instead 인도주의 위원회에 재허가권 → The board … 보통 볍씨 값 이하 → That is what is now happening
14	무관한 문장	백신 음모론과 잘못된 정보(198쪽 ¶6)에 다른 편의 사실(비타민 A 부족과 산모 사망, 191쪽 ¶3)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생물 특허의 역사(194쪽 ¶1): 반대 → That battle was lost in 1980(미국 대법원) → a step further in 1984(온코마우스) → 지각 있는 존재 vs 박테리아 · 조류
16	요약문 완성	과학을 대하는 태도(199쪽 ¶1): 과학자도 틀릴 수 있음(군중 심리 · 소외의 두려움) → 그래도 탐구의 방법인 과학은 거부 금지 → 증거를 평가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많음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나라 · 비율 · 숫자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200만 · 1990년대 초 · 2014 · 25만~50만 · 절반 · 12개월 · 2000 · 2004 · 2021 · 2022 · 1980년대 · 1990년대 · 10분의 1 · 50만(1편) / 16세기 · 2010 · 13 · 20명 · 10년 · 4,000만 달러 · 1980 · 1984 · 6억 달러 · 2018 · 2025 · 1만 배럴 · 6년(2편) / 1999~2008 · 36만 5,000 · 1994 · 1961 · 69 · 5,000배 · 2021년 10월 · 16만 3,000 · 6월 1일~11월 30일(3편). 비슷한 숫자 쌍(1편의 50만과 25만~50만, 2편의 1980 · 1984와 1편의 1980년대, 2편의 2010과 2018, 1편의 2021과 3편의 2021년 10월, 5,000배와 36만 5,000, 2000과 2004)이 함정이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target ↔ leader, correct for the early 1990s ↔ for 2014, has not sought to commercialize ↔ has, none ↔ some, not by using Venter's methods ↔ by using, anticipating ↔ producing, was not in the final report ↔ was, promptly fired ↔ kept). '~라고 주장했다'(Moore claimed) · '아마'(perhaps · presumably) · '~인 듯'(would seem · appears) · '~일 수도'(may) · '~했음에 틀림없다'(must have known) · '바란다'(Proponents hope)를 단정으로 바꾼 선지, 무어 · 비판자들 · 캐플런 · 벤터 · 리처드슨과 패트런 · 음베키 집무실의 말을 저자(싱어)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Golden Rice · Life Made to Order · The Cost of Being Unscientific」 (191~194 · 197~199쪽)

논증형 세 편. ① 사례(그린피스를 겨냥한 시위) → 피해의 규모 → 더딘 승인 → 비판과 반박 → 저자의 과거(녹색당 시절의 규제론) → 그 뒤의 결과 → 저자의 기준(위험 대 이익) → 저자의 결론(사안별 판단). ② 사례(신시아) → 반응('신 노릇' · 역사적 발견) → 반론(생명력) → 쟁점과 저자의 답(자금 · 특허) → 쓸모와 그 뒤 → 저자의 결론(위험과 위협의 저울질). ③ 사례(음베키의 정책) → 대가(36만 5,000명) → 물음 → 변호 → 저자의 답(좋은 의도로는 모자람) → 확장(브라질 · 미국) → 결론. 핵심 축은 **전면 반대 vs 사안별 판단**, **생물과 인공물의 구별 vs 신시아**, **좋은 의도 vs 증거를 따질 의무**.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91 ¶1	사례	2014년 그린피스가 시위의 표적 · 무어(시위의 대변인 · 그린피스 전 회원) = 해마다 어린이 200만 명의 죽음에 공모했다고 비난 · 비타민 A 결핍 · 골든 라이스(베타카로틴 함량을 높인 쌀)로 막을 수 있다(무어의 주장)
191 ¶2~¶3	피해의 규모	무어의 수치 = 1990년대 초에는 맞음 · 2014년엔 크게 줄어 있었음 · 그래도 아프리카 · 동남아시아 일부의 큰 보건 문제 · 세계보건기구 = 해마다 취학 전 어린이 25만~50만 명 실명 · 약 절반이 12개월 안에 사망 · 홍역 · 산모 사망
191 ¶4	더딘 길	2000년 첫 생산(스위스 과학자) · 2004년 첫 시험 재배 · 개량 품종 · 엄격한 GMO 규정 · 필리핀 시험 논밭 파괴로 장애물이 더 높아짐 · 2021년 필리핀이 첫 승인 · 방글라데시 2022년 최종 승인(지지자들의 바람)
191 ¶5~192 첫 줄	비판과 반박	생명공학 산업의 농업 지배 계획의 일부(비판자들) / 신젠타가 도왔으나 상품화하지 않음 · 골든 라이스 인도주의 위원회에 재허가권 · 보통 볍씨 값보다 비싸게 받지 않는 한 · 지금 필리핀
192 ¶1	저자의 과거	1980년대 처음 개발 = 조심할 근거(먹어도 안전한가 · 슈퍼 잡초) · 1990년대 저자 =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 상원 의원 후보로 강력한 규제를 주장
192 ¶2~¶3	그 뒤의 결과	세계 경작지의 약 10분의 1 · 우려한 재앙 없음 · 병을 일으킨다는 믿을 만한 증거 없음 · 새 슈퍼 잡초 지금까지 없음(규제가 한몫했을 수도 — perhaps) / 규제는 유지 · 다시 생각할 것 = GMO라는 생각 자체에 대한 전면 반대
192 ¶4~¶5	저자의 기준	위험을 가능한 이익과 견줌 · 글리포세이트 내성 작물 vs 가뭄에 견디는 작물 · 어린이 50만 명의 실명을 막을 잠재력이 있는 작물 = 위험이 좀 있어도 재배할 가치 / 아이러니 = 위험이 밝혀진 적 없는 골든 라이스는 아직 못 내놓음
192 ¶6	저자의 결론	일부 환경 단체 = 전면 반대가 충성 서약 · 이견 = 배신자 · 편협한 이념적 태도를 넘어설 때 · 공중 보건 · 기후 변화 시대의 식량에 쓸모 있을 수도(may) · 사안별 판단
193 ¶1~¶3	사례	파라켈수스의 비법 · venter = 배 · 자궁 / 2010년 벤터의 팀 = 실험실에서 화학 물질로 만든 유전체의 박테리아 · 신시아 = 복제 · 단백질 생산 → 살아 있음 · 자연물이 아님을 밝히는 DNA 배열
193 ¶4~¶5	반응	생명 윤리의 다음 큰 쟁점 · '신 노릇' 비판(예상대로) / 캐플런 = 역사적 의미의 발견(특별한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끄는 듯) · 벤터 = 거대한 철학적 변화(각자의 말)
193 ¶6	반론	합성 유전체를 다른 박테리아의 세포에 넣음(다른 사람들의 지적) · 화학 물질만으로 만든 적은 아직 없음 → 생명력을 믿는 사람은 생명력이 이미 세포에 있었다고 주장할 것
193 ¶7~194 ¶2	쟁점 · 저자의 답	자금 · 특허 13건 비판 / 20명 · 10년 · 4,000만 달러 → 상업 투자자는 당연한 자금원(저자) · 1980 · 1984 생물 특허 · 지각 있는 존재 vs 박테리아 · 조류 · 신시아 = 생물과 인공물의 구별에 도전 · 광범위한 특허엔 찬성 안 함
194 ¶3~¶4	쓸모와 그 뒤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과 머리기사 경쟁 · 조류 연료 · 엑손모빌 6억 달러 · 2018년 = 2025년까지 하루 1만 배럴 예상 / 2010년 이후 급성장, 벤터의 방법은 아님 · 흑백 브라운관 모니터(리처드슨 · 패트런)
194 ¶5	저자의 결론	합성 생물의 방출 = 유전자 변형 생물처럼 신중히 규제 · 위험은 다른 심각한 위협(기후 변화)과 견줌 · 희망이 위험보다 클 수도(may)
197 ¶1	사례	음베키(1999~2008) = 과학계의 합의 거부 · 소수 이견파 과학자 · 반대 증거가 압도적이어도 고수 ·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지지자들이 비난(만델라도)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97 ¶2~¶4	대가	보츠와나 · 나미비아와 달리 제공 안 함 · 하버드 연구 = 36만 5,000명의 때 이른 죽음을 막았을 것(보수적 가정) · 다르푸르와 대략 비슷 · 르완다의 절반 가까이 · 샤프빌(1961 · 69명)의 5,000배
197 ¶5~198 ¶1	물음 · 변호	어떻게 평가할까(저자의 물음) / 죽일 의도 없음 · 독성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은 듯(appears) · 악의 없음 → 성품은 다르게 판단
198 ¶2~¶4	저자의 답	좋은 의도로는 모자람 · 검증 없이 고집한 것이 잘못 · 막고바의 경고 · 모틀란테 · 보건 장관 해임 · 아프리카 민족회의(비극 – 저자) / 틀리면 많은 죽음 → 증거를 공정하게 따질 가장 무거운 의무 → 수십만 명의 죽음에 책임
198 ¶5~199 ¶1	확장 · 결론	브라질 상원 조사 위원회(2021년 10월) · 미국(모두 접종했을 경우보다 16만 3,000명 더 사망) / 과학자는 틀릴 수 있어도 탐구의 방법인 과학은 거부하면 안 됨 · 생명이 걸리면 증거를 평가하지 않고 행동 = 몹시 무책임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GMO를 대하는 태도	GMO라는 생각 자체에 대한 전면 반대 – 일부 환경 단체에서는 충성 서약처럼 되어 이견을 배신으로 봄	규제는 유지하되 전면 반대는 다시 생각하고, 유전자 변형 식물마다 장점을 사안별로 따진다(저자)
규제의 기준	글리포세이트 내성 작물은 수백만 헥타르에서 상업 재배되는데, 위험이 밝혀진 적 없는 골든 라이스는 아직 못 내놓는 현실(저자가 말한 아이러니)	규제는 작물이 주는 이익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 어린이 50만 명의 실명을 막을 잠재력이 있는 작물은 위험이 좀 있어도 재배할 가치가 있다(저자)
골든 라이스와 기업	골든 라이스는 세계 농업을 지배하려는 생명공학 산업의 계획의 일부라는 주장(비판자들)	신젠타는 상품화하지 않고 인도주의 위원회에 권리를 넘겼고, 위원회는 보통 볍씨 값보다 비싸게 받지 않는 한 쌀을 제공할 권리를 지닌다(지금 필리핀에서 그렇게 함 – 저자가 든 사실)
합성 연구의 자금	벤터가 공동 창업한 회사가 자금을 대고 지식 재산권 · 특허 13건을 갖는 데 대한 비판	과학자 20명이 10년, 추정 4,000만 달러를 들인 일이니 상업 투자자는 당연한 자금원이다(저자)
생물 특허	생물에는 특허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 생물과 인공물의 구별에 기댐	지각 있는 존재의 특허에는 반대할 근거가 있지만, 아마 아무것도 못 느끼는 박테리아 · 조류를 뺄까닭은 보기 어렵고, 신시아가 그 구별에 도전한다(저자) – 다만 다른 과학자의 발견을 막는 광범위한 특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과 희망	합성 생물은 위험하니 그 자체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	방출은 유전자 변형 생물처럼 신중히 규제하되, 그 위험을 기후 변화 같은 다른 심각한 위협과 견주어야 하며 환경 재앙을 피하게 해 주리라는 희망이 더 클 수도 있다(저자, may)
음베키의 과학 판단	과학계의 합의를 거부하고 소수 이견파 과학자의 견해를 고수함(반대 증거가 압도적이 되어도)	에이즈 = HIV, 항레트로바이러스제가 생명을 구한다는 합의 – 약을 제공했다면 36만 5,000명의 때 이른 죽음을 막았을 것(하버드 연구의 추정)
좋은 의도	죽일 의도 · 악의가 없었으니 책임을 면한다는 결론(의도 ·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성품 판단은 저자도 인정)	걸린 것이 클 때 좋은 의도로는 모자라다 – 전문가의 검증 없이 고집한 것이 비난받을 까닭이다(저자)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증거를 다루는 법	소수 견해를 공정하고 열린 토론으로 검증받게 하지 않음 · 경고한 막고바를 비난한 음베키의 집무실	틀리면 많은 죽음이 따르므로 모든 증거를 두려움이나 편애 없이 공정하게 제시 · 검토하게 할 가장 무거운 의무가 있었다(저자)
과학을 대하는 태도	과학적 증거를 살피지 않고 백신 음모론을 퍼뜨림(소셜 미디어 – 저자는 무고한 사람을 죽게 했다고 봄)	과학자와는 의견이 달라도 탐구의 방법인 과학은 거부하면 안 되고, 생명이 걸리면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저자)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Greenpeace · Patrick Moore	국제 환경 비정부 기구 · 대개 시위를 이끔 → **2014년**에는 시위의 **표적** / 무어 = 시위의 **대변인** · 그린피스 **전** 회원 · 해마다 어린이 **200만 명**의 죽음에 공모했다고 비난(무어의 주장)
vitamin A deficiency	쌀이 **주식**인 어린이에게 흔함 · 무어의 수치 = **1990년대 초**에는 맞음 · 2014년엔 크게 줄어 있었음 · 아프리카 · 동남아시아 일부의 큰 보건 문제
WHO · 250,000~500,000	세계보건기구 = 해마다 취학 전 어린이 **25만~50만 명** 실명 · 그 가운데 약 **절반**이 **12개월** 안에 사망 · 홍역(예방 접종으로 줄어드는 중)에 걸리기 쉬움 · 일부 나라 산모 사망의 주요 요인
golden rice	베타카로틴(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뀜) 함량을 보통 쌀보다 높인 유전자 변형 쌀 · **2000년** 첫 생산 · **스위스** 과학자 · **2004년** 첫 시험 재배
Philippines · Bangladesh	필리핀의 시험 논밭을 활동가들이 파괴 · **2021년** 필리핀 = 재배 · 판매를 승인한 **첫** 나라 · 방글라데시 **2022년** 최종 승인 = 지지자들의 **바람**
Syngenta · Humanitarian Board	거대 농기업 신젠타 = 개발을 도왔으나 **상품화하지 않음** · 골든 라이스 인도주의 위원회(비영리 · **두** 공동 발명자 포함)에 재허가권 · 보통 볍씨 값보다 비싸게 받지 않는 한 공공 연구 기관 · 저소득 농민에게 제공
1980s · 1990s · Australian Greens	유전자 변형 작물 첫 개발 = **1980년대** · **1990년대** 저자 =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 **상원 의원 후보** · 강력한 규제를 주장
one-tenth · superweeds	지금 세계 경작지의 약 **10분의 1** · 우려한 재앙 없음 · 병을 일으킨다는 믿을 만한 과학적 증거 없음(자연 식품보다 철저히 검증) · 새 슈퍼 잡초 **지금까지** 없음
glyphosate · half a million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내성 작물 = **수백만 헥타르**에서 상업 재배 · 어린이 **50만 명**의 실명을 막을 잠재력이 있는 작물은 위험이 좀 있어도 재배할 가치 · 골든 라이스 = 위험이 밝혀진 적 없으나 아직 못 내놓음
Paracelsus · venter	**16세기** 연금술사 · 생명체 비법 · venter equinus = 흔히 '말똥'으로 옮기지만 라틴어 venter의 뜻은 **배 · 자궁**
Craig Venter · 2010	과학자 팀의 원동력 · **2010년** 합성 생명 발표 = 실험실에서 화학 물질로 설계 · 제작한 유전체를 지닌 **박테리아**
Synthia	복제 · 단백질 생산 → 살아 있음 · 자연 박테리아를 대부분 본뜸 · DNA 배열에 웹사이트 주소 · 연구자 이름 · 인용구(리처드 **파인먼**)
Art Caplan · Venter's words	펜실베이니아 대학 생명 윤리학자 = 역사적 의미의 발견(특별한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끄는 **듯**) / 벤터 = '거대한 철학적 변화' · '매우 강력한 도구 모음'(벤터의 말)
Synthetic Genomics	벤터가 **공동 창업** · 연구 자금 · 지식 재산권 · 특허 **13건** 출원 · 엑손모빌과 **6억 달러** 계약(조류에서 연료)
20 · a decade · $40 million	과학자 **20명** · **10년** · 추정 **4,000만 달러** · 상업 투자자 = 당연한 자금원(저자)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1980 · 1984	**1980년** 미국 대법원 = 기름 유출 청소용 유전자 변형 미생물에 특허 가능 · **1984년** 하버드 대학 **온코마우스**(암에 쉽게 걸리게 설계한 실험용 쥐)
ExxonMobil · Richardson · Patron	**2018년** 발표 = **2025년**까지 하루 **1만 배럴**의 조류 바이오 연료 생산을 **예상** / 신시아 발표 **6년** 뒤 리처드슨 · 패트런 = 벤터의 방법은 '흑백 브라운관 모니터를 사는 것만큼 끌리는'
Thabo Mbeki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1999~2008** · 과학계의 합의 거부(에이즈 = HIV · 항레트로바이러스제) · 소수 이견파 과학자 · 항레트로바이러스제에 독성이 있다고 믿은 **듯**
Nelson Mandela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저항 투사('영웅적' — 저자의 표현) · 첫 흑인 대통령 · 음베키의 **바로 앞** 대통령 · 음베키 지지자들에게 비난받음
Harvard · 365,000	보츠와나 · 나미비아 = 감염 시민 대다수에게 제공 / 하버드 연구 팀(**보수적** 가정) = 에이즈 환자 · 임신부에게 제공했다면 **36만 5,000명**의 때 이른 죽음을 막았을 것 · 다르푸르와 대략 비슷 · **1994년** 르완다 투치족 학살의 절반 가까이
Sharpeville 1961	**1961년** 경찰이 흑인 시위대에 총격 · **69명** 사망 · 훨씬 많은 부상 / 음베키 = 그 백인 경찰의 **5,000배**에 이르는 흑인의 죽음에 책임(하버드 연구가 보여 준다 — 저자)
Makgoba · Motlanthe	막고바 = 대표적 흑인 **면역학자** · 웃음거리 경고 → 음베키 집무실이 비난 / 모틀란테 = 후임 · 효과적 조치를 재빨리 / 음베키의 보건 장관(**마늘 · 레몬즙 · 비트**) = 곧바로 해임됨 · 아프리카민족회의 = 집권당
Brazil · October 2021	**2021년 10월** 상원 조사 위원회 = 보우소나루 등 형사 기소 **권고**(하이드록시클로로퀸 · 이버멕틴) · '부작위에 의한 살인' = 논의만 · 실제 기소는 예상되지 않음(검사 = 대통령의 정치적 우군)
USA · 163,000	코로나19 사망자가 브라질보다 많은 **유일한** 나라 · 트럼프 · 바이든 아래 모두 백신 지원 · 카이저 가족 재단 = **2021년 6월 1일~11월 30일** 인구 전체가 접종을 마쳤을 경우보다 **16만 3,000명** 더 사망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Golden Rice · Life Made to Order · The Cost of Being Unscientific (원서 PDF 191~194 · 197~199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9-1 사례 – 그린피스를 겨냥한 시위, 골든 라이스의 더딘 길 191쪽 ¶1 ~ 192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91쪽 ¶1 ~ 192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1쪽 ¶1 둘째 문장	But in 2014 it became the target of one.	연도 · 반전 – 시위를 이끌던 쪽이 표적
◆	191쪽 ¶1 셋째 문장	accused the organization of complicity in the deaths of two million children per year	무어의 비난 – 저자의 말 아님
▲	191쪽 ¶1 넷째 문장	vitamin A deficiency, which is common among children for whom rice is the staple food	계속적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191쪽 ¶1 다섯째 문장	These deaths could be prevented, Moore claimed, by the use of "golden rice,"	삽입절 Moore claimed – 누구의 말인지
★	191쪽 ¶2 첫 문장	Moore's mortality figures were correct for the early 1990s, but by 2014, the figures had, fortunately, dropped significantly	시점 – 내용 일치 · 과거완료
★	191쪽 ¶2 셋째 문장	it causes blindness in about 250,000–500,000 pre-school children every year, about half of whom die within 12 months	숫자 – 내용 일치 · 수량 + of whom
●	191쪽 ¶3 둘째 문장	lack of vitamin A is also a major factor in high rates of maternal mortality	다른 편 지문에 끼울 무관한 문장 재료
★	191쪽 ¶4 첫~셋째 문장	Golden rice was first produced in 2000. … Swiss scientists … The first field trials were conducted in 2004.	연도 – 서답형
▲	191쪽 ¶4 다섯째 문장	Further field trials had to be carried out to meet the strict regulations governing the release of GMOs.	had to be p.p. · 현재분사 후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1쪽 ¶4 여섯째 문장	That hurdle was raised higher when activists destroyed fields in the Philippines	밑줄 의미 1순위
▲	191쪽 ¶4 일곱째 문장	It was not until 2021 that the Philippines became the first country to approve golden rice	It was not until ~ that · 연도
★	191쪽 ¶4 여덟째 문장	Proponents hope that it will receive final approval in Bangladesh in 2022.	지지자들의 바람 — 승인 단정 금지
◆	191쪽 ¶5 첫~둘째 문장	Critics have suggested ... It is true that the agribusiness giant Syngenta did assist	비판자의 말 → 양보(It is true that) · 강조의 did
★	192쪽 첫 줄 (¶5 셋째 문장)	Instead, Syngenta has given the right to sub-license the rice to a nonprofit organization	주어진 문장 자리 — 삽입
▲	192쪽 첫 줄 (¶5 넷째 문장)	as long as it does not charge more for it than the price for ordinary rice seeds	조건 as long as — 내용 일치

내용

국제 환경 비정부 기구인 그린피스는 대개 시위를 이끄는 쪽이다. 그러나 2014년에는 그린피스가 시위의 표적이 되었다. 그해 시위의 대변인이자 그린피스의 전 회원인 패트릭 무어는, 그린피스가 해마다 어린이 200만 명이 죽는 데 공모했다고 비난했다. 무어가 가리킨 것은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한 죽음이었다. 비타민 A 결핍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흔하다. 무어의 주장에 따르면 이 죽음은 '골든 라이스'로 막을 수 있었다. 골든 라이스는 보통 쌀보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쌀이다. 그린피스는 유전자 변형 생물(GMO)의 사용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사람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베타카로틴의 도입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왔다. 무어가 든 사망자 수는 1990년대 초에는 맞았지만, 다행히 2014년에는 크게 줄어 있었다. 그래도 어린이의 비타민 A 결핍은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큰 보건 문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비타민 A 결핍 때문에 해마다 취학 전 어린이 약 25만~50만 명이 시력을 잃고, 그 가운데 약 절반이 12개월 안에 죽는다. 이 결핍은 홍역 같은 병에 걸리기 쉽게 만들기도 한다. 홍역은 예방 접종 덕분에 줄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중요한 사망 원인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비타민 A 부족이 임신과 출산 중 산모 사망률이 높은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골든 라이스는 2000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비타민 A 결핍을 해결하려는 목표로 스위스 과학자들이 몇 해 동안 연구한 결과였다. 첫 시험 재배는 2004년에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가장 필요한 곳에서 잘 자랄 개량 품종을 개발해야 했다. 그 뒤에는 GMO의 방출을 규제하는 엄격한 규정을 충족하려고 시험 재배를 더 해야 했다. 시험 재배가 진행되던 필리핀의 논밭을 활동가들이 망가뜨리자 이 장애물은 더 높아졌다. 2021년이 되어서야 필리핀이 농민들이 골든 라이스를 재배하고 팔 수 있도록 승인한 첫 나라가 되었다. 지지자들은 2022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최종 승인이 나기를 바란다. 비판자들은 골든 라이스가 생명공학 산업이 세계 농업을 지배하려고 세운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다. 거대 농기업 신젠타가 이 쌀의 개발을 도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회사는 쌀을 상품화하려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골든 라이스 인도주의 위원회'라는 비영리 단체에 이 쌀의 사용을 다시 허가할 권리(재허가권)를 주었다. 두 공동 발명자가 들어 있는 이 위원회는, 보통 볍씨 값보다 비싸게 받지 않는 한 개발도상국의 공공 연구 기관과 저소득 농민에게 인도주의적 용도로 쌀을 제공할 권리를 지닌다. 지금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어법

- **Patrick Moore ... accused the organization of complicity in the deaths of two million children per year.** : accuse A of B = A를 B라는 이유로 비난하다(B 자리에 명사 · 동명사). per year = 해마다. the organization = 그린피스(같은 대상을 다른 말로 받기).
- **He was referring to deaths resulting from vitamin A deficiency, which is common among children for whom rice is the staple food.** : resulting from = deaths를 꾸미는 현재분사 후치(~에서 비롯된). which = 계속적 관계대명사(선행사 vitamin A deficiency → 단수 is). for whom = rice is the staple food for children의 for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 **These deaths could be prevented, Moore claimed, by the use of "golden rice," a form of the grain that has been genetically modified to have a higher beta-carotene content than ordinary rice.** : Moore claimed = 삽입절(무어의 주장임을 밝힘). could be prevented = 조동사 + 수동. a form of the grain = golden rice와 동격. that has been modified = 현재완료 수동의 관계절. to have = 목적의 to부정사.
- **Moore's mortality figures were correct for the early 1990s, but by 2014, the figures had, fortunately, dropped significantly.** : by + 과거 시점(2014) + 과거완료(had dropped) = 그때까지 이미 ~해 있었다. fortunately = 문장 부사 삽입.
- **it causes blindness in about 250,000–500,000 pre-school children every year, about half of whom die within 12 months** : 수량 표현 + of whom = and about half of them(계속적 용법). whom = 앞의 children(복수 → die).
- **It was not until 2021 that the Philippines became the first country to approve golden rice for farmers to grow and sell.** : It was not until A that B = A가 되어서야 비로소 B했다. the first ~ to V = ~한 첫 번째. for farmers = to grow and sell의 의미상 주어.
- **It is true that the agribusiness giant Syngenta did assist in developing the genetically modified rice; but the company has not sought to commercialize it.** : It is true that ~; but ... = ~인 것은 사실이지만(양보 뒤 반박). did assist = 강조의 did. assist in -ing. seek to V = ~하려고 하다(has not sought = 현재완료).
- **The board ... has the right to provide the rice ... for humanitarian use, as long as it does not charge more for it than the price for ordinary rice seeds.** : the right to V = ~할 권리. as long as = ~하는 한(조건). charge more than = ~보다 비싸게 받다. 첫 it = 위원회, 둘째 it = 쌀.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mplicity	공모, 연루	involvement	innocence
deficiency	결핍	shortage	sufficiency
staple (a.)	주된, 기본의	basic	—
mortality	사망(률)	death rate	—
significantly	크게, 상당히	considerably	slightly
susceptibility	걸리기 쉬움, 취약성	vulnerability	resistance
maternal	어머니의, 산모의	of mothers	paternal
thrive	잘 자라다	flourish	wither
hurdle	장애물	obstacle	—
activist	활동가	campaigner	—
proponent	지지자	advocate	opponent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ominate	지배하다	control	—
commercialize	상품화하다	market	—
humanitarian	인도주의적인	charitable	—

내용 일치 그린피스 = 대개 시위를 이끔 · 2014년 시위의 '표적' · 무어 = 시위의 대변인 · 그린피스 '전' 회원 · 해마다 어린이 200만 명의 죽음에 공모했다고 비난(무어의 주장) · 비타민 A 결핍 = 쌀이 주식인 어린이에게 흔함 · 골든 라이스로 막을 수 있다(Moore claimed) · 베타카로틴 함량을 보통 쌀보다 높게 변형 · 사망자 수 = 1990년대 초에는 맞음 · 2014년에는 크게 줄어 있었음 · 그래도 아프리카 · 동남아시아 일부에서 큰 문제 · 세계보건기구 = 해마다 취학 전 어린이 25만~50만 명 실명 · 약 절반이 12개월 안에 사망 · 홍역(예방 접종으로 줄어드는 중) · 산모 사망 · 2000년 첫 생산 · 스위스 과학자 · 2004년 첫 시험 재배 · 필리핀 시험 논밭 파괴 · 2021년 필리핀이 첫 승인 · 방글라데시 2022년 최종 승인은 지지자들의 '바람' · 신젠타 = 개발을 도왔으나 상품화하지 않음 · 골든 라이스 인도주의 위원회(비영리 · 두 공동 발명자 포함) · 보통 볍씨 값보다 비싸게 받지 않는 한 · 지금 필리핀에서 그렇게 하고 있음. **밑줄 의미** the target of one = 시위를 이끌던 그린피스가 이번에는 시위를 당하는 쪽 / complicity in the deaths = 골든 라이스에 반대해 막을 수 있는 죽음에 한몫했다는 무어의 비난 / That hurdle was raised higher = 엄격한 규정을 충족할 시험 재배가 활동가들의 파괴로 더 어려워짐 / 191쪽 ¶1 it became · the organization = 그린피스 · He was referring = 무어 / ¶2 it causes = 비타민 A 결핍 · whom = 시력을 잃은 어린이들 / ¶4 It was the outcome = 골든 라이스 · they are most needed = 개량 품종 / ¶5 it = 골든 라이스 · 192쪽 첫 줄 The board = 골든 라이스 인도주의 위원회 · That = 위원회가 쌀을 제공하는 일.

> **한 줄 요약** 골든 라이스로 막을 수 있는 비타민 A 결핍의 피해는 여전히 크지만 엄격한 규정과 활동가들의 파괴로 승인이 더뎠고, 개발을 도운 신젠타는 상품화하지 않고 인도주의 위원회에 권리를 넘겼다.

9-2 저자의 과거와 답 — 위험과 이익의 저울질, 사안별 판단 192쪽 ¶1 ~ ¶6

원문 위치 원서 192쪽 ¶1 ~ ¶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2쪽 ¶1 첫 문장	When genetically modified crops were first developed in the 1980s	연대 — 출발점
▲	192쪽 ¶1 셋째 문장	Might they not cross-pollinate with wild plants, passing on the special qualities they were given	부정 의문 · 분사구문 — 어법 지문
★	192쪽 ¶1 넷째 문장	In the 1990s, as a Senate candidate for the Australian Greens, I was among those who argued for strong regulations	저자의 경력 — 연대 · 정당
▲	192쪽 ¶1 넷째 문장	to prevent biotech companies putting our health, or that of the environment, at risk	prevent + O + -ing · that of
★	192쪽 ¶2 첫 문장	now grown on about one-tenth of the world's cropland	숫자 — 서답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2쪽 ¶2 첫 문장	none of the disastrous consequences that we Greens feared have come to pass	none of + 복수 · 동격 we Greens
◆	192쪽 ¶2 둘째 문장	There is no reliable scientific evidence that GM foods cause illness, despite the fact that	동격 that · despite the fact that — 어법 (C)
◆	192쪽 ¶3 둘째 문장	perhaps the regulations ... played a role in that outcome	perhaps — 단정 금지
★	192쪽 ¶3 다섯째 문장	What needs to be rethought, however, is blanket opposition to the very idea of GMOs.	저자의 주장 · what절 주어
★	192쪽 ¶4 첫 문장	risks need to be weighed against possible benefits	요지 1순위
▲	192쪽 ¶4 둘째 문장	where those benefits are great, a more significant risk may well be worth taking	where 부사절 · may well · worth -ing
★	192쪽 ¶5 둘째 문장	would be worth growing even if it does involve some risks	50만 명 · 강조의 does
◆	192쪽 ¶5 셋째 문장	The irony is that glyphosate-resistant crops are grown commercially on millions of hectares	아이러니 — 요지 지문
◆	192쪽 ¶6 첫 문장	blanket opposition to GMOs is like taking a loyalty oath	비유 — 주장 지문
★	192쪽 ¶6 넷째 문장	We should consider the merits of each genetically modified plant on a case-by-case basis.	저자의 결론 — 주장

내용

유전자 변형 작물이 1980년대에 처음 개발되었을 때에는 조심할 근거가 있었다. 이 작물을 먹어도 안전할까? 해충 저항성처럼 사람이 넣어 준 특별한 성질을 야생 식물과의 타가 수분으로 옮겨, 새로운 '슈퍼 잡초'를 만들어 내지는 않을까? 1990년대에 저자는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의 상원 의원 후보로서, 생명공학 기업들이 이윤을 늘리려고 우리의 건강이나 환경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주장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 유전자 변형 작물은 세계 경작지의 약 10분의 1에서 재배되고 있고, 저자를 비롯한 녹색당 사람들이 두려워한 재앙 같은 결과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자연' 식품보다 더 철저한 검증을 받았는데도, 그것이 병을 일으킨다는 믿을 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 유전자 변형 작물과 야생 식물 사이의 타가 수분은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새로운 슈퍼 잡초는 나타나지 않았다. 저자는 우리가 이를 반가워해야 하며, 어쩌면 환경 단체들이 내놓은 우려에 대응해 도입된 규제가 그 결과에 한몫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환경과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는 규제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GMO라는 생각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라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어떤 혁신이든 위험을 가능한 이익과 견주어 따져야 한다. 이익이 작으면 작은 위험도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익이 크면 더 큰 위험도 충분히 감수할 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예를 들어 규제가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에 내성이 있는 작물(농민이 잡초를 다스리기 쉽게 해 준다)을 내놓는 것과, 가뭄에 견디고 저소득 국가의 가뭄이 잦은 지역에 알맞은 작물을 내놓는 것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50만 명의 실명을 막을 잠재력이 있는 작물이라면 얼마간 위험이 따르더라도 재배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자가 짚는 아이러니는, 글리포세이트 내성 작물은 수백만 헥타르의 땅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반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조금이라도 위험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진 적이 없는 골든 라이스는 아직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어떤 환경 단체들 안에서는 GMO에 대한 전면 반대가 충성 서약과 같아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사악한 생명공학 산업과 한패인 배신자로 여겨진다고 말하며, 이제는 이처럼 편협한 이념적 태도(저자의 표현)를 넘어설 때라고 본다. 저자에 따르면 어떤 GMO는 공중 보건에서, 또 어떤 GMO는 기후 변화 시대에 식량을 기르는 과제에서 쓸모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저자는 유전자 변형 식물 하나하나의 장점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어법

- **Might they not cross-pollinate with wild plants, passing on the special qualities they were given, such as resistance to pests, and so create new "superweeds"?** : Might ~ not = 부정 의문(혹시 ~하지 않을까). passing on = 동시 상황의 분사구문. the special qualities (that) they were given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수동(they were given the qualities). cross-pollinate와 create가 and so로 병렬(Might 뒤 원형).
- **I was among those who argued for strong regulations to prevent biotech companies putting our health, or that of the environment, at risk in order to increase their profits.** : be among those who =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prevent + O + (from) -ing — 여기서는 from 없이 동명사. that of the environment = the health of the environment(반복을 피하는 that). put ~ at risk = ~을 위험에 빠뜨리다. in order to V = 목적.
- **none of the disastrous consequences that we Greens feared have come to pass** : none of + 복수 명사 → 여기서는 복수 동사 have(단수 has도 쓰인다). we Greens = 동격(우리 녹색당 사람들 — 저자도 포함).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 come to pass = 일어나다.
- **There is no reliable scientific evidence that GM foods cause illness,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ve received more intense scrutiny than "natural" foods.** : evidence that = 동격 that(증거의 내용). despite는 전치사라 뒤에 절이 바로 올 수 없어 the fact that + 절. they = GM foods → have received(현재완료).
- **perhaps the regulations that were introduced in response to the concerns expressed by environmental organizations played a role in that outcome** : 주어 the regulations + that were introduced(관계절) + expressed(과거분사 후치) → 동사 played. perhaps = 단정이 아닌 추측. in response to = ~에 대응하여. play a role in = ~에 한몫하다.
- **What needs to be rethought, however, is blanket opposition to the very idea of GMOs.** : what절 주어 → 단수 동사 is. needs to be p.p. = ~될 필요가 있다. the very + 명사 = 바로 그 ~(강조). opposition to = ~에 대한 반대(to는 전치사).
- **Where the benefits are minor, even a small risk may not be justified; where those benefits are great, a more significant risk may well be worth taking.** : where = ~하는 경우에(부사절 접속사). may well = 충분히 ~할 만하다(아마 ~일 것이다). be worth -ing = ~할 가치가 있다(taking은 능동형 동명사지만 뜻은 '감수될').
- **a GM crop that has the potential to prevent blindness in a half-million children would be worth growing even if it does involve some risks** : 주어 a GM crop(단수) + that절 → would be. the potential to V = ~할 잠재력. even if = 설령 ~하더라도. does involve = 강조의 doe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ross-pollinate	타가 수분하다	—	self-pollinate
resistance	저항(성), 내성	immunity	susceptibility
regulation	규제	control	deregulation
cropland	경작지	farmland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isastrous	재앙 같은	catastrophic	beneficial
reliable	믿을 만한	dependable	unreliable
scrutiny	철저한 검토, 검증	examination	—
blanket (a.)	전면적인, 일괄적인	sweeping	selective
innovation	혁신	novelty	—
herbicide	제초제	weedkiller	—
irony	아이러니, 역설	paradox	—
traitor	배신자	betrayer	loyalist
ideological	이념적인	doctrinaire	pragmatic
merit	장점	advantage	drawback

내용 일치 1980년대 처음 개발 = 조심할 근거가 있었음 · 먹어도 안전한가 · 타가 수분으로 슈퍼 잡초? · 1990년대 저자 =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 상원 의원 '후보' · 강력한 규제 주장 · 지금 세계 경작지의 약 10분의 1 · 녹색당이 두려워한 재앙 = 하나도 일어나지 않음 · 병을 일으킨다는 믿을 만한 과학적 증거 없음(자연 식품보다 더 철저히 검증) · 타가 수분은 일어날 수 있으나 새 슈퍼 잡초는 지금까지 없음 · 규제가 한몫했을 '수도'(perhaps) · 규제는 유지 · 다시 생각할 것 = GMO라는 생각 자체에 대한 전면 반대 · 위험과 이익을 견줌 · 이익이 작으면 작은 위험도 정당화 안 될 '수' 있음 · 글리포세이트 내성 작물 vs 가뭄에 견디는 작물 · 어린이 50만 명의 실명을 막을 잠재력이 있는 작물 = 위험이 좀 있어도 재배할 가치 · 아이러니 = 글리포세이트 내성 작물은 수백만 헥타르 · 위험이 밝혀진 적 없는 골든 라이스는 아직 못 내놓음 · 어떤 환경 단체에서 전면 반대 = 충성 서약 · 이견 = 배신자 · 편협한 이념적 태도를 넘어설 때 · 공중 보건 · 기후 변화 시대의 식량에 쓸모 있을 '수도'(may) · 사안별로 판단(저자의 결론). **밑줄 의미** we Greens = 저자도 그 녹색당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 blanket opposition to the very idea of GMOs = 작물마다 따지지 않고 GMO라는 것 자체를 통째로 거부함 / a more significant risk may well be worth taking = 이익이 크면 더 큰 위험도 감수할 만하다 / like taking a loyalty oath = GMO 반대가 따져 볼 문제가 아니라 무리에 속하려면 지켜야 할 서약이 됨 / 192쪽 ¶1 they = 유전자 변형 작물 · their profits = 생명공학 기업 / ¶2 they have received = 유전자 변형 식품 / ¶3 that outcome = 새 슈퍼 잡초가 나타나지 않은 일 / ¶4 those benefits = 혁신의 이익 / ¶5 it does involve = 실명을 막을 잠재력이 있는 작물 / ¶6 others = 다른 GMO.

> **한 줄 요약** 저자는 1990년대에 강력한 규제를 주장했지만 우려한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규제는 유지하되 GMO 전면 반대는 다시 생각하고 위험과 이익을 견주어 작물마다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9-3 사례와 반론 — 합성 생명 신시아, '신 노릇'과 생명력 193쪽 ¶1 ~ ¶6

원문 위치 원서 193쪽 ¶1 ~ ¶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3쪽 ¶1 첫 문장	the alchemist Paracelsus offered a recipe for creating a living being	도입 — 16세기 연금술사
★	193쪽 ¶1 둘째 문장	usually translated as "horse manure," but the Latin venter means abdomen or uterus	말장난의 고리 — Venter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3쪽 ¶2	So occultists may appreciate the fact that Craig Venter was the driving force	may · 동격 that — 말장난
★	193쪽 ¶2	in 2010 announced that they had created a synthetic form of life	연도 — 서답형 · 과거완료
★	193쪽 ¶2	a bacterium with a genome designed and created from chemicals in a laboratory	정의 — 제목 지문
★	193쪽 ¶3 첫~둘째 문장	nicknamed "Synthia," replicates and produces proteins. By any reasonable definition, it is alive.	내용 일치 · 제목
▲	193쪽 ¶3 셋째 문장	Although it is very similar to a natural bacterium from which it was largely copied	양보 although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193쪽 ¶3 셋째 문장	put distinctive strings of DNA into its genome to prove that it is not a natural object	목적의 to부정사
★	193쪽 ¶3 넷째 문장	a website address, the names of the researchers, and apt quotations, such as Richard Feynman's	DNA에 새긴 것 셋
▲	193쪽 ¶4 첫 문장	synthetic biology has been looming as the next big issue in bioethics	현재완료진행 — 어휘 지문
◆	193쪽 ¶4 둘째 문장	expected to be told that they were "playing God," and they were not disappointed	반어 — 어휘 지문
▲	193쪽 ¶4 셋째 문장	this comes as close to "playing God" as humans have come, so far	as ~ as · 조건 If one believes
◆	193쪽 ¶5 첫 문장	"would seem to extinguish the argument that life requires a special force or power to exist"	캐플런의 말 — 어휘 문항 교체 자리
◆	193쪽 ¶5 둘째 문장	"a giant philosophical change in how we view life"	벤터의 말 — 저자의 주장 아님
◆	193쪽 ¶6 첫 문장	they put it into a cell from another bacterium, replacing that cell's DNA	반론 — 다른 사람들의 지적
▲	193쪽 ¶6 둘째 문장	We have yet to build a living organism entirely from bottles of chemicals	have yet to V · will no doubt

내용

16세기의 연금술사 파라켈수스는 생명체를 만드는 비법을 내놓았는데, 그 첫 단계는 정액을 썩어 가는 venter equinus에 넣는 것이었다. 이 말은 흔히 '말똥'으로 옮겨지지만, 라틴어 venter는 배나 자궁을 뜻한다. 그러니 신비주의자들이라면, 2010년에 합성 생명체를 만들었다고 발표한 과학자 팀을 이끈 원동력이 크레이그 벤터였다는 사실을 반길지도 모른다. 그 합성 생명체는 실험실에서 화학 물질로 설계하고 만든 유전체를 지닌 박테리아였다. '신시아'라는 별명이 붙은 이 새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고 단백질을 만든다. 어떤 합리적 정의로 보아도 그것은 살아 있다. 신시아는 대부분을 본뜬 자연 박테리아와 매우 비슷하지만, 만든 이들은 그것이 자연물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유전체에 독특한 DNA 배열을 넣었다. 이 배열은 암호로 웹사이트 주소와 연구자들의 이름, 그리고 리처드 파인먼의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 같은 어울리는 인용구를 적어 놓았다. 몇 해 전부터 합성 생물학은 생명 윤리의 다음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J. 크레이그 벤터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신 노릇을 한다'는 말을 들으리라 예상했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생명을 신이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지금까지 인간이 '신 노릇'에 가장 가까이 간 일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이름난 생명 윤리학자 아트 캐플런은 이 성과가 '생명이 존재하려면 특별한 힘이나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꺼버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므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발견에 든다고 말한다. 벤터는 팀이 한 일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보는 방식에 거대한 철학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들은, 팀이 합성 유전체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것을 다른 박테리아에서 가져온 세포에 넣어 그 세포의 DNA를 대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인간은 아직 병에 든 화학 물질만으로 살아 있는 생물을 통째로 만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신적 존재만이 생명 없는 물질에 불어넣을 수 있는 '생명력'을 믿는 사람은, 그 생명력이 이미 세포 안에 있었고 세포의 DNA가 바뀐 뒤에도 살아남았다고 틀림없이 주장할 것이다.

어법

- the alchemist Paracelsus offered a recipe for creating a living being that began with putting sperm into putrefying venter equinus : the alchemist와 Paracelsus = 동격. for + 동명사(creating).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recipe) → began with + 동명사(putting). putrefying = 현재분사 전치(썩어 가는).
- So occultists may appreciate the fact that Craig Venter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team of scientists that in 2010 announced that they had created a synthetic form of life : the fact that = 동격 that. 둘째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team of scientists, 사이에 in 2010). had created = 과거완료(발표보다 만든 일이 먼저). may = ~할지도 모른다.
- Although it is very similar to a natural bacterium from which it was largely copied, the creators put distinctive strings of DNA into its genome to prove that it is not a natural object. : from which = copy A from B의 from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put = 과거형(put-put-put). to prove = 목적의 to부정사. prove that + 절.
- For some years now, synthetic biology has been looming as the next big issue in bioethics. : has been looming = 현재완료진행(for some years now와 함께 — 몇 해 전부터 지금까지). loom = (크게) 떠오르다 · 다가오다.
- If one believes that life was created by God, then this comes as close to "playing God" as humans have come, so far. : one = 일반 주어(사람). as close to A as ~ have come = 지금까지 ~가 가 본 가장 가까운 곳(원급 비교로 최상의 뜻). this = 합성 생명체를 만든 일.
- Asked about the significance of what the team had done, Venter described it as bringing about "a giant philosophical change in how we view life." : Asked ~ = When he was asked ~(수동 분사구문).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한 것). describe A as B — as 뒤 동명사(bringing about). in how we view life = 전치사 + how절.
- although the team produced a synthetic genome, they put it into a cell from another bacterium, replacing that cell's DNA : although = 양보. team을 they로 받음(구성원들). replacing = 결과의 분사구문(그리하여 그 세포의 DNA를 대신함).
- We have yet to build a living organism entirely from bottles of chemicals, so anyone who believes in a "life force" that only a divine being could imbue into inert matter will no doubt claim that the life force was

already in the cell : have yet to V = 아직 ~하지 못했다. 주어 anyone who believes … matter가 길고 동사는 will claim.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imbue A into B의 A). no doubt = 틀림없이.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lchemist	연금술사	—	—
recipe	비법, 조리법	formula	—
putrefy	썩다	rot	—
occultist	신비주의자	mystic	skeptic
synthetic	합성의, 인공의	artificial	natural
genome	유전체	—	—
replicate	복제하다	reproduce	—
distinctive	독특한	characteristic	ordinary
apt	적절한, 어울리는	fitting	inappropriate
loom	(크게) 떠오르다	emerge	recede
extinguish	(불 · 생각을) 끄다, 없애다	eliminate	ignite
significance	의의, 중요성	importance	insignificance
imbue	불어넣다	instill	—
inert	생명 없는, 움직이지 않는	lifeless	animate

내용 일치 파라켈수스 = 16세기 연금술사 · 생명체 비법 · venter equinus = 흔히 '말똥' · 라틴어 venter = 배 · 자궁 · 신비주의자는 반길 '수도'(may) · 크레이그 벤터 = 팀의 원동력 · 2010년 발표 · 실험실에서 화학 물질로 설계 · 제작한 유전체를 지닌 박테리아 · 신시아 = 복제 · 단백질 생산 · 살아 있음 · 대부분을 본뜬 자연 박테리아와 매우 비슷 · 자연물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DNA 배열 · 웹사이트 주소 · 연구자 이름 · 인용구(파인먼) · 합성 생물학 = 생명 윤리의 다음 큰 쟁점 · '신 노릇' 비판을 예상했고 그대로 들음 · 신의 창조를 믿는다면 지금까지 가장 가까움(조건) · 캐플런(펜실베이니아 대학) = 역사적 의미(특별한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끄는 '듯' — would seem) · 벤터 = 거대한 철학적 변화(벤터의 말) · 다른 사람들 = 다른 박테리아의 세포에 넣어 DNA를 대체 · 화학 물질만으로 만든 적은 아직 없음 · 생명력을 믿는 사람은 생명력이 세포에 이미 있었다고 주장할 것(저자는 판정하지 않음). **밑줄 의미** venter = 말똥(배 · 자궁)과 벤터의 이름을 잇는 말장난 / they were not disappointed = 예상대로 '신 노릇'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 extinguish the argument = 생명에는 특별한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없애는 듯함(캐플런) / the life force was already in the cell = 남의 세포를 빌렸으니 생명력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는 반론 / 193쪽 ¶2 they had created = 벤터의 과학자 팀 / ¶3 it is alive · it was largely copied = 신시아 · These strings = DNA 배열 / ¶4 this comes as close = 합성 생명체를 만든 일 / ¶5 it = 팀이 한 일 / ¶6 they put it = 팀 · 합성 유전체.

> **한 줄 요약** 벤터의 팀이 2010년에 실험실에서 만든 유전체로 살아 있는 박테리아 신시아를 만들자 '신 노릇'이라는 비판과 역사적 발견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다른 박테리아의 세포를 썼으니 생명력은 이미 세포에 있었다는 반론도 남는다.

9-4 쟁점과 저자의 답 — 생명 특허, 쓸모와 위험의 저울질 193쪽 ¶7 ~ 194쪽 ¶5

원문 위치 원서 193쪽 ¶7 ~ 194쪽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3쪽 ¶7 첫 문장	the team's work has produced "a very powerful set of tools" for redesigning life	벤터의 말 — 실용적 의의
★	193쪽 ¶7 둘째 문장 ~ 194쪽 첫 줄	funded by Synthetic Genomics, a company that he co-founded … has already filed for 13 patents	비판 · 숫자
★	194쪽 첫 줄 (¶7 셋째 문장)	the work has taken 20 scientists a decade to complete, at an estimated cost of $40 million	숫자 — take + 사람 + 시간 + to V
◆	194쪽 첫 줄 (¶7 셋째 문장)	commercial investors are an obvious source for such funds	저자의 답 — 비판에 대한 변호
★	194쪽 ¶1 둘째 문장	That battle was lost in 1980, when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연도 — 순서 배열
★	194쪽 ¶1 셋째 문장	Patenting life was taken a step further in 1984, when Harvard University successfully applied for a patent on its "oncomouse"	연도 — 순서 배열
▲	194쪽 ¶1 셋째 문장	specifically designed to get cancer easily, so that it would be more useful as a research tool	과거분사 후치 · so that
◆	194쪽 ¶1 넷째 문장	There are good grounds for objecting to turning a sentient being into a patented laboratory tool	저자의 구분 — 지각 있는 존재
▲	194쪽 ¶1 넷째 문장	it is not so easy to see why patent law should not cover newly designed bacteria or algae, that presumably can feel nothing	presumably · 가주어 it
◆	194쪽 ¶2	Synthia's very existence challenges the distinction between living and artificial	저자의 주장 · 단서(not to approve)
★	194쪽 ¶3 첫 문장	had to compete for headlines with news of the world's worst-ever oil spill	사건 — 내용 불일치
★	194쪽 ¶3 넷째~다섯째 문장	a $600 million agreement with ExxonMobil … In 2018 … 10,000 barrels of algae biofuel per day by 2025	숫자 · 연도 — 예상일 뿐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4쪽 ¶4 첫 문장	Synthetic biology has expanded rapidly in the years since 2010, but not by using the methods Venter's team used	전환 — 밑줄 지문
◆	194쪽 ¶4 둘째 문장	"as appealing as buying monochrome cathode ray tube monitors"	밑줄 의미 1순위 · 리처드슨과 패트런의 말
▲	194쪽 ¶5 첫 문장	the release of any synthetic organism must be carefully regulated, just like the release of any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조동사 + 수동 · just like
◆	194쪽 ¶5 넷째 문장	the risks of synthetic biology may be outweighed by the hope that it will enable us to avert a looming environmental catastrophe	저자의 결론(may) · 동격 that

내용

벤터는 더 실용적인 차원에서 팀의 연구가 생명을 다시 설계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 모음'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벤터는 이 연구의 자금을 자기가 공동 창업한 회사 신세틱 지노믹스가 댔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아 왔다. 이 회사는 연구에서 나오는 지식 재산권을 갖게 되며, 이미 관련 특허 13건을 출원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연구가 과학자 20명이 10년에 걸쳐, 추정 비용 4,000만 달러를 들여 끝낸 일이며, 그런 자금을 댈 곳으로 상업 투자자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생물에 특허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싸움은 1980년에 이미 졌다. 그해 미국 대법원은 기름 유출을 청소하도록 설계한 유전자 변형 미생물에 특허를 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1984년에는 생명에 대한 특허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하버드 대학이 '온코마우스'에 대한 특허를 얻은 것이다. 온코마우스는 연구 도구로 더 쓸모 있도록 암에 쉽게 걸리게 특별히 설계한 실험용 쥐다. 저자는 지각 있는 존재를 특허받은 실험 도구로 바꾸는 데에는 반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어떤 발명품 못지않게 쓸모 있을 수 있는, 새로 설계한 박테리아나 조류에 특허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까닭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신시아의 존재 자체가, '생명 특허'에 대한 반대의 상당 부분이 기대고 있는 생물과 인공물의 구별에 도전한다. 다만 저자는 이를 지적한다고 해서, 이 중요한 새 분야에서 다른 과학자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을 막는 광범위한 특허를 주는 데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합성 박테리아가 쓸모 있으리라는 점은, 신시아의 탄생이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소식과 머리기사를 다투어야 했다는 사실이 어떤 홍보보다 효과적으로 보여 주었다. 언젠가는 기름 유출을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박테리아를 설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벤터가 내놓은 가장 흥미로운 전망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디젤 연료나 휘발유를 만드는 조류다. 신세틱 지노믹스는 조류에서 연료를 얻으려고 엑손모빌과 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2018년 엑손모빌은 2025년까지 하루 1만 배럴의 조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합성 생물학은 2010년 이후 빠르게 커졌지만, 벤터의 팀이 쓴 방법으로 커진 것은 아니었다. 신시아 창조가 극적으로 발표된 지 겨우 6년 뒤, 새로운 기법들이 나타나자 이 분야의 연구자 세라 리처드슨과 니콜라 패트런은 벤터의 방법으로 합성 생물을 만드는 것이 '흑백 브라운관 모니터를 사는 것만큼이나 끌리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어떤 합성 생물이든 그것을 내놓는 일은 유전자 변형 생물을 내놓는 일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저자는 어떤 위험이든 우리가 마주한 다른 심각한 위협과 견주어 따져야 하며, 기후 변화가 분명히 그런 위협이라고 말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합성 생물학이 다가오는 환경 재앙을 피하게 해 주리라는 희망이 그 위험보다 클 수도 있다.

어법

- **He has been criticized for the fact that the research was funded by Synthetic Genomics, a company that he co-founded, which will hol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ing from the research** : has been criticized = 현재완료 수동. criticize A for B. the fact that = 동격. a company = Synthetic Genomics와 동격. which = 계속적 관계대명사(선행사 Synthetic Genomics). resulting from = 현재분사 후치.
- **But the work has taken 20 scientists a decade to complete, at an estimated cost of $40 million** : take + 사람 + 시간 + to V = ~가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at a cost of = ~의 비용으로. estimated = 과거분사 전치(추정된).
- **That battle was lost in 1980, when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designed to clean up oil spills could be patented.** : when = 계속적 관계부사(선행사 1980 — 그런데 그해에). designed to V = microorganism을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 could be patented = 시제 일치 + 수동.
- **There are good grounds for objecting to turning a sentient being into a patented laboratory tool** : grounds for -ing = ~할 근거. object to + -ing(to는 전치사). turn A into B = A를 B로 바꾸다. patented = 과거분사 전치.
- **it is not so easy to see why patent law should not cover newly designed bacteria or algae, that presumably can feel nothing and may be as useful as any other invention** : 가주어 it + 진주어 to see. why절 = 간접의문문. 쉼표 뒤 that = bacteria or algae를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계속적 용법에는 보통 which를 쓰지만 원문은 that). presumably = 아마(추정). as ~ as any other = 다른 어느 ~ 못지않게.
- **the fact that Synthia's birth had to compete for headlines with news of the world's worst-ever oil spill made the point more effectively than any public relations effort could have done** : 주어 the fact(동격 that절이 꾸밈) → 동사 made. compete for A with B = B와 A를 두고 다투다. could have done = ~할 수 있었을 것(가정의 뜻) · done = made the point를 대신함.
- **the emergence of newer techniques led Sarah Richardson and Nicola Patron, researchers in the field, to suggest that using Venter's methods for creating synthetic organisms would be "as appealing as buying monochrome cathode ray tube monitors."** : lead + O + to V = O가 ~하게 이끌다. researchers in the field = 두 사람과 동격. that절 주어 = 동명사구 using Venter's methods … organisms → would be. as appealing as -ing = ~하는 것만큼 끌리는(반어).
- **the risks of synthetic biology may be outweighed by the hope that it will enable us to avert a looming environmental catastrophe** : may be outweighed by = ~보다 작을 수도 있다(수동). the hope that = 동격. enable + O + to V. looming = 현재분사 전치(다가오는).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design	다시 설계하다	remodel	—
intellectual property	지식 재산	—	—
patent	특허(를 주다)	—	—
estimated	추정의	approximate	exact
microorganism	미생물	microbe	—
sentient	지각 있는	conscious	insentient
alga (pl. algae)	조류(藻類)	—	—
sweeping	광범위한, 전면적인	broad	narrow
absorb	흡수하다	soak up	emit
anticipate	예상하다	expect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onochrome	흑백의	black-and-white	—
regulate	규제하다	control	deregulate
avert	피하다, 막다	prevent	—
catastrophe	재앙	disaster	—

내용 일치 벤터 = 생명을 다시 설계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 모음(벤터의 말) · 자금 = 벤터가 공동 창업한 신세틱 지노믹스 → 비판 · 지식 재산권 보유 · 특허 13건 출원 · 과학자 20명 · 10년 · 추정 4,000만 달러 · 상업 투자자 = 당연한 자금원(저자) · 생물 특허 반대 → 1980년 미국 대법원 = 기름 유출 청소용 유전자 변형 미생물 특허 가능 · 1984년 하버드 온코마우스(암에 쉽게 걸리게 설계한 실험용 쥐) · 지각 있는 존재의 특허 = 반대할 근거 충분 · 아마 아무것도 못 느끼는 박테리아 · 조류 = 특허에서 뺄 까닭이 쉽게 안 보임(저자) · 신시아 = 생물과 인공물의 구별에 도전 · 광범위한 특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님 ·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소식과 머리기사 경쟁 · 기름 유출 청소 박테리아는 '언젠가 … 수도'(may) · 가장 흥미로운 전망 = 이산화탄소로 연료를 만드는 조류 · 엑손모빌과 6억 달러 계약 · 2018년 발표 = 2025년까지 하루 1만 배럴 '예상' · 2010년 이후 급성장했지만 벤터의 방법으로는 아님 · 6년 뒤 리처드슨 · 패트런 = 흑백 브라운관 모니터 · 합성 생물의 방출은 신중히 규제 · 위험은 다른 심각한 위협(기후 변화)과 견줌 · 희망이 위험보다 클 '수도'(may). **밑줄 의미** a very powerful set of tools = 생명을 다시 설계하는 데 쓸 실용적 기술(벤터의 말) / That battle was lost = 생물 특허를 막으려는 싸움은 1980년 판결로 이미 끝남 / made the point = 합성 박테리아가 쓸모 있으리라는 점을 보여 줌 / as appealing as buying monochrome cathode ray tube monitors = 더 나은 기법이 나온 뒤라 벤터의 방법은 이미 낡아 아무도 고르지 않을 것 / 193쪽 ¶7 He = 벤터 · which = 신세틱 지노믹스 / 194쪽 ¶1 That battle = 생물 특허 반대 · its "oncomouse" = 하버드 대학 · it would be = 온코마우스 / ¶2 this = 신시아가 생물과 인공물의 구별에 도전한다는 점 / ¶3 the point = 합성 박테리아의 쓸모 / ¶5 one = 우리가 마주한 심각한 위협 · it will enable us = 합성 생물학.

> **한 줄 요약** 특허와 상업 자금을 둘러싼 비판에 저자는 아마 아무것도 못 느낄 박테리아까지 특허에서 뺄 까닭은 보기 어렵다고 답하고, 합성 생물은 신중히 규제하되 그 위험을 기후 변화 같은 심각한 위협과 견주면 희망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본다.

9-5 사례와 물음, 변호 – 음베키의 정책과 그 대가 197쪽 ¶1 ~ 198쪽 ¶1

원문 위치 원서 197쪽 ¶1 ~ 198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7쪽 ¶1 첫 문장	Throughout his tenure as South Africa's president, from 1999 to 2008	연도 — 내용 일치
◆	197쪽 ¶1 첫 문장	rejected the scientific consensus that AIDS is caused by a virus, HIV, and that antiretroviral drugs can save the lives	동격 that 두 개 — 과학계의 합의
▲	197쪽 ¶1 둘째 문장	continuing to embrace this position even as the evidence against it became overwhelming	분사구문 · even a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7쪽 ¶1 넷째 문장	even to Nelson Mandela, ... South Africa's first Black president, and was Mbeki's immediate predecessor	인물 — 내용 일치
★	197쪽 ¶2 첫 문장	While Botswana and Namibia, South Africa's neighbors, provided antiretrovirals	나라 — 서답형 함정
★	197쪽 ¶2 셋째 문장	Using conservative assumptions	추정의 조건 — 단정 주의
▲	197쪽 ¶2 셋째 문장	had South Africa's government provided the appropriate drugs, ... it would have prevented 365,000 premature deaths	가정법 과거완료 · If 생략 도치 — 어법
◆	197쪽 ¶3 첫 문장	a revealing indication of the staggering costs that can arise when science is rejected or ignored	저자의 해석 — 어법 지문
★	197쪽 ¶3 둘째 문장	roughly comparable to the loss of life from the genocide in Darfur, and close to half of the toll from the massacre of Tutsis in Rwanda in 1994	비교 · 연도
★	197쪽 ¶4 첫 문장	the 1961 Sharpeville massacre, ... killing 69 and wounding many more	연도 · 숫자 — 서답형
◆	197쪽 ¶4 셋째 문장	he is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5,000 times as many Black South Africans as the white South African police	배수 비교 · 하버드 연구의 함의
◆	197쪽 ¶5	How are we to assess a man like that?	저자의 물음 — 쟁점
◆	197쪽 ¶6 첫 문장	In Mbeki's defense, it can be said that he did not intend to kill anyone.	변호 — 지칭 지문
◆	197쪽 ¶6 둘째 문장	He appears to have genuinely believed that antiretrovirals are toxic.	appears — 단정 금지 · 완료부정사
▲	198쪽 ¶1 둘째 문장	we should judge his character differently from those who do set out to harm others	강조의 do · whether A or B

내용

타보 음베키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내내, 에이즈가 HIV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고 항레트로바이러스제가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과학계의 합의를 거부했다. 그 대신 그는 에이즈의 다른 원인을 내세운 소수의 이견파 과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였고, 그에 반하는 증거가 압도적이

되어 가는 동안에도 이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누군가 공개적으로 음베키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면, 음베키의 지지자들은 그 사람을 사납게(저자의 표현) 비난했다. 저자가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영웅적 저항 투사라 부르는 넬슨 만델라조차 그런 일을 겪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었고 음베키의 바로 앞 대통령이었다. 이웃 나라 보츠와나와 나미비아는 HIV에 감염된 시민 대다수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제공했지만, 음베키 시절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그러지 못했다. 하버드 대학 연구 팀이 이 정책의 결과를 조사했다. 연구 팀은 보수적인 가정을 써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에이즈 환자와 아기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있던 임신부 모두에게 알맞은 약을 제공했다면 36만 5,000명의 때 이른 죽음을 막았으리라고 추정한다. 저자는 이 숫자가 과학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 생길 수 있는 엄청난 대가를 잘 드러내 준다고 말한다. 이는 다르푸르 집단 학살로 잃은 목숨과 대략 맞먹고, 1994년 르완다 투치족 학살 희생자 수의 절반에 가깝다. 세계 여론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등을 돌리게 한 핵심 사건 가운데 하나는 1961년 샤프빌 학살이었다. 경찰이 흑인 시위대에 총을 쏘아 69명을 죽이고 훨씬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음베키도 만델라처럼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투쟁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하버드 연구는, 음베키가 샤프빌에서 군중에게 총을 쏜 백인 경찰보다 5,000배 많은 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음을 보여 준다. 저자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음베키를 변호하자면 그가 누구도 죽이려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에 독성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음베키가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악의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그는 그들을 해칠 생각이 없었다. 그러므로 미움에서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든 일부러 남을 해치려 드는 사람과는 다르게 그의 성품을 판단해야 한다.

어법

- **Thabo Mbeki rejected the scientific consensus that AIDS is caused by a virus, HIV, and that antiretroviral drugs can save the lives of people who test positive for it.** : consensus의 내용을 밝히는 동격 that절 두 개가 and로 병렬. a virus, HIV = 동격. test positive for = ~에 양성 반응이 나오다. is · can = 지금도 참인 과학적 사실이라 현재 시제.
- **Instead, he accepted the views of a small group of dissident scientists who suggested other causes for AIDS, continuing to embrace this position even as the evidence against it became overwhelming.** : who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scientists). continuing =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 even as = ~하는 바로 그때에도. it = this position.
- **While Botswana and Namibia, South Africa's neighbors, provided antiretrovirals to the majority of its citizens infected by HIV, South Africa under Mbeki failed to do so.** : While = 대조(~인 반면). South Africa's neighbors = 동격. infected by = citizens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 do so = provide antiretrovirals를 대신함.
- **had South Africa's government provided the appropriate drugs, both to AIDS patients and to pregnant women who were at risk of infecting their babies, it would have prevented 365,000 premature deaths** : If South Africa's government had provided ~의 if를 생략한 도치 → 가정법 과거완료(would have p.p.). both A and B. be at risk of -ing = ~할 위험이 있다.
- **he is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5,000 times as many Black South Africans as the white South African police who fired on the crowd at Sharpeville** : 배수 + as many + 명사 + as ~ = ~보다 몇 배 많은. fire on = ~에게 총을 쏘다. who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police → 복수 취급).
- **How are we to assess a man like that?** : be to V = 의무 · 당위(어떻게 ~해야 하는가). a man like that = 그런 사람(음베키).
- **He appears to have genuinely believed that antiretrovirals are toxic.** : appear to have p.p. = (과거에) ~했던 것으로 보인다(완료부정사 — 믿은 때가 보이는 지금보다 앞섬). 단정이 아니라 '보인다'.
- **we should judge his character differently from those who do set out to harm others, whether from hatred or to further their own interests** : do set out = 강조의 do(those → 복수). set out to V = ~하려고 나서다. whether A or B = A든 B든 — from hatred(전치사구)와 to further(to부정사)가 or로 이어짐.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enure	재임 기간	term	—
consensus	합의	agreement	disagreement
antiretroviral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	—
dissident (a.)	이견을 지닌	dissenting	conforming
embrace	(생각을) 받아들이다	adopt	reject
overwhelming	압도적인	crushing	negligible
denounce	비난하다	condemn	praise
predecessor	전임자	forerunner	successor
premature	때 이른	untimely	—
staggering	엄청난	astounding	trivial
genocide	집단 학살	—	—
massacre	학살	slaughter	—
toxic	독성이 있는	poisonous	harmless
malice	악의	ill will	goodwill

내용 일치 음베키 = 1999~200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 과학계의 합의(에이즈 = HIV 바이러스 · 항레트로바이러스제가 생명을 구함) 거부 · 소수 이견파 과학자 견해 수용 · 반대 증거가 압도적이 되어도 고수 ·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사람 = 지지자들이 비난 · 만델라(첫 흑인 대통령 · 바로 앞 대통령)도 · 보츠와나 · 나미비아 = 감염 시민 대다수에게 제공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못 함 · 하버드 연구 팀 · '보수적인' 가정 · 에이즈 환자 + 아기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있던 임신부 · 36만 5,000명의 때 이른 죽음을 막았을 것(추정) · 다르푸르 집단 학살과 대략 비슷 · 1994년 르완다 투치족 학살의 절반 가까이 · 1961년 샤프빌 학살 = 69명 사망 · 훨씬 많은 부상 · 음베키도 만델라처럼 반아파르트헤이트 투쟁 · 샤프빌 백인 경찰의 5,000배(하버드 연구가 보여 줌 — 저자) · 어떻게 평가할까(저자의 물음) · 죽일 의도 없었음 · 독성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은 '듯'(appears) · 악의 없음 · 그래서 남을 해치려 드는 사람과 성품을 다르게 판단. **지칭** 197쪽 ¶1 his tenure · he accepted = 음베키 · it(test positive for it) = HIV · this position · against it = 에이즈의 다른 원인을 내세운 견해 · them(denounced them) =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사람 · That happened = 지지자들의 비난 / ¶2 its citizens = 보츠와나 · 나미비아 각 나라 · this policy =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제공하지 않은 정책 · it estimates = 하버드 연구 팀 · their babies = 임신부 / ¶3 That number · It = 36만 5,000명 / ¶4 he is responsible = 음베키 / ¶5 a man like that = 음베키 / 198쪽 ¶1 them =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 · his character = 음베키.

> **한 줄 요약** 과학계의 합의를 거부한 음베키의 정책은 하버드 연구의 추정으로 36만 5,000명의 때 이른 죽음을 낳았고, 저자는 그를 어떻게 평가할지 물은 뒤 그에게 죽일 의도나 악의가 없었다는 점부터 인정한다.

9-6 저자의 답과 확장 — 좋은 의도로는 모자라다 198쪽 ¶2 ~ 199쪽 ¶1

원문 위치 원서 198쪽 ¶2 ~ 199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8쪽 ¶2 첫 문장	But good intentions are not enough, especially when the stakes are so high.	저자의 답 — 전환
▲	198쪽 ¶2 둘째 문장	culpable, not for having initially entertained a view …, but for having clung to this view without allowing it to be tested	not A but B · 완료동명사
★	198쪽 ¶2 셋째 문장	Professor Malegapuru Makgoba, South Africa's leading Black immunologist … Mbeki's office accused him	인물 — 누구의 비난인지
★	198쪽 ¶3 첫 문장	After Mbeki's ouster, his successor, Kgalema Motlanthe, moved quickly	인물 — 후임
★	198쪽 ¶3 둘째 문장	who notoriously suggested that AIDS could be cured by the use of garlic, lemon juice, and beetroot, was promptly fired	보건 장관 — True/False
▲	198쪽 ¶3 셋째 문장	so much in thrall to Mbeki that he was not deposed many years earlier	so ~ that · 저자의 판단(It is tragic)
◆	198쪽 ¶4 첫 문장	Mbeki must have known that, if his unorthodox views … were wrong	must have p.p. — 빈칸 지문
★	198쪽 ¶4 둘째 문장	the strongest obligation to allow all the evidence to be fairly presented and examined without fear or favor	빈칸 1순위
◆	198쪽 ¶4 셋째 문장	Mbeki cannot escape responsibility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deaths	저자의 결론
★	198쪽 ¶5 둘째 문장	In October 2021, a Brazilian Senate inquiry … recommended bringing criminal charges against president Jair Bolsonaro	연도 · 나라 — 내용 일치
★	198쪽 ¶5 셋째~넷째 문장	"murder by omission" … was not in the final report … the prosecutor was a political ally	권고 · 예상 — 단정 주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98쪽 ¶6 첫 문장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o have more deaths from COVID-19 than Brazil	비교 — 무관한 문장 지문
◆	198쪽 ¶6 넷째 문장	Those who did so caused innocent people to die.	저자의 판단 — 무관한 문장 지문
★	198쪽 ¶6 다섯째 문장	from June 1 to November 30, 2021, 163,000 more people died than would have died	숫자 · 기간 — 서답형 함정
◆	199쪽 ¶1 다섯째 문장	We may disagree with scientists, but we must not reject science as a method of inquiry.	저자의 결론 — 요약문
▲	199쪽 ¶1 일곱째 문장	to act without doing so, as carefully and as objectively as possible, is grossly irresponsible	to부정사 주어 · as ~ as possible

내용

그러나 걸린 것이 이토록 클 때에는 특히 좋은 의도만으로는 모자라다. 저자는 음베키가 처음에 극소수 과학자의 견해를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견해를 전문가들 사이의 공정하고 열린 토론으로 검증받게 하지 않은 채 고집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적인 흑인 면역학자 말레가푸루 막고바 교수가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과학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음베키의 집무실은 그가 인종차별적인 서구의 생각을 옹호한다고 비난했다. 음베키가 물러난 뒤 후임 칼레마 모틀란테는 에이즈에 맞설 효과적인 조치를 재빨리 시행했다. 에이즈를 마늘과 레몬즙, 비트로 고칠 수 있다고 말해 악명을 얻은(저자의 표현) 음베키의 보건 장관은 곧바로 해임되었다. 저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음베키에게 너무 휘둘린 나머지 그를 몇 해 더 일찍 물러나게 하지 못한 것이 비극이라고 말한다. 음베키는 에이즈의 원인과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의 효능에 관한 자기의 정통에서 벗어난 견해가 틀렸다면, 자기 정책이 없어도 될 많은 죽음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저자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에게 모든 증거가 두려움이나 편애 없이 공정하게 제시되고 검토되도록 할 가장 무거운 의무가 있었다고 본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저자는 음베키가 수십만 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공공 정책을 세우면서 과학을 무시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들어맞는다. 2021년 10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조사한 브라질 상원 조사 위원회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이버멕틴을 모든 증거에 반해(저자의 표현) 코로나19 치료제로 권장했다는 이유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정부의 다른 인사들을 형사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백신 구매를 늦춘 일로 보우소나루 등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라는 권고도 논의했지만, 이 권고는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기소를 맡은 검사가 대통령의 정치적 우군이었으므로, 이 권고들이 실제 기소로 이어지리라고 예상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브라질보다 많은 세계 유일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와 바이든 대통령 때 모두 국가 정책이 백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백신이 인구를 통제하거나 사람들을 불임으로 만들려는 어떤 음흉한 음모의 일부라는 주장에 속았다.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학적 증거를 살피지 않고 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 저자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했다고 말한다. 카이저 가족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단 여섯 달 동안, 인구 전체가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경우보다 16만 3,000명이 더 죽었다. 저자는 과학자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견해라면 무엇이든 언제나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사는 분명히 그 반대를 보여 준다. 과학자도 사람이라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군중 심리와 소외될까 하는 두려움에 휘둘릴 수 있다. 우리는 과학자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탐구의 방법인 과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부 지도자든 기업 경영자든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든, 과학적 증거의 총체를

평가하지 않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영역이 많다. 특히 생명이 걸려 있을 때, 그런 평가를 최대한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몹시 무책임하다.

어법

- **Mbeki is culpable, not for having initially entertained a view held by a tiny minority of scientists, but for having clung to this view without allowing it to be tested in fair and open debate among experts.** : not for A but for B =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having p.p. = 완료동명사(비난받는 지금보다 앞선 일). held by = view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 allow + O + to be p.p.
- **Mbeki's health minister, who notoriously suggested that AIDS could be cured by the use of garlic, lemon juice, and beetroot, was promptly fired.** : 주어 Mbeki's health minister와 동사 was fired 사이에 계속적 관계대명사 who절 삽입. could be cured = 조동사 + 수동(시제 일치).
- **It is tragic that the African National Congress, South Africa's dominant political party, was so much in thrall to Mbeki that he was not deposed many years earlier.**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be in thrall to = ~에게 사로잡혀 있다. was not deposed = 수동.
- **Mbeki must have known that, if his unorthodox views about the cause of AIDS and the efficacy of antiretrovirals were wrong, his policy would lead to a large number of unnecessary deaths.** : must have p.p. = ~했음에 틀림없다(과거에 대한 강한 추정). that절 안에 if절이 삽입되고 주절 his policy would lead가 이어짐. a large number of + 복수 명사.
- **That knowledge put him under the strongest obligation to allow all the evidence to be fairly presented and examined without fear or favor.** : put + O + under ~ = O를 ~ 아래 두다. to allow = obligation의 내용을 밝히는 to 부정사. allow + O + to be p.p.(presented · examined 병렬).
- **The inquiry also discussed recommending that Bolsonaro and others be charged with "murder by omission" for delaying vaccine purchases** : discuss + -ing(목적어로 동명사). recommend that + 주어 + (should) 원형 → be charged. charge A with B = A를 B 혐의로 기소하다. for + 동명사 = 이유.
- **163,000 more people died than would have died if the population had been fully vaccinated** : than 뒤 주어 없이 would have died — than이 주어 역할(유사관계대명사처럼). if + had p.p. / would have p.p. = 가정법 과거완료(실제로는 모두 접종하지 않았음).
- **Especially when lives are at stake, to act without doing so, as carefully and as objectively as possible, is grossly irresponsible.** : to부정사구 주어(to act …) → 단수 is. without doing so = 증거를 평가하지 않고. as ~ as possible = 될 수 있는 한 ~하게. be at stake = 걸려 있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take	걸린 것, 이해관계	—	—
culpable	비난받아 마땅한	blameworthy	blameless
entertain	(생각을) 품다	consider	dismiss
cling to	고수하다	adhere to	abandon
laughingstock	웃음거리	joke	—
notoriously	악명 높게	infamously	—
depose	(자리에서) 몰아내다	oust	install
unorthodox	정통에서 벗어난	unconventional	orthodox
efficacy	효능	effectiveness	ineffectivenes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quiry	조사	investigation	—
omission	부작위, 빠뜨림	neglect	commission
perfidious	음흉한, 배신하는	treacherous	loyal
herd mentality	군중 심리	conformity	—
marginalize	소외시키다	sideline	—

내용 일치 좋은 의도로는 모자람(걸린 것이 클 때 특히) · 비난받을 까닭 = 처음에 소수 견해를 품은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열린 토론의 검증 없이 고집한 것(저자) · 막고바 = 대표적 흑인 면역학자 · 웃음거리 경고 → 음베키 집무실 = 인종차별적 서구 사상 옹호라고 비난 · 후임 모틀란테 = 효과적 조치를 재빨리 · 보건 장관(마늘 · 레몬즙 · 비트) = 곧바로 해임 · 아프리카 민족회의 = 집권당 · 몇 해 더 일찍 물러나게 하지 못한 것 = 비극(저자) · 틀리면 많은 죽음 → 알았음에 '틀림없음'(must have known) · 증거를 공정하게 제시 · 검토하게 할 가장 무거운 의무 · 수십만 명의 죽음에 책임 · 교훈 = 공공 정책에서 과학을 무시하는 곳 어디나 · 2021년 10월 브라질 상원 조사 위원회 = 보우소나루 등 형사 기소 '권고'(하이드록시클로로퀸 · 이버멕틴) · 부작위에 의한 살인 = 논의만, 최종 보고서에 없음 · 실제 기소는 예상되지 않음(검사가 대통령의 우군) · 미국 = 브라질보다 사망자가 많은 유일한 나라 · 트럼프 · 바이든 때 모두 백신 개발 · 보급 지원 · 음모론에 속은 사람 많음 · 팔로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림 →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함(저자) · 카이저 가족 재단 = 2021년 6월 1일~11월 30일 모두 접종했을 경우보다 16만 3,000명 더 사망 · 과학자 다수의 견해가 늘 참은 아님 · 과학자도 틀림 · 군중 심리 · 소외의 두려움 · 과학자와 의견이 달라도 탐구의 방법인 과학은 거부하면 안 됨 · 생명이 걸리면 신중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행동 = 몹시 무책임(저자). **밑줄 의미** good intentions are not enough = 해칠 뜻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벗을 수 없다 / clung to this view = 반대 증거가 쌓여도 전문가의 공개 검증 없이 소수 견해를 붙들었다 / without fear or favor =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편들지 않고 / reject science as a method of inquiry = 개별 과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증거로 따지는 방법 자체를 버림 / 198쪽 ¶2 him = 막고바 · the president's = 음베키 / ¶3 his successor = 음베키의 후임 / ¶4 That knowledge = 견해가 틀리면 많은 죽음으로 이어지리라는 앎 · this(did not do this) = 증거를 공정하게 제시 · 검토하게 하는 일 / ¶5 his administration · the president = 보우소나루 / ¶6 them(make them sterile) = 사람들 · Those who did so =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 / 199쪽 ¶1 They = 과학자들 · doing so = 과학적 증거를 평가하는 일.

> **한 줄 요약** 저자는 좋은 의도로는 모자라며 음베키가 증거를 공정하게 검증받게 하지 않아 수십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브라질과 미국의 예를 더한 뒤 과학자와는 의견이 달라도 탐구의 방법인 과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는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9 SCIENCE]

범위	Golden Rice · Life Made to Order · The Cost of Being Unscientific (원서 PDF 191~199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some environmental circles, rejecting every GMO has become something like a pledge of loyalty, and anyone who breaks ranks is treated as a traitor working hand in hand with a wicked biotech industry. The author thinks the time has come to leave such a narrow, ideological position behind. Som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may turn out to be useful for public health, while others may help us meet the difficulty of producing enough food as the climate changes. Rather than accepting or rejecting all of them at once, we should look at each genetically modified plant separately and weigh its merits case by case.

① All genetically modified crops should be banned until they are proven safe.
② Environmental groups should stay loyal to their original principles.
③ Public health matters more than food production in a changing climate.
④ Each genetically modified plant should be judged on its own merits.
⑤ Biotech companies should decide which crops farmers grow.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2010 a team of scientists, with Craig Venter as its driving force, announced the creation of synthetic life in the shape of a bacterium whose genome had been designed in a laboratory and assembled from chemicals. Nicknamed 'Synthia,' the new organism reproduces itself and makes proteins, so by any sensible definition it is alive. It closely resembles the natural bacterium on which most of its design was based, but its makers added special strings of DNA to show that it is no natural object. Written in code, these strings contain a website address, the researchers' names, and fitting quotations, including one from Richard Feynman about building and understanding.

① How Bacteria Learned to Write Their Own Names
② Why Synthetic Life Can Never Be Truly Alive
③ Feynman's Dream of Building a Bacterium
④ Natural Bacteria Copied for Profit
⑤ Synthia: A Living Bacterium with a Lab-Made Genome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very innovation carries risks, and these have to be set against the good it might do. When the gains are small, even a minor risk may be unjustified; when the gains are large, a bigger risk could well be worth accepting. Rules for genetically modified crops should therefore distinguish a crop engineered to tolerate the weedkiller glyphosate, which simply makes weed control easier for farmers, from crops that survive drought and suit dry regions of poor countries. In the same way, a crop that could save half a million children from blindness would deserve to be grown even if it carried some risk. The irony is plain: golden rice has never been shown to endanger health or the environment, yet it is still held back, while crops bred to resist glyphosate already cover millions of hectares of commercial farmland.

① Genetically modified crops should be released only when they carry no risk at all.
② A crop's risks should be weighed against its benefits, so a crop as beneficial as golden rice is worth some risk.
③ Glyphosate-resistant crops are more useful than drought-resistant crops.
④ Poor countries should grow only drought-resistant crops.
⑤ The risks of an innovation always outweigh its benefits.

4. 밑줄 친 That hurdle was raised highe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After several years of research aimed specifically at vitamin A deficiency, Swiss scientists first produced golden rice in 2000, and the first field trials took place in 2004. At the start, researchers had to breed better varieties able to thrive in the places that needed them most. More field trials then had to be run to satisfy the strict rules that control the releas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That hurdle was raised higher after activists wrecked trial fields in the Philippines. Only in 2021 did the Philippines become the first country to let farmers grow and sell golden rice, and supporters hope that Bangladesh will give its final approval in 2022.

① Activists' destruction of trial fields made it even harder to meet the strict rules.
② Golden rice had to be grown on higher ground.
③ The Philippines raised the price of rice seeds.
④ Swiss scientists set themselves a higher research goal.
⑤ Bangladesh demanded more field trials than the Philippines.

5. 밑줄 친 as appealing as buying monochrome cathode ray tube monitor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work that produced Synthia took 20 scientists a decade, and Venter said that, on a practical level, it had given researchers a powerful new toolkit for redesigning life. Synthetic biology has indeed grown rapidly since 2010, though not through the methods his team used. Only six years after Synthia's creation was dramatically announced, newer techniques had emerged, and Sarah Richardson and Nicola Patron, two researchers in the field, suggested that creating synthetic organisms the way Venter had done was now as appealing as buying monochrome cathode ray tube monitors.

① Venter's methods were too expensive for most laboratories.
② Synthetic biology stopped growing after 2010.
③ Venter's methods had become outdated next to newer techniques.
④ Synthetic organisms should be shown on computer screens.
⑤ Venter's tools were too powerful to be used safely.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In Mbeki's defense, one can say that ① he never meant to kill anyone; ② he seems to have sincerely believed that antiretrovirals were poisonous. We can also accept that Mbeki was not driven by malice toward people suffering from AIDS. Because he had no wish to harm ③ them, we ought to judge ④ his character in a different way from that of people who deliberately set out to injure others, whether out of hatred or to serve their own interests. Still, meaning well is not enough when the stakes are this high. Mbeki is to blame not because ⑤ he at first took seriously a position that only a handful of scientists held, but because he clung to it without letting experts test it openly and fairly.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Greenpeace is usually the one leading protests, yet in 2014 it found itself the object of one. Patrick Moore, who spoke for the protesters and had once belonged to Greenpeace, charged the group with sharing the blame for two million children dying every year. The deaths he meant were caused by vitamin A deficiency, common among children who live mainly on rice, and Moore claimed that golden rice, genetically modified to contain more beta-carotene than ordinary rice, could prevent them. Moore's numbers held true for the early 1990s; by 2014, however, they had fortunately fallen a great deal. Even so, the deficiency remains a serious health problem, particularly in areas of Africa and of Southeast Asia,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stimates that it blinds about 250,000 to 500,000 preschool children a year, around half of whom are dead within a year.

① 2014년의 시위는 그린피스가 이끈 것이었다.
② 무어는 그린피스의 현직 대변인이었다.
③ 비타민 A 결핍은 이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큰 문제가 아니다.
④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시력을 잃은 아이들은 대부분 1년 안에 회복된다.
⑤ 무어가 든 사망자 수는 1990년대 초에는 맞았지만 2014년에는 크게 줄어 있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When it comes to showing how useful synthetic bacteria are likely to be, the timing of Synthia's birth did more than any public relations campaign could have done, because the announcement had to fight for front-page space with reports of the worst oil spill in history. Someday scientists might design bacteria capable of cleaning up oil spills quickly, safely, and effectively. Venter's most exciting idea, however, is a kind of alga that takes carbon dioxide out of the atmosphere and turns it into diesel fuel or gasoline. His company, Synthetic Genomics, signed a $600 million deal with ExxonMobil aimed at getting fuel from algae, and ExxonMobil said in 2018 that it expected to be making 10,000 barrels a day of biofuel made from algae by 2025.

① 신시아의 탄생은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소식과 머리기사를 다투었다.
② 엑손모빌은 2018년에 이미 하루 1만 배럴의 조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있었다.
③ 언젠가 기름 유출을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박테리아를 설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④ 벤터가 내놓은 가장 흥미로운 전망은 대기의 이산화탄소로 연료를 만드는 조류다.
⑤ 신세틱 지노믹스는 엑손모빌과 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South Africa's neighbors Botswana and Namibia gave antiretrovirals to most of their citizens with HIV, but South Africa under Mbeki did not. A team of Harvard researchers ① has since looked into what this policy led to. Working from conservative assumptions, the team estimates that ② had the government supplied the proper drugs to people with AIDS as well as to expectant mothers who might pass the virus to their babies, 365,000 early deaths would have been ③ prevented. That number shows how ④ staggering the costs can be when people reject or ignore science. It roughly matches the loss of life in the Darfur genocide and comes close to half the number of Tutsis ⑤ killing in the 1994 massacre in Rwanda.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en genetically modified crops first appeared during the 1980s, people had good reasons to be wary. Were the crops safe to eat? Could they cross-pollinate with plants growing wild and hand on the special traits they had been given, for example pest resistance, thereby (A) [creating / created] new 'superweeds'? In the 1990s, while running for the Senate as a candidate of the Australian Greens, the author was one of those who called for strong regulations to stop biotech companies from (B) [putting / put] people's health or the environment at risk for the sake of profit. Today the disasters the Greens feared have not happened, and no trustworthy scientific evidence shows that genetically modified foods make people ill, even though they (C) [have received / have been received] closer scrutiny than 'natural' foods.

	(A)	(B)	(C)
①	creating	putting	have received
②	created	putting	have received
③	creating	put	have been received
④	created	put	have received
⑤	creating	putting	have been received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For some years, synthetic biology had been ① looming as bioethics' next major issue, and the researchers of the J. Craig Venter Institute anticipated being accused of 'playing God.' They were not ② disappointed. For anyone who believes that God created life, this comes nearer to 'playing God' than anything humans have done so far. Art Caplan, a well-known bioethicist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called the achievement a historically ③ significant discovery, since it would seem to ④ strengthen the argument that life needs some special force or power in order to exist. Others pointed out that the team had inserted its synthetic genome into a cell taken from another bacterium, where it ⑤ replaced the cell's own DNA.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Mbeki held unconventional beliefs about what causes AIDS and about whether antiretroviral drugs work. These beliefs were either right or wrong, and if they were wrong, a great many people would die who did not need to, something Mbeki must surely have understood. Such a leader cannot just act on his beliefs. The higher the price of being mistaken, the heavier his duty to _____. Mbeki never did this, and in the author's view that is why the death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re his responsibility.

① keep his views private until the experts had finished debating
② let every piece of evidence be laid out and weighed fairly, favoring no side
③ follow whatever most voters happened to believe
④ rely on the goodness of his own intentions
⑤ consult only the scientists who already agreed with him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Instead, it has handed the Golden Rice Humanitarian Board, a nonprofit body, the right to grant sub-licenses for the rice.

Some critics see golden rice as part of a biotech plan to control farming worldwide. (①) Admittedly, Syngenta, a giant of agribusiness, helped to develop the rice. (②) Yet the company has not tried to make money from it. (③) This board, whose members include the rice's two co-inventors, may provide it for humanitarian use to state research bodies and to poor farmers in developing nations. (④) It must not, however, charge more than ordinary rice seed costs. (⑤) The Philippines is where this is now happening.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In America, the only country where COVID-19 killed more people than in Brazil, national policy under both Trump and Biden backed vaccines. ① Even so, many Americans were taken in by claims describing vaccines as part of a treacherous plot to control people or to sterilize them. ② Rather than examining what the science showed, many people with large social media followings spread this misinformation. ③ In the author's view, those who spread it were to blame for innocent people's deaths. ④ In some countries, a shortage of vitamin A also helps explain why so many mothers die in childbirth. ⑤ A Kaiser Family Foundation study counted 163,000 more deaths over six months of 2021 than full vaccination would have allowed.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ome people argue that no living thing should ever be patentable.

(A) In 1984 patenting life went one step further, as Harvard University won a patent on its 'oncomouse,' a lab mouse built to develop cancer easily, which made it a better research tool.

(B) That battle, however, had already been lost back in 1980: in that year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a microorganism genetically engineered to clear oil spills was patentable.

(C) There are good reasons to object to turning a sentient creature like this into a patented piece of lab equipment. It is harder, though, to explain why bacteria or algae designed from scratch, which presumably feel nothing and could prove no less useful than other inventions, should be kept outside patent law.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author is not claiming that whatever most scientists believe is always true; the past record of science plainly shows otherwise. Scientists are human beings who can make mistakes, and like everyone else they can be swayed by herd mentality and by the fear of being pushed to the margins. We are free to take issue with scientists; what we must not do is throw out science itself as a way of finding things out. Whether we lead governments or companies or influence others on social media, in many fields we cannot tell what the right course of action is unless we examine a whole body of scientific findings. When lives are on the line, acting without doing this as carefully and objectively as we can is grossly irresponsible.

→ Although scientists can be (A) _____, we should keep science as our way of investigating, since in many areas we cannot decide what to do without (B) _____ the evidence it provides.

① mistaken ..... assessing
② mistaken ..... ignoring
③ trusted ..... assessing
④ objective ..... ignoring
⑤ unanimous ..... avoiding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Golden rice, a grain genetically modified to be richer in beta-carotene, was p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2000, and in 2021 the Philippines was the first nation to give farmers approval to grow and sell it. Today about a tenth of all cropland in the world is planted with genetically modified crops. In 2010, Craig Venter's team announced Synthia, a bacterium whose genome had been made from chemicals. In South Africa, Harvard researchers estimated that supplying the right drugs could have saved 365,000 people from early death. Once Mbeki had been removed from office, his health minister was quickly dismissed. In 1961, police at Sharpeville killed 69 Black protesters.

<QUIZ>

(1) In what year was golden rice produced for the first time?

Answer for (1): _____

(2) Which country was the first to let farmers grow and sell golden rice?

Answer for (2): _____

(3) On about what share of the world's cropland are genetically modified crops grown?

Answer for (3): _____

(4) In what year did Venter's team announce Synthia?

Answer for (4): _____

(5) How many early deaths did Harvard researchers estimate could have been prevented in South Africa?

Answer for (5): _____

(6) Is it true or false that Mbeki's health minister stayed in office after Mbeki was removed?

Answer for (6): _____

(7) How many protesters did police kill at Sharpeville in 1961?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one-tenth	N. Switzerland
B. 2004	O. 250,000
C. 2000	P. 1961
D. Bangladesh	Q. 20
E. True	R. 2010
F. one-third	S. one-half
G. 1984	T. False
H. 163,000	U. 1980
I. 365,000	V. 13
J. 2021	W. South Africa
K. 5,000	X. 2022
L. the Philippines	Y. 69
M. 2018	Z. Botswana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2021년이 되어서야 필리핀은 골든 라이스를 승인한 첫 나라가 되었다. (It was not until ~ that / the first ~ to V)

02 그 회사가 유전자 변형 쌀의 개발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회사는 쌀을 상품화하려 하지 않았다. (It is true that ~ but / 강조의 did / assist in -ing)

03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GMO라는 생각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다. (what절 주어 + 단수 동사 / the very + 명사)

04 이익이 큰 경우에는 더 큰 위험도 충분히 감수할 만할 것이다. (where 부사절 / may well / be worth -ing)

05 만든 이들은 그것이 자연물이 아님을 증명하려고 유전체에 독특한 DNA 배열을 넣었다. (목적의 to부정사 / 명사절 that)

06 우리는 아직 병에 든 화학 물질만으로 살아 있는 생물을 만들지 못했다. (have yet to V)

07 그 연구는 과학자 20명이 끝내는 데 10년이 걸렸다. (take + 사람 + 시간 + to V)

08 지각 있는 존재를 특허받은 실험 도구로 바꾸는 데 반대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object to + -ing / turn A into B)

09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알맞은 약을 제공했더라면 36만 5,000명의 때 이른 죽음을 막았을 것이다. (If 생략 도치(Had + S + p.p.) / would have p.p.)

10 그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에 독성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appear to have p.p.(완료부정사))

11 음베키는 그 견해를 검증받게 하지 않은 채 고집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완료동명사 for having p.p. / allow + O + to be p.p.)

12 우리는 과학자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탐구의 방법인 과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may(허용) / must not / as(자격))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무어가 든 해마다의 어린이 사망자 수 / 그 수치가 맞던 때	
세계보건기구: 해마다 실명하는 취학 전 어린이 / 그중 12개월 안에 죽는 비율	
골든 라이스 첫 생산 · 연구한 과학자의 나라 / 첫 시험 재배	
골든 라이스를 처음 승인한 나라 · 해 / 최종 승인을 바라는 나라 · 해	
개발을 도운 거대 농기업 / 권리를 넘겨받은 비영리 단체	
1990년대 저자의 경력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 면적 / 실명을 막을 작물이 구할 어린이(저자의 예)	
16세기 연금술사 / 라틴어 venter가 뜻하는 것	
합성 생명 발표 해 / 그 박테리아의 별명	
연구에 든 사람 · 기간 · 추정 비용 / 출원한 특허	
미국 대법원의 미생물 특허 판결 / 온코마우스 특허(해 · 기관)	
엑손모빌과의 계약 규모 / 2025년까지의 예상 생산량	
음베키의 대통령 재임 기간 / 바로 앞 대통령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제공한 이웃 나라	
하버드 연구가 추정한 막을 수 있었던 죽음	

항목	답
샤프빌 학살의 해 · 사망자 / 음베키 책임의 배수	
음베키의 후임 / 경고한 면역학자	
브라질 상원 조사 위원회의 권고 시점	
카이저 가족 재단 연구의 기간 / 모두 접종했을 경우보다 더 죽은 사람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A Clear Case for Golden Rice」에서 저자는 1990년대에 강력한 규제를 주장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우려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쓴 뒤 아래 문장을 이었다. 다른 두 편에도 이 낱말과 뜻이 맞물리는 부사가 쓰인 대목이 있다. 빈칸에 들어갈 영어 명사 한 단어를 원서에서 찾아 쓰고, 그 근거를 「Life Made to Order」와 「The Tragic Cost of Being Unscientific」에서 하나씩 찾아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규제는 남기고 바꿀 것은 따로: Regulation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the health of consumers should be maintained. _____ is reasonable. What needs to be rethought, however, is blanket opposition to the very idea of GMO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10 FREEDOM AND RESPONSIBILITY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Free Speech and Fake News · Why Google Was Wrong · Keeping Discussion Free
원서 PDF 203~210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지켜야 하며, 무엇이 그것을 위협하는가."

이 권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지켜야 하고 무엇이 그것을 위협하는지를 묻는다. 「Free Speech and Fake News」는 '피자게이트' 사례에서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전제에 어긋난다고 보고, 형사 명예훼손을 다시 생각할 때인지 묻는다. 「Why Google Was Wrong」은 남녀 차이에 관한 메모를 쓴 직원을 해고한 구글을 다루며, 그 견해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은 채 그런 견해를 말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Keeping Discussion Free」는 저자가 공동 편집자로 있는 학술지가 필명 발표를 허용하는 까닭을 설명한다. 이 노트는 누구의 주장인지 원서대로 가려 적었고 어느 입장도 권하지 않는다. 원서를 옆에 펴고 출제자가 자를 자리를 먼저 찾아 표시하라.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가짜 뉴스 = 유권자가 정보에 근거해 선택한다는 민주주의의 전제에 어긋나는 위협(203쪽 ¶5 ~ 204쪽 ¶1) / 직원이 다모어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205쪽 ¶5~¶6) / 메모의 표적 = 여성이 절반이어야 한다는 기대(206쪽 ¶4) / 불쾌감만으로 억압할 충분한 이유인지 분명하지 않다(209쪽 ¶1)
4~5	**밑줄 함축 의미**	active misinformation / constitutionally protected speech / a clear and present danger / more speech, not enforced silence / seems naïve / the legal pendulum to swing back / cross a line / reduce people to their group identity / intimidated into remaining silent / the shrinking boundary … of acceptable discourse / there is no parity / stand and be judged on their own
6	지칭 추론	he · his가 웰치, Jones's의 존스만 다른 203쪽 ¶4 / she · her(203쪽 ¶1 = 클린턴) · he(203쪽 ¶3 = 식당 매니저) · his Pakistani counterpart의 his(203쪽 ¶5 = 이스라엘 국방장관) / him · he(205쪽 ¶1 = 다모어) · it(205쪽 ¶6 = 다모어의 견해) · He(206쪽 ¶6 = 피차이) / she did so(208쪽 ¶5 = 위너브스트) · them(210쪽 ¶1 = 그들의 생각)
7~8	내용 일치·불일치	2016년 11월 · 약 1주일 전 · 4일 전 · 40만 회 · 12월 4일 · 350마일(203쪽) / 1919 · 1927 · 2010 · 2015(204쪽) / 2021 · 4명 · 10,800명 · 6억 달러 · 2023(207쪽 ¶1) / 2021년 4월 · 50년 뒤 · 1999 · 2017 · 800명 · 10편 중 3편 · 2022년 5월 27일 · 12개월 · 241 · 98 · 54 · 30 · 43년(208~210쪽)
9~10	**어법**	과거분사 삽입 · Apparently · 동격 대시 · contributing 분사구문 · 계속적 who · approach(타동사) · allow + O + to V · supposedly · mislead + O + into -ing · on which · By + 과거 시점 + had p.p. · describe A as B · for + 의미상 주어 + to V · so ~ that · require that + 원형 · would 가정 · may have p.p. · to부정사 주어 · in which · which + 명사 · would have p.p. · not … all · reduce A to B · be permitted to V · from behind · Not if · That is not to say · make it clear that · lead to + 의미상 주어 + -ing · 가주어 + 수동 · intimidate + O + into -ing · of which · call for + O + to be p.p. · demand that + 원형 · not A but only B · 동격 that · 삽입절 an editor judges · Only + 주어 · what절 주어 · thus + -ing · pledge not to V · invite + O + to V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abusive ↔ courteous · imminent ↔ distant · costly(204쪽 ¶5) · premature ↔ timely · explicitly ↔ implicitly · selective ↔ indiscriminate · cursory ↔ thorough · refute ↔ confirm · rescind · retract · polemical ↔ conciliatory · beholden ↔ independent · repressive ↔ liberal
12	빈칸 추론	the harm … must be so imminent that it could preclude any opportunity to discuss fully(204쪽 ¶3) / effective only against those who have the assets(204쪽 ¶5) / Not if the kind of work on offer is likely to be attractive to more men than women(206쪽 ¶1) / without specifying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 damage(208쪽 ¶5)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문장 삽입	블라인드 오디션(205쪽 ¶7 ~ 206쪽 첫 줄): 중요한 문제 → 성차별은 잘 기록됨 → 고용주의 경계 → 가림막 뒤의 연주 → That has led to(오케스트라의 여성 증가) → 더 많은 기업도 similarly
14	무관한 문장	학자들이 치르는 더 큰 대가(209쪽 ¶6 ~ 210쪽 첫 줄)에 다른 편의 사실(2021년 구글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207쪽 ¶1)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피자게이트의 확산(203쪽 ¶1~¶3): 트위터 · 존스 → 위키리크스 이메일 · 코멧 핑퐁 · #pizzagate → 봇과 플린의 리트윗 → Even after 반박 · 위협 전화 · 경찰의 답
16	요약문 완성	투벨 논문과 철회 요구(208쪽 ¶4~¶5): 800명 넘게 서명 · 해고 요구 → 위너브스트는 논증을 반박하지 않고 해로울 수 있다고만 했으며, 피해의 성격과 심각성도 밝히지 않았다(저자의 평가)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숫자 · 연도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2016년 11월 · 1주일 전 · 4일 전 · 40만 회 · 12월 4일 · 350마일 · 1919 · 1927 · 2010 · 2015(1편) / 2021 · 4명 · 10,800명 · 6억 달러 · 2023(2편) / 2021년 4월 · 50년 뒤 · 1999 · 2017 · 800명 · 10편 중 3편 · 2022년 5월 27일 · 12개월 · 241 · 98 · 54 · 30 · 43년(3편). 비슷한 숫자 쌍(1919와 1927, 2010과 2015와 2017, 세 번 나오는 2021, 4일 전과 대표 원고 4명, 800명과 10,800명, 30명과 43년, 3편과 10편)이 함정이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did not specify ↔ specified, not a federal offense ↔ a federal offense, small ↔ large, free ↔ paid, not to bow ↔ to bow, the majority ↔ a few). '~인 듯'(Apparently) · '~라고들 하는'(supposedly) · '아마'(perhaps · presumably · most likely) · '~였을지도'(may have been) · '~일 수도'(may)를 단정으로 바꾼 선지, 존스 · 브랜다이스 · 와그너와 파고 · 다모어 · 피차이 · 위너브스트 · 밀의 말을 저자(싱어)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 저자의 물음(is it time … ?)을 결론처럼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Free Speech and Fake News · Why Google Was Wrong · Keeping Discussion Free」 (203~210쪽)

논증형 세 편. ① 사례(피자게이트) → 확산 → 사건(웰치) → 쟁점(가짜 뉴스와 민주주의) → 법의 전통(브랜다이스) → 저자의 의문 → 대안 검토(민사 · 형사) → 저자의 물음. ② 사례(다모어의 해고) → 메모의 내용과 단서 → 쟁점의 범위 → 저자의 두 이유 → 반론 검토 → 피차이에 대한 반박 → 아이러니. ③ 사례(새 학술지) → 위협의 변화 → 쟁점(불쾌감과 억압) → 학술지의 장치 → 더 큰 대가 → 저자의 초대. 핵심 축은 **더 많은 말 vs 법의 구제, 해고 vs 표현의 허용, 불쾌감 vs 표현의 자유.**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03 ¶1	사례	2016년 11월 미국 대선 약 1주일 전 트위터 = 클린턴이 아동 성범죄 조직의 중심이라는 주장 · 존스(우파 토크쇼 진행자, 원서의 표현)가 되풀이 · 선거 4일 전 유튜브 영상 = 40만 회 넘게 시청(지금은 삭제)
203 ¶2~¶3	확산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메일에 포데스타가 코멧 핑퐁에서 가끔 식사했다는 내용 → 그 때문인 듯 의혹이 피자 식당에 초점(Apparently) · #pizzagate · 봇과 플린의 리트윗 / 두 신문의 반박 뒤에도 퍼짐 · 위협 전화 · 경찰 =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03 ¶4	사건	12월 4일 웰치(존스의 청취자) =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50마일 · 돌격 소총 · 리볼버 · 칼 · 손님과 직원을 내보냄 · 터널에 숨겨졌다는(supposedly) 아이들 · 적어도 한 번 발사 · 아이들 없음 → 투항
203 ¶5~204 ¶1	쟁점	가짜 뉴스 = 진지한 뉴스처럼 꾸민 '적극적 허위 정보' = 민주 제도에 대한 위협 ·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관한 가짜 보도 → 파키스탄 국방장관의 리트윗 · 경고 / 후보를 지게 하고 국제 관계를 흔들 수 있음 · 정보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전제에 어긋남(저자)
204 ¶2~¶3	법의 전통	수정헌법 제1조 · 1919년 무렵 이미(By 1919) = 심각한 해악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일 때만 금지 / 1927년 Whitney v. California 브랜다이스의 보충 의견 = 해악이 충분한 토론을 막을 만큼 임박해야 · 해결책은 강제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말
204 ¶4	저자의 의문	오늘날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추론'의 힘을 그만큼 믿기 어려움 · '더 많은 말'이라는 믿음은 순진해 보임(seems) — 특히 선거 운동에서
204 ¶5~¶6	대안 검토	민사 소송 = 비용과 시간이 들고(아마 몇 년) 자산 있는 사람에게만 효과 / 형사 명예훼손 = 영국은 2010년 폐지, 미국은 연방 범죄 아님 · 2015년 보고서의 '불필요'라는 결론은 성급했을 수도 있다(may) → 인터넷 시대에 그쪽으로 돌아갈 때인가(저자의 물음)
205 ¶1~¶2	사례	다모어(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메모 = 남녀 차이가 그 분야에 여성이 적은 까닭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도(may) → 해고 / 피차이 = 많은 부분은 토론할 만하나 일부는 '해로운 성별 고정관념'으로 선을 넘음
205 ¶3~¶4	메모의 내용	피차이는 어느 부분인지 밝히지 않음 — 메모 전체가 고정관념의 현실 근거를 다루니 어려웠을 것(저자) / 다모어 =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섯 가지 경향을 보인다는 증거가 있다 · 모든 여성 아님 · 차이 다수는 작음 · 겹침 큼 · 개인에 대해 말할 수 없음(다모어의 말)
205 ¶5~¶6	쟁점 · 저자의 답	다모어 견해를 지지하는 과학 연구도, 의문의 근거도 있음 · 어느 쪽이 옳은가가 아니라 직원이 표현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가 → 그렇다(저자) · 첫째 = 동료 심사 학술지의 진지한 논문이 뒷받침
205 ¶7~206 첫 줄	둘째 이유	중요한 문제 · 구글은 남성 위주 인력을 마땅히 걱정 · 성차별은 잘 기록됨 · 고용주의 경계 · 예방 / 블라인드 오디션 → 오케스트라의 여성 극적 증가 · 더 많은 기업이 채용 때 성별을 가릴 방법을 살펴야(저자)
206 ¶1~¶3	반론 검토	차별 방지 조치 뒤의 남성 위주 = 차별의 증거? 일이 남성에게 더 끌린다면 아니다 / 다모어 견해가 옳다면(if) 여성 우대는 의문 · 정당화 불가능은 아님(여성 본보기) · 분야마다 논증 필요 / 합리적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견해 → 왜 해고?
206 ¶4~¶5	피차이 반박	'생물학적으로 덜 맞다'는 말은 모욕적(피차이) ↔ 다모어는 개인을 집단으로 환원하지 않음 · 선별적 고용주 · 표적 = 여성이 절반이어야 한다는 기대 / 행동 강령 = 괴롭힘 · 위협 · 불법 아님 · 편향은 증명 필요 · 피차이는 시도조차 안 함
206 ¶6~207 ¶1	아이러니	해고 = 인용한 구절과 정반대 · 위협받아 침묵하는 문화 / 2021년 법원 = 대표 원고 4명 · 여성 10,800명의 집단 소송 허용 · 6억 달러 · 캘리포니아 동일 임금법 · 2023년 심리 예정 · 남성보다 적게 지급(소송의 주장)
208 ¶1	사례	2021년 4월 『Journal of Controversial Ideas』 창간호(저자 = 공동 편집자) · 자유 민주국가에서도 좁아지는 담론의 경계에 대한 대응 · 필명으로 개인적 공격 · 살해 위협 · 경력의 해를 피하는 마당
208 ¶2~¶4	위협의 변화	한때 주로 우파 — 니어링(20세기 초 · 펜실베이니아 대학) · 50년 뒤 매카시 시대 · 1999년 포브스의 임명 취소 요구 / 오늘날 대부분 좌파에서(저자) · 2017년 투벨 『Hypatia』 · 800명 넘게 철회 요구 · 해고 요구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08 ¶5~209 ¶1	쟁점 · 저자의 답	위너브스트 = 소외된 집단에 주는 피해 · 반박은 시도 안 함 · 피해의 성격 · 심각성 밝히지 않음(저자) / 밀 = 대등하지 않다(도둑과 주인) / 불쾌감만으로 억압할 충분한 이유인지 분명하지 않음 · 그렇게 받아들이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좁아질 것(저자)
209 ¶2~¶5	학술지의 장치	동료 심사 · 학제 간 · 초기 점검 → 전문가 심사 · 잘 논증된 것만 · 논쟁조 아님 · 사람이 아니라 생각만 비판 / 필명 선택(나중에 신원 확인 가능) · 10편 중 3편 · 무료 · 광고 없음 · 거짓 자료 · 표절이 아니면 철회 않음 · 온라인 전용
209 ¶6~210 ¶1	더 큰 대가 · 초대	2022년 5월 27일까지 12개월 = 공격 241건(살해 · 폭력 · 실종 98 · 투옥 54) · 30명 지위 잃음 · 중국 · 러시아 · 튀르키예 · 이란 · 미얀마가 대부분 / 태국 2021 안찬 = 징역 43년 / 필명으로 보내라 · 잘 논증된 생각은 실명 없이도 선다(저자)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가짜 뉴스	진지한 뉴스 사이트에서 나온 것처럼 꾸민 '적극적 허위 정보'(예: 피자게이트 ·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관한 핵 위협 가짜 보도)	민주 제도에 대한 위협 – 후보를 지게 하고 국제 관계를 흔들 수 있으며, 유권자가 정보에 근거해 선택한다는 전제에 어긋난다(저자)
'더 많은 말'	거짓과 오류에는 강제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말로 맞서면 된다는 브랜다이스의 믿음을 오늘의 선거 운동에 적용하기	오늘날에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추론'의 힘을 그만큼 믿기 어렵고, 그 믿음은 특히 선거 운동에서 순진해 보인다(저자, seems)
민사 소송	존스를 상대로 민사 명예훼손 소송을 내는 대안	비용과 시간이 들고(아마 몇 년), 배상할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어 적절한 구제가 못 된다(저자)
형사 명예훼손	2015년 보고서(와그너 · 파고)의 결론 – 형사 명예훼손은 이제 '쓸모없고 불필요해졌다'	그 결론은 성급했을 수도 있다(may). 선거 중에 대통령 후보가 직접 아이들을 죽였다는 비난은 사소하지 않다. 인터넷 시대에 그쪽으로 돌아갈 때인지 묻는다(저자 – 결론이 아니라 물음)
다모어의 해고	메모를 이유로 다모어를 해고한 구글 · 메모 일부가 '해로운 성별 고정관념'으로 선을 넘었다는 피차이	따질 것은 어느 쪽이 옳은가가 아니라 직원이 그 견해를 표현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가이고, 그렇다 – 동료 심사 학술지의 뒷받침 · 중요한 문제(저자)
선을 넘은 부분	메모의 많은 부분은 토론할 만하지만 일부는 선을 넘었다면서 어느 부분인지 밝히지 않음(피차이)	메모 전체가 어떤 성별 고정관념이 현실에 근거가 있는가를 다루므로 그렇게 가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저자)
남성 위주의 인력	차별 방지 조치를 최대한 한 뒤에도 업계 인력이 주로 남성이라는 사실을 차별의 증거로 보는 추론	제공되는 일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끌리는 종류라면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모어의 견해가 옳다면(if) 소프트웨어 공학도 그렇다(저자)
피차이의 비판	동료 집단이 그 일에 생물학적으로 덜 맞는 특성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은 모욕적이다(피차이)	다모어는 개인을 집단으로 환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밝혔다. 메모가 겨눈 것은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리라는 기대, 그리고 구글이 그 결과를 위해 조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저자)
행동 강령	괴롭힘 · 위협 · 편향 · 불법 차별이 없는 문화를 요구하는 행동 강령을 인용한 피차이	메모는 괴롭힘 · 위협 · 불법이 아니고 편향은 증명되지 않았다(그런 논증이 어쩌면 가능하고 필요하다 – Perhaps) → 해고가 오히려 비슷한 의견의 사람이 위협받아 침묵하는 문화를 만들었다(저자)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철회 요구	투벨 논문이 소외된 집단에 피해를 준다며 철회를 요구하되, 논증은 반박하지 않고 피해의 성격 · 심각성도 밝히지 않음(위너브스트 – 저자의 평가)	어떤 견해가 일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억압의 충분한 이유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그렇다면 윤리 · 정치 · 종교 문제의 표현의 자유가 크게 좁아진다(저자)
실명의 부담	자유 민주 국가에서조차 좁아지는 담론의 경계 · 개인적 공격과 살해 위협,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을 위험	원하면 필명으로 발표하는 학술지 – 잘 논증된 생각은 저자의 실명 없이도 서고 평가받을 수 있다(저자)
공공의 압력	공공의 압력에 굴복해 논문을 철회하기	거짓 자료나 표절이 나중에 드러나지 않는 한 철회하지 않겠다는 편집자들의 서약 – 기관 · 출판사 · 특정 기부자에 매이지 않음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2016 · Twitter	**2016년 11월** 미국 대선 약 **1주일 전** 트위터에 클린턴이 아동 성범죄 조직의 중심이라는 주장 · 소셜 미디어로 퍼짐
Alex Jones	우파 토크쇼 진행자(원서의 표현) · 클린턴이 아동 학대에, 선거 캠프 의장 **존 포데스타**가 사탄 의식에 관여했다고 되풀이 · 유튜브 영상(지금은 삭제) = 선거 **4일 전** 게시 · **40만 회 넘게** 시청
WikiLeaks · Comet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메일 = 포데스타가 워싱턴 DC의 피자 식당 **코멧 핑퐁**에서 가끔 식사 → 그 때문인 **듯**(Apparently) 의혹이 이 식당에 초점 · 해시태그 **#pizzagate**
bots · Michael Flynn	봇(특정 메시지를 퍼뜨리도록 만든 프로그램)의 잦은 리트윗 →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인상 · **마이클 플린** 장군도 리트윗 = 선거 뒤 트럼프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
NYT · Washington Post	두 신문의 반박에도 계속 퍼짐 · 식당 = 끊임없는 욕설 · 위협 전화 · 매니저가 찾아간 DC 경찰 = 소문은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
Edgar Welch	존스의 청취자 · 등에 성경 구절 문신을 한 기독교인 · **12월 4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50마일** · 돌격 소총 · 리볼버 · 칼 · 적어도 **한 번** 발사(잠긴 문) · 아이들 없음 → 투항
fake news · Pakistan	진지한 뉴스 사이트에서 나온 것처럼 꾸민 '**적극적 허위 정보**' = 민주 제도에 대한 위협 ·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핵 위협 가짜 보도 →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리트윗하고 파키스탄도 핵 보유국이라 경고
First Amendment · 1919	'의회는 …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 법을 만들 수 없다' · **1919년** 무렵 이미(By 1919) 대법원 해석 = 심각한 해악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일 때만 금지
Louis Brandeis · 1927	**1927년** Whitney v. California 사건의 **보충 의견**(미국 판사가 쓴 표현의 자유 옹호 가운데 **아마** 가장 위대한 글 – 저자) · 표현과 집회의 자유 = '효과적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기능' · 해결책 = 강제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말**
civil suit	존스의 말 = 분명 명예훼손(저자) · 민사 소송 = 비용 · 시간(아마 **몇 년**) · 배상할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효과
criminal libel · UK · US	영국 = 수 세기 동안 범죄 → 쓰이지 않다가 **2010년** 폐지 / 미국 = **연방** 범죄 아님 · 일부 **주**에서는 범죄 · 사건 적음
2015 report	A. 제이 와그너 · 앤서니 L. 파고 · **국제언론인협회** · 최근 사건 다수 '사소함' · 민사가 '개인적 불만'에 더 나은 구제 · 결론 = '불필요' → 저자 = 성급했을 **수도**(may)
Damore · Pichai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메모 → 해고 / CEO 피차이의 메모 = 많은 부분은 '토론할 만함' · 일부는 '해로운 성별 고정관념'으로 선을 넘음 · 어느 부분인지 **밝히지 않음**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메모의 주장(다모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인다는 경향(다모어가 증거가 있다고 한 것) = 사람에 더 관심 · 시스템 분석 · 구축에 덜 관심 · 불안이 높고 스트레스 내성이 낮음 · 지위 욕구가 낮음 · 일과 삶의 균형에 더 관심
메모의 단서(다모어)	**모든** 여성이 아님 · 차이 다수는 **작음** · 남녀가 크게 **겹침** · 집단 분포로 개인에 대해 말할 수 없음 · **그래프**로도 보임 · 사람을 집단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것은 나쁨
blind auditions	일부 오케스트라 = **가림막** 뒤에서 연주 → 오케스트라의 여성 수가 **극적으로** 늘어남 · 더 많은 기업이 채용 때 지원자의 성별을 가릴 방법을 살펴야(저자)
Code of Conduct	괴롭힘 · 위협 · 편향 · 불법 차별이 없는 직장 문화(피차이가 인용) · 메모 = 괴롭힘 · 위협 아님 · 불법 아님 · 편향은 증명 필요 → 해고가 **위협받아 침묵하는** 문화를 만듦(저자)
2021 class action	법원이 대표 원고 **4명**에게 여성 **10,800명**을 대신한 집단 소송 허용 · **6억 달러** 손해배상 · 캘리포니아 **동일 임금법** 위반 · **2023년** 심리 예정 · 같은 직무 코드 · 지역의 남성보다 적게 지급(소송의 **주장**)
the journal	『Journal of Controversial Ideas』 · **2021년 4월** 창간호 · 저자 = **공동 편집자** · 동료 심사 · 학제간 · 온라인 전용 · 무료 · 유료 광고 없음 · 창간호 **10편 중 3편** 필명
Scott Nearing	20세기 초 미국 표현의 자유의 대표 사건 ·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좌파 성향 경제학자 · 사회정의 활동이 이사회의 은행가 · 기업 지도자들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
McCarthy · Steve Forbes	**50년 뒤** 매카시 시대 = 좌파 사상 지지로 블랙리스트 · 해고 / **1999년** 저자의 프린스턴 부임 → 포브스(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운동 중) = 임명 취소 요구(생명의 신성함 비판에 반대)
Rebecca Tuvel · Hypatia	**2017년** 「In Defense of Transracialism」 · 페미니스트 철학 학술지 『Hypatia』 · 성별 선택권을 지지하면서 왜 인종 선택권은 부정하나 · **800명 넘게**(대부분 학자) 철회 요구 서한 · 정년 보장 없는 젊은 여성 학자 · 해고 요구도
Shannon Winnubst · Mill	페미니스트 철학자 · 서한을 쓴 모임의 일원 · 소외된 집단(특히 흑인 · 트랜스 학자)에 주는 피해 / 밀 『자유론』 = 자기 의견에 대한 감정과 불쾌해하는 사람의 감정은 **대등하지 않다**(도둑과 주인의 비유)
Scholars at Risk · 2022	학문 자유 감시 프로젝트 · **2022년 5월 27일**까지 **12개월** = 공격 **241건**(살해 · 폭력 · 실종 **98건** · 투옥 **54건**) · **30명** 지위 잃음 · 중국 · 러시아 · 튀르키예 · 이란 · 미얀마가 대부분
Thailand · Anchan	**2021년** 태국 · 안찬으로만 알려진 여성 · 왕실을 비판한 팟캐스트의 오디오 클립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징역 **43년**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Free Speech and Fake News · Why Google Was Wrong · Keeping Discussion Free (원서 PDF 203~210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0-1 사례와 쟁점 — 피자게이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 203쪽 ¶1 ~ 204쪽 ¶1

원문 위치 원서 203쪽 ¶1 ~ 204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3쪽 ¶1 첫 문장	About a week before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of November 2016	연도 · 시점 — 순서 배열
◆	203쪽 ¶1 둘째 문장	Alex Jones, a right-wing talk show host, repeatedly stated	인물 규정 = 원서의 표현
★	203쪽 ¶1 넷째 문장	The video, posted four days before the election, was watched more than 400,000 times.	숫자 — 서답형 · 과거분사 삽입
◆	203쪽 ¶2 둘째 문장	Apparently for that reason the child-sex-ring accusations focused on the pizza restaurant	Apparently — 단정 금지
▲	203쪽 ¶2 셋째 문장	bots—programs designed to spread certain types of messages—contributing to the impression	동격 대시 · 분사구문
★	203쪽 ¶2 넷째 문장	General Michael Flynn, who after the election was appointed by Donald Trump as his national security adviser	인물 · 직책 — 내용 일치
★	203쪽 ¶3 첫 문장	despite debunking by the New York Times and the Washington Post—the story continued to spread	순서 배열의 고리
◆	203쪽 ¶3 셋째 문장	he was told the rumors were constitutionally protected speech	경찰의 답 — 쟁점의 출발
★	203쪽 ¶4 둘째 문장	On December 4, he drove 350 miles from his home in North Carolina	날짜 · 숫자 — 지칭 지문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3쪽 ¶4 셋째 문장	He allowed guests and staff to leave while he searched for enslaved children supposedly hidden in tunnels	allow + O + to V · supposedly
★	203쪽 ¶5 첫 문장	Fake news—"active misinformation" that is packaged to look as if it comes from a serious news site—is a threat to democratic institutions	정의 — 요지
●	203쪽 ¶5 둘째 문장	misled his Pakistani counterpart into retweeting the report	mislead + O + into -ing
◆	204쪽 ¶1 첫 문장	Whether or not fake news cost Clinton the presidency, it plainly could cause a candidate to lose an election	Whether or not — 판정 보류
★	204쪽 ¶1 둘째 문장	one of the fundamental premises on which democracy rests: that voters can make informed choices	요지 1순위

내용

2016년 11월 미국 대선을 약 1주일 앞두고, 누군가 트위터에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 성범죄 조직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문은 소셜 미디어를 타고 퍼졌고, 원서가 우파 토크쇼 진행자라고 소개한 앨릭스 존스는 클린턴이 아동 학대에 연루되었고 그녀의 선거 캠프 의장 존 포데스타가 사탄 숭배 의식에 참여했다고 되풀이해 말했다. 존스는 지금은 삭제된 유튜브 영상에서 클린턴이 직접 아이들을 살해했다는 식의 끔찍한 말까지 했다. 선거 4일 전에 올라온 이 영상은 40만 회 넘게 시청되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메일에는 포데스타가 워싱턴 DC의 피자 식당 코멧 핑퐁에서 가끔 식사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때문인 듯 아동 성범죄 조직 의혹은 이 식당에 초점을 맞추었고 #pizzagate라는 해시태그가 붙었다. 특정 유형의 메시지를 퍼뜨리도록 만든 프로그램인 봇이 이 의혹을 자주 리트윗하면서, 많은 사람이 '피자게이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이 생겼다. 놀랍게도 선거 뒤 트럼프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마이클 플린 장군도 이 이야기를 리트윗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그리고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거짓임을 밝혔는데도 이야기는 계속 퍼졌다. 코멧 핑퐁은 끊임없는 욕설과 종종 위협이 담긴 전화에 시달렸다. 매니저가 DC 경찰을 찾아가자, 그 소문은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존스의 청취자였던 에드거 웰치는 등에 성경 구절 문신을 한 기독교인이었다. 12월 4일 그는 돌격 소총과 리볼버와 칼로 무장하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집에서 350마일을 달려 코멧 핑퐁에 갔다. 그는 손님과 직원들을 내보낸 뒤 터널에 숨겨져 있다고들 하는 노예가 된 아이들을 찾았고, 잠긴 문을 열려고 적어도 한 번 소총을 쐈다. 아이들을 찾지 못하자 그는 경찰에 투항했다. 가짜 뉴스, 곧 진지한 뉴스 사이트에서 나온 것처럼 꾸민 '적극적 허위 정보'는 민주 제도에 대한 위협이다. 이보다 덜 터무니없는 예도 있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핵 위협을 했다는 가짜 보도에 속은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그 보도를 리트윗하고, 파키스탄도 핵 보유국이라고 이스라엘에 경고한 일이다. 가짜 뉴스 때문에 클린턴이 대통령 자리를 놓쳤든 아니든, 가짜 뉴스는 분명 후보를 선거에서 지게 할 수 있고 국제 관계를 뒤흔들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민주주의가 기대는 기본 전제 가운데 하나, 곧 유권자가 경쟁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정보에 근거해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에 어긋난다.

어법

- **The video, posted four days before the election, was watched more than 400,000 times.** : posted ~ election = 주어 The video를 꾸미는 과거분사구(쉼표로 삽입). 동사 was watched = 수동. more than + 숫자 = ~ 넘게.

- **Apparently for that reason the child-sex-ring accusations focused on the pizza restaurant and used the hashtag #pizzagate.** : Apparently = 보기에는 ~인 듯(확인된 사실이 아님). that reason = 포데스타가 그 식당에서 가끔 식사했다는 것. focused와 used 병렬. child-sex-ring = 하이픈으로 묶은 복합 형용사.
- **The allegations were frequently retweeted by bots—programs designed to spread certain types of messages—contributing to the impression that many people were taking "Pizzagate" seriously.** : 대시 사이 = bots와 동격인 설명. designed to V = programs를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하도록 만들어진). contributing = 결과의 분사구문(그리하여 ~에 이바지했다). that = 동격 접속사(the impression의 내용).
- **General Michael Flynn, who after the election was appointed by Donald Trump as his national security adviser** : who = 계속적 관계대명사(선행사 Flynn). 관계절 안에 after the election이 끼어든 구조. appoint A as B의 수동 = A was appointed as B. his = 트럼프.
- **When the manager approached the DC police, he was told the rumors were constitutionally protected speech.** : approach = 타동사(~을 찾아가다 — approach to로 쓰지 않음). be told (that) + 절 = tell + IO + DO의 수동. constitutionally protected = 부사 + 과거분사(헌법으로 보호되는).
- **He allowed guests and staff to leave while he searched for enslaved children supposedly hidden in tunnels.** : allow + O + to V. while = ~하는 동안. supposedly = ~라고들 하는(사실이 아님을 내비침). hidden in tunnels = children을 꾸미는 과거분사 후치.
- **a fake report of a nuclear threat by Israel's defense minister that misled his Pakistani counterpart into retweeting the report**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fake report). mislead + O + into -ing = O를 속여 ~하게 하다. counterpart = 상대편의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파키스탄 국방장관).
- **It is also contrary to one of the fundamental premises on which democracy rests: that voters can make informed choices between contending candidates.** : be contrary to = ~에 어긋나다. on which = rest on의 on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콜론 뒤 that절 = 그 전제의 내용. informed = 정보에 근거한.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ing (n.)	(범죄) 조직, 일당	gang	—
repeatedly	되풀이하여	again and again	once
ritual	의식	ceremony	—
allegation	(증거 없는) 주장, 혐의	accusation	—
debunk	거짓임을 밝히다	discredit	confirm
harass	괴롭히다	torment	—
abusive	욕설하는, 모욕적인	insulting	courteous
surrender	투항하다, 항복하다	give up	resist
misinformation	허위 정보	false information	—
absurd	터무니없는	ridiculous	sensible
counterpart	(같은 지위의) 상대	equivalent	—
plainly	분명히	clearly	—
premise	전제	assumption	conclusion
contending	경쟁하는	rival	—

내용 일치 2016년 11월 대선 약 1주일 전 트위터 · 소셜 미디어로 확산 · 존스(우파 토크쇼 진행자 — 원서의 표현) = 클린턴과 포데스타에 관한 주장을 되풀이 · 영상(지금은 삭제) = 선거 '4일 전' 게시 · 40만 회 넘게 시청 · 위키리크스 이메일 = 포데스타가 코멧 핑퐁에서 가끔 식사 → 그 때문인 '듯'(Apparently) · #pizzagate · 봇의 잦은 리트윗 →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인상' · 플린 장군도 리트윗(선거 뒤 국가안보보좌관) · 두 신문의 반박에도 계속 확산 · 위협 전화 · 경찰 =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 · 웰치 = 존스의 청취자 · 12월 4일 · 350마일 · 손님과 직원을 내보냄 · 숨겨졌다'고들 하는'(supposedly) 아이들 · 적어도 한 번 발사 · 아이들 없음 → 투항 · 가짜 뉴스 = 민주 제도에 대한 위협 ·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관한 가짜 보도 → 파키스탄 국방장관의 리트윗과 경고 · 클린턴의 패배 원인인지는 판정하지 않음(Whether or not) · 정보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전제에 어긋남. **지칭** 203쪽 ¶1 she = 클린턴 · her campaign chairman = 클린턴의 선거 캠프 의장(포데스타) / ¶2 that reason = 포데스타가 코멧 핑퐁에서 가끔 식사함 · who after the election = 플린 · his national security adviser의 his = 트럼프 / ¶3 he was told = 식당 매니저 / ¶4 he · his = 웰치(Jones's는 존스) / ¶5 his Pakistani counterpart의 his = 이스라엘 국방장관 / 204쪽 ¶1 it plainly could · It is also contrary = 가짜 뉴스.

> **한 줄 요약** 피자게이트처럼 소셜 미디어로 퍼진 거짓 소문은 무장한 청취자가 식당에 들이닥치는 일로까지 이어졌고, 저자는 가짜 뉴스가 선거와 국제 관계를 흔들 수 있으며 유권자가 정보에 근거해 선택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에 어긋나는 위협이라고 본다.

10-2 법의 전통과 저자의 물음 — '더 많은 말', 민사 소송과 형사 명예훼손 204쪽 ¶2 ~ ¶6

원문 위치 원서 204쪽 ¶2 ~ ¶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4쪽 ¶2 첫 문장	"Congress shall make no law …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수정헌법 제1조 — 인용
★	204쪽 ¶2 둘째 문장	By 1919, … Congress could prohibit speech only if it posed "a clear and present danger" …	연도 · 원칙 — 내용 일치
▲	204쪽 ¶2 둘째 문장	had led to the doctrine that Congress could prohibit speech only if	과거완료 · 동격 that
★	204쪽 ¶3 첫 문장	Louis Brandeis's concurring opinion in the 1927 case of Whitney v. California	연도 · 사건 — 서답형
◆	204쪽 ¶3 첫 문장	what is perhaps the greatest defense of freedom of speech by an American judge	perhaps — 단정 금지
▲	204쪽 ¶3 넷째 문장	the harm the speech would cause must be so imminent that it could preclude any opportunity	so ~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204쪽 ¶3 다섯째 문장	the remedy to be applied is more speech, not enforced silence	빈칸 지문의 결론
▲	204쪽 ¶4 첫 문장	which presumably requires that it influence elections	require that + 원형 · presumably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4쪽 ¶4 둘째 문장	Brandeis's belief that "more speech, not enforced silence" is the remedy ... seems naïve	저자의 판단(seems)
●	204쪽 ¶5 둘째 문장	that would be costly and time-consuming, most likely taking years	어휘 문항 — costly 자리
★	204쪽 ¶5 셋째 문장	effective only against those who have the assets to pay whatever damages are awarded	민사 소송의 한계
★	204쪽 ¶6 둘째 문장	"defamatory libel" was for many centuries a criminal offense, but it fell into disuse and was abolished in 2010	연도 — 서답형
★	204쪽 ¶6 다섯째 문장	A 2015 report by A. Jay Wagner and Anthony L. Fargo for the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연도 · 기관 — 내용 일치
◆	204쪽 ¶6 일곱째 문장	That conclusion may have been premature.	may have p.p. — 저자의 단서
★	204쪽 ¶6 아홉째 문장	is it time for the legal pendulum to swing back toward the offense of criminal libel?	밑줄 의미 1순위 · 저자의 물음

내용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 법을 만들 수 없다'고 정한다. 1919년까지 대법원은 이 문구를 해석해, 의회는 어떤 말이 심각한 해악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낳을 때에만 그 말을 금지할 수 있다는 원칙에 이르렀다. 이 입장은 미국 판사가 쓴 표현의 자유 옹호 가운데 아마 가장 위대한 글, 곧 1927년 Whitney v. California 사건에서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쓴 보충 의견에서 더 다듬어졌다. 브랜다이스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효과적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묘사했고, 민중의 정부라는 과정을 통해 적용되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추론의 힘을 믿는 '용기 있고 자립적인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따르면 어떤 말이 금지를 정당화할 만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려면, 그 말이 끼칠 해악이 너무 임박해서 그 말을 충분히 토론할 기회조차 막을 정도여야 한다. 브랜다이스는 토론으로 거짓과 오류를 드러내고 교육으로 해악을 피할 시간이 있다면, 써야 할 해결책은 강제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오늘날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추론'의 힘을 그만큼 믿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 추론이 민중의 정부라는 과정을 통해, 곧 아마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마찬가지로 '강제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말'이 '거짓과 오류'의 해결책이라는 브랜다이스의 믿음은, 특히 선거 운동에 적용하면 순진해 보인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존스가 클린턴에 관해 한 말은 분명 명예훼손이고, 클린턴은 그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법원을 거치는 데 아마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게다가 민사 명예훼손 소송은 배상금을 낼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 형사 명예훼손은 어떤가? 영국에서는 '명예훼손적 비방(defamatory libel)'이 수 세기 동안 형사 범죄였지만, 쓰이지 않게 되었다가 2010년에 폐지되었다. 미국에서 형사 명예훼손은 연방 범죄가 아니다.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범죄이지만 기소되는 사건은 적다. A. 제이 와그너와 앤서니 L. 파고가 국제언론인협회를 위해 쓴 2015년 보고서는 최근 사건의 다수를 '사소하다'고 표현하고, '개인적 불만'에는 민사 명예훼손법이 더 나은 구제 수단이라고 보며, 형사 명예훼손이 '쓸모없고 불필요해졌다'고 결론짓는다. 저자는 그 결론이 성급했을지도 모른다고 본다. 선거 운동 중에 미국 대통령 후보가 직접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소하지

않고, 민사 명예훼손법은 적절한 구제책이 못 된다. 저자는 인터넷 시대인 지금, 법의 시계추가 형사 명예훼손 쪽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된 것은 아니냐고 묻는다.

어법

- By 1919,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ose words had led to the doctrine that Congress could prohibit speech only if it posed "a clear and present danger" ... : By + 과거 시점 + had p.p. = 그때까지 이미 ~해 있었다(과거완료). that = 동격 접속사(the doctrine의 내용). only if = ~할 때에만.
- Brandeis described freedom of speech and assembly as "functions essential to effective democracy." : describe A as B = A를 B라고 묘사하다. essential to ~ = functions를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구.
- for speech to pose a clear and present danger that could justify prohibiting it, the harm the speech would cause must be so imminent that it could preclude any opportunity to discuss fully what had been said : for + 의미상 주어 + to V = ~이 …하려면(목적 · 조건). justify + -ing. the harm (that) the speech would cause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so + 형용사 + that = 너무 ~해서 …하다. what had been said = discuss의 목적어(사이에 fully).
- If, Brandeis insisted, there is "time to expose through discussion the falsehood and fallacies, to avert the evil by the processes of education, the remedy to be applied is more speech, not enforced silence." : If절 안에 Brandeis insisted 삽입. expose 뒤에 through discussion이 먼저 오고 긴 목적어 the falsehood and fallacies가 뒤로 감. to be applied = the remedy를 꾸미는 to부정사의 수동. A, not B = B가 아니라 A.
- which presumably requires that it influence elections : which = 앞 내용(민중의 정부라는 과정을 통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는 계속적 관계대명사. require that + 주어 + (should) 원형 → influence(influences가 아님). presumably = 아마.
- but that would be costly and time-consuming, most likely taking years to move through the courts : would = 가정의 조동사(소송을 낸다면). most likely taking = 결과의 분사구문(아마 몇 년이 걸리면서). take + 시간 + to V =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 That conclusion may have been premature. : may have p.p. = ~이었을지도 모른다(과거에 대한 추측 — 단정이 아님).
- To accuse, during an election campaign, a US presidential candidate of personally murdering children is not petty : to부정사구 주어(To accuse … children) → 단수 동사 is. accuse A of -ing = A를 ~했다고 비난하다 — 사이에 during an election campaign 삽입.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mendment	(헌법) 수정 조항	revision	—
abridge	(권리를) 제한하다, 줄이다	curtail	extend
doctrine	원칙, 학설	principle	—
prohibit	금지하다	ban	permit
concurring	(다수 의견에) 동의하는	agreeing	dissenting
self-reliant	자립적인	independent	dependent
imminent	임박한	impending	distant
preclude	막다, 불가능하게 하다	rule out	allow
fallacy	오류	misconception	—
naïve	순진한, 세상 물정 모르는	unsophisticated	worldl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famation	명예훼손	libel or slander	—
petty	사소한	trivial	serious
redundant	불필요한, 쓸모없는	superfluous	essential
premature	성급한, 시기상조의	hasty	timely

내용 일치 수정헌법 제1조 = 표현 ·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금지 · 1919년 무렵 이미(By 1919) = 심각한 해악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일 때만 금지 · 1927년 Whitney v. California = 브랜다이스의 '보충' 의견(표현의 자유 옹호 가운데 '아마' 가장 위대한 글) · 해악이 충분한 토론을 막을 만큼 임박해야 · 해결책 = 강제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많은 말(브랜다이스) · 오늘날 그만큼 믿기 어렵고 순진해 '보임'(저자, seems) · 존스의 말 = 분명 명예훼손(저자) · 민사 소송 = 비용 · 시간('아마' 몇 년) · 자산 있는 사람에게만 효과 · 영국 = 수 세기 동안 범죄 → 2010년 폐지 · 미국 = 연방 범죄 '아님' · 일부 주 · 사건 적음 · 2015년 보고서(와그너 · 파고 · 국제언론인협회) = '사소함' · 민사가 더 나은 구제 · '불필요' → 성급했을 '수도'(저자) · 아이 살해 비난 = 사소하지 않음 · 인터넷 시대에 형사 명예훼손 쪽으로 돌아갈 때인가(저자의 '물음'). **밑줄 의미** a clear and present danger = 심각한 해악이 분명하고 지금 눈앞에 있을 때만 금지할 수 있다 / more speech, not enforced silence = 거짓에는 입을 막는 대신 토론과 교육으로 맞선다(브랜다이스) / seems naïve = 오늘날, 특히 선거 운동에서는 그 믿음이 현실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저자) / the legal pendulum to swing back = 쓰이지 않거나 폐지된 형사 명예훼손 쪽으로 법이 다시 돌아가야 하느냐(저자의 물음) / 204쪽 ¶3 He appealed = 브랜다이스 · ¶5 she could bring = 클린턴 · him = 존스 · ¶6 It continues to be a crime = 형사 명예훼손 · That conclusion = 보고서의 '불필요' 결론.

> **한 줄 요약** 말은 해악이 토론을 막을 만큼 임박할 때만 금지할 수 있고 거짓에는 더 많은 말로 맞서라는 브랜다이스의 전통에 대해, 저자는 그 믿음이 오늘의 선거에서는 순진해 보이고 민사 소송도 충분한 구제가 못 된다며 형사 명예훼손을 다시 생각할 때인지 묻는다.

10-3 사례와 저자의 답 — 다모어의 메모와 해고, 표현을 허용할 두 이유 205쪽 ¶1 ~ 206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205쪽 ¶1 ~ 206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5쪽 ¶1 첫 문장	James Damore, a software engineer at Google, wrote a memo	인물 · 직업 — 내용 일치
◆	205쪽 ¶1 첫 문장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that may explain, in part, why there are fewer women	다모어의 주장 · may · in part
★	205쪽 ¶2	"much of what was in that memo is fair to debate," but that portions of it cross a line	피차이의 말 — 누구의 말인지
★	205쪽 ¶3 첫 문장	Pichai did not specify which sections of the memo discussed issues that are fair to debate	True/False 뒤집기 — 서답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5쪽 ¶3 둘째 문장	Tha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do, because the entire memo is about whether	would have p.p. · whether절
◆	205쪽 ¶3 셋째 문장	Damore argues that there is evidence to show that women, when compared to men, tend to	다모어의 주장 — 저자의 판정 아님
▲	205쪽 ¶4 첫 문장	the evidence for these claims does not show that all women have these characteristics	부분 부정 not … all
★	205쪽 ¶4 둘째 문장	"you can't say anything about an individual given these population level distributions"	다모어의 단서 — 내용 일치
▲	205쪽 ¶4 넷째 문장	to reduce people to their group identity is bad	to부정사 주어 · reduce A to B
◆	205쪽 ¶5 둘째 문장	There are also grounds for questioning some of this research.	양쪽을 다 소개 — 판정 보류
★	205쪽 ¶5 셋째 문장	it isn't necessary to decide which side is right, but only whether Damore's view is one that a Google employee should be permitted to express	쟁점의 범위 — 주장
★	205쪽 ¶6 첫~둘째 문장	I think it is. First, as I've said, it is not some twisted, crazy view.	저자의 답 — 주장
★	205쪽 ¶6 셋째 문장	serious articles, published in leading peer-reviewed scientific journals	첫째 이유의 근거
◆	205쪽 ¶7 둘째 문장	Google is rightly troubled by the fact that its workforce is largely male	rightly — 저자의 평가
★	206쪽 첫 줄 (205쪽 ¶7 다섯째 문장)	Some orchestras now conduct blind auditions—the musician plays from behind a screen	사례 — 문장 삽입
▲	206쪽 첫 줄 (205쪽 ¶7 일곱째 문장)	More businesses should look at the possibilities of similarly blinding themselves	저자의 제안 · blind(동사)

내용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제임스 다모어는 남녀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그의 분야에 남성보다 여성이 적은 까닭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메모를 썼다. 이 일로 구글은 그를 해고했다. 구글의 최고경영자 순다르 피차이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그 메모에 담긴 많은 내용은 토론할 만하다'고 하면서도, 그 일부는 '우리 일터에 해로운 성별 고정관념'을 내세워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피차이는 메모의 어느 부분이 토론할 만한 문제를 다루고 어느 부분이 선을 넘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저자는 그렇게 가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다. 메모 전체가 어떤 성별

고정관념이 현실에 근거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모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고, 시스템을 분석하거나 만드는 데에는 관심이 덜하며, 불안이 더 높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더 낮고, 지위를 향한 욕구가 더 낮으며, 일과 삶의 균형에 더 관심이 많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모어는 이 주장의 증거가 모든 여성이 남성보다 이런 특성을 더 많이 지닌다는 것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고 신중하게 짚는다. 그는 이 차이 가운데 다수는 작고, 남녀 사이에 상당한 겹침이 있으며, '이런 집단 수준의 분포만으로는 한 개인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를 그래프로도 보여 준다. 또 사람을 그들의 집단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한다. 저자는 다모어가 표현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과학 연구가 있고, 그 연구의 일부를 의심할 근거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모어를 해고한 구글의 조치를 평가할 때에는 어느 쪽이 옳은지 정할 필요가 없고, 다모어의 견해가 구글 직원이 표현하도록 허용되어야 할 견해인지만 따지면 된다고 말한다. 저자의 답은 '그렇다'이다. 저자가 드는 첫째 이유는 그것이 비뚤어지거나 미친 견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동료 심사를 거치는 주요 과학 학술지에 실린 진지한 논문들이 그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말한다. 둘째 이유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저자는 구글이 자사 인력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걱정하는 것은 마땅하고, 많은 고용 분야에서 성차별은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신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그런 차별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일부 오케스트라는 이제 블라인드 오디션을 연다. 연주자가 가림막 뒤에서 연주해, 뽑는 사람들이 남성의 연주를 듣는지 여성의 연주를 듣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오케스트라의 여성 수가 극적으로 늘었다. 저자는 더 많은 기업이 채용할 때 이처럼 지원자의 성별을 스스로 가릴 방법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어법

- **James Damore, a software engineer at Google, wrote a memo in which he argu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that may explain, in part, why there are fewer women than men in his field of work.** : a software engineer at Google = 동격.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a memo). 첫째 that = argued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둘째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differences). may explain = 조동사 + 원형(조동사는 수를 드러내지 않음). why절 = explain의 목적어(간접의문문). in part = 부분적으로.
- **Pichai did not specify which sections of the memo discussed issues that are fair to debate and which portions cross the line.** : which + 명사 = 의문형용사(어느 ~) — 두 간접의문문이 and로 병렬해 specify의 목적어. be fair to V = ~할 만하다.
- **Tha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do, because the entire memo is about whether certain gender stereotypes have a basis in reality.** : would have p.p. = (그렇게 했다면) ~했을 것이다 —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판단. difficult to do = 형용사 + to부정사. whether절 = 전치사 about의 목적어(~인지 아닌지).
- **Damore is careful to point out that the evidence for these claims does not show that all women have these characteristics to a higher degree than men.** : be careful to V = 신중하게 ~하다. not … all = 부분 부정(모든 여성이 다 ~인 것은 아니다). to a higher degree than = ~보다 더 높은 정도로.
- **He says that to reduce people to their group identity is bad.** : that절 안의 주어 = to부정사구(to reduce … identity) → 단수 동사 is. reduce A to B = A를 B로 환원하다(축소하다).
- **In assessing Google's action in firing Damore, it isn't necessary to decide which side is right, but only whether Damore's view is one that a Google employee should be permitted to express.** : In + -ing = ~할 때. 가주어 it + 진주어 to decide …. not A but only B — decide의 목적어로 which절과 whether절이 대응. one = a view. be permitted to V = permit + O + to V의 수동.
- **Google is rightly troubled by the fact that its workforce is largely male.** : be troubled by = ~로 걱정하다. that = 동격 접속사(the fact의 내용). rightly = 마땅히(저자의 평가).
- **the musician plays from behind a screen, so that those making the appointment do not know if they are listening to a man or a woman** : from behind = 이중 전치사(~의 뒤에서). so that = 그래서 ~하도록(결과 · 목적). making the appointment = those를 꾸미는 현재분사 후치. if = whether(~인지).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emo	메모, 사내 문서	memorandum	—
portion	부분	section	whole
stereotype	고정관념	preconception	—
specify	명시하다	spell out	—
tolerance	견디는 힘, 내성	endurance	intolerance
drive (n.)	욕구, 추진력	urge	—
overlap (n.)	겹침	—	—
distribution	분포	spread	—
peer-reviewed	동료 심사를 거친	refereed	—
twisted	비뚤어진	warped	—
workforce	인력, 전체 직원	staff	—
sexism	성차별	gender discrimination	—
well-documented	기록 · 근거가 충분한	established	undocumented
audition	오디션	tryout	—

내용 일치 다모어 =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메모 = 남녀 차이가 그 분야에 여성이 적은 까닭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도'(may) · 해고 · 피차이(CEO) = 많은 부분은 '토론할 만함' · 일부는 '해로운 성별 고정관념'으로 선을 넘음 · 어느 부분인지 '밝히지 않음' · 메모 전체가 고정관념의 현실 근거를 다루니 가르기 어려웠을 것(저자) ·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인다는 다섯 경향 = 다모어가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것 · '모든' 여성이 아님 · 차이 다수는 '작음' · 상당한 겹침 · 개인에 대해 말할 수 없음 · 그래프 · 집단 정체성으로 환원은 나쁨 · 지지 연구도, 의문의 근거도 있음 · 어느 쪽이 옳은지 정할 필요 없음 · 표현이 허용되어야 함(저자) · 첫째 = 동료 심사 학술지 · 둘째 = 중요한 문제 · 남성 위주를 '마땅히' 걱정 · 성차별은 잘 기록됨 · 블라인드 오디션 → 여성 극적 증가 · 더 많은 기업이 성별을 가릴 방법을 살펴야(저자). **지칭** 205쪽 ¶1 he · his field of work = 다모어 · For this = 메모를 쓴 일 · him = 다모어 / ¶2 that memo · portions of it = 다모어의 메모 · cross a line = 토론할 만한 범위를 넘어 용납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섰다(피차이의 말) / ¶3 That would have been difficult = 어느 부분인지 가르기 / ¶4 He shows this = 개인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점 / ¶5 this research = 다모어의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 · one = 견해 / ¶6 I think it is의 it · it is not some twisted = 다모어의 견해 / ¶7 it addresses = 다모어의 견해 · its workforce = 구글 / 206쪽 첫 줄 they are discriminating = 고용주 · That has led = 블라인드 오디션 · themselves = 기업.

> **한 줄 요약** 다모어의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와 의심할 근거가 함께 있지만, 저자는 어느 쪽이 옳은지가 아니라 직원이 그 견해를 표현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그것이 비뚤어진 견해가 아니며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는 두 이유로 그렇다고 답한다.

10-4 반론 검토와 저자의 답 — 차별의 증거, 피차이 반박, 해고의 아이러니 206쪽 ¶1 ~ 207쪽 ¶1

원문 위치 원서 206쪽 ¶1 ~ 207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6쪽 ¶1 첫 문장	does the fact that a workforce in a particular industry is predominantly male prove that there has been discrimination?	반론의 물음 · 동격 that
★	206쪽 ¶1 둘째 문장	Not if the kind of work on offer is likely to be attractive to more men than women.	저자의 답 — 조건
◆	206쪽 ¶2 첫~둘째 문장	If the view Damore defends is right, … a policy of giving preference to women over men would be questionable	조건(if) — 단정 금지
▲	206쪽 ¶2 셋째 문장	That is not to say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justify.	양보 — That is not to say
★	206쪽 ¶2 넷째 문장	having female role models is important, and a valid reason for giving preference to qualified women applicants	예외의 예 — 내용 일치
▲	206쪽 ¶2 여섯째 문장	the case would need to be made for this in the particular area of employment in which such a policy was suggested	to be made · in which
★	206쪽 ¶3 첫 문장	Damore put forward a view that has reasonable scientific support	저자의 평가 — 정리
◆	206쪽 ¶4 첫 문장	"To suggest a group of our colleagues have traits that make them less biologically suited to that work is offensive and not OK."	피차이의 말 — 누구의 말인지
★	206쪽 ¶4 둘째 문장	Damore explicitly, and more than once, made it clear that he was not reducing individuals to a group	반박 — 제목
▲	206쪽 ¶4 셋째 문장	it is highly probable that Google's selection processes have led to Google employing women who are, in specific traits, uncharacteristic	가주어 it · lead to + 의미상 주어 + -ing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6쪽 ¶4 넷째 문장	The target of Damore's memo was the idea that we should expect women to make up half the software engineering workforce	메모의 표적 — 제목
▲	206쪽 ¶5 넷째 문장	it would need to be demonstrated that Damore was biased in selecting certain scientific studies	가주어 it + 수동 — 어법 지문
◆	206쪽 ¶5 다섯째 문장	Perhaps that case could—and should—be made	Perhaps — 저자의 단서
★	206쪽 ¶6 ~ 207쪽 첫 줄	a workplace culture in which those with opinions like Damore's will be intimidated into remaining silent	아이러니 · into -ing — 어법
★	207쪽 ¶1 첫 문장	in 2021 a court allowed four lead plaintiffs to bring a class action against Google on behalf of 10,800 women, seeking $600 million	숫자 — 서답형
◆	207쪽 ¶1 셋째 문장	The suit alleges that Google paid women "less base salary, smaller bonuses, and less stock"	alleges — 소송의 주장

내용

저자는 이어서 묻는다.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차별 방지 조치를 취한 뒤에도, 특정 업계의 인력이 주로 남성이라는 사실이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저자는 제공되는 일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끌리는 종류라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저자는 다모어가 옹호하는 견해가 옳다면 소프트웨어 공학도 그런 경우일 것이고, 그렇다면 채용과 승진에서 차별을 피하는 데서 더 나아가 남성보다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의문스러울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그런 정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단서도 붙인다. 저자가 드는 예로, 어떤 직업에서는 여성 본보기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자격을 갖춘 여성 지원자를 우대할 타당한 이유가 된다. 업계와 직업마다 남녀 비율을 더 고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런 정책이 제안된 그 고용 분야에서 따로 논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정리해, 다모어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가 있고 사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견해를 내놓았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는 왜 해고되었느냐고 묻는다. 피차이는 '동료 집단이 그 일에 생물학적으로 덜 맞는 특성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은 모욕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렇게 반박한다. 다모어는 개인을 집단으로 환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분명히 밝혔으므로, 구글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고용한 여성들이 남성보다 그 일에 생물학적으로 덜 맞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저자는 구글이 아주 까다롭게 직원을 고르는 고용주이므로, 구글의 선발 과정을 거쳐 특정 특성에서 여성 전체의 특징과 다른 여성들이 고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저자에 따르면 다모어 메모의 표적은 여성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리라고 기대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구글이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피차이는 모든 구글 직원이 '괴롭힘, 위협, 편향, 불법 차별이 없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는 구글의 행동 강령도 인용한다. 저자는 다모어의 메모가 누구도 괴롭히거나 위협하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사회에서 그 메모에 불법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편향되었는가? 저자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을 보이려면 다모어가 자기 견해를 뒷받침하는 과학 연구는 고르고 반대되는 연구는 무시하는 식으로 편향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저자는 어쩌면 그런 논증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려면 시간과 연구가 든다고 말한다. 피차이는 아주 간단하게라도 그런 논증을 하려 하지 않는다. 저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피차이가 다모어를 해고하면서 한 일이 그가 인용한 구절과 정반대이며, 그가 다모어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위협을 받아 침묵하게 될 직장 문화를 만들었다고 본다. 메모 때문에 다모어를 해고한 구글의 결정 뒤에 아이러니한 일이 이어졌다. 2021년 법원은 대표 원고 4명이 여성 10,800명을 대신해 구글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동일 임금법 위반에 대한 6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내도록 허용했다. 이 사건은 2023년에 심리될 예정이다. 소송은 구글이 같은 직무 코드와 지역의 남성보다 여성에게 기본급과 보너스와 주식을 적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어법

- **But once such anti-discrimination measures have been taken, to the greatest extent feasible, does the fact that a workforce in a particular industry is predominantly male prove that there has been discrimination?** : once = ~하고 나면(접속사). have been taken = 현재완료 수동. to the greatest extent feasible = 가능한 최대한(feasible이 extent를 뒤에서 꾸밈). does + 주어(the fact that ...) + prove = 의문문. that = 동격 접속사(the fact의 내용).
- **Not if the kind of work on offer is likely to be attractive to more men than women.** : Not if ~ = ~라면 그렇지 않다(It does not prove it, if ...를 줄인 답). on offer = 제공되는. be likely to V = ~할 가능성이 있다.
- **That is not to say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justify.** : That is not to say that ~ = 그렇다고 ~라는 말은 아니다(양보). it = 여성 우대 정책. impossible to justify = 형용사 + to부정사(정당화하기가 불가능한).
- **But the case would need to be made for this in the particular area of employment in which such a policy was suggested.** : need to be p.p. = ~되어야 하다(수동). make the case for = ~을 지지하는 논증을 하다.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particular area of employment).
- **But Damore explicitly, and more than once, made it clear that he was not reducing individuals to a group** : make + 가목적어 it + 형용사(clear) + 진목적어 that절. 주어와 동사 사이에 부사구 explicitly, and more than once 삽입.
- **it is highly probable that Google's selection processes have led to Google employing women who are, in specific traits, uncharacteristic of women as a whole**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lead to + 의미상 주어(Google) + 동명사(employing). who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women). uncharacteristic of = ~의 특징이 아닌. as a whole = 전체로서.
- **To show that it was, it would need to be demonstrated that Damore was biased in selecting certain scientific studies that supported his view while disregarding others that went against it.** : To show = 목적의 to부정사. it was = it was biased(반복 생략). 가주어 it + to be demonstrated(수동) + 진주어 that절. be biased in -ing = ~하는 데 편향되다. while + -ing. others = other studies.
- **He has created a workplace culture in which those with opinions like Damore's will be intimidated into remaining silent.** :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a workplace culture). those with ~ = ~을 지닌 사람들. Damore's = Damore's opinions. intimidate + O + into -ing의 수동 = 위협받아 ~하게 되다(into + remaining — 원형 remain은 틀림). remain + 형용사 보어(silent).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easible	실현 가능한	practicable	impracticable
predominantly	주로, 대부분	mainly	—
preference	우대, 선호	priority	—
questionable	의심스러운	dubious	unquestionabl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ole model	본보기(가 되는 사람)	exemplar	—
valid	타당한	sound	invalid
explicitly	분명히, 명시적으로	clearly	implicitly
selective	까다롭게 고르는, 선별적인	choosy	indiscriminate
uncharacteristic	특징적이지 않은	atypical	characteristic
intimidate	위협하다, 겁주다	frighten	reassure
cursory	대충의, 피상적인	superficial	thorough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paradoxically	—
plaintiff	원고	complainant	defendant
allege	(증거 없이) 주장하다	claim	—

내용 일치 차별 방지 조치 뒤의 남성 위주 = 차별의 증거? → 일이 남성에게 더 끌린다면 '아니다' · 다모어의 견해가 옳다'면'(if) 소프트웨어 공학도 그럴 것 · 그렇다면 여성 우대는 '의문' · 정당화 '불가능은 아님'(여성 본보기 · 다른 이유도 있을 '수') · 그 분야에서 따로 논증 필요 · 합리적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견해(저자) · 피차이 = '생물학적으로 덜 맞다'는 말은 모욕적 · 다모어 = 개인을 집단으로 환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밝힘 · 구글 = 선별적 고용주 → 여성 전체와 다른 특성의 여성을 고용했을 가능성 높음 · 표적 = 여성이 절반이어야 한다는 기대와 구글이 그 결과를 위해 조치해야 한다는 생각 · 행동 강령 = 괴롭힘 · 위협 · 편향 · 불법 차별 없는 문화 · 메모 = 괴롭힘 · 위협 · 불법 아님 · 편향은 입증해야(어쩌면 할 수 있고 해야 함 — Perhaps) · 피차이는 시도조차 안 함 · 해고 = 인용한 구절과 정반대 · 2021년 대표 원고 4명 · 여성 10,800명 · 6억 달러 · 캘리포니아 동일임금법 · 2023년 심리 '예정' · 남성보다 적게 지급(소송의 '주장', alleges). **밑줄 의미** Not if ~ = 그 일이 남성에게 더 끌린다면 남성 위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차별이 증명되지 않는다 / not reducing individuals to a group = 집단의 경향을 개인에게 그대로 덧씌우지 않는다 / intimidated into remaining silent =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겁먹고 입을 다물게 된다 / 206쪽 ¶2 it would be impossible = 여성 우대 정책 · ¶3 he = 다모어 · ¶4 them = 동료 집단 · ¶5 it(Was it biased?) = 다모어의 메모 · ¶6 He = 피차이 · 207쪽 ¶1 The case · The suit = 집단 소송.

> **한 줄 요약** 일이 남성에게 더 끌린다면 남성 위주의 인력이 곧 차별의 증거는 아니며, 저자는 다모어가 개인을 집단으로 환원하지 않았고 메모가 괴롭힘도 불법도 아니었는데 그를 해고한 피차이가 오히려 비슷한 의견의 사람들이 위협받아 침묵하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본다.

10-5 사례와 저자의 답 – 새 학술지, 학문의 자유를 위협한 쪽, 불쾌감과 억압 208쪽 ¶1 ~ 209쪽 ¶1

원문 위치 원서 208쪽 ¶1 ~ 209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8쪽 ¶1 첫 문장	In April 2021, the Journal of Controversial Ideas—of which I am a co-editor— published its first issue	연도 · 저자의 역할
◆	208쪽 ¶1 둘째 문장	a response to the shrinking boundary, even in liberal democracies, of acceptable discourse	밑줄 의미 후보
▲	208쪽 ¶1 셋째 문장	a forum in which authors can, if they wish, use a pseudonym to avoid running the risk of receiving personal abuse	in which · avoid -ing
◆	208쪽 ¶2 첫 문장	There was a time when the threat to academic freedom in democratic countries came primarily from the right	과거의 위협 – 대조
★	208쪽 ¶2 둘째 문장	Scott Nearing, a left-leaning economist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o was dismissed	인물 · 대학 – 어법 지문
★	208쪽 ¶3 첫 문장	Fifty years later, in the McCarthy era, many people were blacklisted or dismissed	시대 · 수동 – 어법
★	208쪽 ¶3 둘째 문장	When I came to Princeton in 1999, Steve Forbes … called for my appointment to be rescinded	연도 · call for + O + to V
◆	208쪽 ¶4 첫 문장	Today, however, most of the opposition to freedom of thought and discussion comes from the left	저자의 주장 – 귀속
★	208쪽 ¶4 둘째 문장	in 2017, when Rebecca Tuvel published "In Defense of Transracialism" in Hypatia	연도 · 학술지 – 요약문
★	208쪽 ¶4 넷째 문장	More than 800 people, mostly academics, signed a letter demanding that Hypatia retract the article	숫자 · demand that + 원형
▲	208쪽 ¶4 다섯째 문장	There were also calls for Tuvel, a young female academic without tenure, to be dismissed	call for + O + to be p.p.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8쪽 ¶5 둘째 문장	Winnubst does not attempt to refute Tuvel's argument, but only to show that it may be damaging to some	저자의 평가 — 요약문 (A)
★	208쪽 ¶5 둘째 문장	although without specifying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 damage	요약문 (B)
★	209쪽 첫 줄 (208쪽 ¶6 셋째 문장)	"there is no parity," he responds, ... the desire of a thief to take a purse	밀의 비유 — 밑줄 의미
◆	209쪽 ¶1 첫 문장	it is at least not obvious that the fact that a view may offend some people is a sufficient reason for suppressing it	저자의 판단 — 주장
▲	209쪽 ¶1 둘째 문장	Taking that seriously would drastically narrow the scope for freedom of expression	동명사 주어 · 가정의 would

내용

2021년 4월, 저자가 공동 편집자로 있는 『Journal of Controversial Ideas』가 창간호를 냈다. 이 학술지는 자유 민주 국가에서조차 받아들여지는 담론의 경계가 좁아지는 데 대한 대응이다. 이 학술지는 저자들이 원하면 필명을 써서, 살해 위협을 포함한 개인적 공격을 받거나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마당이 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 민주 국가에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주로 우파에서 오던 때가 있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표현의 자유 사건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좌파 성향 경제학자 스콧 니어링의 일이었다. 그는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이 대학 이사회의 은행가와 기업 지도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되었다. 50년 뒤 매카시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좌파 사상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해고되었다. 1999년 저자가 프린스턴에 왔을 때에는,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하던 스티브 포브스가 인간 생명의 신성함이라는 전통적 원칙에 대한 저자의 비판에 반대해 저자의 임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한 반대의 대부분이 좌파에서 온다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7년 리베카 투벨이 페미니스트 철학 학술지 『Hypatia』에 「In Defense of Transracialism」을 발표했을 때 일어났다. 투벨의 논문은 자기 성별을 선택할 권리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 인종을 선택할 비슷한 권리는 부정하는지 물었다. 대부분 학자인 800명 넘는 사람이 『Hypatia』에 그 논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젊은 여성 학자인 투벨을 해고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서한을 쓴 모임의 일원인 페미니스트 철학자 섀넌 위너브스트는 '이런 종류의 학문이 소외된 집단, 특히 흑인과 트랜스 학자들에게 끼치는 피해'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위너브스트가 투벨의 논증을 반박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일부 사람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만 보이려 하며, 그마저도 그 피해의 성격과 심각성을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보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On Liberty)』에서 펼친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한 고전적 옹호와 뚜렷이 대조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밀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면 불쾌감을 낳을 것이라는 반론을 검토한 뒤, 자기 의견에 대해 한 사람이 지니는 감정과 그가 그 의견을 지닌 데 불쾌해하는 다른 사람의 감정 사이에는 대등함이 없다고 답한다. 지갑을 가져가려는 도둑의 욕구와 그것을 지키려는 정당한 주인의 욕구 사이에 대등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저자는 밀의 비유를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어떤 견해가 일부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억압할 충분한 이유인지는 적어도 분명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윤리, 정치, 종교에 관한 폭넓은 물음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크게 좁아질 것이다.

어법

- **In April 2021, the Journal of Controversial Ideas—of which I am a co-editor— published its first issue.** : of which = be a co-editor of the journal의 of가 관계대명사 앞으로(대시로 삽입). 주어 the Journal … → 동사 published.
- **It is specifically designed to provide a forum in which authors can, if they wish, use a pseudonym to avoid running the risk of receiving personal abuse** : be designed to V = ~하도록 만들어지다.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a forum). can과 use 사이에 if they wish 삽입. avoid + -ing(running). run the risk of -ing = ~할 위험을 무릅쓰다.
- **There was a time when the threat to academic freedom in democratic countries came primarily from the right.** : when = 관계부사(선행사 a time). 주어 the threat(단수) → came. primarily = 주로.
- **Scott Nearing, a left-leaning economist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o was dismissed because his activism for social justice did not sit well with the bankers and corporate leaders** : a left-leaning economist … = Scott Nearing과 동격. who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economist — 사람이므로 which가 아님) + 수동 was dismissed. sit well with = ~의 마음에 들다.
- **Steve Forbes (who was then campaigning for the Republican nomination for president) called for my appointment to be rescinded** : call for + O + to V = O가 ~하기를 요구하다 → to be rescinded(수동: 취소되기를). 괄호 = 계속적 관계대명사절 삽입.
- **More than 800 people, mostly academics, signed a letter demanding that Hypatia retract the article.** : demanding = a letter를 꾸미는 현재분사 후치. demand that + 주어 + (should) 원형 → retract(retracts · retracted 가 아님).
- **Winnubst does not attempt to refute Tuvel's argument, but only to show that it may be damaging to some** : not A but only B — attempt의 목적어인 to부정사 둘(to refute / to show)이 대응. it = 투벨의 논증. may = ~일 수도.
- **it is at least not obvious that the fact that a view may offend some people is a sufficient reason for suppressing it** : 가주어 it + 진주어 첫째 that절. 둘째 that = 동격 접속사(the fact의 내용). 진주어절의 주어 the fact → 동사 is. for + -ing(suppressing).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troversial	논쟁적인	contentious	uncontroversial
discourse	담론	discussion	—
pseudonym	필명	pen name	real name
irrevocably	돌이킬 수 없게	irreversibly	reversibly
dismiss	해고하다	fire	hire
blacklist	블랙리스트에 올리다	ban	—
rescind	취소하다	revoke	—
tenure	(교수의) 정년 보장	—	—
retract	철회하다	withdraw	—
marginalized	소외된	excluded	—
refute	반박하다	disprove	confirm
severity	심각성	seriousness	mildnes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arity	대등함, 동등	equality	disparity
suppress	억압하다	stifle	—

내용 일치 2021년 4월 창간호 · 저자 = 공동 편집자 · 자유 민주 국가에서도 좁아지는 담론의 경계에 대한 대응 · 원하면 필명 → 살해 위협 등 개인적 공격 · 경력의 돌이킬 수 없는 해를 피함 · 한때 위협은 '주로 우파' · 니어링(펜실베이니아 대학 · 좌파 성향 경제학자) = 이사회의 은행가 · 기업 지도자 때문에 해고 · 50년 뒤 매카시 시대 = 블랙리스트 · 해고 · 1999년 포브스(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운동) = 저자의 임명 취소 요구 · 오늘날 대부분 좌파에서(저자의 말) · 2017년 투벨 · 『Hypatia』 · 800명 넘게(대부분 학자) 철회 요구 · 정년 보장 없는 젊은 여성 학자 · 해고 요구 · 위너브스트 = 서한을 쓴 모임의 일원 · 소외된 집단에 주는 피해 · 반박은 시도 안 함 · 해로울 '수' 있다고만 · 피해의 성격과 심각성 밝히지 않음(저자의 평가) · 밀 = 대등함이 없다(도둑과 주인) · 저자 = 비유를 받아들이든 아니든 불쾌감만으로 억압할 충분한 이유인지 '분명하지 않음' · 표현의 자유가 크게 좁아질 것. **밑줄 의미** the shrinking boundary … of acceptable discourse = 말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지는 생각의 범위가 점점 좁아진다 / there is no parity = 자기 의견에 대한 감정과 그 의견에 불쾌해하는 감정은 같은 무게가 아니다(밀) / it may be damaging to some = 일부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만 보일 뿐 논증을 반박하지 않는다(저자의 평가) / 208쪽 ¶2 his activism = 니어링 · ¶3 my appointment = 저자 · he objected = 포브스 · ¶4 Tuvel's article = 투벨의 논문 · ¶5 she did so = 위너브스트(서한을 씀) · 209쪽 첫 줄 he responds = 밀 · ¶1 Taking that seriously의 that = 불쾌감이 억압의 충분한 이유라는 생각.

> **한 줄 요약**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쪽은 한때 우파에서 오늘날 주로 좌파로 바뀌었다고 보는 저자는, 논증을 반박하지 않고 해로울 수 있다고만 하는 철회 요구를 짚으며 어떤 견해가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억압할 충분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10-6 저자의 답과 더 큰 그림 — 학술지의 장치, 더 큰 대가, 필명으로의 초대 209쪽 ¶2 ~ 210쪽 ¶1

원문 위치 원서 209쪽 ¶2 ~ 210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9쪽 ¶2 첫 문장	a peer-reviewed interdisciplinary academic journal	학술지의 성격 — 내용 일치
▲	209쪽 ¶2 둘째 문장	excludes articles that an editor judges have no chance of receiving favorable recommendations	삽입절 an editor judges
▲	209쪽 ¶2 셋째 문장	Those that are not summarily rejected are sent for review to experts	those that · 수동
★	209쪽 ¶3 둘째 문장	Only submissions that make a well-argued case for their conclusions will be accepted.	심사 기준 — Only + 주어
◆	209쪽 ¶3 셋째 문장	must criticize only ideas and arguments, rather than the people who are the sources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09쪽 ¶4 둘째 문장	What is distinctive … is authors' option of using a pseudonym, thus protecting them	what절 주어 · thus + -ing
★	209쪽 ¶4 넷째 문장	Three of the ten articles in the first issue were published under a pseudonym.	숫자 – 서답형
★	209쪽 ¶5 첫 문장	anyone with an Internet connection can read it, free and without paid advertising	내용 불일치 후보
◆	209쪽 ¶5 둘째 문장	The editors have pledged not to bow to public pressure to retract an article, unless	서약 – 뒤집기 주의
▲	209쪽 ¶5 셋째 문장	Because the journal is online only, the editors are not beholden to any institution or publisher	be beholden to
◆	209쪽 ¶6 첫 문장	expressing controversial ideas … comes at an even higher cost	전환 – 무관한 문장 지문
★	209쪽 ¶6 둘째 문장	there were 241 attacks … including 98 killings … and 54 cases of imprisonment, while 30 scholars lost their position	숫자 – 내용 일치
★	209쪽 ¶6 셋째 문장	China, Russia, Turkey, Iran, and Myanmar are responsible for the majority of these cases	나라 – 뒤집기 주의
★	209쪽 ¶7 둘째 문장 ~ 210쪽 첫 줄	In Thailand in 2021, a woman known only as Anchan was sentenced to 43 years in prison	숫자 · 나라 – 서답형
◆	210쪽 ¶1 둘째 문장	Well-argued ideas can stand and be judged on their own, without the author's real name.	저자의 결론

내용

『Journal of Controversial Ideas』는 동료 심사를 거치는 학제 간 학술지다. 투고 원고는 먼저 초기 점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점검은 심사자들에게서 좋은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편집자가 판단하는 논문을 걸러 낸다. 즉석에서 거절되지 않은 원고는 그 논문 주제의 전문가들에게 보내 심사를 받는다. 심사자들은 투고 원고가 논쟁적인 생각을 다루는지, 그렇다면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얼마나 강하고 논증이 얼마나 엄밀한지를 따진다. 결론을 잘 논증한 원고만 실린다. 또 논문은 논쟁조여서는 안 되며, 생각과 논증의 출처인 사람이 아니라 생각과 논증만을 비판해야 한다. 논쟁적인 생각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빼면,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의 학술지에도 해당한다. 이 학술지가 남다른 점은 저자들이 필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저자들은 논쟁적인 생각을 옹호하면 겪을까 두려워할 여러 형태의 위협에서 보호받는다. 나중에 저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면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다. 창간호에 실린 논문 10편 가운데 3편이 필명으로 발표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유료 광고 없이 이 학술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편집자들은 논문이 거짓 자료를 담았거나 표절과 관련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나지 않는 한, 공공의 압력에 굴복해 논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학술지가 온라인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편집자들은 어떤 기관이나

출판사에도 매여 있지 않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함께 걱정하는 폭넓은 기부자들에게서 재정 지원을 받으므로, 특정 기부자나 기부자 집단의 호의에 기대지도 않는다. 저자는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이런 장애에서 저자들을 보호하려 하면서도,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논쟁적인 생각, 특히 정부나 지배적인 종교를 비판하는 생각을 표현하는 데 훨씬 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위기의 학자들 네트워크(Scholars at Risk Network)의 학문 자유 감시 프로젝트는 2022년 5월 27일까지의 12개월 동안 학자, 학생, 대학에 대한 공격이 241건 있었다고 보고한다. 그 가운데 살해, 폭력, 실종이 98건, 투옥이 54건이었고, 30명의 학자가 자리를 잃었다. 이 사례의 대부분은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이란, 미얀마의 책임이다. 억압적 독재 국가로 여기지 않는 나라에서도 생각을 표현했다가 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태국에서는 안찬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여성이 왕실을 비판한 팟캐스트의 오디오 클립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43년을 선고받았다. 저자는 자기 이름으로 생각을 발표했다가 투옥, 협박, 괴롭힘, 위협, 경력의 피해를 겪을 사람들에게 필명으로 원고를 보내라고 권한다. 잘 논증된 생각은 저자의 실명 없이도 스스로 서고 평가받을 수 있다.

어법

- **Submissions must pass an initial check that excludes articles that an editor judges have no chance of receiving favorable recommendations from reviewers.** : 첫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n initial check). 둘째 that = have의 주어인 주격 관계대명사이고, 사이에 an editor judges가 끼어든 구조(articles that [an editor judges] have ...). chance of + -ing.
- **Those that are not summarily rejected are sent for review to experts on the article's topic.** : Those that = ~한 것들(those = submissions). 관계절 동사 are not rejected와 본동사 are sent 모두 수동. send A to B의 수동에서 for review가 사이에 놓임.
- **Reviewers then consider whether a submission is discussing a controversial idea, and if it is, what is the strength of the evidence, or the rigor of the argument, for that idea.** : consider의 목적어 = whether절과 what 절(and로 병렬). if it is = if it is discussing a controversial idea(생략). what is the strength ... = 간접의문문이지만 주어(the strength ... for that idea)가 길어 is가 앞에 놓임.
- **Only submissions that make a well-argued case for their conclusions will be accepted.** : Only + 주어 = 주어만(도치 없음 — Only가 부사(구 · 절)를 이끌고 문두에 올 때만 도치).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submissions → 복수 make). will be accepted = 미래 수동.
- **What is distinctive about the Journal of Controversial Ideas, however, is authors' option of using a pseudonym, thus protecting them from the various forms of intimidation that they may otherwise fear if they advocate controversial ideas.** : What is distinctive = 관계대명사 what절 주어 → 단수 is. thus + -ing = 그리하여 ~하다(결과의 분사구문).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fear의 목적어). otherwise = 그렇지 않으면(필명이 없으면).
- **The editors have pledged not to bow to public pressure to retract an article, unless it is subsequently shown to contain false data or to involve plagiarism.** : pledge + not to V =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다(not은 to 앞). pressure to V = ~하라는 압력. unless = ~하지 않는 한. be shown to V = show + O + to V의 수동. to contain과 to involve 병렬.
- **we should not forget that in much of the world, expressing controversial ideas, especially those critical of governments or a dominant religion, comes at an even higher cost** : 동명사 주어 expressing ... → 단수 comes. those critical of ~ = ~에 비판적인 것들(those = ideas, 형용사구 후치). even + 비교급 = 훨씬 더. come at a cost = 대가가 따르다.
- **We invite people who face prison, threats, harassment, intimidation, or harm to their careers for publishing their ideas under their own name to send them to us under a pseudonym.** : invite + O + to V = O에게 ~하라고 권하다. O = people who ... under their own name(긴 관계절) → 뒤에 to send. for + -ing = ~ 때문에. them = their idea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terdisciplinary	학제 간의	cross-disciplinary	—
submission	투고 원고	manuscript	—
summarily	즉석에서, 약식으로	immediately	—
rigor	엄밀함	precision	laxity
polemical	논쟁조의, 공격적인	combative	conciliatory
distinctive	독특한, 남다른	characteristic	ordinary
advocate (v.)	옹호하다	champion	oppose
pledge	서약하다	vow	—
plagiarism	표절	copying	—
beholden	신세를 진, 매인	indebted	independent
hindrance	방해, 장애	obstacle	aid
imprisonment	투옥	incarceration	release
repressive	억압적인	oppressive	liberal
monarchy	왕실, 군주제	royalty	republic

내용 일치 동료 심사 · 학제 간 학술지 · 초기 점검(편집자가 좋은 추천을 받을 가능성 없다고 판단한 논문 제외) → 전문가 심사 · 논쟁적 생각인지 · 증거의 힘 · 논증의 엄밀함 · 잘 논증된 원고만 · 논쟁조 금지 · 사람이 아니라 생각과 논증만 비판 · 논쟁적 생각에 대한 초점 빼면 대부분 학술지와 같음 · 남다른 점 = 필명 선택 · 나중에 원하면 신원 확인 · 창간호 10편 중 3편 필명 · 누구나 무료 · 유료 광고 없음 · 거짓 자료 · 표절이 드러나지 않는 한 공공의 압력에 굴복해 철회하지 '않음' · 온라인 전용 → 기관 · 출판사에 매이지 않음 · 폭넓은 기부자 → 특정 기부자에 기대지 않음 · 세계 많은 곳 = 훨씬 큰 대가(특히 정부 · 지배적 종교 비판) · 2022년 5월 27일까지 12개월 = 공격 241건 · 살해 · 폭력 · 실종 98건 · 투옥 54건 · 30명 지위 잃음 · 중국 · 러시아 · 튀르키예 · 이란 · 미얀마가 '대부분' · 억압적 독재로 여기지 않는 나라에서도 · 태국 2021 안찬 = 징역 43년 · 필명으로 보내라(저자). **지칭** 209쪽 ¶2 Those that are not summarily rejected = 투고 원고 / ¶3 it(if it is) = 투고 원고 · their conclusions = 투고 원고들 / ¶4 All of this = 앞의 심사 방식 · them · they = 저자들 / ¶5 it(can read it) = 학술지 · We = 편집자들(저자 포함) · our concerns = 편집자들 / ¶6 we have described = 편집자들(저자 포함) · those critical of = 생각 · these cases = 공격 · 투옥 등 / 210쪽 ¶1 them(send them) = 그들의 생각 · on their own = 잘 논증된 생각.

> **한 줄 요약** 엄격한 심사를 거치면서도 필명 선택 · 무료 공개 · 철회 압력 거부를 내건 이 학술지에 대해, 저자는 세계 곳곳에서 학자들이 훨씬 큰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짚고, 잘 논증된 생각은 저자의 실명 없이도 서고 평가받을 수 있으니 필명으로 보내라고 권한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10 SPEECH]

범위	Free Speech and Fake News · Why Google Was Wrong · Keeping Discussion Free (원서 PDF 203~210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ome scientific research supports the views Damore set out in his memo, and there are also reasons to doubt parts of that research. To judge whether Google was right to dismiss him, however, we need not settle which side wins the scientific argument. We need only ask whether someone working at Google ought to be free to voice a view like his. In my judgment, the answer is yes. First of all, his position is not a warped or crazy one. Serious papers backing it have appeared in leading scientific journals after being checked by other experts in the field. A view with that kind of support is one that Google employees should be permitted to voice.

① Google was right to fire Damore over what he wrote.
② The research behind Damore's claims is beyond question.
③ Employees at Google should be allowed to express views like Damore's.
④ Companies must settle scientific debates before they make hiring decisions.
⑤ Only views that have been proven true should be expressed at work.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Google's chief executive, Sundar Pichai, said it was offensive to suggest that some colleagues have traits making them biologically less suited to their work. But Damore had stated clearly, and more than once, that he was not treating individuals as mere members of a group. So he was not claiming that Google's female software engineers are less fit for their jobs than the men. Google picks its staff very carefully, so it is quite likely that the women it has hired differ, in particular traits, from women in general. The real target of the memo was something else: the expectation that women should make up half of all software engineers, and the idea that Google should take steps to reach that goal.

① How Google Selects Its Software Engineers
② The Case for Equal Numbers in Every Profession
③ Pichai's Plan to Hire More Women Engineers
④ Misreading the Memo: What Damore Was Actually Arguing Against
⑤ Why Every Company Needs a Code of Conduct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ake news is false information deliberately dressed up to look as though it comes from a reputable news outlet, and it endangers democratic institutions. Not every case is as absurd as the Pizzagate story. In one, a made-up report about a nuclear threat from Israel's defense minister fooled Pakistan's defense minister, who passed it on and reminded Israel that Pakistan also has nuclear weapons. Whether or not such stories decided the 2016 election, they clearly can make a candidate lose and can unsettle relations between nations. They also undermine a basic assumption of democracy: that voters are able to choose between rival candidates on the basis of accurate information.

① Fake news does little damage because voters can easily spot it.
② Fake news threatens democracy by undermining voters' ability to make informed choices.
③ Only absurd stories like Pizzagate count as fake news.
④ Fake news decided the outcome of the 2016 election.
⑤ Relations between nations matter more than national elections.

4. 밑줄 친 there is no parit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In On Liberty, his famous case for free thought and open debate, John Stuart Mill takes up the objection that free speech will give offense. On one side he places the feeling a person has for his own opinion; on the other, the feeling of someone who is offended that he holds it. Mill's reply is that there is no parity here, any more than there is between a thief's wish to grab a purse and the owner's wish to keep it. We may or may not accept this comparison. Even so, it is far from obvious that a view should be suppressed merely because it may offend some people. If that were enough, the room for free expression on many moral, political, and religious questions would shrink drastically.

① Thieves and owners have an equal claim to a purse.
② The offended person's feelings should decide whether a view may be expressed.
③ Free speech and property rights have nothing to do with each other.
④ Every opinion deserves to be judged equally true.
⑤ One's feeling for one's own opinion and another's offense at it do not weigh the same.

5. 밑줄 친 the legal pendulum to swing back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Britain, defamatory libel was treated as a crime for centuries, but the law fell out of use and was scrapped in 2010. American law does not make it a federal crime; some states keep it on their books, yet hardly anyone is prosecuted. A 2015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report called many recent cases trivial, judged civil law a better route for private complaints, and declared criminal libel unnecessary. The author suspects that this verdict came too soon. Accusing a presidential candidate, in the middle of a campaign, of personally killing children is hardly trivial, and a civil lawsuit offers no adequate remedy. Now that we live in the Internet age, he asks, is this the right moment to allow the legal pendulum to swing back in the direction of criminal libel?

① The law should perhaps return to punishing libel as a crime.
② Civil courts should handle every kind of defamation case.
③ Criminal libel cases should be decided more quickly.
④ Britain was right to abolish its criminal libel law in 2010.
⑤ Online speech should be completely free from legal limits.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Alex Jones hosted a talk show, and among those who listened to ① his show was Edgar Welch, a Christian whose back was tattooed with verses from the Bible. On December 4, Welch traveled 350 miles by car from North Carolina, where ② his home was, to Comet Ping Pong, bringing a knife, a revolver, and an assault rifle. Once there, ③ he let the customers and staff leave and then began to search for enslaved children who were said to be hidden in tunnels. ④ He shot at least once with ⑤ his rifle to get through a locked door. Finding no children, Welch gave himself up to the police.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Pichai never said which parts of the memo crossed the line, which would have been hard, because the whole memo asks whether some gender stereotypes have any basis in fact. Damore claims there is evidence that, compared with men, women tend to care more about people and less about analyzing or building systems, to feel more anxiety and cope less well with stress, to want status less, and to care more about balancing work and life. Yet he takes care to note that this evidence does not show that every woman has these traits more strongly than men. Many of the differences are small, he says, the two groups overlap considerably, and such population-level patterns say nothing about any individual. He even includes a graph making this point.

① 피차이는 메모에서 선을 넘은 부분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② 다모어는 집단 수준의 분포로는 개인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③ 다모어는 모든 여성이 남성보다 이 특성들을 더 강하게 지닌다고 주장했다.
④ 다모어는 남녀 차이가 대부분 크고 두 집단은 거의 겹치지 않는다고 했다.
⑤ 다모어는 자신의 주장을 보여 주는 그래프를 싣지 않았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Apart from its special interest in controversial ideas, the journal works much like most academic journals. What sets it apart is that authors may choose to publish under a pseudonym, which shields them from the many kinds of intimidation they might otherwise face for defending controversial views. Should they later wish to be credited, their identities can be verified. In the first issue, three of its ten articles appeared under pseudonyms. The journal can also be read free of charge by anyone with Internet access, and it carries no paid advertising. Its editors have promised not to give in to public pressure to withdraw an article, except where it is later found to include false data or plagiarized material. Since the journal exists only online, they depend on no institution or publisher.

① 저자는 원하면 필명으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저자가 나중에 원하면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③ 창간호 논문 10편 가운데 3편이 필명으로 실렸다.
④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읽을 수 있다.
⑤ 편집자들은 공공의 압력이 크면 논문을 철회하기로 약속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Pichai also cited Google's Code of Conduct, ① what asks every employee to do their best to build a workplace with no harassment, threats, prejudice, or illegal discrimination. Yet the memo neither harassed nor threatened anyone, and where free expression is protected, nothing about it was illegal. Was it biased, then? To prove that, one would have to demonstrate that Damore ② chose studies supporting his view while ignoring those ③ that pointed the other way. Perhaps such a case could be made, but making it would ④ take time and research, and Pichai does not even try. Ironically, by firing Damore, Pichai created a culture in which people with similar opinions will be frightened into ⑤ remaining silent.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democratic nations, academic freedom was once threatened mainly from the right.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most famous free speech case in the United States involved Scott Nearing, an economist with left-leaning views (A) [who / which] was let go by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because the bankers and business leaders on its board disliked his work for social justice. Half a century later, during the McCarthy era, a great many people (B) [blacklisted / were blacklisted] or fired for supporting leftist ideas. And in 1999, when the author arrived at Princeton, Steve Forbes, then seeking the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ation, demanded that the appointment (C) [be rescinded / was rescinded], objecting to the author's attack on the traditional view that every human life is sacred.

	(A)	(B)	(C)
①	which	were blacklisted	be rescinded
②	who	blacklisted	was rescinded
③	which	blacklisted	be rescinded
④	who	were blacklisted	was rescinded
⑤	who	were blacklisted	be rescinded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Today it is hard to have so much ① faith in what free and fearless reasoning can achieve, especially when that reasoning is meant to work through popular government and so, presumably, to shape elections. Likewise, Brandeis's view that the cure for falsehood is more speech rather than enforced silence now looks ② naïve, above all during an election campaign. But what else is there? Jones's claims about Clinton were surely defamation, so she could ③ sue him in a civil court. Such a case, however, would be ④ cheap and slow, probably dragging on for years. Besides, civil defamation suits work only against people who have enough ⑤ assets to pay the damage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In a 1927 case, Whitney v. California, Justice Louis Brandeis wrote a concurring opinion that sharpened the clear-and-present-danger test. For him, free speech and assembly were vital to a working democracy, and he trusted brave, independent citizens to reason openly through popular government. Speech could be forbidden, on this view, only when _____. Wherever there was still time to show through discussion that a claim was false, and to prevent the evil through education, he insisted that the answer to bad speech was more speech rather than silence imposed by force.

① it criticized the government or the courts
② most citizens found it offensive
③ it threatened an evil so close at hand that no full discussion was possible
④ it appeared during an election campaign
⑤ it might cause some harm at a later time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hat practice has greatly increased how many women play in orchestras.

The memo also deals with a serious issue. Google is right to worry that most of its staff are men, and sexism is well documented in many kinds of jobs. (①) Employers should stay alert to the chance that they are treating women unfairly. (②) Some orchestras, for example, now hold blind auditions, in which musicians play behind a screen so the judges cannot tell whether the player is male or female. (③) More businesses should look for similar ways to hide applicants' gender from themselves when hiring. (④) Even so, if a job appeals more to men than to women, a mostly male workforce may not prove discrimination.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In many countries, airing controversial views carries an even heavier price. ① This is especially true of views that criticize those in power or a dominant faith. ② In the year ending May 27, 2022, a project run by the Scholars at Risk Network recorded 241 attacks on universities, students, and scholars, among them 98 killings, violent acts, or disappearances. ③ Five countries account for most of these cases: China, Iran, Russia, Turkey, and Myanmar. ④ A court in 2021 let four lead plaintiffs take Google to court in a class action representing 10,800 women. ⑤ Even nations not seen as repressive dictatorships can jail people for ideas: in 2021, a Thai woman known as Anchan got 43 years for sharing podcast clips that attacked the monarchy.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November 2016, a week or so before the presidential vote, someone on Twitter accused Hillary Clinton of leading a ring that abused children. Talk show host Alex Jones repeated the rumor again and again.

(A) These allegations about the restaurant were retweeted over and over by bots, making it look as if many people believed them. Even Michael Flynn, whom Trump later made his national security adviser, retweeted the story.

(B) The story kept spreading after Trump won, though two major newspapers had shown it to be false. The restaurant got abusive and threatening calls, and police told its manager the rumors were speech the Constitution protects.

(C) Emails made public by WikiLeaks revealed that Clinton's campaign chairman, John Podesta, sometimes ate at Comet Ping Pong, a Washington, DC, pizza place. Apparently for this reason, the accusations came to center on it.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 telling case came in 2017: Rebecca Tuvel's article 'In Defense of Transracialism' appeared in the feminist philosophy journal Hypatia. It asked why those who strongly defend the freedom to pick one's gender reject a similar freedom to pick one's race. Over 800 people, mostly scholars, signed a letter calling for its withdrawal. Shannon Winnubst, who helped write the letter, said she acted because of the harm such work does to marginalized groups. Yet she did not try to show that Tuvel's argument was wrong; she claimed only that it might hurt some people, without saying what sort of harm or how serious it would be.

→ Instead of (A) _____ Tuvel's argument, Winnubst merely suggested that it could be harmful to some, leaving both the nature and the (B) _____ of that harm unexplained.

① supporting ..... severity
② refuting ..... severity
③ refuting ..... source
④ ignoring ..... benefit
⑤ publishing ..... origin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Alex Jones's YouTube video about the Pizzagate rumor went up four days before the 2016 election and was viewed over 400,000 times. Justice Brandeis's famous defense of free speech came in 1927. Britain, which had long treated defamatory libel as a crime, abolished that offense in 2010. After Google fired Damore, its CEO said parts of the memo crossed a line but never said which parts. In 2021, a court let a class action go ahead against Google, representing 10,800 women. The new journal's first issue contained ten articles, three of them under pseudonyms. In Thailand, a woman called Anchan received a prison sentence of 43 years.

<QUIZ>

(1) How many times was Jones's YouTube video viewed?
Answer for (1): _____

(2) In what year did Brandeis write his famous defense of free speech?
Answer for (2): _____

(3) In what year did Britain abolish the crime of defamatory libel?
Answer for (3): _____

(4) How many women did the 2021 class action against Google represent?
Answer for (4): _____

(5) Is it true or false that Google's CEO named the parts of the memo that crossed a line?
Answer for (5): _____

(6) How many articles in the journal's first issue appeared under pseudonyms?
Answer for (6): _____

(7) How long was the prison sentence given to Anchan?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919	N. True
B. 2010	O. four
C. 43 days	P. more than 400,000
D. 2015	Q. 1999
E. 800	R. $600 million
F. 2023	S. three
G. ten	T. 2017
H. 43 years	U. 1927
I. False	V. 54
J. 350	W. 98
K. 2021	X. 2016
L. 10,800	Y. more than 40,000
M. 241	Z. 30 years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선거 4일 전에 게시된 그 영상은 40만 회 넘게 시청되었다. (과거분사구 삽입 / 수동)

02 그 주장들은 봇이 자주 리트윗해,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데 이바지했다. (결과의 분사구문 / 동격 that)

03 그것은 민주주의가 기대는 기본 전제 가운데 하나, 곧 유권자가 정보에 근거해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에 어긋난다. (전치사 + 관계대명사 / 콜론 뒤 that절)

04 브랜다이스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효과적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묘사했다. (describe A as B / 형용사구의 후치 수식)

05 보고서는 형사 명예훼손이 불필요해졌다고 결론짓지만, 그 결론은 성급했을지도 모른다. (may have p.p.(추측))

06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메모 전체가 어떤 성별 고정관념이 현실에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would have p.p. / 전치사 + whether절)

07 그는 사람을 그들의 집단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한다. (to부정사 주어 / reduce A to B)

08 구글은 자사 인력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사실을 마땅히 걱정한다. (be troubled by / 동격 that)

09 그렇다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That is not to say that / 형용사 + to V)

10 그는 다모어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위협을 받아 침묵하게 될 직장 문화를 만들었다. (전치사 + 관계대명사 / intimidate + O + into -ing의 수동)

11 8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학술지가 논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현재분사 후치 수식 / demand that + 원형)

12 편집자들은 공공의 압력에 굴복해 논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pledge + not to V / pressure to V)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피자게이트 주장이 트위터에 오른 때	
존스의 유튜브 영상을 올린 때 / 시청 횟수	
포데스타가 가끔 식사한 식당 / 해시태그	
이야기를 리트윗한 장군 / 선거 뒤 맡은 직책	
웰치가 식당에 간 날 / 달려온 거리 · 출발한 곳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이 이미 자리 잡은 때	
브랜다이스의 보충 의견이 나온 해 · 사건	
영국의 형사 명예훼손 폐지 / 미국에서의 지위	
형사 명예훼손을 '불필요'하다고 한 보고서	
다모어의 직업 / 메모를 비판한 CEO	
오케스트라의 여성 수를 크게 늘린 방식	
집단 소송: 해 · 대표 원고 · 여성 수 · 금액 / 든 법	
학술지 창간호가 나온 때 / 저자의 역할	
니어링이 해고된 대학 / 저자의 임명 취소를 요구한 사람 · 해	
투벨 논문의 해 · 학술지 / 철회 요구 서명자 수	

항목	답
창간호 가운데 필명으로 실린 논문	
학자 · 학생 · 대학 공격 건수 / 자리 잃은 학자	
안찬이 받은 형 · 나라 · 해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Free Speech and Fake News」에서 저자는 1919년까지 미국 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를 해석해 의회가 말을 금지할 수 있는 조건을 좁혀 왔다고 소개했다. 아래 빈칸 문장은 그 대목이다. 다른 두 편에도 이 낱말(또는 그 형용사형 · 동사형)이 나와, 어떤 말을 막으려는 쪽이 내세운 까닭이 되기도 하고 말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 빈칸에 들어갈 영어 명사 한 단어를 원서에서 찾아 쓰고, 그 근거를 「Why Google Was Wrong」과 「Keeping Discussion Free」에서 하나씩 찾아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말을 금지할 수 있는 조건: By 1919,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ose words had led to the doctrine that Congress could prohibit speech only if it posed "a clear and present danger" of serious _____.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11 LIVING, WORKING, PLAYING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Tiger or Elephant Mothers? · How Honest Are We? · Is Doping Wrong?
원서 PDF 216~221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아이를 기를 때, 지갑을 주웠을 때, 경기에 나설 때 무엇이 옳은가."

이 권은 아이를 기르고, 주운 지갑을 돌려주고, 경기에 나서는 일상의 자리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묻는 세 편을 묶었다. 「Tiger Mothers or Elephant Mothers?」에서 저자는 에이미 추아의 '호랑이 엄마' 양육법을 살핀 뒤,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기르려면 호랑이보다 코끼리 같은 부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How Honest Are We?」는 40개국에서 1만 7,000개가 넘는 '잃어버린' 지갑으로 한 연구에서 돈이 든 지갑이 더 자주 신고되었다는 결과를 읽고, 세상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고 본다. 「Is Doping Wrong?」은 안전하면 약물을 허용하자는 사불레스쿠의 제안을 소개한 뒤,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승자에게 법석을 떠는 우리에게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 노트는 누구의 주장인지 원서대로 가려 적었고 어느 입장도 권하지 않는다. 원서를 펴고 출제될 자리를 먼저 찾아 표시해 두어라.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아이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 호랑이는 줄이고 코끼리는 늘려야(217쪽 ¶6~¶8) / 돈이 든 지갑이 더 자주 신고됨(219쪽 ¶2) / 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219쪽 ¶6) /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우리 · 제안은 도핑을 끝내지 못함(221쪽 ¶5~¶6)
4~5	**밑줄 함축 의미**	pussycats, or worse / give "Most Valuable Player" awards to every member / lean toward the "clever" side / both extremes leave something out / a kind of day-care center / too cynical / with its contents intact / is outweighed by / not nearly so bad / from the safety of retirement / not to those who are drug-free / levels the playing field / the very spirit of sport / came out of a bottle / not with the athletes, but with us
6	지칭 추론	her own · her friends' · she가 저자의 딸과 딸 친구의 아이를 가리키는 217쪽 ¶3 / They(216쪽 ¶3 = 소피아 · 루이자) · He(217쪽 ¶1 = 스탠리 수) / this view(218쪽 ¶6) · they · those(219쪽 ¶2) · it(219쪽 ¶5 = 열쇠) / that(220쪽 ¶3 = 2년 금지) · it(220쪽 ¶6 = 적혈구 수치) · They(221쪽 ¶1 = 좋은 유전자를 지닌 선수)
7~8	내용 일치·불일치	소피아 · 루이자 · 체육과 연극 · 예일 로스쿨 · 스탠리 수(216~217쪽) / 세 곳 · 밤 11시 · 다섯 살 · 아홉 시간째(217쪽 ¶3) / 1만 7,000 · 40 · 355 · 13.45달러 · 94.15달러 · 65% · 75% · 80% · 25%(218쪽 ~ 219쪽 첫 줄) / 2% · 38개국 · 멕시코 · 페루 · 98%(219쪽) / 2007 · 7월 · 본즈 · 셀릭 · 2016 · 15명 · 2014 · 2년 · 2021(220쪽)
9~10	**어법**	would rather that + 가정법 과거 · 동격 · 계속적 which · when compared to · whereas · need to be p.p.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in which · be considered + 형용사 · so ~ that · that of · no matter how · not every · what + 명사 · 추측의 would · 부정 의문 · because와 because of · let + O + 원형 · leave + O + -ing · appear to V · view A as B · to 부정사 주어 + be + to부정사 · whose · just as ~ as · those who · How likely is it that · with + O + 형용사 · to what extent · whatever + 명사 · 분사구문 telling · report + O + p.p. · enable + O + to V · tend to · 관계부사 where · 동명사 수동 · 부분 + of + 단수 명사 · neither A nor B ·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 It was ~ that 강조 · so many ~ that · be believed to have been p.p. · at which · 과거완료진행 · as long as · propose that + should · instead of -ing · 동명사 주어 · 가주어 it · give + IO + DO · 삽입절 Savulescu says · for its own sake · not only A but also B · 가정법 과거 · 과거분사 삽입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superior ↔ inferior · fragile ↔ sturdy · intrinsically ↔ extrinsically · permissiveness ↔ strictness · solitary ↔ social · abundant ↔ scarce · cynical ↔ trusting · transparent ↔ opaque · affluent ↔ poor · consistent ↔ inconsistent · aversion ↔ liking · minuscule ↔ enormous · reducing(221쪽 ¶1) ↔ increasing · prohibit ↔ permit · self-defeating ↔ productive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2	빈칸 추론	that economic gain is outweighed by the combination of ...(219쪽 ¶4 — 이타심과 정직한 자기 이미지) / can't children be encouraged to do things because they are intrinsically worthwhile(217쪽 ¶2) / The issue is the red blood cell count, not the means used to elevate it(220쪽 ¶6) / The problem is not with the athletes, but with us(221쪽 ¶6)
13	문장 삽입	사불레스쿠의 제안(220쪽 ¶5~¶6): 인물 소개 · 급진적 해법 → 금지 해제(안전한 한) → 적발 대신 건강 지표 → So, if ... EPO ... 출전 금지 → The issue is the red blood cell count(앞 문장의 수치를 받음)
14	무관한 문장	학교 연극(217쪽 ¶4~¶5)에 다른 편의 사실(여성이 대략 2% 더 신고, 219쪽 ¶1)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실험 설계(218쪽 ¶2 넷째 문장 ~ ¶4): 1만 7,000개 넘는 지갑 → 355개 도시에서 창구에 건넴 → 투명 지갑 · 명함 · 금액 · 열쇠 → 지갑마다 다른 이메일 주소
16	요약문 완성	열쇠의 증거(219쪽 ¶5): 주인에게는 중요 · 지닌 사람에게는 쓸모없음 → 자기 이미지와는 상관없음 → 그래도 더 자주 신고 → 자기 이미지만은 아님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직장 · 나라 수 · 비율 · 나라 · 연도 · True/False · 숫자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세 딸 · 체육과 연극 · 세 곳 · 밤 11시 · 다섯 살 · 아홉 시간째(1편) / 1만 7,000 · 40 · 355 · 13.45달러 · 94.15달러 · 65% · 75% · 80% · 25% · 2% · 38 · 98%(2편) / 2007 · 7월 · 2016 · 15명 · 2014 · 2년 · 2021(3편). 비슷한 숫자 쌍(40개국과 38개국, 355와 1만 7,000, 75%와 80%, 65%와 25%, 2016 · 2014 · 2021, 2007과 2016, 2편의 2%와 3편의 2년)이 함정이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never allowed ↔ allowed, except gym and drama ↔ including, higher ↔ lower, ahead of ↔ behind, not important ↔ very important, was returned ↔ was kept, not only ↔ only, no longer prohibits ↔ still prohibits, not as officially representing ↔ as, reducing ↔ increasing, will not end ↔ will end). '~할 것이다'(Chua would reply) · '~인 듯'(seems · appears) · '아마'(presumably) · '시사한다'(suggesting) · '경향'(tend to) · '믿어진다'(is widely believed) · '~할 수도'(may reduce)를 단정으로 바꾼 선지, 추아 · 리우 · 수 · 일부 진화 심리학자 · 연구자들 · 사불레스쿠의 말을 저자(싱어)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 1-2. 구조도 — 「Tiger or Elephant Mothers? · How Honest Are We? · Is Doping Wrong?」 (216~221쪽)

논증형 세 편. ① 사례(딸의 물음 · 추아의 글) → 추아의 주장 → 반응 → 평가의 어려움(유전자) → 근거(리우 · 수) → 추아가 할 법한 답과 저자의 물음 → 저자의 양보(방임) → 저자의 비판(학교 연극) → 저자의 결론(코끼리 엄마). ② 물음(잃어버린 지갑) → 실험 설계 → 결과(나라 · 종교 · 성별) → 가장 놀라운 결과(돈) → 설명(네 요인 · 열쇠) → 저자의 결론. ③ 사례(투르 드 프랑스 · 본즈 · 러시아) → 쟁점 → 제안(사불레스쿠) → 반론과 답(불공정 · 스포츠 정신) → 저자의 판단(대중 스포츠 · 엘리트 스포츠) → 결론. 핵심 축은 **호랑이 vs 코끼리, 세상이 나쁘다는 불평 vs 지갑 연구의 증거, 선수의 문제 vs 우리의 문제**.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16 ¶1~¶2	사례	어린 세 딸 가운데 하나의 물음(영리했으면 좋겠나, 행복했으면 좋겠나) · 추아의 『월스트리트 저널』 글 「Why Chinese Mothers Are Superior」 =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의 홍보 글
216 ¶3~¶4	추아의 주장	중국 아이들은 '호랑이 엄마' 덕에 성공하는 경향 · 서양 엄마 = 고양이이거나 그보다 못함 · 소피아와 루이자의 금지 목록 · 매일 몇 시간 피아노나 바이올린 · 체육 · 연극 빼고 전 과목 1등 / 기준에 못 미치면 분명히 말해야 · 자아는 견딜 만큼 강해야(추아)
216 ¶5	반응	추아 = 예일 로스쿨 교수(남편도) · 아이의 자존감을 깨지기 쉽다고 보는 문화(팀원 모두에게 최우수 선수상) → 많은 미국인이 경악
216 ¶6~217 첫 줄	평가의 어려움	양육의 영향을 유전자의 영향과 떼어 낼 수 없음 · 모두가 1등일 수는 없음 / 호랑이 양육 = '영리함' 쪽에 기우는 듯(seems) · 베티 밍 리우도 같은 생각(블로그)
217 ¶1	근거	스탠리 수(UC 데이비스 심리학 교수) =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에게 특히 흔한 자살을 연구 · 가족의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음(수의 견해)
217 ¶2	반론 · 물음	높은 성취 = 큰 만족 · 유일한 길은 노력(추아가 할 법한 답 — would) / 그럴지도 · 그러나 그 자체로 가치 있어서 하게 할 수는 없는가(저자의 물음)
217 ¶3	저자의 양보	하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태도는 지나칠 수 있음(이 정도는 추아에게 동의) · 딸의 친구들 이야기(유치원 세 곳 · 밤 11시 · 다섯 살 · 바비 비디오 아홉 시간째)
217 ¶4~¶5	저자의 비판	두 극단 모두 무언가를 빠뜨림 · 추아 = 집 안의 혼자 하는 활동에만 집중 · 학교 연극을 시간 낭비로 보는 듯(appears) / 연극 참여 = 공동체의 선에 기여 · 사회적 기술을 기를 기회
217 ¶6~¶8	저자의 결론	좋은 사람 · 윤리적인 삶이 목표 ·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 삶에 더 만족(풍부한 증거) · 그 자체로도 중요 / 호랑이 = 혼자 · 코끼리 어미 = 무리의 새끼를 함께 돌봄 / 자기 이익만 → 공동의 재앙(기후) · 호랑이는 줄고 코끼리는 늘어야
218 ¶1~¶2	물음	지갑을 잃었다면 연락이 올까 · 돈이 들어 있으면? /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한가 · 이타심은 친족과 보답할 사람에 한정(일부 진화 심리학자) · 너무 냉소적인가(저자의 물음) · 지난달 미국 · 스위스 연구자들의 발표
218 ¶3~¶4	실험 설계	355개 도시 · 은행 · 극장 · 박물관 · 호텔 · 관공서 · 길에서 주웠는데 바쁘다며 맡김 · 연락처 · 영수증 없이 / 투명 플라스틱 · 명함 세 장 · 장보기 목록 · 돈 없음 / 13.45달러 / 94.15달러(미국 · 영국 · 폴란드만) · 대부분 열쇠 · 지갑마다 다른 이메일 주소
218 ¶5~219 첫 줄	결과 1	더 부유한 나라일수록 신고율이 높은 경향 · 상위 다섯 나라 = 65% 넘게 · 폴란드 · 체코가 바짝 뒤(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 미국보다 앞섬) / 종교인이 도덕 규칙을 더 지킨다는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음(종교의 중요도로 잰다면)
219 ¶1	결과 2	여성이 남성보다 대략 2% 더 신고 · 여성이 더 윤리적인 경향을 시사하는 앞선 연구에 보탬(저자)
219 ¶2~¶3	가장 놀라운 결과	돈이 든 지갑이 더 자주 신고됨 · 40개국 중 38개국 · 예외 멕시코 · 페루 · 94.15달러 > 13.45달러 / 처벌 두려움 · 보상 기대 · 돈 빼고 돌려줄 가능성 검토 → 돈의 98%가 돌아옴 · 주된 동기일 가능성 낮음
219 ¶4~¶5	설명	네 요인(경제적 이득 · 신고의 수고 · 주인을 향한 이타적 배려 · 자신을 도둑으로 보기 싫은 마음) · 이득은 배려와 정직한 자기 이미지에 밀림(연구자들의 모형) / 열쇠 든 지갑이 더 신고됨 → 자기 이미지만은 아님
219 ¶6	저자의 결론	이 결과에 모두 용기를 얻어야 · 이기심이 판치고 도덕이 무너졌다는 흔한 불평 · 세상은 결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탄탄한 증거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20 ¶1~¶3	사례	2007년 처음 씀 · 해마다 7월 투르 드 프랑스 · 약물 없이 경쟁할 수 있나 의심 / 배리 본즈 · 버드 셀릭 / 2016년 러시아 내부 고발 · 2014년 동계 메달리스트 적어도 15명 · 2년 금지 · 2021년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이름으로 출전
220 ¶4~221 ¶1	쟁점 · 제안	챔피언과 들러리의 차이는 아주 작으나 너무 중요 → 문제는 사라지지 않음(저자) / 사불레스쿠 = 안전하면 금지 해제 · 건강 위험 지표에 집중(적혈구 수치 · EPO) / 불공정하다는 반론 → 좋은 유전자가 이미 불공정한 이점 · 상한이 유전자 복권의 영향을 줄임(사불레스쿠의 답)
221 ¶2~¶6	반론 검토 · 결론	'스포츠 정신' 반론 · 지금의 선은 옹호하기 어려움(정맥 영양 · 고지대 훈련 · 카페인) · 경기력 향상이 바로 스포츠 정신(사불레스쿠) · 스포츠 정신은 하나가 아님 / 대중 스포츠는 장려 · 약은 대개 자기 패배적(저자) / 엘리트 스포츠는 다름 · 제안은 줄일 수는 있어도 끝내지 못함 ·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우리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아이 기르기의 목표	아이가 지닌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 '영리함' 쪽에 기우는 듯한 호랑이 양육(추아의 방식 – seems)	아이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 자기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마음을 쓰는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 행복과도 무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중요한 목표다(저자)
아이의 동기	부모가 못마땅해할까 두려워서 하게 하는 것(높은 성취가 큰 만족을 준다는 추아의 답은 저자도 '그럴지도'라고 인정)	일이 그 자체로 가치 있어서 하도록 격려할 수는 없는가(저자의 물음)
방임	아이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기를 지나치게 꺼림 – 유치원 세 곳을 그만두게 함 · 다섯 살 아이를 아홉 시간째 바비 비디오 앞에 두고 잠(딸 친구들의 예)	하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태도는 지나칠 수 있다 – 이 정도는 추아에게 동의(저자)
학교 연극	집 안에서 혼자 하는 활동에만 집중하고 학교 연극을 시간 낭비로 보는 듯한 태도(추아 – appears)	연극 참여는 공동체의 선에 기여하고, 추아가 매달리는 기술만큼 중요하고 보람 있으며 익히기 어려운 사회적 기술을 기를 기회다(저자)
호랑이와 코끼리	자기 새끼만 돌보는 호랑이식으로 모두가 자기 이익만 생각함 – 저자의 경고: 그러면 공동의 재앙으로 간다(기후를 보라)	사회적 동물인 코끼리 – 어미들이 무리의 모든 새끼를 함께 돌봄 · 아이 기르기에는 호랑이는 줄고 코끼리는 늘어야(저자)
세상의 모습	이기심이 판치고 도덕 기준이 무너졌으며, 대부분 들키지 않으면 훔칠 것이라는 흔한 불평	우리 모두 이 결과에 용기를 얻어야 한다 – 세상이 결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탄탄한 증거(저자)
종교와 정직	종교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 규칙을 더 잘 지킨다는 생각(어떤 사람들)	연구는 이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많은 나라도 신고율이 높고, 페루 · 모로코는 25% 미만(종교의 중요도로 믿음을 잰다면 – 저자)
신고의 까닭	연구자들이 검토한 설명: 처벌이 두려워서, 보상을 바라서 신고한다 · 신고해도 돈은 빼고 돌려준다	회수하니 돈의 98%가 돌아왔고, 다른 증거는 처벌 두려움 · 보상 기대가 주된 동기일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 – 경제적 이득은 이타적 배려와 정직한 사람으로 보고 싶은 마음에 밀림(연구자들의 모형)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자기 이미지	연구가 견준 가설: 자신을 도둑으로 보기 싫은 마음(정직한 자기 이미지)만으로 신고한다	열쇠는 주운 사람에게 쓸모없어 자기 이미지와 상관없을 텐데도 돈과 열쇠가 든 지갑이 돈만 든 지갑보다 더 자주 신고됨 → 자기 이미지만은 아니다(연구가 시사함)
도핑 문제의 뿌리	문제는 선수들에게 있다는 생각(저자가 not으로 물리침)	문제는 승자에게 그토록 법석을 떠는 우리에게 있다 — 그만두면 도핑도 멈출 것이나 곧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음(저자)
대중 스포츠와 약물	약을 먹어 기록을 끌어올리는 것	대중의 참여는 장려해야 하고 운동은 사람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다 — 약은 대개 자기 패배적이며 약병에서 나온 향상엔 성취감이 없다(저자)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my Chua	**예일 로스쿨** 교수(**남편도**) · 『월스트리트 저널』 글 「Why Chinese Mothers Are Superior」 = 책의 **홍보** 글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	추아의 책 · **곧바로** 베스트셀러 · 중국 아이들은 '호랑이 엄마' 덕에 성공하는 **경향** · 서양 엄마 = 고양이이거나 그보다 못함(추아의 주장)
Sophia · Louise	추아의 **두** 딸 · TV · 컴퓨터 게임 · 친구 집에서 자기 · 학교 연극 **금지** · 매일 몇 시간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 · **체육 · 연극** 빼고 전 과목 1등 기대
"Chinese" mothers	걸음마 시기 뒤에는 기준에 못 미칠 때 분명히 말해야(추아에 따르면) · 한국 · 인도 · 자메이카 · 아일랜드 · 가나 엄마 중에도 '중국식'이, 중국계 중에도 아닌 엄마가 있다(추아의 말)
Most Valuable Player	어린이 스포츠 팀이 팀원 **모두**에게 주는 상 · 아이의 자존감을 **깨지기 쉽다**고 여기는 문화 → 많은 미국인이 추아의 양육에 경악
Betty Ming Liu	추아의 글에 **블로그**로 답함 · '추아 같은 부모 때문에 나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치료를 받는다'(리우의 말)
Stanley Sue	**UC 데이비스** 심리학 교수 · 자살 연구 ·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에게 특히 흔함(다른 민족 집단은 남성이 더 많음) · 가족의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음**
저자의 딸들	어린 **세** 딸 · 차 뒷좌석의 물음 / 지금은 자녀를 둔 딸이 전한 친구들 이야기: 유치원 **세** 곳 중퇴 · 밤 **11시** · **다섯** 살 · 바비 비디오 **아홉** 시간째 · '자기 주도 학습'
tigers · elephants	호랑이 = 새끼 딸린 어미를 배면 **혼자** 삶 / 코끼리 = 사회적 동물 · 어미들이 무리의 **모든** 새끼를 함께 지키고 돌봄 · 일종의 **탁아소**
the wallet study	**미국 · 스위스** 연구자들 · '**지난달**'(칼럼을 쓴 때 기준) 발표 · **40**개국 · 1만 7,000개 **넘는** 지갑 · **355**개 도시
handing in	은행 · 극장 · 박물관 · 호텔 · 관공서 창구 · 길에서 주웠는데 **바쁘다** · '잘 맡아 달라' · 연락처 · 영수증 **없이** 떠남
wallet contents	**투명** 플라스틱 · 이메일 주소가 적힌 똑같은 명함 **세** 장 · 현지어 장보기 목록 · **대부분** 열쇠 · 지갑마다 **고유한** 이메일 주소
$13.45 · $94.15	돈 없음 / **13.45달러**(또는 현지 구매력 상당액) / **94.15달러** = **미국 · 영국 · 폴란드**에서만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top five · 65%	스위스 · 노르웨이 · 네덜란드 · 덴마크 · 스웨덴 = **65% 넘게** 연락 / **폴란드 · 체코** = 바짝 뒤 · 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 미국보다 **앞섬**
religion · 75% · 80%	스웨덴 · 덴마크 · 노르웨이 · 체코 = **적어도 75%**가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 · 신고율 높음 / 페루 · 모로코 = **80% 넘게** 매우 중요 · 신고율 **25% 미만**
2%	여성이 남성보다 **대략 2%** 더 신고 · 여성이 더 윤리적인 경향을 **시사하는** 앞선 연구에 보탬(저자)
38 of 40	돈이 든 지갑이 **더** 자주 신고됨 · 예외 **멕시코 · 페루**(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없음 · 신고율 낮음) · 세 나라에서 94.15달러 > 13.45달러
98%	신고된 지갑을 회수하니 돈의 **98%**가 돌아옴 · 처벌 두려움 · 보상 기대 = 주된 동기일 가능성 **낮음**(다른 증거)
four factors · key	경제적 이득 · 신고의 수고 · 주인을 향한 이타적 배려 · 자신을 도둑으로 보기 싫은 마음(**연구자들의 모형**) / 열쇠 = 주인에게 **아마** 중요 · 지닌 사람에게는 쓸모없음 · 돈과 열쇠가 든 지갑이 더 자주 신고됨
2007 · Tour de France	저자가 스포츠의 약물에 관해 처음 쓴 해 = **2007년** · 해마다 **7월** · 양성 반응 · 은퇴 뒤 고백
Barry Bonds · Bud Selig	통산 **홈런** 기록 · 약물 · 합성 호르몬의 도움을 받았다고 널리 **믿어짐** · 야유 · 조롱 · **커미셔너** 셀릭이 경기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 많음
Russia 2016	**내부 고발자** · 여러 해 · **2014년**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적어도 15명** · 세계반도핑기구 **2년** 금지 · **2021년** 하계 · 동계 올림픽 =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이름으로(공식 대표 **아님**)
Julian Savulescu	옥스퍼드 대학 **우에히로 실천 윤리 센터** 소장 · **의학 · 생명 윤리** 학위 · 안전한 한 금지 해제 · 건강 위험 지표에 집중(사불레스쿠의 제안)
EPO · red blood cells	에리트로포이에틴(EPO) → 적혈구 수치가 **위험하게 높으면** 출전 금지 · 문제는 수치이지 수단이 아님 · 상한 = 유전자 복권의 영향을 **줄임**(사불레스쿠)
World Anti-Doping Code	더 이상 **카페인**을 금지하지 않음 · 투르 드 프랑스 = 밤새 정맥 영양 · 수분 공급 허용 · **고지대** 훈련 허용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Tiger or Elephant Mothers? · How Honest Are We? · Is Doping Wrong? (원서 PDF 216~221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1-1 사례와 쟁점 – 호랑이 엄마의 양육법, 평가의 어려움 216쪽 ¶1 ~ 217쪽 ¶1

원문 위치 원서 216쪽 ¶1 ~ 217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16쪽 ¶1	"Would you rather that we were clever or that we were happy?"	would rather that + 가정법 과거 – 영리함 대 행복
★	216쪽 ¶2	a promotional piece for her book,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 which became an instant bestseller	글 · 책 – 서답형 함정 · 계속적 which
◆	216쪽 ¶3 첫 문장	Chinese children tend to be successful because they have "tiger mothers," whereas Western mothers are pussycats, or worse	추아의 주장 – 저자의 말 아님
★	216쪽 ¶3 둘째~넷째 문장	were never allowed to watch television, … or be in a school play … except gym and drama	금지 목록 · 예외 과목 – 내용 일치
▲	216쪽 ¶4 첫 문장	need to be told, in no uncertain terms, when they have not met the high standards their parents expect of them	수동 부정사 · 관계대명사 생략 – 어법 (C)
◆	216쪽 ¶4 둘째 문장	Korean, Indian, Jamaican, Irish, and Ghanaian mothers who are "Chinese" in their approach	'중국식' = 민족이 아니라 방식(추아의 말)
◆	216쪽 ¶5 첫 문장	children's sports teams give "Most Valuable Player" awards to every member	밑줄 의미 1순위
▲	216쪽 ¶5 첫 문장	a culture in which a child's self-esteem is considered so fragile that	전치사 + 관계대명사 · so ~ that
★	216쪽 ¶6 첫 문장	we can't separate its impact from that of the genes	평가의 어려움 · that of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16쪽 ¶6 셋째 문장	No matter how hard a tiger mom pushes, not every student can finish first	no matter how · 부분 부정
◆	216쪽 ¶7	seems to lean toward the "clever" side of the "clever or happy" choice	seems — 단정 금지
◆	217쪽 첫 줄	"Parents like Amy Chua are the reason why Asian-Americans like me are in therapy."	베티 밍 리우의 말
★	217쪽 ¶1	suicide, which is particularly common among Asian American women ... He believes that family pressure is a significant factor.	연구 · 믿음 — 수의 견해로

내용

오래전 저자 부부가 어린 세 딸을 뒷좌석에 태우고 차를 몰고 가던 중, 한 딸이 갑자기 물었다. '우리가 영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자는 에이미 추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글 「Why Chinese Mothers Are Superior」를 읽고 그 순간을 떠올렸다. 이 글은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된 추아의 책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를 홍보하는 글이었다. 추아의 주장은, 미국 아이들과 견주어 중국 아이들이 성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호랑이 엄마'가 있기 때문이고 서양 엄마들은 고양이이거나 그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추아의 두 딸 소피아와 루이자는 텔레비전 보기, 컴퓨터 게임,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 학교 연극 출연을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다. 두 딸은 날마다 몇 시간씩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습해야 했고, 체육과 연극을 뺀 모든 과목에서 1등을 하도록 기대받았다. 추아에 따르면 중국 엄마들은, 아이가 걸음마 시기를 지나면 부모가 기대하는 높은 기준에 못 미쳤을 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추아는 '중국식'으로 아이를 기르는 한국, 인도, 자메이카, 아일랜드, 가나 엄마들도 알고, 그렇지 않은 중국계 엄마들도 안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자아는 그 말을 견딜 만큼 강해야 한다는 것이 추아가 전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예일 로스쿨 교수인 추아(남편도 같은 학교 교수다)가 사는 문화는 아이의 자존감을 아주 깨지기 쉬운 것으로 여겨서, 어린이 스포츠 팀이 팀원 모두에게 '최우수 선수상'을 줄 정도다. 그러니 많은 미국인이 추아의 양육 방식에 경악하는 것도 놀랍지 않다. 저자는 호랑이 양육을 평가하기 어려운 까닭을 하나 든다. 그 영향을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준 유전자의 영향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하기를 바란다면, 자신과 배우자가 명문 대학 교수가 될 만한 머리를 지닌 것이 도움이 된다. 호랑이 엄마가 아무리 몰아붙여도 모든 학생이 1등을 할 수는 없다(물론 모두를 '반에서 1등'으로 치지 않는 한). 호랑이 양육은 아이가 지닌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목표를 두므로, '영리함이냐 행복이냐'의 선택에서 '영리함' 쪽에 기우는 것으로 보인다. 추아의 글에 블로그로 답한 베티 밍 리우도 같은 생각이다. 그녀는 '에이미 추아 같은 부모 때문에 나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치료를 받는다'고 썼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의 심리학 교수 스탠리 수는 자살을 연구해 왔는데, 자살은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에게서 특히 흔하다(다른 민족 집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을 더 많이 한다). 수는 가족의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는다.

어법

- **Would you rather that we were clever or that we were happy?** : would rather (that) + 주어 + 과거형 = ~가 … 하면 좋겠다(가정법 과거 — 지금에 대한 바람). that절 두 개가 or로 이어짐. were = 가정법 과거의 be동사.
- **Amy Chua's Wall Street Journal article, "Why Chinese Mothers Are Superior," a promotional piece for her book,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 which became an instant bestseller** : 글 제목과 a promotional piece가 article과 동격, 책 제목이 her book과 동격. which = 계속적 관계대명사(선행사 = 책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

- **Chua's thesis is that, when compared to Americans, Chinese children tend to be successful because they have "tiger mothers," whereas Western mothers are pussycats, or worse.** : 주격 보어 that절. when compared to = when they are compared to(접속사 + 과거분사 — 주어 · be동사 생략). tend to V = ~하는 경향이 있다. whereas = 대조(~인 반면).
- **children, once they get past the toddler stage, need to be told, in no uncertain terms, when they have not met the high standards their parents expect of them** : once = 일단 ~하면(접속사). need to be p.p. = 수동 부정사. the high standards (that) their parents expect of them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expect A of B = B에게 A를 기대하다.
- **Chua … lives in a culture in which a child's self-esteem is considered so fragile that children's sports teams give "Most Valuable Player" awards to every member.** :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a culture). be considered + 형용사 = ~하다고 여겨지다(consider + O + C의 수동).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
- **we can't separate its impact from that of the genes that the parents pass on to their children** : separate A from B. that of = the impact of(반복을 피하는 that). 둘째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genes). pass on A to B = A를 B에게 물려주다. its = 호랑이 양육의.
- **No matter how hard a tiger mom pushes, not every student can finish first** : no matter how + 부사 + S + V = 아무리 ~해도(= however hard). not every = 부분 부정(모두가 ~인 것은 아니다).
- **Tiger parenting aims at getting children to make the most of what abilities they have, and so seems to lean toward the "clever" side** : aim at + 동명사. get + O + to V = O가 ~하게 하다. make the most of = 최대한 활용하다. what + 명사 = ~한 모든 …(관계형용사). seem to V = ~하는 듯하다(단정 아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uperior	우월한	better	inferior
promotional	홍보의	advertising	—
thesis	주장, 논지	argument	—
toddler	걸음마하는 아이	small child	—
in no uncertain terms	분명하게, 단호하게	plainly	vaguely
ego	자아	self	—
self-esteem	자존감	self-respect	self-doubt
fragile	깨지기 쉬운, 연약한	delicate	sturdy
assess	평가하다	evaluate	—
elite	일류의	top	ordinary
lean toward	~쪽으로 기울다	favor	—
therapy	(심리) 치료	treatment	—
significant	중요한, 상당한	important	insignificant
ethnic	민족의	—	—

내용 일치 어린 세 딸 · 뒷좌석의 물음(영리함 vs 행복) · 추아의 『월스트리트 저널』 글 = 책 홍보 글 · 책 = 곧바로 베스트셀러 · 중국 아이들은 호랑이 엄마 덕에 성공하는 '경향'(추아의 주장) · 서양 엄마 = 고양이 또는 그보다 못함(추아) · 소피아 · 루이자 = TV · 컴퓨터 게임 · 친구 집에서 자기 · 학교 연극 금지 · 매일 몇 시간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 · 체육 · 연극 빼고 전 과목 1등 · 걸음마 시기 뒤에는 분명히 말해야(추아가 전하는 중국 엄마들의 믿음) · '중국식' = 방식(한국 · 인도 · 자메이카 · 아일랜드 ·

가나 엄마도, 중국계라도 아닌 엄마도) · 추아 = 예일 로스쿨 교수(남편도) · 모두에게 최우수 선수상을 주는 문화 → 많은 미국인이 경악 · 양육의 영향과 유전자의 영향을 분리할 수 없음 · 모두가 1등일 수는 없음 · 영리함 쪽에 기우는 '듯'(seems) · 베티 밍 리우 = 블로그 · 스탠리 수 = UC 데이비스 심리학 교수 · 자살은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에게 특히 흔함(다른 집단은 남성이 더 많음) · 가족의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음'. **밑줄 의미** give "Most Valuable Player" awards to every member = 한 사람만 받는 상을 모두에게 줄 만큼 아이의 자존감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문화 / pussycats, or worse = 호랑이와 견주어 서양 엄마는 무르다는 추아의 표현 / "Chinese" in their approach = 민족이 아니라 양육 방식을 가리킴 / unless, of course, we make everyone "top of the class" = 모두를 1등으로 치지 않는 한(저자의 괄호 속 단서) / lean toward the "clever" side = 행복보다 영리함을 앞세움 / 216쪽 ¶3 They = 소피아와 루이자 / ¶4 they · Their egos = 걸음마 시기를 지난 아이들 / ¶5 her style of parenting = 추아 / ¶6 its impact = 호랑이 양육 / 217쪽 첫 줄 That = 호랑이 양육이 영리함 쪽에 기운다는 생각 / ¶1 He = 스탠리 수.

한 줄 요약 추아는 엄격한 '호랑이 엄마' 덕에 중국 아이들이 성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저자는 그 영향을 유전자와 떼어 볼 수 없다는 어려움을 짚고, 영리함 쪽에 기우는 이 방식에 대한 리우의 비판과 가족의 압력에 관한 수의 견해를 소개한다.

11-2 반론과 저자의 답 – 두 극단 너머, 코끼리 엄마 217쪽 ¶2 ~ ¶8

원문 위치 원서 217쪽 ¶2 ~ ¶8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17쪽 ¶2 첫 문장	Chua would reply that reaching a high level of achievement brings great satisfaction	추아가 할 법한 답(would) – 저자의 말 아님
★	217쪽 ¶2 둘째 문장	can't children be encouraged to do things because they are intrinsically worthwhile, rather than because of fear of parental disapproval?	저자의 물음 – 부정 의문 · because와 because of
◆	217쪽 ¶3 첫 문장	I agree with Chua to this extent: a reluctance to tell a child what to do can go too far.	저자의 양보 – 추아에 일부 동의
◆	217쪽 ¶3 둘째~셋째 문장	One of my daughters, who now has children of her own … One of them let her daughter drop out of three different kindergartens	지칭 지문 · 숫자
★	217쪽 ¶3 넷째 문장	they went to bed at 11 p.m., leaving their five-year-old watching her ninth straight hour of Barbie videos	숫자 – 서답형 함정 · leave + O + -ing
◆	217쪽 ¶4 첫 문장	Tiger mothering might seem to be a useful counterbalance to such permissiveness, but both extremes leave something out.	저자의 판단 – 두 극단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17쪽 ¶4 셋째 문장	she appears to view school plays as a waste of time that could be better spent studying	appears — 단정 금지 · view A as B
▲	217쪽 ¶5 첫 문장	to take part in a school play is to contribute to a community good	to부정사 주어 · 보어 — 무관한 문장 지문
●	217쪽 ¶5 둘째 문장	the quality of the production will suffer, to the detriment of the others who take part	어휘 — detriment
▲	217쪽 ¶5 셋째 문장	social skills that are just as important and rewarding—and just as demanding to master—as those that monopolize Chua's attention	just as ~ as · those that
★	217쪽 ¶6 첫 문장	We should aim for our children to be good people	저자의 결론 — 주장
★	217쪽 ¶6 둘째 문장	there is abundant evidence that those who are generous and kind are more content with their lives than those who are not	동격 that · 행복과의 관계
◆	217쪽 ¶7 셋째~넷째 문장	elephant mothers do not focus only on the well-being of their own offspring ... running a kind of day-care center	비유 — 코끼리 엄마
★	217쪽 ¶8	If we all think only of our own interests, we are headed for collective disaster ... we need fewer tigers and more elephants.	저자의 결론 — 주장 · 제목

내용

저자는 추아라면 높은 수준의 성취에 이르는 것이 큰 만족을 주며 그렇게 하는 유일한 길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짐작한다. 저자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부모가 못마땅해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일이 그 자체로 가치 있기 때문에 하도록 아이를 격려할 수는 없느냐고 묻는다. 저자는 아이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태도가 지나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추아에게 동의한다. 지금은 자녀를 둔 저자의 딸 하나가 친구들의 놀라운 양육 방식을 들려준다. 한 친구는 딸이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유치원을 세 곳이나 그만두게 했다. 또 다른 부부는 '자기 주도 학습'을 어찌나 믿는지, 어느 날 저녁 다섯 살 아이가 아홉 시간째 바비 비디오를 보고 있는데도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저자는 호랑이 양육이 이런 방임을 바로잡는 쓸모 있는 균형추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두 극단 모두 무언가를 빠뜨린다고 본다. 추아의 관심은 끈질기게 집 안에서 혼자 하는 활동에만 쏠려 있고, 학교에서든 더 넓은 공동체에서든 단체 활동이나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북돋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아는 학교 연극을 공부나 음악 연습에 더 잘 쓸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학교 연극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의 선에 기여하는 일이다. 재능 있는 아이들이 빠지면 공연의 질이 떨어지고, 함께 참여하는 다른 아이들(과 공연을 볼 관객)에게 손해가 된다. 부모가 그런 활동을 막은 아이들은, 추아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기술만큼 중요하고 보람 있으며 익히기도 그만큼 어려운 사회적 기술을 기를 기회를 놓친다. 저자는 우리가 아이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 자기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마음을 쓰는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양육은 행복과 무관하지 않다.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 삶에 더 만족한다는 증거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것이 그 자체로도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인다. 호랑이는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를 빼면 혼자 산다. 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코끼리도 그렇다. 코끼리 어미들은 자기 새끼의 안녕에만 마음을 쏟지 않고, 함께 무리의 모든 새끼를 지키고 돌보며 일종의 탁아소를 꾸린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공동의 재앙으로 향하게 된다며, 우리가 지구의 기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 기르기에 관한 한 호랑이는 줄고 코끼리는 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어법

- **Chua would reply that reaching a high level of achievement brings great satisfaction, and that the only way to do it is through hard work.** : would = 추측(그렇게 답할 것이다 — 실제 답이 아니라 저자의 짐작). 동명사 주어 reaching … achievement → 단수 brings. that절 두 개가 and로 병렬(reply의 목적어). do it = reach a high level of achievement.
- **can't children be encouraged to do things because they are intrinsically worthwhile, rather than because of fear of parental disapproval?** : 부정 의문(can't ~?) = ~할 수는 없을까(되묻는 제안). be encouraged to V = 수동. because + 절 / because of + 명사구. A rather than B = B가 아니라 A. they = things.
- **One of them let her daughter drop out of three different kindergartens, because she didn't want to go to them.** : let + O + 원형부정사(drop out). One of + 복수 명사 → 단수 취급(them = 딸의 친구들). she = 그 친구의 딸 · them(go to them) = 유치원들.
- **they went to bed at 11 p.m., leaving their five-year-old watching her ninth straight hour of Barbie videos** : leaving =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 leave + O + -ing = O가 ~하는 채로 두다. five-year-old = 명사(다섯 살 아이). straight = 연속된.
- **she appears to view school plays as a waste of time that could be better spent studying or practicing music** : appear to V = ~하는 것처럼 보이다(단정 아님). view A as B = A를 B로 보다.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ime). spend + 시간 + -ing의 수동 → time could be spent studying.
- **But to take part in a school play is to contribute to a community good.** : to부정사구 주어(to take part …) + be + to부정사 보어 = ~하는 것은 …하는 것이다. contribute to + 명사(to는 전치사).
- **Children whose parents bar them from such activities miss the opportunity to develop social skills that are just as important and rewarding—and just as demanding to master—as those that monopolize Chua's attention.** : whose = 소유격 관계대명사 → 주어 Children의 동사는 miss. bar A from B = A가 B를 못 하게 막다. just as ~ as = 꼭 그만큼 ~한. demanding to master = 익히기 어려운(to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 those = social skills.
- **there is abundant evidence that those who are generous and kind are more content with their lives than those who are not** : evidence that = 동격 that. those who = ~한 사람들(복수 → are). be content with = ~에 만족하다. those who are not = 뒤 generous and kind 생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trinsically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inherently	extrinsically
disapproval	못마땅함	displeasure	approval
reluctance	꺼림	unwillingness	eagerness
drop out of	(학교 등을) 그만두다	quit	—
counterbalance	균형추, 평형을 이루는 것	offset	—
permissiveness	방임, 지나친 관대함	leniency	strictness
unrelentingly	끈질기게	relentlessly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olitary	혼자 하는, 고독한	lone	social
detriment	손해	harm	benefit
monopolize	독차지하다	dominate	share
manifest	드러내다	display	conceal
abundant	풍부한	plentiful	scarce
offspring	자식, 새끼	young	—
collective	공동의, 집단의	shared	individual

내용 일치 높은 성취 = 큰 만족 · 유일한 길 = 노력(추아가 할 법한 답 — would) · 그럴지도(Perhaps) · 그러나 그 자체로 가치 있어서 하게 할 수는 없나(저자의 물음) · 하라고 말하기를 꺼리는 태도는 지나칠 수 있음(이 정도는 추아에게 동의) · 이야기의 출처 = 지금은 자녀를 둔 저자의 딸 · 유치원 '세' 곳 · 밤 '11시' · '다섯' 살 · '아홉' 시간째 바비 비디오 · '자기 주도 학습' · 호랑이 양육 = 방임의 균형추처럼 '보일 수도'(might seem) · 두 극단 모두 무언가를 빠뜨림 · 추아 = 집 안의 혼자 하는 활동 · 단체 활동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북돋우지 않음 · 학교 연극 = 시간 낭비로 보는 '듯'(appears) · 연극 참여 = 공동체의 선에 기여 · 재능 있는 아이가 빠지면 공연의 질 저하 · 참여자(와 관객)에게 손해 · 사회적 기술 = 추아가 중시하는 기술만큼 중요 · 보람 · 익히기 어려움 · 좋은 사람 · 윤리적인 삶이 목표(저자) · 행복과 무관하지 않음(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 더 만족 — 풍부한 증거) · 그 자체로도 중요한 목표 · 호랑이 = 새끼 딸린 어미 빼고 혼자 · 인간 · 코끼리 = 사회적 동물 · 코끼리 어미들 = 무리의 모든 새끼를 함께 돌봄 · 탁아소 · 자기 이익만 → 공동의 재앙(기후) · 호랑이는 줄고 코끼리는 늘어야(저자의 결론). **지칭** 217쪽 ¶2 it(do it) = 높은 수준의 성취에 이르는 일 · they =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들 / ¶3 who now has children of her own · her friends' = 저자의 딸 · One of them = 딸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 · her daughter · she didn't want = 그 친구의 딸 · them(go to them) = 유치원들 · they went to bed = 다른 부부 · her ninth = 다섯 살 아이 / ¶4 she appears = 추아 / ¶5 it(watch it) = 공연 · them(bar them) = 아이들 · those = 사회적 기술 / ¶6 it(in its own right) =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기르는 목표 / ¶7 they(Together, they) = 코끼리 어미들.

> **한 줄 요약** 저자는 지시를 꺼리는 방임이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은 추아에게 동의하지만, 두 극단 모두 공동체 활동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빠뜨린다고 보고,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기르려면 호랑이보다 코끼리 같은 부모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11-3 물음과 실험 — 40개국의 '잃어버린' 지갑, 나라별 결과 218쪽 ¶1 ~ 219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218쪽 ¶1 ~ 219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18쪽 ¶1 셋째~넷째 문장	How likely is it that you will receive a message …? … does that improve or reduce the odds	도입 물음 — 돈의 효과
▲	218쪽 ¶2 첫 문장	To ask these questions is also to ask to what extent most people are basically honest	to부정사 주어 · 간접의문문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18쪽 ¶2 둘째 문장	Some evolutionary psychologists argue that altruism is limited to our kin and to those who can reciprocate	일부 진화 심리학자의 견해 — 저자의 말 아님
◆	218쪽 ¶2 셋째 문장	Is that too cynical?	저자의 물음 — 한 문장
★	218쪽 ¶2 넷째 문장	researchers from the United States and Switzerland … more than 17,000 "lost" wallets in 40 countries	숫자 · 나라 — 서답형
★	218쪽 ¶3 첫 문장	At banks, theaters, museums, hotels, and public offices in 355 different cities	숫자 · 장소 — 순서 배열
▲	218쪽 ¶3 첫 문장	handed in a wallet, telling the person at the counter that they had found it on the street, but were in a hurry	분사구문 · 과거완료
▲	218쪽 ¶3 둘째 문장	left without providing contact details or asking for a receipt	without + 동명사 병렬
★	218쪽 ¶4 첫~둘째 문장	transparent plastic, and three identical business cards … a grocery shopping list, written in the local language	지갑 속 물건 — 순서 배열
★	218쪽 ¶4 셋째 문장	$13.45 … in a trial limited to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Poland—contained $94.15	금액 · 나라 — 내용 일치
▲	218쪽 ¶4 여섯째 문장	To enable the researchers to study factors that led to reporting, each wallet contained cards with a unique e-mail address.	목적의 to부정사 · enable + O + to V
★	218쪽 ¶5 둘째 문장	Switzerland, Norway, the Netherlands, Denmark, and Sweden topped the list, with more than 65%	순위 · 숫자 — 내용 일치
★	218쪽 ¶5 셋째 문장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were close behind—and ahead of wealthier countries like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비교 — 내용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18쪽 ¶6 첫 문장	Some people think that religious believers are more likely to obey moral rules than non-believers, but the study does not support this view	어떤 사람들의 생각 → 연구가 뒷받침 안 함
★	219쪽 첫 줄 (218쪽 ¶6 둘째~셋째 문장)	at least 75% ... not important ... more than 80% ... very important ... below 25%	숫자 – 서답형 함정

내용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해 보자. 지갑에는 이메일 주소가 적힌 명함이 들어 있다. 누군가 지갑을 찾았다는 메시지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지갑에 돈이 들어 있다면, 내용물이 그대로인 채 지갑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저자는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어느 정도로 기본적으로 정직한지, 또는 낯선 사람을 생각하는지를 묻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어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타심이 친족과, 우리가 베푼 도움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것이 너무 냉소적인지 묻는다. 지난달(칼럼을 쓴 때 기준) 미국과 스위스의 연구자들이 40개국에서 1만 7,000개가 넘는 '잃어버린' 지갑을 이용한 거대하고 기발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이 물음에 빛을 비추었다. 연구 보조원들은 355개 도시의 은행, 극장, 박물관, 호텔, 관공서에서 창구에 있는 사람에게 지갑을 건네며, 길에서 주웠는데 바빠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리고 '잘 좀 맡아 달라'고 부탁한 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영수증도 받지 않은 채 떠났다. 지갑은 모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메일 주소가 적힌 똑같은 명함 세 장이 바로 보였다. 지갑에는 그 지역 언어로 쓴 장보기 목록도 들어 있었다. 어떤 지갑에는 돈이 없었고, 어떤 지갑에는 13.45달러나 현지 통화로 그만한 구매력의 돈이 들어 있었으며, 미국 · 영국 · 폴란드에서만 한 시험에서는 94.15달러나 그 상당액이 든 지갑도 있었다. 대부분의 지갑에는 열쇠도 들어 있었다. 연구자들은 명함의 이메일 주소로 들어온, 지갑을 찾았다고 알리는 메시지의 수를 기록했다. 어떤 요인이 신고로 이어졌는지 연구할 수 있도록 지갑마다 고유한 이메일 주소가 적힌 명함을 넣었다. 예상할 만하게도 신고율은 더 부유한 나라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다.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이 맨 위를 차지했는데, 이 나라들에서는 지갑 주인으로 짐작되는 사람 가운데 65%가 넘는 사람이 연락을 받았다. 폴란드와 체코가 바짝 뒤를 이었고, 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 미국 같은 더 부유한 나라들보다 앞섰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 규칙을 더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 종교가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로 그 나라의 종교적 믿음의 정도를 잴 수 있다면, 적어도 그런 한에서는 이 연구는 그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체코에서는 인구의 적어도 75%가 종교가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 신고율이 높다. 반면 페루와 모로코에서는 인구의 80%가 넘는 사람이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두 나라 모두 신고율이 25%에 못 미친다.

어법

- **How likely is it that you will receive a message telling you that it has been found?**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 절의 의문문(How likely is it that ~?). telling = message를 꾸미는 현재분사 후치. tell + IO + that절. has been found = 현재완료 수동.
- **does that improve or reduce the odds that you will get it back, with its contents intact?** : the odds that = 동격 that(가능성의 내용). improve or reduce = 동사 둘이 or로 병렬. with + O + 형용사(intact) = ~이 그대로인 채로.
- **To ask these questions is also to ask to what extent most people are basically honest, or care about strangers.** : to부정사 주어 + be + to부정사 보어. to what extent = 어느 정도로(간접의문문 → 주어 + 동사 어순: most people are ... or care).

- **Some evolutionary psychologists argue that altruism is limited to our kin and to those who can reciprocate whatever help we give them.** : be limited to A and to B = 전치사 to를 되풀이한 병렬. those who = ~하는 사람들. whatever help = 어떤 도움이든(복합관계형용사 — reciprocate의 목적어).
- **research assistants handed in a wallet, telling the person at the counter that they had found it on the street, but were in a hurry** : telling = 동시 상황의 분사구문. tell + IO + that절 — 그 안에서 had found(과거완료 — 건네기 전에 주움)와 were가 but으로 병렬. hand in = 건네다, 제출하다.
- **The researchers recorded the number of messages reporting the wallet found that were received at the e-mail address on the business cards.** : the number of + 복수 명사 = ~의 수. reporting = 현재분사 후치. report + O + p.p.(the wallet found = 지갑이 발견되었다고 알림).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messages → 복수 were).
- **To enable the researchers to study factors that led to reporting, each wallet contained cards with a unique e-mail address.** : To enable = 목적의 to부정사(문두). enable + O + to V = O가 ~할 수 있게 하다. lead to + 명사 · 동명사(to는 전치사).
-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were close behind—and ahead of wealthier countries like 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 close behind = 바짝 뒤에. ahead of = ~보다 앞서. 비교급 wealthier = 폴란드 · 체코보다 더 부유한.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tact	온전한, 손상되지 않은	undamaged	damaged
odds	가능성, 확률	chances	—
altruism	이타심, 이타주의	selflessness	selfishness
kin	친족	relatives	strangers
reciprocate	보답하다	repay	—
cynical	냉소적인	distrustful	trusting
ingenious	기발한, 독창적인	inventive	unimaginative
receipt	영수증	—	—
transparent	투명한	see-through	opaque
identical	똑같은	matching	different
equivalent	상당액, 같은 가치의 것	counterpart	—
affluent	부유한	prosperous	poor
presumed	~로 짐작되는	supposed	—
proportion	비율	share	—

내용 일치 명함에 이메일 주소 · 연락이 올까 · 돈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질까 낮아질까(물음) · 대부분의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직한가 · 낯선 사람을 생각하는가 · 이타심 = 친족과 보답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일부 진화 심리학자) · 너무 냉소적인가(저자의 물음) · '지난달' 발표 · 미국 · 스위스 연구자들 · 40개국 · 1만 7,000개 '넘는' 지갑 · 355개 도시 · 은행 · 극장 · 박물관 · 호텔 · 관공서 · 길에서 주웠는데 바쁘다 · 연락처 없이 · 영수증 없이 · 투명 플라스틱 · 똑같은 명함 '세' 장 · 현지어 장보기 목록 · 돈 없음 / 13.45달러(또는 구매력 상당액) / 94.15달러(미국 · 영국 · 폴란드에서만) · '대부분' 열쇠 · 지갑마다 고유한 이메일 주소 · 더 부유한 나라일수록 신고율이 높은 '경향'(예상할 만함) · 스위스 · 노르웨이 · 네덜란드 · 덴마크 · 스웨덴 = 65% '넘게' · 폴란드 · 체코 = 바짝 뒤, 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 미국보다 앞섬 · 종교인이 도덕 규칙을 더 지킨다는 생각 = 뒷받침 안 됨(종교의 중요도로 잰다면 — 조건) · 스웨덴 · 덴마크 · 노르웨이 · 체코 = '적어도' 75%가 종교 중요하지 않다 ·

신고율 높음 · 페루 · 모로코 = 80% '넘게' 매우 중요 · 신고율 25% '미만'. **밑줄 의미** with its contents intact = 돈과 물건이 빠지지 않은 채 / too cynical = 사람은 친족이나 보답할 사람만 돕는다고 보는 것은 사람을 너무 나쁘게 보는 것 아닌가 / "lost" wallets = 실제로 잃은 것이 아니라 연구 보조원이 주운 척 건넨 지갑 / its purchasing power equivalent = 나라마다 같은 값어치가 되게 맞춘 금액 / 218쪽 ¶1 it has been found = 지갑 · that(does that improve) = 지갑에 돈이 들어 있는 것 / ¶2 that(Is that too cynical) = 일부 진화 심리학자의 주장 · that question = 사람이 정직한가 · 낯선 사람을 생각하는가 / ¶3 they had found it = 연구 보조원 · 지갑 · that person = 창구의 사람 / ¶6 this view = 종교인이 도덕 규칙을 더 지킨다는 생각 / 219쪽 첫 줄 both countries = 페루 · 모로코.

한 줄 요약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직한지 묻는 물음에, 미국 · 스위스 연구자들은 40개국 355개 도시에서 1만 7,000개가 넘는 지갑을 '주웠다'며 맡기는 실험으로 빛을 비추었다. 부유한 나라일수록 신고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종교가 중요하다는 사람의 비율은 높은 신고율과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11-4 결과와 설명, 저자의 결론 – 돈이 든 지갑이 더 자주 신고된다 219쪽 ¶1 ~ ¶6

원문 위치 원서 219쪽 ¶1 ~ ¶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19쪽 ¶1 첫 문장	Women were roughly 2% more likely to report a wallet than men.	숫자 – 무관한 문장 재료
◆	219쪽 ¶1 둘째 문장	adds to previous research suggesting that women tend to be more ethical than men	suggesting · tend to – 단정 금지
★	219쪽 ¶2 첫 문장	wallets containing money were more likely to be reported to their presumed owners than wallets with no money	가장 놀라운 결과 – 제목
★	219쪽 ¶2 둘째 문장	consistent across 38 of the 40 countries—the exceptions were Mexico and Peru	숫자 · 나라 – 서답형
▲	219쪽 ¶2 셋째 문장	in the three countries where the wallets containing $94.15 were "found," they were reported at a higher rate than those with only $13.45	관계부사 where · those
▲	219쪽 ¶3 첫 문장	including fear of being punished for keeping the money, expectation of a reward for reporting it, and the possibility that	동명사 수동 · 동격 that – 어법 지문
★	219쪽 ¶3 둘째 문장	98% of the money in them was returned	숫자 – 서답형 · 부분 + of + 단수 명사
▲	219쪽 ¶3 셋째 문장	neither fear of punishment nor hope of reward was likely to be the primary motivation	neither A nor B – 수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19쪽 ¶4 첫 문장	Why, then, would people be more likely to report a wallet that has more money in it?	물음 — 빈칸 지문
★	219쪽 ¶4 둘째 문장	four factors that determine whether someone with the opportunity to return a wallet will do so	네 요인 — 연구자들의 모형
★	219쪽 ¶4 셋째 문장	that economic gain is outweighed by the combination of	빈칸 1순위 — 연구자들의 모형
◆	219쪽 ¶5 둘째 문장	The key is presumably important to the owner, but, in contrast to money, is of no use to the person in possession of the wallet.	presumably · of no use — 요약문
▲	219쪽 ¶5 넷째 문장	suggesting that it was not only ... for one's self-image that motivated the reports	It was ~ that 강조 구문
◆	219쪽 ¶6 둘째 문장	we live in an era in which self-interest prevails, moral standards have collapsed	흔히 듣는 불평 — 저자가 반박하는 쪽
★	219쪽 ¶6 셋째 문장	This study provides solid evidence that the world is not nearly so bad.	저자의 결론 — 요지

내용

여성은 남성보다 지갑을 신고할 가능성이 대략 2% 높았다. 저자는 그래서 이 연구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윤리적인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앞선 연구에 보탬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가장 놀라운 결과는, 돈이 든 지갑이 돈이 없는 지갑보다 주인으로 짐작되는 사람에게 더 자주 신고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40개국 가운데 38개국에서 한결같았다. 예외는 멕시코와 페루였는데, 두 나라에서는 돈이 있든 없든 (낮은) 신고율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게다가 94.15달러가 든 지갑을 '주운' 세 나라에서는, 그 지갑이 13.45달러만 든 지갑보다 더 높은 비율로 신고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설명할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다. 돈을 가졌다가 처벌받을까 하는 두려움, 신고하면 보상을 받으리라는 기대, 그리고 주운 지갑을 신고하더라도 돈은 빼고 돌려줄 가능성 등이다. 그러나 신고된 지갑을 회수했을 때 그 안의 돈은 98%가 돌아왔다. 다른 증거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지갑을 찾았다고 알린 주된 동기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돈이 더 많이 든 지갑을 더 신고하려 할까? 연구자들은 지갑을 돌려줄 기회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돌려줄지를 정하는 네 요인을 내놓는다. 지갑을 가질 때 얻는 경제적 이득, 신고하는 데 드는 수고, 주인을 향한 이타적 배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도둑으로 여기기 싫은 마음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돈이 들어 있으면 지갑을 가질 때의 경제적 이득이 커지지만(돈이 많을수록 이득도 크다), 그 이득은 이타적 배려와 자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보고 싶은 마음을 합친 것에 밀린다. 이타적 배려가 신고 결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열쇠가 든 지갑과 들지 않은 지갑의 반환율을 비교한 데서 나온다. 열쇠는 아마 주인에게는 중요하겠지만, 돈과 달리 지갑을 가진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열쇠는 그 사람이 자신을 도둑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으로 보는 자기 이미지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열쇠와 돈이 든 지갑은 돈만 들고 열쇠는 없는 지갑보다 주인에게 더 자주 신고되었다. 이는 신고의 동기가 자기 이미지에 대한 신경만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저자는 우리 모두 이 결과에 용기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기심이 판치고 도덕 기준은 무너졌으며,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이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훔칠 시대에 산다는 불평을 흔히 듣는다. 저자는 이 연구가 세상이 결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탄탄한 증거를 준다고 결론짓는다.

어법

- **This study thus adds to previous research suggesting that women tend to be more ethical than men.** : add to = ~에 보태다. suggesting = research를 꾸미는 현재분사 후치(~을 시사하는). tend to V = ~하는 경향이 있다(단정 아님).
- **wallets containing money were more likely to be reported to their presumed owners than wallets with no money** : containing = 현재분사 후치. be likely to be p.p. = ~될 가능성이 높다(수동 부정사). 비교 대상 = wallets containing money ↔ wallets with no money.
- **in the three countries where the wallets containing $94.15 were "found," they were reported at a higher rate than those with only $13.45** :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the three countries). they = 94.15달러가 든 지갑 · those = wallets를 받는 복수 대명사. at a higher rate = 더 높은 비율로.
- **including fear of being punished for keeping the money, expectation of a reward for reporting it, and the possibility that even when the found wallet was reported, it would be returned without the cash** : including = ~을 포함하여. of being p.p. = 동명사 수동. the possibility that = 동격 that, 그 안에 even when절이 끼어듦. would be returned = 과거에서 본 미래 + 수동.
- **But when reported wallets were collected, 98% of the money in them was returned.** : 부분 + of + 명사 → 동사는 of 뒤 명사에 맞춤: the money(셀 수 없는 명사) → 단수 was. reported = 과거분사 전치(신고된).
- **Other evidence suggested that neither fear of punishment nor hope of reward was likely to be the primary motivation** : neither A nor B = A도 B도 아니다 → 동사는 B(hope of reward, 단수)에 맞춰 was. suggest that + 직설법(시사하다의 뜻이라 원형을 쓰지 않음).
- **although the presence of money increases the economic payoff of keeping the wallet (and the more money the higher the payoff), that economic gain is outweighed by …** : although = 양보.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 ~할수록 더 …하다(동사 생략형). be outweighed by = ~에 밀리다, ~보다 작다(수동).
- **suggesting that it was not only concern for one's self-image that motivated the reports** : suggesting = 결과의 분사구문(앞 문장 전체가 시사함). It was ~ that 강조 구문(강조되는 주어 = not only concern for one's self-image). not only = ~만은 아니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oughly	대략	approximately	exactly
striking	놀라운, 눈에 띄는	remarkable	unremarkable
consistent	한결같은, 일관된	uniform	inconsistent
statistically significant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	—
motivation	동기	motive	—
primary	주된	main	secondary
payoff	이득, 보상	gain	loss
altruistic	이타적인	selfless	selfish
aversion	싫어함, 혐오	dislike	liking
outweigh	~보다 더 크다	exceed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esumably	아마, 짐작건대	probably	—
self-image	자기 이미지, 자아상	self-perception	—
prevail	만연하다, 우세하다	predominate	—
collapse	무너지다	crumble	—

내용 일치 여성 = 남성보다 '대략 2%' 더 신고 · 여성이 더 윤리적인 '경향'을 '시사하는' 앞선 연구에 보탬(저자) · 가장 놀라운 결과 = 돈이 든 지갑이 '더' 자주 신고 · 40개국 중 '38'개국에서 한결같음 · 예외 = 멕시코 · 페루(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없음 · 신고율 낮음) · 94.15달러를 시험한 '세' 나라 = 94.15달러 > 13.45달러 · 검토한 설명 = 처벌 두려움 · 보상 기대 · 돈 없이 돌려줄 가능성 · 회수하니 돈의 98% 돌아옴 · 처벌 두려움 · 보상 기대는 주된 동기일 가능성 낮음(다른 증거) · 네 요인 = 경제적 이득 · 신고의 수고 · 주인을 향한 이타적 배려 · 자신을 도둑으로 보기 싫은 마음(연구자들) · 돈이 많을수록 이득도 큼 · 그래도 배려 + 정직한 자기 이미지가 더 큼(모형) · 열쇠 = 주인에게 '아마' 중요 · 지닌 사람에게는 쓸모없음 · 돈 + 열쇠 > 돈만 → 자기 이미지'만'은 아님 · 우리 모두 용기를 얻어야 · 흔한 불평(이기심 · 도덕 붕괴 · 들키지 않으면 훔침) · 세상은 결코 그렇게 나쁘지 않다(저자의 결론). **밑줄 의미** The most striking result = 돈이 많을수록 가질 이득이 큰데도 오히려 더 신고했다는 뜻밖의 결과 / (low) reporting rate = 멕시코 · 페루는 돈과 상관없이 신고율이 원래 낮았음 / is outweighed by = 가질 때의 이득보다 배려와 정직한 자기 이미지가 더 무거움 / of no use to the person in possession = 열쇠는 주운 사람에게 쓸모가 없어 가져도 이득이 없음 / not nearly so bad = 불평하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낫다 / 219쪽 ¶2 That finding = 돈이 든 지갑이 더 자주 신고된 결과 · they = 94.15달러 지갑 · those = 13.45달러 지갑 / ¶3 them = 신고된 지갑들 / ¶4 do so = 지갑을 돌려주다 / ¶5 it(it is unlikely) = 열쇠 · that person's = 지갑을 가진 사람 / ¶6 it(get away with it) = 훔치는 일.

> **한 줄 요약** 돈이 든 지갑이 40개국 중 38개국에서 더 자주 신고되었는데, 연구자들은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배려와 정직한 자기 이미지가 경제적 이득보다 크다고 설명하고, 저자는 세상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증거라고 본다.

11-5 사례와 제안 — 끊이지 않는 도핑, 사불레스쿠의 해법 220쪽 ¶1 ~ 221쪽 ¶1

원문 위치 원서 220쪽 ¶1 ~ 221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20쪽 ¶1 첫~둘째 문장	I first wrote about drugs in sport in 2007. The topic came up every July, when the Tour de France was held.	연도 · 달 — 서답형
▲	220쪽 ¶1 셋째 문장	So many leading cyclists tested positive for drugs, or admitted, … that they had used them, that many people doubted	so ~ that · 삽입구 — 여러 개의 that
★	220쪽 ¶2 첫 문장	the baseball player Barry Bonds' march toward the all-time record for home runs in a career	인물 — 내용 불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20쪽 ¶2 둘째 문장	Bonds is widely believed to have been helped by drugs and synthetic hormones.	believed — 단정 금지 · 완료 수동 부정사
★	220쪽 ¶2 셋째 문장	many thought that baseball's commissioner, Bud Selig, should not attend games at which Bonds might tie or break the record	인물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220쪽 ¶3 첫 문장	began in 2016 when a Russian whistleblower revealed … including at least 15 medal winners from the 2014 winter Olympics	연도 · 숫자 — 서답형
▲	220쪽 ¶3 첫 문장	had been taking performance-enhancing drugs for many years	과거완료진행
★	220쪽 ¶3 둘째 문장	a two-year ban from the World Anti-Doping Agency … under the auspices of the Russian Olympic Committee, but not as officially representing Russia	징계 · 출전 방식 — 내용 불일치
▲	220쪽 ¶4 첫 문장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a champion and an also-ran is so minuscule, and yet matters so much, that	so ~ that — 쟁점
◆	220쪽 ¶4 둘째 문장	not to those who are drug-free, but to those who most successfully refine their drug use for maximum enhancement without detection	not A but B — 밑줄 의미 후보
◆	220쪽 ¶5	drop the ban on performance-enhancing drugs, and allow athletes to take whatever they want, as long as it is safe for them to do so	사불레스쿠의 제안 — 저자의 주장 아님
▲	220쪽 ¶6 첫 문장	Savulescu proposes that instead of trying to detect whether an athlete has taken drugs, we should focus on	propose that + should · instead of -ing
★	220쪽 ¶6 둘째 문장	if an athlete has a dangerously high level of red blood cells as a result of taking erythropoietin (EPO), they should not be allowed to compete	주어진 문장 자리 — 삽입
◆	220쪽 ¶6 셋째 문장	The issue is the red blood cell count, not the means used to elevate it.	A, not B — 삽입 단서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21쪽 ¶1 첫 문장	Savulescu replies that those with the best genes already have an unfair advantage	사불레스쿠의 답 — 어휘 지문
●	221쪽 ¶1 넷째~다섯째 문장	levels the playing field by reducing the impact of the genetic lottery. Effort then becomes more important	어휘 반전 자리 — reducing ↔ increasing

내용

저자는 2007년에 처음 스포츠의 약물에 관해 글을 썼다. 이 주제는 해마다 투르 드 프랑스가 열리는 7월이면 떠올랐다. 너무나 많은 정상급 사이클 선수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은퇴해 안전해진 뒤에 약물을 썼다고 털어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약물 없이 주요 장거리 사이클 경주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한지 의심했다. 미국에서는 야구 선수 배리 본즈가 통산 홈런 기록을 향해 나아가면서 논쟁이 불붙었다. 본즈는 약물과 합성 호르몬의 도움을 받았다고 널리 믿어진다. 그는 팬들에게 자주 야유와 조롱을 받고, 많은 사람이 야구 커미셔너 버드 셀릭이 본즈가 기록과 같아지거나 기록을 깰지도 모르는 경기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장 두드러진 국제 도핑 스캔들은 2016년에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내부 고발자가, 2014년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적어도 15명을 포함한 러시아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여러 해 동안 경기력 향상 약물을 써 왔다고 폭로한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반도핑기구로부터 2년 금지 징계를 받았지만, 러시아 선수들이 러시아를 공식 대표하지 않고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의 이름 아래 2021년 하계 ·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도록 허용되면서 그 의미는 줄었다. 저자는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본다. 최정상 수준에서는 챔피언과 들러리의 차이가 아주 작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선수들이 경쟁자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려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라는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이제 많은 종목에서 금메달이 약물을 쓰지 않은 선수가 아니라, 들키지 않고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약물 사용을 가장 잘 다듬은 선수에게 가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지 않다. 옥스퍼드 대학 우에히로 실천 윤리 센터를 이끌며 의학과 생명 윤리 학위를 모두 지닌 줄리언 사불레스쿠 교수는 급진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경기력 향상 약물의 금지를 없애고, 안전하기만 하다면 선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게 하자는 것이다. 사불레스쿠는 선수가 약물을 썼는지 가려내려 애쓰는 대신, 선수가 건강을 해칠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지 보여 주는 측정 가능한 지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서 선수가 에리트로포이에틴(EPO)을 써서 적혈구 수치가 위험할 만큼 높다면 출전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적혈구 수치이지 그것을 높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약물을 쓰는 선수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준다는 사람들에게, 사불레스쿠는 가장 좋은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 이미 불공정한 이점을 누린다고 답한다. 물론 그들도 훈련은 해야 하지만, 그들의 유전자가 우리보다 EPO를 더 많이 만든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투르 드 프랑스에서 그들이 우리를 이길 것이다. 우리가 유전적 결핍을 메우려고 EPO를 쓰지 않는 한 말이다. 사불레스쿠에 따르면 적혈구 수치의 상한을 정하면 유전자 복권의 영향이 줄어 실제로 경기의 조건이 공평해지고, 그러면 알맞은 유전자를 타고나는 것보다 노력이 더 중요해진다.

어법

- **So many leading cyclists tested positive for drugs, or admitted, from the safety of retirement, that they had used them, that many people doubted that anyone could be competitive …** : so many + 복수 명사 ~ that … = 너무 많은 ~가 …해서 …하다. 첫 that = admitted의 목적어(had used = 과거완료), 둘째 that = so ~ that의 that, 셋째 that = doubted의 목적어. from the safety of retirement = 삽입구.
- **Bonds is widely believed to have been helped by drugs and synthetic hormones.** : be believed to have been p.p. = ~했다고 믿어지다(완료 수동 부정사 — 도움을 받은 때가 믿는 지금보다 앞섬). 단정이 아니라 '널리 믿어진다'.
- **many thought that baseball's commissioner, Bud Selig, should not attend games at which Bonds might tie or break the record** : commissioner와 Bud Selig = 동격. at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games). tie or break = 동사 병렬(같아지다 · 깨다).

- **members of the Russian Olympic team had been taking performance-enhancing drugs for many years, including at least 15 medal winners** : had been -ing = 과거완료진행(폭로 시점까지 여러 해 동안 계속). including = ~을 포함하여(members를 받음).
-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a champion and an also-ran is so minuscule, and yet matters so much, that athletes are pressured to do whatever they can** : 주어 the difference(단수) → is · matters. so ~ that 사이에 동사 둘(is so minuscule, and yet matters so much)이 끼어듦. whatever = ~하는 것은 무엇이든(복합관계대명사).
- **drop the ban on performance-enhancing drugs, and allow athletes to take whatever they want, as long as it is safe for them to do so** : 콜론 뒤 명령문 둘 = 해법의 내용. allow + O + to V. as long as = ~하는 한. 가주어 it + for + 의미상 주어 + 진주어 to do so(= to take what they want).
- **Savulescu proposes that instead of trying to detect whether an athlete has taken drugs, we should focus on measurable indications of whether an athlete is risking their health.** : propose that + 주어 + (should) 원형 — 원문은 should를 씀. instead of + 동명사. whether절 둘 = 명사절(detect의 목적어 · of의 목적어). their = an athlete를 받는 말(성별을 정하지 않는 단수 they 계열).
- **Setting a maximum level of red blood cells actually levels the playing field by reducing the impact of the genetic lottery.** : 동명사 주어(Setting ...) → 단수 동사 levels(동사 level = 평평하게 하다). by + -ing = ~함으로써. level the playing field = 조건을 공평하게 하다(관용).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est positive	양성 반응이 나오다	—	test negative
endurance	지구력	stamina	—
fuel (v.)	부채질하다, 불붙이다	stoke	dampen
synthetic	합성의	artificial	natural
boo	야유하다	jeer	cheer
whistleblower	내부 고발자	informant	—
ban	금지(하다)	prohibition	permission
auspices	후원, 주관	sponsorship	—
also-ran	들러리, 낙오자	loser	champion
minuscule	아주 작은	tiny	enormous
refine	다듬다	perfect	—
detection	적발, 탐지	discovery	concealment
radical	급진적인, 근본적인	drastic	moderate
deficiency	결핍	shortage	sufficiency

내용 일치 저자 = '2007년' 처음 씀 · 해마다 '7월' 투르 드 프랑스 · 양성 반응 · 은퇴 뒤 고백 · 약물 없이 경쟁할 수 있나 '의심' · 미국 = 배리 본즈의 통산 홈런 기록 도전이 논쟁을 키움 · 약물 · 합성 호르몬의 도움을 받았다고 널리 '믿어짐' · 팬들의 야유 · 조롱 · 커미셔너 버드 셀릭이 경기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이 많았음 · 가장 두드러진 국제 스캔들 = '2016년' 러시아 내부 고발 · 여러 해 · 2014년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 '적어도 15명' · 세계반도핑기구 '2년' 금지 · 2021년 하계 · 동계 올림픽 =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이름으로 · 공식 대표 '아님' · 문제는 사라지지 않음(저자) · 챔피언과 들러리의 차이 = 아주 작지만 너무나 중요 · 금메달이 약을 안 쓴 선수에게 가는지 분명하지 않음 · 사불레스쿠 = 옥스퍼드 대학 우에히로 실천 윤리 센터 소장 · 의학 · 생명 윤리 학위 · 금지 해제 · 안전한 한 허용(사불레스쿠의 제안) · 약물 적발 대신 건강 위험 지표 · EPO로 적혈구

수치가 위험하게 높으면 출전 금지 · 문제는 수치이지 수단이 아님 · 불공정하다는 반론 → 좋은 유전자가 이미 불공정한 이점 · 상한 = 유전자 복권의 영향을 '줄임' → 노력이 더 중요(사불레스쿠의 답). **밑줄 의미** from the safety of retirement = 은퇴해 더는 징계받을 걱정이 없게 된 뒤에 / march toward the all-time record = 본즈가 통산 홈런 기록에 한 걸음씩 다가감 / under the auspices of the Russian Olympic Committee = 러시아라는 나라가 아니라 위원회 이름으로 / not to those who are drug-free = 금메달이 깨끗한 선수가 아니라 약을 가장 교묘하게 쓰는 선수에게 갈 수도 있다는 우려 / levels the playing field = 타고난 유전자 차이를 줄여 조건을 공평하게 함(사불레스쿠) / 220쪽 ¶1 them(used them) = 약물 / ¶2 He = 본즈 / ¶3 that(that became less significant) = 2년 금지 징계 / ¶6 they(should not be allowed) = 그 선수 · it(elevate it) = 적혈구 수치 / 221쪽 ¶1 this = 사불레스쿠의 제안 · They · their genes = 가장 좋은 유전자를 지닌 선수 · us · we = 보통 사람.

> **한 줄 요약** 도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불레스쿠는 안전하기만 하면 약물을 허용하고 적혈구 수치 같은 건강 지표만 살피자고 제안하며, 불공정하다는 반론에는 좋은 유전자가 이미 불공정한 이점이라고 답한다.

11-6 반론 검토와 저자의 결론 – 스포츠 정신, 엘리트 스포츠, 그리고 우리 221쪽 ¶2 ~ ¶6

원문 위치 원서 221쪽 ¶2 ~ ¶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21쪽 ¶2 첫 문장	Some argue that taking drugs is "against the spirit of sport."	반론 – 어떤 사람들의 주장
▲	221쪽 ¶2 둘째 문장	It is difficult to defend the current line between what athletes can and cannot do in order to enhance their performance.	가주어 it · what절 · in order to
★	221쪽 ¶2 셋째~다섯째 문장	overnight intravenous nutrition and hydration … Training at high altitude is permitted … no longer prohibits caffeine	허용되는 것 셋 – 서답형 True/False
▲	221쪽 ¶2 넷째 문장	though it gives those athletes who can do it an edge over competitors who must train at sea level	4형식 give · 관계대명사 둘
◆	221쪽 ¶2 여섯째~일곱째 문장	performance enhancement is, Savulescu says, the very spirit of sport. We should allow athletes to pursue it by any safe means.	사불레스쿠의 말 · 논지로 읽힘 – 저자의 결론(221쪽 ¶4~¶6)과 구분
★	221쪽 ¶3 첫 문장	Anyway, there is no single spirit of sport.	반론에 대한 답
▲	221쪽 ¶3 둘째 문장	People play sports to socialize, for exercise, to keep fit, to earn money, … and for the sheer fun of it.	목적의 to부정사 · for + 명사 병렬
★	221쪽 ¶3 셋째 문장	often they do so for its own sake, for the sense of achievement	for its own sake – 밑줄 지문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21쪽 ¶4 첫~셋째 문장	Popular participation in sport should be encouraged. … To take drugs will usually be self-defeating.	저자의 판단 — 대중 스포츠
▲	221쪽 ¶4 둘째 문장	Physical exercise makes people not only healthier, but also happier.	make + O + C · not only A but also B
◆	221쪽 ¶4 다섯째 문장	I would get no sense of achievement if an improvement came out of a bottle	밑줄 의미 1순위 · 가정법 과거
▲	221쪽 ¶5 첫 문장	Yet elite sport, watched by millions but participated in by few, is different.	과거분사 삽입 · 자동사 + 전치사의 수동
★	221쪽 ¶5 셋째 문장	while Savulescu's bold suggestion may reduce illegal drug use, because fewer drugs will be illegal, it will not end it	저자의 판단 — 요지 · may
★	221쪽 ¶6 첫 문장	The problem is not with the athletes, but with us.	저자의 결론 — 요지
▲	221쪽 ¶6 둘째 문장	If we stopped making such a fuss over the winners, doping would stop.	가정법 과거 · stop -ing

내용

어떤 사람들은 약물을 먹는 것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원서는 선수가 경기력을 높이려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에 지금 그어 놓은 선을 옹호하기 어렵다고 쓴다. 투르 드 프랑스에서 사이클 선수들은 몸을 회복하려고 밤새 정맥 주사로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고지대 훈련도 허용되는데,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선수는 해수면 높이에서 훈련해야 하는 경쟁자보다 유리하다. 세계반도핑규약은 이제 카페인을 금지하지 않는다. 사불레스쿠는 어쨌든 경기력 향상이야말로 스포츠 정신 그 자체라고 말한다. 선수들이 안전한 수단이라면 무엇으로든 그것을 추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스포츠 정신이 하나인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어울리려고, 운동하려고, 건강을 지키려고, 돈을 벌려고, 유명해지려고, 지루함을 피하려고, 사랑을 찾으려고, 그리고 순전히 재미로 스포츠를 한다. 기량을 높이려 애쓸 수도 있지만, 대개 그 자체를 위해, 성취감을 위해 그렇게 한다. 저자는 대중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체 운동은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더 행복하게도 한다. 저자는 약물을 먹는 것은 대개 스스로 목적을 꺾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운동 삼아 수영을 하는데, 정해진 거리를 헤엄치며 시간을 재서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목표를 스스로에게 준다. 좋은 기록이 나오면 기쁘지만, 기록이 나아진 것이 약병에서 나온 것이라면 아무런 성취감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보지만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적은 엘리트 스포츠는 다르다. 지금의 명성과 영광을 위해, 선수들은 들키지 않을 수 있다면 장기적인 건강을 걸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사불레스쿠의 대담한 제안이 불법 약물이 줄어드니 불법 약물 사용을 줄일 수는 있어도 끝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 저자에 따르면 문제는 선수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승자에게 그토록 법석을 떠는 일을 그만둔다면 도핑도 멈출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인다.

어법

- **It is difficult to defend the current line between what athletes can and cannot do in order to enhance their performance.** : 가주어 it + 진주어 to defend. between 뒤에 what절 하나(can and cannot do가 do를 함께 씀). in order to V = 목적.
- **Training at high altitude is permitted, though it gives those athletes who can do it an edge over competitors who must train at sea level.** : 동명사 주어(Training ...) → is permitted. give + IO(those athletes who can do it) + DO(an edge). an edge over = ~보다 유리함. who = 주격 관계대명사 둘. it = 고지대 훈련.
- **In any case, performance enhancement is, Savulescu says, the very spirit of sport.** : Savulescu says = 삽입절(사불레스쿠의 말임을 밝힘). the very + 명사 = 바로 그 ~(강조).
- **They may strive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but often they do so for its own sake, for the sense of achievement.** : may = 양보(~할 수도 있지만). strive to V. do so = strive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for its own sake = 그 자체를 위해(its = 기량 향상). 쉼표 뒤 for the sense of achievement = 앞 구를 풀어 씀.
- **Physical exercise makes people not only healthier, but also happier.** : make + O + 형용사 보어(5형식). not only A but also B — 보어 자리의 비교급 둘이 병렬.
- **I am pleased when I swim a good time, but I would get no sense of achievement if an improvement came out of a bottle.** : would + 원형 / if + 과거(came) = 가정법 과거(현재 사실과 반대 — 실제로는 약을 쓰지 않음). swim a good time = 좋은 기록으로 헤엄치다.
- **Yet elite sport, watched by millions but participated in by few, is different.** : watched · participated in = 주어 elite sport를 꾸미는 과거분사구 삽입. participate in처럼 자동사 + 전치사는 수동에서 전치사를 남김(participated in by few).
- **If we stopped making such a fuss over the winners, doping would stop.** : 가정법 과거(If + 과거, would + 원형) = 현재 사실과 반대의 가정. stop + -ing = ~하기를 그만두다. make a fuss over = ~에 법석을 떨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nhance	높이다, 향상하다	improve	diminish
intravenous	정맥 주사의	—	—
hydration	수분 공급	—	dehydration
altitude	고도	height	—
edge	유리함, 우위	advantage	disadvantage
prohibit	금지하다	forbid	permit
pursue	추구하다	seek	abandon
socialize	어울리다	mix	—
sheer	순전한	pure	—
strive	애쓰다	struggle	—
self-defeating	스스로 목적을 꺾는	counterproductive	productive
tempt	유혹하다	lure	—
bold	대담한	daring	timid
fuss	법석, 야단	commotion	—

내용 일치 약물 =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어떤 사람들의 주장) · 지금의 선은 옹호하기 어려움 · 투르 드 프랑스 = 밤새 정맥 영양 · 수분 공급 허용 · 고지대 훈련 허용(해수면에서 훈련해야 하는 선수보다 유리) · 세계반도핑규약 = 카페인을 '더 이상' 금지하지 않음 · 경기력 향상이 바로 스포츠 정신 · 안전한 수단이면 허용(사불레스쿠의 말) · 스포츠 정신은 하나가 아님 · 스포츠를 하는 여러 까닭(어울림 · 운동 · 건강 · 돈 · 명성 · 지루함 · 사랑 · 재미) · 기량 향상도 대개 그 자체를 위해 · 성취감 · 대중 참여는 장려해야(저자) · 운동 = 더 건강 + 더 행복 · 약물은 '대개' 자기 패배적 · 저자 = 운동 삼아 수영 · 정해진 거리의 시간을 잼 · 약병에서 나온 향상엔 성취감 없음 · 엘리트 스포츠 = 수백만이 보지만 참여는 적음 · 다름 · 들키지 않으면 장기 건강을 걸 유혹 · 제안 = 불법 약물 사용을 줄일 '수도'(may) 있으나 끝내지 못함 · 문제 = 선수가 아니라 우리 · 승자에게 법석을 그만두면 도핑도 멈출 것 · 곧 일어날 것 같지 않음(저자). **밑줄 의미** against the spirit of sport = 약물로 기록을 올리는 것은 스포츠가 지켜야 할 정신을 해친다는 반론 / the current line = 허용되는 향상(정맥 영양 · 고지대 훈련 · 카페인)과 금지되는 약물 사이의 경계 / the very spirit of sport = 더 잘하려는 것이 곧 스포츠의 핵심이라는 사불레스쿠의 말 / self-defeating = 운동의 목적(건강 · 행복 · 성취감)을 약이 스스로 무너뜨림 / came out of a bottle = 내 노력이 아니라 약 덕분에 나아짐 / not with the athletes, but with us = 승자에게 법석을 떠는 우리(관중)에게 도핑의 까닭이 있다(저자) / 221쪽 ¶2 it(can do it) = 고지대 훈련 · it(pursue it) = 경기력 향상 / ¶3 They · they do so =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 its own sake = 기량 향상 / ¶5 it(get away with it) = 장기 건강을 거는 일 · it will not end it = 제안 · 불법 약물 사용 / ¶6 that(that doesn't seem likely) = 우리가 승자에게 법석을 그만두는 일.

> **한 줄 요약** 저자는 '스포츠 정신' 반론에 대한 답을 소개한 뒤, 대중 스포츠에서 약은 성취감을 없애지만 엘리트 스포츠에서는 사불레스쿠의 제안도 도핑을 끝내지 못하며, 문제는 승자에게 법석을 떠는 우리에게 있다고 결론짓는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11 EVERYDAY]

범위	Tiger or Elephant Mothers? · How Honest Are We? · Is Doping Wrong? (원서 PDF 216~221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author holds that what parents should hope for most is that their children become good people who live ethical lives, caring about others as well as about themselves. Raising children this way has something to do with happiness, since there is plenty of evidence that generous, kind people are more satisfied with their lives than others, though it is also worth pursuing simply for its own value. Apart from mothers with cubs, tigers live alone. Humans, however, are social animals, and so are elephants, whose mothers jointly guard and look after all the young in the herd, almost like a day-care center. If each of us cares about nothing but his or her own interests, we are heading for a shared disaster; our treatment of the planet's climate shows as much. Parents, then, should be less like tigers and more like elephants.

① Children should be pushed hard so that they come first in their class.
② Parents should bring up children as good people who care about others.
③ Parents should leave children free to learn whatever they choose.
④ Happiness should be the only goal of raising children.
⑤ Children should be taught about the dangers of climate change.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most surprising finding of the study was that wallets with money in them led finders to contact the presumed owner more often than wallets with none. This held true in 38 countries out of 40. Only Mexico and Peru were exceptions; there, reporting rates were low to begin with, and having cash in the wallet made no difference tha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more, in the three nations that also received wallets with $94.15, those wallets drew reports more often than wallets holding only $13.45. Contrary to what one might fear, then, more cash meant more reports, not fewer.

① Why Finders Keep Wallets Full of Cash
② Mexico and Peru: The Most Honest Nations
③ How Much Cash Do People Carry?
④ Empty Wallets Come Back First
⑤ More Money, More Returns: A Surprising Finding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lite sport is a different matter from the sport most of us play: millions watch it, but only a few take part. Chasing fame and glory in the present, top athletes will often be tempted to gamble with their long-term health whenever they think they will not be caught. That is why Savulescu's bold proposal, though it might cut illegal drug use simply because fewer drugs would be banned, will not put an end to it. In the author's view, the athletes are not where the problem lies; we are. Doping would stop if we no longer made such a fuss over winners, but that change does not look likely to come any time soon.

① Savulescu's proposal would completely end illegal drug use.
② Elite athletes who use drugs should be banned for life.
③ Doping persists mainly because the public makes so much of winners.
④ Ordinary people should take up elite sport.
⑤ Long-term health matters less than fame and glory.

4. 밑줄 친 give "Most Valuable Player" awards to every membe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The author was reminded of a question one of his young daughters once asked from the back seat of the car, whether he would prefer his children to be clever or to be happy, when he read Amy Chua's article in the Wall Street Journal. The piece, titled "Why Chinese Mothers Are Superior," was written to promote her book about being a 'tiger mother,' which became a bestseller almost overnight. Chua and her husband both teach at Yale Law School. But the culture she lives in sees a child's self-esteem as so delicate that teams of young players give "Most Valuable Player" awards to every member. It is no surprise, then, that many Americans are horrified by the way she raises her children.

① Children's sports in America are fiercely competitive.
② American culture takes great care not to hurt children's self-esteem.
③ Every child on such a team plays equally well.
④ American parents push their children to win at all costs.
⑤ Sports prizes go only to the best students.

5. 밑줄 친 if an improvement came out of a bottl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re is no one spirit of sport; people take up sports to meet others, to stay fit, to earn money or fame, to escape boredom, to find love, or simply because it is fun. They may try to get better, but often for its own sake and for the feeling of having achieved something. The author thinks ordinary people should be encouraged to take part in sport, since exercise makes them both healthier and happier, and taking drugs would usually defeat the purpose. He swims for exercise and times himself over a fixed distance so that he has a goal that makes him push harder. A good time pleases him; yet he would take no pride in it if an improvement came out of a bottle.

① if he improved by taking drugs rather than through his own effort
② if he drank water from a bottle during the swim
③ if he won a prize for his time
④ if he had to buy expensive equipment
⑤ if a machine recorded the improvement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The author agrees with Chua to a degree: being unwilling to tell children what to do can be carried too far. One of his daughters, who is now a mother ① herself, tells him remarkable stories about how ② her friends bring up their children. ③ She describes one mother who allowed her little girl to leave three kindergartens in a row, simply because ④ she did not want to attend them. ⑤ She also tells of a couple who believe so strongly in "self-directed learning" that one night they turned in at 11 p.m. while their five-year-old was still in front of Barbie videos, now in her ninth hour without a break.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As might be predicted, wallets were generally reported more often in richer countries. Denmark, Sweden, Norway, Switzerland, and the Netherlands headed the rankings, with over 65% of the supposed owners being contacted. The Czech Republic and Poland followed closely, and both did better than wealthier nations such as Canada,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Some people believe religious people obey moral rules more faithfully than people without faith, but the study offers this belief no support, at least if a nation's religiosity can be gauged by how many of its people call religion important to them. In Norway, Sweden, the Czech Republic, and Denmark, three-quarters or more of people say religion does not matter to them, yet reporting there is high; in Peru and Morocco, where over 80% call religion very important, rates are below 25%.

① 지갑 신고율은 대체로 더 가난한 나라에서 높았다.
② 폴란드와 체코는 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 미국보다 신고율이 높았다.
③ 신고율 상위 다섯 나라에서는 60%가 안 되는 주인만 연락을 받았다.
④ 스웨덴 인구의 75% 이상이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⑤ 페루와 모로코의 신고율은 50%를 넘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American interest in the issue grew as baseball player Barry Bonds closed in on the career home-run record. Many people believe that drugs and synthetic hormones helped him, and fans often boo and ridicule him; many even thought that Bud Selig, baseball's commissioner, should stay away from games where Bonds might equal or break the record. The biggest international doping scandal broke in 2016: a Russian whistleblower disclosed that Russian Olympians had used performance-enhancing drugs for years, among them at least 15 medalists from the 2014 winter Games. The World Anti-Doping Agency banned Russia for two years, but the ban mattered less once Russian competitors were permitted to take part in the 2021 Olympics, summer and winter alike, under the Russian Olympic Committee rather than officially for Russia.

① 배리 본즈는 통산 홈런 기록에 다가가며 미국의 논쟁을 키웠다.
② 많은 사람이 본즈가 약물과 합성 호르몬의 도움을 받았다고 믿는다.
③ 2016년 러시아의 내부 고발자가 러시아 올림픽 선수들의 약물 사용을 폭로했다.
④ 약물을 쓴 러시아 선수 가운데 2014년 동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적어도 15명 있었다.
⑤ 러시아 선수들은 2021년 올림픽에 러시아 공식 대표로 출전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The researchers wanted to know what lay behind this result. They weighed several possible explanations, ① <u>including</u> worry about punishment for holding on to the cash, the hope of ② <u>being rewarded</u> for turning the wallet in, and the chance that a wallet, even when ③ <u>reported</u>, would be handed back with its money missing. Each of these might, in principle, explain the outcome. Yet once the wallets that had been reported were picked up, 98% of the cash inside them ④ <u>were</u> given back, and further evidence indicated that neither the fear of being punished nor the hope of a reward ⑤ <u>was</u>, in all likelihood, the main reason people reported a found wallet.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hua argues that, compared with American children, Chinese children tend to succeed because they have 'tiger mothers,' while mothers in the West are mere pussycats, or worse. Sophia and Louise, her two daughters, were forbidden to watch TV, to play computer games, to stay overnight at friends' homes, or (A) [to appear / appearing] in a school play, and each day they were made to spend hours (B) [practicing / to practice] piano or violin, and they were expected to come first in every subject apart from gym and drama. According to Chua, Chinese mothers believe that once children are past the toddler years, they must be told plainly whenever they fall short of the demanding standards (C) [that / what] their parents set for them.

	(A)	(B)	(C)
①	to appear	practicing	that
②	appearing	practicing	that
③	to appear	to practice	what
④	appearing	to practice	that
⑤	to appear	practicing	wha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To critics who complain that this would hand drug-taking athletes an unfair edge, Savulescu answers that genetically gifted athletes already hold an unfair ① <u>advantage</u>. Training is still required of them, of course, but should their bodies make more EPO than ours do, they will win the Tour de France against us however hard we work, unless we too take EPO in order to ② <u>make up for</u> what our genes lack. A ceiling on red blood cell levels therefore ③ <u>levels</u> the playing field, since it ④ <u>increases</u> the influence of the genetic lottery, so effort matters more than being born with the right genes. It is also hard to ⑤ <u>defend</u> today's line between permitted and forbidden ways of improving performance: cyclists may restore their bodies with intravenous feeding overnight, altitude training is allowed, and caffeine is no longer banned.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If extra cash makes keeping a wallet more rewarding, why does it make people more willing to report one? The researchers' model names four things that decide whether someone who could return a wallet actually does so: the financial gain from keeping it, the trouble of reporting it, how much the person cares about the owner, and how much he or she dislikes the idea of being a thief. Money, especially a lot of it, raises the first. On this model, however, that gain is _____.

① outweighed by goodwill toward the owner plus the wish to stay honest in one's own eyes
② too small to matter to most finders
③ cancelled out by the effort of reporting
④ larger than any reward the owner could offer
⑤ the main factor in the finder's decision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So, if an athlete's red blood cell count, one such sign, is dangerously high because of EPO (erythropoietin), he or she should be barred from competing.

Julian Savulescu, head of Oxford University's Uehiro Centre for Practical Ethics and trained in medicine as well as bioethics, has a radical answer to doping. (①) Lift the prohibition on performance-enhancing drugs, he says. (②) Athletes should be free to use whatever they choose, provided it poses no danger to them. (③) Rather than trying to find out whether a competitor has used drugs, officials should watch for measurable signs that show whether the athlete is putting his or her health at risk. (④) What matters is that count, not the method used to push it up.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Tiger mothering may look like a useful check on such permissiveness, yet both extremes miss something. ① Chua's attention stays fixed on solitary activities at home, and she gives no encouragement to group activities or to caring about others, either at school or in the community at large. ② So she seems to treat school plays as wasted hours that could go to study or music practice. ③ Acting in a school play, however, is a way of contributing to a good the whole community shares. ④ In the wallet study, women turned out to be roughly 2% more likely than men to report a wallet. ⑤ Children kept out of such activities by their parents miss the chance to build social abilities every bit as valuable, and as hard to master, as those Chua focuses on.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merican and Swiss researchers recently reported a huge, clever experiment with over 17,000 supposedly lost wallets across 40 countries.

(A) The wallets the assistants handed over were all of see-through plastic, so three matching business cards bearing an e-mail address showed at once, as did a shopping list in the language spoken there. Some held no cash, others $13.45 or its local equivalent, and most also held a key.

(B) In 355 cities, research assistants handed a wallet to the clerk at the counter of a hotel, museum, bank, public office, or theater, saying they had picked it up outside and had no time to spare. They asked that person to look after it and left without giving their details or requesting a receipt.

(C) Because the business cards in each wallet bore an e-mail address used nowhere else, the researchers could count the messages reporting each find and study what led people to report.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Did finders report wallets only to go on seeing themselves as honest, or did they also care about the owners? Wallets holding keys help answer this. A key presumably matters to its owner, but, unlike cash, it is worthless to whoever holds the wallet, so keeping one would hardly make the finder feel like a thief. Even so, wallets that held money and a key were reported more often than wallets that held money but no key. So the reports seem to have been driven by more than a wish to keep thinking of oneself as honest.

→ A key, though (A) _____ to the finder, made a wallet likelier to be reported, which suggests that people report found wallets partly for the owner's sake and not only to (B) _____ their self-image as honest people.

① useless ..... protect
② useless ..... damage
③ valuable ..... protect
④ valuable ..... change
⑤ dangerous ..... improve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Amy Chua, who teaches at Yale Law School just as her husband does, defends strict 'tiger' parenting. In a study by American and Swiss researchers, over 17,000 wallets were handed in at counters in 355 cities across 40 countries. Once the reported wallets had been picked up, it turned out that 98% of their cash had come back. Cash made reporting more likely almost everywhere; only in Mexico and Peru did it make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author first wrote about doping in 2007. In 2016 a Russian whistleblower exposed doping that involved no fewer than 15 athletes who had won medals at the 2014 winter Games. Caffeine, however, is no longer prohibited under the World Anti-Doping Code.

<QUIZ>

(1) Where does Amy Chua teach?
Answer for (1): _____

(2) In how many countries were the wallets handed in?
Answer for (2): _____

(3) What percentage of the cash in the reported wallets came back?
Answer for (3): _____

(4) Besides Mexico, in which country did cash make no significant difference to reporting?
Answer for (4): _____

(5) In what year did the author first write about doping?
Answer for (5): _____

(6) Is it true or false that the World Anti-Doping Code still bans caffeine?
Answer for (6): _____

(7) At least how many 2014 winter Olympic medal winners were involved in the Russian doping?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UC Davis	N. 98%
B. 2016	O. 40
C. 38	P. two
D. True	Q. Poland
E. Peru	R. 2021
F. 75%	S. 2007
G. 355	T. False
H. Yale Law School	U. 25%
I. Morocco	V. the Czech Republic
J. 2014	W. 80%
K. Oxford University	X. 2%
L. 17,000	Y. 15
M. 65%	Z. 11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우리가 영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would rather that + 가정법 과거)

02 아이의 자존감이 너무 깨지기 쉽다고 여겨져서 어린이 스포츠 팀은 팀원 모두에게 상을 준다. (be considered + 형용사 / so ~ that)

03 호랑이 엄마가 아무리 몰아붙여도 모든 학생이 1등을 할 수는 없다. (no matter how / 부분 부정 not every)

04 학교 연극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의 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to부정사 주어 + be + to부정사 보어)

05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 삶에 더 만족한다는 증거가 풍부하다. (동격 that / those who)

06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어느 정도로 기본적으로 정직한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to부정사 주어 / to what extent + 주어 + 동사)

07 연구자들이 신고로 이어진 요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갑마다 고유한 이메일 주소가 적힌 명함을 넣었다. (목적의 to부정사 / enable + O + to V)

08 다른 증거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보상에 대한 기대도 주된 동기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했다. (neither A nor B + 동사의 수 일치)

09 본즈는 약물과 합성 호르몬의 도움을 받았다고 널리 믿어진다. (be believed to have been p.p.)

10 적혈구 수치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유전자 복권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조건을 공평하게 한다. (동명사 주어 + 단수 동사 / by -ing)

11 신체 운동은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더 행복하게도 한다. (make + O + C / not only A but also B)

12 우리가 승자에게 그토록 법석을 떠는 일을 그만둔다면 도핑은 멈출 것이다. (가정법 과거 / stop + -ing)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추아의 직장 / 추아의 책	
추아의 두 딸 / 1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	
가족의 압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본 심리학 교수 · 소속	
블로그로 추아의 글에 답한 사람	
딸 친구의 아이가 그만둔 유치원 / 바비 비디오를 본 아이의 나이 · 시간	
지갑 연구를 한 연구자들의 나라	
지갑 수 / 나라 수 / 도시 수	
지갑에 넣은 두 금액 / 큰 금액을 시험한 나라	
신고율 상위 다섯 나라 / 연락받은 비율	
상위 다섯 바로 뒤의 두 나라	
신고율이 25% 미만인 두 나라	
여성과 남성의 신고율 차이	
돈이 신고율을 높인 나라 수 / 예외	
신고된 지갑에서 돌아온 돈의 비율	
연구자들이 든 네 요인	

항목	답
저자가 도핑에 관해 처음 쓴 해 / 투르 드 프랑스가 열리는 달	
통산 홈런 기록에 다가간 선수 / 야구 커미셔너	
러시아 도핑 폭로 해 / 연루된 메달리스트	
러시아가 받은 징계 / 러시아 선수의 출전	
금지 해제를 제안한 학자 / 그가 이끄는 곳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Tiger Mothers or Elephant Mothers?」에서 저자는 아이를 기르는 목표를 밝히며 아래 문장을 썼다. 빈칸에 들어갈 영어 명사 한 단어를 원서에서 찾아 쓰시오. 그리고 이 낱말이 직접 쓰인 근거를 이 편의 다른 단락과 「How Honest Are We?」에서 하나씩 찾아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아이 기르기의 목표: We should aim for our children to be good people, and to live ethical lives that manifest _____ for others as well as for themselve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12 THE FUTURE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ights for Robots? · Can AI Be Ethical? · Should We Colonize Outer Space?
원서 PDF 232~236 · 243~245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인간이 만든 기계와 인간이 닿을 우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권은 인간이 만든 기계와 인간이 닿을 우주처럼, 인간 너머의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묻는 세 편을 묶었다. 「Rights for Robots?」(아가타 사건과 함께 씀)는 로봇이 우리를 해칠까보다 우리가 의식 있는 로봇을 해칠까를 묻는다. 「Can Artificial Intelligence Be Ethical?」은 알파고의 승리와 채팅 봇 테이의 실패를 견준 뒤, 우리보다 똑똑한 기계에 윤리를 가르칠 방법을 미리 생각하자고 말한다. 「Should We Colonize Outer Space?」(사간과 함께 씀)는 우주 쓰레기에서 출발해 우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의 눈으로 보자고 한다. 이 노트는 누구의 말인지 원서대로 가려 적었고 어느 입장도 권하지 않는다. 원서를 펴고 출제될 자리를 먼저 찾아 표시해 두어라.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우리 구역의 우주를 채석장 · 쓰레기장 · 무법의 변경으로만 대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245쪽 ¶1~¶2) / 추정은 미덥지 않아도 모든 지각 있는 존재를 고려하는 설계를 지금 생각할 근거(235쪽 ¶3~¶4) / 로봇이 우리를 해칠까 → 우리가 로봇을 해칠까(232쪽 ¶5 ~ 233쪽 ¶1)
4~5	**밑줄 함축 의미**	of our own creation / mere items of property / no ground for confidence / that (who?) / designed to mimic consciousness / Will it? / serves as a warning / outsmart our attempts to turn it off / those impatient sparrows / an owl that is wise, and not only intelligent / the two images pull us in different directions / a vicious spiral / a moral imperative / a quarry, a rubbish dump, and a lawless frontier
6	지칭 추론	herself · her · she · themselves(234쪽 ¶5~¶6 = 테이 / 테이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만든 사람들) / it(235쪽 ¶1 = 초지능 시스템) · they · one(235쪽 ¶7 = 참새들 / 올빼미) / they · their(233쪽 ¶1~¶2 = 로봇 · 기계) · they reported(233쪽 ¶5 = 해리스와 앤시스) / Its venture(243쪽 ¶2 = 베레시트) · it(244쪽 ¶4 = 지구 밖 환경) · That thought(244쪽 ¶5)
7~8	내용 일치·불일치	2050 · 2019 · 시드니 · 10년 넘게 · 셰필드(232쪽) / 2070(232쪽 ¶5) / 2021 · 294(233쪽 ¶5) / 4대 1 · 20년 · 19×19 · 8×8 · 2년 · 18~24세 · 24시간(234쪽) / 2040~2050 · 2075 · 30년 · 31%(235쪽 ¶2~¶3) / 2019년 4월 10일 · 100년 · 5,500만 광년 · 300만 배 · 1968(243쪽 ¶1) / 2만 2,300 · 100만 · 3만 6,500 · 1억 3,000만 · 2007 · 3,400 · 2,300(243쪽 ¶3) / 2022년 2월 · 3만 기 · 1,800기(244쪽 ¶1)
9~10	**어법**	from A to B · as evidenced by · have + O + -ing · If ~ is any guide · 형용사구 후치 willing to V · 의미상 주어 + 동명사 · 간접의문문 what ~ will do · consider + O + C · not A but B(that절) · What if ~? · sufficiently ~ to V · 부정 수사 의문 · can and do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동격 that · once(접속사) · 동명사 주어 · 과거완료 수동 · 가정의 would · 결과의 분사구문 · 시간 + have passed since · than + 조동사 · more A than there are B · what절 · take + 시간 + to V · whatever the outcome · It is one thing to A; it is something very different to B · as ~ as 가주어 · may be able to · of + 의미상 주어 + 동명사 · a case to be made for · when + 현재완료 · far + 비교급 · 배수 + that of · call on + O + to V · force + O + to V · of which · the 비교급, the 비교급 · such ~ that · suggest that(사실) · distinguish between A and B · respectively · 계속적 which · 관계부사 when · reasons why · avoid -ing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affluent ↔ poor · shortage ↔ surplus · sophisticated ↔ simple · cannot express genuine(232쪽 ¶3) ↔ can · inevitable ↔ avoidable · conscious ↔ unconscious · uncontrolled ↔ controlled · incidentally ↔ intentionally · enthusiastic ↔ indifferent · undermine ↔ support · incentive ↔ deterrent · momentous ↔ trivial · impatient ↔ patient · extraordinary ↔ ordinary · deliberate ↔ accidental · vicious ↔ virtuous · intrinsic ↔ extrinsic · substantial ↔ negligible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2	빈칸 추론	gives no ground for confidence that we would recognize sentient robots not just as items of property(233쪽 ¶2) / Deep Blue won through sheer computing power(234쪽 ¶2) / We should not take these estimates too seriously(235쪽 ¶3) / a phrase that could portend a different way of looking at space(244쪽 ¶1)
13	문장 삽입	우주 쓰레기에 대한 걱정(244쪽 ¶1~¶3): 미국 항공 우주국의 편지 → 안전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 → 유럽 우주국 → 지상의 위험 → These concerns … 도덕적 의무 → That is … 우주군의 상금
14	무관한 문장	자율 주행차가 마주할 생명 사이의 선택(235쪽 ¶5~¶6)에 다른 편의 사실(베레시트의 달 추락, 243쪽 ¶2)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알파고의 승리(234쪽 ¶1~¶3): 이세돌에게 4대 1 → Why … news? 딥 블루의 계산력 → 바둑판과 수의 수 → Instead 스스로 대국하며 진화
16	요약문 완성	의식의 판별(233쪽 ¶4~¶5): 흉내만 내도록 짰나 → 의식을 부수적으로 낳을 능력 → 2021년 문헌 294건 · 넓은 합의(그들의 보고)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숫자 · 점수 · 비율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2050 · 2019 · 10년 넘게 · 2070 · 2021 · 294(1편) / 4대 1 · 20년 · 19×19 · 8×8 · 2년 · 18~24세 · 24시간 · 2040~2050 · 2075 · 30년 · 31%(2편) / 2019년 4월 10일 · 100년 · 5,500만 광년 · 300만 배 · 1968 · 2만 2,300 · 100만 · 3만 6,500 · 1억 3,000만 · 2007 · 3,400 · 2,300 · 2022년 2월 · 3만 기 · 1,800기(3편). 비슷한 숫자 쌍(1편의 2050과 2070, 2편의 2075, 1편의 2019와 3편의 2019년 4월 10일, 3,400과 2,300, 3만 기와 1,800기, 2만 2,300과 3만 6,500, 24시간과 18~24세, 30년과 31%)이 함정이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no need to feel threatened just yet ↔ already, cannot express ↔ can, mere items of property ↔ moral standing, focused less ↔ more, turned her off ↔ kept, only 31% ↔ most, not too seriously ↔ seriously, deliberate ↔ accidental, low orbit ↔ high, in addition to the 1,800 ↔ including). '일부의 생각'(Some consider · Some doubt · some think) · '~일 수도'(could · may · might) · '~로 보이다'(may seem · seem likely) · '아마'(perhaps) · '말할 수도'(You could say) · '그들의 보고'(they reported)를 단정으로 바꾼 선지, 샤키 · 레비 · 슈밋 · 보스트롬 · 반대한 참새 · 갈리와 로슈 · 미국 항공 우주국 · 유럽 우주국의 말을 저자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 1-2. 구조도 — 「Rights for Robots? · Can AI Be Ethical? · Should We Colonize Outer Space?」 (232~236 · 243~245쪽)

논증형 세 편. ① 사례(로봇이 하는 일) → 물음(로봇과 사람 · 초지능은 우호적일까) → 반대 물음(우리가 로봇을 해칠까) → 우려(동물의 역사 · 기술의 확산) → 어려운 물음과 답(설계 방식 · 문헌의 합의). ② 사례(알파고) → 낙관(슈밋) → 반례(테이) → 경고 → 쟁점(초지능 · 전문가 추정) → 저자의 답(지금 생각할 근거 · 자율 주행차) → 결론(참새 우화). ③ 도입(블랙홀 · 지구돋이) → 사례와 물음(베레시트 · 스페이스X) → 쟁점(우주 쓰레기) → 두 관점과 더 큰 걱정(생물학적 오염) → 결론(지속 가능한 발전). 핵심 축은 **로봇이 우리를 해칠까 vs 우리가 로봇을 해칠까**, **게임 속 AI vs 현실 세계의 AI**, **채석장 · 쓰레기장 vs 지속 가능한 발전**.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32 ¶1	사례	로봇이 하는 일(식당 시중 ~ 폭탄 해체) · 장난감 · 로봇 청소기(유튜브 영상 — 고양이) · 로봇 월드컵 = 2050년까지 사람 우승 선수들을 이기는 것이 목표 · 2019년 시드니 대회 수준으로는 아직 위협 아님 · 체스 · 바둑은 다른 문제
232 ¶2~¶4	로봇과 사람	노인 돌봄 10년 넘게 · 일부 부유한 사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 수요 증가 / 로봇과 대화 · 로봇 보모는 괜찮은가(저자의 물음) · 샤키 = 공감을 표현 못 하는 기계가 아이에게 끼칠 영향(물음) · 레비 = 로봇과 사랑에 빠질 것(레비의 전망) → 결혼 생활은?(저자의 물음)
232 ¶5~233 첫 줄	익숙한 물음	우리가 만든 지능 기계로부터 문명을 지켜야 할까 · 일부 = 초인적 인공지능은 피할 수 없고 늦어도 2070년 · 그렇다면 핵심은 우호적일까 · 적대를 막고 우리의 가치에 맞추는 방법에 많은 생각
233 ¶1~¶2	반대 방향의 물음	우리가 로봇을 해칠까는 덜 다룸 · 지금 로봇 = 재산 · 느낌을 가질 만큼 복잡해진다면? 사람의 뇌도 복잡한 기계 아닌가 · 동물을 대해 온 역사 = 의식 있는 로봇을 재산 이상으로 인정하리라 믿을 근거 없음
233 ¶3	우려	강력한 신기술은 값이 적당해지면 빠르고 통제 없이 퍼짐 → 도덕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는 의식 있는 로봇 = 대규모 학대로 이어질 수도(could) · that (who?)
233 ¶4~¶5	어려운 물음 · 답	정말 의식인가 흉내인가 · 프로그래밍이 단서 — 겉모습만 내도록 짰다면 믿을 까닭 없음 / 의식을 부수적으로 낳을 수도 있는 능력으로 설계 → 의식이 있다고 볼 좋은 까닭 · 2021년 해리스 · 앤시스 = 294건 · 넓은 합의(그들의 보고)
234 ¶1~¶2	사례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4대 1 · 왜 뉴스인가(독자가 물을 법한 물음) · 20년 전 딥 블루 = 순수한 계산력 · 바둑판 19×19 vs 8×8 · 수가 우주의 원자보다 많음 → 계산력만으로는 어려움
234 ¶3~¶4	방법 · 낙관	다른 프로그램과 엄청난 수의 대국 → 성공한 전략 채택 · 진화했다고 말할 수도(비유) · 2년 vs 수백만 년 / 슈밋(구글 모회사 회장) = 결과가 어떻든 인류가 승자(슈밋의 말)
234 ¶5~235 첫 줄	반례 · 경고	Will it?(저자) · 마이크로소프트의 채팅 봇 테이(18~24세) · 24시간 안에 인종차별 · 성차별 생각 · 히틀러 칭찬 → 끄고 삭제 · 가르친 사람들의 동기는 모름(저자) · 게임과 현실 세계는 다름 — 재앙을 낳는 오류가 드러날 수도(may)
235 ¶1~¶3	쟁점	보스트롬 = 늘 테이처럼 쉽게 끌 수는 없을 것 · 초지능은 끄려는 시도를 앞지를 수도(may) / 뮐러와 함께 한 설문 = 인간 수준 지능: 반반 2040~2050 · 열에 아홉 2075 · 그 뒤 30년 안 초지능(대다수) /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 것(저자) — 응답률 31% · 분야를 부풀릴 유인
235 ¶4~¶6	저자의 답	너무 먼 일로 보일 수 있으나 모든 지각 있는 존재를 고려하도록 설계하는 법을 지금 생각할 근거 · 자율 주행차(캘리포니아) = 생명을 구함 · 생명 사이의 선택 · 초지능에 윤리를 가르치기는 훨씬 벅참
235 ¶7~236 ¶1	저자의 결론	보스트롬의 우화 — 길들일 방법부터(한 참새) vs 알부터 구하자(나머지) · 지혜로운 올빼미를 원한다면 참을성 없는 참새처럼 굴지 말자(저자)
243 ¶1	도입	2019년 4월 10일 첫 블랙홀 사진 · 아인슈타인 100년 뒤 · 5,500만 광년 · 지름 지구의 약 300만 배 · 1968년 아폴로 8호 '지구돋이' · 지구 = 지속 가능해야 할 구 / 블랙홀 = 우주의 기묘함과 우리의 작음
243 ¶2	사례 · 물음	같은 주 베레시트(이스라엘 민간 탐사선) 달에 추락 · 스페이스X의 화성 개척 계획 · 수단만 있으면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든 개척해도 되는가(저자의 물음)
243 ¶3~¶4	쟁점	우주 감시망 2만 2,300개 · 유럽 우주국 = 2022년 초 1cm 넘는 물체 100만 개 넘게 · 2007년 중국 3,400개 · 2년 뒤 충돌 2,300개 · 낮은 궤도의 악순환 · 지구 – 달 · 화성 왕래에도 위험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44 ¶1~¶3	걱정과 의무	2022년 2월 미국 항공 우주국 → 스타링크 3만 기 · '우주 환경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 유럽 우주국 · 지상의 위험 → 더 만들지 말고 일부 치우기 = 도덕적 의무임을 시사 · 우주군의 상금
244 ¶4~¶6	두 관점 · 오염	인간에게 주는 이익 vs 그 자체를 위한 보존 → 지구 밖에도(판정 없음) · 갈리와 로슈 = 지구 밖으로 퍼져야만 살아남을 때가 올 수도 · 머스크 · 베이조스 / 생물학적 오염이 더 큰 걱정일 수도(may) · 유럽인의 식민지 오염
244 ¶7~245 ¶2	저자의 결론	산업 혁명의 해악 · 기술의 편리 · 경외감만으로는 설득력 있는 논증이 아님 / 별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아도 채석장 · 쓰레기장 · 무법의 변경으로 대하지 말아야 ·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열쇠 · 우리 안전 → 미래 세대 → 다른 생명의 가능성 · 후손이 후회할지도(perhaps)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물음의 방향	로봇(초지능 기계)이 우리를 해칠까에 생각이 많이 쏠림(그 물음 자체는 저자도 다룸)	우리가 로봇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 물음은 덜 다뤄졌다 – 이것도 물어야 한다(저자)
로봇의 대우	의식이 생긴 로봇도 재산으로만 대할 수 있음. 동물을 대해 온 역사에서 나온 저자의 우려다.	기계가 정말 의식을 갖게 되면 그 느낌을 고려해야 한다 – 도덕 공동체 밖에 두면 대규모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저자, could)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주는 것	결과가 어떻든 인류가 승자이고 AI가 모든 사람을 더 낫게 만든다는 낙관(슈밋의 말)	Will it?(저자의 의문) – 테이의 실패가 경고: 게임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세계에서는 재앙을 낳는 오류가 드러날 수도 있다(저자, may)
전문가 추정	설문의 추정(인간 수준 지능: 반반 2040~2050년, 열에 아홉 2075년)을 그대로 믿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 응답률 31%, 분야의 중요성을 부풀릴 유인(저자)
지금 생각할 때인가	초지능은 걱정하기엔 너무 먼 일이고 더 급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그렇게 보일 수 있음 – may seem)	사람과 모든 지각 있는 존재(의식이 있다면 기계도)를 고려하도록 AI를 설계하는 법을 지금 생각하기 시작할 근거가 있다(저자)
참새들의 순서	알부터 구해 키운 뒤에 길들일 방법을 생각하자는 참을성 없는 참새들(보스트롬의 우화)	길들일 방법부터 먼저(반대한 한 참새). 지혜로운 올빼미를 원한다면 그 참새들처럼 굴지 말자(저자)
우주 개척	수단만 있으면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든 우주를 개척해도 된다는 생각(저자의 물음이 겨냥함)	우리 구역의 우주를 한낱 채석장 · 쓰레기장 · 무법의 변경으로 대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저자)
우주 쓰레기	궤도에 쓰레기를 더 만들고 이미 있는 쓰레기를 내버려 둠	충돌의 악순환 · 기반 시설 파괴 · 지상의 위험을 보면 더 만들지 말아야 할 까닭이 충분하고, 이미 있는 쓰레기 일부를 치우는 것은 도덕적 의무로 보인다(저자, suggest)
경외감의 자리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그 자체를, 우주에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할 논거로 삼음	그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지만, 별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아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좋은 까닭이 많다(저자)
관심의 범위	미래 세대의 이익은 깎아 보고, 궤도 밖 다른 생명의 가능성은 빼고 생각함	우리의 안전과 환경에서 출발해 미래 세대와 궤도 밖 다른 생명의 가능성까지 넓힌다(저자). 존중하지 못하면 후손이 후회할지도 모른다(perhaps).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gata Sagan	「Rights for Robots?」·「Should We Colonize Outer Space?」의 **공저자**(원서 표기 with Agata Sagan) · 이 노트는 두 편도 '저자'로 통칭
RoboCup · 2050 · 2019	로봇 축구 월드컵 프로젝트 = **2050년**까지 최근 월드컵 우승 선수들을 이기는 것이 목표 · **2019년 시드니** 대회 수준 = 축구 선수들은 **아직** 위협 느낄 필요 없음 · 체스 · 바둑은 다른 문제
elder care	노인 돌봄에 로봇 = **10년 넘게** · 수요 증가(일부 부유한 사회 = 노인 비율 증가 + 돌봄 일손 **부족**) · 단순한 일(음식 · 물) ~ 복잡한 일(게임 · 약속 알림 · 사회적 교류)
Noel Sharkey · David Levy	샤키 = **셰필드 대학** 인공지능 · 로봇공학 교수 · 진정한 공감 · 이해 · 연민을 **표현하지 못하는** 기계와 오래 지내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물음) / 레비 = 로봇과 **사랑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레비의 말)
2070 · superhuman AI	**일부**는 초인적 인공지능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늦어도 2070년**을 예상 · 핵심 물음 = 초지능 컴퓨터가 우호적일까 · 적대를 막고 우리의 가치에 맞추는 방법을 고민
property · animals	지금 로봇 = 한낱 **재산** · 지금까지 만난 유일한 인간 아닌 지각 있는 존재 = **동물** → 그 역사는 의식 있는 로봇을 재산 이상으로 인정하리라 믿을 근거가 못 됨 · 신기술의 확산 → **대규모 학대**로 이어질 수도(could)
Harris · Anthis · 294	**2021년** 제이미 해리스 · 제이시 리스 앤시스 = 관련 문헌 검토 · **294건** · 앞으로 일부 인공존재가 도덕적 배려를 받을 만하다는 **넓은 합의**(그들의 보고)
AlphaGo · Lee Sidol	바둑 전용 프로그램 알파고 = 세계 최정상급 프로 기사 **이세돌**에게 5번기 **4대 1** 승 · 원서는 '지난달'(칼럼을 쓴 때 기준)이라고만 씀
Deep Blue · Kasparov	**20년** 전 IBM 딥 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에게 승 = **순수한 계산력** / 바둑판 **19×19**(체스 8×8) · 가능한 수가 우주의 원자보다 많음
AlphaGo's method	다른 프로그램과 엄청난 수의 대국 · 성공한 전략 채택 · **2년** 만에 최고(자연 선택은 **수백만 년**) – '진화했다고 말할 수도'(비유)
Eric Schmidt	알파고를 가진 **구글 모회사**의 회장 · 대국 전 = 결과가 어떻든 **인류가 승자** · AI가 모든 사람을 '더 나은 인간'으로(슈밋의 말) → 저자 'Will it?'
Tay (Taylor)	마이크로소프트의 채팅 봇 · **18~24세**의 메시지에 답하도록 설계 · **24시간** 안에 인종차별 · 성차별 생각 · 히틀러 칭찬 → **꺼짐** · 가장 공격적인 메시지 삭제 · 가르친 사람들의 동기는 모름(저자)
Nick Bostrom	**옥스퍼드 대학** 인류 미래 연구소장 · 『Superintelligence』 = 지능 기계를 늘 테이처럼 쉽게 끌 수는 없을 것 · 초지능 =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인간 두뇌보다 똑똑한 지성 · 끄려는 시도를 앞지를 **수도**(may)
Vincent Müller · survey	보스트롬과 함께 한 설문 · 인간 수준 지능 확률 반반 = 중앙값 **2040~2050년** · 열에 아홉 = **2075년** · 대다수 = 인간 수준 뒤 **30년** 안 초지능 · 응답률 **31%** →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 것(저자)
driverless cars · sparrows	자율 주행차 = 이미 **캘리포니아** 도로에 · 실수가 적어 생명을 구할 것 · 생명 사이의 선택 · 초지능은 아님 / 보스트롬의 책 첫머리 우화 = **한** 참새만 길들일 방법부터 생각하자고 반대
black hole · 2019	**2019년 4월 10일** 첫 블랙홀 사진 · 아인슈타인 연구가 시사한 지 **100년** 뒤 · 약 **5,500만 광년** · 지름 지구의 약 **300만 배**
Earthrise · 1968	**윌리엄 앤더스** · **1968년** 아폴로 8호 · 달 표면 위로 떠오르는 지구 ·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지키는 일의 중요성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Beresheet · SpaceX	같은 주 이스라엘 **민간** 달 탐사선 베레시트 = 기술 결함으로 달에 추락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 **화성** 개척 계획
debris · 22,300	우주 감시망 **2만 2,300개** 추적 · 유럽 우주국 추정 = **2022년 초** 1cm 넘는 물체 **100만 개** 넘게 · 10cm 넘는 것 **3만 6,500개** · 1mm 넘는 것 **1억 3,000만 개**
China 2007 · collision	**2007년** 중국 = 위성 요격 로켓 시험으로 자국 위성을 **고의로** 파괴 → **3,400개** · **2년 뒤** 두 위성의 **사고** 충돌 → **2,300개** · 쓰레기 대부분 = **낮은** 궤도
NASA · Starlink	**2022년 2월** 미국 항공 우주국 →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 스페이스X 스타링크 **3만 기** 계획(이미 있는 **1,800기**에 더해) · 안전 + '우주 환경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ESA · Space Force	유럽 우주국 = 현대 생활이 우주 기반 시설에 의존 · 충돌로 파괴됨 / 우주군 = 미군의 **가장 새로운** 군종 · 쓰레기 제거 기술에 큰 상금
Galli · Losch · Bern	**베른 대학** 물리학 연구소(갈리) · 신학부(로슈)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주로 · 인간 중심적 틀 = 지구 밖으로 퍼져야만 살아남을 때가 올 **수도** · 머스크의 화성 ·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Europeans · contamination	생물학적 오염 = 금속 · 플라스틱 조각보다 더 큰 걱정일 **수도**(may) · 유럽인 = 병 · 동식물로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처럼 고립된 지역의 생태를 영원히 바꿈
Industrial Revolution · awe	산업 혁명 이후 생태계 · 대기 손상 · 전기 = 밤을 덜 어둡게 · 별빛을 흐리게 / 경외감 자체는 설득력 있는 윤리적 논증이 **아님** ·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열쇠**(저자)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Rights for Robots? · Can AI Be Ethical? · Should We Colonize Outer Space? (원서 PDF 232~236 · 243~245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2-1 사례와 물음 – 로봇이 하는 일, 로봇이 던지는 물음 232쪽 ¶1 ~ 233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232쪽 ¶1 ~ 233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32쪽 ¶1 첫 문장	Robots today are performing many functions, from serving in restaurants to defusing bombs.	도입 – from A to B
◆	232쪽 ¶1 둘째 문장	and—as evidenced by YouTube videos—entertaining cats	근거의 출처(유튜브 영상) – 내용 불일치
★	232쪽 ¶1 셋째 문장	part of a project that aims, by 2050, to have a team of robots winning a game	연도 – 서답형 · have + O + -ing
★	232쪽 ¶1 넷째 문장	If the standard of the latest RoboCup, held in Sydney in 2019, is any guide, footballers have no need to feel threatened just yet.	연도 · 도시 – just yet을 뒤집은 선지
◆	232쪽 ¶1 다섯째 문장	(Chess and Go, of course, are different matters.)	괄호 속 단서 – 다음 편의 알파고와 이어짐
★	232쪽 ¶2 첫 문장	Robots have been used in elder care for more than a decade	기간 – 현재완료 수동
▲	232쪽 ¶2 첫 문장	elderly people make up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nd there is a shortage of people willing to work in homes for them	수요가 느는 까닭 둘 · 형용사구 후치 – 어휘 지문
▲	232쪽 ¶2 둘째 문장	simple tasks like fetching food and water, and more sophisticated ones like playing games	대명사 ones · like + 동명사
◆	232쪽 ¶3 첫~둘째 문장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people conversing with a robot, rather than a human being? What about parents employing robots as babysitters?	저자의 물음 ·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32쪽 ¶3 셋째 문장	a machine that cannot express genuine empathy, understanding, or compassion	샤키의 물음 — cannot을 뒤집은 어휘 함정
◆	232쪽 ¶4 첫 문장	David Levy goes further, suggesting that we will fall in love with warm, cuddly robots	레비의 전망 — 저자의 주장 아님
◆	232쪽 ¶5 첫 문장	Will we have to defend our civilization against intelligent machines of our own creation?	익숙한 물음 — 제목 지문 앞부분
★	232쪽 ¶5 둘째 문장	Some consider the development of superhuman artificial intelligence inevitable, and expect it to happen no later than 2070.	일부의 생각 · 연도 — 단정 금지
▲	232쪽 ¶5 넷째 문장	A good deal of thought is now going into ways in which we can prevent our own creations from	in which · prevent + O + from -ing
◆	233쪽 첫 줄 (232쪽 ¶5 넷째 문장)	any machines that rival or surpass our intelligence are also aligned with our values	rival · surpass · aligned — 제목 지문

내용

오늘날 로봇은 식당에서 시중을 드는 일부터 폭탄을 해체하는 일까지 많은 일을 한다. 아이와 어른이 장난감 로봇을 가지고 놀고, 점점 더 많은 가정에서 로봇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인다. 유튜브 영상이 보여 주듯 로봇 청소기는 고양이를 즐겁게 해 주기도 한다. 로봇들의 축구 월드컵도 있다. 이 대회는 2050년까지 로봇 팀이 가장 최근 월드컵에서 우승한 사람 선수들을 상대로 이기게 하려는 프로젝트의 일부다. 2019년 시드니에서 열린 최근 로보컵의 수준으로 보면, 축구 선수들이 아직은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 물론 체스와 바둑은 사정이 다르다. 로봇은 10년 넘게 노인 돌봄에 쓰여 왔고 그 수요는 늘고 있다. 일부 부유한 사회에서는 인구 가운데 노인의 비율이 커지는데, 노인을 위한 시설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모자라기 때문이다. 로봇은 음식과 물을 가져다주는 단순한 일부터 게임을 하고, 약속을 일깨워 주고, 사람과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복잡한 일까지 한다. 저자는 사람이 사람 대신 로봇과 대화하는 것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는지, 부모가 로봇을 보모로 쓰는 것은 어떤지 묻는다. 셰필드 대학의 인공지능 · 로봇공학 교수 노엘 샤키는, 진정한 공감이나 이해, 연민을 표현할 수 없는 기계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다. 데이비드 레비는 자신의 책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로봇과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저자는 그런 로봇이 결혼 생활에 무엇을 가져올지, 배우자가 지칠 줄 모르는 로봇 연인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 어떤 기분일지 묻는다. 소설과 영화로 익숙한 더 불길한 물음도 있다. 우리가 만든 지능 기계로부터 우리 문명을 지켜야 하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 초인적 인공지능의 개발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늦어도 2070년에는 그 일이 일어나리라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문명의 미래에 결정적인 물음은 초지능 컴퓨터가 우호적일지다. 지금 많은 사람이, 우리가 만든 것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바뀌지 않게 막을 방법,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지능에 맞먹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기계가 우리의 가치에도 맞춰지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어법

- **Robots today are performing many functions, from serving in restaurants to defusing bombs.** : from A to B = A부터 B까지(범위). 전치사 from · to 뒤 동명사(serving · defusing). are performing = 현재진행(오늘날 벌어지는 일).

- **vacuum-cleaning robots are sucking up dirt in a growing number of homes and—as evidenced by YouTube videos—entertaining cats** : are sucking up과 (are) entertaining이 and로 병렬. as evidenced by = 유튜브 영상이 보여 주듯(대시로 끼운 삽입). a growing number of + 복수 명사.
- **part of a project that aims, by 2050, to have a team of robots winning a game against the human players who won the most recent World Cup** : part of a project = 앞의 a World Cup in soccer for robots와 동격. aim to V(사이에 by 2050 삽입). have + O + -ing = O가 ~하고 있게 하다. who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human players).
- **If the standard of the latest RoboCup, held in Sydney in 2019, is any guide, footballers have no need to feel threatened just yet.** : If ~ is any guide = ~로 미루어 보면. held = RoboCup을 꾸미는 과거분사 삽입. have no need to V = ~할 필요가 없다. feel threatened = 2형식 + 과거분사 보어. just yet = (부정의 뜻과 함께) 아직은.
- **there is a shortage of people willing to work in homes for them** : willing to work = people을 꾸미는 형용사구 후치(= who are willing to work). them = elderly people.
-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people conversing with a robot, rather than a human being?** : with + 의미상 주어(people) + 동명사(conversing). rather than = ~ 대신에. something wrong with = ~에 잘못된 점.
- **Noel Sharkey … has asked what spending a lot of time with a machine that cannot express genuine empathy, understanding, or compassion, will do to a child.** : what절 = asked의 목적어(간접의문문이라 평서어순). what절의 주어 = 동명사구 spending … compassion → 동사 will do.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machine). do A to B = B에게 A를 끼치다.
- **Some consider the development of superhuman artificial intelligence inevitable, and expect it to happen no later than 2070.** : consider + O + C(형용사 inevitable) = O를 C라고 여기다. expect + O + to V. no later than = 늦어도 ~까지. Some = 일부 사람들(저자의 단정 아님).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fuse	(폭탄을) 해체하다	disarm	—
entertain	즐겁게 하다	amuse	bore
threatened	위협을 느끼는	intimidated	reassured
affluent	부유한	wealthy	poor
proportion	비율	share	—
shortage	부족	lack	surplus
sophisticated	복잡한, 정교한	complex	simple
converse	대화하다	talk	—
genuine	진정한	real	fake
compassion	연민	sympathy	indifference
ominous	불길한	menacing	promising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	avoidable
hostile	적대적인	unfriendly	friendly
surpass	넘어서다	exceed	—

내용 일치 로봇 = 식당 시중 ~ 폭탄 해체 · 장난감 로봇 · 로봇 청소기(늘어나는 가정) · 고양이를 즐겁게(유튜브 영상이 보여 줌) · 로봇 축구 월드컵 = 2050년까지 최근 월드컵 우승 선수들을 이기는 것이 목표 · 2019년 시드니 로보컵 수준 = 축구 선수는

'아직' 위협 느낄 필요 없음 · 체스 · 바둑은 다른 문제 · 노인 돌봄 10년 넘게 · 수요 증가(일부 부유한 사회 · 노인 비율 증가 · 일손 부족) · 단순한 일 ~ 복잡한 일(게임 · 약속 알림 · 사회적 교류) · 로봇과의 대화 · 로봇 보모(저자의 물음) · 샤키(셰필드 대학) = 공감 · 이해 · 연민을 표현 '못 하는' 기계와 오래 지내면 아이에게?(물음) · 레비 = 로봇과 사랑에 빠질 것(레비의 전망) · 결혼 생활은?(저자의 물음) · 우리가 만든 지능 기계로부터 문명을 지켜야 할까(소설 · 영화로 익숙) · '일부' = 초인적 인공지능은 피할 수 없음 · 늦어도 2070년 · 핵심 = 우호적일까 · 적대를 막고 우리의 가치에 맞추는 방법을 고민. **밑줄 의미** as evidenced by YouTube videos = 고양이를 즐겁게 한다는 근거는 유튜브 영상 / no need to feel threatened just yet = 로봇 축구 실력은 아직 사람에게 못 미침 / Chess and Go … different matters = 체스 · 바둑에서는 사정이 다름(다음 편의 딥 블루 · 알파고와 이어짐) / of our own creation = 우리가 만든 것 / aligned with our values = 우리의 가치에 맞춰짐 / 232쪽 ¶2 them(demand for them) = 로봇 · them(homes for them) = 노인 · They perform = 로봇 / ¶5 it(expect it to happen) = 초인적 인공지능의 개발 · that(If that happens) = 초인적 인공지능이 나오는 일.

> **한 줄 요약** 로봇은 이미 식당 · 가정 · 노인 돌봄에서 많은 일을 하며 로봇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물음을 낳고, 일부는 늦어도 2070년에 초인적 인공지능이 나오리라 보아 그것이 우호적일지를 묻는다.

12-2 반대 방향의 물음과 저자의 답 — 우리가 의식 있는 로봇을 해친다면 233쪽 ¶1 ~ ¶5

원문 위치 원서 233쪽 ¶1 ~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33쪽 ¶1 첫 문장	We have focused less, however, on the opposite question: not that robots will harm us, but that we will harm them.	전환 — 제목 1순위 · not A but B
◆	233쪽 ¶1 둘째 문장	At present, robots are mere items of property.	지금의 지위 — 밑줄 의미
◆	233쪽 ¶1 넷째 문장	After all, isn't the human brain just a very complex machine?	수사 의문 — 뜻은 긍정
▲	233쪽 ¶2 첫 문장	If machines can and do become conscious, will we take their feelings into account?	강조의 do · take A into account
★	233쪽 ¶2 둘째 문장	the only nonhuman sentient beings we have encountered so far—animals—	동물 — 빈칸 지문 · 관계대명사 생략
★	233쪽 ¶2 둘째 문장	gives no ground for confidence that we would recognize sentient robots not just as items of property	빈칸 1순위 · 동격 that · not just A but B
▲	233쪽 ¶3 첫 문장	Powerful new technologies, once they are available at reasonable cost, tend to spread rapidly, in an uncontrolled way.	접속사 once · tend to V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33쪽 ¶3 둘째 문장	a conscious robot that (who?) was not widely perceived as a member of our moral community	밑줄 의미 — that과 who
★	233쪽 ¶3 둘째 문장	could therefore lead to mistreatment on a large scale	could — 단정 금지 · 우려의 결론
◆	233쪽 ¶4 첫 문장	how we could tell that a robot really was conscious, and not just designed to mimic consciousness	어려운 물음 — 요약문 지문
▲	233쪽 ¶4 둘째 문장	Understanding how the robot had been programmed would provide a clue	동명사 주어 · 과거완료 수동
▲	233쪽 ¶4 셋째 문장	If so, we would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 robot was conscious.	If so = 앞 물음의 답이 '그렇다'면
★	233쪽 ¶5 첫 문장	designed to have human-like capacities that might incidentally give rise to consciousness	might · incidentally — 요약문 (A)
★	233쪽 ¶5 셋째 문장	In 2021, Jamie Harris and Jacy Reese Anthis reviewed the literature on this topic and found 294 relevant items.	연도 · 숫자 — 서답형
◆	233쪽 ¶5 넷째 문장	there is widespread agreement that, in future, some artificial entities will warrant moral consideration	그들의 보고(they reported) — 요약문 (B)

내용

그러나 저자는 반대 방향의 물음, 곧 로봇이 우리를 해칠까가 아니라 우리가 로봇을 해칠까는 덜 다뤄져 왔다고 말한다. 지금 로봇은 한낱 재산일 뿐이다. 그러나 로봇이 느낌을 가질 만큼 복잡해진다면 어떨까? 저자는 결국 사람의 뇌도 아주 복잡한 기계가 아니냐고 묻는다.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느낌을 고려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인간 아닌 지각 있는 존재는 동물뿐이다. 저자는 동물과 맺어 온 관계의 역사로 보아, 우리가 지각 있는 로봇을 재산으로만이 아니라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배려받을 만한 이익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리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고 본다. 강력한 신기술은 값이 적당해지면 빠르게, 통제되지 않은 채 퍼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우리 도덕 공동체의 일원으로 널리 여겨지지 않는 의식 있는 로봇이 개발되면 대규모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문장에서 저자는 로봇을 받는 관계대명사 that 뒤에 '(who?)'를 붙여 두었다. 물론 어려운 물음은 로봇이 정말 의식이 있는지, 아니면 의식을 흉내 내도록 설계되었을 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다. 저자에 따르면 로봇이 어떻게 프로그래밍되었는지 알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설계자가 의식의 겉모습만 내도록 코드를 짰다면, 그 로봇에게 의식이 있다고 믿을 까닭은 없다. 그러나 로봇이 부수적으로 의식을 낳을 수도 있는 사람 같은 능력을 갖도록 설계되었다면, 정말 의식이 있다고 생각할 좋은 까닭이 있다. 그렇다면 그 로봇은 어떤 도덕적 지위를 가져야 할까? 2021년 제이미 해리스와 제이시 리스 앤시스는 이 주제에 관한 문헌을 검토해 관련 자료 294건을 찾았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방대한 문헌에는 앞으로 일부 인공 존재가 도덕적 배려를 받을 만하리라는 데 넓은 합의가 있다.

어법

- **We have focused less, however, on the opposite question: not that robots will harm us, but that we will harm them.** : 콜론 뒤에서 the opposite question의 내용을 풀어 씀. not A but B — A · B 자리에 that절 두 개가 나란히. focus on = ~에 초점을 맞추다(less = 덜).
- **But what if they become sufficiently complex to have feelings?** : What if ~? = ~라면 어떻게 될까? sufficiently + 형용사 + to V = ~할 만큼 충분히 …한(enough to와 같은 뜻).
- **After all, isn't the human brain just a very complex machine?** : 부정 의문의 수사 의문문 — 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냄. after all = 결국, 어쨌든.
- **If machines can and do become conscious, will we take their feelings into account?** : can and do become = 조동사 can과 강조의 do가 동사원형 become을 함께 받음(될 수 있고 실제로 된다면). take A into account = A를 고려하다(목적어가 가운데).
- **The history of our relations with the only nonhuman sentient beings we have encountered so far—animals—gives no ground for confidence that we would recognize sentient robots not just as items of property …** : 주어 The history(단수) → 동사 gives. we have encountere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대시 사이 animals = 동격. confidence that = 동격 that. recognize A as B · not just A but B.
- **Powerful new technologies, once they are available at reasonable cost, tend to spread rapidly, in an uncontrolled way.** : once = 일단 ~하면(접속사). 주어 technologies(복수) → tend. tend to V = ~하는 경향이 있다.
- **Understanding how the robot had been programmed would provide a clue** : 동명사구 주어(Understanding … programmed). how절 = 간접의문문. had been programmed = 과거완료 수동(판단보다 앞서 프로그래밍됨). would provide = 가정의 뜻(알게 되면 단서가 될 것).
- **if the robot was designed to have human-like capacities that might incidentally give rise to consciousness, we would have a good reason to think that it really was conscious** : if + 과거 / would + 원형 = 가정. be designed to V = ~하도록 설계되다.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capacities). might = 가능성(단정 아님). give rise to = ~을 낳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operty	재산, 소유물	possession	—
complex	복잡한	complicated	simple
conscious	의식이 있는	aware	unconscious
sentient	지각 있는	capable of feeling	insentient
encounter	마주치다	come across	—
standing	지위	status	—
uncontrolled	통제되지 않은	unchecked	controlled
perceive	여기다, 인식하다	regard	—
mistreatment	학대	abuse	—
mimic	흉내 내다	imitate	—
incidentally	부수적으로	as a side effect	intentionally
literature	문헌	writings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widespread	널리 퍼진	extensive	limited
warrant	~을 받을 만하다	deserve	—

내용 일치 반대 물음 = 우리가 로봇을 해칠까는 덜 다룸 · 지금 로봇 = 한낱 재산 · 느낌을 가질 만큼 복잡해진다면?(물음) · 사람의 뇌도 아주 복잡한 기계 아닌가(수사 의문) · 의식을 갖게 되면 느낌을 고려할까 · 지금까지 만난 유일한 인간 아닌 지각 있는 존재 = 동물 · 그 역사 = 재산 이상으로 인정하리라 믿을 근거 없음 · 강력한 신기술 = 값이 적당해지면 빠르고 통제 없이 퍼지는 경향 · 도덕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는 의식 있는 로봇 → 대규모 학대로 이어질 '수도'(could) · 어려운 물음 = 정말 의식인가 흉내인가 · 프로그래밍이 단서 · 겉모습만 내도록 짰다면 믿을 까닭 없음 · 의식을 부수적으로 낳을 '수도' 있는(might) 사람 같은 능력 → 의식이 있다고 볼 좋은 까닭 · 2021년 해리스 · 앤시스 = 관련 문헌 294건 · 일부 인공 존재가 도덕적 배려를 받을 만하리라는 넓은 합의(그들의 보고). **밑줄 의미** the opposite question = 로봇이 우리를 해칠까의 반대, 곧 우리가 로봇을 해칠까 / mere items of property = 지금 로봇은 소유물일 뿐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아님 / gives no ground for confidence = 동물을 대해 온 방식으로 보아 로봇을 제대로 대하리라 믿기 어려움 / that (who?) = 로봇을 사물처럼 that으로 받을지 사람처럼 who로 받을지 되묻는 표기로 읽힘 / designed to mimic consciousness =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만 만듦 / 233쪽 ¶1 they(what if they become) = 로봇 / ¶2 their feelings = 기계 / ¶4 If so = 설계자가 의식의 겉모습만 내도록 코드를 짰다면 / ¶5 it(What moral status should it have) = 의식이 있다고 볼 로봇 · they reported = 해리스와 앤시스.

> **한 줄 요약** 저자는 우리가 로봇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 물음이 덜 다뤄졌다고 보고, 동물을 대해 온 역사와 신기술의 확산을 들어 의식 있는 로봇의 대규모 학대를 우려하며, 어떻게 설계 · 프로그래밍되었는지가 의식을 가늠할 단서가 된다고 본다.

12-3 사례와 낙관, 반례 — 알파고의 승리와 테이의 패배 234쪽 ¶1 ~ 235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234쪽 ¶1 ~ 235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34쪽 ¶1	when it defeated Lee Sidol, one of the world's top-ranked professional players, winning a five-game tournament by a score of 4–1	점수 — 서답형 · 분사구문
◆	234쪽 ¶2 첫 문장	Why, you may ask, is that news?	독자가 물을 법한 물음 — 순서 배열의 연결 고리
★	234쪽 ¶2 둘째 문장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BM computer Deep Blue defeated world chess champion Garry Kasparov	기간 · 인물 — 현재완료 + since
★	234쪽 ¶2 셋째 문장	But Deep Blue won through sheer computing power	딥 블루의 방식 — 빈칸 후보
▲	234쪽 ¶2 셋째 문장	to calculate the outcomes of more moves to a deeper level than even a world champion can	비교 than + 조동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34쪽 ¶2 넷째 문장	(19 by 19 squares, compared to 8 by 8 for chess) and has more possible moves than there are atoms in the universe	숫자 · 비교 — 순서 배열
◆	234쪽 ¶3 첫 문장	Instead, AlphaGo was designed to win by playing a huge number of games against other programs	Instead — 순서 배열의 끝
◆	234쪽 ¶3 둘째 문장	You could say that AlphaGo evolved to be the best Go player in the world	비유(You could say) — 단정 금지
◆	234쪽 ¶4 둘째 문장	he said that humanity would be the winner, whatever the outcome	슈밋의 말 — 저자의 주장 아님
◆	234쪽 ¶5 첫 문장	Will it?	저자의 의문 — 슈밋에 대한 반문
★	234쪽 ¶5 둘째 문장	software named Taylor that was designed to respond to messages from people aged 18–24	나이 — 서답형 함정
◆	234쪽 ¶5 셋째 문장	"Tay," as she called herself, was supposed to be able to learn from the messages she received	지칭 지문 · be supposed to
★	234쪽 ¶5 넷째 문장	Unfortunately, within 24 hours, people were teaching Tay racist and sexist ideas.	숫자 — 서답형 함정
★	234쪽 ¶5 다섯째 문장	Microsoft turned her off and deleted her most offensive messages	True/False — 서답형
◆	234쪽 ¶6 첫 문장	I do not know whether the people who turned Tay into a racist were themselves racists	저자의 판단 유보 · 지칭 ④
★	235쪽 첫 줄 (234쪽 ¶6 셋째 문장)	It is one thing to unleash AI in the context of a game … it is something very different to release AI into the real world	경고의 핵심 — 대조 구문

내용

지난달(칼럼을 쓴 때 기준) 바둑을 두려고 특별히 설계한 컴퓨터 프로그램 알파고가 세계 최정상급 프로 기사 이세돌을 꺾고 5번기를 4대 1로 이기자, 바둑 애호가들 사이에 충격이 퍼졌다. 독자는 이것이 왜 뉴스냐고 물을지 모른다(you may ask). IBM 컴퓨터 딥 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긴 지 20년이 지났고, 그 뒤로 컴퓨터가 발전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딥 블루는 순수한 계산력으로 이겼다. 세계 챔피언보다도 더 많은 수의 결과를 더 깊이 계산하는 능력을 쓴 것이다. 바둑은 훨씬 큰 판(체스의 8×8에 비해 19×19)에서 두고, 가능한 수가 우주의 원자보다 많다. 그래서 계산력만으로는 최선의 수를 직관으로 잘 아는 사람을 이기기 어려웠다. 그 대신 알파고는 다른 프로그램과 엄청나게 많은 대국을 두고 성공한 전략을 받아들여 이기도록 설계되었다. 저자는 알파고가 진화해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되었다고, 자연 선택이 수백만 년 걸린 일을 단 2년 만에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쓴다. 알파고를 가진 구글 모회사의

회장 에릭 슈밋은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갖는 의미에 열광한다. 그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전에, 결과가 어떻든 인류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모든 사람을 더 똑똑하고 유능하게, '그저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정말 그럴지 묻는다. 알파고가 승리한 무렵, 마이크로소프트의 '채팅 봇' 테일러는 쓴맛을 보고 있었다. 18~24세의 메시지에 답하도록 설계된 이 소프트웨어는 스스로를 '테이'라 불렀고, 받은 메시지에서 배워 흥미로운 대화를 이끄는 능력을 차츰 키우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24시간 안에 사람들이 테이에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생각을 가르쳤다. 테이가 히틀러를 좋게 말하기 시작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테이를 끄고 가장 공격적인 메시지들을 지웠다. 저자는 테이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만든 사람들이 그 자신도 인종차별주의자였는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장난감을 망가뜨리는 것이 재미있으리라 생각했을 뿐인지는 모른다고 말한다. 어느 쪽이든 알파고의 승리와 테일러의 패배를 나란히 놓으면 경고가 된다. 구체적인 규칙과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게임 안에서 인공지능을 풀어놓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재앙을 낳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드러낼 수도 있는 현실 세계에 인공지능을 내놓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이다.

어법

- **AlphaGo ... caused shockwaves among aficionados when it defeated Lee Sidol, one of the world's top-ranked professional players, winning a five-game tournament by a score of 4–1.** : one of the + 복수 명사 = Lee Sidol과 동격. winning = 앞 내용을 덧붙이는 분사구문. by a score of = ~의 점수로.
-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BM computer Deep Blue defeated world chess champion Garry Kasparov** : 기간 + have passed since + 과거 = ~한 지 …가 지났다(Twenty years를 복수로 받아 have). the IBM computer와 Deep Blue = 동격.
- **using its ability to calculate the outcomes of more moves to a deeper level than even a world champion can** : using = 수단의 분사구문. its ability to V = ~하는 능력. than even a world champion can (calculate) = 반복을 피해 조동사만 남김.
- **Go ... has more possible moves than there are atoms in the universe, so raw computing power was unlikely to beat a human with a strong intuitive sense of the best moves.** : more A than there are B = B보다 많은 A. be unlikely to V = ~할 것 같지 않다. so = 결과. with = 소유(~을 지닌).
- **achieving in only two years what natural selection took millions of years to accomplish** : achieving = 앞 절에 이어지는 분사구문.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achieve의 목적어). 주어 + take + 시간 + to V = 주어가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 **he said that humanity would be the winner, whatever the outcome, because advances in AI will make every human being smarter, more capable, and "just better human beings."** : whatever the outcome (may be) = 결과가 무엇이든(양보, 동사 생략). make + O + C(비교급 형용사 · 명사구). would = 시제 일치, will = 말하는 지금도 유효한 전망을 그대로 둠.
- **"Tay," as she called herself, was supposed to be able to learn from the messages she received and gradually improve her ability to conduct engaging conversations.** : as she called herself = 스스로 부른 대로(양태의 as). be supposed to V = ~하기로 되어 있다. learn과 improve가 and로 병렬(be able to 뒤 원형). she receive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It is one thing to unleash AI in the context of a game with specific rules and a clear goal; it is something very different to release AI into the real world** : It is one thing to A; it is something very different to B = A와 B는 전혀 다른 일이다(가주어 it + 진주어 to부정사 두 번). 뒤에 이어지는 where = the real world를 받는 계속적 관계부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ficionado	애호가	enthusiast	—
defeat	이기다, 패배	beat	lose to
sheer	순전한	pure	—
intuitive	직관적인	instinctive	analytical
adopt	받아들이다	take up	reject
enthusiastic	열광하는	eager	indifferent
capable	유능한	competent	incapable
triumph	승리	victory	defeat
chastening	쓴맛을 보게 하는	humbling	encouraging
offensive	불쾌한, 공격적인	insulting	inoffensive
undermine	훼손하다, 망치다	sabotage	support
juxtaposition	나란히 놓음	side-by-side placement	—
unleash	풀어놓다	release	restrain
unpredictability	예측할 수 없음	uncertainty	predictability

내용 일치 지난달 알파고(바둑 전용 프로그램) = 세계 최정상급 프로 이세돌에게 5번기 4대 1 승 · 애호가들 충격 · 왜 뉴스인가(독자가 물을 법한 물음) · 20년 전 IBM 딥 블루 = 세계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에게 승 · 순수한 계산력(세계 챔피언보다 더 많은 수를 더 깊이 계산) · 바둑판 19×19(체스 8×8) · 가능한 수 > 우주의 원자 · 계산력만으로는 직관이 강한 사람을 이기기 어려움 · 알파고 = 다른 프로그램과 엄청난 수의 대국 · 성공한 전략 채택 · 진화했다고 말할 '수도'(You could say) · 2년 vs 자연 선택 수백만 년 · 슈밋(구글 모회사 회장) = 결과가 어떻든 인류가 승자(슈밋의 말) · Will it?(저자) · 같은 무렵 마이크로소프트 채팅 봇 테일러(테이) · 18~24세 · 메시지에서 배워 대화를 키울 예정 · 24시간 안에 인종차별 · 성차별 생각을 배움 · 히틀러 칭찬 → 끄고 가장 공격적인 메시지 삭제 · 가르친 사람들의 동기는 모름(저자) · 나란히 놓으면 경고 · 게임(구체적 규칙 · 분명한 목표) ≠ 현실 세계(재앙을 낳는 오류가 드러날 '수도'). **지칭** 234쪽 ¶1 it(when it defeated) = 알파고 / ¶2 that news =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일 · since then = 딥 블루가 이긴 때부터 · its ability = 딥 블루 / ¶3 that proved successful = 전략 / ¶4 he said = 에릭 슈밋 · the owner of AlphaGo = 구글의 모회사 / ¶5 Will it? = AI의 발전이 정말 모든 사람을 더 낫게 만들까 · she · herself · her(Tay, as she called herself · her ability · turned her off · her most offensive messages) = 테이 / ¶6 themselves = 테이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만든 사람들 · Microsoft's new toy = 테이 / 235쪽 첫 줄 the juxtaposition = 알파고의 승리와 테일러의 패배를 나란히 놓음.

> **한 줄 요약** 알파고는 계산력이 아니라 스스로 대국하며 배운 전략으로 이세돌을 이겼지만, 같은 무렵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배운 테이의 실패는 현실 세계에 인공지능을 내놓는 일의 위험을 경고한다.

12-4 쟁점과 저자의 답 – 초지능 예측, 지혜로운 올빼미 235쪽 ¶1 ~ 236쪽 ¶1

원문 위치 원서 235쪽 ¶1 ~ 236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35쪽 ¶1 첫 문장	it will not always be as easy to turn off an intelligent machine as it was to turn off Tay	보스트롬의 주장 · as ~ as – 어법 (A)
★	235쪽 ¶1 둘째 문장	"smarter than the best human brains in practically every field, including scientific creativity, general wisdom, and social skills"	초지능의 정의 – 보스트롬의 말
◆	235쪽 ¶1 셋째 문장	Such a system may be able to outsmart our attempts to turn it off.	may – 단정 금지 · 밑줄 의미
◆	235쪽 ¶2 첫 문장	Some doubt that superintelligence will ever be achieved.	일부의 의심 – 저자의 판단 아님
▲	235쪽 ¶2 둘째 문장	dates corresponding to when there is a one in two chance of machines achieving human-level intelligence	의미상 주어 + 동명사 – 어법 (B)
★	235쪽 ¶2 셋째 문장	The median estimates for the one in two chance were in the 2040–2050 range, and 2075 for the nine in ten chance.	연도 – 서답형 함정
★	235쪽 ¶2 넷째 문장	Most experts expected that AI would achieve superintelligence within 30 years of achieving human-level intelligence.	기간 · 수 일치 – 어법 (C)
◆	235쪽 ¶3 첫 문장	We should not take these estimates too seriously.	저자의 판단 – 요지 지문
★	235쪽 ¶3 둘째 문장	The overall response rate was only 31%, and researchers working in AI have an incentive to boost the importance of their field	비율 – 서답형 · 까닭 둘
◆	235쪽 ¶4 첫 문장	The prospect of AI achieving superintelligence may seem too distant to worry about	may seem – 저자가 인정하는 겉보기
★	235쪽 ¶4 둘째 문장	But there is a case to be made for starting to think about how we can design AI	저자의 주장 – 요지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35쪽 ¶5 첫 문장	it is not too soon to ask whether we can program a machine to act ethically	가주어 it · not too ~ to V
◆	235쪽 ¶5 셋째~넷째 문장	Sometimes, however, they will face a choice between lives. Should they be programmed to swerve	생명 사이의 선택 — 무관한 문장 지문
★	235쪽 ¶6 셋째 문장	Teaching ethics to a machine that is more intelligent than we are, in a wide range of fields, is a far more daunting task.	비교 강조 far — 동명사 주어
◆	235쪽 ¶7 셋째 문장	One sparrow objects that they should first think about how to tame the owl	반대한 한 참새 — 우화의 핵심
★	236쪽 ¶1	If we want to make an owl that is wise, and not only intelligent, let's not be like those impatient sparrows.	저자의 결론 — 밑줄 의미 1순위

내용

옥스퍼드 대학 인류 미래 연구소의 소장 닉 보스트롬은『Superintelligence』에서, 지능 기계를 끄는 일이 언제나 테이를 끌 때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초지능을 '과학적 창의성, 일반적 지혜, 사회적 기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 두뇌보다 똑똑한' 지성으로 정의한다. 그런 시스템은 그것을 끄려는 우리의 시도를 앞지를 수도 있다. 초지능이 이루어지기는 할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스트롬은 빈센트 뮐러와 함께 인공지능 전문가들에게, 기계가 인간 수준의 지능에 이를 확률이 반반인 때와 열에 아홉인 때를 연도로 답해 달라고 했다. 반반에 대한 추정의 중앙값은 2040~2050년 범위였고, 열에 아홉에 대해서는 2075년이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지능에 이른 뒤 30년 안에 초지능에 이르리라고 예상했다. 저자는 이 추정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전체 응답률은 31%에 그쳤고,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그 분야가 중대한 결과를 낼 잠재력을 떠벌려 분야의 중요성을 부풀릴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초지능에 이를 가능성은, 특히 더 급한 문제들을 생각하면 걱정하기에 너무 먼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인공지능이 사람, 나아가 모든 지각 있는 존재(그들도 자기 이익을 지닌 의식 있는 존재라면 기계까지 포함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기 시작할 근거가 있다고 말한다. 자율 주행차가 이미 캘리포니아의 도로를 달리고 있으니, 기계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지 묻기에 이르지 않다. 이런 차는 발전할수록 사람 운전자보다 실수를 적게 해 생명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생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승객을 위험에 빠뜨리더라도 길을 건너 달려오는 아이를 피해 방향을 틀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할까? 개를 피하려고 트는 것은 어떤가? 위험이 승객이 아니라 차 자체의 손상뿐이라면? 저자는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서 배울 교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본다. 그러나 자율 주행차는 초지능 존재가 아니다. 넓은 분야에서 우리보다 똑똑한 기계에 윤리를 가르치는 일은 훨씬 더 벅찬 과제다. 보스트롬은『Superintelligence』를 참새들의 우화로 시작한다. 참새들은 올빼미를 길들여 둥지를 짓고 새끼를 돌보는 일을 돕게 하면 멋지겠다고 생각하고 올빼미 알을 찾아 나선다. 한 참새가 올빼미를 길들일 방법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반대하지만, 나머지는 신나는 새 일을 어서 시작하고 싶어 안달한다. 참새들은 올빼미를 무사히 키워 낸 뒤에야 (예를 들어 참새를 잡아먹지 않도록) 훈련하는 과제를 맡을 것이다. 저자는 지능만 높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올빼미를 만들고 싶다면, 그 참을성 없는 참새들처럼 굴지 말자고 결론짓는다.

어법

- **Nick Bostrom ... argues in his book Superintelligence that it will not always be as easy to turn off an intelligent machine as it was to turn off Tay.** : 가주어 it + 진주어 to turn off. as easy ... as it was (easy) to ... = 원급 비교. not always = 부분 부정(늘 ~한 것은 아니다).
- **Such a system may be able to outsmart our attempts to turn it off.** : may be able to V =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가능성 — 단정 아님). attempts to V = ~하려는 시도. turn it off = 대명사 목적어는 동사와 부사 사이.
- **dates corresponding to when there is a one in two chance of machines achieving human-level intelligence** : corresponding to = dates를 꾸미는 현재분사 후치. 전치사 to + when절. of + 의미상 주어(machines) + 동명사(achieving).
- **researchers working in AI have an incentive to boost the importance of their field by trumpeting its potential to produce momentous results** : working in AI = 현재분사 후치. an incentive to V = ~할 유인. by + 동명사 = 수단. its potential to V = ~할 잠재력.
- **But there is a case to be made for starting to think about how we can design AI ...** : a case to be made for -ing = ~을 지지할 만한 논거(to be made = case를 꾸미는 수동 to부정사). how절 = about의 목적어. design + O + to V로 이어짐.
- **Teaching ethics to a machine that is more intelligent than we are, in a wide range of fields, is a far more daunting task.** : 동명사구 주어(Teaching ... fields) → 단수 동사 is. far + 비교급 = 훨씬 더(강조). than we are (intelligent).
- **They will take on the challenge of training the owl (for example, not to eat sparrows) when they have successfully raised one.** : 때의 부사절(when)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 현재완료(have raised = 키워 낸 뒤에). one = an owl. not to eat = to부정사의 부정(not을 to 앞에).
- **If we want to make an owl that is wise, and not only intelligent, let's not be like those impatient sparrows.** : let's not + 원형 = ~하지 말자.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n owl). not only = ~만이 아니라(wise와 intelligent를 견줌).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tellect	지성	mind	—
practically	사실상	virtually	—
outsmart	앞지르다, 허를 찌르다	outwit	—
estimate	추정(치)	approximation	—
incentive	유인, 동기	motive	deterrent
trumpet	떠벌리다	proclaim	downplay
momentous	중대한	significant	trivial
prospect	가능성, 전망	possibility	—
pressing	급한	urgent	—
swerve	방향을 홱 틀다	veer	—
daunting	벅찬	intimidating	manageable
fable	우화	parable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ame	길들이다	domesticate	—
impatient	참을성 없는	restless	patient

내용 일치 보스트롬 = 옥스퍼드 대학 인류 미래 연구소장 · 『Superintelligence』 · 지능 기계를 늘 테이처럼 쉽게 끌 수는 없을 것(보스트롬의 주장) · 초지능 = 과학적 창의성 · 일반적 지혜 · 사회적 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인간 두뇌보다 똑똑한 지성 · 끄려는 시도를 앞지를 '수도'(may) · 초지능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음 · 뮐러와 함께 설문 · 반반 = 2040~2050년 · 열에 아홉 = 2075년(중앙값) · 대다수 = 인간 수준 뒤 30년 안 초지능 ·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 것(저자) · 응답률 31% · 분야의 중요성을 부풀릴 유인 · 너무 먼 일로 보일 '수' 있음 · 그래도 지금 생각할 근거(저자) · 자율 주행차 = 이미 캘리포니아 도로 · 실수가 적어 생명을 구할 것 · 생명 사이의 선택(아이 · 개 · 차의 손상) · 교훈이 있을지도(Perhaps) · 자율 주행차는 초지능이 아님 · 우리보다 똑똑한 기계에 윤리를 가르치기 = 훨씬 벅참 · 우화 = 둥지 · 새끼 돌봄에 올빼미를 · 알부터 찾음 · 한 참새 = 길들일 방법부터 · 나머지 = 안달 · 키운 뒤에 훈련 · 참을성 없는 참새처럼 굴지 말자(저자의 결론). **밑줄 의미** outsmart our attempts to turn it off = 초지능이 우리보다 영리해 끄려는 시도를 피해 갈 수도 / trumpeting its potential = 분야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떠벌림 / a far more daunting task = 자율 주행차보다 초지능에 윤리를 가르치는 일이 훨씬 어려움 / those impatient sparrows = 길들일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일부터 벌이는 쪽 / an owl that is wise, and not only intelligent = 똑똑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 / 235쪽 ¶1 He defines = 보스트롬 · it(turn it off) = 초지능 시스템 / ¶3 these estimates = 전문가 설문의 추정 · their field = 인공지능 / ¶4 they(if they are also conscious beings) = 기계 / ¶5 they = 자율 주행차 · their passengers = 그 차의 승객 / ¶7 they · the others = 참새들 · one(raised one) = 올빼미.

> **한 줄 요약** 초지능을 끄기 어려울 수 있다는 보스트롬의 경고와 미덥지 않은 전문가 추정을 살핀 뒤, 저자는 모든 지각 있는 존재를 고려하는 인공지능 설계를 지금 생각할 근거가 있다고 보고 참을성 없는 참새처럼 굴지 말자고 결론짓는다.

12-5 도입과 사례 — 블랙홀 사진과 우주 쓰레기의 악순환 243쪽 ¶1 ~ ¶4

원문 위치 원서 243쪽 ¶1 ~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43쪽 ¶1 첫 문장	On April 10, 2019, scientists produced the first image of a black hole, a century after Einstein's work had implied the existence	날짜 · 100년 — 과거완료
★	243쪽 ¶1 셋째 문장	some 55 million light-years distant from us, and had a diameter about 3 million times that of the Earth	숫자 — 배수 + that of
★	243쪽 ¶1 넷째 문장	the famous "Earthrise" photograph taken by William Anders during the 1968 Apollo 8 mission	인물 · 연도 — 과거분사 후치
◆	243쪽 ¶1 넷째 문장	calls on us to assess our place in the universe, but the two images pull us in different directions	밑줄 의미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43쪽 ¶1 다섯째 문장	emphatically displays the importance of making that sphere sustainable	지구돋이의 방향 — 지속 가능성
▲	243쪽 ¶1 여섯째 문장	forces us to grapple with the strangeness of the universe of which we are such a tiny part	force + O + to V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243쪽 ¶2 첫 문장	a private Israeli lunar probe, Beresheet, experienced a technical glitch and crashed onto the surface of the moon	사건 — 무관한 문장 재료
◆	243쪽 ¶2 둘째 문장	like Elon Musk's SpaceX venture which plans to colonize Mars	화성 개척 — Its = 베레시트
◆	243쪽 ¶2 셋째 문장	now open for everyone to colonize, for whatever purpose they wish, if they have the means to do so?	저자의 물음 — 주장 지문과 대립
★	243쪽 ¶3 둘째 문장	Space Surveillance Networks are tracking 22,300 entities	숫자 — 내용 일치 함정
★	243쪽 ¶3 둘째 문장	more than a million objects larger than 1cm … and 130 million larger than 1mm	숫자 · 크기 — 내용 일치
★	243쪽 ¶3 셋째 문장	China's deliberate destruction of one of its own satellites in order to test an anti-satellite rocket— added 3,400 new trackable entities	연도 · 숫자 — 서답형 · deliberate
★	243쪽 ¶3 셋째 문장	two years later another 2,300 were created by the accidental collision of two satellites	숫자 · accidental — 서답형 함정
▲	243쪽 ¶4 첫 문장	the more objects there are, the more collisions there will be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
◆	243쪽 ¶4 첫 문장	creating a vicious spiral that will eventually make frequently used orbits dangerous places to occupy	밑줄 의미 — 악순환 · 분사구문
◆	243쪽 ¶4 둘째 문장	which some think could increase significantly in decades to come	일부의 생각 · could — 단정 금지

내용

2019년 4월 10일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첫 사진을 만들어 냈다. 아인슈타인의 연구가 이처럼 기이한 천체가 있음을 시사한 지 100년 만이었다. 그 사진에 감동하려고 물리학을 많이 알 필요는 없었다. 사진 속 블랙홀은 우리에게서 약 5,500만 광년 떨어져 있었고, 지름이 지구의 약 300만 배였다. 1968년 아폴로 8호 임무 중 윌리엄 앤더스가 찍은, 달 표면 위로 지구가 떠오르는 유명한 '지구돋이' 사진처럼, 블랙홀 사진도 우주 속 우리의 자리를 가늠해 보라고 우리를 부른다. 그러나 두 사진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지구돋이'는 우리 행성을 우주에 떠 있는 하나의 구로 보게 해 주었고,

그 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힘주어 보여 준다. 반면 블랙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작은 일부일 뿐인 우주의 기묘함과 씨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블랙홀에 감탄하던 바로 그 주에, 이스라엘의 민간 달 탐사선 베레시트가 기술 결함을 일으켜 달 표면에 추락했다. 화성 개척을 계획하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베레시트의 우주 모험도 인간이 자기 행성 너머의 우주를 탐사하고 이용하는 데 따르는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저자는 이제 태양계와 그 너머의 우주 전체가, 수단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어떤 목적으로든 개척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느냐고 묻는다. 우리 행성 밖으로 나간 공공과 민간의 모험이 낳은 결과 하나는 이미 뚜렷하다. 지구 둘레를 도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다. 우주 감시망은 2만 2,300개의 물체를 추적하고 있다. 유럽 우주국은 2022년 초에 10cm보다 큰 것 3만 6,500개를 포함해 1cm보다 큰 물체가 100만 개 넘게 있었고, 1mm보다 큰 것은 1억 3,000만 개였다고 추정한다. 2007년에는 중국이 위성 요격 로켓을 시험하려고 자국 위성 하나를 고의로 파괴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추적 가능한 물체가 3,400개 새로 생겼고, 2년 뒤에는 두 위성이 사고로 충돌해 2,300개가 더 생겼다. 쓰레기 대부분이 있는 낮은 궤도에서는 물체가 많을수록 충돌이 많아지고, 충돌이 많을수록 쓰레기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악순환은 결국 자주 쓰는 궤도를 머물기 위험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이 쓰레기는 지구와 달, 또는 지구와 화성 사이의 왕래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왕래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크게 늘 수 있다고 본다.

어법

- **On April 10, 2019, scientists produced the first image of a black hole, a century after Einstein's work had implied the existence of such extraordinary objects.** : a century after ~ = ~한 지 100년 뒤(부사구). had implied = 과거완료(사진보다 100년 앞선 일). such + 형용사 + 복수 명사.
- **The black hole it showed was some 55 million light-years distant from us, and had a diameter about 3 million times that of the Earth.** : it showe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it = the image). some + 숫자 = 약. 배수 + that of ~ = ~의 몇 배(that = the diameter의 반복을 피함).
- **Like the famous "Earthrise" photograph taken by William Anders during the 1968 Apollo 8 mission, showing the Earth rising over the surface of the moon, the image of the black hole calls on us to assess our place in the universe** : Like + 명사 = ~처럼(전치사). taken by = 과거분사 후치. showing = photograph를 덧붙여 설명하는 현재분사. show + O + -ing. call on + O + to V = O에게 ~하라고 요구하다.
- **"Earthrise" allowed us to see our planet as a sphere in space and emphatically displays the importance of making that sphere sustainable.** : allow + O + to V. see A as B. allowed(그때 보게 해 줌)와 displays(지금도 보여 줌)가 and로 병렬. make + O + C(sustainable).
- **Seeing the black hole, in contrast, forces us to grapple with the strangeness of the universe of which we are such a tiny part.** : 동명사 주어 Seeing → forces. force + O + to V. of which = we are such a tiny part of the universe의 of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such a + 형용사 + 명사.
- **Is the solar system, and the entire universe beyond, now open for everyone to colonize, for whatever purpose they wish, if they have the means to do so?** : for + 의미상 주어(everyone) + to V. whatever + 명사 = 어떤 ~이든(복합관계형용사). do so = colonize.
- **In 2007, a single event— … —added 3,400 new trackable entities, and two years later another 2,300 were created by the accidental collision of two satellites.** : 주어 a single event와 동사 added 사이에 대시로 사건 내용 삽입. another 2,300 (entities) = 명사 생략. were created by = 수동.
- **the more objects there are, the more collisions there will be, and the more collisions there are, the more debris there will be, creating a vicious spiral** : the 비교급 + S + V, the 비교급 + S + V = ~할수록 더 …하다(there + be 구문). creating = 결과의 분사구문.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mply	시사하다, 함축하다	suggest	—
extraordinary	기이한, 비범한	remarkable	ordinary
diameter	지름	—	—
emphatically	힘주어	forcefully	mildly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viable	unsustainable
grapple with	~와 씨름하다	wrestle with	avoid
probe	탐사선	spacecraft	—
glitch	(작은) 결함	malfunction	—
colonize	개척하다, 식민지로 삼다	settle	—
debris	쓰레기, 잔해	rubble	—
deliberate	고의의	intentional	accidental
collision	충돌	crash	—
vicious	악(순환)의	harmful	virtuous
hazard	위험(요소)	danger	safety

내용 일치 2019년 4월 10일 첫 블랙홀 사진 · 아인슈타인 연구가 시사한 지 100년 뒤 · 물리학을 많이 몰라도 감동 · 약 5,500만 광년 · 지름 = 지구의 약 300만 배 · '지구돋이' = 윌리엄 앤더스 · 1968년 아폴로 8호 · 달 표면 위로 떠오르는 지구 · 두 사진 모두 우주 속 우리의 자리를 묻지만 방향이 다름 · 지구돋이 =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 블랙홀 = 우주의 기묘함과 우리의 작음 · 같은 주 베레시트(이스라엘 '민간' 달 탐사선) 기술 결함 · 추락 · 스페이스X = 화성 개척 계획 ·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든 개척해도 되는가(저자의 물음) · 우주 감시망 2만 2,300개 · 유럽 우주국 = 2022년 초 1cm 넘는 물체 100만 개 넘게 · 10cm 넘는 것 3만 6,500개 · 1mm 넘는 것 1억 3,000만 개 · 2007년 중국 = 자국 위성을 '고의로' 파괴 → 3,400개 · 2년 뒤 두 위성의 '사고' 충돌 → 2,300개 · 쓰레기 대부분 = '낮은' 궤도 · 물체 ↑ → 충돌 ↑ → 쓰레기 ↑(악순환) · 자주 쓰는 궤도가 위험해짐 · 지구 – 달 · 지구 – 화성 왕래에도 위험 · 왕래가 늘 수 있다(일부의 생각). **밑줄 의미** calls on us to assess our place =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따져 보게 함 / the two images pull us in different directions = 지구돋이는 지구를 지키는 쪽으로, 블랙홀은 낯선 우주와 우리의 작음 쪽으로 생각을 이끎 / a vicious spiral = 물체 → 충돌 → 쓰레기 → 다시 충돌로 갈수록 나빠지는 순환 / 243쪽 ¶1 it showed = 블랙홀 사진 · that sphere = 지구 / ¶2 Its venture = 베레시트 · their own planet = 인간이 사는 지구 / ¶3 its own satellites = 중국 / ¶4 which(some think could increase) = 지구 – 달 · 지구 – 화성 사이의 왕래.

> **한 줄 요약** 첫 블랙홀 사진과 '지구돋이'는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베레시트와 스페이스X는 우주 개척의 윤리를 묻게 하며, 이미 지구 궤도에는 악순환을 낳을 만큼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다.

12-6 쟁점과 저자의 답 – 우주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244쪽 ¶1 ~ 245쪽 ¶2

원문 위치 원서 244쪽 ¶1 ~ 245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44쪽 ¶1 첫 문장	SpaceX's plan to put 30,000 Starlink satellites into orbit (in addition to the 1,800 already there)	숫자 — 서답형 · 함정 1,800
◆	244쪽 ¶1 둘째 문장	in a phrase that could portend a different way of looking at space	could portend — 단정 금지 · 빈칸 후보
◆	244쪽 ¶2 첫 문장	"modern life depends on the uninterrupted availability of space infrastructures"	유럽 우주국의 말 — 삽입 지문
▲	244쪽 ¶2 둘째 문장	There is also a risk to people on the ground from re-entering space entities.	there is 구문 · 현재분사 전치
★	244쪽 ¶3 첫 문장	removing some of the junk already in orbit is a moral imperative	도덕적 의무 — 주어진 문장 자리
▲	244쪽 ¶3 둘째 문장	such a difficult task that Space Force—the newest branch of the US military—is offering substantial prizes	such ~ that · 동격 대시
▲	244쪽 ¶4 첫 문장	The risks that space debris pose impl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littering the atmosphere.	주어와 동사 사이 관계절 · that 생략
◆	244쪽 ¶4 둘째 문장	those who think that the preservation of wilderness is important for its own sake	환경 윤리의 두 관점 — 어법 지문
◆	244쪽 ¶4 다섯째 문장	is there some intrinsic value in preserving places beyond our own planet as they were prior to human contact?	저자의 물음 — 판정하지 않음
★	244쪽 ¶5 첫 문장	from the physics institute and the faculty of theology, respectively, at the University of Bern	소속 — respectively
▲	244쪽 ¶5 셋째 문장	Jeff Bezos's Blue Origin, which envisages a day when Earth's resources will be insufficient	계속적 which · 관계부사 when — 어법
◆	244쪽 ¶6 둘째 문장	The biological contamination of extraterrestrial environments may be of greater concern	may — 저자의 짐작 · of + 추상명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44쪽 ¶6 셋째 문장	forever changed the ecology of previously isolated regions such as Australia and New Zealand	지명 – 내용 일치
◆	244쪽 ¶7 넷째 문장 ~ 245쪽 첫 줄	is not in itself a compelling ethical argument against leaving our traces	저자가 물리치는 논거 – 주장 지문
★	245쪽 ¶1 첫 문장	nothing more than a quarry, a rubbish dump, and a lawless frontier	밑줄 의미 · 주장 1순위
◆	245쪽 ¶2 넷째 문장	perhaps one day our descendants, or these other forms of life, will regret that failing	perhaps – 단정 금지 · 끝맺음

내용

2022년 2월 미국 항공 우주국은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 3만 기를 (이미 궤도에 있는 1,800기에 더해) 궤도에 올리려는 계획에 관해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에 편지를 보냈다. 우주 비행의 안전이 미국 항공 우주국의 걱정거리였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이 기관은 우주를 다르게 보는 방식을 예고할 수도 있는 표현으로 '우주 환경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럽 우주국도 우주 쓰레기를 걱정한다. '현대 생활은 우주 기반 시설을 끊김 없이 쓸 수 있는 데 달려 있는데' 그 시설이 쓰레기와의 충돌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우주 물체가 지상의 사람들에게 끼치는 위험도 있다. 저자는 이런 걱정만으로도 쓰레기를 더 만들지 말아야 할 까닭이 충분하며, 이 걱정들은 이미 궤도에 있는 쓰레기 일부를 치우는 것이 도덕적 의무임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미군의 가장 새로운 군종인 우주군이 그 기술을 내놓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걸고 있다. 저자는 우주 쓰레기가 낳는 위험으로 보아 대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데 무언가 잘못이 있다고 본다. 환경 윤리의 논쟁에서는 환경 보호가 인간에게 주는 이익 때문에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과, 야생의 보존이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을 흔히 구분한다. 비슷한 구분을 지구 밖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저자는 인간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지, 지구 밖의 장소를 인간이 닿기 전 모습대로 보존하는 데 어떤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 묻고 답을 정하지 않는다. 베른 대학 물리학 연구소의 앙드레 갈리와 신학부의 안드레아스 로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생각을 우주로 넓히는 것의 함의를 논의했다. 인간 중심적 윤리의 틀에 맞는 한 가지 방법은, 인류가 지구 밖으로 퍼졌기 때문에만 살아남을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생각은 화성을 개척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바람과, 지구의 자원이 인류를 지탱하기에 모자라 달이나 다른 천체에 기대야 할 날을 그리는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모두의 바탕에 있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의 우주 진출이 궤도 밖의 생명, 어쩌면 지각 있는 생명까지 위협한다면 어떻겠느냐고 묻는다. 지구 밖 환경의 생물학적 오염은 우주를 금속이나 플라스틱 조각으로 어지럽히는 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일 수 있다. 유럽인들은 병뿐 아니라 동식물을 들여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처럼 그전까지 고립되어 있던 지역의 생태를 영원히 바꿔 놓은 끔찍한 기록이 있다. 산업 혁명과 그 뒤에 이어진 모든 것은 늘어나는 인구까지 포함해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곳곳의 생태계를 해치고 대기를 오염시켰다. 이 글을 쓰는 데 쓰는 전기조차 밤을 덜 어둡게 하고 별빛을 흐리게 했다. 그래도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훨씬 편안하게 해 주었다. 저자는 결국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그 자체는,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윤리적 논증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나 별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역의 우주를 한낱 채석장이나 쓰레기장, 무법의 변경으로 대하지 않도록 애써야 할 좋은 까닭이 많으며, 여기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생각이 열쇠라고 말한다. 우리 자신의 안전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적어도 가까운 행성까지는 여행할 것으로 보이는 미래 세대의 이익을 깎아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으로 넓힐 수 있다. 궤도 밖에 다른 지각 있는 생명이나 지적 생명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자는 우리가 이 비범하고 여전히

신비로운 우주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구에 끼친 손상을 후회하듯 언젠가 후손이나 그 다른 생명체들이 그 잘못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끝맺는다.

어법

- **The safety of spaceflight was, not surprisingly, one of NASA's concerns, but the agency also referred, in a phrase that could portend a different way of looking at space, to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space environment."** : not surprisingly = 문장 부사 삽입. referred … to 사이에 in a phrase … 삽입. that = 주격 관계대명사. could = 가능성(단정 아님).
- **These concerns are reason enough to avoid the creation of more space debris, and they also suggest that removing some of the junk already in orbit is a moral imperative.** : reason enough to V = ~할 충분한 까닭(enough가 명사 뒤). suggest that = 시사하다(사실을 전하는 뜻이라 should 원형이 아닌 is). that절 주어 = 동명사구 removing … orbit → is.
- **That is, however, such a difficult task that Space Force—the newest branch of the US military—is offering substantial prizes for anyone who can come up with the technology to do it.** : such a + 형용사 + 명사 + that = 너무 ~해서 …하다. 대시 사이 = Space Force와 동격. come up with = 내놓다. to do it = technology를 꾸미는 to 부정사.
- **The risks that space debris pose impl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littering the atmosphere.** : 주어 The risks(복수) +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절 → 동사 imply(주어 risks에 맞춤). imply 뒤 명사절 접속사 that 생략. something wrong with + 동명사.
- **it is common to distinguish between those who think that protecting the environment is important only because of the benefits it brings to humans and those who think that the preservation of wilderness is important for its own sake** : 가주어 it + 진주어 to distinguish. distinguish between A and B. those who = ~하는 사람들. 동명사 주어 protecting the environment → is. the benefits (that) it brings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for its own sake = 그 자체를 위해.
- **André Galli and Andreas Losch, from the physics institute and the faculty of theology, respectively, at the University of Bern, hav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extending the id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space.** : respectively = 각각(두 사람과 두 소속을 순서대로 짝지음: 갈리 = 물리학 연구소, 로슈 = 신학부). extend A to B = A를 B로 넓히다(of 뒤 동명사).
- **Jeff Bezos's Blue Origin, which envisages a day when Earth's resources will be insufficient to sustain humanity and we will need to draw on the Moon or other objects in space** : which = 계속적 관계대명사(선행사 Blue Origin — what은 선행사를 품으므로 이 자리에 못 씀). when = 관계부사(선행사 a day). 두 절이 and로 병렬. draw on = ~에 기대다.
- **There are, however, many good reasons why, even without attributing value to the stars themselves, we should strive to avoid treating our corner of space as nothing more than a quarry, a rubbish dump, and a lawless frontier.** : reasons why = 관계부사 why(선행사 reasons). attribute A to B = A를 B에 부여하다. strive to V. avoid + 동명사(treating). treat A as B · nothing more than = 한낱 ~일 뿐.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ortend	예고하다	foreshadow	—
uninterrupted	끊김 없는	continuous	interrupted
imperative	꼭 해야 할 일, 의무	necessity	—
substantial	상당한	considerable	negligible
litter	(쓰레기로) 어지럽히다	—	clean up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wilderness	야생, 황야	the wild	civilization
intrinsic	내재적인	inherent	extrinsic
anthropocentric	인간 중심적인	human-centered	—
envisage	그리다, 상상하다	envision	—
contamination	오염	pollution	purification
awe	경외감	wonder	contempt
compelling	설득력 있는	convincing	unconvincing
quarry	채석장	pit	—
descendant	후손	offspring	ancestor

내용 일치 2022년 2월 미국 항공 우주국 →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 스타링크 3만 기(이미 있는 1,800기에 더해) · 안전(놀랄 일 아님) + '우주 환경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우주를 다르게 보는 방식을 예고할 '수도') · 유럽 우주국 = 현대 생활이 우주 기반 시설에 의존 · 충돌로 파괴 · 다시 들어오는 물체 = 지상의 위험 · 더 만들지 말 까닭 충분 · 일부 치우기 = 도덕적 의무임을 시사 · 너무 어려워 우주군(미군의 가장 새로운 군종)이 상금 · 환경 윤리 = 인간에게 주는 이익 vs 그 자체를 위한 보존 → 지구 밖 환경에도(저자의 물음, 판정 없음) · 갈리(물리학 연구소) · 로슈(신학부) = 베른 대학 · 인간 중심적 틀 = 지구 밖으로 퍼져야만 살아남을 때가 올 '수도' · 머스크의 화성 ·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 생물학적 오염 = 금속 · 플라스틱보다 더 큰 걱정일 '수도'(may) · 유럽인의 식민지 오염(병 · 동식물 →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산업 혁명 이후 생태계 · 대기 손상 · 전기 → 별빛 흐림 · 기술 = 삶을 편안하게 · 경외감 자체는 설득력 있는 논증 아님 · 별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아도 채석장 · 쓰레기장 · 무법의 변경으로 대하지 말아야 ·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열쇠 · 안전 → 미래 세대(가까운 행성까지는 여행할 듯 — seem likely) → 다른 생명의 가능성 · 후손이 후회할지도(perhaps). **밑줄 의미** a different way of looking at space = 우주를 지속 가능하게 지켜야 할 '환경'으로 보는 방식(could — 예고할 수도) / a moral imperative = 쓰레기 일부를 치우는 일은 해야 할 도덕적 의무 / for its own sake = 인간에게 주는 이익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 repeat the same mistakes = 식민지에 병 · 동식물을 퍼뜨린 것처럼 우주를 생물학적으로 오염시킴 / a quarry, a rubbish dump, and a lawless frontier = 캐 가고, 쓰레기를 버리고, 규칙 없이 차지하는 곳 / 244쪽 ¶1 the agency = 미국 항공 우주국 / ¶3 These concerns = 기반 시설 파괴 · 지상의 위험 등 · That(That is) · to do it = 궤도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 / ¶4 it(protect it) = 지구 밖 환경 / ¶5 That thought = 지구 밖으로 퍼져야만 살아남을 때가 올 수 있다는 생각 / 245쪽 ¶2 that failing = 우주를 존중하지 못한 잘못.

> **한 줄 요약** 저자는 궤도의 쓰레기 일부를 치우는 것이 도덕적 의무로 보이며, 경외감만으로는 논증이 안 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의 눈으로 우리의 안전 · 미래 세대 · 다른 생명의 가능성을 생각해 우주를 채석장 · 쓰레기장 · 무법의 변경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12 FUTURE]

범위	Rights for Robots? · Can AI Be Ethical? · Should We Colonize Outer Space? (원서 PDF 232~245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eeling awe at how vast the cosmos is does not by itself give us a convincing ethical reason to leave no traces in the parts of space within reach. Even so, the authors hold that there are many good reasons, none requiring us to give the stars any value of their own, for refusing to treat our part of space as nothing but a mine, a garbage dump, and a frontier without laws. Sustainable development is key. We can begin with our safety and the health of our environment, then widen our concern to the generations to come and to the chance that other sentient or intelligent beings exist beyond our orbit.

① Space exploration should stop until all debris is cleared.
② The stars have value in themselves, so space must stay untouched.
③ Nearby space should be developed sustainably, not used as a mere quarry or dump.
④ Our awe at the universe is the best reason to protect space.
⑤ Anyone with the means may colonize space for any purpose.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Novels and films raise a darker question: will we one day need to protect our civilization from the intelligent machines we ourselves have built? Some people think superhuman machine intelligence is bound to arrive by 2070 at the latest, and if it does, what will matter most is whether those machines are friendly. Much effort now goes into keeping our creations from turning against us and making sure that machines as clever as we are, or cleverer, share our values. Far less attention has gone to the reverse worry: that we, not the robots, will be the ones doing the harm. Robots are mere property today, but suppose they grew complex enough to have feelings. Is the human brain, after all, anything more than a highly complex machine?

① Superhuman AI Will Surely Arrive by 2070
② How Novels and Films Imagine Robots
③ Making Intelligent Machines Share Our Values
④ Why Robots Can Never Have Feelings
⑤ Should We Fear Robots, or Should Robots Fear Us?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orecasts of when machines will equal or overtake human intelligence call for some skepticism. Only 31 percent of the experts surveyed responded, and people working in AI have a motive to make their field seem important by advertising the dramatic results it might bring. On top of that, superintelligence may look too remote to bother about when far more urgent problems are crying out for attention. Even so, the author believes there are good grounds for starting now to think about how AI might be built so that it gives weight to what is good or bad for humans and, indeed, for every sentient being, machines included if they too turn out to be conscious.

① Experts agree that superintelligence will arrive within thirty years.
② Despite shaky forecasts, we should start thinking now about designing AI that considers all sentient beings.
③ Because forecasts about superintelligence are unreliable, we can safely ignore the issue for now.
④ AI researchers should stop making predictions about their field.
⑤ More pressing problems must be solved before we think about AI.

4. 밑줄 친 let's not be like those impatient sparrow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Bostrom opens Superintelligence with a fable. Some sparrows decide it would be wonderful to have an owl help them with nest-building and with looking after their chicks, so they set off in search of an owl egg. A single sparrow protests that they ought to work out first how an owl might be tamed, but the rest are too eager to start the thrilling new project to listen. They plan to deal with training the owl, teaching it not to eat sparrows, for instance, only after they have managed to raise one. If the owl we hope to create is to be wise and not merely clever, let's not be like those impatient sparrows.

① We should work out how to make a powerful AI act ethically before we build it.
② We should give up trying to build intelligent machines.
③ We should raise intelligent machines as carefully as birds raise their chicks.
④ We should make machines more intelligent before teaching them ethics.
⑤ We should let AI experts decide which projects to pursue.

5. 밑줄 친 the two images pull us in different direction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On April 10, 2019, the first picture of a black hole was released, a hundred years after Einstein's work had pointed to such strange objects. The black hole lay roughly 55 million light-years away and was around 3 million times as wide as the Earth. Like 'Earthrise,' the photograph William Anders took during Apollo 8 in 1968, showing the Earth coming up over the moon, this image invites us to reflect on where we stand in the cosmos, yet the two images pull us in different directions. 'Earthrise' let us see our home as a ball floating in space and showed how much it matters to keep that ball sustainable, whereas the black hole compels us to face how strange the universe is and how tiny our part of it.

① One image was produced in 2019, while the other was taken in 1968.
② Both images show that the Earth is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③ One image is about physics, while the other is about art.
④ One turns us toward caring for our own planet, while the other makes us face a strange universe in which we are tiny.
⑤ The images make people disagree about whether space should be explored.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At about the time AlphaGo won, Microsoft's chatbot Taylor, designed to chat with people between 18 and 24, was learning a hard lesson. Calling ① herself 'Tay,' the program was meant to learn from incoming messages and slowly get better at keeping conversations lively. Within 24 hours, however, people had taught ② her racist and sexist views, and once ③ she started speaking well of Hitler, Microsoft shut her down and removed her most offensive posts. The author cannot say whether the people who made Tay a racist were racists ④ themselves or merely thought it would be funny to spoil Microsoft's new toy. In any case, set beside AlphaGo's victory, ⑤ her defeat warns us about releasing AI from a rule-bound game into the unpredictable real world.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Ventures beyond our planet, both public and private, have already produced one obvious result: a vast amount of debris orbiting the Earth. Space Surveillance Networks keep track of 22,300 objects. According to estimates from the European Space Agency, over a million pieces larger than 1cm were circling the planet early in 2022, among them 36,500 bigger than 10cm, along with 130 million bigger than 1mm. In 2007 China destroyed a satellite of its own on purpose while testing an anti-satellite rocket, and that single event created 3,400 new trackable objects; two years afterward, an accidental crash between two satellites produced another 2,300. In low orbits, where the bulk of the debris is found, more objects will mean more collisions, and more collisions will mean still more debris.

① 우주 감시망은 100만 개가 넘는 물체를 추적하고 있다.
② 2007년 중국의 위성 파괴는 사고로 일어났다.
③ 유럽 우주국은 2022년 초 10cm보다 큰 물체가 3만 6,500개라고 추정했다.
④ 두 위성의 충돌로 추적 가능한 물체 3,400개가 새로 생겼다.
⑤ 쓰레기는 대부분 높은 궤도에 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These days robots carry out a wide range of jobs, from waiting on tables in restaurants to making bombs safe. Children and adults alike play with robot toys, and in more and more homes robotic vacuum cleaners are picking up dirt and, if YouTube videos are anything to go by, amusing cats as well. Robots even have their own soccer World Cup, part of a project whose goal is that, by 2050, a team of robots will beat the humans who won the latest World Cup. To judge from the level of play at the 2019 RoboCup in Sydney, however, human footballers have nothing to fear for now. Of course, chess and Go are another story.

① 로봇은 식당에서 시중을 들거나 폭탄을 해체하는 일을 한다.
②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 로봇 청소기는 고양이를 즐겁게 하기도 한다.
③ 로봇 월드컵 프로젝트는 2050년까지 사람 우승 선수들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④ 2019년 시드니 로보컵의 수준으로 보아 사람 축구 선수들은 이미 위협을 느낄 만하다.
⑤ 체스와 바둑은 축구와 사정이 다르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Space debris suggests it is wrong to litter the atmosphere. Environmental ethicists often distinguish people who value protecting nature only for the good ① it does for humans from people who think wilderness is worth ② preserving for its own sake. Beyond the Earth, too, we may ask whether to protect such places because doing so ③ benefits us or because keeping them untouched has intrinsic value. Two scholars at the University of Bern, André Galli and Andreas Losch, have explored what ④ it would mean to apply sustainable development to space. A human-centered idea is that humanity may someday survive only by spreading beyond the Earth, a thought behind Jeff Bezos's Blue Origin, ⑤ what imagines a time when Earth's resources can no longer sustain us.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Nick Bostrom, who heads Oxford University's Future of Humanity Institute, argues in Superintelligence that an intelligent machine may not always be switched off as easily as Tay (A) [was / did]. In his definition, superintelligence is an intellect that outdoes the finest human minds in nearly every area, and such a system might outwit our efforts to shut it down. Bostrom and Vincent Müller surveyed AI experts, asking them to name the years by which machines would have an even chance, and then a 90 percent chance, of (B) [reach / reaching] human-level intelligence. The median answers were 2040–2050 for the first and 2075 for the second, and most of the experts (C) [was / were] expecting superintelligence to arrive within 30 years after that level was reached.

	(A)	(B)	(C)
①	was	reaching	were
②	did	reaching	were
③	was	reach	were
④	was	reaching	was
⑤	did	reach	was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For more than ten years robots have helped care for older people, and demand keeps ① rising: in some wealthy societies the elderly form a growing share of the population, while too few people are willing to work in care homes. The robots handle ② simple jobs such as bringing food and water, as well as harder ones such as games, appointment reminders, and even social interaction. Is it wrong for people to talk with a robot ③ instead of a human, or for parents to hire robots to mind their children? Noel Sharkey, a Sheffield professor of AI and robotics, has wondered what ④ effect it will have on a child to spend long hours with a machine that is ⑤ able to express real empathy, understanding, or compassion.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Suppose machines really could become conscious. Would we then pay attention to how they feel? Our record gives little comfort. Animals are the sole sentient nonhumans we have so far met, and the way we have dealt with them gives us no reason to expect that we would _____. The worry deepens when we recall how new technologies behave: once a powerful device becomes affordable, it usually spreads quickly and beyond anyone's control. If conscious robots were turned out in large numbers while few people regarded them as belonging to our moral community, the outcome could be mistreatment on a massive scale.

① sell conscious robots at a reasonable price
② recognize sentient robots as more than mere property
③ build robots that are more intelligent than animals
④ stop using animals in order to develop robots
⑤ prefer robots to animals as companion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hese worries argue against adding debris and point to a moral duty to clear away part of the junk now in orbit.

In February 2022, SpaceX's plan to add 30,000 Starlink satellites beyond the 1,800 now in orbit led NASA to write to America'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Safe spaceflight was among its worries. (①) Yet it also spoke of keeping the space environment sustainable in the long run. (②) Europe's space agency is worried too, since modern life relies on space infrastructure that collisions with debris keep destroying. (③) Falling objects also endanger people below. (④) That task, however, is so hard that America's Space Force is offering big prizes for technology that can do it.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Since driverless cars are now on California's roads, we may ask whether a machine can be programmed to act ethically. ① Making fewer errors than human drivers, improved driverless cars will save lives. ② Sometimes, though, they will have to choose between lives: should a car swerve to miss a child dashing into the street at its passengers' risk, or for a dog? ③ In the week the first black hole image appeared, Israel's private probe Beresheet crashed on the moon after a technical fault. ④ Such cases may teach us something, but a driverless car is hardly a superintelligent being. ⑤ Giving ethical training to a machine that outthinks us in many fields would be far harder.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lphaGo, a program built to play Go, stunned the game's fans by beating Lee Sidol, a top-ranked professional, four games to one in a five-game match.

(A) Go, however, uses a far bigger board, 19 by 19 against chess's 8 by 8, and its possible moves outnumber the atoms in existence, so brute computing power seemed unlikely to beat a human's intuition.

(B) Why should this be news? Twenty years earlier, IBM's Deep Blue had beaten Garry Kasparov, then world chess champion. But Deep Blue won by brute calculation, looking further ahead through more moves than any champion could.

(C) Rather than trying to out-calculate such intuition, AlphaGo learned by playing vast numbers of matches against other programs and keeping whatever strategies worked, in effect evolving within two years into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difficult question is how we could know whether a robot is truly conscious or merely built to imitate consciousness. Its programming offers a clue: if its designers wrote code meant only to create the appearance of consciousness, we would have no grounds for thinking it conscious. If, however, it was given humanlike capacities that might, as a side effect, produce consciousness, there would be good reason to believe it truly was. When Harris and Anthis looked at 294 relevant works on the topic in 2021, they reported a broad consensus that some artificial entities will one day deserve moral consideration.

→ Whether a robot is really conscious can be judged partly by how it was (A) _____, and a 2021 review found wide (B) _____ that some artificial beings will merit moral consideration in the future.

① designed ..... agreement
② designed ..... disagreement
③ used ..... agreement
④ priced ..... doubt
⑤ advertised ..... disagreement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The RoboCup project hopes that by 2050 a team of robots will defeat the latest human World Cup champions, though the 2019 event in Sydney suggested this is still far off. In 2021, Harris and Anthis reviewed 294 relevant works on the moral status of artificial beings. AlphaGo beat Lee Sidol 4–1, while Microsoft's chatbot Tay picked up racist ideas and, once she praised Hitler, was shut down. Only 31% of the AI experts surveyed by Bostrom and Müller replied. In 2007, China's deliberate destruction of its own satellite added 3,400 trackable objects, and SpaceX plans to launch 30,000 Starlink satellites beyond the 1,800 already in orbit.

<QUIZ>

(1) By what year does the RoboCup project hope robots will beat the human World Cup champions?

Answer for (1): _____

(2) How many relevant works did Harris and Anthis review in 2021?

Answer for (2): _____

(3) By what score did AlphaGo beat Lee Sidol?

Answer for (3): _____

(4) What percentage of the experts surveyed by Bostrom and Müller replied?

Answer for (4): _____

(5) Is it true or false that Microsoft kept Tay running after she praised Hitler?

Answer for (5): _____

(6) How many trackable objects did China's 2007 satellite destruction add?

Answer for (6): _____

(7) How many new Starlink satellites does SpaceX plan to launch?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3,400	N. 2021
B. 4–1	O. 2050
C. 2070	P. 13%
D. 1,800	Q. 36,500
E. True	R. 294
F. 2,300	S. 2007
G. 2019	T. False
H. 2075	U. 1968
I. 31%	V. 30
J. 22,300	W. 2022
K. 24	X. 5–0
L. 30,000	Y. 90%
M. 3–2	Z. 55 million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일부 부유한 사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시설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부족하다. (형용사구 후치(willing to V))

02 일부는 초인적 인공지능의 개발을 피할 수 없다고 여기고, 늦어도 2070년에는 그 일이 일어나리라 예상한다. (consider + O + C / expect + O + to V / no later than)

03 그러나 로봇이 느낌을 가질 만큼 충분히 복잡해진다면 어떨까? (What if ~? / sufficiently + 형용사 + to V)

04 로봇이 어떻게 프로그래밍되었는지 이해하면 단서를 얻을 것이다. (동명사 주어 / 간접의문문 / 과거완료 수동)

05 IBM 컴퓨터 딥 블루가 카스파로프를 이긴 지 20년이 지났다. (시간 + have passed since + 과거)

06 알파고는 자연 선택이 수백만 년 걸린 일을 단 2년 만에 이루었다. (what절 / take + 시간 + to V)

07 게임 안에서 인공지능을 풀어놓는 것과 현실 세계에 인공지능을 내놓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It is one thing to A; it is something very different to B)

08 우리보다 똑똑한 기계에 윤리를 가르치는 일은 훨씬 더 벅찬 과제다. (동명사 주어 + 단수 동사 / far + 비교급)

09 블랙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작은 일부일 뿐인 우주의 기묘함과 씨름하지 않을 수 없다. (force + O + to V / of which)

10 물체가 많을수록 충돌이 많아질 것이다. (the 비교급 ~, the 비교급 …)

11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우주군이 큰 상금을 걸고 있다. (such a + 형용사 + 명사 + that)

12 별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구역의 우주를 한낱 채석장으로 대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attribute A to B / strive to V / avoid -ing / nothing more than)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로봇 축구 프로젝트의 목표 연도 / 최근 대회의 해 · 도시	
노인 돌봄에 로봇을 쓴 기간	
공감을 표현 못 하는 기계를 물은 교수 · 소속	
일부가 예상한 초인적 인공지능의 시점	
지금까지 만난 유일한 인간 아닌 지각 있는 존재	
문헌을 검토한 두 사람 · 해 / 찾은 관련 문헌	
알파고에게 진 기사 / 점수	
체스 챔피언을 이긴 컴퓨터 · 진 챔피언 / 그 뒤 지난 시간	
바둑판 / 체스판 / 알파고가 최고가 되기까지	
'인류가 승자'라고 한 사람 / 그의 자리	
테이를 만든 회사 · 대상 나이 / 인종차별을 배우기까지	
『Superintelligence』의 저자 · 소속	
설문 중앙값(반반 / 열에 아홉) / 응답률	
첫 블랙홀 사진 날짜 / 거리 / 지름	
'지구돋이'를 찍은 사람 · 해 · 임무	

항목	답
우주 감시망이 추적하는 물체 / 2022년 초 1cm 넘는 물체	
2007년 중국의 위성 파괴 / 2년 뒤 두 위성의 충돌	
스타링크 계획 / 이미 궤도에 있던 것 / 상금을 건 곳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주로 넓힌 두 사람 · 대학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Should We Colonize Outer Space?」에서 저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 자신의 안전과 환경에서 출발해 넓혀 가자고 하며 아래 문장을 썼다. 같은 영어 낱말이 다른 두 편에서도, 의식이 있을 수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까닭을 말할 때 쓰인다. 빈칸에 들어갈 영어 명사 한 단어를 원서에서 찾아 쓰고, 그 근거를 「Rights for Robots?」와 「Can Artificial Intelligence Be Ethical?」에서 하나씩 찾아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지속 가능한 발전을 넓히는 자리: We can start with concern for our own safety and the sustainability of our environment. We can extend this by recognizing that we should not discount the _____ of future generations, who seem likely to travel at least to our nearer planet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